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475-01

2018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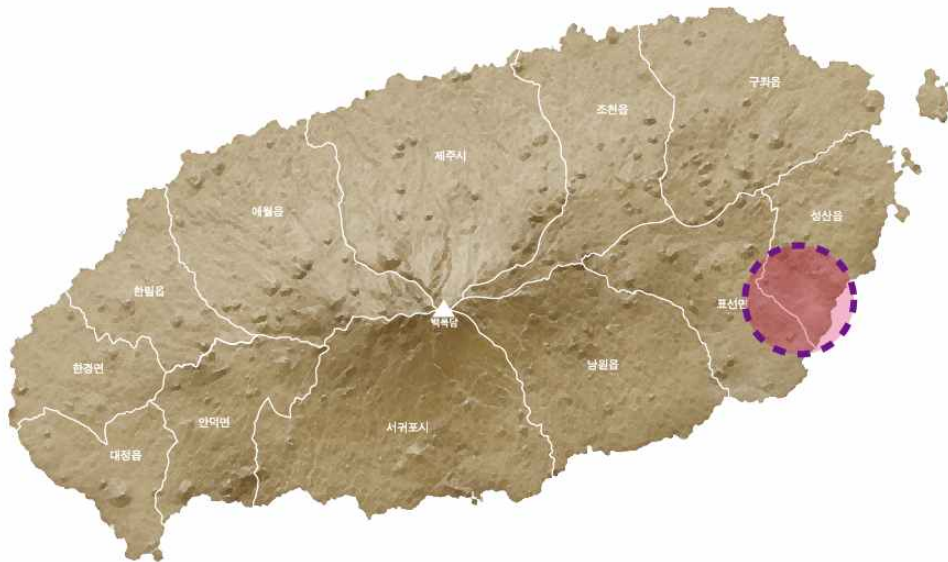
# 제주어구술자료집

-성산읍 삼달리

구술: 김해생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김미진

# 13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11-2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3

-성산읍 삼달리

## 목 차

### I. 사업 개요

|                         |   |
|-------------------------|---|
| 1. 사업 목적 .....          | 5 |
| 2. 사업 기간 .....          | 5 |
| 3. 사업 참여자 .....         | 5 |
|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 6 |
| 5. 사업 추진 과정 .....       | 7 |
| 6. 표준어 대역 .....         | 8 |
| 7. 주석 .....             | 8 |

### II. 구술 자료

|                 |     |
|-----------------|-----|
| 1. 조사 마을 .....  | 9   |
| 2. 제보자 일생 ..... | 19  |
| 3. 밭일 .....     | 43  |
| 4. 들일 .....     | 78  |
| 5. 바다일 .....    | 105 |
| 6. 의생활 .....    | 131 |
| 7. 식생활 .....    | 166 |
| 8. 주생활 .....    | 249 |
| 9. 신앙 .....     | 285 |
| 10. 세시풍속 .....  | 290 |
| 11. 놀이 .....    | 331 |
| 12. 통과례 .....   | 345 |



# 1.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 2. 사업 기간

2018년 3월 20일~2018년 12월 31일

## 3. 사업 참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 이름  | 소속             | 분야         | 구분                  |
|-----|----------------|------------|---------------------|
| 김순자 | 제주학연구센터        | 국어학(제주도방언) | 연구 책임·총괄<br>표선면 성읍리 |
| 강영봉 | (사)제주어연구소      | 국어학(제주도방언) | 교열 및 감수             |
| 김미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국어학(제주도방언) | 조천읍 함덕리<br>성산을 삼달리  |
| 김보향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국어학(제주도방언) | 구좌읍 한동리<br>애월읍 고내리  |
| 허영선 | 제주대학교 강사       | 한국학(제주역사)  | 표선면 성읍리             |
| 최연미 | 돌을양지책드르        | 국문학        | 남원읍 수망리             |
| 김승연 | (사)제주학연구소      | 한국학(제주무속)  | 서귀포시 하원리            |
| 김성용 | 귀일중학교          | 국어학(제주도방언) | 안덕면 대평리             |
| 신우봉 | 제주대학교          | 국어학(제주도방언) | 대정읍 신도리             |
| 안민희 | 민요패 소리왓        | 한국학(제주민요)  | 한경면 청수리             |
| 현혜림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 국어국문학      | 연구 보조               |

####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그리고 제보자와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번호 | 조사 지점    | 제보자   | 조사자         |
|----|----------|---|-------------|
| 11 | 조천읍 함덕리  | 한아섭, 이용진  | 김미진         |
| 12 | 구좌읍 한동리  | 오문봉, 오태봉  | 김보향         |
| 13 | 성산을 삼달리  | 김해생   | 김미진         |
| 14 | 표선면 성읍리  |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 김순자<br>·허영선 |
| 15 | 남원읍 수망리  |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 최연미         |
| 16 | 서귀포시 하원리 | 김기연, 오연옥  | 김승연         |
| 17 | 안덕면 대평리  | 강인숙, 양성지  | 김성용         |
| 18 | 대정읍 신도리  |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 신우봉         |
| 19 | 한경면 청수리  | 문창립, 강성현, 강대홍, 이오생, 오옥희,<br>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 안민희         |
| 20 | 애월읍 고내리  |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 김보향         |

## 5. 사업 추진 과정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ᄃ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헛구나’처럼 ‘ㄴ’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7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함덕리’ 구술 자료가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현지 추가 채록      |    |    |    |    |    |    |    |     |     |     |
| 추가 전사         |    |    |    |    |    |    |    |     |     |     |
| 표준어 대역        |    |    |    |    |    |    |    |     |     |     |
|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    |    |    |    |    |    |    |     |     |     |
| 자료집 발간        |    |    |    |    |    |    |    |     |     |     |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거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렁팻’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단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II. 구술 자료

(@: 김미진, #: 김해생)

### 1. 조사 마을

101001 @ 이 삼달리가 어떻 행 생겼저 헌 말 이수과?(이 삼달리가 어떻게 해서 생겼다 하는 말 있습니까?)

101001 # 옛날 삼달리?(옛날 삼달리?)

101001 @ 응, 옛날 이름은 무신거파?(응, 옛날 이름은 무엇입니까?)

101001 # 옛날은 삼달리.(옛날은 삼달리.)

101001 @ 옛날도 삼달리?(옛날도 삼달리?)

101001 # 응, 옛날에 삼달리난 시방 상하동 행, 옛날도 삼달리. 삼달린디 웃동넨 저 시방은 일리, 이리 해도 웃삼달리<sup>1)</sup>, 알삼달리<sup>2)</sup>.(응, 옛날도 삼달리니까 시방 상하동 해서, 옛날도 삼달리. 삼달리인데 윗동네 시방은 일리, 이리 해도 윗삼달리, 아랫삼달리.)

101001 @ 웃삼달리, 알삼달리?(윗삼달리, 아랫삼달리?)

101001 # 응, 이 동넨 요 바당이 주어<sup>3)</sup>리난 주어코지<sup>4)</sup>.(응, 이 동네는 요 바다가 ‘주어리’니까 ‘주어코지’.)

101001 @ 주어코지.(‘주어코지’.)

101001 # 응, 주어이. 이디.(응, ‘주어’. 여기.)

101001 @ 주어리?(‘주어’리?)

101001 # 주어, 주어.(‘주어’, ‘주어’.)

101001 @ 주어.(‘주어’.)

101001 # 응, 이 동넨 주어. 저 상동은 웃삼달리. 옛날은 웃삼달리, 알삼달리 해 낫주.(응, 이 동네는 ‘주어’. 저 상동은 윗삼달리. 옛날은 윗삼달리, 아랫삼달리 했었지.)

101001 @ 아, 혹시 옛날에 누게가 어떻행 사람이 살게 됐저 영 허는 말 잇수과?(아, 혹시 옛날에 누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살게 됐다 이렇게 하는 말 있습니까?)

101001 # 옛날에 \*\*\* 하르방이 어디 저 ㄱ을이엔 헌 걸 시방 ㄱ뜨민 과거 떼우

1) ‘웃삼달리’는 위쪽에 있는 성산을 삼달리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의 삼달1리를 말한다.

2) ‘알삼달리’는 아래쪽에 있는 성산을 삼달리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의 삼달2리를 말한다.

3) ‘주어’는 성산을 삼달2리의 지명이다.

4) ‘주어코지’는 ‘주어’ 즉 삼달2리를 이르는 지명이기도 하고 주어 마을이 바다쪽으로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레, 저 시에 어디 땡기단에 저 웃삼달리 오란에 이제 터준디 그디 시방 본향이랴. 웃삼달리 본향이난 이제. 정월 초이틀에 가고 저 이제 유월 열사흘날, 건 영등하르방으로 행은 바당에 죽은 하르방으로 가곡 칠월 열사흘에 땡기고 경허는 거.(옛날에 \*\*\* 할아버지가 어디 저 고을이라고 한 걸 시방 같으면 과거 보러, 저 제주시에 어디 다니다가 저 윗삼달리 와서 이제 터주인데 거기 시방 본향이야. 윗삼달리 본향이니까 정월 초이틀에 가고 유월 열사흘날, 건 영등할아버지로 해서는 바다에 죽은 할아버지로 가고 칠월 열사흘에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

101001 @ 본향에?(본향에?)

101001 # 본향인디, 본향이 막 커.(본향인데, 본향이 아주 커.)

101001 @ 응.(응.)

101001 # 툰 디 시집강이라도 쫓기민 그 본향에 오라 땡겨야여. 게난 본향이 막 커. 그디 하르방이 경행 저 하르방이 그디 오라근에 작명행 삼달리엔 행, 저 물 좋고 저 영아리 무신 물 좋고 무신거 헛젠 허난 안정헛젠 허주게.(다른 데 시집가도 쫓기면 그 본향에 다녀가. 그러니까 본향이 아주 커. 거기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저 할아버지가 거기 와서 삼달리라고 해서 저 물 좋고 뭐했다고 하니까 안정됐다고 하지.)

101001 @ 아.(아.)

101001 @ 처암에.(처음에.)

101001 @ 처음에 경혜근에 이디 사름이 살기 시작헛구나예.(처음에 그래서 여기 사람이 살기 시작헛군요.)

101001 # 응, 경행 살기 시작헌디 경허난 그 본향에 그디 오란에 초상에 앓안근에 쫓기민 아으덜도 그디 가오민 좋고, 따시 또 무시거 못헛 일 그디 가오민 좋고 허여 노난, 즈손덜이 경 게나저나 경 그디만. 아파도 그디 가오곡 따시 또 어디 영 과거 뜨레나 시험 보레 가젠 해도 그딜 강 땡기곡 허여.(응, 그렇게 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본향에 거기 와서 조상에 앓아서 쫓기면 아이들도 거기 갔다오면 좋고, 다시 또 무엇 못헛 일 거기 갔다오면 좋고 해 놓으니까, 자손들이 그렇게 그러나저러나 그렇게 거기만. 아파도 거기 갔다오고 다시 또 어디 이렇게 과거 보러나 시험 보러 가려고 해도 거기 가서 다니고 해.)

101001 @ 어디 신 거봐, 그건?(어디 있는 겁니까, 그건?)

101001 # 저 우이, 저 우이 이서.(저 위에, 저 위에 있어.)

101001 @ 아, 저 웃삼달보다 더 우에?(아, 저 윗삼달보다 더 위에?)

101001 # 웃삼달리보단도 더 우이라.(윗삼달리보다도 더 위에야.)

101001 @ 그디 쪽 가단 보단 무슨.(거기 쪽 가다 보니 무슨.)

101001 # 그디 못 바레여.(거기 못 봐.)

101001 @ 아, 못 바레여.(아, 못 봐.)

101001 # 응, 못 바레여. 게난 그디서 헨 해가난 어디 저 상동에 가민 상동네 어디 이장네 집이나 좇아가사 그디 마리쳐주주, 못 마리쳐줘.(응, 못 봐. 그러니까

거기서 해서 해가니까 어디 저 상동에 가민 상동네 어디 이장네 집에 찾아가야 거기 가르쳐 주지, 못 가르쳐 줘.)

101001 @ 아.(아.)

101001 # 우린 늙은 할망이라부난 못 ㄴ리치주게. 그디 집 짓어 놔근에 전기도 걸어놓고 다 헛젠 허주게.(우린 늙은 할머니라서 못 가르쳐주지. 거기 집 짓어 놓아서 전기도 걸어놓고 다 했다고 하지.)

101001 @ 아, 기짜?(아 그렇습니까?)

101001 # 영현 수도도 다 짓어 놓곡 만딱 그디 전기도 다 걸언 잇고.(이런 수도도 다 지어 놓고 모두 거기 전기도 다 걸어서 잇고.)

101001 @ 구경가사켜.(구경가야겠다.)

101001 # 경현 디 이서. 경현디 그거 아무나 문 열어주진 안허여.(그런 데 있어. 그런데 그거 아무나 문 열어주지 않아.)

101001 @ 밖에, 베끗디서 봐야주게.(밖에, 밖에서 봐야지.)

101001 # 응, 베끗디서.(응, 밖에서.)

101001 @ 베끗디서 봐야주게.(밖에서 봐야지.)

101001 # 응, 베끗디서. 큰 초상 행 그디 경 탕기주게. 계난 설맹질엔 도새기케기도 안 행 똑 저 도새기 적도 안 해, 그디 탕기젠 허민. 쉼께기만 행, 적 안허고. 도새기 케기 먹으면 혼 삼일 정성해사 그디도 가. 도새기 케기 원 안 먹영 그자. 정성 막 해사 가.(응, 밖에서. 큰 조상 해서 거기 그렇게 다니지. 그러니까 설맹절엔 돼지고기도 안 해서 꼭 저 돼지 적도 안 해, 거기 다니려고 하면. 소고기만 해서, 적 안하고, 돼지고기 먹으면 한 삼일 정성해야 거기도 가. 돼지고기 원 안 먹어서 그저. 정성 막 해야 가.)

101001 @ 아까 영등 하르방?(아까 영등 할아버지?)

101001 # 영등 하르방이엔 현 건 저 육지서 죽은 하르방이 이 바당, 제주 들어오랑, 들어오랑 현디, 그땐, 이젠 할망이엔, 그땐 하르방이엔도 허곡 현디, 그 하르방 헤영 들어오젠 허민 이제 막 이디 들어오젠 허민 막 열게 출령 오민 따시 저 열렌, 더우렌, 막 돛으고, 따시 또 우장 썩 이제 하르방 들어오민 따시 비오랑 나가젠 허민 비오고, 따시 나가젠 허민 브름 불곡 경현 하르방 헤다근에 그 다 바당에 탕기는 어른덜은 그거 다 그디 탕기주.(영등 할아버지라고 한 건 저 육지에서 죽은 할아버지가 이 바다, 제주 들어와서, 들어와서 하는데, 그땐, 이젠 할머니라고, 그땐 할아버지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 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 막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춤게 차려서 오면 다시 저 추우라고, 더우라고, 막 따뜻하고, 비옷 입고 이제 할아버지 들어오면 다시 비와서 나가려고 하면 비오고, 다시 나가려고 하면 바람 불고 그런 할아버지 헤다가 그 다 바다에 다니는 어른들은 그거 다 거기 다니지.)

101001 @ 응.(응.)

101001 # 경허민 어디 저 소섬 가민 이제 영등 하르방 나가젠 허민 그 질카른

덴 허멍 배도 바당에 안 나가주게. 그 나가는 날, 열사흘날 허민 이 윗삼달리 오랑 열사흘날 허민 그디도 텅겨낭 따시 바당에 허는 사름덜, 물에 텅기는 사름덜 오랑 바당에 오랑 다 제 드리고. 그 하르방 나시, 할망 나시. 경행 허민 소섬 가근에 흐룻밤 살아근에 이디서 열사흘날, 열나흘날 강, 소섬 강 나가가민 열엿새날은, 이월 열엿새날은 날 종당도 비오라.(그러면 어디 저 우도 가면 이제 영등 할아버지 나가려고 하면 그 길 가르다고 하면서 배도 바다에 안 나가지. 그 나가는 날, 열사흘날 하면 이 윗삼달리 와서 열사흘날 하면 거기다 다녀오고 다시 바다에 하는 사람들, 물에 다니는 사람들 와서 바다에 와서 다 제 드리고. 그 할아버지 깃, 할머니 깃. 그렇게 해서 하면 우도 가서 하룻밤 살아서 여기서 열사흘날, 열나흘날 가서, 우도 가서 나가고 있으면 열엿새날은, 이월 열엿새날은 날 좋다가도 비와.)

101002 @ 예, 건 나중에 또 물어보쿠다예. 이디 삼달리에는 무신 성씨가 젤 하?(예, 건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삼달리에는 무슨 성씨가 제일 많아?)

101002 # 강씨.(강씨.)

101002 @ 강씨가 하?(강씨가 많아?)

101002 # 응, 우리 강씨가 하. 우리 펜안 강 아니가?(응, 우리 강씨가 많아. 우리 편안 강씨 아니냐?)

101002 @ 할아버지가 펜안 강?(할아버지가 편안 강?)

101002 # 신천 강씨.(신천 강씨.)

101002 @ 신천 강씨.(신천 강씨.)

101002 # 신천 강씨나 펜안 강씨나 다 성제간인디 저 육지서 들어오라노난 육지 그뜨민 어디 궤양 보내듯 영창 보내듯 제줄 보낸 거주게. 옛날 강씨 하르방이. (신천 강씨나 편안 강씨나 다 형제간인데 저 육지에서 들어와서 육지 같으면 어디 궤양 보내듯 영창 보내듯 제주를 보낸 거지. 옛날 강씨 할아버지가.)

101002 @ 응.(응.)

101002 # 그 강씨 하르방이 혼 하르방이 오란 아들을 나난에, 세 성젤 나난 우린 큰아덜이난에 신천이고, 셋아덜은 펜안 강계, 따시 무신 강계 행 강계가 세 개. 경행 강계, 편안 강계 신천 강씨. 우린 신천 강씨고 다른 딴 펜안 강. 성젠디 경 일름을 지와부난 경허여.(그 강씨 할아버지가 한 할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낳으니까, 삼 형제를 낳으니까 우린 큰아들이니까 신천이고, 둘째아들은 편안 강계고, 다시 무슨 강계 해서 강계가 세 개. 그렇게 해서 강계, 편안 강계 신천 강씨. 우린 신천 강씨고 다른 덴 편안 강. 형제인데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그렇게 해.)

101002 @ 이디 삼달린 강씨가 막 합니까?(여기 삼달리는 강씨가 아주 많습니까?)

101002 # 응, 하. 계난 신천 강씨가 하, 삼달리.(응, 많아. 그러니까 신천 강씨가 많아, 삼달리.)

101002 @ 윗삼달리나, 알삼달리나 똑ㄴ타, 여기 주어나?(윗삼달리나, 아랫삼달리나 똑같아, 여기 '주어' 동네나?)

101002 # 이디 주어진 강치가 하지 안하고 웃삼달리가 해주게.(여기 ‘주어’는 강씨 집이 많지 않고 웃삼달리가 많지.)

101002 @ 아, 웃삼달리가. 이 동넨?(아, 웃삼달리가. 이 동넨?)

101002 # 이 동넨 강칩은 요기도 강칩인디 건 펜안 강칩이고 우리 동넨 하지 안하여.(이 동네는 강씨집은 요기도 강씨 집인데 건 편안 강씨 집이고 우리 동네는 많지 않아.)

101002 @ 할머니네 김칩인?(할머니네 김씨 집은?)

101002 # 우린 광산 김칩, 광산 김칩도 하.(우린 광산 김씨 집, 광산 김씨 집도 많아.)

101002 @ 광산 김칩도 하, 이디?(광산 김씨 집도 많아, 여기?)

101002 # 이 동넨 다 광산 김칩.(이 동넨 다 광산 김씨 집.)

101002 @ 아, 이 동넨 광산 김칩.(아, 이 동넨 광산 김씨 집.)

101002 # 저 강칩은 서너 가위베끼 아니고 광산 김칩 하고 오칩도 흥나베끼 엇고. 다 광산 김칩베끼 엇어.(저 강씨 집은 서너 가호밖에 아니고 광산 김씨 집 많고 오씨 집도 하나밖에 없고. 다 광산 김씨 집밖에 없어.)

101002 @ 이 동넨 다 광산 김칩. 기구나예.(이 동넨 다 광산 김씨 집. 그렇군요.)

101002 # 응.(응.)

101003 @ 이 동넨 사름덜은 주로 무신 일 허멍은에 살아신고, 옛날에?(이 동넨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하면서 살았는지, 옛날에?)

101003 # 옛날에 우리 저 우이 살 때 이디 오랑 보민 집이 흥 열, 스무나문 개베끼 엇어났어. 우리 역은 후제 다 온디. 이 동네 사름도 물질허고 따시 용스지어. 용스행 감저도 농곡, 보리도 갈곡 행, 잡곡 농설 허주게. 경행 살안.(옛날에 우리 저 위에 살 때 여기 와서 보면 집이 한 열, 스무남은 개밖에 없었어. 우리 성장한 후에 다 왔는데. 이 동네 사름도 물질하고 다시 농사지어. 농사해서 고구마도 심고, 보리도 갈고 해서, 잡곡 농사를 하지. 그렇게 해서 살았어.)

101003 @ 웃삼달린?(웃삼달리는?)

101003 # 웃삼달리도 경허고. 웃삼달린 따시 물질 안 행 그 용스허는 사름이 하고. 알삼달린 물질허는 사름, 바다에 대한 사름 하고.(웃삼달리도 그렇게 하고. 웃삼달리는 다시 물질 안하고 그 농사하는 사름이 많고, 아랫삼달리는 물질하는 사름, 바다에 대한 사름이 많고.)

101003 @ 용시는 다 ㄴ타? 이디나 그디나?(농사는 다 같아? 여기나 거기나?)

101003 # 상·하동 다 ㄴ찌. 이 미깡 허곤디도 흥 서른댓해 베끼 안돼여.(상·하동 다 같이. 이 굴 한 지는 한 서른댓 해밖에 안돼.)

101003 @ 미깡 허기 전이 계난?(굴 하기 전에 그러니까?)

101003 # 미깡 허기 전이 경, 보리 갈곡, 조 불리곡, 감저 농고.(굴 하기 전에 그렇게, 보리 갈고, 조 밟고, 고구마 심고.)

101003 @ 주로 그거예?(주로 그거요?)

101003 # 주로 그거. 윗삼달린 산뒤편도 갈양 먹고, 피도 불령 먹고 허단 감저허영 빼떼기헤영 전분공장에 들이민 감저 전문으로 허곡, 경해연 살안.(주로 그거. 윗삼달리는 발벼도 갈아서 먹고, 피도 밍아서 먹고 하다가 고구마해서 절간고구마해서 전분공장에 들여놓으면 고구마 전문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

101004 @ 이 마을 동네에 산이나 무신 내창이나 이런 거 이수과?(이 마을 동네에 산이나 무슨 내나 이런 거 있습니까?)

101004 # 이딘 엇주.(여긴 없지.)

101004 @ 이디 말고라도 윗삼달리라도.(여기 말고라도 윗삼달리라도.)

101004 # 윗삼달린 내창덜 잇주.(윗삼달리는 내들 있지.)

101004 @ 무신 내창, 무신 내창 이수과?(무슨 내, 무슨 내 있습니까?)

101004 # 저 서르렌 섯넛굴<sup>5)</sup>, 이 동드렌 동넛굴<sup>6)</sup>. 넛굴<sup>7)</sup>. (저 서쪽으로는 ‘섯내굴’, 이 동쪽으로는 ‘동넛굴’. ‘넛굴’.)

101004 @ 넛굴?(‘넛굴’?)

101004 # 응.(응.)

101004 @ 섯넛굴, 동넛굴?(‘섯내굴, 동넛굴’?)

101004 # 응, 서르렌 섯내굴, 동드렌 동넛굴. 다 그디 시방덜은 막 질 아스팔트 허멍 막 변경웨엄주게, 넛굴덜이. 문 파멍.(응, 서쪽으로는 ‘섯내굴’, 동쪽으로는 ‘동넛굴’. 다 거기 시방들은 막 질 아스팔트 하면서 막 변경되었지, ‘넛굴’들이. 모두 파면서.)

101004 @ 바위나 굴 같은 것도 이수과?(바위나 굴 같은 것도 있습니까?)

101004 # 굴은 저 윗삼달리 미천이굴<sup>8)</sup>. (굴은 저 윗삼달리 미천굴.)

101004 @ 미천굴?(미천굴?)

101004 # 응.(응.)

101004 @ 미천이굴?(미천이굴?)

101004 # 미천굴.(미천굴.)

101004 @ 이젠 미천굴인디 옛날도 미천굴이라난?(이젠 미천굴인데 옛날도 미천굴이었어?)

101004 # 옛날도 미천굴, 옛날도 미천이굴.(옛날도 미천굴, 옛날도 미천이굴.)

101004 @ 미천이굴?(미천이굴?)

101004 # 응, 그거 삼달리 강침이 시에 사는 사름이, 시방 그거 관광 아니가? (응, 그거 삼달리 강씨 집에 제주시에 사는 사름이, 시방 그거 관광 아니냐?)

101004 @ 그건 무신?(그건 무슨?)

5) ‘섯넛굴’은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1리 마을 서쪽에 있는 샘물 이름인 것 같다.

6) ‘동넛굴’은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1리 마을 동쪽에 있는 샘물 이름인 것 같다.

7) ‘넛굴’은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1리에는 샘물의 이름인 듯하다. 삼달1리에는 내가 없으므로 제보자는 내가 있는냐는 질문에 샘물 이름을 말한 것 같다.

8) ‘미천이굴’은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미천굴’이다.

101004 # 미친이굴 그디가.(미친이굴 거기가.)

101004 @ 그 굴은 혹시 저 누게 살아났저 내지는 뭐?(그 굴은 혹시 저 누가 살았었다 내지는 뭐?)

101004 # 사람은 안 살아난 굴.(사람은 안 살았던 굴.)

101004 @ 아니 뭐 동물이라도 베염 살거나 뭐.(아니 뭐 동물이라도 뱀 살거나 뭐.)

101004 # 아니, 아무것도 아니 그자 굴이라, 맨 굴. 저 문케<sup>9)</sup>도 있고.(아무것도 아니. 그저 굴이야, 맨 굴. 저 문케도 있고.)

101004 @ 문케?('문케'?)

101004 # 문케도 이서. 건 개량 안헐 그냥 있고. 이 미친이굴은 강침이 저 그 굴을 개량헐주게. 게난 그 굴을 바당<sup>7</sup>장 터졌젠 허주.('문케'도 있어. 그건 개량 안해서 그냥 있고. 이 미친굴은 강씨 집이 저 그 굴을 개량헐지. 그러니까 그 굴을 바다까지 터졌다고 하지.)

101004 @ 아, 바당<sup>7</sup>장?(아, 바다까지?)

101004 # 응, 막 커 굴이.(응, 아주 커, 굴이.)

101004 @ 아까 미친이굴 말고 아까.(아까 미친굴 말고 아까.)

101004 # 미친이 굴, 거가 옛날은 미친이굴인디 미친굴로 그디가 웬 거.('미친이굴', 거기가 옛날은 '미친이굴'인데 미친굴로 거기가 된 거.)

101004 @ 무사 미친이굴? 미친 사름 뭐 이서?(왜 '미친이굴'? 미친 사름 뭐 이서?)

101004 # 아니, 미친 사름이 아니고 굴이 경 이름이 경.(아니, 미친 사름이 아니고 굴이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101004 @ 하늘에 뭐 미쳤덴 현 말인가?(하늘에 뭐 미쳤다고 하는 말인가?)

101004 # 아니 미치지도 안헐 그냥 터진 굴이주. 사름 안 살아난.(아니 미치지도 않아서 그냥 터진 굴이지. 사람 안 살았었어.)

101004 @ 아까 미친이굴 말고 또 다른 굴은 무신거라?(아까 미친굴 말고 또 다른 굴은 뭐야?)

101004 # 문케엔 현 굴도 막 안에 우리 그디 물 골르민 물 7물 땀 물 질어당 먹꼭 해났주게. 미친이굴도 우리 물 질어당 먹어난 디. 물만 골랑 물 질어당 먹어. 그디 폭도덜이나 무시거 죽어보진 안허고.('문케'라고 한 굴도 막 안에 우리 거리 물 고이면 물 가물땀 물 길어다가 먹고 했었지. 미친굴도 우리 물 길어다 먹었던 데. 물만 고여서 물 길어다 먹어. 거기 폭도들이나 무엇 죽어보지는 않고.)

101004 @ 폭도덜 헐 때 그디 곱아난?(폭도들 할 때 거기 숨었었어?)

101004 # 아니 안 곱아난. 굴덜은 아멩치도 안 행, 다 깨끗허게시리.(아니 안 숨었어. 굴들은 아무렁지도 않아서, 다 깨끗하께끔.)

9) '문케'는 성산읍에 있는 굴의 이름인데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제보자가 설명한다. '케'는 큰 바위나 절벽으로 가려지고 땅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굴을 이르는 제주어다.

101004 @ 이 동네 유명한 디 또 뭐 이수과?(이 동네 유명한 데 또 뭐 있습니까?)

101004 # 이 동네 유명한 사름 엇어.(이 동네 유명한 사람 없어.)

101004 @ 아니, 유명한 미천굴 말고 미천이굴?(아니, 유명한 미천굴 말고 미천이굴?)

101004 # 그거 상·하동 그거주.(그거 상·하동 그거지.)

101004 @ 거 말곤 또 엇어?(그거 말고는 또 없어?)

101004 # 응, 상·하동 거 혼 ㄴ지고, 엇어. 이 동네.(상·하동 그거 한 가지고, 없어. 이 동네.)

101005 @ 김영갑 갤러리<sup>10)</sup>도 막 유명허던데.(김영갑 갤러리도 아주 유명하더데.)

101005 # 것도 옷삼달리.(그것도 윗삼달리.)

101005 @ 것도 옷삼달리에.(그것도 윗삼달리요.)

101005 # 거 옛날엔 국민학교 해난 디.(그거 초등학교 했던 데.)

101005 @ 계난예 국민학교 해난 디.(그러니까요 초등학교 했던 데.)

101006 @ 이 마을에 옛날에 혹시 집 같은 거 이서낫수과, 계 같은 거?(이 마을에 옛날에 혹시 집 같은 거 있었습니까, 계 같은 거?)

101006 # 계 ㄴ쁜거, 집 ㄴ쁜 거야 다 해낫주.(계 같은 거, 집 같은 거야 다 했었지.)

101006 @ ㄴ을 집 이런 거마씨?(마을 계 이런 거마씨?)

101006 # ㄴ을 집은 안허고 개인 집 해낫어. ㄴ을 전시에 집은 안 해나고.(마을 계는 안하고 개인 계 했었어. 마을 전체에 계는 안 했었고.)

101006 @ 전첸 안 해도 그러면 할머니도 옛날에 이런 집 같은 것도 들어낫주예?(전체는 안 해도 그러면 할머니도 옛날에 이런 계 같은 것도 들었었지요?)

101006 # 응, 우리 이디 오란 살안 저 윗삼달리 시집간 오란 이디 오란 살 때 접헸. 이 쌀 행 큰일 때 관뉘 ㅎ나씩 받아먹는 집 해낫어게.(응, 우리 저 여기 와서 살아서 저 윗삼달리 시집갔다 와서 여기 와서 살 때 접 했어. 이 쌀 해서 큰일 때 관뉘 하나씩 받아먹는 계 했었어.)

101006 @ 아, 큰일 때?(아, 큰일 때?)

101006 # 큰일 때 허민 돌아가명 관뉘 ㅎ나씩 그자 허영 혼 ㄴ남은 이 허민 그자 ㄴ을 ㅎ 댕 말 허고 그런 집 해낫어. 벳집<sup>11)</sup>도 허고.(큰일 때하면 돌아가면서 관뉘 하나씩 그저 해서 한 여남은 이 하면 그저 쌀 한 댕 말 하고 그런 계 했었어. ‘벳집’도 하고.)

101006 @ 벳집은 무신거?(‘벳집’은 뭐?)

101006 # 벳집은 돈 내냥 베, 큰일 때 베 헤영, 초상 때 허민 베 헤영 상복 허

10) ‘김영갑 갤러리’는 성산읍 삼달1리에 위치한 사진 전시 공간이다. 초등학교를 개조하여 김영갑 사진 작가의 제주도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11) ‘벳집’은 상이 났을 때 상복을 만들기 위한 베를 모으기 위한 계 조직을 이르는 말이다.



젠 뱃집 허고 해나도 그런 것엔 우리도 안 들어나고, 우린 집 행 해도 쓸집<sup>12)</sup>베끼 우리 옛날에 못살아나난 경 하간 거, 젊을 때꼭 허난, 안 해났어. 다라무시<sup>13)</sup>도 우린 해도 안 해난. 다라무시덜도 해영 다라무시 늑류와 먹영 못 받았 허는 사름 서도 그런 것도 안 해나고.('뱃집'은 돈 내놓아서 베, 큰일 때 베 해서, 초상 때 하면 베 해서 상복 하려고 '뱃집' 하고 했어도 그런 것에는 우리도 안 들었었고, 우린 게 해서 해도 '쌀집'밖에는 우리 옛날에 못살아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젊을 때고 하니까, 안 했었어. '다라무시'도 해도 우린 안 했었어. '다라무시'들도 했어 '다라무시' 내려서 먹어서 못 받아서 하는 사람 있어도 그런 것도 안 했었고.)

101006 @ 다라무신 어떤 거짜?('다라무시'는 어떤 것입니까?)

101006 # 다라무신 들들마다 돈 내놔근에 허다근에 돈 타먹어근에 다시 또 타먹어웁 그 돈 안 내는 사름도 있고, 경행 씹는 사름도 있고.('다라무시'는 다달이 돈 내놓아서 하다가 돈 받아먹어서 다시 또 받아먹어두고 그 돈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101006 @ 계난예.(그러니까요.)

101006 # 경해난. 우리 사름보단 우이 사름덜 경해났주. 우린 안 해난.(그랬었어. 우리 사람보다 위 사람들 그렇게 했었지. 우린 안 했었어.)

101007 @ 이 마을에 다른 마을과 다른 풍습 같은 거 이신가마씨?(이 마을에 다른 마을과 다른 풍습 있나요?)

101007 # 풍습은 베랑 엇수다.(풍습은 별로 없습니다.)

101007 @ 베랑 엇어예.(별로 없어요.)

101007 # 풍습 엇수다, 이디. 무신 거 놀릴 건 엇은 디주.(풍습 없습니다, 여기. 무엇 날릴 건 없는 데지.)

101008 @ 그른 이 마을에 특산물. 이디서 잘 나는 거, 하영 나는 거?(그러면 이 마을에 특산물. 여기서 잘 나는 거, 많이 나는 거?)

101008 # 하영 나는 거 무신 바당에 거나 허고, 무신 미깡 ㄴ쁜 거나 행 풀고. 무신거 혼엇이 특허고 안허곡 그자.(많이 나는 거 무슨 바다의 것이나 하고, 무슨 굴 같은 거나 해서 팔고. 무엇 한없이 특별하고 안하고 그저.)

101008 @ 특별한 건 엇어예?(특별한 건 없어요?)

101008 # 예, 특별한 안 해, 엇어. 특작헌 사름덜 특작허영 그자 늑베 ㄴ쁜 거, 그자 늑물 ㄴ쁜 거 굴아근에, 특작허는 사름은 그거 영업으로 허고 아무 디도 특작헌 사름은 그거.(예, 특별한 안 해, 없어. 특작한 사람들 특작해서 그저 무 같은 거, 그저 나물 같은 거 갈아서, 특작하는 사람은 그거 영업으로 하고 아무 데도 특작하는 사람은 그거.)

101009 @ 이 마을의 자랑거리?(이 마을의 자랑거리?)

101009 # 자랑거리도 엇어.(자랑거리도 없어.)

12) '쓸집'은 동네 사람들끼리 혼례나 장례 같은 큰일 때 서로 번갈아 가면 쌀을 거두어 주어 부조하는 게 조식을 말하며 '쓸제'라고도 한다.

13) '다라무시'는 일본어로 '계(契)'를 말하는 것으로 '다노모시(たのもし)'를 '다라무시'로 발음했다.

101009 @ 자랑거리도 있어? 훌륭한 사람이나 뭐?(자랑거리도 없어? 훌륭한 사람이나 뭐?)

101009 # 훌륭한 사람 배랑, 훌륭한 사람도 우리 동넨 무신 판서 ㄱ쁜 거 나온 사람이나 뒤 사람 잇주, 있어. 판서도 혼 사람은 서울서 나오고 이 동넨 있어. 원 판서 난 사람이나 학교 선생이나 허는 사람베끼 아무것도 있어.(훌륭한 사람 별로, 훌륭한 사람도 우리 동넨 무슨 판사 같은 거 나온 사람이나 두어 사람 있지, 없어. 판사도 한 사람은 서울에서 나오고 이 동네는 없어. 원 판서 한 사람이나 학교 선생이나 하는 사람밖에 아무것도 없어.)

101010 @ 경해도게 사람덜 착하지예, 이 동네 사람들?(그래도 사람들 착하지요, 이 동네 사람들?)

101010 # 사람덜 술 먹영 땡깡 놀진 안합니다. 옛날에 허주, 이췌 사람덜은 술도 먹지 안행 그자 몰루루 그자 이녁만 살젠 매날 살젠 일이나 허레 땡기주. 경, 뒤 땡땡허는 사람 엇입니다.(사람들 술 먹어서 난동 부리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하지, 이제 사람들은 술도 먹지 않고 그저 모르게 그저 자기만 살려고 맨날 살려고 일이나 하러 다니지. 그렇게, 뒤땡땡하는 사람 없습니다.)

101010 @ 부지런하구나예.(부지런하군요.)

101010 # 술 먹영 옛날ㄱ치 흥청망청 광질허는 사람도 엇고, 노름허젠 허는 사람도 엇곡 그자, 볍으민 나강 살젠 허는 사람베끼 엇입니다. 아기덜 공부덜 시기곡 허젠 허민, 나상 그자 두 가시 젊은 사람은 나강 그자 미깡 허는 사람은 미깡 밋디, 특작허는 사람은 특작 밋디, 키위 허는 사람 키위 허저, 무시거 노는 사람 배랑 있어.(술 먹고 옛날처럼 흥청망청 광질하는 사람도 없고, 노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밝으면 나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기들 공부들 시키고 하려고 하면, 나서서 그저 부부 젊은 사람은 나가서 그저 굴 하는 사람은 굴밭에, 특작하는 사람은 특작 밋에, 키위 하는 사람은 키위 하라, 무엇 노는 사람 별로 없어.)

101010 @ 이 삼달리는 우에 산도 잇고 밑에 바당도 잇고.(위에 산도 잇고 밑에 바다도 잇고.)

101010 # 상하동 다 혼 바당.(상하동 다 한 바다.)

101010 @ 어떤 마을은, 무사 신평리<sup>14)</sup> 이런 딴 바당 엇지 안 헤?(어떤 마을은, 신평리는 바다 없지 않아?)

101010 # 신평리도 바당 있어.(신평리도 바다 있어.)

101010 @ 아, 이수과?(아, 있습니까?)

101010 # 난산리<sup>15)</sup>덜이 엇주.(난산리들이 없지.)

101010 @ 아, 난산린 엇수과?(아, 난산린 있습니까?)

101010 # 응, 난산린 엇고. 이 상·하동 이거 혼디 허고 신산리도 저 온평리<sup>16)</sup>광

14) '신평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리로 삼달리 옆 마을이다.

15) '난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로 삼달리 옆 중산간 마을이다.

16) '온평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를 말한다.

흔디 허곡 허주. 바당 엇인 디 엇주. 해변가에.(응, 난산리는 없고. 이 상·하동 이거 함께 하고 신산리도 저 온평리와 함께 하고 하지. 바다 없는 데 없지. 해변가에.)

101010 @ 신평린 무사 바당이파?(신평리는 왜 바다입니까?)

101010 # 신평린 이디 바당 엇주. 상·하동 그디도 흔디.(신평리는 여기 바다 있지. 상·하동 거기도 함께.)

101010 @ 하동이 이시니까.(하동이 있으니까.)

101010 # 다 바당, 바당 엇인 딴 엇고.(다 바다, 바다 없는 데는 없고.)

101010 @ 바당 엇인 동네 엇고, 이 동네.(바다 없는 동네는 없고, 이 동네.)

101010 # 저 수산<sup>17)</sup>더레 어디 구좌<sup>18)</sup>더레 다 바당 엇주. 이 해변더레 바당 엇인 디 엇어. 돈 바당이주.(저 수산리쪽에 어디 구좌읍쪽에는 다 바다 없지. 이 해변으로는 바다 없는 데 없어. 모두 바다지.)

101010 @ 해변이 좋습니까, 산간이 좋습니까?(해변이 좋습니까, 산간이 좋습니까?)

101010 # 산간 보단도 이 해변더레가 살긴 박혀진 안혀여, 웃드르<sup>19)</sup>보다.(산간 보단도 이 해변으로가 살긴 박하지 않아, ‘웃드르’보다.)

101010 @ 웃드르가 박혀여?(‘웃드르’가 박해?)

101010 # 웃드르 하간 용스허젠 허난 박허고. 이 동네덜은 줌수덜이난 물질덜만 허여근에 허민 돈 버슬영 메역도 허고, 성귀도 잡고, 고메기도 허명, 돈 벌곡 허민 경현 사름덜이 하주. 이 늬이, 젊은 사름덜 늬이 일이나 허레 텅기는 사름은 베랑 엇어. 물질만 헤영.(‘웃드르’는 여러 농사하려고 하니까 박하고. 이 동네들은 잠수들이니까 물질들만 해서 하면 돈 벌어서 미역도 하고, 성게도 잡고, 고등도 하면서, 돈 벌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이 남의, 젊은 사람들이 남의 일이나 하러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 물질만 해서.)

## 2. 제보자 일생

102001 @ 할머니 어렸을 때 시집오기 전이 해난 말 흥끔 곱아줍서.(어렸을 때 시집오기 전에 했던 말 조금 말해주세요.)

102001 # 나 두린 때 해난 말 곱아?(나 어릴 때 했던 말 말해?)

102001 @ 예, 할머니.(예, 할머니.)

102001 # 나 두린 때 해난 말은 참 책에 낱, 신문에 낱 일은 아닌디.(나 어린 때 말은 참 책에 나서, 신문에 낱 일은 아닌데.)

102001 @ 신문에 낱 거 아니. 그냥 할머니 옛날 살아난 말 들어보젠.(신문에 낱

17) ‘수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를 말한다.

18) ‘구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을 말한다.

19) ‘웃드르’는 직역하면 윗뜰판이라는 뜻이지만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을 이르는 말이다.

거 아니. 그냥 할머니 옛날 살았던 말 들어보려고.)

102001 # 나 어린 때엔 저 우리 하르바지가, 우리 할머니네가 아기가 아덜만 다섯 성제고 똥은 흐나고 허난 저 으섯 오누이 난애, 우리 하르바지도 젊은 때 돌아가분 모양이주. 우리 아버지가 큰아덜이주.(나 어린 때엔 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네가 아기가 아들만 다섯 형제고 딸은 하나고 하니까 저 여섯 오누이 낳아서, 우리 할아버지도 젊은 때 돌아가신 모양이야.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지.)

102001 @ 아.(아.)

102001 # 큰아덜이난애 아덜 풀안에 허난 우리 집 쥐된 하르방네 트로 살아가 불고 우리 아버진 두린 때난 노름사 해나신디 어떻게사 해나신디 몰르난. 난 서너네 살부때 나 혼자만, 우리 어머니, 아버진 어디 강 엇어부난, 어머니 따시 또 나 동싱, 밋에, 두 술 밋에 동싱 잇단 죽어불엇주만은 동싱 셔낫주게. 오라방, 남동싱 셔난. (큰아들이니까 아들 팔아서 하니까 우리 집 쥐두고 할아버지네 따로 살아버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린 때니까 노름이야 했었는지 어떻게야 했었는지 모르니까. 난 서너 살부터 나 혼자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가서 없어버리니까, 어머니는 다시 또 내 동생, 밋에, 두 살 밋의 동생 있다가 죽어버렸지만은 동생 있었지. 오라비, 남 동생 있었어.)

102001 @ 예.(예.)

102001 # 어멍 나가불민 난 서서네 살인 때부터 집이서 나 혼자만 살안. ㄱ만이 놀민 옛날엔 순경이엔 허민 막 겹 낭 노래지 안허여?(어머니 나가버리면 난 서너 살인 때부터 집에서 나 혼자만 살았어. 가만히 놀면 옛날엔 순경이라고 하면 막 겹이 나서 놀라지 않니?)

102001 @ 예.(예.)

102001 # 순경 절로 왓젠 허민 저 나무 가메기 앓아도 저거 순경이엔 허민 노래영 ㄱ만이 집이 앓앙 집이서만 놀아.(순경 저리로 온다고 하면 저 나무 까마귀 앓아도 저것 순경이라고 하면 놀라서 가만히 집에 앓아서 집에서만 놀아.)

102001 @ 하하하.(하하하.)

102001 # 게난 ㅁ뎡쫌 허벅에 행 질영 ㅅ뎡근애 나가 불민 먹을 거 엇이민, 옛날엔 무시거 먹을 거 엇잖아. 게난 그 ㅁ뎡쫌만 줍아당, 웨약세기에 줍아다 ㅅ뎡 먹곡 먹곡 허멍 ㅁ뎡쫌 혼 허벅을 다 먹으멍도 올레 베끗되 안 나강 나가 놀아. ㄱ만이 집이서만 어멍은 나가 불고.(그러니까 메밀쌀 동이에 해서 길어 ㅅ뎡고 나가 버리면 먹을 거 없으면, 옛날엔 무엇 먹을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 메밀쌀만 집어다가, 식되에 집어다 놓고 먹고 먹고 하면서 메밀쌀 한 동이를 다 먹으면서도 ‘올레’ 밖에 안 나가서 내가 놀아. 가만히 집에서만 어머니는 나가 버리고.)

102001 @ 예.(예.)

102001 # 경행 놀단 우리 하르바지가 또 다섯 술엔가 이젠 돌아가 부난, 돌아가 부난애 절로 간 트로에 아드덜 들고 헐, 우리 아버지 흐나만 갈림은 해두고, 이제 할망넌 애기 다섯, 여섯 오누이, 다섯 오누이 들고 할망네 살곡 헐. 하르바진 돌아

가 부난, 따시 우리 어머니 이젠 남편도 엇곡 따시 집은 집광 집터 헨 준디 우리 아버지가 놀음사 헨, 우리 두린 때난 모르주, 폴아사 먹어불어신디 집도 엇일 거 아니라?(그렇게 해서 놀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또 다섯 살엔가 이제 돌아가셔서 버려서, 돌아가서 버려서 저리로 가서 따로 아이들 데리고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만 분가는 해두고, 이젠 할머니네는 아기 다섯, 여섯 오누이, 다섯 오누이 데리고 할머니네 살고 했어. 할아버지 돌아가 버리니까, 다시 우리 어머니 이젠 남편도 없고 집은 집과 집터 해 주었는데 우리 아버지 놀음이야 했어, 우리 어린 때니까 모르지, 팔아야 먹어 버렸는지 집도 없을 거 아니냐?)

102001 @ 예.(예.)

102001 # 엇이난 이젠 우리 어머니 우리 밋에 동생은 네 살이고 난 으섯 설이난 할망네 집이 뗏겨된 이젠 일본을 가버서. 우리 어머니가 일본을 가부난. 그젠 할마니광 혼디 행 살민, 이제 우리 삼촌이 우리 할마니에 매죽은아덜 나보단 두 설우이라. 두 살 우이고 밋에 따시 나 동생은 따시 두설 밋에고 허난, 난 중간 아니라?(없으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우리 밋에 동생은 네 살이고 난 여섯 살이니까 할머니네 집에 맡겨두고 이젠 일본을 가버려서. 우리 어머니가 일본을 가버리니까. 그땐 이젠 할머니와 같이 해서 살면, 이제 우리 삼촌이 우리 할마니에 제일작은아들 나보다 두 살 위야. 두 살 위고 밋에 다시 내 동생은 두 살 밑이고 하니까, 난 중간 아니냐?)

102001 @ 예.(예.)

102001 # 중간이난 이제 삼촌도 이젠 나 지집아이엔 물리고 우이 건 다시우리 할머니 그 손지펜만 들어주고. 난 중간에 들언 합의 못허민 출 트명에 강 앓앙 올당 보민 그디 앓앙 잠도 허지. 자 불민 출 빠레 오라근에 무사 앓앙 졸암딘 돌아가곡 허멍 나가 인생 산 사름이라.(중간이니까 이제 삼촌도 이젠 나 계집아이라고 놀리고 우리 할머니는 손자편만 들어주고. 난 중간에 들어서 합의 못하면 꼴 틈에 가서 앓아서 울다 보면 거기 앓아서 자기도 하지. 자 버리면 꼴 빠러 와서 왜 앓아서 졸고 있냐고 데려가고 하면서 내가 인생 산 사람이야.)

102001 @ 아.(아.)

102001 # 이젠 으섯 살 난, 일곱 살 난. 으섯 설에부떠 헛주. 물은 혼 백 메단 돼주. 백 메단 돼난 부리 요멘인 현 부리 허벅 혼 관돼로 혼 네 개 들 걸로 행, 물은 댓 허벅 드는 걸로 일허레 헤영 수정이 헤영 나가민 할망7장 으섯이 나가민, 나허곡 이제 죽은아방허곡 허민 지집아인 나 헛나 메기아니라. 남즈덜만 허곡 딸이엔, 여즈엔 현 건 나허고 고모허고 할망허고 셋 돼고. 아덜은 혼 대여섯 돼지 안허여?(이젠 여섯 살 나서, 일곱 살 나서. 여섯 살에부터 헛지. 물은 한 백 미터는 되지. 백 미터는 되니까 부리 요만큼 한 부리 동이 한 되로 한 네 개 들 것으로 해서, 물은 댓 허벅 드는 걸로 일하러 해서 숫자가 해서 나가면 할머니까지 여섯이 나가면, 나하고 이제 작은아버지하고 하면 계집아이는 나 하나뿐 아니냐? 남자들만 하고 딸이라고, 여자라고 한 건 나하고 고모하고 할머니하고 셋 되고. 아들은 한 대여

섯 되지 않아?)

102001 @ 예.(예.)

102001 # 경허민 물 질레 가노렌 허민 물 질영 오당 보민 발 툽 차민 그 켕 부리 다 타져 불곡, 그거 혼 여남은 번 질어 오젠 허민, 황 우이 미치지 못허민 이디 돛배 낱 그디 올라상 물 질명. 경행 살곡 녹물 해근에 케당 못에 강 절 잘락잘락 치대기명 허는 디 강 싯영, 거 싯어다근에 저녁인 보리밥 허렌 허민 나가 밥허고 국 끌리고 행 내노민. 이젠 어둑어 가민 저녁 먹어나민 밧디 강 왕 지치텐 허민 여섯 술 난 게 그 설거질 다 해서, 나가. 아이고, 기가 맥힌다.(그러면 물 길러 가노라고 하면 물 길어서 오다 보면 발 툽 차면 그 병 부리 다 떨어져 버리고, 그거 한 여남은 번 길어 오려고 하면, 항아리 위에 미치지 못하면 여기 도마 놓아서 거기 올라서서 물 길면서. 그렇게 해서 살고 나물 해다가 캐어다가 못에 가서 파도 철썩 철썩 끼었으면서 하는 데 가서 씻어서, 그거 씻어다가 저녁엔 보리밥 하라고 하면 내가 밥하고 국 끓이고 해서 내놓으면. 이젠 어두워져 가면 저녁 먹고 나면 밧에 갔다 와서 지치다고 하면 여섯 살 난 게 그 설거지 다 했어, 내가. 아이고, 기가 막힌다.)

102001 @ 아.(아.)

102001 # 게민 설거지 다 행 놓고. 이제 팔월[팔월] 나민 출허레 가 불민 이제 조반 먹영 나가민 그 설거질 다 허곡, 그 물 질어다 놓고, 승키 해다 놓곡, 밀 헤영 쉼 질루난 밀 강 혼 서너 이가 혼 짐씩 혼 짐씩 지어다 놓민 그거 뱃디 문밖 돌리고 이제 비오라 가민 그거 다 무젓당 디리몰앗당 따시 뒷날은 그거 다 널영 돌리왕, 그거 다 동 블랑, 동은 동 트로 밀은 밀 트로 행 다 행 돌리와 낱 이젠 또 꼬쟁이에 양 끝 것 문 다듬앙 동 심영, 혼 여남은 동 다 해 놓고.(그러면 설거지 다 해서 놓고. 이제 팔월 나면 풀 베러 가 버리면 이제 조반 먹어서 나가면 그 설거질 다 하고, 그 물 질어다 놓고, 푸성귀 해다 놓고, 밀 해서 소 기르니까 밀 가서 한 서너 이가 한 짐씩 지어다 놓으면 그거 별에 모두 말리고 이제 비와 가면 그거 다 묶었다가 들이밀었다가 다시 뒷날은 그거 다 널어서 말려서, 그거 다 동 골라서, 동은 동 따로 밀은 밀 따로 해서 다 말려 놓고 이젠 또 꼬트머리에 양 끝 것 모두 다듬어서 동 잡아서, 한 여남은 동 다 해 놓고.)

102001 @ 예.(예.)

102001 # 셋삼촌, 셋아방은 펫병, 옛날은 펫병 들영 일허레 못 가민 약을 딸리렌 허지. 탄약 행 딸리젠 허민 화리에 숯불을 살랑 딸리민 하루 두 첩 딸리고, 따시 두 첩 혼디 약 헤어낱, 세 번을 딸리민 그거 하루, 혼 으답 시 전이, 혼 일곱 시 전이 그 약을 다 딸리민 약을 잘 딸렸젠 허명, 날ㄱ라. 경 다 해도 셋아방은 경행 약 딸리고 말을 잘 들으난, 두린 때도 말을 잘 들으난, 난 미진 안허여.(둘째삼촌, 둘째아버지는 폐병, 옛날은 폐병 들어서 일하러 못 가면 약을 달이라고 하지. 탕약 해서 달이려고 하면 화로에 숯불을 살려서 달이면 하루 두 첩 달이고, 다시 두 첩 함께 약 해놓고, 세 번을 달이면 그거 하루, 한 여덟 시 전에, 한 일곱 시 전에 그 약을

다 달이면 약을 잘 달였다고 하면서, 나보고. 그렇게 다 해도 둘째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약 달이고 말을 잘 들으니까, 어릴 때도 말을 잘 들으니까, 난 미워하지 않아.)

102001 @ 응.(응.)

102001 # 경허민 따시 또 그 환자엔 허명 우리 할머니네 옛날 그 솔레기 이만 썩 현 솔레기 짓별정허게 허명, 죽 썩근에 허민 셋아방이 먹다근에 서너 수까락 넘겨근에, 우리 동생이 ○○이난 ○○랑 주지 말앙 느만 먹으라 느만. 나가 늑안티 미안행 착해. 사랑 반앙 살앗주 늑안피 미움 사진 안헛어, 경 고생은 해도. 경허명 살 단애.(그러면 다시 또 그 환자라고 하면서 우리 할머니네 옛날 옥돔 이만큼씩 한 옥돔 시벌정게 해서, 죽 썩어서 하면 작은아버지가 먹다가 서너 숟가락 남겨서, 우리 동생이 ○○이니까 ○○랑 주지 말고 너만 먹어라 너만. 내가 남에게 미움 안 받아서 착해. 사랑 받아서 살았지 남에게 미움 받아 앓았어. 그렇게 고생은 해도. 그러면서 살다가.)

102001 @ 응.(응.)

102001 # 으답 설은 나난애 이제, 으답 살은 나난 애기만 돌아도렌 허난 우리 할머니 난 여름 탕 여름 나민 보리밥 베랑 안 먹으난, 여름 탕 보리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허난 애기 못 돈텐, 경해도 조팍만 해주켄 하도 헐. 아기 들레 가난애, 옛날애 청목, 퍼렁헌 청목 요만씩헌 넓이 해난 거 싹주게. 그거 헐애, 가난애 치메 멘들안 굴중의<sup>20)</sup>에 그거 네 폭 행 이디 밋 부찌고 적삼 허곡 행 주곡, 행 주민 그거 허명 입곡 애길 드난.(여덟 살은 나니까 이제, 여덟 살 나니까 애기만 돌봐 달라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 난 여름 타서 여름 나면 보리밥 별로 안 먹으니까, 여름 타서 보리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애기 못 돌본다고, 그래도 조팍만 해주겠다고 하도 해서. 아기 돌보러 가니까, 옛날애 청목, 퍼런 청목 요만큼씩 한 넓이 했던 게 있지. 그거 해서, 가니까 치마 만들어서 ‘굴중의’에 그거 네 폭 여기 밑 붙이고 적삼 해서 주고, 해서 주면 그거 해서 입고 아기 돌보니까.)

102001 @ 예.(예.)

102001 # 아, 으답 솔 난 게 보리 마당질허명 콩입을 툫앙 오민 그 좋은 가름팻<sup>21)</sup>되 콩을 갈민 콩이 이만인 허민, 미쳐져사 콩입을 툫을 거 아니라?(아, 여덟 살 난 게 보리 마당질하면서 콩잎을 뜯어 오라고 하니까 그 좋은 마을 밭에 콩을 갈면 콩이 이만큼 하면, 미쳐야 콩잎을 뜯을 거 아니냐?)

102001 @ 하하하.(하하하.)

102001 # 미치질 못 허지. 중간 섶을 툫앙 오라시민 따시 떡잎 툫앙 오랏젠 허명 야단허고. 양에섶은 허민 양에 지슬에 양에 갈앙 허민, 매 굵에 건 수왕수왕<sup>22)</sup> 허곡 소굽에 배설은 연허민 밀랑밀랑헐 거 아니? 경허민 양에섶 툫아다 도렌 허민 그 소굽에 거 연헌 거엔 툫앙 오민 따시 또 굵에 거 안 툫아 왓텐 욱허고.(미치지

20) ‘굴중의’는 여자들의 아래옷으로 집안에서나 일할 때 입었던 통이 넓은 홀바지다.

21) ‘가름팻’은 마을 안에 있는 밭을 말한다.

22) ‘수왕수왕’은 배나 무 따위를 자꾸 씹는 소리나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표준어로 ‘서벽서벽’이다.

못하지. 중간 잎을 뜯어 왔으면 다시 떡잎 뜯어 왔다고 하면서 야단하고. 양하잎은 하면 양하 처마기슭에 양하 갈아서 하면, 맨 굵에 것은 서벽서벽하고 속의 배설은 연하면 말랑말랑할 거 아니? 그러면 양하잎 뜯어 달라고 하면 그 속에 거 연한 거라고 뜯어서 오면 다시 또 굵에 거 안 뜯어 왔다고 욕하고.)

102001 @ 아.(아.)

102001 # 아이고, 이젠 애긴 툇툇이 업엉 땡기당 혼번은 민칠락허난 아긴 탁 털어전. 아긴 아판 죽어가난 허리 그무쫓젠 날그라 야단하고. 경허명 살단 이젠 팔월 멍질을 나난에 요 혼번이 초신 말 안 곶아전.(아이고, 이젠 아긴 단단히 업고 다니다가 한번은 미끌하니까 아긴 탁 떨어져서 아긴 아파서 죽어가니까 허리를 빼었다고 나보고 야단하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팔월명절 나니까 요번에 짚신 말 안 말했다.)

102001 @ 예.(예.)

102001 # 초신 그디도 일본 가부난 어디 간 사단에. 신줄랭이 요영헌 거 소랑허곡 칩인 요만이 노프고 앞인 깍헝 허곡 허민, 요거 칩이가 요만인 헤불민 맨발이난 발칙이가 북물주게. 북물언 그걸 혼 이백, 삼백 메단 허주. 집일 가난. 맨발에 양말 안 신영 맨발에 발 아프난 신어질 거라? 들러 아잔 가난 우리 셋아방이 아니 욱허건 돌아오라 불렌. 그젠 아정 가난 무사 이거, 발 아파부난에 우리 셋아버지 경헤렌. 그거 욱허는 거 아니라? 그냥 들러 아잔 집일 오라 비엇주. 안 살안에. 팔월[팔월] 나난 안살안. (짚신 거기도 일본 가버리니까 어디 가서 사다가. 신발 이런 거 가름하고 뒤축은 요만큼 높고 앞은 신총해서 하고 하면, 요거 뒤축이 요만큼 해버리면 맨발이니까 발뒤축이 부르트지. 부르터서 그걸 이백, 삼백 미터는 하지. 집을 가니까 맨발에 양말 안 신어서 맨발에 발 아프니까 신을 수 있어? 들고 가져가니까 우리 둘째아버지 아니 욱하면 돌아와 버리라고. 그땐 가지고 가니까 왜 이거, 발 아파서 우리 둘째아버지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 욱하는 거 아니야? 그냥 들어 집에 와 버렸지. 안 살아서. 팔월 나니까 안 살았어.)

102001 @ 예.(예.)

102001 # 근근 살안 따시 아홉 술 아니라? 열 술 나난에 우리 죽은아방 다시 세 번째, 셋아방은 우리 집이 아버지, 당아버지, 세번쨌 아시난 결혼허난에 이젠, 우리 소상 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르바님 죽언 소상 전이 가부난 나 간 후제 초하루 보름 허젠 허난, 요혼번이 콩나물 말 안 곶아?(근근 살아서 다시 아홉 살 아니냐? 열 살 나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다시 세 번째, 둘째 아버지는 우리 집의 아버지, 당아버지, 세 번째 아우니까 결혼하니까 이젠, 우리 소상 전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님 죽어서 소상 전에 가버리니까 나 간 후에 초하루 보름 하려고 하니까, 요번에 콩나물 말 안 말했다?)

102001 @ 응.(응.)

102001 # 콩헝, 삭망헝 먹으민 그 콩 봐근에 그 콩을 준발 내우지 말렌 물 주젠 허민 하루 몇 번은 물 쥐살 거 아니라. 콩나물 보름 삭망헝 먹젠 허민 다 키우고.



다시 또 보름 삭망 초하루 행 먹젠 콩나물 다 물 주멍 키우고 그처럼 허멍 살안 이젠 삼 년 넘어 죽은아방, 셋아방 장개가난 그 장개가는다. 셋아방은 호상 전이 장개간. 따시 또 세 번찬 따시 소상은 넘어 대상 전이 장개. 그 초하루 보름 허는디 그 심바람을 나가 다 헌 거 아니라? 다 했주.(콩해서, 삭망해서 먹으면 그 콩 놓아서 그 콩을 삼태불 나오게 하지 말라고 물 주려고 하면 하루 몇 번은 물 줘야할 거 아니냐. 콩나물 보름 삭망해서 먹으려고 하면 다 키우고. 다시 또 보름 삭망 초하루해서 먹으려고 콩나물 다 물 주면서 키우고 것처럼 하면서 살아서 이젠 삼 년 넘어서 작은아버지, 둘째아버지 장가가니까 그 장가가는데. 둘째아버지는 상 전에 강가 갔어. 다시 또 세 번째는 다시 소상은 넘어서 대상 전에 장가가. 그 초하루 보름 하는데 그 심부름을 내가 다 한 거 아니냐? 다 했지.)

102001 @ 응.(응.)

102001 # 이젠 허난 이젠 네 번째, 세 번째 시어멍네, 아방네가 결혼헤 아기 난에 이젠 그해 늑의 집도 안 살안에 나완 경정행 이신디 따시 또 그 집도 우리 할머니 여라 해 살아가난 아덜이영 다섯 성제 행 딸덜이영 헤 살아가난 따시 또 그 집도 빗나난 풀 거 아니라?(이젠 하니까 이젠 네 번째, 세 번째 시어머니네, 아버지네가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이젠 그해 남의 집도 안 살아서 나와서 그럭저럭해서 있는데 다시 또 그 집도 우리 할머니 여러 해 살아가니까 아들이랑 다섯 형제 해서 딸들이랑 해서 살아가니까 다시 또 그 집도 빗내니까 팔 거 아니냐?)

102001 @ 예.(예)

102001 # 폴아부난 이젠 늑의 집이 점방 빌언 갈 거 아니라. 이젠 늑의 우리 이모네 집이 집 일본 가부난 비엄젠 허난 그디 강 살안. 게난 우리 삼촌 따시 일본 가부난 우리 죽은어멍하고 이젠 애기만 시난 우리 할머니가 강 느 강 그 애기 돌아주렌.(팔아버리니까 이젠 남의 집의 가갯방 빌려서 갈 거 아니냐. 이젠 남의 우리 이모네 집에 집 일본 가버리니까 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삼촌 다시 일본 가버리니까 우리 작은어머니하고 이젠 애기만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가서 너 가서 그 애기 돌봐 주라고.)

102001 @ 응.(응.)

102001 # 이젠 그때 열 술 뵈주. 열 술은 나난 그 애기가 돌미엔 허난 이젠 둘다근에 허민, 그때 경허난 홀어멍광 아덜은 여라 명 허난 우리 죽은어멍이 시어멍광 사이가 안 좋아.(이젠 그때 열 살 뵈지. 열 살은 나니까 그 애기가 돌본다고 하니까 이젠 돌보다가 하면, 그때 그러니까 홀어머니와 아들은 여라 명 하니까 우리 작은어머니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

102001 @ 응.(응.)

102001 # 안 좋안에 트로 헤 살멍. 갱 가민 생일을 행 먹영 허민 이제 밥해근에 곤밥, 쓸 혼 수까락 해영 농곡 밥허곡 행은에 밥행 먹영 강 할망신디 강 애기 업영가근에 느, 소드린 허지 말렌 허난 소드린 안 행 살았저, 나가. 경허난 저 할망네집이 가근에 생일 헤 먹언젠 허민, 안 헤 먹고렌, 곤밥 해주건 먹고렌. 할망네집이

가민 따시 또 생일 헐 먹언젠 허민, 생일 안 헐 먹엄수텐.(안 좋아서 따로 해서 살면서. 그래서 가면 생일을 해서 먹어서 하면 이제 밥해서 흰밥, 쌀 한 숟가락 해서 놓고 밥하고 해서 밥해서 먹어서 가서 할머니께 가서 아기 업어서 가서 너, 말전주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전주는 안 하고 살았지, 내가. 그러니까 저 할머니네 집에 가서 생일 해서 먹었냐고 하면, 안 해서 먹었다고, 흰밥 해주면 먹었다고. 할머니네 집에 가면 다시 또 생일 해서 먹었냐고 하면, 생일 안 해서 먹고 있다고.)

102001 @ 하하하.(하하하.)

102001 # 이젠 졸 혼디 낵 밥허고 계란 하나 지저근에 혼디 먹으렌 줄 거 아니?(이젠 쌀 함께 놔서 밥하고 계란 하나 지저서 함께 먹으라고 줄 거 아니?)

102001 @ 예.(예.)

102001 # 주민 따시 또 그 밥 먹곡, 섯동네 혼 이백 메다 넘은 디주. 애기 업영 또 갈 거 아냐? 또 가민 경헝 왓수텐 허멍 그 애기 들단. 일본 감이엔, 애기 아방이 일본 사난 애기도 다 일본 오랜 헐 가빋주.(주면 다시 그 밥 먹고, 서쪽 동네 한 이백 미터 넘는 데지. 아기 업어서 또 갈 거 아냐? 또 가면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하면서 그 아기 돌보다가. 일본 간다고, 아기 아버지가 일본 사니까 애기도 다 일본 오라고 하니까 가 버렸지.)

102001 @ 예.(예.)

102001 # 가부난 열흔 살은 나난 우리 할머니 아시가 결혼헐에 아덜 하나하고 딸 하나 난 죽어부난 따시 수산 할망을, 애기 엇은 할망을 헐 오란 헐디, 그 우리 할마니 난 아시 아덜은 이제 애기가 나난에 아지방이 이제 저 아지방, 애기 주민 밧 갈아주고 밧 불러주고 몬 허크메 이제 줍센. 그디 아기 들레 갈 거 아냐?(가버리니까 열한 살은 나니까 우리 할머니 아우가 결혼해서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 낳아서 죽어버리니까 다시 수산 할머니, 아기 없는 할머니를 해 와서 한데, 그 우리 할머니 낳은 아우 아들은 이제 아기 낳으니까 아주버니가 이제 저 아주버니, 아기 주면 밧 갈아주고 밧 뵙아주고 모두 할 테니 이제 주라고. 거기 아기 돌보러 갈 거 아니냐?)

102001 @ 예.(예.)

102001 # 애기 들레 열 술 난 게 가민 열흔 술에 가난에 애기 어멍은 애기만 돌아주렌 간디 아프노렌 누워 불민 여름에 벳 팡팡 난디 가근에 검질 매레 가민 열흔 술 난 게 무신 검질을 혼엇이 땀 거니? 강 보민 영 자갈 ㄴ똥 건 메기 좋은디, 고름풀 그자 강 매레 가곡 허민 아이고 이거 이런 세상이 어디 시린 경허멍 살단 보난. 이젠 저술을 들어가난에 저 그 할망은 혼디 늙을 우리 할마니 아시 대피로 온 할망이 그 할망이영 혼디 강 누민 그 할망이 허는 말이. 아이고, 나똥, 는 어디 가민 낭중에 크민 잘살 거여. ㄴ만이 누민 눈 대로 누영 몸질 혼 번 안 헝 나똥 잘살 켜, 잘살켜 허멍, 경허멍 그디 살안, 해연 나오란.(아기 돌보러 열 살 난 게 가면 열한 살에 가니까 아기 어머니는 아기만 돌봐주라고 갔는데 아프다고 누워 버리면 여름에 별 쨍쨍 나는데 가서 김매러 가면 열한 살 난 게 무슨 김을 한없이 땀 거

니? 가서 보면 이렇게 자갈 같은 것은 매기 좋은데, 땅빈대를 그제 가서 매러 가고 하면 아이고 이거 이런 세상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 이제 겨울을 들어 가니까 저 그 할머니는 함께 누우면 우리 할머니 아우 대신 온 할머니가 그 할머니랑 함께 가서 누우면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 딸, 너는 어디 가면 나중에 크면 잘살 거야. 가만히 누우면 누운 대로 누워서 몸부림 한번 안하고 내 딸 잘살 거야, 잘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 살아서, 해서 나왔어.)

102001 @ 예.(예.)

102001 #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일본 간에 돈 버슬언 혼 오륙 년 살안 일본 간에 돈 버슬언에 혼 이천 평, 혼 이천오백 평 샀주. 사고 혼 칠팔백만 원 따시 영수증을 받안에 그디서 돈 부쳐주지, 돈 안 주난 반영수증을 주난 아정 오젠 허난 부두에 오란에 일본서 큰 고리짝에 난에 그냥 배에 안 시꺼줘 부난 오란 보난, 시에 오란 보난 고리짝이 느려서? 엇어 부난, 고리짝 엇어부난 그 맞문세, 혼 천 평짜리 맞문세 일러볼 거 아냐?(우리 어머니가 이제 일본 가서 돈 벌어서 한 오륙 년 살아서 일본 가서 돈 벌어서 한 이천 평, 한 이천오백 평 샀지. 사고 한 칠팔백만 원 다시 영수증을 받아서 거기서 돈 부쳐주지, 돈 안 주니까 반영수증을 주니까 가져 오려고 하니까 부두에 와서 일본에서 큰 고리짝에 놓아서 그냥 배에 안 실어줘 버리니까 와 보니까, 제주시에 와서 보니 고리짝이 내렸어? 없어 버리니까. 고리짝 없어버리니까 그 밭문서, 한 천 평짜리 밭문서는 잃어버린 거 아니냐?)

102001 @ 예.(예.)

102001 # 편쩍허게 일러비언. 그냥 헨에 따시 또 경해도 우리 어머니가 돈이 더러 선ㄱ라 이 저 우이 살았주. 이거 알동네 나오란 요딘디. 오란 혼 오백 평 사고 이젠 초집 안팎거리 집 구헨에 집 사된 딱시 빗 나난 일본을 갈 거 아냐? 일본은 강 뒤 해 살안. 딱시 그디 가민 이제 그땐 죽은아방네 성제허곡 할망허곡 나허곡 해근에 허민 다섯 수정<sup>23)</sup>이 살았주. 고몬 어디 서방 얻언 가고.(깨끗하게 잃어버렸어. 그냥 해서 다시 또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돈이 더러 있었는지 저 위에 살았지. 이거 아랫동네 나왔 여기네. 와서 한 오백 평 사고 이젠 초가집 안팎채 집 구해서 집 사두고 다시 빗이 생기니까 일본을 갈 거 아니냐? 일본은 가서 두어 해 살았어. 다시 거기 가면 이제 그땐 작은아버지네 형제하고 할머니하고 나하고 해서 하면 다섯 명이 살았지. 고모는 어디 서방 얻어서 가고.)

102001 @ 예.(예.)

102001 # 경헨 다섯 수정이 살명 이젠 우리 할마니가 못 헤영 구민 늪덜은 못 구영 먹엄젠 무신거언 허민, 나딸 이제 늘랑 물룻팍<sup>24)</sup> 행 먹지 말아근에 밥 흐쫄만 먹어근에 못 구영 먹지 말렌. 경험헨 헨 경허난 우리 할마니네도 밥 하영 안 먹곡 허엿주. 밥 헤영 먹어근에 허민 따시 보리 헤여근에 저 혼 삼백 메다도 넘은 디 가근에 보리 갈앙 허민 나딸 강 보리 강 혼 줌 비어 오라. 우리 보리 헤근에 보리밥

23) '수정'은 셀 수 있는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인 '수'의 제주어이나 여기서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명'이라고 표준어 대역을 했다.

24) '물룻팍'은 무룻을 넣고 지은 밥을 말한다.

행 먹어근에 우리 못 구웁 먹지 말게. 경험센 허여근에.(그래서 다섯 명이 살면서 이젠 우리 할머니가 무릇 해서 구우면 남들은 무릇 구워 먹는다고 뭐라고 하면, 내딸 이제 너는 무릇밥 해서 먹지 말고 밥 조금만 먹어서 무릇 구워서 먹지 말라고. 그러자고해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네도 밥 많이 안 먹고 했지. 밥 해서 먹어서 하면 다시 보리 해서 저 한 삼백 미터도 넘는 데 가서 보리 갈아서 하면 내딸 가서 보리 가서 한 줌 베어 와라. 우리 보리밥 해서 보리밥 해서 먹어서 우리 무릇 구워 먹지 말자. 그러자고 해서.)

102001 @ 무신거 먹지 말게?(무엇 먹지 말게?)

102001 # 못<sup>25)</sup> 구웁 먹지 말젠. 못.(무릇 구워서 먹지 말자고.)

102001 @ 아, 못 구웁 먹지 말젠.(아, 무릇 구워서 먹지 말자고.)

102001 # 응, 다른 사람은 구멍 먹어도. 아, 경험센 행. 그 퍼렁헌 보리 강 물긋 물긋헌 보리 가근에 비엿, 뒤 단 비엿 지어 아정 오랑 영영 툇앙 물 꿰왕 둑가근에 그거 둑가근에 널엇다근에 바싹 봄이난 널엿 물리왕 그거 보깡, 저 ㄹ레에 곶앙 보리ㄹ루 행 줍아 먹곡 그거 행 알보리쌀 행 밥행 먹곡 허멍 살안. 이젠, 우리 작은아방도 여름에 검질 메렌 허민 검질을 두 술 못이난. 저 시방 그 이층집 짓엇텐 헌디 그디 강 검질 빌엿 검질 팔월[팔월]에 정 허민, 그딘 남저난 열댓 술 허주만은, 난 열두 살에 혼엇이 검질을 저지는가? (응, 다른 사람은 구우면서 먹어도. 아, 그러자고 해서. 그 퍼런 보리 가서 ‘물긋물긋’한 보리 가서 베어서, 두어 단 저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뜯어서 물 끓여서 담가서 그거 담가서 널엇다가 바싹 봄이니까 널어서 말려서 그거 볶아서, 저 맷돌에 갈아서 보릿가루 해서 집어 먹고 그거 해서 알보리쌀 해서 밥해서 먹고 하면서 살았어. 이젠, 우리 작은아버지도 여름에 김매라고 하면 김을 두 살 터울이니까. 저 시방 그 이층집 지엇다고 한 데 거기 가서 검불 빌어서 검불 팔월에 저서 하면, 거긴 남자니까 열댓 살 하지만은, 난 열두 살에 한없이 김을 질 수 있나?)

102001 @ 예.(예.)

102001 # 여남은 단 지민 것도 버쳐. 따시도 날ㄹ라 삼춘은 검질을 죽엿 정 텅 겹젠 욱만 퍼 허멍, 경혜당 검질 해당. 그추록 허멍 세상 살아가단애.(여남은 단 지면 그것도 부쳐. 다시도 날보고 삼춘은 검불을 조금만 저서 다닌다고 욱만 퍼 하면서, 그렇게 해다가 검불 해다가.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살아가다가.)

102001 @ 예.(예.)

102001 # 작은삼춘은 여름에 검질 메레 가젠 허난 검질 메레 안 가난 어디 옛날은 솟으로 영 행 불 솟앙 솟 등어리에 걸름이 서낫주. ㄹ물팍디 걸름을 지젠 허난에 그 ㄹ물팍 옛날에 베엿덜 막 하낫주. 이젠 영 집덜 치레해 부난 뱀이 엿주, 옛날에 오죽 베엿이 하낫어? 뱀이가 불경에 시난 그 솟으로 탁허게 대멩이 좇아부난 따시 또 여름에 팔월[팔월] 나난 아팍 죽어갈 거 아니? 다 아팍 죽어간.(작은삼춘은 여름에 김매러 가자고 하니까 김매러 안 가니까 어디 옛날은 솟으로 이렇게 해서

25) ‘못’은 무릇을 말하는 것으로 ‘물긋’을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불 때서 술 등에 거름이 있었지. 메밀밭에 거름을 지려고 하니까 그 메밀밭 옛날에 뱀들 아주 많았었어. 이젠 집들 치레해 버리니까 뱀이 없지, 옛날에 오죽 뱀이 많았었어? 뱀이 재에 있으니까 그 삽으로 탁하게 머리 쪼아버리니까 다시 여름에 팔월 나니까 아파서 죽어갈 거 아니냐? 다 아파서 죽어갔어.)

102001 @ 누가?(누가?)

102001 # 그 뱀을 뜯려 부난 삼춘이.(그 뱀을 때려 버리니까 삼춘이.)

102001 @ 삼춘이?(삼춘이?)

102001 # 응, 그때 스물둘, 스물셋인가 경헛어. 경허난 그거 헨 큰 곳헨 살려 난.(응, 그때 스물둘, 스물셋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 해서 큰 곳해서 살려 놓았어.)

102001 @ 아.(아.)

102001 # 저슬 드난에 결혼허젠 새각실 헨 모셔노난에 정월 초이틀, 초사흘날 제주. 아 초사흘날은 폭허게 우리 삼춘이 죽지 안 헨? 죽어부난 그 잔치 그냥. 따시 또 그 행 죽은디, 총각 죽은디 우리 할머니 상식을 헐 거 아냐? 아덜 죽으난 상식. 조반행 거러 놓고 점심행 거러놓고 상식을 허영.(겨울 드니까 결혼하려고 새색시를 해서 모셔놓으니까 정월 초이틀, 초사흘날 제지. 초사흘날은 폭허게 우리 삼춘이 죽지 않았어? 죽어버리니까 그 잔치 그냥. 다시 또 그 해서 죽었는데, 총각 죽었는데 우리 할머니 상식을 할 거 아니냐? 아들 죽으니까 상식.)

102001 @ 예.(예.)

102001 # 그추룩 허멍 살아가노렌 허난 따시 또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란 이제, 혼디 살아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아주망 헨 풀고. 살아가민 할망은 경헨 메뉴리가 버슬영 재산을 일뤼난 살아도 영 메뉴리ㄴ라 우리 할머니도 경 막 욕을 해여, 밧디 가민.(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노라고 하니까 다시 또 우리 어머니가 돌아와서 이제, 함께 살았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올케 해서 팔고. 살아가면 할머니는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벌어서 재산을 일궈서 살아도 이렇게 며느리보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막 욕을 해, 밧에 가면.)

102001 @ 응.(응.)

102001 # 밧디 강 욕을 해도 어멍ㄴ라, 아이고, 할마닌 이만저만 헤렌 안 해. 밧디 가민 어멍이 따시 할망ㄴ라 느 할망 허는 거 무시거엔 야단해도 할마닌ㄴ라 어머니 경헤렌 욕헤렌 말 안 곶아봤어.(밭에 가서 욕을 해도 어머니보고, 아이고, 할머니는 이만저만 하더라고 안 해. 밧에 가면 어머니가 다시 할머니보고 네 할머니닌 하는 거 뭐냐고 야단해도 할머니보고 어머니 그러더라고, 욕하더라고 말 안 해봤어.)

102001 @ 하하하 거민 둘이 싸우네.(하하하. 그러면 둘이 싸우잖아.)

102001 # 안 곶앙 줌줌헨 그자 살곡.(말 안하고 잠잠해서 그저 살고.)

102001 @ 응.(응.)

102001 # 이젠 열 대으섯은 나고 저 동싱은 열세 술인가, 열네 술인가 나곡 허

난에 우리 아버지가 어디 저 대국 갓단에 술안 재로 오랏어. 재로 오란에 이젠 경허민 나 이제라도 영 현 아이 상제 노릇 허는 거 보민 기가 맥혀. 이녁 동생 해난 생각 허민. 그거 허영 상제 노릇헤영 그때 오민 삼년이고.(이젠 열 대여섯은 나고 저 동생은 열세 살인가, 열네 살인가 나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디 저 대국 갔다가 불살라서 재로 왔어. 재로 와서 이젠 그러면 나 이제라도 이렇게 한 아이 상제 노릇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 내 동생 했던 생각 하면. 그거 해서 상제 노릇해서 그때 오면 삼 년이고.)

102001 @ 예.(예.)

102001 # 큰일만, 큰일만 행 그거 죽은삼촌 죽영 삼 년, 그땐 삼 년 아냐? 삼 년 헤영 아버지 돌아간 삼 년 허여, 경허단 보난 따시 또 고모도 시집간 뒤 밧디 강 살단 못허난 죽어가난 따시 그디 오란 아팠 뒤 가민 고모도 그디서 소상했지. 경 큰일만, 큰일만 허멍 살아가는디 따시 경행 가마귀 소리 각각허민 저 집인, 어린 때라도 저거 우리 나시 가마귀, 하도 사람이 죽어 가난.(큰일만, 큰일만 하면서 그거 작은삼촌 죽어서 삼 년, 그땐 삼년 아니냐? 삼 년 해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삼 년 해, 그러다 보니 다시 또 고모도 시집가서 두어 군데 가서 살다가 못하니까 죽어가니까 다시 거기 와서 아파서 누어 가면 고모도 거기서 소상했지. 그렇게 큰일만, 큰일만 하면서 살아가는데 다시 그렇게 해서 까마귀 소리 각각하면 저 집은, 어린 때라도 저거 우리 깃 까마귀, 하도 사람이 죽어 가니까.)

102001 @ 응.(응.)

102001 # 게난 죽은아방 죽어, 우리 아부지 돌아가, 고모 죽어 허난 이젠 가마귀만 소리 각각나민 우리 집이 누게가 죽젠 험신가 허멍.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죽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서, 고모 죽어 하니까 이젠 까마귀만 소리 각각하면 우리 집에 누가 죽으려고 하나 하면서.)

102001 @ 아이고.(아이고.)

102001 # 경허단 보난 안팍거리 우리 할마닌 밧거리 눅고, 난 안거리 눅꼭 허는디 어멍이 둘룬벵<sup>26)</sup>을 걸렁 죽어가는 거라.(그러다 보니 안팍채 우리 할머니는 바깥채 눅고, 난 안채 눅고 하는데 어머니가 ‘둘룬벵’을 걸려서 죽어가는 거야.)

102001 @ 무신 벵?(무슨 병?)

102001 # 둘룬벵이엔 현 배 아팍 피똥 싸는 거.(‘둘룬벵’이라고 한 배 아파서 피똥 싸는 거.)

102001 @ 아.(아.)

102001 # 경현 벵을 걸렁 죽어가는 거라. 이젠 낮인 검질 메레 가고 어멍이 경배꿍디 나가민 나가 가근에 단지 바치고 무시거 허당 보민, 옛날은 흑헤근에 돌로담 다는디 굴겨불민 뒷날은 그 물 질어당 나가 다 시쳐. 우리 할머니가 무신거엔 곤는 중 아느냐? 이번이나 안 허민 나가 허여주주 허당 보민 이번이나 허꼭 저번이나, 경허면 혼 보름을 그추룩 허멍 살단 어멍이 경해도 살아난.(그런 벵을 걸려서

26) ‘둘룬벵’은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으나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설사병인 듯하다.

죽어 가는 거야. 이젠 낮엔 김매러 가고 어머니가 그렇게 밖에 나가면 내가 가서 단치 받치고 무엇 하다 보면, 옛날은 흙해서 돌로 담을 쌓는데 갈려버리면 뒷날은 그 물 길어다가 내가 다 씻어.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이번이나 안 하면 내가 해 주주 하다 보면 이번이나 하고 저번이나, 그러면 한 보름을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어머니가 그래도 살아났어.)

102001 @ 예.(예.)

102001 # 이젠 나가 열아홉 나난 따시 또 정허멍 살아가단에 이젠 열아홉 나난 에 이젠 나가 누게 바당 물질허레 가젠. 충청돌 갓주. 충청돌 간에 이젠. 침 기가 맥힌 삶이주. 충청도 가난에 물질허레 가난 그딘 생복만 잡고 저 해삼만 현 디주. 간에 물질헨에 멩지 헨 흐 필 사 아지고 돈 삼십원 헨. 돈 십 원헨 좁쌀 오 톤 가 메니로 하나 해 아지고 헨 간에 물질을 허는디 이제 돈은 삼십원을 버슬언 오란. (이젠 내가 열아홉 나니까 다시 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젠 열아홉 나니까 이젠 내가 누가 바다에 물질하러 가자고. 충청도를 갔지. 충청도를 가서 이젠. 참 기가 막힌 삶이지. 충청도 물질하러 가니까 거긴 전복만 잡고 저 해삼만 하는 데지. 가서 물질해서 명주 해서 한 필 사 가지고 돈 삼십 원 해서. 돈 십 원해서 좁쌀 오 톤 가마니로 하나 해 가지고 해서 가서 물질을 하는데 이제 돈은 삼십 원을 벌어들였어.)

102001 @ 예.(예.)

102001 # 삼십 원을 버슬언 오란 우리 어머니가 흐는 말은 야, 보험에, 옛날은 보험에 들엇당 나똥 느 크거든 그 보험 탈 때랑 반씩 갈르겐. 돈 삼십 원 헨 주난 육지 가온 거 편적해분 거 아니라? 그 보험금만 오곳 돌아나 부난. 편적헨. 이젠 뒷헨 따시 또 소안도<sup>27)</sup> 간덴 소안도도 간 헨디.(삼십 원을 벌어서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은 야, 보험에, 옛날은 보험에 들엇다가 내딸 너 크면 그 보험 탈 때는 반씩 가르자고. 돈 삼십 원을 해서 주니까 육지 갔다온 거 아무것도 없이 되어 버린 거 아니냐? 그 보험금만 흔적없이 돌아나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젠 뒷해는 다시 또 소안도 간다고, 소안도도 가서 하는데.)

102001 @ 어디 간다고? 소한?(어디 간다고? 소안?)

102001 # 소안도, 육지 이서.(소안도, 육지 있어.)

102001 @ 소안도?(소안도?)

102001 # 응, 경허단 보난 야가지에 나리역을 나불지 안 해서? 나리역을 나난에 이젠, 그 소안도 간 오란 허난에 저 그거 구완해 줌이엔 헨에 이젠. 그때도 돈 백만 원인가 얼마 벌언 왓주.(응, 그러다 보니 목에 나력을 나버리지 않았어? 나력에 걸리니까 이젠, 그 소안도 갔다 와서 하니까 저 그거 구완해 준다고 해서 이젠. 그때도 돈 백만 원인가 얼마 벌어서 왔지.)

102001 @ 예.(예.)

102001 # 나리역 고완허젠 백만 원 주난 돌레떡 대접만이 현 거 하나 해단 그

27) '소안도'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섬 이름이다.

걸 부찌난 좋느냐? 안 좋주. 경헨 설럿주.(나력 구완하려고 백만 원 주니까 도래떡 대접만큼 한 거 하나 해다가 붙이니까 낫니? 안 낫지. 그렇게 해서 그만두었지.)

102001 @ 할머니가 나리역 걸런?(할머니 나력 걸렸어?)

102001 # 응, 나가 나리역 난.(응, 내가 나력 났어.)

102001 @ 나리역은 어떻 헨 거?(나력은 어떤 거?)

102001 # 야기지에 허물 낭 허는 거 나리역이엔 헨 거 이서낫주게, 옛날에. 야 가지에.(목에 부스럼 나서 하는 거 나력이라고 한 거 있었었어, 옛날에. 목에.)

102001 @ 응.(응.)

102001 # 경허단 보난 혼 해엔 따시 또 경 아판 못 헨, 막 물란 물질 못 헨. 그 거 구완허젠 허난. 도새기레기도 못 먹고, 갈치도, 고등에도 못 먹고 비늘 부뜬 거 베피 못 먹어.(그러다 보니 한 해에는 다시 또 그렇게 아파서 못 했어, 아주 말라서 물질 못 했어. 그거 구완하려고 하니까. 돼지고기도 못 먹고, 갈치도, 고등어도 못 먹고 비늘 붙은 거밖에 못 먹어.)

102001 @ 무신거베피 못 먹어?(무엇밖에 못 먹어?)

102001 # 비늘 부뜬 거.(비늘 붙은 거.)

102001 @ 비늘 부뜬 거.(비늘 붙은 거.)

102001 # 비늘 신 거베피 못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 경헨 혼 헨 안 간.(비늘 있는 거밖에 못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 그렇게 해서 한 해는 안 갔어.)

102001 @ 응.(응.)

102001 # 또 뒷해엔 따시 울산진인가 어디 간 물질해연 오란. 이젠 경정허단 보난 혼 해 늣추난 스물 두어 낫주게. 스물두어 나난, 대부분 스물두어에 결혼허난. (또 다음 해엔 다시 울산진인가 어디 가서 물질해서 왔어. 이젠 그럭저럭하다 보니 한 해 늣추니까 스물두어 살 났지. 스물두어 살 나니까, 대부분 스물두어 살에 결혼 하니까.)

102001 @ 잠깐만예, 결혼헌 거 흥뽀 잇당예, 아까 얘기업젠 어디 간 거?(잠깐만 요, 결혼한 거 조금 있다가요, 아까 업저진 어디 간 거?)

102001 # 얘기업젠 옛날에 늣으 집이주게.(업저지는 옛날 남의 집이지.)

102001 @ 늣으 집이 어디 간 거라?(남의 집이 어디 간 거야?)

102001 # 그 동네.(그 동네.)

102001 @ 그 동네, 삼달리 동네?(그 동네, 삼달리 동네?)

102001 # 응.(응.)

102001 @ 아버지진 게난 언제 죽은 거?(아버지는 그러니까 언제 죽은 거?)

102001 # 아부진 나 혼 열일곱 술에 쫄 죽언. 나 아방 얼굴 몰라.(아버진 나 한 열일곱 살쫄에 죽었어. 나 아버지 얼굴 몰라.)

102001 @ 그 전인 그민 아버지진 어디 강 살아난 거?(그 전엔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 가서 살았던 거야?)

102001 # 어디사 간 살아신디 알게 무시거라? 소문을 못 들언 살았어.(어디야



가서 살았는지 알게 뭐니? 소문을 못 들어서 살았어.)

102002 @ 부모님도 주로 농사 지어낸 거 아니?(부모님도 주로 농사 지었던 거 아니?)

102002 # 우리 어머니 일본 간 살단 완 농사 지었주게.(우리 어머니 일본 가서 살다 와서 농사 지었지.)

102002 @ 일본 간 무신거 해놔어?(일본 가서 무엇 했었어?)

102002 # 일본 간 공장에 텅겨놔주게. 보루 안 줏언. 보루<sup>28)</sup> 주서나민 애기덜 전염허영.(일본 가서 공장에 다녔었지. 폐지는 안 주웠어. 폐지 주웠으면 아기들 전염해서.)

102002 @ 뭐 안 주서?(뭐 안 주워?)

102002 # 보루엔 허민 폐병, 폐병 들러난 옷 행 데껴 불민 그거 주서당 풀곡 애기덜 행 주곡. 우리 어머니 스춘 동세가 젊은 때 념펜 죽어부난 일본 간디 보루 주스난 딸도 시 성젠가 니 성젠가 폐병 걸려 죽었어. 우리 어머니 돈은 하영 안 버슬어도 공장에 텅기난 그런 전염은 었어.(‘보루’라고 하면 폐병, 폐병 걸렸던 옷 해서 던져 버리면 그거 주워다가 팔고 아기들 해서 주고. 우리 어머니 사춘 동세가 젊은 때 남편 죽어 버리니까 일본 갔는데 ‘보루’ 주우니까 딸도 삼 형제인가 사 형제인가 폐병 걸려서 죽었어. 우리 어머니 돈은 많이 안 벌어도 공장에 다니니까 그런 전염은 없어.)

102003 @ 어머니 고향은 어디파?(어머니 고향은 어디입니까?)

102003 # 서서와리<sup>29)</sup>.(서세화리.)

102003 @ 서서화리?(서세화리?)

102003 # 돈오름<sup>30)</sup>.(‘돈오름’.)

102003 @ 돈오름?(‘돈오름’?)

102003 # 돈오름 강침이 딸이라.(‘돈오름’ 강씨집 딸이야.)

102004 @ 할머니 어릴 때 매일 일만 허고.(할머니 어릴 때 매일 일만 하고.)

102004 # 일만, 일만 허난 글도 못 배웠주게.(일만, 일만 하니까 글도 못 배웠지.)

102004 @ 동네 아이덜이영 곱을락이라도 해놔수과?(동네 아이들이랑 숨바꼭질이라도 했었습니까?)

102004 # 곱을락헐 저를 어디 서놔어? 삼 삼곡 경허멍 미녕 올 내고 어느 저를에 곱을락허여? 경허당 갯궂이도 가고 마농 파래 가곡 어느 저를에 곱을락허레 텅길 말이라?(숨바꼭질할 겨를 어디 있었어? 삼 삼고 그렇게 하면서 무명 올 내고 어느 겨를에 숨바꼭질해? 그러다가 갯가에도 가고 마늘 파래 가고 어느 겨를에 숨바꼭질하러 다닐 말이야?)

28) ‘보루’는 일본어 ‘ボール’로 상자나 폐지 등을 말하는 것이다.

29) ‘서서와리’는 ‘서세화리’라는 말로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를 말하는 것이다. 세화리는 서세화리(세화1리), 동세화리(세화3리), 가마리(세화2리)로 나누어져 있다.

30) ‘돈오름’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의 옛지명으로 ‘돈내오름, 돈노름’이라고도 한다.

102004 @ 예.(예)

102004 # 갯굿이 가근에 경허다근에 고동닥살 놔근에 고메기 잡아근에 삶아 먹는 장난은 해놔어.(갯가에 가서 그러다가 소라껍질 놔서 소라 잡아서 삶아 먹는 장난은 했었어.)

102004 @ 무신거?(무엇?)

102004 # 갯굿이 가근에 고동 먹어난 거 닥살 솟 앓지듯 앓정 고메기 잡앙 그디 낱 삶앙.(갯가에 가서 소라 먹었던 거 껍질 솟 안치듯 안쳐서 소라 잡아서 거기 놔서 삶아서.)

102004 @ 불 때영?(불 때어서?)

102004 # 불 때멍 숨는 체허멍 콧장난 그건 해놔어.(불 때어서 숨는 체하면서 소꿉장난 그건 했었어.)

102004 @ 그건 무신 장난이파?(그건 무슨 장난입니까?)

102004 # 그거 살림 사는 거 고메기 삶앙 먹젠 허멍게.(그거 살림 사는 거 고동 삶아서 먹자고 하면서.)

102004 @ 이제 말은 소꿉장난인디 옛날 말은?(이제 말은 소꿉장난인데 옛날 말은?)

102004 # 옛날 거 장난이주. 성창에 가근에 그 물때 가근에 돌 트멍에 앓앙게.(옛날 그거 장난이지. 선창에 가서 그 물때에 가서 돌 틈에 앓아서.)

102004 @ 어디 강?(어디 가서?)

102004 # 그 갯굿이 돌 신 디 바당에 강. 바당 브디난게, 그건 해놔어. 곱을락 ㄱ튼 건 안 해난. 이 동네 사름덜 삼 무신거 안 헌 사름은 뜸 차곡. 초석도 차고. 경 물질허당 트멍에 악착같이 살았주. 노는 아이덜 배랑 엇었어.(그 갯가에 돌 있는데 바다에 가서. 바다 가까우니까, 그건 했었어. 숨바꼭질 같은 건 안 했었어. 이 동네 사람들 삼 무엇 안 한 사름은 뜸 짜고. 초석도 짜고. 그렇게 물질하다가 틈에 악착같이 살았지. 노는 아이들 별로 없었어.)

102005 @ 일제 강점기 때 공출도 해놔지예? 주로 빼때기?(일제시대 때 공출도 했었지요?)

102005 # 빼때긴 고구마 놔근에.(절간고구마는 고구마 놔서.)

102005 @ 공출.(공출.)

102005 # 공출은 옛날에 빼때기 공출은 안 해나고 곡식, 보리 ㄱ튼 거. 공출 다 해불민 엇인 사름은 엇지 안해? 우린 경 안 해봐신디 곱져. 어디 드르에 강 땅 팡 황 소곱에도 놓고 경 해놔젠 허주. 우린 안 해봐. 엇이난 우린 엇이난게. 한 사름덜 경행 묻주, 엇인디 물어게?(공출은 옛날에 절간고구마 공출은 안 했었고 곡식, 보리 같은 거. 공출 다 해버리면 없는 사름은 없지 않아? 우린 그렇게 안 해봤는데 숨겨. 어디 들에 가서 땅 파서 향아리 속에도 놓고 그렇게 했었다고 하지. 우린 안 해봤어. 없으니까 우린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묻지, 없는데 물어?)

102005 @ 엇어도 내노렌 허지 안헨?(없어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

102005 # 엇인 건 내노렌은 안 허주. 하난 내노렌 허주. 경허고 경현 시절엔 나가 육지 탕겨부난 보지 못헐.(없는 건 내놓으라고 안 하지. 많으니까 내놓으라고 하지. 그리고 그런 시절엔 내가 육지 다녀버리니까 보지 못했어.)

102005 @ 예.(예.)

102005 # 경행 해 가불민 먹을 거 엇이민 저 바당에 강 고동을 잡아오라도 고동이 한한해도 혼엇이 사가질 안헤수게게. 고동 낱 국도 끌려 먹고 옛날은 따시 우리 물질헐 땀 혼 열여술곱 술, 스무 술 땀 고동을 신산리<sup>31)</sup> 혼 짐을 정 가도 돈 혼 십 원이나 허지 안헐 혼 질구덕<sup>32)</sup>으로 몇 번 정 강 옛날 돈 이백 원, 이백오십 원 벌어났어.(그렇게 해서 가버리면 먹을 거 없으면 저 바다에 가서 소라를 잡아와도 소라가 아주 많아도 한없이 사가지 안았었어. 소라 놔서 국도 끓여 먹고 옛날은 다시 우리 물질할 땀 한 열여닐곱 살, 스무 살 땀 소라를 신산리 한 짐을 쳐서 가도 돈 한 십 원이나 하지 않아서 한 ‘질구덕’으로 몇 번 쳐서 가서 옛날 돈 이백 원, 이백오십 원 벌었었어.)

102005 @ 고등? (‘고등’?)

102005 # 고등게, 소라. 이젠 소라도 옛날은 고등. 경행 혼 짐 행 가도 옛날은 혼 오 원, 일 원, 고등 혼 근에. 이젠 킬로에 옛날은 혼 근에 경허명 행 가곡. 생복도 요만인 허민 킬로 수에 안 들어가고 커야 킬로에 가주.(소라, 소라. 이젠 소라도 옛날은 ‘고등’. 그렇게 해서 한 짐 해서 가도 옛날은 한 오 원, 일 원, 소라 한 근에. 이젠 킬로에 옛날은 한 근에 그렇게 하면서 해서 가고. 전복도 요만큼 하면 킬로 수에 안 들어가고 커야 킬로에 가지.)

102006 @ 사삼사건 땀 어떻 해났수과?(사삼사건 땀 어떻게 했었습니까?)

102006 # 스삼사건이엔 현 건 그 막끝에가 스삼사건 안 일어났수과? 폭도헐 때. 그때 폭도헐 땀 우리 저 웃삼달리 살단에 이디 오란에 집 짓언에 살 때 스삼사건 일어났수다. 난 우리 큰 딸이 시방 예순 아홉인디 가이 두술에 스삼사건 일어났수게.(사삼사건이라고 한 건 그 끝에가 사삼사건 안 일어났습니까? 폭도할 때. 그때 폭도할 땀 우리 저 윗삼달리 살다가 여기 와서 집 지어서 살 때 사삼사건 일어났습니다. 난 우리 큰 딸이 지금 예순 아홉인데 그 애 두 살에 사삼사건 일어났습니다.)

102005 @ 예.(예.)

102005 # 계난 아방은 입추 사례 가불고 난 가이 들곡 허민 폭도 오람젠 곱으레 가민 다른 사름덜은 아기덜 막 여라이도 난 아이 혼나 업으민 메기주게. 저 선창에 강 곱앗당 올라오곡 경허명. 경허단에 스삼사건에 우리 셋시아주방이 죽엇주게.(그러니까 아버지는 입초 서러 가버리고 난 그 애 데리고 하면 폭도 온다고 숨으러 가면 다른 사람들은 아기들 막 여러 명이라도 난 아이 하나 업으면 끝이지. 저 선창에 가서 숨었다가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사삼사건에 우리 둘째시 동생이 죽었지.)

31) ‘신산리’는 지명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를 말한다.

32) ‘질구덕’은 물건을 넣고 등에 젖 나르는 데 쓰이는 대바구니를 말한다.

102005 @ 예.(예.)

102005 # 그땐 성도 문 다운 땀도 동짓달, 선달 초아흐레날, 초일렛날에 아니 그자 막 눈은 아섯날 오란 눈은 문음은 문곡 아방은 입추 사례 가고 막 팍팍팍팍팍 소리가.(그땐 성도 모두 쌓은 땀도 동짓달, 선달 초아흐레, 초이레 아니 그저 막 눈은 전날 와서 눈은 문기도 문고, 아버지는 입초 서러 가고 막 팍팍팍팍팍 소리가.)

102005 @ 예.(예.)

102005 # 막곳엔 봄아 가난 가름에 누게 아방 죽었저 허난. 우리 집이 하르방은 이제 저 성읍리<sup>33)</sup> 못 우이 땀발에 돌아 가난 토벌이엔 현 건 폭도 잡으레 나산 거 아니파? 아이고 셋아방 죽었젠 돌아오난 그 폭도에 걸린 사람은 엇고 저 난산리허고 신평리가 다 폭도 아니라? 이 동넨 삼달린 엇어낫수게. (마지막엔 밝아 가니까 동네에 누구 아버지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할아버지는 이제 저 성읍리 못 위에 땀발에 달려 가니까 토벌이라고 한 건 폭도 잡으러 나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둘째아버지 죽었다고 돌아오니깐 그 폭도에 걸린 사람은 엇고 저 난산리하고 신평리가 다 폭도 아니냐? 이 동넨 삼달리 없었습니다.)

102005 @ 예.(예.)

102005 # 양곳에 몰린 네 사람 그날 저녁 죽었어. 다섯 사람이 다 부상 당허고 혼 사람은 뒷날 또 뒷날사 죽고 하르방덜 서인 그날 죽고. 곱안 토롱 헨 낫단 그 눈 그쳐사 폭도 끝나사 영장도 헛수게. 스삼사건 우리 흰허게 알아지고 말고.(양 끝에 몰려서 네 사람 그날 저녁 죽었어. 다섯 사람이 다 부상 당하고 한 사람은 뒷날 또 뒷날에야 죽고 할아버지들 세 명은 그날 죽고. 숨어서 임시 매장 해서 봐두었다가 그 눈 그쳐야 폭도 끝나야 영장도 했습니다. 사삼사건 우리 흰허게 알 수 있고 말고.)

102005 @ 예.(예.)

102005 # 나 시집간 애기 흐나 난 죽어 불고 두 번차 가진 때, 두 번차 난 스삼사건 일어난. (나 시집가서 아기 하나 난 죽어 버리고 두 번째 가진 때, 두 번째 낳아서 사삼사건 일어났어.)

102006 @ 할아버진?(할아버지는?)

102006 # 토벌허레 땡겨수게. 창 앓이고 보추 사고, 입추 사고. 뒷날은 입추 사민 저 어디 성산 그디 강 허레 땡기고 연락병으로.(토벌하러 다녔습니다. 창 갖고 보초 서고, 입초 서고. 뒷날은 입초 서면 저 어디 성산 거기 가서 하러 다니고 연락병으로.)

102007 @ 결혼은 몇 살에 현 거?(결혼은 몇 살에 한 거?)

102007 # 스물둘에.(스물둘에.)

102007 @ 할아버진 몇 살이파?(할아버진 몇 살입니까?)

102007 # 스물흐나.(스물하나.)

102007 @ 할아버지가 흐나 알?(할아버지가 한 살 아래?)

33) '성읍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말한다.

102007 # 돛헤치, 난 개헤치고.(돼지띠, 난 개띠고.)

102007 @ 결혼은 어떻 행 해수과? 누게가 중신 선?(결혼은 어떻게 해서 했었습니까? 누가 중매 섰어?)

102007 # 중신 어디 방상 할망이 샷주.(중매 어디 친척 할머니가 섰지.)

102007 @ 예.(예.)

102007 # 게난 남편도, 아방은 저 아방 성읍리 결혼헐 죽어 부난 두 번차 알동네 김침이 딸을 헌디. 대마돈가 어딘가 가난 우리 시어멍 물질도 혼엇이 잘 안 해 낫주만은. 우리 시아방은 줌수로 가고 우리 시어멍은 물질허레 가난 아덜은 벤 중 안디. 이젠 대마도 가난 애기 설미엔 물질도 졸바로 못허난 부산을 오난 우리 시어멍은 팔월[팔월]에 들어와 불고 우리 시아방은 부산 오란 차비 버슬언 가켄 다대 어딘가 간 살단 시월에 시월 열일렛날에 죽어 불언. (그러니까 남편도, 아버지는 저 아버지 성읍리 결혼해서 죽어 버리니까 두 번째 아랫동네 김씨집 딸을 했는데. 대마도인가 어딘가 가니까 우리 시어머니 물질도 한없이 잘 안 했었지만. 우리 시아버지는 잠수로 가고 우리 시어머니는 물질하러 가니까 아들은 벤 줄 알았는데. 이젠 대마도 가니까 애기 섰다고 물질도 제대로 못하니까 부산을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팔월에 들어와 버리고 우리 시아버지는 부산 와서 차비 벌어서 가겠다고 다대 어딘가 가서 살다가 시월에, 시월 열이레에 죽어 버렸어.)

102005 @ 예.(예.)

102005 # 이젠 어멍은 애기 밴디 시아방은 죽어 분 거 아니 육지서. 육지서 죽어 부난 우리 시어멍이 그 애기, 우리 남편 봐된 계부 행 가불지 안헤서? 난 열일곱은 나난 중진이 잣다왔다허단 나리역 나는 통에 스물둘 나사 시집을 간 거라. 스물둘 나난 졸바른 디 시집을 가져? 스춘 시아주방 신 디 시집을 가서.(이젠 어머니는 아기 났는데 시아버지는 죽어 버린 거 아니, 육지서. 육지서 죽어 버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 아기, 우리 남편 봐두고 계부 해서 가버리지 않았어? 난 열일곱 나니까 중매가 왔다갔다 하다가 나력 나는 통에 스물둘 나야 시집을 간 거야. 스물둘 나니까 제대로 된 데 시집을 갈 수 있어? 사촌 시아주버니 있는 데 시집을 가서.)

102007 @ 예?(예?)

102007 # 우리집이 아방<sup>34</sup>, 스춘 시아방네 집이 시집을 가서. 아방 스춘 성네 집이 사는데 그디 시집가서. 우리 시할망이 우리집아방을 키웠어.(우리집의 아버지, 사촌 시아버지네 집에 시집을 가서. 아버지 사촌 형네 집에 사는데 거기 시집가서. 우리 시할머니가 우리 남편을 키웠어.)

102007 @ 예.(예.)

102007 # 살아가는디 따시 또 스물셋에 아기 배도 황해도 간에 물질을 가난에. 해삼 잡고, 생복 잡곡 허는다. 나가 시방은 늙어도 일이 빠르주게. 늘어지지 안허여.(살아가는데 다시 또 스물셋에 아기 배어도 황해도 가서 물질을 가니까. 해삼 잡고, 전복 잡고 하는데. 내가 시방은 늙어도 일이 빠르지. 늘어지지 않아.)

34) '우리집이 아방'은 우리 집의 아버지라고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말한다.

102007 @ 예.(예.)

102007 # 뱃살림하는 육질 가주게. 박박 털엉 속곳 하나만 입엉 헐 땀디 아이 물에 들지 말주 허단 늦게 들어도 앞이 든 사름보다 해삼을 하영 잡아, 나가. 나가 아기 설고 해도 삼등을 허여. 경헐 물질 해연 오란 애긴 따시 구월 나난에 우리 시 할망 제라.(뱃살림하는 육지를 가지. 박박 떨어져 속옷 하나만 입어서 할 땀데 아이 물에 들지 말지 하다가 늦게 들어도 앞에 든 사람 보다 해삼을 많이 잡아, 내가. 내가 아기 서고 해도 삼등을 해. 그렇게 해서 물질 해서 와서 아긴 다시 구월 나니까 우리 시할머니 제야.)

102007 @ 예.(예.)

102007 # 그 옛날에 산뒤 해당 굴양 식계행 먹젠 허난 비어당 홀탕 두드렁 몰 ㄴ레 다 굴양 좁쌀 행 다 ㄴ레에 갈곡. 애기 나는 거, 애기 배 아팠 ㄴ레 굴젠 허민 ㄴ레착에 탁 반앙 배가 그냥 아프텐 말도 못하고. 그 ㄴ루 갈안 그 떡을 다 허연, 멍청허기가. 떡 든 헐 놔두고 헐 어둑어 가난 혼 으섯 시 땀 가난 막 아판 친정에 갔주게. 아깃빠 맞출 거 아냐?(그 옛날에 밭벼 해다가 갈아서 제사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베어다가 훑어서 두드려서 연자매에 다 갈아서 좁쌀 해서 다 맷돌에 갈고. 아기 낳는 거, 아기 배 아파서 맷돌 갈려고 하면 맷돌쪽에 탁 받아서 배가 그냥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 가루 갈아서 그 떡을 다 했어, 멍청허기가. 떡 모두 해서 놔두고 해서 어두워 가니까 한 여섯 시 되어 가니까 아주 아파서 친정에 갔지. 아기 빠 맞출 거 아니야?)

102007 @ 예.(예.)

102007 # 출발디 강 날르멍 무신거 허단 보난 우리 시아주방 똥은 흑교 간 오란 불 담으레 덩기단 마당에 불테미 털어진 불을 난. 동짓달에 결혼허연 구월 나난 돌전이 행 간 이불 편직이 다 케와불 거 아니냐? 애기 난 돌아아정 완 보난 정지거리 반작 카불고 쉼왕 반작 칸.(꿀밭에 가서 나르면서 무엇 하다 보니 우리 시아주버니 딸은 학교 갔다 와서 불 담으러 다니다가 마당에 불똥 떨어져서 불이 났어. 동짓달에 결혼해서 구월 나니까 돌전이 해서 가서 이불 깨끗이 다 태워 버릴 거 아니냐? 아기 낳아서 데리고 와 보니 부엌간 반쪽 타버리고 외양간 반쪽 탔어.)

102007 @ 예.(예.)

102007 # 난 어스름에 애기 낳 하루밤만 살민 듯날은 애기 몸을 감아 불주. 아이, 아기 나근에 이틀밤만 살앙 헤시민 원이 엇이켤 허주. 경허난 마당에서 마계질 헐 조 해단 툇아단 두드런 이젠 그디 밧거리 구들은 두 개고 못정지<sup>35)</sup> 싯곡 허난 그디 솟 앓전에. 애기 몸 아싯날 헐에 열엿새날 애기 낳고 열일레날은 머리 몸 감으민 솟 앓정 밥행 먹젠 허난 눈물이 안 날 거냐?(난 어스름에 아기 낳아서 하루밤만 살면 뒷날은 아기 목욕을 해 버리지. 아이, 아기 나서 이틀밤만 살아서 했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지. 그러다가 마당에서 방망이질 해서 조 해다가 뜯어다가 두드려서 이젠 거기 바깥채 구들은 두 개고 ‘못정지’ 있고 하니까 거기 솥 안쳐서. 아기

35) ‘못정지’는 결체인 ‘모커리’에 있는 ‘정지’라는 뜻이다.

몸 전날 해서 열엿새날 아기 낳고 열이레날은 머리 감고, 목욕하면 술 안쳐서 밥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눈물이 안 나겠니?)

102007 @ 예.(예.)

102007 # 경허른 안팓거리에 살멍 지네랑 밥행 먹고 요거 오랑 혼 직 먹으렌 허민 말 건디, 아방은 어디 저 공출 그때 어디 산에 그 무신 일본 군인들 오랑 허민 텡겨낫주게. 경허민 울지 말젠 해도 기가 맥형 이녁집이선 이추룩 안 살앙 나가 웨뜰이고 단오누이고 할망이영 살앗주만은 울지 말젠 해도 기가 막히주.(그러면 안 꺾채에 살면서 자기네는 밥해서 먹고 요거 와서 한 숟가락 먹으라고 하면 말 건데, 아버지는 어디 저 공출 그때 어디 산에 그 무슨 일본 군인들 와서 하면 다녔었지. 그러면 울지 앓으려고 해도 기가 막혀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안 살아서 내가 외딸이고 단오누이고 할머니랑 살았지만 울지 앓으려고 해도 기가 막히지.)

102007 @ 옛날엔 다 중신 샷주예?(옛날엔 다 중매 셧지요?)

102007 # 켜당이 육춘, 오춘 고모가 이제 이 동네 사름이난에 중매해 췌주게.(켄당이 육춘, 오춘 고모가 이제 이 동네 사람이니까 중매해 췌지.)

102008 @ 결혼할 때 사주도 봐낫수과?(결혼할 때 사주도 봤었습니까?)

102008 # 옛날엔 스주허고 그디 저 무시거 다 여장 다 썬낫주게. 이젠 안 해도.(옛날엔 사주하고 거기 저 무엇 다 예장 다 썬었지. 이젠 안 해도.)

102008 @ 이제도 허는 딴 허여.(이제도 하는 데는 해.)

102008 # 우리 집이덜은 손지 제작년이 풀아도 예장 아니 받아고. 예장은, 옛날은 예장 안 받는 건 현 새각시엔 허여.(우리 집에들은 손자 제작년에 팔아도 예장 안 받더라. 예장은, 옛날은 예장 안 받는 건 현 새색시라고 해.)

102008 @ 무신거라?(뭐라고?)

102008 # 현 새각시렌 현 건 무신건고 허민 애길 나나 새서방이 어디 브름을 피우나 현 걸 현 새각시엔 허주게. 무시거 탈이 시민 예장을 못 썬.(현 새색시라고 한 건 무엇인고 하면 아기를 낳거나 새신랑이 어디 바람을 피우거나 한 걸 현 새색시라고 하지. 무엇 탈이 있으면 예장을 못 썬.)

102008 @ 계난 예장 안 쓰민 현 새각시라고?(그러니까 예장 안 쓰면 현 새색시라고?)

102008 # 응.(응.)

102009 @ 결혼할 때 무신 거 출령 갑니까?(결혼할 때 무엇 차려서 갑니까?)

102009 # 우리 옛날엔 잘 허는 사름은 꺾허고 이불도 우알자리허곡 경행 결혼 해낫주. 멍지 치메에, 멍지 장옷에 옛날은 멍지 장옷 헛주. 영 깃, 푸린 깃허고, 붉은 깃허고 행 장옷허고. 썬는 거허고 경행. 우린 그때 엇이난 저 멍지 창옷만 입언. 멍지 치메, 멍지 저고리 입언 갓주.(우리 옛날엔 잘 하는 사름은 꺾하고 이불도 위아래 자리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었지. 명주 치마에, 명주 장옷에 옛날은 멍지 장옷 헛지. 이렇게 깃, 푸른 깃하고, 붉은 깃하고 해서 장옷하고. 썬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린 그때 없으니까 저 명주 창옷만 입었어. 명주 치마, 명주 저고리 입어서

왔지.)

102009 @ 결혼할 때 무신거 받았수과?(결혼할 때 무엇 받았습니까?)

102009 # 우린 무신거 안 받아봤. 계난 시집이서 잘 해준 사름은 멍지 저고리, 멍지 치메 해주주게.(우린 뭐 안 받아봤어. 그러니까 시집에서 잘 해준 사름은 명주 저고리, 명주 치마 해주지.)

102009 @ 시집이서 옷 해줘?(시집에서 옷 해줘?)

102009 # 우린 시어멍 엇으난 것도 안 받아봤어.(우린 시어머니 없으니까 그것도 안 받아봤어.)

102009 @ 시집이 친척들이 해 주는 건 엇어?(시집에 친척들이 해 주는 건 엇어?)

102009 # 옛날은 엇어났어게. 새사름 왓젠 밥이나 행 먹엇주, 선물사 엇어났어.(옛날은 없었어. 새사람 왔다고 밥이나 해서 먹었지, 선물이야 없었었어.)

102010 @ 결혼식은 어디서 해마씨?(결혼식은 어디서 해요?)

102010 # 집이서.(집에서.)

102010 @ 신랑집이서, 신부집이서?(신랑집에서, 신부집에서?)

102010 # 신랑집이서 출렁 신부집이 가민 새각시 들앙 신랑집이 가근에 상 올려줘근에 허민 거 메기주. 어디 여행 가고 옛날은 해났어?(신랑집에서 차려서 신부집에 가면 새색시 데리고 신랑집에 가서 상 차려줘서 하면 그거뿐이지. 어디 여행 가고 옛날은 했었어?)

102010 @ 마당에서 절하고 영 안 해?(마당에서 절하고 이렇게 안 해?)

102010 # 안 해.(안 해.)

102010 @ 그냥 막바로 들어가?(그냥 바로 들어가?)

102010 # 방에 들어가민 그디 대반 앓아근에 대반이 밥행 밥 세 수가락 거렁 상아래 게지깁이에 낱 데껴 불고 새각시밥 행 혼 수가락 주고 헛주.(방에 들어가면 거기 대반 앓아서 대반이 밥해서 밥 세 숟가락 떠서 상 아래 밥뚜껑에 놔서 던져 버리고 새색시 밥해서 한 숟가락 주고 헛지.)

102010 @ 결혼사진은 엇어났수과?(결혼사진은 없었습니까?)

102010 # 사진은 무시거게. 도께에, 뒤편에 들렁 땡겨났어게, 몰 메왕.(사진은 뭐. 독교에, 독교에 들어서 다녔었어, 말 메워서.)

102011 @ 처음 결혼허민 어디 살아?(처음 결혼하면 어디 살아?)

102011 # 결혼허민 시집이 살주게.(결혼하면 시집에 살지.)

102011 @ 시집이 시어멍, 시아방은?(시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102011 # 혼디. 방 하나뿐이민 혼디도 자곡. 옛날 삶이사.(함께. 방 하나뿐이면 함게도 자고. 옛날 삶이야.)

102011 @ 나중에 집 짓영 가? 밧거리라도.(나중에 집 지어서 가. 바깥채라도.)

102011 # 밧거리 시민 밧거리 살고. 흠뽀 무시거 현 집인 밧거리 살리고.(바깥채 있으면 바깥채 살고. 조금 뭐 한 집은 바깥채 살게 하고.)



102011 @ 할머니 어땠 해낫수과?(할머니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02011 # 계난 안 굴암서게? 그 모커리 시난에 그 부제, 우리 시아주방네 부제로 사난에 그 모커리 쉼왕 행 세 거리 헨 사난 안거리 시아주방 살고 모커린 나가 살앗엇주게. 모커리 살명 헨 말이주게, 혼 마당에.(그러니까 안 말하고 있니? 그 결채 있으니까 그 부자, 우리 시아주버니네 부자로 사니까 그 결채 외양간 해서 세 채 해서 사니까 안채 시아주버니 살고 결채는 내가 살앗엇지. 결채 살면서 한 말이 지, 한 마당에.)

102011 @ 아, 안거린 시아주방 살고.(아, 안채 시아주버니 살고.)

102011 # 모커린 모에 신건 나가 살고.(결채 모서리에 있는 건 내가 살고.)

102011 @ 할아버진 몇 번째 아덜이과?(할아버지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102011 # 우리집이아방 외아덜이주게. 아방 죽어불고 어땠 엇어 부난 독자라, 외독자라.(우리 남편 외아들이지. 아버지 죽어 버리고 어머니 없어버리니까 독자야, 외독자야.)

102011 @ 아까 안거리 시아주방은 누게가?(아까 안채 시아주버니는 누가?)

102011 # 스춘, 스춘 시아주방.(사춘, 사춘 시아주버니.)

102011 @ 스춘 시아주방네 안거리 살고 할머니 모커리에 살고. 밧거린 엇어?(사춘 시아주버니네 안채 살고 할머니는 결채에 살고. 바깥채는 없어?)

102011 # 밧거린 쉼왕. 경헨 살명게 그 모커리 헨 살명 요딘 방이고 요딘 정지 시난 그디 솟 두 개 앓정 그레 굴양 스레기 반, 너<sup>36)</sup>. 두루 굴아진 건 너 신 거헨 허주게. 조 방울 신 거 행 밥헨 먹으련 허난 기가 맥힌 말 아니라?(바깥채는 외양간. 그렇게 해서 살면서 그 결채 해서 살면서 요기 방이고 요긴 부엌 있으니까 거기 솟 두 개 안쳐서 밧돌 갈아서 싸라기 반, 뉘. 덜 갈아진 건 뉘 있는 거라고 하지. 조 방울 있는 거 해서 밥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말 아니냐?)

102011 @ 시아방도 엇고 시어명도 엇고 부제도 아닌디 무사 시집잡디가?(시아버지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부자도 아닌데 왜 시집가셨습니까?)

102011 # 가렌 허난 갓주게. 경헨도 옛날이난 가서. 스물둘 나난 나 하덴 보낸 거 아니냐? 열일곱은 나난 부제칩이 중신 왔다갔다 헤신디 야가지에 허물 난 허단 보난 스물둘 나난 늙은 비바리헨 경헨 디 시집을 보내연.(가라고 하니까 갔지. 그래도 옛날이니까 갔어. 스물둘 나니까 나이 많다고 보낸 거 아니냐? 열일곱은 나니까 부잣집에서 중매 왔다갔다 했는데 목에 부스럼 나서 하다 보니까 스물 둘 나니까 늙은 처녀라고 그런 데 시집을 보냈어.)

102011 @ 아까 못정지가 뭐?(아까 ‘못정지’가 뭐?)

102011 # 모커리난 못청지.(결채니까 ‘못정지’.)

102012 @ 애기는 몇 개나 낳디가?(애기는 몇 개나 낳았습니까?)

102012 # 우로 뜰 성제 난 죽어 불고 중간으로 아덜 성제 나고 막곳엔 뜰은 네 성제 난 애긴 으섯 개 낳주게. 시방 큰뜰은 예순아홉이고 죽어 분 큰아덜은 예순

36) ‘너’는 짧은 쌀 속에 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를 말하는 것으로 표준어로 ‘뉘’이다.

다섯이고.(위로 딸 형제 낳아서 죽어 버리고 중간으로 아들 형제 낳아서 마지막엔 딸은 네 형제 낳아서 아긴 여섯 개 낳았지. 시방 큰딸은 예순아홉이고 죽어 버린 큰아들은 예순다섯이고.)

102012 @ 우로 딸 두 갠 죽어 불고?(위로 딸 두 갠 죽어 버리고?)

102012 # 응, 우로 하나하고 중간으로 하나 죽어 불고.(응, 위로 하나하고 중간으로 하나 죽어 버리고.)

102012 @ 큰딸이.(큰딸이.)

102012 # 이제 살아시민 일흔둘. 허난 또 예순다섯인가 예순일곱이고. 시방 산 것덜은 큰딸은 우이고 중간이고 아덜덜 성제 다 딸덜 밋에. 딸 밋에 아덜 성제 낳고 맨 막긋디 이제 딸 난 거가 큰아홉이라.(이제 살았으면 일흔둘. 하나는 또 예순다섯인가 예순일곱이고. 시방 산 것들은 큰딸은 위고 중간이고 아들들 형제는 다 딸들 밋에. 딸 밋에 아들 형제 낳고 맨 마지막에 이제 딸 난 거 큰아홉이야.)

102012 @ 맨 막둥이가 큰아홉?(맨 막둥이가 큰아홉?)

102012 # 서른여섯에 애기 설런.(서른여섯에 아기 그만 뒀어.)

102012 @ 죽은아덜은 몇 술이파?(작은아들은 몇 살입니까?)

102012 # 죽은아덜 예순둘.(작은아들 예순둘.)

102013 @ 계난 할머니 시집살이고 뭐 이런 거 었이켜예?(그러니까 할머니 시집살이고 뭐 이런 거 없었겠네요?)

102013 # 었주게. 시집살이. 었이난에 고생만 허명. 계도 애기덜이나 못 맥영 살진 안헐.(없지. 시집살이. 없으니까 고생만 하면서. 그래도 아기들이나 못 먹여서 살진 않았어.)

102013 @ 할머니가 워낙 부지런허니까, 하르버진?(할머니가 워낙 부지런하니까, 할아버진?)

102013 # 하르방도 무신 늬광 특허지도 안헐 순순허게 살고 가는 사름 먹으라, 오는 사름도 먹으라 허명. 목시 일 해나난 품 받으멍 살고 하간 거 헐 살앗주. 박허게 살진 안헐. 나가 부지런허고 하르방도 놀지 안헐 자파린 허고 돌아 땡기곡 허난.(할아버지도 무슨 남과 다르지 않고 순순하게 살고 가는 사름 먹어라, 오는 사름도 먹어라 하면서. 목수 일 했었으니까 품삯 받으면서 살고 여러 가지 해서 살았지. 박하게 살진 않았어. 내가 부지런하고 할아버지도 놀지 않아서 장난은 하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102014 @ 자식덜은 결혼은 어떻 시켰수과?(자식들은 결혼은 어떻게 시켰습니까?)

102014 # 큰딸은 저 신천리 허난 옛날은 중매로 가이도 스물둘에 결혼헐에 아덜 세 성제 난 살고 아덜딸덜은 다 잘살아. 큰아덜만 안땡어.(큰딸은 저 신천리 하니까 옛날은 중매로 그 애도 스물둘에 결혼해서 아들 삼 형제 낳아서 살고 아들딸들은 다 잘살아. 큰아들만 안땡어.)

### 3. 밭일

103001 @ 밭농사는 어떤 거 어떤 거 잇수과?(밭농사는 어떤 거 어떤 거 잇습니까?)

103001 # 옛날은 보리 갈고. 웃드르<sup>37)</sup>덜은 보리 갈고 따시 또 여름 나민 웃드르 곳인 밭된 산뒤 갈고 따시 또 곳인 밭된 피 불리고 좋은 밭된 조 불리고.(옛날은 보리 갈고 ‘웃드르’들은 보리 갈고 다시 또 여름 나면 ‘웃드르’ 곳은 밭엔 밭벼 갈고 다시 또 곳은 밭엔 피 밟고 좋은 밭엔 조 밟고.)

103001 @ 주로 그거마씨?(주로 그거요?)

103001 # 응, 피, 산뒤, 피, 조, 호린조 경행, 조도 두 가지.(응, 피, 밭벼, 피, 조, 차조 그렇게 해서 조도 두 가지.)

#### 보리농사

103002 @ 먼저 보리 농사부터 물어보쿠다예. 보리 허젠 허민 뭐 준비해야 됩니까?(먼저 보리 농사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보리 하려고 하면 뭐 준비해다 됩니까?)

103002 # 옛날은 보리 용스 허젠 허민이 쉼 질루는 사름, 쉼 도새기 막에 담아놔, 담아놔 그거 막 걸름 쉼통 통시행 ㄱ득양 보리갈 때 그거 만딱 내영 마당에 헤영 마당에 내놔 쉼 빌어다근에 걸름을 불려.(옛날은 보리 농사 하려고 하면 소 기르는 사름, 소 돼지 막에 담아놓고, 담아놓고 그거 막 거름 소똥 돼지우리해서 가득차서 보리 갈 때 그거 모두 내어서 마당에 해서 마당에 내어 놓고 소 빌려다가 거름을 밟아.)

103002 @ 예.(예.)

103002 # 불려 가명 보리쌀 그디 걸름에 막 뿌려. 뿌려근에 이젠 허민 쉼 신 사름은 쉼 헤영 멩텅이 두 개 담양 질메 지왕 두 개씩 시꺼가고. 부제집인 쉼 댓 개씩 시꺼가고 쉼 못 빌민 흰헌 들에 돛걸름착 행 놓고 서너너이 청년덜 실 땀 빌영 밤이 흰헌 들에 걸름을 지게로 다 저당 뿌리는 디도 싯곡.(밟아 가면서 보리씨를 거기 거름에 막 뿌려. 뿌려서 이젠 하면 소 있는 사름은 소 해서 ‘멩텅이’ 두 개 담아서 길마 지어서 두 개씩 실어 가고. 부잣집엔 소 댓 개씩 실어가고 소 못 빌리면 흰헌 달에 ‘돛걸름착’ 해서 놓고 서너명 청년들 있을 땀 빌어서 밤에 흰헌 달에 거름을 지게로 다져다가 뿌리는 데도 있고.)

103002 @ 예.(예.)

103002 # 비와놔 이제 뒷날은 밭을 갈젠 허민 손으로 장갑도 시카? 시커멍헌 손으로 그 걸름을 다 허꺼. 골로루 골로루 허꺼놔 그젠 갈아. 갈민 따시 조름엔 걸름 뽕에 안 묻어지민 마께로 그거 두드리멍 다 놓레 가주.(부어 놓고 이제 뒷날은 밭을 갈려고 하면 손으로 장갑도 있을까? 시커멍 손으로 그 거름을 다 섞어. 골고

37) ‘웃드르’는 ‘우(위)’와 ‘드르(들)’가 결합한 말로 중산간 마을을 말한다.

루 골고루 섞어놓고 그땠 갈아. 갈면 다시 뒤엔 거름 덩어리 안 묻히면 방망이로 그거 두드리면서 다 놓으러 가지.)

103004 @ 언제 허는 거마씨?(언제 하는 거예요?)

103004 # 보리? 보린 시월 나민.(보리? 보린 시월 나면.)

103004 @ 시월 나민?(시월 나면?)

103004 # 시방 보리 한창 갈 때주. 그 조혜여근에 조 다 비어 불민 조 크르에 보리 갈아. 존 유월 나민 유월절이엔 헌 거, 그 절기 전이 웃드르 맞은 하지 댜민 그 산뒤 갈곡, 피 불리곡.(시방 보리 한창 갈 때지. 그 조해서 조 다 베어버리면 조 그루터기에 보리 갈아. 조는 유월 나면 유월절이라고 한 거, 그 절기 전에 ‘웃드르’ 맞은 하지 되면 그 밭벼 갈고, 피 밭고.)

103003 @ 보리씨는 맞디서 빼는 게 아니고.(보리씨는 밭에서 뿌리는 게 아니고.)

103003 # 아니 걸름에 빼영 서꺼근에.(아니 거름에 뿌려서 섞어서.)

103003 @ 마당에서?(마당에서?)

103003 # 응, 마당에서 경행 불려. 불령 이제 너무 막 해놓민 그걸 따시 이만씩 올리젠 허민 다 불라.(응, 마당에서 그렇게 해서 밭아. 밭아서 이제 너무 막 해놓으면 그걸 다시 이만씩 올리려고 하면 다 밭아.)

103002 @ 예.(예.)

103002 # 비나 오람직허민 느람지, 옛날은 비니루 엇영 느람지 더경 낫당. 그놈을 쉼 빌영 허젠 허민 쉼 빌어지는 사름은 쉼 빌고 남즈 엇은 사름은 빌어살 거 아니라. 빌지 안허민 지게로도 지어당도 허고.(비나 올 것 같으면 이영, 옛날은 비닐 없어서 이영 덮어 놓았다가. 그놈을 그 소 빌어서 하려고 하면 소 빌릴 수 있는 사름은 소 빌리고 남자 없는 사름은 빌려야할 거 아니냐. 빌리지 않으면 지게로도 지어다가도 하고.)

103003 @ 맞디 강 걸름을 빼어?(밭에 가서 거름을 뿌려?)

103003 # 다 맞춰 그 밭 안네 다 손으로 영 영 걸름 뿌리는 사름 빌어근에 다 행 보리 갈주.(다 맞춰서 그 밭 안에 다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거름 뿌리는 사름 빌어서 다 해서 보리 갈지.)

103005 @ 걸름을 밭디 강 뿌려?(거름을 밭에 가서 뿌려?)

103005 # 비 안 오민 아싯날은 해 놓곡 뒷날은 사름 행 강 돛걸름을 다 뿌려, 문딱 뿌려. 방수<sup>38)</sup> 벌영 다 뿌려사.(비 안 오면 전날은 해 놓고 뒷날은 사름 해서 가서 돼지거름을 다 뿌려, 모두 뿌려. ‘방수’ 벌려서 다 뿌려야.)

103005 @ 방수 벌여근에.(‘방수’ 벌려서.)

103005 # 경허민 밭 갈아근에 돛걸름 병에 곱베로 두드리멍 다 못고.(그러면 밭 갈아서 돼지거름 덩어리 곱방베로 두드리면서 다 마고.)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거 잇어났수과?(보리 종류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38) ‘방수’는 씨앗 등을 뿌릴 때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간격을 말한다.

103006 # 소릿 옛날은 팥보리 해근에 무신거 해나고. 슬오리.(사릿 옛날은 ‘팥보리’ 해서 무엇 했었고. 쌀보리.)

103006 @ 팥보린 무신거?(‘팥보리’는 뭐?)

103006 # 팥보리엔 현 건 껍질 막 입은 거게, 슬오리엔 현 건 시방도 슬오리 싯잖아. 시방은 껍질 알좌근에 현 건 슬오리고 팥보리엔 현 건 가죽 입영 껍질 입영 질 우이 쏘이엔 현 건 옛날은 기계방 엇으난 돌그레에 강 골양 허민 껍테기가 이성 똥 싸민 보리채가 한한허여.(‘팥보리’라고 한 건 껍질 막 입은 거, 쌀보리라고 한 건 시방도 쌀보리 있잖아. 시방은 껍질 얇아서 한 건 쌀보리고 ‘팥보리’라고 한 건 가죽 입어서 껍질 입어서 질 우이 쌀이라고 한 건 옛날은 공장 없으니까 연자매에 가서 갈아서 하면 껍테기가 있어서 똥 싸면 보릿겨가 많아.)

103006 @ 똥에? 하하하. 팥보리허고 슬오리 두 개 잇어낫수과?(똥에? 하하하. ‘팥보리’하고 쌀보리 두 개 있었습니까?)

103006 # 보리썬 두 개고 밀이엔 현 건 불경 해근에 서꺼근에 밧디 시꺼다냥 밀씨 섞어근에 접아좌근에 밀 뿌리고.(보리씨는 두 개고 밀이라고 한 건 재 해서 섞어서 밧에 실어다 놓고 밀씨 섞어서 집어좌서 밀 뿌리고.)

103006 @ 보리부터예. 보리 맥주보리는 이제사 난 거파?(보리부터요. 보리 맥주보리 이제야 난 겁니까?)

103006 # 응.(응.)

103006 @ 주녕이 보리.(지네 보리.)

103006 # 주녕이 보리 새로 난 거. 옛날은 팥보리 슬오리 것베끼 엇어난. 옛날은 맥주보리 엇어낫어.(지네 보리 새로 난 거. 옛날은 ‘팥보리’, 쌀보리 그것밖에 없었어. 옛날은 맥주보리 없었어.)

103007 @ 보리밧은 블라 쥐사 해?(보리밧은 밧아 쥐야 해?)

103007 # 옛날은 밧으로 저 잠데로 갈아놓민 병에 잇섯주게. 요샌 기계로 해노난 북삭허난 밧는 거주, 옛날은 안 블라난.(옛날은 밧으로 저 쟁기로 갈아놓으면 덩어리 있었지. 요샌 기계로 해놓으니까 폭신하니까 밧는 거지, 옛날은 안 밧았었어.)

103008 @ 보리밧디 검질은 언제쫘 맵니까?(보리밧의 김은 언제쫘 맵니까?)

103008 # 이월, 삼월에.(이월, 삼월에.)

103008 @ 막 추운 때네예. 추운 디 강 검질메젠 허민 막 힘들었지예?(아주 추운 때네요. 추운 데 가서 김매려고 하면 아주 힘들었지요?)

103008 # 삼월 나가민 허곡 보리 오월 나민 보리 비어난.(삼월 나면 하고 보리 오월 나면 보리 베었었어.)

103009 @ 보리밧디 겨울 이월 삼월에 검질메젠 허민 어떤 검질이 하영 납니까?(보리밧에 겨울 이월 삼월에 김매려고 하면 어떤 김이 많이 납니까?)

103009 # 겨울 검질 시방 검질 나듯. 여름에 나는 거허고 겨울에 나는 거허고. 옛날은 빈네도 엇고 쉼비눔도 엇고.(겨울 김 시방 김 나듯. 여름에 나는 거하고 겨울에 나는 거하고. 옛날은 아욱메폴도 없고 쇠비름도 없고.)

103009 @ 보리밭디 나는 검질은 무신거짜?(보리밭에 나는 김은 무엇입니까?)

103009 # 보리풀 있어. 대오리엔 헌 거 그것도 매어불고. 보리풀. 시방도 이 땅에 보리풀 나민 북삭북삭헌 거 보리밭디 나주게. 그거 매주게.(보리풀 있어. ‘대오리’라고 한 거 그것도 매어 버리고. 보리풀. 시방도 이 땅에 보리풀 나면 폭석폭석한 거 보리밭에 나지. 그거 매지.)

103008 @ 보리밭디 검질은 몇 번 맵니까?(보리밭의 김은 몇 번 맵니까?)

103008 # 혼 번.(한 번.)

103008 @ 혼 번만?(한 번만?)

103008 # 혼 번만 매민 돼어.(한 번만 매면 돼.)

103010 @ 오월달 낭 보리 빌 땀 어떻 험니까?(오월 나서 보리 벨 땀 어떻게 합니까?)

103010 # 보리 빌 땀 손으로 비주게. 호미로 행.(보리 벨 땀 손으로 베지. 낫으로 해서.)

103010 @ 비어난 다음엔.(베어난 다음엔.)

103010 # 비영 낫당 그거 다 무꺼당 옛날은 홀테 신 땀 허주만은 홀테 엇인 땀 도께로 다 두드려.(베어 낫다가 그거 다 묶어다가 옛날은 훑이 있을 땀 하지만 훑이 없을 땀 도리께로 다 두드려.)

103010 @ 보리를 비영 다 그냥 놔둬?(보리를 베어서 다 그냥 놔둬?)

103010 # 돌르민. 비영 혼 줍씩 밋밋 낫당 다 메와 놓명 다 무꺼.(마르면. 베어서 한 줍씩 ‘밋밋’ 놔두었다가 다 메워 놓으면서 다 묶어.)

103010 @ 뭇로 무꺼?(뭇로 묶어?)

103010 # 보리로.(보리로.)

103010 @ 보리낭으로?(보릿대로?)

103010 # 보리낭 영 심영 질민 톱 오그령 영 자청 무끄곡.(보릿대 이렇게 잡아서 길면 톱 오그려서 이렇게 젖혀서 묶고.)

103011 @ 무경 그다음엔?(묶어서 그다음엔?)

103011 # 무꺼근에 밋디서 해놓민 쉼 신 사름은 쉼 빌영 시꺼오고 엇인 사름은 등으로 다 지어당 집이 오랑 놀어. 엇인 사름은 보리도 하영 못행 놀주게. 보리 다 비어지민 두드려.(묶어서 밧에서 해놓으면 소 있는 사람은 소 빌어서 실어오고 없는 사람은 등으로 다 지어다가 집에 와서 가려. 없는 사람은 보리도 많이 못해서 가리지. 보리 다 베어지면 두드려.)

103011 @ 어디서?(어디서?)

103011 # 마당에서. 마당에 낱 그거 해낱 도께로 이디도 돌리 저디도 돌리 너이가 상 와자착와자착<sup>39)</sup> 두드리고.(마당에서. 마당에 놔서 그거 해놓고 도리께로 여기도 돌리 저기도 돌리 넷이 서서 ‘와자착와자착’ 두드리고.)

103011 @ 노래도 불러?(노래도 불러?)

39) ‘와자착와자착’은 도리께로 곡식을 때리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다.

103011 # 어야홍 어야홍<sup>40</sup>)허멍. 새 맞춰근에 두드려.(‘어야홍 어야홍’하면서. 사이 맞춰서 두드려.)

103011 @ 새 맞창?(‘새 맞춰서’?)

103011 # 이디 사름 두드릴 때 ㄴ치 놔불민 마주치곡, 이디 사름 영 두개 허영 두드령 설러나민 따시 이디 사름 두드리곡게. 새 맞창.(여기 사람 두드릴 때 같이 놔버리면 마주치고, 여기 사람 이렇게 두 개 해서 두드려서 그만두고 나면 다시 여기 사람 두드리고. 사이 맞춰서.)

103011 @ 보리 두드령 그다음은?(보리 두드려서 그다음은?)

103011 # 그거 헝 브름 쟈민 불려.(그거 해서 바람 세면 불려.)

103014 @ 보리찍은?(보리짚은?)

103014 # 보리찍은 놓고.(보리짚은 가리고.)

103012 @ 보리찍은 놓고, 보리썰은?(보리짚은 가리고, 보리썰은?)

103012 # 보리썰은 브름 나민 불려사 ㄴ스락 ㄴ쁜 거, 채 ㄴ쁜 거 불려날 거 아니냐? 그거 헤영 불령 그 다음엔 따시 물리왕 기계방에 강 골아당, 물 ㄴ레에 강 골아당 물리와근에 파썩 물리와근에 이제 이 ㄴ레로 영 골아. 경헤근에 따시 또 대체로 치민 대체에 거에 두루 골아진 건 또 낱 두불 골아.(보리썰은 바람 나면 불려야 까끄라기 같은 거, 채 같은 거 날아갈 거 아니냐? 그거 해서 불려서 그 다음엔 다시 말려서 공장에 가서 갈아다가, 연자매에 가서 갈아다가 말려서 바삭 말려서 이제 이 맷돌로 이렇게 갈아. 그래서 다시 또 대체로 치면 대체의 것 덜 갈아진 건 또 놔서 두벌 갈아.)

103012 @ ㄴ레에?(맷돌에?)

103012 # ㄴ렛돌, ㄴ레 굴지. 이여이여이여허라<sup>41</sup>). (맷돌, 맷돌 갈지. ‘이여이여이여허라’.)

103012 @ 우리 할머니 노래도 잘 불려.(우리 할머니 노래도 잘 불려.)

103012 # 마당질 노래나 ㄴ렛 노래영 다 트나.(마당질 노래나 맷돌 노래랑 다 달라.)

103012 @ 방에 노래는?(방아 노래는?)

103012 # 방에 노래도 이여도 허라<sup>42</sup>). (방아 노래도 ‘이여도 허라’.)

103012 @ 여러 사름이 상 찌는 건.(여러 사람이 서서 찢는 건.)

103012 # 다섯도 찢곡, 넷도 찢곡, 셋도 찢곡, 둘도 찢고. 경헝 허민 옛날에 노래도 이서. 가스름 강상당 집이 세콜 방에 새거름 뒤편<sup>43</sup>) 허는 건 서이 상 방에 저가민 그 흠치 방에 후에 이추룩 헌 후에 비차락으로 영 쓸어 놓고 이영 쓸어 놓고 허민.(다섯도 찢고, 넷도 찢고, 셋도 찢고, 둘도 찢고. 그렇게 하면 옛날에 노래도

40) ‘이야홍 이야홍’은 도리개로 곡식을 때리는 마당질을 할 때 부르는 노동요의 한 소절이다.

41) ‘이여이여이여허라’는 맷돌 굴리는 노래의 한 소절을 제보자가 부르는 것이다.

42) ‘이여도 허라’는 방아 노래의 한 소절이다.

43) ‘가스름 강상당 집에 세콜 방에 새거름 뒤편’은 방아 찢는 노래의 한 구절인데 ‘가스름 강당당 집에 세콜 방에 새글러가듯’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보자는 다르게 말했다.

있어. ‘가스름 강당당 칩에 세콜 방에 새걸름 되라’고 하는 건 셋이 서서 방아 찧어 가면 그 함께 방아확에 이렇게 한 확에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 놓고 이렇게 쓸어 놓고 하면.)

103012 @ 새걸름?(‘새걸름’?)

103012 # 두 개가 혼디 지어 불민 새거름 돼렌 허는 거고. 혼 사름 하나민 혼 사름 허고, 새 걸름 건. 둘리가 혼디 들어간 건 새 걸름 진 거. 혼 사름은 사공질<sup>44)</sup> 비차락으로 쓸어 놓고.(두 개가 함께 찧어 버리면 새 거름 돼라고 하는 거고. 한 사람 하고나면 한 사람 하고, ‘새 걸름’ 건. 둘리가 함께 들어간 건 ‘새 거름’ 진 거. 하 사람은 사공질 빗자루로 쓸어 놓고.)

103012 @ 뭇방에는 어떻 허는 거꽈?(연자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3012 # 보리 해다근에 그거 뭇리왕 ᄇ레<sup>45)</sup> 신 디가근에 큰 통 놔근에 그레 뭇 지어다 놓고 보리 뭇 즈물양.(보리 해다가 그거 말려서 연자매 있는 데 가서 큰 통 놔서 거기에 뭇을 저다 놓고 보리 놔서 담가서.)

103012 @ 어떻 행 즈물양?(어떻게 해서 담가서?)

103012 # 큰 통 해여근에 보리 해영 뭇리왕 ᄇ레황에 저당 그 뭇 비와놓고 보리 비와뭇 즈물야. 즈물르민 혼테기 즈물민 ᄇ레더레 거려 놔근에 ᄇ레 ᄇ는 거. 뭇 방에.(큰 통 해서 보리 해서 말려서 연자매에 저다가 그 뭇 부어놓고 보리 부어놓고 담가. 담그면 흥건히 담그면 연자매에 떠 놔서 연자매 가는 거. 연자매.)

103012 @ 뭇방에 아니?(연자매 아니?)

103012 # 뭇로 곶아나난 뭇방에주. ᄇ레황, 옛날은 ᄇ레황.(말로 같았었기에 ‘뭇 방에’지. ‘ᄇ레황’, 옛날은 ‘ᄇ레황’.)

103012 @ ᄇ레황?(‘ᄇ레황’?)

103012 # ᄇ레 시난 ᄇ레황. ᄇ레 곶레 가게. ᄇ레황에 강 보라 ᄇ레 놀암시냐 경.(‘ᄇ레’ 있으니까 ‘ᄇ레황’. 연자매 갈러 가게. 연자매에 가서 보라. 연자매 쉬고 있나 그렇게.)

103012 @ 아, ᄇ레 이신 디가 ᄇ레황. 집 지서진 디?(아, 연자매 있는 데가 ‘ᄇ레황’. 집 지어진 데?)

103012 # 응, 집 지서뭇 허민 그것도 여남은 사름씩 해놓민 그 앞이 가근에 뭇 도 앞이 저다 놓고 보리도 앞이 해다 논 사름은 앞이 곶고 두 번째 현 사름은 두 번째 허고. 다섯 번째 현 사름은 맨 막끗디.(응, 집 지어 놓고 하면 그것도 여남은 사름씩 해놓으면 그 앞에 가서 뭇도 앞에 저다 놓고 보리도 앞에 해다 놓은 사름은 앞에 곶고 두 번째 한 사름은 두 번째 하고. 다섯 번째 한 사름은 맨 마지막.)

103012 @ 보리 놓고 뭇 놓고 뭇방에다가.(보리 놓고 뭇 놓고 연자매에다.)

103012 # 방에 아니 영헌 다라 큰 것에게. 그레 보리 비와 뭇 뭇 비와 뭇. 구덕 받앙 뭇 빠지뭇 ᄇ레 우트레 거려 뭇.(방아 아니 이렇게 한 대야 큰 것에. 그리 보

44) ‘사공질’은 방아 찧는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옆으로 튀어 나간 곡식을 안으로 쓸어 넣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45) ‘ᄇ레’는 연자매의 윗돌을 말하며 때로는 연자매 자체를 이르기기도 한다.



리 부어 놓고 물 부어 놓아. 바구니 받아서 물 빠지면서 연자매 위에 떠 놔.)

103012 @ 경 해낭 영 돌려?(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돌려?)

103012 # 응, ㄴ랫돌게 빙빙빙빙 어디 시방 민속촌에 ㄴ레, 물 ㄴ레 안 나왔서? 이녁냥으로 밀령 같고. 그거 너이 들엉 허민 게볍고 둘만 버치고, 너이 들민 게벼와.(응, 방앗돌 빙빙빙빙 어디 시방 민속촌에 연자매, 연자매 안 나오고 있니? 자기대로 밀려 같고. 그거 넷이 들어서 하면 가볍고 둘만 부치고, 넷이 들면 가벼워.)

103012 @ 누게가 ㄴ치 해줘?(누가 같이 해줘?)

103012 # 이녁냥으로 여청덜. 물 신 사름덜은 물 메왕도 곁고. 물 메우민 여청들리 물 이끄는 사름 허고 허민. 엇인 사름은 거 수눌어. 가근에 앞이 곁아주민 조름에 ㄴ는 사름 곁아주곡 경헨 곁아.(자기대로 여편네들. 말 있는 사람들은 말 메워서도 같고. 말 메우면 여자 둘이 말 끄는 사람하고 하면. 없는 사람은 그거 품앗이 해. 가서 앞에 곁아주면 뒤에 가는 사람 곁아주고 그렇게 해서 곁아.)

103013 @ 보리쌀로 무신거 행 먹어?(보리쌀로 무엇 해서 먹어?)

103013 # 보리밥게. 보리 철 나민 주로 보리밥. 조 철 나민 조팝허고 감저 농곡 행 조팝행 경헨. 거주게.(보리밥. 보리 철 나면 주로 보리밥. 조 철 나면 조밥하고 고구마 놓고 해서 조밥해서 그렇게 해. 그거지.)

103013 @ 개역도 행 먹고?(미숫가루도 해서 먹고?)

103013 # 응, 보리로 개역행 먹고. 옛날엔 팥보리행 솟디서 볶양 개역헨 먹고. 옛날 살아난 역사 허민 기가 막힌다. 경헨도 아프노라.(응, 보리로 미숫가루 해서 먹고. 옛날엔 ‘팥보리’해서 술에서 볶아서 미숫가루 해서 먹고. 옛날 살았던 역사 하면 기가 막힌다. 그래도 아프노라.)

103014 @ 보리 갈아난 껌데긴 데껴릅니까?(보리 갈아난 껌데긴 던져 버립니까?)

103014 # 보리채, 도새기.(보릿겨, 돼지.)

103014 @ 도새기 줘?(돼지 줘?)

103014 # 도새기 질루민 그거 밥을 줘사주게. 그거 해 황에 구진물 담아 놓고 그 채 비와 농곡 행 퍼줘야 도새기 살 거 아냐? 하루 삼시 줘사, 것도.(돼지 기르면 그거 밥을 줘야지. 그거 해서 항아리에 콧은 물 담아 놓고 그 겨 부어 놓고 해서 퍼줘야 돼지 살 거 아니니? 하루 세 끼 줘야, 그것도.)

103014 @ 보리낭은?(보릿대는?)

103014 # 보리낭은 통시에도 놓고 불도 솔곡. 불 솔아가민 젖인 거 솟강알에서 딱딱딱딱 소리 나주게. 내만 팡팡 나고.(보릿대는 돼지우리에도 놓고 불도 때고. 불 때어가면 젖은 거 아궁이에서 딱딱딱딱 소리 나지. 연기만 팡팡 나고.)

103014 @ 보리 불려난 건?(보리 불렸던 건?)

103014 # 보리 ㄴ스락.(보리 까끄라기.)

103014 @ 보리 ㄴ스락은 뭐릅니까?(보리 까끄라기는 뭐합니까?)

103014 # 굴묵 슬고. 방 때어.(‘굴묵’ 때고, 방 때어.)

103014 @ ㄴ스락은 어디 모양 봐드립니다?(까끄라기는 어디 모아서 봐드립니다?)

103014 # 마당에 혼 펜이 눌영 낫당.(마당에 한 편에 가려 났다가.)

103014 @ 보리 ㄴ스락은 모양 낫당 굴목 때고.(보리 까끄라기는 모아서 났다가 ‘굴목’ 때고.)

103014 # 응.(응.)

103015 @ 보리농사 허멍 힘들거나 기억나는 거 잇수과?(보리농사 하면서 힘들거나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03015 # 그거주게. 돛걸름에 해영 내저, 불령 보리밭디 시꺼가젠 허민 그게 고민이주. 일은 다 혼 가진디 쉼 었은 사름 쉼 빌저. 밭 갈앙 놓 빌영, 이젠 전화 한 통만 허민 다 기계로 허주마는. 옛날 썬 었인디 곤밥허고 반찬 출령 점심 해 주고, 저녁 해 주고. 술 사주고 담배 사주고, 옛날은. 이제 사름덜은 삶 아니주.(그거지. 돼지거름에 해서 내랴, 밟아서 보리밭에 실어가려고 하면 그게 고민이지. 일은 다 한 가진데 소 없는 사람은 소 빌리라. 밭 갈아서 놓 빌어서, 이젠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기계로 하지마는. 옛날 썬 없는데 흰쌀밥하고 반찬 차려서 점심 해주고, 저녁 해주고. 술 사주고 담배 사주고, 옛날은. 이제 사람들은 삶 아니지.)

## 조 농사

103016 @ 조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조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16 # 조 용스는 보리 다 해뒤근에 유월 나가민 조, 보리 비어불민 그거에 밭을 쉼 빌영 밭을 갈주게. 갈앙 낫당 조 불리젠은 허민 그디 문딱 풀 나민 풀을 다 쳐야지.(조 농사는 보리 다 해구고 유월 나가면 조, 보리 베어버리면 그거에 밭을 소 빌어서 밭을 갈지. 갈아 놓았다가 조 밟으려고 하면 거기 모두 풀 나면 풀을 다 베야지.)

103018 @ 빼는 거부떠.(뿌리는 거부터.)

103018 # 조, 보리 다 돼 나민 따시 밭을 갈주게. 밭을 갈민 초벌 갈민 검질 었 어근에 좋은 밭된 허고 검질 깃은 밭은 빌레 밭은 빌레 찌깍허난 그 풀을 다 매어사.(조, 보리 다 되고 나면 다시 밭을 갈지. 밭을 갈면 초벌 갈면 김 없어서 좋은 밭은 하고 김 많은 밭은 ‘빌레’ 밭은 ‘빌레’ 가득하니까 그 풀을 다 매어야.)

103018 @ 줍씨 빼기 전이?(줍씨 뿌리기 전에?)

103018 # 조 불리우기 전이. 그걸 다 매어놔 쉼 빌어 또시, 또 밭을 갈아.(조 밟기 전에. 그걸 다 매어놓고 소 빌려서 또, 또 밭을 갈아.)

103018 @ 두불?(두벌.)

103019 # 두불 갈앙. 두불 갈앙 무시거엔 허민 쉼 ㅁ쉬허민, ㅁ쉬가 집마다 었 주게. 부제침이 가민 툄 여남은 개, 한 툄 여남은 개, 혼 일고여답 개 빌어당 앞이 툄, 혼 사름은 이끄곡 들은 몰곡 행 그디 씨 빼는 사름 행 다 씨 빼어놔 또 불려. 밭을 또 불려, ㅁ쉬로.(두벌 갈아서. 두벌 갈아서 무엇이라고 하면 소 마소하면, 마소가 집마다 없지. 부잣집에 가면 말 여남은 개, 많은 툄 여남은 개, 한 일고여덟

개 빌어다가 앞에 말, 한 사람은 끌고 둘은 물고 해서 거기 씨 뿌리는 사람 해서 다 씨 뿌려놓고 또 밟아. 밟을 또 밟아, 마소로.)

103019 @ 또 불러?(또 밟아?)

103021 # 경행 다 불러 놓민 그개 끄이민 검질 메어. 조팏된 검질 두불 메야여. 씨 소까근에. 조 방수 벌여근에 좇이민 다 메영 검질을 다 메어사여. 시방 당근밭디 검질 메듯.(그렇게 해서 다 밟아 놓으면 그개 끝이면 김매. 조밭엔 김 두벌 매야해. 씨 속아서. 조 ‘방수’ 벌여서 좇으면 다 매어서 김을 다 매어야해. 시방 당근 밟에 김매듯.)

103021 @ 아, 한꺼번에 많이 나민 안 돼난?(아, 한꺼번에 많이 나면 안 되니까?)

103021 # 그냥 빼어 놓민 좇인 디도 잇주. 정씨 잡앙 뽐 딴 빼고 좇인 딴 좇이 난 정씨 잡앙 소까야.(그냥 뿌려 놓으면 좇은 데도 있지. ‘정씨’ 잡아서 뿌린 텨 뿌리고 좇은 텨 좇으니까 ‘정씨’ 잡아서 속아야.)

103021 @ 정씨 잡은 게 뭐?(‘정씨’ 잡는 게 뭐?)

103021 # 정씨 잡음이엔 현 건 요디 하나 요디 하나 방수 벌령 허는 게 정씨 잡음. 초불에 두루 메지민 두불에 다 메고 다 소까사.(‘정씨’ 잡는다는 건 요기 하나 요기 하나 ‘방수’ 벌려서 하는게 ‘정씨’ 잡음. 초벌에 덜 매면 두벌에 다 매고 다 속아야.)

103017 @ 조팏되도 걸름 줍니까?(조밭에도 거름 줍니까?)

103017 # 시방은 비료 해도 옛날은 걸름이 엇이난 걸름을 조팏된 안 해서. 경허 난 가름팏<sup>46)</sup>된, 좋은 밧된 흐린조 불리민 조가 좋고, 우이 난전 밧되덜은 조 불러 놓민 조코고리가 요만씩베끼 안 해여. 조에 지미짐<sup>47)</sup>이엔 허영 병들어 비어.(시방은 비료 해도 옛날은 거름이 없으니까 거름을 조밭엔 안 했어. 그러니까 ‘가름팏’엔, 좋은 밟엔 차조 밟으면 조가 좋고, 위에 난전 밟들은 조 밟아 놓으면 조이삭이 요만 큼씩밖에 안 해. 조에 ‘지미짐’이라고 해서 병들어 버려.

103017 @ 무신거 져젠?(무엇 졌다고?)

103017 # 시방 옛날은 시방은 병들엇젠 해도 옛날은 지미져젠 허주, 조팏되.(시방 옛날은 시방은 병들었다고 해도 옛날은 ‘지미’졌다고 하지, 조밭에.)

103017 @ 지미져젠.(‘지미’졌다고.)

103017 # 조 죽엇젠 말이주. 아이고, 저 밧된 조 지미전 허민 경허민 여물이 엇어.(조 죽었다는 말이지. 아이고, 저 밟엔 조 지미져서 하면 그렇게 하면 여물이 없어.)

103019 @ 좁씨는 잘 뿌리는 사름이 뿌려사켜예?(좁씨는 잘 뿌리는 사름이 뿌려야겠네요?)

103019 # 씨 정씨 잡앙 아무나 안 뿌리주게. 므쉬 아정 강 빼어주는 사름은 고

46) ‘가름팏’은 마을 안에 있는 밟으로 좋은 밟을 말한다.

47) ‘지미짐’은 ‘지미지다’의 명사형으로 조에 병이 들었다는 말이다.

마운 사름. 경 안허민 이녁냥으로 눅 빌어사 빼여, 여청덜은.(씨 ‘정씨’ 잡아서 아무나 안 뿌리지. 마소 가져 가서 뿌려 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 그렇지 않으면 자기대로 눅 빌어야 뿌려, 여편네들은.)

103019 @ 씨 잘 빼는 사름은 뭐엔 곱습니까?(씨 잘 뿌리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103019 # 씨 빼는 사름이엔 허주 무신거. 이젠 해보민 경 눅도 안 빌영 빼민 텬 직헌디 옛날은 다 뽕충 몰랑.(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지 뭐. 이젠 해보면 그렇게 눅도 안 빌어서 뿌리면 될 것 같은데 옛날은 다 뿌릴 줄 몰라서.)

103019 @ 땀 건 아니고 줍씨만?(다른 건 아니고 줍씨만?)

103019 # 줍씨허고 산뒤씨 ㄴ쁜 거. 다 눅 빌영 빼어.(줍씨하고 밭벼씨 같은 거. 다 눅 빌어서 뿌려.)

103019 @ 아, 그런 씨 빼는 거 눅 빌영 뽕니까?(아, 그런 씨 뿌리는 거 눅 빌어서 뿌립니까?)

103019 # 여청들은 눅 빌어. 남저도 씨 못 빼는 사름은 눅 빌어.(여편네들은 눅 빌어. 남자도 씨 못 뿌리는 사람은 눅 빌어.)

103019 @ 이녁냥으로 허는 게 아니고.(자기대로 하는 게 아니고.)

103019 # 이녁냥으로 다 못허여.(자기대로 다 못해.)

103020 @ ㅁ쉬 빌어근에 불르기도 허고 끄는 걸로.(마소 빌어다가 밟기도 하고 끄는 걸로.)

103020 # 건 중간에 ㅁ쉬 불린 후제.(그건 중간에 마소 밟은 후에.)

103020 @ 남태.(남태.)

103020 # 남태로 불려. 그건 막 눅 빌영 허단 후제. 우리 역은 후제.(남태로 밟아. 그건 막 눅 빌어서 하다가 후에. 우리 큰 후에.)

103020 @ 처음엔 다 ㅁ쉬로 해신디.(처음엔 다 마소로 했는데.)

103020 # ㅁ쉬로 불려도 두루 불리민 조 무신 안 산덴 허명 막 캉캉허게 불리민 좋은 밧딘 땅 췌영 곱갱이가 안 들어가. 하도 불려 불민.(마소로 밟아도 덜 밟으면 조 무슨 안 산다고 하면서 아주 뽕뽕하게 밟으면 좋은 밧은 땅이 세어서 호미가 안 들어가. 하도 밟아 버리면.)

103020 @ 너무 잘 불려불민.(너무 잘 밟아버리면.)

103020 # 캉캉 곱갱이 안 들어가. 곱갱이가 치릉치릉<sup>48)</sup>허주게 좋은 밧딘. 경허민 조도 여물곡.(뽕뽕 호미 안 들어가. 호미가 ‘치릉치릉’ 하지, 좋은 밧엔. 그러면 조도 여물고.)

103020 @ 처음엔 ㅁ쉬로 불려신디 중간에 남태로.(처음엔 마소로 밟았는데 중간에 남태로.)

103020 # 응, 남태. 우리 역은 후제. 우리 결혼헌 후제 남태.(응, 남태. 우리 큰 후에. 우리 결혼한 후에 남태.)

48) ‘치릉치릉’은 호미가 땅에 부드럽게 잘 들어가는 모양을 흉내 낸 말이다.

103020 @ 꼬슬퀴<sup>49)</sup>는?('꼬슬퀴'는?)

103020 # 꼬슬피로 행 꼬서나고, 꼬성도 내불어 나고.('꼬슬피'로 해서 끝났었고, 끝어서도 내버렸었고.)

103020 @ 그것도 남태 날 때 헛 거봐?(그것도 남태 날 때 한 겁니까?)

103020 # 응, 남태 못 헛 사름 꼬설피질 헛 거. 우리도 초판 꼬설피질 헛 내불어났어. 남텐 따시 부제칩이나 남태허주. 우리ㄴ치 홀어멍은 거 빌어사 해. ㅁ쉬로 돌허고. 그 남태 꾀젠 허민 버치주게.(응, 남태 못 한 사람 '꼬설피'질 한 거. 우리도 처음 '꼬설피'질 해서 내버려뒀어. 남텐 다시 부잣집이나 남태하지. 우리처럼 홀어머니는 그거 빌어야 해. 마소로 말하고. 그 남텐 끌려고 하면 부치지.)

103023 @ 조 다 익언예.(조 다 익었어요.)

103023 # ㄴ슬 들영 시월 나민 그 조 다 비어근에 호미로게, 호미로 다 비영. 영행 혼 줍씩 영 놓앗당 거 몰르민 무꺼다근에.(가을 들어서 시월 나면 그 조 다 베어서 호미로, 호미로 다 베어서. 이렇게 해서 한 줍씩 이렇게 놓았다가 그거 마르면 묶었다가.)

103023 @ 뭇로 무꺼.(뭇로 묶어?)

103023 # 조로도 무꺼.(조로도 묶어.)

103023 @ 조로도 무꺼집니까?(조로도 묶을 수 있습니까?)

103023 # 남텅이 잇은 건 조로 무끄고, 남텅이 었은 건 깨로 틀어 새로 깨 틀영 무끄곡.(줄기 있는 건 조로 묶고, 줄기 없는 건 매끼로 틀어서 띠로 매끼 틀어서 묶고.)

103023 @ 무신거 행?(무엇 해서?)

103023 # 새 비영 걸로 깨 틀영 무끄고.(띠 베어서 그걸로 매끼 틀어서 묶고.)

103023 @ 깨 틀영?(매끼 틀어서?)

103023 # 깨 영 내어근에게 영 영 해영. 경행 데왕 무끄고. 해당 그 툫앙.(매끼 이렇게 내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비틀어서 묶고. 해다가 그 뜯어서.)

103023 @ 어디서 툫아?(어디서 뜯어?)

103023 # 집이 시꺼다 낱 무경 시꺼다 낱 눌엇당 부젓칩인 막 크게 조눌 헛당 거 눌 빌영도 툫고 가난헌 사름은 이녀냥으로 툫고. 놈의 조도 비어주곡, 조 툫아주고.(집에 실어다 놓고 묶어서 실어다 놓고 가렸다가 부잣집엔 아주 크게 조 가리 헛다가 눌 빌어서도 뜯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대로 뜯고. 남의 조도 베어주고, 조 뜯어주고.)

103023 @ 손으로 툫아?(손으로 뜯어?)

103023 # 손으로 영 영 영 영 고고리 혼 착 손에 조근조근 심어근에 호미로 쪽 쪽 쫄라.(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삭 한 쪽 손에 차근차근 심어서 낫

49) '꼬슬퀴'는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다. 길쭉길쭉한 잎나뭇잎을 수없이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든다. '꼬슬피'라고도 한다.

으로 쓱쓱 잘라.)

103023 @ 손으로 툴는 게 아니고 호미로?(손으로 뜯는 게 아니고 낫으로?)

103023 # 응, 흔 줌 이거 조이민 코칭코칭 심어근에 호미로 쫄라근에 조칩은 이레 놓고 조코고린 저레 놓고 경행 툴아근에. 경행 그걸 허민 마께, 저 도깨로 두드리주게.(응, 한 줌 이거 조면 나란히나란히 잡아서 낫으로 잘라서 조짚은 이리 놓고 조이삭은 저리 놓고 그렇게 해서 뜯어서. 그렇게 해서 그걸 하면 방망이, 저 도리개로 두드리지.)

103024 @ 도깨질?(도리깨질?)

103024 # 파삭 물리좌근에 것도 도깨로 부제칩인 서너넛씩 상 두드리주게. 두드려 낱 강메긴<sup>50)</sup> 밀려와덩 앞이 건 대체로 문막 쳐낱 두루 두드려지민 두불 낱 두드려사. 다 두드려.(파삭 말려서 그것도 도리개로 부잣집인 서넛씩 서서 두드리지. 두드려 놓고 ‘강메기’는 밀어두고 앞의 건 대체로 모두 쳐 놓고 덜 두드려지면 두벌 놔서 두드려야. 다 두드려.)

103024 @ 경행 그 다음은?(그렇게 해서 그 다음은?)

103025 # 조 털어지민 브름에 또 불리지. 봉덩이<sup>51)</sup>엔 현 거 조채 나민 도새기 주고 따시 여물은 해당 이젠 멍탱이에 담으멍 집안에 다 들여놔다근에 창고 시민 창고에 담았다근에 뱃 나민 다 물리좌. 영 이빨로 씹으민 똑똑<sup>52)</sup>허민 지아정 물그레에 굴양 밥행 먹어놔주.(조 떨어지면 바람에 또 불리지. ‘봉덩이’라고 한 거 조겨 나오면 돼지 주고 다시 여물은 해다가 이젠 먹서리에 담으면서 집안에 다 들여놔다가 창고 있으면 창고에 담았다가 별 나면 다 말려. 이렇게 이빨로 씹으면 ‘똑똑’ 하면 쳐서 연자매에 갈아서 밥해서 먹었었지.)

103025 @ 잘 물르민 똑똑 허여마씨?(잘 마르면 ‘똑똑’해요?)

103025 # 젓이민 밀랑허고 물르민 이빨에 낱 씹으민 똑똑 허주.(젓으면 물렁하고 마르면 이빨에 놔서 씹으면 ‘똑똑’하지.)

103025 @ 경허민 다 물른 거?(그러면 다 마른 거?)

103025 # 응, 경행 물르민 물그레에 강 굴아당 초불 굴아당 푸는체에 문막 퍼근에 두루 굴아지민 푸는체로 행 다시 멧돌에 낱 또 굴아근에 두불 굴아사, 조가 엇이 굴아사, 니 엇영 잘 물르민 두불 굴아도 조가 엇고, 두루 물르고 두루 쳐지민 조팡울이 들어. 조팡울 들민 밥 허민 실강실강허여. 잘 굴아진 건 실강실강 안 허고.(응, 그렇게 해서 마르면 연자매에 가서 갈아다가 초벌 갈아다가 키에 모두 까불러서 덜 갈아지면 키로 해서 다시 멧돌에 놔서 또 갈아서 두벌 갈아야, 조가 없이 갈아야, 누 없어서 잘 모르면 두벌 갈아도 조가 없고, 덜 마르고 덜 쳐지면 조알이 들어. 조 방울이 들면 밥 하면 설경설경해. 잘 갈아진 건 설경설경 안 하고.)

103025 @ 껌데기가?(껌데기가?)

103025 # 껌데기가 안 벗어진 게 있어.(껌데기가 안 벗겨진 게 있어.)

50) ‘강메기’는 낱알을 떨어낸 조나 콩 따위의 빈 이삭이다.

51) ‘봉덩이’는 조를 방아에 찼을 때 나오는 걸쭉질의 겨다.

52) ‘똑똑’은 햇볕에 잘 마른 좁쌀을 이빨로 씹을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말이다.

103026 @ 좁쌀로는 뭐해마씨?(좁쌀로는 뭐해요?)

103026 # 밥해.(밥해.)

103026 @ 조팝행 먹고.(조밥해서 먹고.)

103026 # 초불 갈양 푸고, 두불 갈양 푸고 행 황에 놔둬서로 밥, 수정 한 딴 뒤편  
웁세기로 혼 댕 개도 낵 혼 솟도 허고 수정 족은 집인 뒤편 개도 낵 밥허민 물 꿰민  
그레 좁쌀 놔근에 이젠 불 솟다근에 밥 뒤편가민 젓으민 밥 뒤편주게. 경허민 따시 또  
모돌 갈아근에 모돌 갈아나민 모돌 느쟁이가 잇지. 모돌 그루 느쟁이 밥행 문딱 허  
민 그디 확 허경 허민 밥이 복삭복삭허고.(초벌 갈아서 까부르고, 두벌 갈아서 까부  
르고 해서 항아리에 놔두고서 밥, 솟자 많은 덴 식되로 한 댕 개도 놔서 한 솟도  
하고 솟자 적은 집은 뒤편 개도 놔서 밥하면 물 끓으면 그리 좁쌀 놔서 이젠 불 때다  
가 밥 되어가면 저으면 밥 되지. 그러면 다시 또 메밀 갈아서 메밀 갈고 나면 메밀  
나깨가 잇지. 메밀가루 나깨 밥해서 모두 하면 거기 확 섞어서 하면 밥이 고슬고슬  
하고.)

103026 @ 좁쌀에?(좁쌀에?)

103026 # 좁쌀에. 경행 허민 밥이 복삭복삭허고. 맨조팝은 싹싹싹싹주게. 경헌  
디 이제 따시 감절 놉 시작허난 감저밥을 하영 허주. 감저 베껴근에 딱딱 썰어놔근  
에 저 그거 낵 싹싹 꿰민 좁쌀 낵 밥행 젓으민 감저밥 뒤편 감저밥 경행 먹고. 또  
조 족은 딴 감저밥이 하주게. 경헌 사름이 하. 부제칩이나 좁쌀에 보리에 흐린좁쌀  
낵 밥행 먹주. 웃드르 밧디 모인조 불리민<sup>53)</sup> 케삭케삭허고, 이제 가름팻<sup>54)</sup>디 밧 신  
사름은 그 좋은 조행 불리민 츠근츠근허고. 강돌와리<sup>55)</sup>엔 허고.(좁쌀에. 그렇게 해  
서 하면 밥이 고슬고슬하고. 맨 조밥은 싹싹싹싹하지. 그런데 이제 다시 고구마를  
놓기 시작하니까 고구마밥을 많이 하지. 고구마 벗겨서 딱딱 썰어놔서 저 그거 놔  
서 싹싹 끓으면 좁쌀 놔서 밥해서 저으면 고구마밥 되면 고구마밥 그렇게 해서 먹  
고. 또 조 적은 덴 고구마밥이 많지. 그런 사람이 많아. 부잣집이나 좁쌀에 보리에  
차조 놔서 밥해서 먹지. 중산간 밧에 메조 재배하면 ‘케삭케삭’하고, 이제 ‘가름팻’  
에 밧 잇는 사름은 그 좋은 조해서 재배하면 ‘츠근츠근’하고. ‘강돌와리’라고 하고.)

103026 @ 아, 강돌와리.(아, ‘강돌와리’.)

103026 # 우이 불린 곳인 밧딘 무시리<sup>56)</sup>.(위에 밧은 곳은 밧엔 ‘무시리’.)

103026 @ 무시리?(‘무시리’?)

103026 # 무시리 모원조고 가름팻된 강돌와리.(‘무시리’ 메조고 ‘가름팻’엔 ‘강돌  
와리’.)

103026 @ 거 두 개베끼 엇수과?(그거 두 개박에 없습니까?)

103026 # 흐린좁쌀, 모원좁쌀. 따시 강돌와리허민 세 개 아니라?(차조, 메조. 다  
시 ‘강돌와리’하면 세 개 아니냐?)

53) ‘불리다’는 ‘밧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재배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54) ‘가름팻’은 마을 안에 잇는 밧을 말한다.

55) ‘강돌와리’는 조의 한 종류다.

56) ‘무시리’는 조의 한 종류다.

103026 @ 아까 무시린 뭐라?(아까 ‘무시리’는 뭐야?)

103026 # 무시린 궂인 밧디 허는 거. 궂인 조, 모원 거. 경허난 궂인 밧 행 엇인 사름은 옛날은 늬의 밧 빌어근에 조행 비어놔, 무꺼놔 허민, 요디 혼 단 놓곡, 요디 혼 단 놓곡 행 골로루 갈라 놓민 밧 임제 흥나 심곡, 용스헌 사름 흥나 심주게.(‘무시리’는 궂은 밧에 하는 거. 궂은 조, 메진 거. 그러니까 궂은 밧 해서 없는 사람은 옛날은 남의 밧 빌려서 조 해서 베어놔서, 묵어놔서 하면, 요기 한 단 놓고, 요기 한 단 놓고 해서 골로루 갈라 놓으면 밧 임자 하나 잡고, 농사한 사람 하나 잡지.)

103028 @ 그제 뽕작?(그제 뽕작?)

103028 # 반작. 더 생각헌 사름은 조 서넉 단 더 주고. 따시 또 하영 준 사름은 혼 바리 준 사름은 막 잘헌 사름. 경허민 존 밧딘 허민 고고리가 흥창흥창<sup>57)</sup>허고, 궂인 밧딘 고고리가 뽕뽕<sup>58)</sup>생이치 들암직헌 거.(반작. 더 생각한 사람은 조 서너 단 더 주고. 다시 또 많이 준 사람은 한 바리 준 사람은 아주 잘한 사람. 그러면 좋은 밧엔 하면 이삭이 ‘흥창흥창’하고, 궂은 밧엔 이삭이 ‘뽕뽕’ 새뎛에 달아맬 만한 거.)

103028 @ 무신거 닥음직헌 거?(뭘 같은 거?)

103028 # 생이 잡젠 허민 옛날에 생이치 안 뽕나시냐?(새 잡으려고 하면 옛날에 새뎛 안 뽕었니?)

103028 @ 생이채?(‘생이채’?)

103028 # 생이치, 생이치엔 헤영 조, 총 행 들총 행 조코고리 졸라매영 뽕두민 그디 생이가 눈 오라가민 그디 왕 먹어가민 생이가 야가지 걸어정 치에 돌아정 죽어. 생이튀기<sup>59)</sup>에 돌아매민 요만씩헌 걸로 돌아매주게.(새뎛, 새뎛이라고 해서 조, 총 해서 말총 해서 조이삭 졸라매어서 뽕두면 거기 새가 눈 와 가면 거기 와서 먹어가면 새가 목 걸려서 뎛에 매달려서 죽어. 새뎛에 돌아매면 요만큼씩 한 걸로 달아매지.)

103028 @ 생이튀기 돌아맬 직허덴 허여?(새뎛 달아맬 듯하다고 해?)

103028 # 줄앙, 고고리가 줄앙. 요 손가락만씩베피 안 해, 궂인 밧딘. 존 밧딘 이만씩헌 거 지랑지랑허고. 게난 궂인 밧디 반작허민 경헌 조밥 먹으멍.(잘아서, 이삭이 잘아서. 요 손가락만큼씩밖에 안 해, 궂은 밧엔. 좋은 밧엔 이만큼씩한 거 주렁주렁하고. 그러니까 궂은 밧에 반작하면 그런 조밥 먹으면서.)

103028 @ 생이튀긴 뭘?(‘생이튀기’는 뭘?)

103028 # 생이튀긴 생이 잡아 먹는 게 튀기. 생이튀기 고고리행 이영 행 돌아매, 조, 조코고릴. 생이튀기에 돌아매어.(‘생이튀기’는 새 잡아먹는 ‘튀기’. 새뎛 이삭 해서 이렇게 해서 달아매, 조, 조이삭을. 새뎛에 달아매.)

57) ‘흥창흥창’은 조 이삭이 많이 달려있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다.

58) ‘뽕뽕’은 원래 ‘반짝반짝’의 제주어이나 여기서는 조 이삭이 조금밖에 달려있지 않은 모양을 묘사한 말이다.

59) ‘튀기’는 흙벽을 바르기 위하여 벽 속에 엮은 나뭇가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새뎛의 키나 바구니의 뎛가지를 말하는 듯하다.



103028 @ 생이 잡젠.(새 잡으려고.)

103028 # 생이 오랑 그 고고리 톱 톱아 먹젠 허당 보민 걸려정 잡아. 생이튀기.  
(새 와서 그 이삭을 톱 뜯어 먹으려고 하다 보면 걸려서 잡아. ‘생이튀기’.)

103028 @ 그게 생이튀기?(그게 ‘생이튀기’?)

103028 # 생이튀기 돌아멤 직허텐, 줄앙. 아이고. 경허민 소망 인 뎌 그 생이가  
흔 대여섯 마리씩 잡주게. 밥주리엔 힌 거.(‘생이튀기’ 달아맬 듯하다고, 잘아서. 아  
이고. 그러면 재수가 좋을 뎌 그 새가 한 대여섯 마리씩 잡지. 참새라고 한 거.)

103028 @ 밥주리?(참새?)

103028 # 생이 일름이 밥주리, 총데기 경 허주게.(새 이름이 참새, 종다리 그런  
게 하지.)

103028 @ 생이 일름도 경 다릅니까?(새 이름도 그렇게 다릅니까?)

103028 # 생이 일름이 뗏 가진 중 알아? 밥주리, 총데기.(새 이름이 뗏 가진 줄  
알아? 참새, 종다리.)

103026 @ 아. 조팝 말고 떡도 허고?(아. 조밥 말고 떡도 하고?)

103026 # 조로 떡도 허고 밥도 허고 히린존 히린조떡 행 치랑치랑허고 모원조  
떡은 케삭케삭허고.(조로 떡도 하고 밥도하고 차조는 차조떡 해서 쫄쫄쫄하고 메  
조떡은 고들고들하고.)

103026 @ 술도 허고예?(술도 하고요?)

103026 # 술도 허고 히린좁쌀로 술도 허고.(술도 하고 차조로 술도 하고.)

103026 @ 좁쌀이 쓸 디가 하구나예.(좁쌀이 쓸 데가 많군요.)

103026 # 응, 좁쌀 쓸 디 하주게. 좁쌀만 낱 옛날 좁쌀만 낱 풀풀 죽 쭈민 죽도  
맛좋아. 이제 좁쌀은 왜좁쌀이난 맛엇어. 옛날은 잘도 맛좋아나신디.(응, 좁쌀은 쓸  
데가 많지. 좁쌀만 놔서 옛날 좁쌀만 놔서 풀풀 죽 쭈면 죽도 맛있어. 이제 좁쌀은  
왜좁쌀이니까 맛없어. 옛날은 잘도 맛있었는데.)

103026 @ 옛날 좁쌀이 맛좋아났구나.(옛날 좁쌀이 맛있었구나.)

103026 # 옛날은 좁쌀 놔근에 죽 쭈다근에 드르에 가근에 마농 캐다근에 그거  
썰어놔근에 국죽<sup>60)</sup>을 쭈민 잘도 맛좋아, 흰죽보다. 경행 흔 사발씩 먹어.(옛날은 좁  
쌀 놔서 죽 쭈다가 들에 가서 마늘 캐다가 그거 썰어놔서 갱죽을 쭈면 잘도 맛있  
어, 흰죽보다. 그렇게 해서 한 사발씩 먹어.)

103026 @ 무슨 죽?(무슨 죽?)

103026 # 국죽.(갱죽.)

103027 @ 아. 조칩은 뭐에 써?(아. 조짚은 뭐에 써?)

103027 # 조칩은 쉼 쥐. 쉼 엮은 사람은 불 습고.(조짚은 소 쥐. 소 없는 사람은  
불 때고.)

103028 @ 조 농사하는 게 특히 힘든 건 뭐마씨?(조 농사하는 게 특히 힘든 건

60) ‘국죽’은 나물을 썰어 놓고 쑨 갱죽을 말한다. 제보자는 들에서 나는 마늘, 즉 달래를 썰어놓고 쭈면 맛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뭐예요?)

103028 # 용스힘은 매일반 다 혼 가지게. 게도 조 용스히는 사름이 더 박허주게, 옛날에.(농사함은 매일반 다 한 가지. 그래도 조 농사하는 사름이 더 박하지, 옛날에.)

103028 @ 무사?(왜?)

103028 # 불리지, 갈저, 믱쉬 빌영 불리지. 그 믱쉬 빌지 못허영 오죽이나 공들 염시냐? 아척이 세백이 일어나근에 물 맥여사, 저물앙 밧 불리젠 허민 강, 어디 강 출왔디 강 물 맥영 오라사 밧 불리고. 물 임젠 그만이 집이 시민 행 오고, 아이고. 경행 그 사름덜은 아무것도 엇어도 곤썰 낱 밥허고 솔래기 행 국 허곡, 술 혼 췌 반곡 담배 상, 혼 짐 저당 맥이고.(밧으랴, 갈랴, 마소 빌려서 밧으랴. 그 마소 빌리지 못해서 오죽이나 공들이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 먹여야, 저물도록 밧 밧으려고 하면 가서, 어디 가서 꼴밭에 가서 말 먹여 와야 밧 밧고. 말 임자는 가만히 집에 있으면 해서 오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엇어도 흰쌀 놓아서 밥하고 옥돔 해서 국 하고, 술 한 병 받고 담배 사서, 한 짐 저다가 먹이고.)

103028 @ 물 임제신디?(말 임자에게?)

103028 # 응, 물 임제. 물 물앙 가름밧디 느려오민 그 사름이 물앙 오주게. 경행.(응, 말 임자. 말 몰아서 ‘가름밧’에 내려오면 그 사름이 몰아서 오지. 그렇게 해서.)

103028 @ 물테우리?(말몰이꾼?)

103028 # 물테우리주게. 막 대접 잘허민 해노민 물이라도 잘 불려주고, 경 안허민 커싱커싱<sup>61)</sup> 줄바로 물도 안 해줘. 아이고 참, 기가 맥혀.(말몰이꾼이지. 아주 대접 잘하면 해놓으면 말이라도 잘 밧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포들썩포들썩 제대로 말도 안 해줘. 아이고 참, 기가 맥혀.)

## 콩 농사

103029 @ 이번에는 콩 농사 해보게예.(이번에는 콩 농사 해보지요.)

103029 # 콩은 쉬운 거.(콩은 쉬운 거.)

103030 @ 콩은 언제 갈아마씨?(콩은 언제 갈아요?)

103030 # 콩도 조 불려나민 어가라 허주게. 조 불려나민 곳인 밧된 콩은 갈민, 콩씨 빼어와근에 그냥 갈민 콩씨 헤영 곰베<sup>62)</sup>로 행 병어리로 독독 두드리고 검질도 혼 번만 메고 콩은 쉬운 거. 건 믱쉬 안 빌영 밧갈아치<sup>63)</sup>만 빌민 돼는 거.(콩도 조 재배하고 나면 얼른 하지. 조 재배하고 나면 곳은 밧은 콩 갈면, 콩씨 뿌려와서 그냥 갈면 콩씨 해서 곰방메로 해서 덩어리를 ‘독독’ 두드리고 검도 한 번만 매고 콩은 쉬운 거. 그건 마소 안 빌어서 ‘밧갈아치’만 빌면 되는 거.)

103030 @ 밧갈아친 밧가는 사름?(‘밧갈아치’는 밧가는 사름?)

61) ‘커싱커싱’은 트집을 잡고 짜증내는 모습을 흉내 내는 말로 표준어 ‘포들썩포들썩’과 유사하다.

62) ‘곰베’는 흙을 잘게 부수는 데 쓰는, 나무로 만든 연장이다.

63) ‘밧갈아치’는 밧을 전문적으로 갈아주는 사람을 말한다.

103030 # 쉼 아정오랑 밧 갈아주민 따시 그 사름네 집이 강 이젠 하루 쉼 아정 오랑, 사름 오랑 밧 갈아주민 따시 이틀 일해줘.(소 가져와서 밧 갈아주면 다시 그 사람네 집에 가서 이젠 하루 소 가져와서, 사름 와서 밧 갈아주면 다시 이틀 일해 줘.)

103030 @ 할머니가 강 이틀 일해줘야 돼?(할머니가 가서 이틀 일해 줘야 돼?)

103030 # 나만 헌 땀 이틀 허고 큰딸 시민 애딸이 강 해주고. 수눌어, 수눌영 허는 게 쉬와.(나만 한 땀 이틀 하고 큰딸 있으면 어이딸이 가서 해주고. 품앗이해, 품앗이 하는 게 쉬워.)

103031 @ 콩밭디도 걸름 줘?(콩밭에도 거름 줘?)

103031 # 아니, 옛날에 걸름이 어디 성 경 콩 밧디도. 콩씨만 빼영 건.(아니, 옛날에 거름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콩밭에도. 콩씨만 뿌려서 그건.)

103032 @ 콩씨만 빼영. 조 갈아난 디.(콩씨만 뿌려서. 조 갈았던 데.)

103032 # 조 안헌 곳인 밧디.(조 안한 곳은 밧에.)

103032 @ 이건 언제 험니까?(이건 언제 함니까?)

103032 # 유월에 해여.(유월에 해.)

103032 @ 보리 그르에 허는 거파?(보리 그루터기에 하는 겁니까?)

103032 # 보리 그르엔 조 불리고. 그자 아무것도 안 해난 밧디 곳인 밧디.(보리 그루터기엔 조 밟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던 밧에 곳은 밧에.)

103032 @ 콩씨는 어떻 빼어마씨?(콩씨는 어떻게 뿌려요?)

103032 # 콩씨도 그냥 영 빼주게. 좁씨 빼듯게.(콩씨도 그냥 이렇게 뿌리지. 좁씨 뿌리듯.)

103032 @ 조 빠는 것보다 흐뎡 쉬운가?(조 뿌리는 것보다 조금 쉬운가?)

103032 # 크난 흙으난게 석석 나가주.(크니까 굵으니까 확확 나가지.)

103032 @ 그것도 씨 빠는 사름 빌어사여?(그것도 씨 뿌리는 사람 빌려야 해?)

103032 # 것도 씨 빠는 사름 안허영 줄바로 안허민 이디 두 파니 영 요거 혼 줄 심영 땀 파니, 또 저펜드레 넘어사민 혼 파니도 걸르고 두 파니도 걸러.(그것도 씨 뿌리는 사람 안 해서 제대로 안하면 여기 두 이랑 이렇게 요거 한 줄 잡아서 땀 이랑, 또 저편에 넘어가면 한 이랑도 거르고 두 이랑도 걸러.)

103032 @ 아, 잘 못 빠는 사름이 허민.(아, 잘 못 뿌리는 사람이 하면.)

103032 # 잘 빠는 사름도 걸러.(잘 뿌리는 사람도 걸러.)

103033 @ 콩밭디 검질은 혼 번만 메민 웨어?(콩밭의 검은 한 번만 매면 돼?)

103033 # 응, 콩밭된 혼 번만 메민게 소끄지 안허는 거난.(응, 콩밭엔 한 번만 매면 숨지 않는 거니까.)

103034 @ 콩밭디 잘 나는 검질은 어떤 거파?(콩밭에 잘 나는 검은 어떤 겁니까?)

103034 # 그거 매일반 혼 가지주게. 웃드르 밧덜은 빈네, ㄱ름풀. 그것만 잘나. 웃드르 밧디덜.(그거 매일반 한 가지지. 중산간 밧들은 아욱메풀, 땅빈대. 그것만 잘

나.)

103034 @ 조팏되 나는 검질이나 콩팏되나 같아?(조발에 나는 김이나 콩발에나 같아?)

103034 # 응, ㄱ따, 다 ㄱ따. 산뒤왓되나 다 ㄱ따.(응, 같아, 다 같아. 발벼발이나 다 같아.)

103035 @ 게메, 이제 콩 다 익언.(그러게, 콩 다 익었어.)

103035 # 익으면 것도 시월 나근에 콩은 가근에 꺼경 무경.(익으면 그것도 시월 나서 콩 가서 꺾어서 묶어.)

103035 @ 호미로 비어? 콩만 툐아?(낫으로 베? 콩만 뜯어?)

103035 # 호미로 영 영 푹푹 꺼꺼가민 잘 익은 건 영 영 해가민 혼불 영 좁아 탕기민 꺼꺼지주게. 경해 강 것도 흙치 해당 무꺼다근에 두드려.(낫으로 이렇게 이렇게 푹푹 꺾어가면 잘 익은 건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한벌 이렇게 잡아당기면 꺾 어지지. 그렇게 해서 가서 그것도 한꺼번에 해다가 묶어다가 두드려.)

103035 @ 흙치 행 무꺼당 집이 왕 마당에서 두드려.(한꺼번에 해서 묶어다가 집에 와서 마당에서 두드려.)

103035 # 마당에서 두드려. 것도 행 남탱인 남탱이대로 행 낫당 불 습고 따시 불리민 췌 낫당 굴묵 살르곡, 그 여물은게 먹곡 허주게. 옛날은 콩 혼엇이 안 풀앙 그걸로 갈아다근에 콩죽도 췌 먹고 콩주름도 낱 먹고 헛주게. 한 사름은 품도 허 고.(마당에서 두드려. 그것도 해서 즐기는 즐기대로 해서 놔두었다가 불 때고 다시 불리면 겨는 놔두었다가 ‘굴묵’ 때고, 그 여물은 먹고 하지. 옛날은 콩 한없이 안 팔 아서 그걸로 갈아다가 콩죽도 췌어서 먹고 콩나물도 놓아서 먹고 했지. 많은 사름 은 팔기도 하고.)

103035 @ 콩은 거난 그 툐아질 거 님은디.(콩은 그러니까 그 뜯어질 것 같은 데.)

103035 # 콩은 꺼끄주게. 영 호미로 푹푹 꺼꺼지주게.(콩은 꺾지. 이렇게 낫으로 푹푹 꺾어지지.)

103035 @ 조코고리추룩 툐으면 웰 거 님은디.(조이삭처럼 뜯으면 웰 거 같은 데.)

103035 # 건 아니, 아니. 영행 고고리 콩 것도 비어사 허주게, 비어사주게. 조 빔이나 보리 빔이나 빔질은 다 혼 가지.(그건 아니, 아니. 이렇게 해서 이삭 콩 그 것도 베어야 하지, 베어야 해. 조 베는 것이나 보리 베는 것이나 베는 일은 다 한 가지.)

103035 @ 푹같애?(푹같애?)

103035 # 응. 조도 눅 빌영 비는 사름 시고, 보리도 눅 빌영 비는 사름 싹곡, 콩 도 하영허는 사름덜은 눅 빌영 다 허여.(응. 조도 눅 빌어서 베는 사람 있고, 보리 도 눅 빌어서 베는 사람 있고, 콩도 많이 하는 사람은 눅 빌어서 다해.)

103035 @ 콩 시경오당 보민 다 털어져 불지 안헉니까?(콩 실어오다 보면 다 떨

어저 버리지 않습니까?)

103035 # 아니, 콩 단 이만씩 훑주게. 훑으면 조도 옷 단, 저 혼 착에 석 단씩 옷 단. 혼 바리가 옷 단, 조도 옷 단, 보린 스무 단.(아니, 콩 단 이만큼씩 굵지. 굵 으면 조도 여섯 단, 저 한 쪽에 석 단씩 여섯 단. 한 바리가 여섯 단, 조도 여섯 단, 보린 스무 단.)

103035 @ 아, 보린 스무 단.(아, 보린 스무단.)

103035 # 산된 스무 단.(발벼는 스무 단.)

103035 @ 아, 산뒤도 스무단.(아, 발벼도 스무 단.)

103035 # 조광 콩은 다 ㄴ따. 옷 단씩. 혼 바리가 옷 단이라.(조와 콩은 다 같 아. 여섯 단씩. 한 바리가 여섯 단이야.)

103035 @ 조하고 콩은 여섯 단씩.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조하고 콩은 여섯 단씩.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103035 # 응.(응.)

103035 @ 이게 혼 바리.(이게 한 바리.)

103035 # 옷 단이 혼 바리.(여섯 단이 한 바리.)

103035 @ 잘도 족구나.(잘도 작구나.)

103035 # 크게 무꺼부난게.(크게 묶어버리니까.)

103037 @ 아. 콩짚은 뭐릅니까?(아. 콩짚은 뭐릅니까?)

103037 # 콩짚은 불 솟주게.(콩짚은 불 때지.)

103037 @ 콩짚이엔 험니까, 콩대엔 험니까?(콩짚이라고 험니까, 콩대라고 험니 까?)

103037 # 콩짚이나 콩대나 매일반이주게. 옛날도 콩짚이주게. 경허민 쉼 질룬 사름, 들 질룬 사름은 들도 주고. 콩대, 콩짚, 콩짚이주, 콩짚.(콩짚이나 콩대나 매일 반이지. 옛날도 콩짚이주. 그러면 소 기른 사람, 말 기른 사람은 말도 주고. 콩대, 콩짚, 콩짚이지, 콩짚.)

103037 @ 콩고짚은 무신거라.(‘콩고짚’은 뭐야?)

103037 # 콩고짚이 콩짚이주게. 이제 콩고짚이주게.(‘콩고짚’이 콩짚이지. 이제 ‘콩고짚’이지.)

103037 @ 콩짚이나 콩고짚이나 다 ㄴ쁜 거?(콩짚이나 ‘콩고짚’이나 다 같은 거?)

103037 # 다 ㄴ쁜 거. 콩짚이엔 곱으나, 옛날은 콩짚이명 이젠 콩대엔도 허고 콩짚이엔도 허고 거 다 매일반 혼 가지.(다 같은 거. 콩짚이라고 말하나, 옛날은 콩 짚이면서 이젠 콩대라고도 하고 콩짚이라고도 하고 그거 다 매일반 한 가지.)

103037 @ 할머니 옛날에 곱아난 말은 무신건고?(할머니 옛날에 말했던 말은 무 엇인가?)

103037 # 옛날에 콩짚게. 조칩, 콩칩, 보리칩, 그거주. 모뎀냥은 모뎀칩, 산뒤냥 은 산뒤칩 다 그거.(옛날에 콩짚. 조짚, 콩짚, 보리짚, 그거지. 메밀대는 메밀짚, 발

벗대는 밭벗짚 다 그거.)

103038 @ 콩 농사할 때 어렵거나 기억나는 건?(콩 농사할 때 어렵거나 기억 나는 건?)

103038 # 콩이 쉬운 거라. 그 쉼에 하영 불린다 무신거, 여라 번 검질도 안 매고 콩이 쉬운 거라.(콩이 쉬운 거야. 그 소에 많이 밟는다 무엇, 여러 번 김도 안 매고 콩이 쉬운 거야.)

### 밭벼 농사

103039 @ 산뒤는 허젠 허민 준비 미리 해야돼여?(밭벼는 하려고 하면 준비 미리 해야돼?)

103039 # 산뒤도, 산된 초불 갈앙 산뒤도 혼불에 갈아. 씨 빼어낱 갈아. 씨 빼어 낱 갈민 그것도 병에 일민 곱베로 두들리고 경 안허민 그냥 감만 허민 산뒤밭되도 검질 두불 메어. 검질 두불 메어.(밭벼도, 밭변 초벌 갈아서 밭벼도 한벌에 갈아. 씨 뿌려놓고 갈아. 씨 뿌려놓아서 갈면 그것도 벳밥 일면 곱방베로 두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갈기만 하면 밭벼밭에도 김 두벌 매. 김 두벌 매.)

103040 @ 산된 언제 가는 거파?(밭벼는 언제 가는 겁니까?)

103040 # 산된 혼 하지 넘어가민 산뒤 갈아.(밭벼 한 하지 넘어가면 밭벼 갈아.)

103040 @ 하지 넘어사민, 것도 유월이구나예.(하지 넘어가면, 그것도 유월이군요.)

103040 # 유월, 오월이주. 계난 보리 그르에 산뒤 갈곡, 보리 빔 전이 산된 갈아.(유월, 오월이지. 그러니까 보리 그루터기에 밭벼 갈고, 보리 베기 전에 밭벼는 갈아.)

103040 @ 아, 보리 비기 전이.(아, 보리 베기 전에.)

103040 # 오월 망종 전이. 오월 망종이난 보리가 오월 망종이 한창이난 망종 전이 보리 갈아. 하지 넘어사민 보리 갈아.(오월 망종 전에. 오월 망종이니까 보리가 오월 망종이 한창이니까 망종 전에 보리 갈아. 하지 넘으면 보리 갈아.)

103040 @ 산뒤, 산뒤.(밭벼, 밭벼.)

103040 # 산뒤 계메, 경 갈아. 산뒤가 인척 갈아.(밭벼 그러게, 그렇게 갈아. 밭벼가 일찍 갈아.)

103040 @ 산뒤가 인척 갈아.(밭벼가 일찍 갈아.)

103040 # 계난 검질 중에 조팻되 검질 매기 전이 산뒤밭되 검질 초불 매어. 산된 인척 갈주게.(그러니까 김 중에 조밭에 김 매기 전에 밭벼밭에 김 초벌 매. 밭벼는 일찍 갈지.)

103040 @ 산뒤가 흐뭇 인척 가는구나예?(밭벼가 조금 일찍 가는군요?)

103040 # 응, 인척 갈아.(응, 일찍 갈아.)

103041 @ 산뒤 밭되도 걸름을 줘사 되는가?(밭벼 밭에도 거름을 줘야 하는가?)

103041 # 걸름이 옛날에 어디, 이제 사름덜이 비료가 어디 시파게? 씨만 빼엄

주. 아이고, 옛날에 경협시민 용스 못행 먹주. 경허난 거름 엇영 돛걸름만 허곡 허난 보리나 무시거 줄바로 못행 먹엄주게. 이젠 비료허난 곳인 밧, 좋은[존] 밧 엇이 용스행 먹는 거.(거름이 옛날에 어디, 이제 사람들이 비료가 어디 있습니까? 씨만 뿌리고 있지. 아이고, 옛날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농사 못해서 먹지. 그러니까 거름 없어서 돼지거름만 하고 하니까 보리나 무엇 제대로 못 해서 먹었지. 이젠 비료 하니까 곳은 밧, 좋은 밧 없이 농사해서 먹는 거.)

103042 @ 산뒤 갈 땐 씨 먼저 빼영 밧을 가는 거꽈?(밭벼 갈 땐 씨 먼저 뿌려서 밧을 가는 겁니까?)

103042 # 초불에 갈아.(초벌 갈아.)

103042 @ 갈아근에 그레 씨 빼는 게 아니고.(갈아서 그리 씨 뿌리는 게 아니고.)

103042 # 아니, 그냥 아썩 빼어낭 갈아.(아니, 그냥 살짝 뿌려놓고 갈아.)

103042 @ 산뒤씨 빼어낭 밧을 갈아? 경허민 흑 소곱에 묻어지는 거?(밭벼씨 뿌려놓고 밧을 갈아? 그러면 흑 속에 묻히는 거?)

103042 # 응, 경허고 헤어지는 사름은 따시 또 갈아낭 씨 빼영 불리는 사름도 잇고. 들 이신 사름은 불림도 허고 기자 골르멍 못 허는 사름은 경 빼영도 갈고. (응,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름은 다시 또 갈아놓고 씨 뿌려서 밟는 사름도 있고. 밟는 사름은 밟기도 하고 그저 고르면서 못 하는 사름은 그렇게 뿌려서도 갈고.)

103042 @ 밧을 갈민 이랑고랑 이십니께?(밭을 갈면 이랑 고랑 있잖습니까?)

103042 # 파니 잇주게.(이랑 있지.)

103042 @ 파니 이시민 영 물어살 거 아니?(이랑 있으면 이렇게 물어야할 거 아니?)

103042 # 파니 시민 산뒤씨 빼민 산뒤썩 무시거 허난 다 묻어지주게, 묻어져. 고랑은 민차 고랑이고 이랑은 산뒤씨 싱그고 고랑엔 엇주게.(이랑 있으면 밧벼씨 뿌리면 밧벼씨는 무엇 하니까 다 묻히지, 묻혀. 고랑은 빈 채 고랑이고 이랑은 밧벼씨 심고 고랑엔 없지.)

103042 @ 고랑엔 씨 안 빼고.(고랑엔 씨 안 뿌리고.)

103042 # 뿌리민 그 파니로 가민 허고 따시 갈아낭 산뒤씨 빼영 불리는 건 고랑이랑 엇주게. 건 민딱헤여.(뿌리면 그 이랑으로 가면 하고 다시 갈아 놓아서 밧벼씨 뿌려서 밟는 건 고랑이랑 없지. 그건 평평해.)

103043 @ 산뒤밧디 검질은?(밭벼밭에 김은?)

103043 # 혼불만 메민 돼여.(한벌만 매면 돼.)

103044 @ 검질도 다 비슷허고? 다 똑같애? 여름 검질?(김도 다 비슷하고? 다 똑같아? 여름 김?)

103044 # ㄱ따. 조팏디 검질, 산뒤밧디 검질은 왕피엔 해근에 피, 아이 먹는 피나 검질 잇주. 그것가 대중이주게, 산뒤밧디. 그거 잘 메어야, 피 닳은 거. 그걸 메 비어사 산뒤 필 때 뭐 엇주. 거 안 메민 산뒤 빌 땐 막 한한허주. 그걸 대중으로 메

주.(같아. 조발의 김, 발벼발의 김은 ‘왕피’라고 해서 피, 안 먹는 피나 김 있지. 그 것이 주야, 발벼발에. 그거 잘 매어야, 피 같은 거. 그걸 매버려야 발벼 필 때 뭐 있지. 그거 안 매면 발벼 벨 땐 아주 많지. 그걸 주로 매지.)

103045 @ 대중으로 매는 거예, 이제 산뒤 다 익언.(주로 매는 거요, 이제 발벼 다 익었어.)

103045 # 익으민 것도 비어당은에.(익으면 그것도 베어다가.)

103045 @ 호미로 비어다근에.(낫으로 베어다가.)

103045 # 물리왕 무꺼당 집이 오랑 두드리는 거주. 것도 도깨로.(말려서 묶어다가 집에 와서 두드리는 거지. 그것도 도리깨로.)

103045 @ 똑ㄱ타예?(똑같아요?)

103045 # 응, 홀트곡 두드리곡 옛날은 홀테 엇이난 두드려 다.(응, 훑고 두드리고 옛날은 훑이 없으니까 두드려 다.)

103045 @ 아, 홀테 나난 홀타 낱 두드리는 거파?(아, 훑이 나니까 훑아 놓고 두드리는 겁니까?)

103045 # 홀테 신 사름은 홀테 홀타 낱도 두드리곡 엇이민 산뒤 놔근에.(훑이 있는 사름은 훑이 훑아 놓고도 두드리고 없으면 발벼 놔서.)

103045 @ 산뒤 흙치 낱?(발벼 한꺼번에 놔서.)

103045 # 응, 영행 마주 놓고 줄주루 해낱 보리 두들듯 두드려. 산뒤도 좋은 건 홀트곡 굿인 것 도깨로 두드려, 다.(응, 이렇게 마주 놓고 나란히 해놓고 보리 두들듯 두드려. 발벼도 좋은 건 훑고 굿은 건 도리깨로 두드려, 다.)

103045 @ 아.(아.)

103045 # 게민 산뒤찢 행 쉼 질룬 사름은 쉼도 주고 따시 경 허민 불도 숨고 쉼 엇은 사름은 불도 숨고. 경허곡 홀테 엇은 사름은 그 체 ㄱ루 치는 쳇망 님은 걸로 영 놔근에 산뒤 영영 홀트주게.(그러면 발벼질 해서 소 기른 사름은 소도 주고 다시 그렇게 하면 불도 때고 소 없는 사름은 불도 때고, 그렇게 훑이 없는 사름은 그 체 가루 치는 쳇바퀴 같은 걸로 이렇게 놔서 발벼 이렇게 이렇게 훑지.)

103045 @ 체로?(체로?)

103045 # 쳇부리로 영 허민 요거 바위민 요영 낱 요영허민 홀타져.(쳇불로 이렇게 하면 욱 가장자리면 요렇게 놔서 요렇게 하면 훑아져.)

103045 @ 쳇불?(쳇불?)

103045 # 응, 홀타. 홀툼도 허곡 영 무시걸로 해근에 영 두드리는 것도 싹고 옛날 할망덜 뱅뱅뱅뱅 돌아간 디 영 대영 허민 두드려지는 것도 싹곡. 우리 두린 때에 그자락 경 허난 용술 그추룩 하영 허난. 엇영 안 돼곡 허난 곤란허영 잘 못살아나수게게. 잘 입도 못허곡 먹도 못허곡.(응, 훑아. 훑음도 하고 이렇게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있고 옛날 할머니들 뱅뱅뱅뱅 돌아간 데 이렇게 대어서 하면 두드려지는 것도 있고. 우리 어린 때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농사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없어서 안 되고 하니까 곤란해서 잘 못살았습니다. 잘 입지도 못하고 먹



지도 못하고.)

103047 @ 산뒤짚으로 뭐릅니까?(밭벼짚으로 뭐 합니까?)

103047 # 아이, 산뒤짚은게 불도 숨고게 베도 꼬곡게.(아니, 밭벼짚은 불도 때고 바도 꼬고.)

103047 @ 베도 꼬아마씨?(바도 꼬아요?)

103047 # 물베<sup>64</sup>, 물베 꼬아.(‘물베, 물베’ 꼬아.)

103047 @ 물벤 뭐 허는 거마씨?(‘물베’는 뭐 하는 거예요?)

103047 # 물 지는 거. 옛날은 물 지영 거행 두드려근에.(물 지는 거. 옛날은 물 쳐서 그거 해서 두드려서.)

103047 @ 산뒤짚을 두드려?(밭벼짚 두드려?)

103047 # 응, 두드리주. 마께 행 던드렁마께<sup>65</sup>. 두드렁 걸로 물베 꼬앙 물도 지고. 검질도 지젠 허민 걸게시리 혼 대섯 밭 행 검질도 지고, 물 질레도 그런 걸로 정 땡기고. 하간 거 곡석도 그런 걸로 지영 지곡 허주게.(응, 두드리지. 방망이 해서 ‘던드렁마께’. 두드려서 그걸로 ‘물베’ 꼬아서 물도 지고. 검불도 지려고 하면 크게 끄 한 대여섯 밭 해서 검불도 지고, 물 길러도 그런 걸로 쳐서 다니고. 온갖 거 곡석도 그런 걸로 지어서 지고 하지.)

103024 @ 조혈 때도 던드렁마께로도 두드려?(조할 때도 ‘던드렁마께’로도 두드려?)

103024 # 조코고리. 비나 벳이나 안 나민 영 던드렁마께로 재기 먹젠 허민 던드렁마께로 명석에 낱 두드려. 마당질 하지 못허영 재기 못허민 던드렁마께로.(조이삭. 비나 별이나 안 나면 이렇게 ‘던드렁마께’로 빨리 먹으려고 하면 ‘던드렁마께’로 명석에 낱 두드려. 마당질 하지 못해서 빨리 못하면 ‘던드렁마께’로.)

103024 @ 마당질 못 허민.(마당질 못 하면.)

103024 # 옛날은 상방에 불 영 슬라낱 조코고리 벳 안 나민 고리<sup>66</sup>엔 현 거 영 돌아매영 조 그르에 놔근에 영 돌아맨 것덜에 조 비와놔근에 알로 불 와랑와랑 때 가민 조가 물르주게. 우이 거 물르민 정도 행 골앙 먹고 헤낫주. 옛날에 고리에 저 집인 조 물렁 골암저 행. 경행 따시 그 마께에 낱 두드려근에 그레에서 골앙 먹어.(옛날은 마루에 불 이렇게 살라서 조이삭 별 안 나면 ‘고리’라고 한 거 이렇게 달아매서 조 그루터기에 놔서 이렇게 달아맨 것들에 조 부어 놔서 아래로 불 ‘와랑와랑’ 때 가면 조가 마르지. 위의 거 마르면 그렇게도 해서 갈아서 먹고 했었지. 옛날에 ‘고리’에 저 집은 조 말려서 갈고 있다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방망이에 놔서 두드려서 멧돌에서 갈아서 먹어.)

103024 @ 아까 어디서 영?(아까 어디서 이렇게?)

103024 # 마리, 상방에 북덕방<sup>67</sup>에 큰 화리헤 놔근에 허민 이디 영 공장<sup>68</sup> 걸

64) ‘물베’는 물구덕을 지는 바를 말한다.

65) ‘던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나무로 만든 방망이다. ‘던드렁마께’라고도 한다.

66) ‘고리’는 바닷고기 등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대오리 따위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다.

67) ‘북덕방’은 짚 검불 따위가 난잡하게 깔린 방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마루나 부엌을 파서 돌화로를 설치한 난

영 큰 구덕 이만이 현 고리해 바근에.(마루, 마루에 ‘북덕방’에 큰 화로 해서 놔서 하면 여기 이렇게 ‘공장’에 걸어서 큰 구덕 이만큼 한 ‘고리’해 놓아서.)

103024 @ 고리가 뭐, 고리?(고리가 뭐, 고리?)

103024 # 고리엔 현 건 큰 구덕이주게. 그디 조 비와냥 영 돌아매민 알로 불 솜 아가민 내로 그 위이 거 물들 거 아니라. 갱 물리왕 그거 해영 미쳐 못허민 그레에 브비어. 브빔도 발로 냇 브빔도 허고 마께로 못음도 허곡 했주. 경허당 물 그레에 골 아당도 먹고 물리지, 옛날에 뱃 안 냇 못 물리우민.(‘고리’라고 한 건 큰 바구니지. 거기 조 부어 놔서 이렇게 달아매면 아래로 불 때가면 연기로 그 위의 거 마를 거 아니냐. 그렇게 말려서 그거 해서 미쳐 못 하면 땀들에 비벼. 비빔도 발로 놔서 비빔도 하고 방망이로 마기도 하고 했지 그러다가 연자매에 갈아다가도 먹고 말리지, 옛날에 뱃 안 나서 못 말리면.)

103024 @ 못 물리민.(못 말리면.)

103024 # 옛날 할망덜 사는 생각을 허민 기가 맥힌다. 게난 요새 사름덜 거 다 물론다.(옛날 할머니들 사는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그거 다 모른다.)

103024 @ 게난마씨. 처음 들으옴. 아까 상방에 이신 화리에 그 우트레 영 걸 영.(그러니까요. 처음 들어. 아까 상방에 있는 화리에 그 위에 이렇게 걸어서.)

103024 # 요건만이 허주. 이거만인 현 거 영 돌아매영 끈 들앙 혼 대여섯 개 돌아매영, 지붕 대에 남에 돌아매영. 알로 불 때가민 그 불김으로 행 물르민 그거 해근에 영 뒤흅 노다쌍 발로 브병도 조 털어지민 불령 곶앙 먹고 하간 거 했주. 호강 시리 경 아이고.(요것만큼 하지. 이것만큼 한 거 이렇게 달아매서 끈 달아서 한 대 여섯 개 달아매서, 지붕 대에 나무에 달아매서. 아래로 불 때가면 그 불김으로 해서 마르면 그거 해서 이렇게 뒤집었다 뒤집었다하며 발로 비벼도 조 떨어지면 불려서 갈아서 먹고 온갖 거 했지. 호강스럽게 그렇게 아이고.)

103046 @ 산뒤로는 주로 식게 때나 밥행 먹고.(발벼로는 주로 제사 때나 밥해서 먹고.)

103046 # 응, 산된 제스 때나 베피 안 먹주게.(응, 발벼는 제사 때나 밖에 안 먹지.)

103046 @ 엇어 부난예.(없어 버리니까요.)

103046 # 엇어 부난. 게난 그때 나민 그 제도 거 엇이민 다시또 흥쉴만 냇 상에만 올리고 보리썰에 산뒤썰 흥썰 냇 밥행 갈랑 먹고 경했주.(없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면 그 제도 그거 없으면 다시 또 조금만 놔서 상에만 올리고 보리썰에 발벼썰 조금 놔서 밥해서 갈라서 먹고 그랬지.)

103046 @ 산뒤힐 때 기억나는 거나 힘들거나 이런 거는마씨?(발벼할 때 기억나는 거나 힘들거나 이런 거는요?)

---

방 기구인 ‘봉덕, 부섭’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68) ‘공장’은 나뭇가지나 대 등으로 가늘고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서 벽에 박은 것으로 옷이나 물건을 거는 용도로 쓰인다.

103046 # 기억나는 거는 무시거 었어. 옛날엔 용스허는 것이 똑ㄴ뜨는디 저 조 불럼이 힘들었주. 무시거 감저 놔도양 옛날엔 감저도 하영 안 나랏수게. 감저꿀 헤 영 훔쓸 낫당 지어다근에 감저 낱 허민 팔월[팔월] 나민 보리 었인 사름은 출은 허젠 허민 쉼 주젠 출은 허젠 허민 출왓디 텡기명 그 감저 다 파당 출밧디 강 청 먹고 허당 보민 감저철 낱 팔 거 었어. 혼 삼십 평, 삼백 평 헛 거 하나도 었어. 다 파먹어 비영 었어.(기억나는 거는 뭐 없어. 옛날에 농사하는 것이 똑같은데 저 조 밭음이 힘들었지. 무엇 고구마 놔도요 옛날엔 고구마도 많이 안 낫었습니다. 고구마 줄기 해서 조금 낫다가 저다가 고구마 놔서 하면 팔월 나면 보리 없는 사름은 꿀은 하려고 하면 소 주려고 꿀은 하려고 하면 꿀밭에 다니면서 그 고구마 다 파면서 꿀밭에 가서 썬서 먹고 하다보면 고구마철 나서 팔 게 없어. 한 삼십 평, 삼백 평 한 거 하나도 없어. 다 파먹어 버려서 없어.)

103046 @ 아.(아.)

103046 # 경허민 놈의 밧디 논 사름덜은 혼 파니 냉겨뵤 혼 파니 팡 먹고 경허민 혼 서너, 닛 말지기 허민 밧 임제네 집이 밧 넘겨 불민 갈 거 었어. 었인 사름은. 이젠 었인 사름도 잘사는디 옛날은 었인 사름 잘도 곤란해났어.(그러면 남의 밧에 놓은 사름들은 한 이랑 남겨두고 한 이랑 파서 먹고 그렇게 하면 한 서너, 닛 말지기 하면 밧 임자네 집에 밧 넘겨버리면 갈 거 없어. 없는 사름은. 이젠 없는 사름도 잘사는데 옛날은 없는 사름 잘도 곤란했었어.)

## 고구마 농사

103050 @ 감전 언제 갑니까?(고구마는 언제 갑니까?)

103050 # 감저 유월 나민 놓주게. 유월 나민. 양력으로 유월 나근에 허민 윤달 유월 나민 감저 놔근에 허민 옛날엔 비니루 었으난 감저 놓민 감저꿀도 하영 안 크지 안헛니까. 유월 나민 그차다근에 놔근에.(고구마 유월 나면 놓지. 유월 나면 양력으로 유월 나서 하면 윤달 유월 나면 고구마 놔서 하면 옛날엔 비닐 없으니까 고구마 놓으면 고구마줄기도 많이 안 크지 않습니까? 유월 나면 잘라다가 놔서.)

103050 @ 차근차근. 이월 나민 어디다 놔?(차근차근. 이월 나면 어디다 놔?)

103051 # 밧디 강 우영팻디 감저 놔근에 쉼결름 놔근에 하영 낱 헛디 좋은, 건디 놓민 감저꿀도 걸영 이만씩 허고 따시 또 걸름에 줄바로 안 행 비료 었영 쉼결름엿이민 감저꿀도 요만씩 베피 안 커. 감저꿀 묻영 놔두민 순 나근에 허민 요만씩 크주게. 그거 그차다근에.(밭에 가서 텃밭에 고구마 놔서 소두엄 놔서 많이 놔서 한 데 좋은, 건 데 놓으면 고구마줄기도 걸어서 이만큼씩 하고 다시 또 거름에 제대로 안하고 비료 없어서 소두엄 없으면 고구마 줄기도 요만큼 밖에 안 커. 고구마 줄기 묻어서 놔두면 순 나서 하면 요만큼씩 크지. 그거 잘라다가.)

103050 @ 유월덜 뵤민?(유월 되면?)

103050 # 유월달 나민. 그거 해당 따시 밧디 가근에 초불 갈곡 두불 갈앙 그거 다 요만씩 행 꼭꼭꼭꼭 질렁 놔두주게.(유월 나면. 그거 해다가 다시 밧에 가서 초

벌 걸고 두벌 갈아서 그거 다 요만큼씩 해서 꼭꼭꼭꼭 찢어서 놔두지.)

103050 @ 어디 이랑에, 고랑에?(어디 이랑에, 고랑에?)

103050 # 이랑에 파니에, 파니에. 경행 놔두민 감저 들민 그젠 파먹는 거.(이랑에 이랑에, 이랑에. 그렇게 해서 놔두면 고구마 들면 그젠 파먹는 거.)

103051 @ 감저밧디 걸름허는 게 아니라 처음에 헐 때.(고구마 밧에 거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할 때.)

103051 # 처암 헐 때 감저꿀 키울 때만.(처음 할 때 고구마 줄기 키울 때만.)

103051 @ 감저꿀 키울 때 걸름 흐끔 낱.(고구마 줄기 키울 때 거름 조금 낱서.)

103051 # 경허민 쉼걸름 터낱 감저에 놓민 감저줄이 켜 감절 하영 놓고, 가난헌 사름은 쉼걸름 엇곡 허민, 이 해벤 사름덜은 듬북<sup>69)</sup> 해다근에 밧고랑에 낱아근에 그디 감저 갈앙 놔근에 허민 감저 놓곡 허엿주.(그러면 쇠두엄 떠 낱서 고구마에 놓으면 고구마 줄기가 커서 고구마를 많이 놓고, 가난한 사람은 쇠두엄 없고 하면, 이 해벤 사람들은 ‘듬북’ 해다가 밧고랑에 갈아서 거기 고구마 갈아서 낱서 하면 고구마 놓고 했지.)

103052 @ 것도 감저꿀 헐 때 놓는 거?(그것도 고구마 줄기 할 때 놓는 거?)

103052 # 응. 감저 유월절 바로 유월절 전후 삼일, 유월절 널모리 허민 놓고 다시 감저꿀 크민 유월절 흐 열흘 전이도 놓고, 유월절 넘영 초복까지도 놓는 사름도 잇고.(응. 고구마 유월절 바로 유월절 전후 삼일, 유월절 널모레 하면 놓고 다시 고구마 줄기 크면 유월절 한 열흘 전에도 놓고, 유월절 넘어서 초복까지도 놓는 사람도 있고.)

103053 @ 감저 밧디 검질은?(고구마 밧의 김은?)

103053 # 감저 밧디 검질 엇은 사름은 안허고 신 사름은 혼불 메어. 검질 조팍디 다 메어난 후제.(고구마 밧의 김은 없는 사람은 안하고 있는 사람은 한벌 메어. 김 조발 다 매고난 후에.)

103054 @ 아, 다 메어난 후제. 감저밧디 하영 나는 검질은 엇수과?(아, 다 매고난 후에. 고구마 밧에 많이 나는 김은 없습니까?)

103054 # 다 ㄴ따, 다 ㄴ똥 검질메영. 제완지나 나민 제완지 하영 나민 하영 메곡 죽영 나민 죽영 메고. 다 뎌은 흐 가지주.(다 갈아, 다 같은 김매어서. 바랭이나 나면 바랭이 많이 나면 많이 매고 적게 나면 적게 매고. 다 매는 것은 한 가지지.)

103055 @ 감저 다 익으민 어떻 팝니까?(고구마 다 익으면 어떻게 팝니까?)

103055 # 시월 나민 굴갱이로 땅 팡 그거 꿀 걷어낱 땅 팡 파주게. 감저 들민.(시월 나면 호미로 땅 파서 그거 줄기 걷어놓고 땅 파서 파지. 고구마 들면.)

103055 @ 우에 줄은?(위에 줄기는?)

103055 # 줄은 다 비영 흠치 걷어 놔두고. 문딱 걷어 놔뒀근에.(줄기는 다 베어서 한꺼번에 걷어 놔두고. 모두 걷어 놔뒀서.)

103055 @ 아, 줄부터 먼저 걷영.(아, 줄기부터 먼저 걷어서.)

69) ‘듬북’은 모자반과에 속하는 해초로 거름용으로 사용했다.

103055 # 문딱 걷어 놔뒀 그젠 감저 팡. 반작허는 사름은 그거 팡 갈랑, 갈라놓민 따시 아저가고 두 배에 하나 허민 하나씩 아저가고, 경헛주.(모두 걷어 놔두고 그땠 고구마를 파. 반작하는 사름은 그거 파서 갈라서, 갈라놓으면 다시 가져가고 두 배에 하나 하면 하나씩 가져가고, 그랬지.)

103056 @ 감전 어떻 보관해마씨?(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해요?)

103056 # 땅 파근에.(땅 파서.)

103056 @ 땅 팡 어떻? 차근차근.(땅 파서 어떻게? 차근차근.)

103056 # 구덩이 파근에, 땅 막 이만이 크게 파 땡.(구덩이 파서, 땅 막 이만큼 크게 파 땡고.)

103056 @ 그다음엔?(그다음엔?)

103056 # 그다음엔 조칩 해다근에 에엌더레 문딱 짚고 한가운데 산뒤칩이나 해당 에엌더레 속속 짚꼭 해땡 과썩 세와땡.(그다음엔 조짚 해다가 옆에 모두 깔고 한가운데 밭뽕짚이나 해가가 옆으로 속속 깔고 해놓고 곧게 세워놔서.)

103056 @ 무신거 세와놔?(무엇 세워 놔?)

103056 # 조칩 해다근에 영허민 벽더레 문딱 세우주. 과썩 세와땡. 그제민 아래 산뒤칩 신 사름은 산뒤칩 산산허게 혹 안 나게, 감저 무드민 그디 짐 나가렌 창에 요만인 통 파주. 통 파민 이레 물 굴르렌 행 파 땡. 그디 검질 짚아근에 무시거 남이나 해 땡 툭툭 땡 그 우이 다 검질 짚앙 감저 담아땡. 그 우이 감저 문딱 담아놓민 조칩 쫄르민 이스멍 그레 영 감저, 혹을 다 올리주게. 감저 땅에 담아땡 조칩을 영영 오그려 놓민 이 에엌더레 혹 요것만이 남겨땡 혹을 문 올려.(조짚 해다가 이렇게 벽에 모두 세우지. 곧장 세워놔. 그때면 아래 밭뽕짚 있는 사름은 밭뽕짚 ‘산산하게’ 흙 안 나게, 고구마 묻으면 거기 짐 나가라고 창에 요만큼은 통 파지. 통 파면 이리 물 고이라고 해서 파 땡고. 거기 검불 깔아서 무엇 나무나 해 놓고 툭툭놔서 그 위에 다 검불 깔아서 고구마 담아놔서. 그 위에 고구마 모두 담아 놓으면 조짚 짧으면 이으면서 그리 이렇게 고구마, 흙을 다 올리지. 고구마 땅에 담아 놓고 조짚을 이렇게 이렇게 오그려 놓으면 그 옆에 흙 요것만큼 남겨두고 흙을 모두 올려.)

103056 @ 젤 우이 고망 흐뽀 남겨땡.(제일 위에 구멍 조금 남겨두고.)

103056 # 감저 팔 거 냄겨땡. 경헛 감질 행 놔근에 허민 혹 하영 올리민 허곡, 혹 죽영 올리민 얼영 썩어. 경허민 그디 느람지 예피고 주쟁이 더프곡 행 땡당 그 감질 저율이 나가민 엇은 사름은 감저 서너 눌 눌어도 저율에 먹당 보민 봄이 감저 씨가 엇어. 다시 감저 땅에 묻을 거가 엇어.(고구마 팔 거 남겨두고. 그렇게 해서 고구마를 해서 놔서 하면 흙 많이 올리면 하고, 흙 적게 올리면 얼어서 썩어. 그러면 거기 이영 짜고 주지 덮고 해서 땡다가 그 고구마를 겨울 나가면 없는 사름은 고구마 서너 가리 가려도 겨울에 먹다 보면 봄에 고구마 씨가 없어. 다시 고구마 땅에 묻을 것이 없어.)

103056 @ 다 먹어 불영?(다 먹어 버려서?)

103056 # 다 먹어 비영. 경허민 따시 사다근에. 사당 다시 감저 씨 문영 감저 놓고. 계난 이젠 엇인 사름 나가민 하루 나가민 돈이 얼마 헤신디 옛날은 경헛수과? 하루 종일 마당질허민 보리 거죽을, 보리 말가웃, 시방 관뎡로 으섯 개, 말가웃, 그거 받앙 하루 저물앙 보리 마당질허고, 기가 맥힌 세상 아니파? 엇인 사름 옛날엔 잘도. 이젠 사름은 엇인 사름이나 신 사름이나 몸만 편안허민 걱정 엇어.(다 먹어버려서. 그러면 다시 사다가. 사다가 다시 고구마 씨 문어서 고구마 놓고. 그러니까 이젠 없는 사람 나가면 하루 나가면 돈이 얼마 하는데 옛날은 그렇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마당질하면 보리 껍질을, 보리 한말 반, 시방 관되로 여섯 개, 한말 반, 그거 받아서 하루 저물도록 보리 마당질하고, 기가 막힌 세상 아닙니까? 없는 사람 옛날엔 잘도. 이제 사름은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몸만 편안하면 걱정 없어.)

103057 @ 감저로는 뭐 헤마씨?(고구마로는 뭐 해요?)

103057 # 감저로 행 밥행 먹고, 낮인 청 감저로 먹고.(고구마로 해서 밥해서 먹고, 낮에는 처서 고구마로 먹고.)

103057 @ 밥 대신에 감저 청 먹고.(밥 대신에 고구마 찌서 먹고.)

103057 # 누물 갈앙 시레기 물렁 무시거 햅주만은 옛날은 누물도 늪빠도 갈민 엇곡 허난 빠작빠작<sup>70)</sup>한 단지늪빠<sup>71)</sup>엔 헨 갈앙 허민 저슬 들영, ㄱ슬 들영 혼 팔월 [팔월] 나민 갈앙 놔두민 모물팻디 그 늪빠 갈앙 놔두민 늪빠가 이만씩 베끼 안 들주게. 쉼만 이만씩 나민 그 쉼 다 행 툷아다근에 그거 행 솥앙, 김치 헤근에 허민 쫄물에 김치행 고치나 흐쉴 놓고 허민, 쫄물에 김치행 그거 혼 사발 해놓곡 감저, 수정 한 딴 혼 일고으담 두 말들이 하나 쳐도 족아, 낮이 점심을. 감저 점심이지, 무신 밥행 먹고, 죽행 먹영 살았어? 경허당 보민 감저 서너 놀 물어도 다 먹어.(나물 갈아서 시레기 말려서 무엇 하고 있지만 옛날은 나물도 무도 갈면 없고 하니까 ‘빠작빠작’한 ‘단지늪빠’라고 해서 갈아서 하면 겨울 들어서, 가을 들어서 한 팔월 나면 갈아서 놔두면 메밀밭에 그 무 갈아서 놔두면 무가 이만큼씩 밖에 안 들지. 일만 이만큼씩 나면 그 일 다 해서 뜯어서 그거 해서 삶아서, 김치 해서 하면 쫄물에 김치해서 고추나 조금 놓고 하면, 쫄물에 김치 해서 그거 한 사발 해놓고 고구마, 숫자 많은 텐 한 일고여덟 두 말들이 하나 찌도 작아, 낮에 점심을. 고구마 점심이지, 무슨 밥해서 먹고 죽해서 먹어서 살았어? 그러다 보면 고구마 서너 가리 물어도 다 먹어.)

103057 @ 감저빠떼기는?(절간고구마는?)

103057 # 빠떼긴 감저 글루후제 감저 하영 농민 ㄱ슬, 시월 나민 감저 파민 그거 주서당 출왓디나 테역밧디나 기계로 썰영 널영 물리워.(절간고구마는 고구마 그 후에 고구마 많이 놓으면 가을, 시월 나면 고구마 파면 그거 주워다가 쫄밭에나 잔디밭이나 기계로 썰어서 널어서 말려.)

103057 @ 건 뭐 허는 거파?(그건 뭐 하는 겁니까?)

70) ‘빠작빠작’은 크게 자라지 않고 작은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71) ‘단지늪빠’는 무의 품종으로 무가 단지 모양으로 자라서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103057 # 옛날은 물리와당 술 험젠 허멍 다 받아놔주게. 어디 저 거시기 농협에서. 우리도 빼떼기 혼 백 가메씩 헤낫어. 반작밧허멍 하르방 구르마 허곡 허민 파당 시끄멍 썰멍 혼 댕 개씩 헤낫어, 빼떼기.(옛날은 말렸다가 술 한다고 하면서 다 받았었지. 어디 저 거시기 농협에서. 우리도 절간고구마 한 백 가마씩 했었어. 반작밧하면서 할아버지가 달구지 하고 하면 파다가 실으면서 썰면서 한 댕 개씩 했었어, 절간고구마.)

103057 @ 감저빼떼기엔 험니까, 절간이엔 험니까?('감저빼떼기'라고 합니까, 절간고구마라고 합니까?)

103057 # 절간이엔도 허곡 감저빼떼기엔도 허주게. 감저 빼떼기가 맞추게. 빼떼기로 나난 빼떼기. 공 드난 감저빼떼기엔 현 거 하도 빼떼기ㄴ치 빼떼기 내온 거난 감저빼떼기주게.(절간고구마라고도 하고 '감저빼떼기'라고도 하지. '감저빼떼기'가 맞지. '빼떼기'로 나니까 '빼떼기'. 공이 드니까 절간고구마라고 한 거 하도 '빼떼기'처럼 '빼떼기' 만든 거니까 '감저빼떼기'지.)

103057 @ 어떻 허난?(어떻게 하니까?)

103057 # 감저 썰엉 널어 그거 비 오민 데쌍 노다쌍 들엿다 널엿다 거 빼로 나는 거 빼떼기가. 하도 공들여 부난 빼떼기주. 우리도 혼 댕 개씩 헤낫주. 우린 경 하르방도 허고 아이덜도 시곡 허난 용스허난에 허민 유채도 행 그루후젠 유채도 갈양 폴아놔주게. 유채도 혼 백 가멩이 허곡 감저도 혼 백 가멩이 허곡 해도 다 일등허주, 삼등ㄱ장 안 헤낫어.(고구마 썰어서 널어, 그거. 비오면 뒤집었다 뒤집었다, 들엿다 널엿다 그거 빼로 나는 거, '빼떼기'가. 하도 공들여 버리니까 '빼떼기'지. 우리도 한 댕 개씩 했었지. 우린 그렇게 할아버지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농사 하니까 하면 유채도 해서 그 후엔 유채도 갈아서 팔았었지. 유채도 한 백 가마니 하고 고구마도 한 백 가마니 하고 해도 다 일등하지, 삼등까지 안 했었어.)

103057 @ 그것도 청 먹어나신디.(그것도 찌서 먹었었는데.)

103057 # 청 먹엇주, 솥앙. 설탕 그뻔 설탕 엇이난 당원<sup>72)</sup> ㄴ쁜 거 술 놔근에 것도 간식으로 점심으로 먹어놔주. 일허는 디도.(찌서 먹었지, 삶아서. 설탕 그뻔 설탕 없으니까 '당원' 같은 거 살짝 놔서 그것도 간식으로 점심으로 먹었었지. 일하는데도.)

103057 @ 그거 뿌셔근에도.(그거 부수어서도.)

103057 # 떡도 행 먹어난. 큰일할 때 떡도 청 먹고.(떡도 해서 먹었었어. 큰일할 때 떡도 찌서 먹고.)

103057 @ 빼떼기 곶아근에?(절간고구마 갈아서?)

103057 # ㄴ레에 강 곶아근에. 치멍 곶양근에 그거 놔 감저 썰어놓고 대썰 놔근에 쉬도 엇이민 대썰 놔근에 처근에 혼 시리 처근에 큰일할 때 먹어놔주게.(맷돌에 가서 갈아서. 찌면서 갈아서 그거 놔서 고구마 썰어놓고 댕읔 놔서 고물도 없으면 댕읔 놔서 찌서 한 시리 찌서 큰일할 때 먹었었지.)

72) '당원'은 설탕 대신의 용도로 사카린 나트륨제재 인공감미료이다.

103057 @ 건 이름이 뭐파?(그건 이름이 뭐니까?)

103057 # 감저떡. 시리에 처근에 흰 빗<sup>73)</sup>씩 주면 먹어놔주.(고구마떡. 시루에 찌서 한 ‘빗’씩 주면 먹었었지.)

103058 @ 감저줄은 어떻 허여?(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해?)

103058 # 감저줄은 비어놔 다 모이민 그렌 다 보리 갈아툇 그거 파삭 물르민 다 무꺼당 ㅁ쉬, 쉼 줘놔주게. 엇이민 놈의 밋되 거 빌명 물령 해놔어. 이녁 걸로 족으민. 크게 행 놀영.(고구마 줄기는 베어놔서 다 모이면 그리는 다 보리 갈아두고 그거 바삭 마르면 다 묶어다가 마소, 소 줘었지. 없으면 남의 밭의 것 빌리면서 말려서 했었어. 자기 걸로 작으면. 크게 해서 가려.)

103058 @ 것도 집이 왕 놀어?(그것도 집에 와서 가려?)

103058 # 집이 놀영 놔둬서 물 안 들게 놀민 그거 쉼 바로 사름 ㅁ뜨민 곧밥 ㅁ치 먹었주. 새꿀<sup>74)</sup>보다는 감저꿀을 잘 먹어.(집에 놀어서 놔두면서 물 안 들어가게 가리면 그거 소는 바로 사람 같으면 흰쌀밥같이 먹었지. ‘새꿀’보다는 고구마 줄기를 잘 먹어.)

103058 @ 감저꿀을 잘 먹어마씨?(고구마 줄기를 잘 먹어요?)

103058 # 응, 감저꿀을. 감저꿀은 쉼, 새꿀은 여라 번 주주만은 그건 하루에 한 번베끼 안 주주게, 엇어놓민.(응, 고구마 줄기를. 고구마 줄기는 소, ‘새꿀’은 여라 번 주지만 그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주지, 없어서.)

103058 @ 감저꿀을 좋아하는구나예?(고구마 줄기를 좋아하는군요?)

103058 # 감저꿀은 하나 넘기지 안행 다 먹주. 파삭 물령 곱게나 물령 ㅁ슬이나 안 들민 물려당 주민 와당와당 잘 먹주게. 하나 안 녕겜 먹어. 새꿀은 궂인 건 그자 건 것만 먹영 밀령 내불고. 조침도 쉼텅이, 남텅이만 녕겨도 감저줄은 ㅁ딱 먹주. 우린 하르방 쉼장시질 허곡 해난난 비가 오고 노는 날이 엇었어. 경행 허난 일허난 굶게도 안 살아나고 그자 혼엇이 그자 살았주게. 곤란하게 살진 안헛주게.(고구마 줄기는 하나 남기지 앓고 다 먹지. 바삭 말려서 곱게나 말려서 가을이나 안 들면 말렸다가 주면 ‘와당와당’ 잘 먹지. 하나 안 남겨서 먹어. ‘새꿀’은 궂은 건 그저 건 것만 먹어서 밀려서 내버리고. 조짐도 있, 나무만 남겨도 고구마 줄기는 모두 먹지. 우리는 할아버지 소장수질 하고 했었으니까 비가 오고 노는 날이 없었어. 그렇게 하니까 일하니까 굶어서도 안 살고 그저 한없이 그저 살았지. 곤란하게 살진 앓았지.)

## 기타 농사

103069 @ 다른 농사는 뭐 해놔수과?(다른 농사는 뭐 했었습니까?)

103069 # 감저허고 유채 같고 그거가 대중이주게.(고구마하고 유채 같고 그것이 주지.)

73) ‘빗’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날개나 그것을 세는 말이다.

74) ‘새꿀’은 띠, 솔새 따위의 마소가 먹는 꿀을 말한다. ‘새꿀’이라고도 한다.



103069 @ 유채도 갈고?(유채도 갈고?)

103069 # 유채나물 해근에.(유채나물 해서.)

103069 @ 유채는 나물로 푼는 거라?(유채는 나물로 파는 거야?)

103069 # 으름으로. 열매로.(열매로, 열매로.)

103069 @ 열매로. 지름행 허는 거?(열매로. 기름해서 하는 거?)

103069 # 보리 저 조행 문딱 비와뒤근에 조크르에 나물을 문 갈주. 감저그르에 도 갈고. 문 갈아근에 이젠 그슬 들민, 오월 나민 문딱 비어. 비어놔 따시 그거 문 딱 마다리 그든 거 막 행 거 밧디 쫄아놔 그거 안아놔근에 저 구르마 신 사름은, 경운기그든 거 이시민 경운기로도 불르고, 경 안허민 이녀 발로 다 불르멍 남텅이 다 내청.(보리 저 조해서 모두 부어뒤서 조 그루터기에 나물을 모두 갈지. 고구마 그루터기에도 갈고 모두 갈아서 이젠 가을 들면, 오월 나면 모두 베어. 베어놓고 다시 그거 모두 마대 같은 거 막 해서 그거 밧에 깔아놓고 그거 안아다 놔서 저 달구지 있는 사름은, 경운기 같은 거 있으면 경운기로도 밟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발로 다 밟으면서 줄기를 다 내쳐서.)

103069 @ 예.(예.)

103069 # 따시 출 엇인 사름은 그거 무꺼당 남해당 불도 습고. 그 유채 행 얼맹이로 치멍 다 불려근에 거 다 물리왕 공판허주게.(다시 쫄 없는 사름은 그거 묶어가 나무해다가 불도 때고. 그 유채 해서 어레미로 치면서 다 불려서 그거 다 말려서 공판하지.)

103069 @ 유채도 공판합니까?(유채도 공판합니까?)

103069 # 공판허여. 두루 들른 사름은 불합격허고 잘 들른 사름은 퍼렇게 잘 들른 사름이 일등허고. 우리도 유채도 혼 백 개, 빼떼기도 혼 백 개 해놔어. 경해도 경 일등, 이등 해놔어. 막허민 이등이나 멧 개 허주. 하영 안 해놔어.(공판해. 덜 마른 사름은 불합격하고 잘 마른 사름은 퍼렇게 잘 마른 사름이 일등하고. 우리도 유채도 한 백 개, 절간고구마도 한 백 개 했었어. 그래도 그렇게 일등, 이등 했었어. 잘하면 이등이나 멧 개 하지. 많이 안 했었어.)

103067 @ 모들도 갈아놔지예?(메밀도 갈았었지요?)

103067 # 모들도 전문으로 웃드르 사름덜은 갈아놔주, 웃드르 사름덜.(메밀도 전문으로 중산간 사름들은 갈았었지, 중산간 사름들.)

103067 @ 이 동넨 안 허고?(이 동넨 안 하고?)

103067 # 이 동넨 밧이 하영 안 허난 부제칩이나 갈곡 경. 엇인 사름은 모들 안 갈아.(이 동넨 밧이 많이 안 하니까 부잣집이나 갈고 그렇게. 없는 사름은 메밀 안 갈아.)

103067 @ 모들은 잘 하영 안 갈았구나예.(메밀은 잘 많이 안 갈았군요.)

103067 # 웃드르 막 전문으로 갈아. 모들팟디 걸름도 놓레 가고 다 허주게.(중산간 아주 전문으로 갈아. 메밀밭에 거름도 놓으러 가고 다 하지.)

103067 @ 무사 모들팟디 걸름 놓레 가?(왜 메밀밭에 거름 놓으러 가?)

103067 # 걸름을 모뎸 씨, 밧디 걸름 시꺼다냥 모뎸 씨에 걸름에 막 부합해냥 그걸 구덕에 메영 방수<sup>75)</sup> 벌령 툇툇 줍아놔.(거름을 메밀 씨, 밧에 거름 실어다놓고 메밀 씨에 거름에 막 배합해 놓고 그걸 구덕에 메서 ‘방수’ 벌려서 툇툇 줍아놔.)

103067 @ 보리허듯이?(보리하듯이?)

103067 # 보린 기자 돛걸름 행 아래 탁탁 비와 농민 확확 빠주만은 그건 손으로 구덕에 메영 줍아놔야. 방수 벌령.(보리는 그저 돼지거름 해서 아래 탁탁 부어놓으면 확확 뿌리지만 그건 손으로 바구니에 메서 줍아놔야. ‘방수’ 벌여서.)

103067 @ 모뎸은?(메밀은?)

103067 # 손 재게 놀리는 사름은 하영 하고 손 뜨게 영영 허민 팍팍팍팍 부수 데껴<sup>76)</sup>가.(손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많이 하고 손 느리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팍팍 팍팍 ‘부수데껴’ 가.)

103067 @ 돛걸름에?(돼지거름에?)

103067 # 불경에 모뎸씨 서경.(재에 메밀씨 섞어서.)

103067 @ 아, 불경에 모뎸씨 서경 그걸 줍아놔.(아, 재에 메밀씨 섞어서 그걸 줍아놔.)

103067 # 세백이 저 웃드르 쫘 가젠 허민 시방 가름에 사름덜 저 성읍리<sup>77)</sup>가젠 가젠 허민 세백이나 드레<sup>78)</sup>나 가젠 허민 혼 서너 시 돼민 가, 올라가. 모뎸도 아무 때나 안 갈주. 말복 돼민 갈켄 허민 갈양 허민 처서 돼민 곱간텐<sup>79)</sup> 허명.(새벽에 저 중산간 쫘에 가려고 하면 시방 동네에 사름들 저 성읍리까지 가려고 하면 새벽이나 교래나 가려고 하면 한 서너 시 되면 가, 올라가. 메밀도 아무 때나 안 갈지. 말복 되면 갈쫘다고 하면 갈아서 하면 처서 되어가면 ‘곱간다’고 하면서.)

103067 @ 뭐 헌텐, 곱간텐?(뭐 한다고, ‘곱간다’고?)

103067 # 말복 돼민 모뎸 갈민, 칠월절 돼민, 처서 돼민, 그 우시 갈라근에 모뎸 씨가 영 씨 서경 줍아 논 거난 그디 모룩모룩 나지 안허여? 그것가 가락가락 떼어진텐 곱갈른텐 말이주게. 커근에, 혼 뽀썩 크주게. 처서 돼민 모뎸 나근에, 쏘 나근에. 경허민 산뒤 밧디 검질 메명 모뎸 갈아난 디 산될 갈민 모뎸이 나근에 더불더불 허민 그거 산뒤 밧디 검질 메명 그 모뎸 툇툇 거꺼당 데왕 밧디 아정강 송키허고.(말복 되면 메밀 갈면, 칠월절 되면, 처서 되면, 그 ‘우시’ 갈라서 메밀씨가 이렇게 씨 섞어서 줍어 놓은 거니까 거기 ‘모룩모룩’ 나지 않니? 그것이 ‘가락가락’ 떼어진다고 ‘곱갈른다’는 말이지. 커서, 한 뽀썩 크지. 처서 되면 메밀이 나서, 잎 나서. 그러면 밧벼 밧의 김매면서 메밀 갈았던 데 밧벼를 갈면 메밀이 나서 ‘더불더불’ 하면 그거 밧벼 밧에 김매면서 그 메밀 툇툇 꺾어다가 데쳐서 밧에 가져가서 푸성귀 하고.)

75) ‘방수’는 씨를 뿌릴 때 일정한 간격을 벌려야 한다는 뜻에서 간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76) ‘부수데끼다’는 힘껏 쳐 깨어 부수다는 의미다.

77) ‘성읍리’는 지명으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말한다.

78) ‘드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를 이르는 뜻하다.

79) ‘곱갈르다’는 사리를 분별하여 한계를 짓는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메밀이 처서가 되면 싹이 자라서 포기가 구 분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103067 @ 누물로.(나물로.)

103067 # 데불데불 나민 검질 메명 모물 나민 꺼꺼당 데와근에 밧디 강 점심에 먹고.(‘데불데불’ 나면 김매면서 메밀 나면 꺾어다가 데쳐서 밧에 가서 점심에 먹고.)

103067 @ 모물도 비는 거나 마당질 허는 거나 똑ㄴ따예?(메밀도 베는 거나 마당질 하는 거나 똑같아요?)

103067 # 빔이나 뭐 똑ㄴ든 거. 거 홀트지만 안헿 그자 모물도 마당에 무꺼다근에 파삭 들르민 깨헤영 이만씩 무꺼다근에 마당에 폐와낭 도깨로 두드리주게, 두드려. 경헿 곶알 모물쌀 부제침인 품도 허고 그걸로 제사에 대해서 헤 먹고 다 헿 저 베기도 헿 먹고 범벅도 헿 먹고 게낫어. 그것도 헿 하영 때로 그거 헤 먹어낫어.(베는 것이나 뭐 똑같은 거. 그거 홀트지만 앓고 그저 메밀도 마당에 묶어다가 바삭 마르면 매끼해서 이만큼씩 묶어다가 마당에 퍼 놓고 도리깨로 두드리지, 두드려. 그렇게 해서 갈아서 메밀쌀 부жат집은 팔기도 하고 그걸로 제사에 대해서 헤 먹고 다 해서 수제비도 해서 먹고 범벅도 해서 먹고 그렇게 했었어. 그것도 해서 많이 끼니로 그거 헤 먹었었어.)

103066 @ 피도 해낫젠 곤는 거 닥안게마는.(피도 했었다고 말하는 거 같던데마는.)

103066 # 응, 피도 웃드르 사름은. 해벤사름덜은 안 허고, 웃드르 사름덜은 굿인 밧이라부난 저 성읍리더레 피 잘 블려<sup>80)</sup>. 성읍리더레가.(응, 피도 중산간 사름은. 해벤 사름들은 안 하고, 중산간 사름들은 굿은 밧이라 버리니까 저 성읍리 쪽이 피 잘 뿌려. 성읍리 쪽에가.)

103066 @ 아까 무신 밧이라부난?(아까 무슨 밧이라 버리니까?)

103066 # 굿인 밧이라 부난, 굿인 밧이난 피 블령. 경허고 물 나는 밧은 조 안 돼주게.(굿은 밧이라 버리니까, 굿은 밧이니까 피 뿌려서. 그리고 물 나는 밧은 조 안 되지.)

103066 @ 물 나는 밧은 어떤 거?(물 나는 밧은 어떤 거?)

103066 # 밧디 물 바닥에 물 골르지 안허나? 그거. 경헿 밧된 피 블려야여. 조나 산된 흥쫌 돼어도 모물 ㄴ든 것도 못 같고, 콩도 안 돼고, 피나베피 안 블려.(밭에 물 바닥에 물 고이지 않니? 그거. 그런 밧엔 피 뿌려야해. 조나 밧벼는 조금 되어도 메밀 같은 것도 못 같고, 콩도 안 되고, 피나밖에 안 뿌려.)

103066 @ 피는 성읍리 같은 쪽에가.(피는 성읍리 같은 쪽에가.)

103066 # 성읍리가 막 하영 블리주. 피를 하영 블리민 피도 툏아다근에 마당에 낱 두드리주게, 두드려.(성읍리가 아주 많이 뿌리지. 피를 많이 뿌리면 피도 뜯어다가 마당에 봐서 두드리지, 두드려.)

103066 @ 보리추룩?(보리처럼?)

103066 # 응. 툏아근에 마당에 낱 두드리주게.(응. 뜯어서 마당에 봐서 두드리

80) ‘블리다’는 주로 조 등을 밟다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씨앗을 뿌리다는 뜻으로도 쓰였다.

지.)

103066 @ 조코고리 툇듯이?(조이삭 뜯듯이?)

103066 # 툇곡 다시 쟈쟈헌 건 보리 두드리듯 두드리고. 성읍리레 하영 허주. 경허민 그걸 ㄱ레에 낵 혼 으섯 불이나 곶아. 곶아낵 따시 앳앙 다시 대체로, 얼멩이, 거름체<sup>81)</sup>로 몬 쳐. 앳아낵 퍼낵 또 곶곡 으섯 번을 갈아.(뜯고 다시 자잘한 건 보리 두드리듯 두드리고. 성읍리에 많이 하지. 그러면 그걸 맏돌에 낵서 한 여섯 불이나 갈아. 갈아놓고 다시 가져다가 다시 대체로, 어레미, 거름체로 모두 쳐. 가져다 놓고 퍼낵서 또 갈고 여섯 번을 갈아.)

103066 @ 피는 여섯 번을 갈아야 되는 거?(피는 여섯 번을 갈아야 되는 거?)

103066 # 경 행 곶민 줌진 줌진 피썰에 모뭇썰에 낵 밥허민 복삭허게 맛좋아. 우리 시집을 간디 이 방상에 잔썰 허젠 허민 보리썰에 피썰에 모뭇썰에 낵 세 가질 낵 밥을 허민 나가 느랑 허민 잘헛젠 허주게, 물 맛췌.(그렇게 해서 갈면 자잘한 피썰에 메밀썰에 낵서 밥하면 ‘복삭’하게 맛있어. 우리 시집을 갔는데 이 일가불이에 잔치를 하려고 하면 보리썰에 피썰에 메밀썰에 낵서 세 가지를 낵서 밥을 하면, 내가 늘 하면 잘헛다고 하지, 물 맛췌서.)

103066 @ 아.(아.)

103066 # 우린 곳인 방상이 가근에 동세가 육춘 동세가 아홉이라, 나가. 경헌디 아홉 밧디 강 다 큰일을 허젠 허민 나가 밥을 허민 밥 잘헛젠 허주, 밥 못헛젠 안 해. 방상에 강 칭찬 받아봤주. 하르방도 방상일 잘허고 나도 잘허난 방상일 저 사람은<sup>82)</sup> 안 해봤어.(우린 갓춘 일가불이에 가서 동서가 육춘 동서가 아홉이야, 내가. 그런데 아홉 군데 가서 다 큰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밥을 하면 밥 잘헛다고 하지, 밥 못헛다고 안 해. 일가불이 일에 가서 칭찬 받아봤지. 할아버지도 일가불이 일 잘하고 나도 잘하니까 일가불이 일 ‘저 사람은’ 안 해봤어.)

103066 @ 피 꺾질 벳기는 게 힘들구나예?(피 꺾질 벳기는 게 힘들군요?)

103066 # 힘들어, 피가.(힘들어, 피가.)

103066 @ 발로도 해낵젠 헨 게마는.(발로도 헛었다고 하던데마는.)

103066 # 발로도 브빔도 허주게. 영 브비영.(발로도 비빔도 하지. 이렇게 비벼서.)

103066 @ 뜨거울 때?(뜨거울 때?)

103066 # 뜨겁진 안허주게. 피 무사 뜨거와?(뜨겁진 않지. 피 왜 뜨거워?)

103066 @ 뜨거울 때 해야 잘 벳겨진다고.(뜨거울 때 해야 잘 벳겨진다고.)

103066 # 아니, 그건 조, 조 물리우지 못허민 ㄱ슬 들영 조 못 물리민, 고리헛. 옛날은 비도 오고 눈도 자꾸 오난 물리지 못허민 경 헤영, 느랑 허는 건 아니고 물리지 못허민.(아니, 그건 조, 조 말리지 못하면 가을 들어서 조 못 말리면, ‘고리’해서. 옛날은 비도 오고 눈도 자꾸 오니까 말리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 늘 하는 건 아

81) ‘거름체’는 건더기가 있는 액체를 거르는데 쓰는 조금 눈이 굵은 체이다.

82) ‘저 사람은’은 ‘저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남 홍보는 것을 말한다.

니고 말리지 못하면.)

103066 @ 피는 그냥 ㄱ레에서 오래 돌려야?(피는 그냥 맷돌에서 오래 돌려야?)

103066 # ㄱ렐 오래 돌려야. 피 굵이 막 힘들어. 겨곡 쓸도 얼마 안 나고. 피쓸도 얼마 안 나주, 경 해놓민. 피 용스가 막 용스해 먹는 사름이 박해. 옷드르 사름덜 피만, 피만 허민 경 박해여.(맷돌을 오래 돌려야. 피 가는 것이 아주 힘들어. 그리고 쌀도 얼마 안 나고. 피쌀도 얼마 안 나지, 그렇게 해놓으면. 피 농사가 아주 농사해 먹는 사람이 박해. 중산간 사람들 피만, 피만 하면 그렇게 박해.)

103066 @ 먹을 것도 엇곡 일은 일대로 하영 허고예.(먹을 것도 없고 일은 일대로 많이 하고요.)

103066 # 응, 박해여. 피쓸 해근에 옛날은 곤솔로 저펜도 허고 오만 거 다해도 옛날은 그 피로만 제스 때에 떡도 허고, 절벤도 허고, 술벤도 허고, 산뒤썰 서꺼근에 그추룩 해낫주게.(응, 박해. 피쌀 해서 옛날은 흰쌀로 시루떡도 하고 오만 것 다해도 옛날은 그 피로만 제사 때에 떡도 하고, 절편도 하고, 술편도 하고, 발벼쌀 섞어서 그렇게 했었지.)

103066 @ 피허고 산뒤썰 해근에?(피하고 발벼쌀 해서?)

103066 # 응. 저 피로 밥도 행 먹고. 옛날엔 옷드른 성읍리더렌 피 하영 불리멍 모를 갈곡 허민 그자 피썰에 모물에 낱 거 느랑 때로 밥행 성읍리 사름 먹어났어.(응. 저 피로 밥도 해서 먹고. 옛날 중산간은 성읍리 쪽엔 피 많이 뿌리면서 메밀 갈고 하면 그저 피쌀에 메밀에 낱서 그거 늘 끼니로 밥해서 성읍리 사름 먹었었어.

103066 @ 할머니넨 안 허고?(할머니네는 안 하고?)

103066 # 우린 안 해봤어.(우린 안 해봤어.)

103066 @ 피 안 해봤, 할머니는?(피 안 해봤어, 할머니는?)

103066 # 우린 안 해봤저.(우린 안 해봤지.)

103064 @ 또 다른 농사도 지어났수과?(또 다른 농사도 지었었습니까?)

103064 # 옛날에 우리 두린 때 하간 거 해낫주만은 우리 결혼헨 이디 오란 살 안 그자 감저빠떼기영 놈의 반작 밧도 하영 허고, 이녁 밧도 허고, 유채도 하영 갈 앙 허고 해낫주. 그런 건 안 해봤. 우리 역은 후젠 그런 거 안 해. 해벤 사름덜은 그런 거 안 해.(옛날에 우리 어린 때 온갖 거 했었지만 우리 결혼해서 여기 와서 살아서 그저 절간고구마랑 남의 반작 밧도 많이 하고, 자기 밧도 하고, 유채도 많이 갈아서 하고 했었지. 그런 건 안 해봤어. 우리 큰 후엔 그런 거 안 해. 해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

103064 @ 예.(예.)

103064 # 난 경허난 물질도 허젠 허난 일 버친 물질도 허레 못 땡기고, 나 물질 일찍 설럿주. 게난 하르방이 갯것이 땡기민 옛날은, 이제는 막 돈 하영 나도 옛날은 경 돈 날 거 엇지 안허여? 바당에 강. 바당에 물질허레 땡기는 거 다 간세다리엔 허곡 허난. 우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만 헨 사난 경 무시거 허젠 안 살안.(난 그러니까 물질도 하려고 하니까 일 힘들어서 물질도 하려 못 다니고, 나 물질 일찍

그만됐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바닷가 다니면 옛날은, 이제는 아주 돈 많이 나도 옛날은 그렇게 돈 날 게 없지 않아? 바다에 가서. 바다에 물질하러 다니는 거 다 게으름뱅이라고 하고 하니까. 우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만 해서 사니까 그렇게 무엇 하게는 안 살았어.)

103064 @ 이디 배치나 늬빼나 이런 거는?(여기 배추나 무나 이런 거는?)

103064 # 늬빼 배춘 이 늬빼 갈아먹은 디가, 특작헌 디가 혼 이십 년 안 돼실 거라. 이 동네 사름 늬빼 전문 허는 사름도 엇고 이녁은 갈아근에 옛날은 거작거작 헌 늬빼만 갈앙 먹지 안해났어. 그런 것만 갈곡 이젠 요샌 신식 늬빼가 난 늬빼 인 칙 안 갈아도 늬빼 헨 먹지 안헬서? 경 허곤 디 오래지 안해서. 혼 십오 년베끼 안 돼실 거라.(무 배추는 이 무 갈아 먹은 지가, 특작한 지가 한 이십 년 안 됐을 거야. 이 동네 사람 무 전문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는 갈아서 옛날은 ‘거작거작’ 한 무만 갈아서 먹지 않았었어. 그런 것만 갈고 이젠 요샌 신식 무가 나서 무 일찍 안 갈아도 무 해서 먹지 않니? 그렇게 한 지 오래지 않았어. 한 십오 년밖에 안 되었을 거야.)

103064 @ 그 전인 다 그냥 우영에 갈앙 먹언?(그 전엔 다 그냥 텃밭에 갈아서 먹었어?)

103064 # 이녁냥으로 갈앙 먹언. 이녁 송키 이녁냥으로 갈앙 먹주. 우린 이디 살 땐 이 우жат 좋곡 허난 이녁냥으로 갈앙 먹고, 저 우이 살아도 이녁냥으로 갈앙 먹지 상 먹진 안 해났주게. 배치 ㄱ든 거나 흐쵸 상 먹곡 허주.(자기대로 갈아서 먹었어. 자기 푸성귀 자기대로 갈아서 먹지. 우린 여기 살 때 이 울안 좋고 하니까 자기대로 갈아서 먹고, 저 위에 살아도 자기대로 갈아서 먹지 사서 먹진 않았었지. 배추 같은 거나 조금 사서 먹고 하지.)

## 4. 들일

### 소 기르기

104001 @ 소는 어떻 길러마씨?(소는 어떻게 길러요?)

104001 # 소?(소?)

104001 @ 응.(응.)

104001 # 소 어떻게. 옛날에 우리 두린 때 췌 질루는 건 췌 해영, 드르에 가근에 출 해당 팔월[팔월] 나민 출 베당 늘어두서 주당 혼 삼월만 나민, 풀 나가민 옷 드르 내맏당 혼 시월 나민 들여 매곡, 출 해영 집이 해당 매민 췌막 해영 매영.(소 어떻게 해. 옛날에 우리 어린 때 소 기르는 건 소 해서, 들에 가서 풀 해다가 팔월 나면 풀 베다 가려두고 주다가 한 삼월만 나면, 풀 나와가면 중산간에 내보내 매었다가 한 시월 나면 들어서 매고, 풀 해서 집에 해다가 매면 외양간 해서 매어서.)

104001 @ 예.(예)

104001 # 다시 또 출 헤여근에 서너니 시간에 혼 번씩 출 헤영, 눈 거 행 풀어 주곡.(다시 또 풀 해서 서너 시간에 한 번씩 풀 해서, 누운 거 해서 풀어주고.)

104001 @ 응.(응.)

104001 # 다시 또 저 우이 산 때 옛날에 매미<sup>83)</sup>엔 현 디 몰앙가근에 쉼 댕 개씩, 부제 사름은 대여섯 개씩하고 엇인 사름 서너 개도 허곡 하나도 허곡, 쉼 물 맥 여당 또 막에 강 매엇당 뒷날은 쉼 물 맥이고.(다시 또 저 위에 살 때 옛날에는 ‘매미’라고 한 데 몰아가서 소 댕 개씩, 부자 사름은 대여섯 개씩하고 없는 사름 서너 개도 하고 하나도 하고, 소 물 먹여다가 또 외양간에 가사 매엇다가 뒷날은 소 물 먹이고.)

104001 @ 응.(응.)

104001 # 이젠 쉼 질루는 건 그냥 막에서 햄주만은 옛날은 그추룩 허멍 쉼 질 봤어.(이젠 소 기르는 건 그냥 외양간에서 하고 있지만 옛날은 그렇게 하면서 소 길 뵈어.)

104001 @ 예.(예.)

104001 # 매미 성읍리서 내려오는 큰 못디 강 우리 우이 사난 그디 강 쉼 물 낮인 맥영 오라.(‘매미’ 성읍리서 내려오는 큰 못에 가서 우리 위에 사니까 거기 가서 소 물 낮엔 먹여서 와.)

104001 @ 매미 현 디가 어디?(‘매미’ 한 데가 어디?)

104001 # 성읍리로 영 삼달리더레 들어오지 안헬서? 그디 못이 잇주게. 큰 못. 그못디 강 물 맥여. 내낭.(성읍리로 이렇게 삼달리로 들어오지 않니? 거기 못이 있지. 큰 못. 그 못에 가서 물을 먹여. 내내.)

104001 @ 그 못 이름이 무신거?(그 못 이름이 뭐?)

104001 # 매미.(‘매미’.)

104001 @ 그디가 매미못 그디 강 물 맥인다고.(거기가 매미못. 거기 가서 물 먹 인다고.)

104001 # 응, 그디 강 물 맥여오라. 그디 물 시난 그디 물 질어당 이편이 동글 랑 통덜 세 개나 잇주. 그디 강 물 질어당 먹고.(응, 거기 가서 물 먹이고 와. 거기 물 있으니까 거기 물 질어다가 이편이 동그란 통들 세 개나 있지. 거기 가서 물 질 어다 먹고.)

104001 @ 아, 먹는 물도?(아, 먹는 물도?)

104001 # 응. 먹는 물도 그디 이서. 경헌디 이젠 안 먹어도 옛날은 그디 물 질 어당 먹어.(응. 먹는 물도 거기 있어. 그런데 이젠 안 먹어도 옛날은 거기 물 질 어다 먹어.)

104002 @ 쉼 종류는 털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잇수과?(소 종류는 털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까?)

104002 # 쉼 벌경헌 쉼도 잇고, 검은 쉼, 흰 털 박아진 것도 잇고.(소 벌건 소도

---

83) ‘매미’는 성산읍 삼달리의 연못 이름이다.

있고, 검은 소, 흰 털 박힌 것도 있고.)

104002 @ 일름이 다 다른가?(이름이 다 다른가?)

104002 # 아니. 쉼 일름은 검은 쉼, 노랑흰 건 노랑쉼, 검은 건 검은쉼.(아니. 소 이름은 검정소, 노란 건 누렁소, 검은 건 검정소.)

104002 @ 검은 건 검은 쉼.(검은 건 검정소.)

104002 # 이젠 소엔 해도 옛날은 쉼.(이젠 소라고 해도 옛날은 ‘쉼’.)

104002 @ 쉼.(‘쉼’.)

104002 # 노랑쉼 싹고 검은쉼 싹고.(누렁소 있고 검정소 있고.)

104002 @ 다른 이름은 잊수과?(다른 이름은 없습니까?)

104002 # 응. 얼룩빼기진 건 얼룩빼기 쉼.(응. 얼룩빼기진 건 얼룩빼기 소.)

104002 @ 얼룩진 건 얼룩빼기 쉼.(얼룩이 있는 건 얼룩빼기 소.)

104002 # 야가지에 흰 털 박아진 쉼덜 잊주게. 건 얼룩빼기 쉼고.(목에 흰 털 박힌 소들 있지. 그건 얼룩빼기 소고.)

104002 @ 건 얼룩빼기 쉼고. 쉼뿔도 모양이.(그건 얼룩빼기 소고. 쇠뿔도 모양이.)

104002 # 고작허영 영 흰 것도 싹고, 영 오그라진 것도 싹고, 영 우트레 올른 것도 싹고. 쉼뿔도 세 가지라. 영 버작 영 흰 것도 싹고 영 오그라진 것도 싹고 영 올라가는 것도 싹고.(꼭꼭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오그라진 것도 있고, 이렇게 위로 오른 것도 있고. 쇠뿔도 세 가지야. 이렇게 뺏뺏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오그라진 것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104002 @ 그거 쉼뿔에 따라도 이름 부르는 거 잊수과?(그거 쇠뿔에 따라도 이름 부르는 거 있습니까?)

104002 # 아니, 쉼뿔 오그라졌저 영허주 무신거 잊어.(아니, 쇠뿔 오그라졌다 이렇게 하지 뭐 없어.)

104002 @ 쉼뿔도 뿔 안 낡 요디만 영 이신 쉼도 잊수게?(쇠뿔도 뿔 안 낡고 요기만 이렇게 있는 소도 있잖습니까?)

104002 # 뽕죽헌 것도 싹주게. 경해도 거 막끗텐 벗어져분 거주. 뿔 나.(뽕죽헌 것도 있지. 그래도 그거 마지막엔 벗어져 버린 거지. 뿔 나.)

104002 @ 아.(아.)

104002 # 쫄레<sup>84)</sup>허멍 벗어져불민 영 메롱만 흰 거 잊주. 커.(‘쫄레’하면서 벗겨져 버리면 이렇게 ‘메롱’만 한 거 있지. 커.)

104002 @ 응. 그믐 주로 소는 어디에 사용해마썬?(응. 그러면 주로 소는 어디에 사용해요?)

104002 # 옛날은, 옛날은 소 해여근에 메영 허민 저 숫쉼엔 흰 건 이제 그뜨민 아덜 아니라, 남즈, 수커, 남즈.(옛날은, 옛날은 소 해서 매어서 하면 저 수소라고 한 건 이제 같으면 아들 아니라, 남자, 수컷, 남자.)

84) ‘쫄레’는 소들이 뿔로 싸우는 것을 말한다.



104002 @ 예.(예.)

104002 # 남준 혜영 부랭이 남준 커가민 부랭이. 부랭이민 그 부랭인 쉼 혜영 밧갈췌<sup>85)</sup> 크민 따시 밧 갈아가민 밧갈췌. 밧갈췌 헛당 마구 땃당 밧 갈아.(남자는 해서 부록소 남자 커가면 부록소. 부록소면 그 부록소는 소 해서 ‘밧갈췌’ 크면 다시 밧 갈아가면 ‘밧갈췌’. ‘밧갈췌’는 헛다가 외양간에 땃다가 밧 갈아.)

104002 @ 부랭이로?(부록소로?)

104003 # 응, 그거 췌로 크민 밧 갈고. 따시 또 암췌 그냥 매영 새끼 낳곡 무시 거 허당 그냥 땀이나 허고 다시 짐 출 그든 거, 조 그든 거 비민 소로 다 시꺼오주 게.(응. 그거 소로 크면 밧 갈고. 다시 또 암소는 그냥 매어서 새끼 낳고 똥 하다가 그냥 매기나 하고 다시 짐 풀 같은 거, 조 같은 거 베면 소로 다 실어오지.)

104003 @ 응.(응.)

104003 # 옛날은 구르마나 다름이 엇어났어. 췌로 다 시꺼.(옛날은 달구지나 다름이 없었어. 소로 다 실어.)

104003 @ 예.(예.)

104003 # 부제 사름덜은 췌 혜여근에 질메 지와근에 출을 혼 췌 땃 개씩 행 매영 출 시꺼오곡 허주.(부자 사람들은 소 해서 길마 지워서 풀을 한 소 땃 개씩 해서 매어서 풀 실어오고 하지.)

104003 @ 예.(예.)

104003 # 하나민 하나만도 두 개도 시꺼오고. 경행 시꺼당 질루당 허당 막췌텐 누게 사가민 풀고, 암췌 얼마, 옛날은 혼엇이 갑 하영 안 주고. 밧갈췌 밧 갈앗주게. 용스힐 때.(하나면 하나만도 두 개도 실어오고. 그렇게 해서 실어다가 기르다가 하다가 마지막엔 누가 사가면 팔고, 암소는 얼마, 옛날은 한없이 값 많이 안 주고. ‘밧갈췌’ 밧 갈았지. 농사할 때.)

104003 @ 응.(응.)

104003 # 계난 밧갈췌 보리왓도 갈고 조팍도 불고 허난 그건 갑 하영 가고.(그러니까 ‘밧갈췌’는 보리밭도 갈고 조밭도 밟고 하니까 그건 값 많이 가고.)

104003 @ 암췌 값 하영 안 줘? 새끼 나는데.(암소 값 많이 안 줘? 새끼 낳는데.)

104003 # 암췌 갑 하영 안 줘. 췌 짐 시끔베끼 필요가 엇주게, 암췌.(암소는 값 많이 안 줘. 소 짐 신기밖에 필요가 없지, 암소.)

104003 @ 밧 못 갈아? 암췌?(밧 못 갈아? 암소는?)

104003 # 응, 암췌는 밧 못 갈아, 힘이 엇어.(응, 암소는 밧 못 갈아, 힘이 없어.)

104003 @ 아, 힘이 엇어. 아멩헤도 남준 췌가.(아, 힘이 없어. 아무래도 남자 소가.)

104003 # 사름이나 짐승이나 수커가 아메도 힘이 세. 계난 밧을 못 갈아. 밧갈

85) ‘밧갈췌’는 밧을 가는 힘 췌 소를 말한다.

쉐로 문 밧 갈고. 게난 밧갈쉐, 밧갈쉐 허고.(사람이나 짐승이나 수컷이 아무래도 힘이 세. 그러니까 밧을 못 갈아. ‘밧갈쉐’로 모두 밧 갈고. 그러니까 ‘밧갈쉐’, ‘밧갈쉐’ 하고.)

104003 @ 쉐는 처음에 밧 갈젠 허민 질 들여삽니까.(소는 처음에 밧 갈려고 하면 길들여야 하잖아요.)

104003 # ㄱ리치젠 허민 심복 좋은 건 이끄주, 혼 사름이 잠데 심영 앞이서 쉐 이꺼. 이경 갈젠은 허민 졸바로 곧추 가사 밧도 곧추 갈 거 아니라. 우리도 쉐 이꺼 봐신디 잘못 시끄민 이레 비틀 저레 비틀. 쉐가 심복 곳인 건 들러키어 막.(가르치려고 하면 심복 좋은 건 끌지, 한 사람이 쟁기 잡아서 앞에서 소를 끌어. 끌어서 갈려고는 하면 제대로 곧추 가야 밧도 곧추 갈 거 아니냐. 우리도 소를 끌어 봤는데 잘못 실으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소가 심복 곳은 건 날뛰어 막.)

104003 @ 예.(예.)

104003 # 들러키영 못헤여. 경허민 막 짓뜨리멍 허고 따시 드러누어 부는 것도 드러누어.(날뛰어서 못해. 그러면 막 짓때리면서 하고 다시 드러누워 버리는 것도 드러누워.)

104004 @ 게민 어떻 ㄱ리쳐?(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104004 # 경해도 짓뜨리멍 ㄱ리쳐야지. 게난 쉐 ㄱ리치는 사름은 옛날엔 쉐는 아무나 ㄱ리치지 못헤여. 장남 빌영 ㄱ리치주게. 옛날은 부제로 산 사름덜은 이제 다 들앙 살지덜 안햐서? 밥허는 사름덜 시방 사름덜도.(그래도 짓때리면서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소 가르치는 사름은 옛날엔 소는 아무나 가르치지 못해. 머슴 빌어서 가르치지. 옛날은 부자로 산 사람들은 이제 다 데려서 살지 않냐? 밥하는 사람들도 시방 사람들도.)

104004 @ 가정부?(가정부?)

104004 # 가정부 들앙 살민. 옛날도 경헤여 부젠. 밧가는 남전 헤여근에 남저 일 빌영 허젠 흥나 들앙 살곡, 여청 흥나 빌영 살곡, 경헝 부제칩이 살아났어. 남전 막 부제칩인 남저 두 개씩 들앙 살고 장남을.(가정부 데리고 살면. 옛날도 그래도 부자는. 밧가는 남자 해서 남자 일 빌어서 하려고 하나 데리고 살고. 여편네 하나 빌어서 실고. 그렇게 해서 부잣집에 살았었어. 남자는 막 부잣집은 남자 두 명씩 데리고 살고 머슴을.)

104004 @ 아.(아.)

104004 # 그 사름덜이. 부제칩인 남제 주인은 선비나 돼불민 그 장남이 강 밧도 갈곡, 출도 시꺼오곡, 쉐도 ㄱ리치고 옛날에.(그 사람들이. 부잣집에는 남자 주인은 선비나 되어버리면 그 머슴이 가서 밧도 갈고, 풀도 실어오고, 소도 가르치고 옛날에.)

104004 @ 아, 잘허는 사름이 싯구나예?(아, 잘하는 사름이 있군요?)

104004 # 응, 경허는 사름. 이제도 옛인 사름, 못사는 사름이 장남 노릇을 허주게, 늙이 집이. 열댓만 나가민 장남질허여. 아무것도 옛이민 허주게.(응, 그러는 사

람. 이제도 없는 사람, 못사는 사람이 머슴 노릇을 하지, 남의 집에. 열댓만 나가면 머슴질해. 아무것도 없으면 하지.)

104004 @ 보통은 돌이라도 매영 ㄹ리쳐?(보통은 돌이라도 매어서 가르쳐?)

104004 # 쉼 ㄹ리치젠 시방 ㄹ레 영 영 ㄹ는 ㄹ레 엇어? 그디 고망 잇잖아. 그거 님은 거. ㄹ레로 안 행 그 돌을 멩글앙 고망 톨랑.(소 가르치려고 시방 멧돌 이렇게 이렇게 가는 멧돌 엇어? 거기 구멍 잇잖아. 그거 같은 거. 멧돌로 안하고 그 돌을 만들어서 구멍 뚫어서.)

104004 @ 예.(예.)

104004 # 멩글앙 크게 멩글앙 잠데 ㄹ치 노 헤영 지룽지룽<sup>86)</sup> 질레 다 끄어. 빈 밧이나 질레나 끄영 땡기멍 ㄹ리쳐.(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쟁기처럼 노 해서 ‘지룽지룽’ 길에 다 끌어. 빈 밧이나 길에나 끌어서 다니면서 가르쳐.)

104004 @ 경행 ㄹ리치는 거마씨?(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104004 # 응, 경행 ㄹ리쳐.(응, 그렇게 해서 가르쳐.)

104005 @ 쉼 나이는 한 살, 두 살에 따라 이름이 다르지예?(소 나이는 한 살, 두 살에 따라 이름이 다르지요?)

104005 # 게난 혼 술, 두 술. 그냥 저 쉼 멧 술 낫저. 다섯 술이여, 여섯 술이여 쉼 나이에 대헌 건 이름 엇어.(그러니까 한 살, 두 살. 그냥 저 소 몇 살 났다. 다섯 살이다, 여섯 살이다 소 나이에 대한 건 이름 엇어.)

104005 @ 하릅, 두습 영 안 해?(하릅, 두습 이렇게 안 해?)

104005 # 그냥 두 설, 세 설 허주.(그냥 두 살, 세 살 하지.)

104005 @ 그냥 두 설, 세 설 허여. 게민 잠데, 할머니. 잠데 옛날에 갈아낫수게, 밧 갈 때. 잠데를 그림을 가정 와신디.(그냥 두 살, 세 살 해. 그러면 쟁기, 할머니. 쟁기 옛날에 갈았었잖아요, 밧 갈 때. 쟁기를 그림을 가져 왔는데.)

104005 # 요거 잠데주게.(요거 쟁기지.)

104005 @ 베려점수과?(보입니까?)

104005 # 요디 심영 가고 요레 요것에 쉼 메명 목대 멩 쉼 ㄹ리치주게.(요기 잡아서 가고 요리 요것에 소 매면서 목대 매서 소 가르치지.)

104006 @ 잠데도 이름이 다 이신가?(쟁기도 이름이 다 있나?)

104006 # 옛날도 잠데 이거.(옛날 쟁기 이거.)

104006 @ 뱃, 보섭 허는 거.(뱃, 보습 하는 거.)

104006 # 뱃은 요디 헌 건 요건 보섭.(뱃은 요기 한 건 요건 보습.)

104006 @ 그건 보섭.(그건 보습.)

104006 # 요건 뱃.(요건 뱃.)

104006 @ 그건 뱃. 또 다른 건 엇어.(그건 뱃. 또 다른 건 엇어.)

104006 # 다른 건 엇어.(다른 건 엇어.)

104006 @ 뭇 한줄, 성에 이런 거 엇어?(뭇 붓줄, 성에 이런 거 엇어?)

86) ‘지룽지룽’은 소가 길에서 돌을 끄는 소리를 흉내 낸 말이다.

104006 # 저 쉼 해근에 허는 거 성에 잇주. 영해근에 요것에 졸라매근에 쉼 돌아가는 거 잇주게.(저 소 해서 하는 거 성에 있지. 이렇게 해서 요것에 졸라매서 소 돌아가는 거 있지.)

104006 @ 그건 한줄?(그건 붓줄?)

104006 # 응.(응.)

104006 @ 그다음 또?(그다음 또?)

104006 # 그 나머진 엇주게. 따시 가린석이엔 헌 거 쉼 이꺼 가민 쉼뿔에 졸라매근에 쉼 이꺼 가민 요펜드레 가민 영해영 확 그리데경 바로 걸어 허고 영영 가민 확 호리고.(그 나머진 없지. 다시 고빠라고 한 거 소 이끌어 가면 쇠뿔에 졸라매서 소 이끌어 가면 요편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확 ‘그리데경’ 바로 걸어 하고, 이렇게 이렇게 확 후리고.)

104006 @ 그건 가린석?(그건 고빠?)

104006 # 가린석.(고빠.)

104006 @ 그다음에 또?(그다음에 또?)

104008 # 요디 영 헌 건 멩에.(요기 이렇게 한 건 멩에.)

104008 @ 이거 멩에.(이거 멩에.)

104008 # 이거 멩에주게. 요거 멩에고 요건 따시 쉼 행 야가지에 끼우는 거.(이거 멩에지. 요거 멩에고 요건 다시 소 해서 목에 끼우는 거.)

104008 @ 건 이름 뭐라?(그건 이름 뭐야?)

104008 # 일름 몰라. 요영 허민 요거 쉼 멩에주게.(이름 몰라. 요렇게 하면 요거 소 멩에지.)

104008 @ 어떻 끼왕 가는 거파?(어떻게 끼워서 가는 겁니까?)

104008 # 이거 야가지.(이거 목.)

104008 @ 멩에를 야기지에 매영.(멩에 목에 매어서.)

104008 # 야가지 영 허곡 요거 따시 요것가 야가지더레 영 느령 톱 무경.(목 이렇게 하고 요거 다시 요것이 목에 이렇게 내려서 톱 묶어서.)

104008 @ 경행?(그렇게 해서?)

104008 # 요건 쉼 등어리에 허고.(요건 소 등에 하고.)

104006 @ 그걸 잠데에 메왕.(그걸 쟁기에 메워서.)

104006 # 요추록 헌 건 따시 또 하나영 쉼뿔에 감아근에 요영 요디 해근에 쉼 확확 후리멍. 쉼줄은 엇인 거주.(요렇게 한 건 다시 또 하나랑 쇠뿔에 감아서 요렇게 요기 해서 소 확확 후리면서. 쇠줄은 없는 거지.)

104006 @ 예.(예.)

104006 # 혼줄 그건 엇인게.(붓줄 그건 없네.)

104006 @ 이거 이거. 줄.(이거 이거, 줄.)

104006 # 이건 요것에 영 졸라매는 거고.(이건 요것에 이렇게 졸라매는 거고.)

104006 @ 아, 가린석은 엇인 거?(아, 고빠는 없는 거?)

104006 # 요디 헤영 허민 쉼 이거 영 허민 질주게. 질영 허민 사름으로 난 거난 사름 손에 심어두서 이레 가가민 이레 영 바로 걸어 허명 확 후리고 허민 이거 줄은 엇인게.(요기 해서 하면 소 이거 이렇게 하면 길지. 길어서 하면 사름으로 난 거니까 사람 손에 잡아서 이리 가면 이리 이렇게 바로 걸어 하면서 확 후리고 하면 이거 줄은 없네.)

104006 @ 요건, 영 잡는 손잡이?(요건, 이렇게 잡는 손잡이?)

104006 # 손잡이.(손잡이.)

104006 @ 손잡이 무신거엔 곤는 말 엇수과?(손잡이 뭐라고 하는 말 없습니까?)

104006 # 이거 잠데주.(이거 쟁기지.)

104006 @ 잠데에 양죽머리 이런 말 안 써?(쟁기에 양지머리 이런 말 안 써?)

104006 # 요거 양죽머리, 요거.(요거 양지머리, 요거.)

104006 @ 거 양죽머리 맞아?(그거 양지머리 맞아?)

104006 # 응, 요거 양죽머리.(응, 요거 양지머리.)

104006 @ 몽쿨은 무신거라?(쟁깃술은 뭐야?)

104006 # 잠데에 요거 몽쿨.(쟁기에 요거 쟁깃술.)

104006 @ 그제 몽쿨. 다 이신게게.(그제 쟁깃술. 다 있네.)

104006 # 다 이신디 줄만 엇어, 가린석.(다 있는데 줄만 없어, 고빠.)

104008 @ 명에에 요거는 접게엔 안 곶아?(명에에 요거는 목대라고 안 말해?)

104008 # 요거 명에난 요거 접게.(요거 명에니까 요거 목대.)

104008 @ 건 접게 맞아?(그건 목대 맞아?)

104008 # 응, 요건 쉼 영 헌디 등어리에 허고 요건 야가지 알러레 무꺼시네. 무 쟁 허는 거.(응, 요건 소 이렇게 한테 등에 하고 요건 목 아래로 묶었잖아. 묶어서 하는 거.)

104008 @ 게민 할머니 요거는 무신거엔 곶아? 쉼 엉덩이에 영 허는 거?(그러면 할머니 요거는 무엇이라고 말해? 소 엉덩이에 이렇게 하는 거?)

104008 # 요건 쉼에 돌아매시민 허주만은.(요건 소에 달아매면 하지만.)

104008 @ 쉼 엉덩이에 저에 낭뎡이 하나 잇지 안해?(소 엉덩이에 저요 나무막대기 하나 있지 않아?)

104008 # 응.(응.)

104008 @ 그거 무신 거엔 곶아? 이름 무신건지 몰라?(그거 뭐라고 말해? 이름 뭔지 몰라?)

104008 # 요거 이름 몰라.(요거 이름 몰라.)

104008 @ 오리목 이런 말 엇수과?('오리목' 이런 말 없습니까?)

104008 # 오리목이엔 허민 오리목이주. 요디 허난 등어리에 헤난 거.('오리목'이라고 하면 '오리목'이지. 요기 하니까 등에 했던 거.)

104008 @ 오리목은 뭐 허는 거라? 쉼 허는 거.(오리목은 뭐 하는 거야? 소 하는 거.)

104008 # 요것도 요거나 ㄴ쁜 거 닮은디. 요건 야가지에 췌에 요디 이서. 췌행 야가지에 요거 씨우민 요 잠테 요디 잠테 요거 허는 거.(요것도 요거나 같은 거 같은데. 요건 목에 소에 요기 있어. 소해서 목에 요거 씨우면 요 쟁기 요기 쟁기 요거 하는 거.)

104007 @ 질메도 이수게.(길마도 있잖아요.)

104007 # 질메 잇주게.(길마 있지.)

104007 @ 췌질메는 어떻 헐 때 허는 거꽈?(소길마는 어떻게 할 때 하는 겁니까?)

104007 # 췌질메 출 시끌 때나 무신거 시끌 때.(소길마 풀 실을 때나 무엇 실을 때.)

104007 @ 사진도 가정 와신디 췌질메 맞아?(사진도 가지고 왔는데 소길마 맞아?)

104007 # 요거 췌질메. 등어리에 톡허게 지와근에 허는 거.(요건 소길마. 등에 톡허게 지워서 하는거.)

104007 @ 톡허게 지와근에 그다음에.(톡허게 지워서 그다음에.)

104007 # 췌 지와근에 따시 또 요거 이추룩 행 췌풀랑지에 가는 거.(소 지워서 다시 또 요거 이렇게 해서 소꼬리에 가는 거.)

104007 @ 이견 이름이 뭐라? 췌풀랑지에 가는 거.(이견 이름이 뭐야? 소꼬리에 가는 거.)

104007 # 췌 명에 무시거. 이것에 짐 시끄고 요착에 시끄고 짐 시끄는 명에.(소 명에 뭐. 이것에 짐 싣고 요쪽에 싣고 짐 싣는 명에.)

104007 @ 짐 시끄는 명에. 질메엔 안허고?(짐 싣는 명에. 길마라고 안하고?)

104007 # 질메엔도 허고 옛날은 질메주. 췌질메 이거.(길마라고도 하고 옛날은 길마지. 소길마 이거.)

104007 @ 췌질메도 이름 엇수가? 이거 앞가지, 요건?(소길마도 이름 없습니까? 이거 앞가지, 요건?)

104007 # 요건 가지고 요건 따시 췌질멘디 산뒤칩 닮은 거 영 여퍼근에.(요건 가지고 요건 다시 소길마데 발벗짚 같은 거 이렇게 엮어서.)

104007 @ 그거 뭐엔 허여?(그거 뭐라고 해?)

104007 # 도곰, 명에 도곰.(뜸치, 명에 뜸치.)

104007 @ 명에 도곰. 요건 가지예.(명에 뜸치. 요건 가지요.)

104007 # 췌질멧가지.(소길맛가지.)

104007 @ 질멧가지.(길맛가지.)

104007 # 요건 산테<sup>87)</sup>.(요건 ‘산테’.)

104007 @ 건 산테 건 나중에. 질메 고망도 있어?(그건 ‘산테’ 그건 나중에. 길마 구명도 있어?)

---

87) ‘산테’는 긴 두 나무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가마처럼 앞뒤로 들게 한 들것이다.

104007 # 고망 시난 이거 무꾼 거주게.(구멍 있으니까 이거 묶는 거지.)

104008 @ 요 아까 췌 또꼬망에 가는 거 고들개엔 곴아?(요 아까 소 엉덩이에 가는 거 쟁거리막대라고 말해?)

104008 # 고들개<sup>88)</sup>, 고들개.(쟁거리막대, 쟁거리막대.)

104008 @ 고들개 맞아?(쟁거리막대 맞아?)

104008 # 멍에에 고들개.(멍에에 쟁거리막대.)

104008 @ 멍에에 고들개. 그른 요 고들개 무끄는 요건?(멍에에 쟁거리막대. 그러면 요 쟁거리막대 묶는 요건?)

104008 # 요건 앞이 가는 거고 요건 또꼬망에 가는 거고 꼴랑지 들렁 요레 툇 끼왕 고들개.(요건 앞에 가는 거고 요건 엉덩이에 가는 거고 꼬리 들어서 요리 툇 끼워서 쟁거리막대.)

104008 @ 계민예 이건 짐 시끌 때만 허는 거라예.(그러면요 이건 짐 실을 때만 하는 거예요?)

104008 # 응, 짐 시끌 때.(응, 짐 실을 때.)

104009 @ 옛날에 목장에 소 올려 보냈수게. 마을 목장이.(옛날에 목장에 소 올려 보냈잖아요, 마을 목장이.)

104009 # 흔 여남은씩 동아리 헤근에.(한 여남은씩 동아리 해서.)

104009 @ 건 어떻 허는 거라?(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104009 # 거 췌 헤영 봄 나민 올리민 봄은 풀 뜯어 먹당 여름 나민 ㄱ파. 췌 열 사람이 허민 열홀에 흔 번씩 다섯 사람이민 닷새에 흔 번씩 ㄱ파. 췌 어디 돌아나지 못허게 ㄱ꾸주게, 이녁만씩. 이녁 췌 부짚 사람은 ㄱ파.(그거 소 해서 봄 나면 올리면 보은 풀 뜯어 먹다가 여름 나면 가꿔. 소 열 사람이 하면 열홀에 한 번씩 다섯 사람이면 닷새에 한 번씩 가꿔. 소 어디 달아나지 못하게 가꾸지, 자기만큼씩. 자기 소 붙인 사람은 가꿔.)

104009 @ 어디 가근에 맥여?(어디 가서 먹여?)

104009 # 목장에 강.(목장에 가서.)

104009 @ 믱을 목장이 이서?(마을 목장이 있어?)

104009 # 응, 믱을 목장 잇주게.(응, 마을 목장 있지.)

104009 @ 땅이 이서? 아무 디나 강 허는 것이 아니고?(땅이 있어?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4009 # 응. 믱을 땅에, 믱을 목장에.(응. 마을 땅에, 마을 목장에.)

104009 @ 믱을 사람덜이 다 ㄱ치 허는 거파?(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겁니까?)

104009 # 믱을 목장은 삼달리 사는 사람은 옛날은 다 공동 목장이주게.(마을 목장은 삼달리 사는 사람은 옛날은 다 공동 목장이지.)

104010 @ 할머니 췌 질루멍 힘들엇던 기억 이수과? 새끼 나는 거나, 물 맥이레

88) '고들개'는 쟁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이다.

가는 거나.(할머니 소 기르면서 힘들었던 기억 있습니까? 새끼 낳는 거나, 물 먹이러 가는 거나.)

104010 # 물 맥이레 가는 건, 쉼 마구에 맏당 물 맥이레 가민 들러키는 게 막 하늘만씩 들러키어. 암췌 다시 또 부렁인 무시거 좇앙 따시 돌아댕기고. 부렁인 암췌 좇앙 돌아댕기고.(물 먹이러 가는 건, 소 외양간에 땀다가 물 먹이러 가면 날뛰는 게 막 하늘만큼씩 날뛰어. 암소는 다시 또 부록소는 무엇 찾아서 다시 돌아다니고. 부록소 암소 찾아서 돌아다니고.)

104010 @ 둘이 좋아근에.(둘이 좋아서.)

104010 # 경허민 막지 못헿 난리가 나. 어른덜은 안 현디 두린 아이덜은. 므쉬 한사름덜은 혼차 물 맥이도 못허주게. 우린 엇이난 하나 두 개 해 낫주. 하영은 안 해낫주게. 계곡 역은난 하르방<sup>89)</sup>도 엇고 혈사름도 엇곡 허난 췌 안 질와났어.(그러면 막지 못해서 난리가 나. 어른들은 안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마소 한 사람들은 혼자 물 먹이지도 못하지. 우린 없으니깐 하나 두 개 했었지. 많이는 안 했었지. 그리고 성장하니까 할아버지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소 안 길렀었어.)

104010 @ 췌 집이서 새끼도 내와반?(소 집에서 새끼도 나게 해봤어?)

104010 # 응, 집이서 새끼 나. 이 췌장시 허난 결혼헤네 살단 하르방이 오란 췌장시질 허민 췌 헿 새끼 나주게.(응, 집에서 새끼 낳아. 이 소장수 하니까 결혼해서 살다가 ‘하르방’이 와서 소장수질 하면 소 해서 새끼 낳지.)

104010 @ 응.(응.)

104010 # 새끼 나민 췌 새끼 나젠 허민 걸려 낫당 농앙 내불어야. 농앙 트로 놔사. 혼디 농민 다른 것덜 불라불어. 경현 따문 트로 놔사. 췌새긴 그자 아무상 엇이 허당 보민 밤이도 나불곡, 나불주.(새끼 낳으면 소 새끼 낳으려고 하면 걸려 낫다가 놓아서 내버려야. 놓아서 따로 놔야. 함께 놓으면 다른 것들 밟아버려. 그런 때문 따로 놔야. 소새끼는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다 보면 밤에도 나버리고, 나버리지.)

104010 @ 힘들지 안헤?(힘들지 않아?)

104010 # 응.(응.)

## 말 기르기

104011 @ 게민 이제 말예, 물은 어떻 질와마씨?(그러면 이제 말요, 말은 어떻게 길러요?)

104011 # 물은 헤여근에 부제 사름은 몰막, 췌막 다 허주. 물은 췌에 혼디 못 매어.(말은 해서 부자 사름은 말 마구간, 소 외양간 다 하지. 말은 소에 함께 못 매.)

104011 @ 혼디 못 매어?(함께 못 매?)

104011 # 응, 혼디 못 매어. 어떤 사름은 몰막 엇이민 우잣에 헤여근에 영 허게 남 세와근에 그디 움막 닳은 거 우 텃영 비 안 들게. 물은 얼어도 췌난 옆으로 눈

89) ‘하르방’은 할아버지의 제주어이지만 여기서는 남편을 의미한다.



오라도 경행 매주. 물막은 엇은 사름은 물막궂장은 안 해.(응, 함께 못 매. 어떤 사람은 마구간 없으면 울안에 해서 이렇게 하게 나무 세워서 거기 움막 같은 거 위 덮어서 비 안 들어오게. 말은 추워도 되니까 옆으로 눈 와도 그렇게 해서 매지. 마구간은 없는 사람은 마구간까지는 안 해.)

104011 @ 예.(예.)

104011 # 물은 행 허민 시방은 물궂기덜 다행 먹젠덜 허주만은 옛날은 물궂기 먹으민 부정허곡 허난 물 잡아 먹젠덜 안 해났어. 옛날엔 시방 영화에 나온 사름덜 엇어. 막 무신 높은 사름덜만 물 탄 텡겨났주. 아무나 물 못 타. 그거라. 싸우레 가는 사름덜 물은 아무나 물 못 탕 텡겨. 부제나 물 탕 텡기주. 이제 ㄱ뜨민 도지사 ㄱ튼 사름이나 막 부제 사름이나 물 타주. 물을 아무나 못 타.(말은 해서 하면 시방은 말고기들 다해서 먹으려고들 하지만 옛날은 말고기 먹으면 부정하고 하니까 말 잡아 먹으려고들 안했었어. 옛날엔 시방 영화에 나온 사람들 없니. 막 무슨 높은 사람들만 말 타서 다녔었지. 아무나 말 못 타. 그거야. 싸우러 가는 사람들 말은 아무나 말 못 타서 다녀. 부자나 말 타서 다니지. 이제 같으면 도지사 같은 사람이나 아주 부자 사람이나 말 타지. 말을 아무나 못 타.)

104011 @ 응.(응.)

104011 # 물도 ㄱ리치젠 허민 경 탕 텡기게 ㄱ리치젠 허민 장남덜이 ㄱ리치주. (말도 가르치려고 하면 그렇게 타서 다닐 수 있게 가르치려고 하면 머슴들이 가르치지.)

104011 @ 우이 타민 막 들러켜볼지 안허여?(위에 타면 막 날뛰어버리지 않아?)

104011 # 영행 ㄱ제영 탁 씨왕 해도 하늘만씩 들러키주게. 경해도 물에 부땡 ㄱ리쳐. 우리 집이 하르방<sup>90)</sup>도 물 잘 ㄱ리쳐났어. 우리 물 ㄱ리치레 텡김은 안허고 느랑 ㄱ리쳐났어.(이렇게 해서 모자랑 탁 썩워서 해도 하늘만큼씩 날뛰지. 그래도 말에 붙어서 가르쳐. 우리 집 할아버지도 말 잘 가르쳤었어. 우리 말 가르치러 다니는 것은 앓고 늘 가르쳤었어.)

104011 @ 아.(아.)

104011 # 들러키명 남즈나 허영 이끄곡 해도 이꺼근에 ㄱ리쳐도 경 들러키는 물은 들러키고 궂 헤영 드리눅는 물은 드리눅고.(날뛰면서 남자나 해서 이끌고 해도 이끌어서 가르쳐도 그렇게 날뛰는 말은 날뛰고 궂 부러서 드리눅는 말은 드리눅고.)

104012 @ 말도 색깔에 따라 이름이 여러 개 이수게. 색깔이 여러 개 아니파 예?(말도 색깔에 따라 이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색깔이 여러 개 아녜니까요?)

104012 # 물은 노랑물허고 검은말허곡, 물은 색깔이 경 하? 백매.(말은 노랑말하고 검은말하고, 말은 색깔이 그렇게 많아? 백마.)

104012 @ 백매.(백마)

104012 # 헤영헌 건 백매.(하얀 건 백마.)

104012 @ 헤영헌 건 백매, 또.(하얀 건 백마.)

90) '하르방'은 할아버지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104012 # 노랑헌 건 노랑말.(노란 건 노랑말.)  
 104012 @ 노랑헌 건 노랑말.(노란 건 노랑말.)  
 104012 # 물 이름은 옛날에 하나지 안헤서.(말 이름은 옛날에 많지 않았어.)  
 104012 @ 적다마 유매물 이런 거 었어?(적다마, 유마 이런 거 없어?)  
 104012 # 이제덜은 물 하영 질화가난 물 일름도 허주. 옛날은 경 물 하영 안 질  
 화났어게. 부제덜이나 경 탕 텡기고 무시거 허젠 물 텡기고. 즈매엔 헌 건 암말 짐  
 이나 시끄고.(이제들은 말 많이 길러가니까 말 이름도 하지. 옛날은 그렇게 말 많이  
 안 길렀었어. 부자들이나 그렇게 타서 다니고 무엇 하려고 말 다니고. ‘즈매’라고 한  
 건 암말 짐이나 싣고.)  
 104012 @ 무신매? 즈매?(무슨 마? ‘즈매’?)  
 104012 # 즈매 물 암컨 즈매.(‘즈매’ 말 암컷은 ‘즈매’.)  
 104012 @ 암컨 즈매.(암컷 ‘즈매’.)  
 104012 # 수컨 웡매.(수컷은 수말.)  
 104012 @ 수컨 웡매. 그거베끼 었어예.(수컷은 수말. 그거밖에 없어요.)  
 104012 # 그거주게, 즈매, 웡매.(그거지, 암말, 수말.)  
 104012 @ 말 색깔 말고 등 영 굵은 말이나 쪼글락 말 영 일름 불르는 거 었  
 어.(말 색깔 말고 등 이렇게 굵은 말이나 조그만 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없어?)  
 104012 # 었어. 굵새말도 었고 등 굵영 화텡이돌<sup>91)</sup> 이서났어. 화텡이 진 건 화  
 텡이돌.(없어. 굵새말도 없고 등 굵어서 ‘화텡이돌’ 있었어. ‘화텡이’ 진 건 ‘화텡이  
 돌’.)  
 104012 @ 화텡이돌.(‘화텡이돌’.)  
 104012 # 등굵새, 화텡이돌.(‘등굵새’, ‘화텡이돌’.)  
 104012 @ 아, 등굵새가 화텡이돌?(아, 등굵새가 ‘화텡이돌’.)  
 104012 # 저 말 화텡이 저불엇저 행.(저 말 ‘화텡이’ 저버렸어 해서.)  
 104012 @ 지금은 조랑말 험니까?(지금은 조랑말 하잖아요?)  
 104012 # 조랑말은 무시거라? 옛날은 조랑말이여 무시거 었어났어.(조랑말은 뭐  
 야, 옛날은 조랑마라이다 무엇 없었었어.)  
 104012 @ 물도 색깔이 하얀 게 좋은 거파, 검은 게 좋은 거파?(말도 색깔이 하  
 얀 게 좋은 겁니까, 검은 게 좋은 겁니까?)  
 104012 # 노랑헌 게 좋주.(노란 게 좋지.)  
 104012 @ 노랑헌 말이?(노란 말이?)  
 104012 # 노랑말이 존 물이주. 노랑말허고 웡매가.(노랑말이 좋은 말이지. 노랑  
 말하고 수말이.)  
 104012 @ 웡매가 좋은 거.(수말이 좋은 거.)  
 104012 # 웡매 탕 경 돌아텡기곡 즈맨 짐시경 출 ㄱ튼 거나 시끄고 즈맨 혼엿  
 이 탕 못텡기주게 웡매만 탕 텡기주.(수말 타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암말은 짐 실어

91) ‘화텡이돌’은 등뼈가 우묵하게 활 모양으로 휘어진 말이다. ‘활등이’라고도 한다.

서 꼴 같은 거나 신고 암말만 타서 다니지.)

104013 @ 물은 탕 탕기는 용으로 쓰는 건가?(말은 타서 다니는 용으로 쓰는 건가?)

104013 # 옛날은 탕 탕기고 짐이나 시끄곡 헛주만은 물은 밧도 못 갈앙. 물은 밧도 못 갈아낫어. 옛날에 하영 안 질좌낫어.(옛날은 타서 다니고 짐이나 신고 했지만 말은 밧도 못 갈아서. 말은 밧도 못 갈았었어. 옛날에 많이 안 질렀었어.)

104013 @ 밧 불리는 건 물로 불리는 건가?(밭 밍는 건 말로 밍는 건가?)

104013 # 밧 불리는 딴 물로 불려.(밭 밍는 덴 말로 밍아.)

104013 @ 밧 불리는 건 물로 불려.(밭 밍는 건 말로 밍아.)

104013 # 물로 불리는데 웅매영 즈매영 다 서꺼냥 혼디 불려.(말로 밍는데 수말 이랑 암말이랑 다 섞어놓고 함께 밍아.)

104013 @ 응.(응.)

104014 # 물 뒤 서너 설만 꿩가민 세 설만 나가민 밧 불리주게.(말 두어 서너 살만 되어가면 세 살만 나가면 밧 밍지.)

104014 @ 말도 나이에 따라 혼 살은 무신거, 두 술은 무신거.(말도 나이에 따라 한 살은 무엇, 두 살은 무엇.)

104014 # 것도 혼 술, 두 술 허주게.(그것도 한 살, 두 살 하지.)

104014 @ 그냥 혼 술, 두 술 해? 따로 곤는 말 엇수과?(그냥 한 살, 두 살 해?)

104014 # 엇어. 저 물 그자 나 핫저 영행.(없어. 저 말 그저 나이 많았다 이렇게 해.)

104014 @ 나 핫저, 영만.(나이 많았다, 이렇게만.)

104014 # 경만 곤주. 혼 술, 두 술 말은 엇어.(그렇게만 말하지. 한 살, 두 살 말은 없어.)

104014 @ 혼 술, 두 술 말은 엇어. 들어봐실 수도 있어. 딴 디선에 금승.(한 살, 두 살 말은 없어. 들어봤을 수도 있어. 다른 데선요 ‘금승’.)

104014 # 금승은 쉼 송애기, 금승 송애기.(하릅은 소 송아지, 하릅송아지.)

104014 @ 금승 송애긴 혼 살예.(하릅송아진 한 살요.)

104014 # 곤 나민 금승 송애기.(갓 낳으면 하릅송아지.)

104014 @ 다간.(‘다간’.)

104014 # 다간, 세 술 나민, 두 술 나민 다간.(‘다간’. 세 살 나면, 두 살 나면 ‘다간’.)

104014 @ 쉼 아니민 물?(소 아니면 말?)

104014 # 물이나 쉼나. 물은 그 다간 그 무신건 엇어. 쉼만 잇주게.(말이나 소가 말은 그 ‘다간’ 그 무엇은 없어. 소만 있지.)

104014 @ 사릅, 나릅 허는 건 엇고?(사릅, 나릅 하는 건 없고?)

104014 # 그거 나 하가민 나릅 쉼 헛 거 금승 무시거 해당 여라 술 나가민 나릅 쉼 가는 거. 세 술, 혼 댓 술 나가민.(그거 나이 많아가면 나릅 소 한 건 하릅

무엇 해다가 여러 살 나가면 나릅 되어 가는 거. 세 살, 한 댕 살 나가면.)

104014 @ 건 다 췌?(그건 다 소?)

104014 # 췌, 췌.(소, 소.)

104014 @ 물은 이수, 삼수, 스수.(말은 이수, 삼수, 사수.)

104014 # 물도 경험실 거라. 우린 물 안 질화부난 삼수, 스수는 잘.(말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우린 말 안 길러버리니까 삼수, 사수는 잘.)

104015 @ 할머니 말 안 질화난?(할머니 말 안 길렀었어?)

104015 # 옛날엔 구르마도 안허단 이 제국 시대에 일본 사름덜 오란에 이만씩 현 구르마 내불어된 가난 산에 강 봉그멍 구르마주. 웅매덜은 구르마나 췌엿 텅기고 즈맨 약험 베랑 안허고 해낫주게. 물 탕이나 텅기곡 허젠 물 질루주. 췌덜이나 뒤 개씩 질루주. 산에 물 하영 질르곤디 댕 해 안뻘서.(옛날엔 달구지도 안하다가 이 제국 시대에 일본 사람들 와서 이만큼씩 한 달구지 내버려두고 가니까 산에 가서 주우면서 달구지. 수말들은 달구지나 끌어서 다니고 암말은 약해서 별로 안하고 했었지. 말 타서나 다니고 하려고 말 기르. 소들이나 뒤 개씩 기르. 산에 말 많이 기른 지 댕 해 안 뻘어.)

104015 @ 췌 값이 하영 갑니까, 물 값이 하영 갑니까?(소 값이 많이 나갑니까, 말 값이 많이 나갑니까?)

104015 # 췌 값이 하영 가지. 이젠 물 값이 하영 가.(소 값이 많이 가지. 이젠 말 값이 많이 나가.)

104015 @ 이젠 말 값이 비싸.(이젠 말 값이 비싸.)

104015 # 뿔채기가 빗나고.(말고기가 비싸고.)

104015 @ 뿔채기가 빗나고.(말고기가 비싸고.)

104015 # 옛날은 뿔 ㄱ뽕 건 뿔생이 헤영 두 술만 나민 잡아먹는 사름은 추럼덜 다해낫주게. 그거 베랑 알아주지 안허여, 물은.(옛날은 말 같은 건 뿔생이 헤서 두 살만 나면 잡아먹는 사름은 추럼들 다 했었지. 그거 별로 알아주지 않아, 말은.)

## 먹이

104016 @ 게민 이 말하고 소 뿔이젠 허민 무신거 뿔여?(그러면 이 말하고 소 먹이려 하면 무엇 먹여?)

104016 # 물도 출 ㄱ찌 ㄱ찌 췌영 ㄱ찌. 뽕 출만 뿔여. 물이나 췌나.(말도 풀 같이 같이 소랑 같이. 모두 풀만 먹여. 말이나 소나.)

104020 @ 콩이나.(콩이나.)

104020 # 콩짚이나 췌도 먹고 말도 먹고 다 ㄱ찌 ㄱ찌.(콩짚이나 소도 먹고 말도 먹고 다 같이 같이.)

104020 @ 조침도 먹고.(조짚도 먹고.)

104020 # 응, 다 ㄱ찌 ㄱ찌 먹주. 트로 허진 안허여.(응, 다 같이 같이 먹지. 따라 하지는 않아.)

104020 @ 출도 잇주만은 곡식 대도 먹지예?(꿀도 있지만 곡식 대도 먹지요?)

104020 # 쉼 주민 다 먹어. 보리짚도 먹고 쉼 안 먹는 거 잇어.(소 주면 다 먹어. 보릿짚도 먹고 소 안 먹는 거 없어.)

104020 @ 뭘 쉼 잘 먹어?(뭘 쉼 잘 먹어?)

104020 # 조칩, 감저꿀.(조짚, 고구마줄기.)

104020 @ 감저꿀.(고구마줄기.)

104020 # 그거가 흥나 잇이 먹어. 물이나 쉼나. 출은 물이나 쉼나 ㄴ썸 ㄴ썸 먹주.(그거 하나 없이 먹어. 말이나 소나. 꿀은 말이나 소나 같이 같이 먹지.)

104020 @ 쉼 안 먹는 건 무신거라?(쉼 안 먹는 건 무엇이야?)

104020 # 쉼 안 먹는 건 드르에 나근에 쉼가 맥여근에 속은 안 먹어.(쉼 안 먹는 건 들에 나서 소가 먹여서 썸은 안 먹어.)

104020 @ 속은 안 먹어. 썸이 속이지예(썸은 안 먹어. 썸이 ‘속’이지요.)

104020 # 속게, 속. 속은 안 먹어.(썸, 썸. 썸은 안 먹어.)

104020 @ 속은 안 먹어. 고사리도 안 먹어?(썸은 안 먹어. 고사리도 안 먹어?)

104020 # 고사리도 옛날 안 먹어. 속도 안 먹고 고사리도 안 먹어. 그남은 건 다 먹어. 쉼나 물이나 안 먹는 꿀은 다 ㄴ썸 ㄴ썸 안 먹어.(고사리도 옛날 안 먹어. 썸도 안 먹고 고사리도 안 먹어. 그남은 건 다 먹어. 소나 말이나 안 먹는 꿀은 다 같이 같이 안 먹어.)

104017 @ 출은 어떻 마련합니까?(꿀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17 # 팔월[팔월] 나민.(팔월 나면.)

104017 @ 팔월 나민.(팔월 나면.)

104017 # 팔월 나근에 팔월절 들영 팔월 멧질 철 늦은 땐, 팔월 멧질 넘영도 허고 남즈덜 낫으로 후려. 부제칩인 여남은 사름씩 빌영 무끄는 사름도 다 무끄레 빌어. 경허민 가난헌 사름 쉼 잇인 사름 그디 강 출도 비어쥬근에, 빌영 허고, 다시 또 출 여청 강 무껴주고.(팔월 나서 팔월절 들어서 팔월 멧질 철 늦은 땐, 팔월 멧질 넘어도 하고 남자들 낫으로 후려. 부жат집은 여남은 사름씩 빌어서 묶는 사람도 다 묶으려 빌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 소 없는 사람 거기 가서 꿀도 베어쥬서, 빌어서 하고, 다시 또 꿀 여편네 가서 묶어주고.)

104017 @ 응.(응.)

104017 # 옛날은 강 출 흥루 무껴주민 이녁냥로 못 빌민 남저 빌영 출도 수눌어근에, 출 무껴주곡 수눌어근에 장만행, 부제칩이 출 허당 보민 가난헌 사름은 구월절 들영 구월 난댕 허주. 옛날도 부자칩이 허당 보민 이녁 건 못허영.(옛날은 가소 꿀 하루 묶어주면 자기대로 못 빌면 남자 빌어서 꿀도 가려서, 꿀 묶어주고 가려서 장만해서, 부жат집의 꿀 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은 구월절 들어서 구월 난다고 하지. 옛날도 부жат집 하다 보면 자기 건 못해서.)

104017 @ 응.(응.)

104017 # 옛날도 다 수눌영 허고 장남덜 행 돈 쥬 늣 빌영 허고. 이젠 해도 옛

날은 강 하루 저물앙 굽영 출 무꺼도 쏘 관돼 하나. 보리 마당질 해도 관돼 하나. 옛날 사름이 오죽이나 참, 대통령도 옛날은 그만이 못 살았주. 기가 맥힌 삶이주. (옛날도 다 품앗이 하고 머슴들 해서 돈 쥐서 놉 빌어서 하고. 이젠 해도 옛날은 가서 하루 종일 굽어서 쫄 묶어도 쏘 관되 하나. 보리 마당질 해도 관되 하나. 옛날 사람이 오죽이나 참, 대통령도 옛날은 그만큼 못 살았지. 기가 막힌 삶이지.)

104018 @ 출은 어디 가근에.(쫄은 어디 가서.)

104018 # 웃드르 산덜 엇어게? 그디 시방 다 가는 디가 출 비어난 디. 어욱बाट덜 몬 출 비어난 디.(중산간 산들 없어? 거기 시방 다 가는 데가 쫄 베었던 데. 억새밭들 모두 쫄 베었던 데.)

104018 @ 우리 밧디 것만 출도 해야 돼여?(우리 밧의 것만 쫄도 해야 돼?)

104018 # 놉의 밧디 헤여근에 출도 반작허젠 허민 부자칩이 밧디 반작허영 두 단 비민 혼 단 아져오라.(남의 밧에 해서 쫄도 반작하려고 하면 부갓집 밧에 반작해서 두 단 베면 한 단 가져와.)

104018 @ 출도?(쫄도?)

104018 # 출도. 경허고 돈 쥐근에 부자칩이서 출बाट허영 쫄민 상도 비고, 엇인 사름은.(쫄도. 그리고 돈 쥐서 부갓집에서 쫄밭해서 팔면 사서도 베고, 없는 사름은.)

104018 @ 응.(응.)

104018 # 아니민 반작허주, 반작허는 사름이 하. 열 바리 헤사 다섯 바리 앓아오라.(아니면 반작하지, 반작하는 사름이 많아. 열 바리 해야 다섯 바리 가져와.)

104019 @ 예, 출은 혼 바리가 아까 멧 못이라?(예, 쫄은 한 바리가 아까 멧 못이야?)

104019 # 서른 단. 게난 혼 번 가오민 서른 바리 허민 스무 바리 허고 밧임젠 열 바리 앓아가고, 삼분파<sup>92)</sup>도 허곡.(서른 단. 그러니까 한 번 갔다오면 서른 바리 하면 스무 바리 하고 밧임자는 열 바리 가져가고, 삼분파도 하고.)

104019 @ 삼분파도 허곡.(삼분파도 하고.)

104019 # 응.(응.)

104019 @ 게민 출 다 비어근에 무견예.(그러면 쫄 다 베어서 묶어서.)

104019 # 비영 무꺼근에 밧디 눌엇당.(베어서 묶어서 밧에 가렸다가.)

104019 @ 아, 밧디 눌엇당.(아, 밧에 가렸다가.)

104019 # 그 출 다허민 쉼덜 빌곡 행 부제칩이 강 쉼 행 다 시꺼나민 장남질 허영 쉼 빌어당 출도 시꺼오고.(그 쫄 다하면 소들 빌리고 해서 부갓집에 가서 소 해서 다 싣고 나면 머슴질해서 소 빌어다가 쫄도 실어오고.)

104019 @ 집에 시껍와?(집에 실어와?)

104019 # 시꺼당 눌러사주게, 저슬에 허젠 허민.(실어다가 가려야지. 겨울에 하

92) '삼분파'는 세 명이 나눈다는 뜻으로 쫄밭 임자, 쫄밭의 쫄을 산 사람, 쫄을 베는 사람이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이다.

려고 하면.)

104019 @ 밧디 그냥.(밭에 그냥.)

104019 # 놀엇다근에.(가렸다가.)

104019 @ 놀엇다근에 물리진 안허여?(가렸다가 말리지는 않아?)

104018 # 밧디 오늘 비민 뱃이 막 하늬브름 불민 오늘 비영 고사리반지기<sup>93)</sup> 허민 널 무끄고 다시 또.(밭에 오늘 베면 뱃이 막 하늬바람 불면 오늘 베어서 ‘고사리반지기’ 하면 내일 묶고 다시 또.)

104018 @ 고사리 무신거마씨?(고사리 뭐요?)

104018 # 고사리, 고사리영 출에 서꺼정 반지기, 반지기 뱃민 들랑 널 무꺼지고. 경 안허민 오늘 비영 흐루 녹여사 무꺼지주게.(고사리, 고사리랑 풀에 섞어져서 반지기, 반지기 되면 말라서 내일 묶어지고. 그렇게 안하면 오늘 베어서 하루 늑혀야 묶어지지.)

104018 @ 아.(아.)

104018 # 비 오라 불민 비나 온 뱃 목탱이 들렁 다 거 출을 다 데싸.(비 와 버리면 비나 온 뱃 막대기 들고 다 그거 풀을 다 뒤집어.)

104018 @ 아, 비 맞아 불민.(아, 비 맞아 버리면.)

104018 # 데쌍 물리와.(뒤집어서 말려.)

104018 @ 그다음 날은 무끄는 거라예.(그다음 날은 묶는 거예요.)

104018 # 물리와사 무꺼.(말려서 묶어.)

104018 @ 그다음 날은 무끄는 거라예.(그다음 날은 묶는 거예요.)

104018 # 경헝 물리와사 무꺼.(그렇게 해서 말려야 묶어.)

104019 @ 경헝 무경 밧디 놀엇당.(그렇게 해서 묶어서 밧에 가렸다가.)

104019 # 무꺼냥 혼 단씩 헝 거 무경 낫당 다시 그걸 혼 밧더레 메와냥 날라냥 땃단씩, 예슬곱 단씩 날라냥 놀어사 출 다해놔사 시꺼오주.(묶어놓고 한 단씩 한 거 묶어서 낫다가 다시 그걸 한 군데에 메워놓고 날라놓고 땃 단씩, 예닐곱 단씩 날라놓고 가려야 풀 다해놔야 실어오지.)

104019 @ 집이? 집이 시경왕 이디 우жат디.(집에? 집에 실어 와서 여기 울안에.)

104019 # 또 놀어.(또 가려.)

104019 @ 또 놀어?(또 가려?)

104019 # 놀어야지게. 경 안 헝 내불민 저슬에 쉼을 먹여지나게. 다 놀어.(가려야지. 그렇지 않고 내버리면 겨울에 소를 먹일 수 있나. 다 가려.)

104019 @ 계민 시경 오젠 허민 돌이나 쉼나 헝.(그러면 실어서 오려고 하면 말이나 소나 해서.)

104019 # 빌어사. 경허민 부제침이 출 시끄젠 허민 엇인 사름은 출 시꺼주고 그 믱쉬덜 빌어당, 출도 이녁냥으로 엇인 사름 시꺼오고.(빌어야. 그러면 부жат집에 풀 실으려고 하면 없는 사름은 풀 실어주고 그 마소들 빌어다가, 풀도 자기대로 없는

93) ‘고사리반지기’는 풀에 고사리가 섞였다는 말이다.

사람은 실어오고.)

104019 @ 쉼 질메 메왕 혼 착에 열다섯 못씩.(소 길마 메워서 한 짝에 열다섯 못씩.)

104019 # 서른 단.(서른 단.)

104019 @ 서른 단 시경, 집이 이경 왕.(서른 단 실어서. 집에 이끌고 와서.)

104019 # 부러. 경허민 쉼도 새 쉼 허민 막 짐 시끄민 하늘만씩 들러키명 문밖 뻘어 불고 물도 경허여.(부러. 그러면 소도 새 소는 하면 막 짐 실으면 하늘만큼씩 날뛰면서 모두 뿌려 버리고 말도 그렇게 해.)

104019 @ 예.(예.)

104019 # 물도 뻘어 비어, 뻘어 비어.(말도 뿌려 버려, 뿌려 버려.)

104019 @ 어떻게, 잘 허젠 허민.(어떻게 해? 잘 하려고 하면.)

104019 # 경허영 허민 질메허영 짐 시끄 차 하도 들러키민 오랑이엔 현거 오랑 확 벗영 질메 자우라정 또 시끄곡 허여. 거 다 부렁.(그렇게 해서 하면 길마해서 짐 실은 채 하도 날뛰면 뱃대끈이라고 한 거 뱃대끈 확 벗어서 기라 젓혀서 또 신고 해. 그거 다 부려서.)

104019 @ 집이 왕 놀 때는 할머니.(집에 와서 가릴 때는 할머니.)

104019 # 놀 때민 남즈 헤영 출 잘 누는 사름 빌영 놀어사.(가릴 때면 남자 해서 풀 잘 가리는 사람 빌어서 가려야.)

104019 @ 아.(아.)

104019 # 경안허민 헤싸정 물 들어. 게민 것도 놀 빌어사, 누는 사름 빌어사 놀 어.(그렇지 않으면 허물어져서 물이 들어. 그러면 그것도 놀 빌어야, 가리는 사람 빌어야 가려.)

104019 @ 놀 빌어사.(놀 빌어야.)

104019 # 경허민 시꺼당 이 바당에 부러놓민 저 우연더레 다시 또 쉼 안들어가 게 해 놓민 다 날라가고, 출 누는 사름 놀곡 혼 사름 데끼곡 다 해야지. 여청덜은 그 시경 오민 우연더레 다 날르곡 헤사.(그러면 실어다가 이 바다에 부러 놓으면 저 울안에 다시 또 소 안 들어가게 해 놓으면 다 날아가고, 풀 가리는 사람 가리고 한 사람 던지고 다 해야지. 여편네들은 그 실어 오면 울안에 다 나르고 해야.)

104021 @ 출 시꺼나민 막 이디 ㄱ려왕.(풀 실어나면 막 여기 가려워서.)

104021 # ㄱ랍곡게 출테 올랑.(가렵고 ‘출테’ 올라서.)

104021 @ 출테 올랑. 거 출테 올른텐 허는구나예.(‘출테’ 올라서. 그거 ‘출테’ 오른다고 하는군요.)

104021 # 이제 사름이 목욕을 매날 햐주. 옛날에 출테 올르민 목욕을 매날 햐젓 수과? 매미<sup>94)</sup>물 질어당이나 허고 이제 더운 물이나 이시난이주, 어떻게 솟디. 어떻 매날 몸을 곱암서, 몸을 안 곱아.(이제 사름이 목욕을 매일 하고 있지. 옛날에 ‘출테’ 오르면 목욕을 매일 할 수 있었습니까? ‘매미’물 질어다가나 하고 이제 더운 물

94) ‘매미’는 성산을 삼달리의 못 이름이다.



이나 있으니까지, 어떻게 해서 술에. 어떻게 매일 목욕을 해, 목욕 안 해.)

104021 @ 계난.(그러니까.)

104021 # 경허난 옛날은 저고리 입어나민 남즈나 여즈나 야가지에 거뭇게 때가 일주게. 이젠 경허는 사름 엇지 안허여. 이제 사름 매날 목욕햄주, 어디 옛날에 매날 목욕허여?(그러니까 옛날은 저고리 입고 나면 남자나 여자나 목에 거뭇게 때가 일지. 이젠 그러는 사람 없지 않아. 이제 사람 매일 목욕하지, 어디 옛날에 매일 목욕해?)

104021 @ 응.(응.)

104021 # 검질 매영 오당도 모욕 못헐 허민 적삼에 여름에 검질 매나민 땀내가 저곳되 앓이민 팍팍허곡 아이고. 옛날 삶사 윈.(김매고 오다가도 목욕 못해서 하면 적삼에 여름에 김매면 땀냄새가 곁에 앓으면 팍팍하고 아이고. 옛날 삶이야 윈.)

104021 @ 출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먹는 거, 곡식 해난 거.(꿀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먹는 거. 곡식 했던 거.)

104021 # 곡식 해난 거 문 먹어, 쉼, 쉼나 물이나. 보리짚도 먹곡 곱게 몰랑 썩지 안허민 먹고 조칩도 먹고 콩짚, 모들칩도 물은 먹어. 쉼 안 먹어도.(곡식 했던 거 모두 먹어, 소, 소나 말이나. 보릿짚도 먹고 곱게 말라서 썩지 않으면 먹고 조짚도 먹고 콩짚, 메밀짚도 말은 먹어. 소는 안 먹어도.)

104021 @ 것도 다 집이 늘어살 건가?(그것도 다 집에 가려야할 건가?)

104021 # 모들도 두드려나민 늘고. 조칩도 툇아나민 단으로 다 무경 다 늘고. 콩짚도 행 흔 펜더레 안아 놓명 다 느람지 더경 놔둬사 먹어.(메밀도 두드려야 가리고. 조짚도 뜯고나면 단으로 묶어서 다 가리고. 콩짚도 해서 한 편에 안아 놓으면서 다 이영 덮어서 놔둬야 먹어.)

104021 @ 아.(아.)

104021 # 무끄진 안해도 안아놓명 동그랗게 안아놔 이만이 안아 놔.(묶진 않아도 안아 놓으면서 동그랗게 안아 놔서 이만큼 안아 놔.)

104021 @ 콩짚은?(콩짚은?)

104021 # 건 안 무꺼도 돼여. 그자 안아 놔 모록허게 데며놔 두께 더끄민 건 안 무꺼도 돼여.(그건 안 묶어도 돼. 그자 안아 놔서 ‘모록’하게 쌓아 놔서 뚜껑 덮으면 그건 안 묶어도 돼.)

104021 @ 계민 이디 마당 막 널러사켜예? 마당질도 허고.(그러면 여기 마당 막 널어야 되겠네요? 마당질도 하고.)

104021 # 널러사주게. 날레도 해영 조도 해영 널젠 허민 명석 흔 땃 개씩 놔근에 그거 다 널고.(널러야지. ‘날레’도 해서 조도 해서 널러고 하면 명석 한 땃 개씩 놔서 그거 다 널고.)

104021 @ 계난, 늘도 늘러사고.(그러니까 가리도 가려야하고.)

104021 # 늘도 행 출도 행 늘고 마당질도 허고. 마당 널러사주게.(가리도 해서 풀도 해서 가리고 마당질도 하고. 마당 넓어야지.)

104021 @ 마당이영 우잣이영 널리사주. 죽은 집인 어디.(마당이랑 텃밭이랑 넓어야지. 작은 집은 어디.)

104021 # 게난 부제칩인 널르민 혼 오백 평씩 돼주. 그 놀 놀곡 집 지서농곡 허젠허민 널르주. 혼 오백 평이나 허민 이것도 스백 평은 허난 이디도 널러.(그러니까 부잣집은 넓으면 한 오백 평씩 되지. 그 가리 가리고 집 지어놓고 하려고 하면 넓지. 한 오백 평이나 하면 이것도 사백 평은 하니까 여기도 넓어.)

104021 @ 이디 과수원 현 디가?(여기 과수원 한 데가?)

104021 # 응, 과수원이영 몬 허민. 우리도 저 안트레 짓어놔어. 안네 헤영 이디 산ㄱ치 크게 허영 짓고 밧거리허민 혼착은 밥행 먹고 혼 가운데 창고로 허고 혼착은 쉼 메곡 허명. 삼간집을 짓어놔어. 세 칸에 갈랑.(응, 과수원이랑 모두 하면. 우리도 저 안쪽에 지었었어. 안에 해서 여기 산처럼 크게 해서 짓고 바깥채하면 한 쪽은 밥해서 먹고 한 가운데 창고로 하고 한 쪽은 소 메고 해서. 삼간집을 지었었어. 세 칸 갈라서.)

104021 @ 응. 출 베곡, 출 날르곡 허는 거 중에 켈 힘든 건 뭐마씨?(응. 풀 베고, 풀 나르고 하는 거 중에 켈 힘든 건 뭐예요?)

104021 # 빌 때 무꿀 때 허고, 그 출허영 저 웃드르 성읍리ㄱ장 출 비레 갑니께. 성읍리 우이ㄱ장 출 비레 가.(벨 때 묶을 때 하고, 그 풀해서 저 중산간 성읍리까지 풀 베러 가잖습니까. 성읍리 위에까지 풀 베러 가.)

104021 @ 예.(예.)

104021 # 출 비레 가민 세백이 일어난 혼 세 시만 돼민 조반허영 짓영 혼 다섯 시, 으섯 시 전이 다 올라가. 혼 뒤 참헌 딜 걸영 올라가젠 허민. 경 뎡겨놔어.(풀 베러 가면 새벽에 일어나서 한 세 시만 되면 조반해서 지어서 한 다섯 시, 여섯 시 전에 다 올라가. 한 뒤 참한 데를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다녔었어.)

104021 @ 혼 참은 얼마나 돼는 거파?(한 참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4021 # 혼 참이엔 현 건 혼 이백 메다나 돼카? 전봇대 열개 뵈거라, 혼 참이. 이 삼달이리광 저 삼달이리가 혼 참이라.(한 참이라고 한 건 한 이백 미터나 뵈까? 전봇대 열 개 뵈 거야, 한 참이. 이 삼달이리와 저 삼달이리가 한 참이야.)

104021 @ 아, 혼 참.(아, 한 참.)

## 멜감

104022 @ 게민 저 굴묵이영 짓젠 허민 행와삼니께, 낭이영. 그런 거 보통 뭇로 어떤 걸로 합니까?(그러면 저 ‘굴묵’이랑 때려거 하면 해서 와야 하잖아요, 나무랑. 그런 거 보통 뭇로 어떤 걸로 합니까?)

104022 # 남 저 보리 두드려 나민 보리 ㄱ스락도 동그랗게 눌엇당 것도 담아당 굴묵 살르고.(나무 저 보리 두드리고 나면 보리 이삭도 동그랗게 가렸다가 그것도 담아다가 ‘굴묵’ 때고.)

104022 @ 또.(또.)

104022 # 모물도 해나민 모물도 해난 거 허고. 조 해나민 조캥메기<sup>95)</sup>도 허고 문  
딱 췌 다 굴묵 살르주.(메밀도 하고 나면 메밀도 하고 난 거 하고. 조 하고 나면  
‘조캥메기’도 하고 모두 겨는 다 ‘굴묵’ 때고.)

104022 @ 췌 다 굴묵 살파.(겨는 다 ‘굴묵’ 때.)

104022 # 줌진 건 도새기 주고.(자잘한 건 돼지 주고.)

104022 @ 줌진 건 도새기 주고 채는 굴묵 찐고.(자잘한 건 돼지 주고. 겨는 ‘굴  
묵’ 때고.)

104022 # 영긴 건 굴묵 찐고. 경허당 버치민 출 비어근에 해당 놀영 엇이민 그  
것도 허고 췌 머리에 출 먹어나민 그것도 파당 굴묵 찐고.(큰 건 ‘굴묵’ 때고. 그러  
다가 부치면 풀 베어서 해다 가려서 없으면 그것도 하고 소 머리에 풀 먹이고 나면  
그것도 파다가 ‘굴묵’ 때고.)

104022 @ 건 뭇엔 곱아?(그건 뭇라고 말해?)

104022 # 문지락<sup>96)</sup>.(‘문지락’.)

104022 @ 췌 먹당 남은 거?(소 먹다 남은 거?)

104022 # 먹으멍 부서진 것덜게. 그거 문지락.(먹으면서 부서진 것들. 그거 ‘문  
지락’.)

104022 @ 그것도 굴묵 찐고.(그것도 ‘굴묵’ 때고.)

104023 # 줌는 사름은 드르에 가근에 뻗 난 땀 뭇똥도 주서당 찐고.(줌는 사름  
은 들에 가서 뻗 났을 땀 뭇똥도 주워다가 때고.)

104023 @ 췌똥은 안 허고 뭇똥만 험니까?(소똥은 안 하고 뭇똥만 합니까?)

104023 # 췌똥도 팔월[팔월]에 현 거 ㄱ슬에 주스민 뭇르곡 경 안허민 안 ㄱ르  
주게, 저슬에.(소똥도 팔월에 한 거 가을에 주우면 마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마르  
지, 겨울에.)

104023 @ 맞아. 물기가 많아 가지고예.(맞아. 물기가 많아 가지고요.)

104023 # 게난 부지런헌 사름은 팔월[팔월] 나민 그 출 해낭 뭇똥을 주서당 재  
경 낮당 굴묵도 찐고.(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름은 팔월 나면 그 풀 해다가 뭇똥을 주  
워다가 쌓아 났다가 ‘굴묵’ 때고.)

104023 @ 할머니도 주스레 땡겨봔디가?(할머니도 주우러 다녀보셨습니까?)

104023 # 우린 안 땡겨보고. 뭇똥 주스레 땡겨봔지게.(우린 안 다녀보고. 뭇똥  
주우러 다녀봔지.)

104023 @ 뭇똥 주스레 땡겨봔?(뭇똥 주우러 다녀봔어?)

104023 # 주서사 굴묵 찐곡.(주워야 ‘굴묵’ 때고.)

104023 @ 굴묵 찐젠 허민.(‘굴묵’ 때려고 하면.)

104023 # 소남 밧디 강 솔잎도 걷어당 굴묵 찐고.(소나무 밧에 가서 솔가리도  
걷어다가 ‘굴묵’ 때고.)

95) ‘조캥메기’는 조 낱알을 떨어낸 빈 이삭이다.

96) ‘문지락’은 소가 먹다 남긴 풀 등을 말한다.

104023 @ 응.(응.)

104023 # 해난.(했었어.)

104024 @ 솔잎은 어떻게 해 오는 거꽈?(솔가리는 어떻게 해서 해 오는 겁니까?)

104024 # 솔잎은 가근에 소낭बाट 강은에 소남 지각허민 굽겁이로 박박 헤어와 근에 상더렌 베 헤영 군거 앓정 강 와근에 그디 낭께기 꺼경 허여낭 그레 솔잎 안아 낭 딱허게 세 बात 무꺼근에 이만이허게 동짓어근에 베 낭 지어 오주게.(솔가리는 가서 소나무밭에 가서 소나무 뽕뽕하면 굽개로 박박 해 와서 상에 바 해서 군거 안쳐서 가서 와서 거기 나무 막대기 꺾어서 해 놓고 그리 솔가리 안아 놓고 딱하게 세 군데 묶어서 이만큼하게 무리 지어서 바를 놓고 저 오지.)

104024 @ 막 흘쳐 불지 안허여?(막 흘려 버리지 않아?)

104024 # 흘치지 안허게게 딱 무꺼근에. 아래 바드랭이 와근에.(흘리지 않게 딱 묶어서 아래 받침 와서.)

104024 @ 아래 바드랭이 낭.(아래 받침 와서.)

104024 # 경행 낭 딱 무경 허민 세 도막에 무경 베헤영 지어오민 꼬딱도 안 헤여.(그래서 와서 딱 묶어서 하면 세 도막에 묶어서 바 해서 저 오면 까딱도 안 해.)

104024 @ 세 도막?(세 도막?)

104024 # 세 बात 무꺼야.(세 군데 묶어야.)

104024 @ 아, 무끄는 게 세 बात.(아, 묶는 게 세 군데.)

104024 # 남이 이만씩허게 헤영 요만인허게 허민 요디 무끄곡 꼬땡이 무끄곡 한가운디 무끄곡 행.(나무가 이만큼씩 하게 요만큼하게 하면 요기 묶고 끄트머리 묶고 한가운데 묶고 해서.)

104024 @ 아, 세 बात 무꺼.(아, 세 군데 묶어.)

104024 # 경 헤낭 놀영 와둬도 허고 굴목에 담아 놓아도 질곡 허멍.(그렇게 해 놓고 가려서 와두기도 하고 ‘굴목’에 담아 놓아서 때고 하면서.)

104025 @ 낭도 허레 갑니까?(나무도 하러 갑니까?)

104025 # 진을커 엇인 사름덜 출헤근에 훌어멍덜 출 못허민 저슬에 남 강 허여 오주게. 닥낭 ㄴ똥 거 삭다리 소남 죽은 거 문딱 해당 불 습아.(땀감 없는 사람은 풀 해서 훌어머니들 풀 못하면 겨울에 나무 가서 해 오지. 닥나무 같은 거 삭정이 소나무 작은 거 모두 해다가 불 때.)

104025 @ 응.(응.)

104025 # 솔잎도 걷어당 허고. 진을커 허레 땡겨주.(솔가리도 걷어다가 하고. 땀감 하러 다녔지.)

104025 @ 낭 작은 거말고도 큰 낭도 깨어?(나무 작은 거 말고도 큰 나무도 쪼개어?)

104025 # 큰 낭은 깨영 소낭बाट 이녁낭으로 신 사름 남즈덜 빌영 거두로 싸당 훑은 남 해당 허주만은 여청 혼자 사름, 사름사 그거 허여져? 그자 걷으멍 행 진

주.(큰 나무는 쪼개어서 소나무밭 자기대로 있는 사람 남자들 빌어서 ‘거두’로 켜서 굵은 나무 해다가 하지만 여편네 혼자 사람, 사람이야 그거 할 수 있어? 그저 걷으면서 해서 때지.)

104025 @ 응.(응.)

104025 # 우리 두령 혼 열댓꺄장은 검질이나 놈의 출왓 강 비영 동호미로 다 비영 무꺼당 저당 해영 늘주. 그추룩은 안 해봤저만은 역은 후제 그것도 허영 허레 텅기곡 결혼헌 후제 텅겨봤주, 처녀 땐 안 텅겨보고.(우리 어리석어서 한 열다섯 까지는 김이나 남의 꼴발 가서 베어서 ‘동호미’로 다 베어서 묶어다가 저다가 해서 가리지. 그렇게는 안 해봤다만 큰 후에 그것도 해서 하러 다니고 결혼한 후에 다녀봤지, 처녀 땐 안 다녀보고.)

104025 @ 아까 무신 호미, 동호미?(아까 무슨 호미, ‘동호미’?)

104025 # 호미, 호미. 영 낮게.(호미. 호미. 이렇게 낮.)

104025 @ 그냥 호미?(그냥 호미?)

104025 # 응. 거 아정 텅기멍 경헛주. 아기 난 후제 텅겨봤주, 처녀 땐 안 텅겨보고.(응. 그거 가져 다니면서 그렇게 했지. 아기 낳은 후에 다녀봤지. 처녀 땐 안 다녀 보고.)

104025 @ 웃드르 사름덜은 낭도 폴레 읍니까?(중산간 사람들은 나무도 팔러 읍니까?)

104025 # 아니, 폴레 오진 안허여.(아니, 팔러 오진 않아.)

104026 @ 지난번에 숯 굽는 거.(지난번에 숯 굽는 거.)

104026 # 숯 굽는 거. 짓도 남즈덜 서꺼근에 남밧이나 싯곡 헌 사름이 허주. 숯도 아무나 안 묻주게. 묻는 사름이 묻주.(숯 굽는 거. 그것도 남자들 섞어서 나무 밧이나 있고 한 사람이 하지. 숯도 아무나 안 묻지. 묻는 사람이 묻지.)

104026 @ 숯 묻젠 허민 어떻 해야 돼여?(숯 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104026 # 숯 묻젠 허민 저 츠남이엔 헌 남이나 무신 남을 해다근에 이만씩 이만씩 쫄라근에 묻는 거. 우리 봄만 헛주.(숯 묻으려고 하면 저 참나무이라고 한 나무나 무슨 나무를 해다가 이만큼씩 이만큼씩 잘라서 묻는 거. 우린 보기만 했지.)

104026 @ 예.(예.)

104026 # 쫄랑 그거 다 벌러근에 구텅이 막 파근에 그 아래 바짝허게 세와냥 따시또 돌헤영 담다좌근에 구텅이레 솜박 담아좌근에 담 다냥 멘작허게 흙 올려냥 우꺄장 폭허게 묻어. 그 돌 놓은 거 못 바레게 막 묻어근에 땅소굽에 묻어근에 어귀만 내어냥 그 어귀로 불 때어근에.(쫄라서 그거 다 쪼개서 구텅이 파서 그 아래 ‘바짝’하게 세워놓고 다시 또 돌 해서 담아좌서 구텅이에 가득 담아좌서 담 쌓아놓고 밋밋하게 흙 올려좌서 위까지 폭하게 묻어. 그 돌 놓은 거 못 보게 막 묻어서 땅 속에 묻어서 어귀만 내어 놓고 그 어귀로 불 때어서.)

104026 @ 응.(응.)

104026 # 문딱 와랑와랑 부땡 문 해근에 궂불<sup>97)</sup>이 삭아지민 영 어귀 내냥 경헛

허민 그 곳불 삭아지민 그 주둥이 꼭 막으민 안네서 술아정 꺼져. 경행 허는 거.(모두 ‘와라와랑’ 붙어서 모두 해서 ‘곳불’이 삭아지면 이렇게 어귀 내어 놔서 그렇게 해서 하면 그 ‘곳불’ 삭으면 그 주둥이 꼭 막으면 안에서 삶아져서 꺼져. 그렇게 해서 하는 거.)

104026 @ 응.(응.)

104026 # 우린 놈 허는 거 봤주, 우린 안 해난.(우리는 남 하는 거 봤지, 우린 안 해봤어.)

104026 @ 솟도 막 폴레 뎡겨?(솟도 막 팔러 다녀?)

104026 # 하영 묻은 사람 폴레도 뎡기주게.(많이 묻은 사람 팔러도 다니지.)

104027 @ 진을커는 보통 가을에 준비허는 거파?(뎡감은 보통 가을에 준비하는 겁니까?)

104027 # 팔월[팔월]에 검질 비어당 늘어둬서.(팔월에 검불 베어다 가려두고서.)

104027 @ 팔월에.(팔월에.)

104027 # 그 출 해당.(그 풀 해다가.)

104027 @ 출 해당 늘어둔 다음에.(풀 해다가 가려둔 다음에.)

104027 # 응, 늘어 놔둬서.(응, 가려서 놔두고서.)

104027 @ 팔월에 출 해당 늘어뎡 진을커 허레 뎡기는 거라.(팔월에 풀 해다가 가려두고 뎡감 하러 다니는 거야.)

104027 # 족으민 진을커허레 뎡기곡 하민 안허고게. 족으민 허레 뎡기고.(적으면 뎡감하러 다니고 하면 안하고. 적으면 하러 다니고.)

104027 @ 진을커 허는데 힘들거나 기억나는 일은 엇수과?(뎡감 하는 데 힘들거나 기억나는 일은 없습니까?)

104027 # 힘들멍 말멍게. 그거 일 엇이민 일로 그것도 허는 거주. 생일 허는 게 경 어디 힘 안 든 일사 이십니까?(힘들면서 말면서. 그거 일 없으면 일로 그것도 하는 거지. 생일 하는 게 그렇게 어디 힘 안 든 일이야 있습니까?)

104027 @ 할머니 특별하게 진을커 허는 디 잣당 무신 일 잇거나.(할머니 특별하게 뎡감 하는 데 잣다가 무슨 일 잇거나.)

104027 # 아니, 우리도 옛날에 어디 저 산 저곳디 간에 닥남을 애뜰이 간에 우리 큰넌허고 간에 혼 짐 누게 다른 사람덜이영 혼디헨 지아전 오난 놈도 아니 방상에 팔춘 하르방이나 웬 하르방이 이녁네 밧디 강 남헤 왓젠 헨 답달헨 술 받아 내렌 헨 술은 혼 사발 받아낫저.(아니, 우리도 옛날에 어디 저 산 곁에 가서 닥나무를 어이딸이 가서 우리 큰딸하고 가서 한 짐 누가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해서 져서 오니까 남도 아니 일가불이에 팔춘 할아버지나 된 할아버지가 자기네 밧에 가서 나무 해왔다고 해서 뉘달해서 술 받아 내라고 해서 술은 한 사발 받았었어.)

104027 @ 낭 값으로?(나무 값으로?)

104027 # 낭 값으로. 지네 밧디 강 남헤 왓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웬당 하르방

---

97) ‘곳불’은 솟을 구울 때 붙이는 불로 ‘곳(釜)’과 ‘불’의 합쳐진 말인 것 같다.

이영 술만 받아 도렌 허멍 허연 낭 값 험의 밋디 간 해왔젠, 나 더러와도 술 혼 사발 받아쥔 다신 안 갓저.(나무 값으로. 자기네 밭에 가서 나무해 왔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권당 할아버지랑 술만 받아 달라고 하면서 해서 나무 값 해서 남의 밭에 가서 해왔다고, 나 더러워도 술 한 사발 받아주고 다신 안 갓어.)

## 사냥

104028 @ 할머니 안 봐나실테주만은 사냥도 이 동네선?(할머니 안 봤었겠지만 사냥도 이 동네선?)

104028 # 사냥? 꿩 잡으레, 하르방 텅겨낫어.(사냥? 꿩 잡으러, 할아버지 다녔어.)

104028 @ 무신거 잡으레?(무엇 잡으러?)

104028 # 꿩 잡으레.(꿩 잡으러.)

104028 @ 꿩만 험니까, 다른 건 안 해낫수과?(꿩만 험니까. 다른 건 안 했었습니까?)

104028 # 꿩베끼 안허여. 꿩만 잡으레 텅겨낫주.(꿩밖에 안 해. 꿩만 잡으러 다녔었지.)

104029 @ 꿩은 어떻 잡는 거파? 꿩코 놓는 건가?(꿩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꿩 올라미 놓는 건가?)

104029 # 꿩코 안 놔근에 개, 꿩 무는 개가 잇주게.(꿩 올라미 안 놔서 개, 꿩 무는 개가 있지.)

104029 @ 아, 개.(아, 개.)

104029 # 꿩 무는 개가 셔근에 허민 혼 뎃사름이 그 개 들곡 행 가민, 꿩을 막 개가 막 놀랑, 개ㄴ라 뽀뽀 뽀리치민 개가 꿩을 물어와.(꿩 무는 개가 있어서 하면 한 다섯 사람이 그 개 데리고 해서 가면, 꿩을 막 개가 막 놀라서. 개보고 뽀뽀 뽀 가르치면 개가 꿩을 물어와.)

104029 @ 아.(아.)

104029 # 꿩 물어. 대여섯이 행 가민 어른으로 즈근즈근 행 허민 어른은 전지엔 현 거 놀개. 그 아랜 각이엔 현 건 각.(꿩 물어. 대여섯이 해서 가면 어른이 ‘즈근즈근’ 해서 하면 어른은 전지라고 한 거 날개. 그 아랜 ‘각’라고 한 건 다리.)

104029 @ 다리?(다리?)

104029 # 다리. 그거 헤영 우로 즈근즈근 행 주당 혼 가운디 꿩 주썩현 거게 가슴꿩. 그건 그 차례로 주당 버치민 그거 주고 매 막곳은 설문뎡이<sup>98)</sup> 주고.(다리. 그거 해서 위로 차근차근 해서 주다가 한 가운데 뼈 길쭉한 거 가슴뼈. 그건 그 차례로 주다가 부치면 그거 주고 맨 마지막엔 ‘설문뎡이’ 주고.)

104029 @ 예.(예.)

104029 # 다리 그거 해서 위로 차근차근 해주다가 한가운데 꿩 길쭉한 거, 가슴

98) ‘설문뎡이’는 ‘설문’에 ‘뎡이’가 붙은 형태로 목에 붙은 등뼈라고 설명하고 있다.

뼈. 그건 그 차례로 주다가 부치면 그거 주고 맨 마지막에 설문 주고 그 차례로 주다가 부치면.(다리 그거 해서 위로 차근차근 해주다가 한가운데 뼈 길쭉한 거, 가슴 뼈. 그건 그 차례로 주다가 부치면 그거 주고 맨 마지막엔 ‘설문’ 주고 그 차례로 주다가 부치면.)

104029 @ 설문탱인 어디?(설문탱이는 어디?)

104029 # 그 꿩 야가지 부튼 거 등망머리 엇어게. 꼬랑지깁장 소랑헌 거. 독 잡으민. (그 꿩 목에 붙은 거 등에 없어. 꼬리까지 길쭉한 거, 닭 잡으면.)

104029 @ 뼈?(뼈?)

104029 # 응, 등망머리 뼈 엇어. 그니까 쥐. 가난헌 사름 아니 아래 아이덜은 가민.(응, 등뼈 없어. 그러니까 쥐. 가난한 사람 아니 아래 아이들은 가면.)

104029 @ 아이덜은 가민, 응.(아이들은 가면, 응.)

104029 # 경혜당 그 꿩 가근에 해당 방상이 제민 소금혜 낫당 제숙 가져가났어. 옛날에.(그러다가 그 꿩 가서 해다가 일가불이 제사면 소금혜 낫다가 제육 가져갔어.)

104029 @ 어디?(어디.)

104029 # 제숙.(제육?)

104029 @ 걸로 제숙도 헤마씨?(그걸로 제육도 해요?)

104029 # 응, 흔 다리씩.(응, 한 다리씩.)

104029 @ 흔 다리씩.(한 다리씩.)

104029 # 먹지도 안 행 소금혜영 옛날은 냉장고 엇지 안허나. 소금혜영 잘 혜영 낫다근에 방상에 멩질헐 때민 그거 흔 각씩 다 아저가.(먹지도 않고 소금해서 옛날은 냉장고 없지 않니, 소금해서 잘 해서 놔두었다가 일가불이에 멩질할 때면 그거 한 다리씩 다 가져가.)

104029 @ 아. 꿩 코는 안 놔?(아, 꿩 올라미는 안 놔.)

104029 # 코 놓는 사름은 코 놓고.(코 놓은 사름은 코 놓고.)

104029 @ 할머닌 직접 안 봐난?(할머닌 직접 안 봤었어?)

104029 # 아니, 놔봤어. 하르방 일허당 심심허민 꿩 사농 텡겨낫주.(아니, 봤었어. 할아버지 일하다가 심심하면 꿩 사농 다녔었지.)

104029 @ 아.(아.)

104029 # 하르방도 흔 설라문에 스물 댕에 텡겨주. 나 한 후젠 안 텡겨보고. 이젠 산드레 꿩 사농 안허젠 산신이라고 안허지게.(할아버지도 한 설마흔에 스물 다섯에 다녔지. 나이 많은 후에 안 다녀보고. 이젠 중산간 꿩 사냥 안하려고 ‘산신’이라고 안전하게.)

104029 @ 예.(예.)

104029 # 게난 드르에 꿩 독새기 셔도 거 봉가당 먹지 안허여. 꿩비에기 이서도 안 봉가오라. 이제(그러니까 들에 꿩 알 있어도 그거 주워 먹지 않아. 껍병이도 있어도 안 주워와. 이제.)



104029 @ 썩 무시겨?(썩 뭐?)  
 104029 # 썩비에기.(꺼병이.)  
 104029 @ 썩빙에기.(꺼병이.)  
 104029 # 응, 것도 안 좇어오라. 이제.(응, 그것도 안 주워와. 이제.)  
 104029 @ 썩 독새기도 안 좇어와?(썩 알 안 주워와?)  
 104029 # 안 좇어와. 옛날은 다 봉그멍 먹어도.(안 주워와. 옛날은 다 주우면서 먹어도. )  
 104029 @ 거난. (그러니까.)  
 104029 # 안 좇어와. 이제덜은.(안 주어와. 이제들은.)  
 104029 @ 노루나 지다리나 이런 사냥은?(노루나 두더지나 이런 사냥은.)  
 104029 # 이딘 아니, 오라. 해변이라부난.(여긴 안 와. 해변이라서.)  
 104029 @ 아, 해변이라부난.(아, 해변이라서.)  
 104029 # 상동도 아니 오고. 산드레 나주.(상동도 안 오고. 산으로 나지.)  
 104029 @ 썩사농만예.(썩사냥만요.)  
 104029 # 해변 사름덜은 배 해영 켜기 나끄레 땡기고. (해변 사람들은 배 해서 고기 낚으러 다니고.)

## 5. 바다일

105001 @ 바다에서 허는 일은 주로 남자는 켜기 잡고.(바다에서 하는 일은 주로 남자는 고기 잡고.)  
 105001 # 남즈는 켜기 나끄레 배 해영 켜기 나끄레 땡기고. 줌수도 옛날은 소설 요만이헌 대, 소설헿 켜기 쏘도 허고 줌수덜.(남자는 고기 낚으러 배 해서 고기 낚으러 다니고. 줌수도 옛날은 소설 요만큼 한 대, 소설해서 고기 쏘기도 하고 줌수덜.)  
 105001 @ 응.(응.)  
 105001 # 가근에 물질허는 건. 옛날에 메역도 허꼭 고동, 고동. 이젠 소라라도 옛날은 고동도 잡고.(가서 물질하는 건. 옛날에 미역도 하고 소라, 소라. 이젠 소라라도 옛날은 고동도 잡고.)  
 105001 @ 응, 고동이 소라.(응, 고동이 소라.)  
 105001 # 몽게도 허고 해삼도 잡고 옛날은 경해도 그게 돈이 안 난 다 먹엇주 돈 안 사뵈.(문어도 하고 해삼도 잡고 옛날은 그래도 그게 돈이 안 나서 다 먹엇지. 돈 안 사뵈어.)  
 105001 @ 돈으로 허는 게 아니고. 집이 먹을 걸로.(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집에 먹을 걸로.)  
 105001 # 이젠 고동도 일 키로에 스천 원인가 삼천 얼마인가 험텐 헨게.(이젠

소라도 일 킬로에 사천 원인가 삼천 얼마인가 한다고 하더라.)

105001 @ 응.(응.)

105001 # 옛날은 고동도 혼 짐 가득 정 가사 돈 이십 원, 삼십 원 돼나마나라. 우리 두린 때.(옛날은 소라도 한 짐 가득 저서 가야 돈 이십 원, 삼십 원 되나마나야. 우리 어린 때.)

105001 @ 예.(예.)

105001 # 이제난 갯갯이 거 세월 남주. 옛날은 경 안 해났어.(이제니까 갯가의 거 세월 나고 있지. 옛날은 그렇게 안 했었어.)

105001 @ 고기 잡는 사람은 무신거엔 골아?(고기 잡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

105001 # 꿩 잡는 사람, 옛날은 꿩 나끄는 사람 보제기.(고기 잡는 사람, 옛날은 꿩 낚는 사람 ‘보제기’.)

105001 @ 물질허는 여자는?(물질하는 여자는?)

105001 # 해녀.(해녀.)

105001 @ 이제 말이 해녀주, 옛날도 해녀?(이제 말이 해녀지, 옛날도 해녀?)

105001 # 잠수.(잠수.)

105001 @ 잠수. 잠순 여자도 잠수, 남즈도 잠수?(잠수, 잠순 여자도 잠수. 남자도 잠수?)

105001 # 아니, 남즈 잠수 엇어. (아니, 남자는 잠수 없어.)

105001 @ 남잔 엇어, 여자 보고 잠수.(남자는 없어, 여자 보고 잠수.)

105001 # 응, 여자 보고 물질 잘허민 잠수. 옛날은 물질 잘행 갯갯이 물질허레만 뎡것주게. 이제사 잠수주게. 옛날은 물질허는 사람, 물질 잘허는 사람.(응, 여자 보고 물질 잘하면 잠수. 옛날은 물질 잘해서 갯가에 물질하러만 다녔지. 이제야 잠수지. 옛날은 물질하는 사람, 물질 잘하는 사람.)

105001 @ 예.(예.)

105001 # 옛날은 정해도 웃드르서도 옛날 막 옛날에도 이 물질 허는 사람 해벤 사람 물질허는 사람 좋아라 허주게.(옛날은 그래도 중산간에서 옛날 막 옛날에도 이 물질하는 사람 해변 사람 물질하는 사람 좋다고 하지.)

105001 @ 아.(아.)

105001 # 옛날은. 메역도 해다 주민 먹고 고동도 잡아다 주민 먹고 그거 좋아라 허여.(옛날은. 미역도 해다 주민 먹고 고동도 잡아다 주민 먹고 그거 좋아해.)

105002 @ 예, 듬북은?(예, 듬북은?)

105002 # 듬북은 옛날은 바당이 오염 안웨난 진대듬북이엔 허명, 므른 듬북이엔 허명 제라허게 허명 혼 말씩, 우리도 다 즈물앙 싣고.(듬북은 옛날은 바다가 오염 안 되니까 진대듬북이라고 하면서, 마른 듬북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해서 한 말씩, 우리도 다 채취해서 있고.)

105002 @ 예.(예.)

105002 # 여름엔 고주기<sup>99</sup>엔 현 거 해당 통시에도 놓고 걸름허곡 다시 마당에

널영 뽕수왕 그거 줍아냥 보리도 같고.(여름엔 ‘고주기’라고 한 거 해다가 통시에도  
놓고 거름 하고. 다시 마당에 널어서 뽕아서 그거 집어놔서 보리도 같고.)

105002 @ 무신거마씨?(뭘요?)

105002 # 고주기.(‘고주기’.)

105002 @ 고주기?(‘고주기’?)

105002 # 듬북 이름이 춤듬북<sup>100</sup>, 진대듬북<sup>101</sup>, 듬북이 여러 가지라.(듬북 이름  
이 참듬북, 진대듬북, 듬북이 여러 가지야.)

105002 @ 아, 듬북이 여러 가지짜?(아, 듬북도 여러 가지입니까?)

105002 # 응 노랑쟁이<sup>102</sup>도 싣고, 진대듬북도 싣고, 쥐듬북이엔 현 건 춤듬북이  
라 제라허게 현 거.(‘노랑쟁이’도 있고, ‘진대듬북’도 있고, ‘쥐듬북’이라고 한 건 ‘참  
듬북’이라 ‘제라허게’ 한 거.)

105002 @ 듬북은 아까 춤듬북이 싣고.(듬북은 아까 ‘참듬북’이 있고.)

105002 # 노랑쟁이.(‘노랑쟁이’.)

105002 @ 노랑쟁이.(‘노랑쟁이’.)

105002 # 진대듬북. 진댄 거 진 거.(‘진대듬북’. 길다고 그거 긴 거.)

105002 @ 진대듬북.(‘진대듬북’.)

105002 # 춤듬북이엔 현 쥐듬북<sup>103</sup>.(‘참듬북’이라고 한 ‘쥐듬북’.)

105002 @ 쥐듬북?(‘쥐듬북’?)

105002 # 응.(응.)

105002 @ 여러 가지가 잇구나예.(여러 가지가 있군요.)

105002 # 여름엔 고주기.(여름엔 ‘고주기’.)

105002 @ 고주기?(‘고주기’?)

105002 # 고지기.(‘고지기’.)

105002 @ 이건, 고지긴 여름에. (이건, ‘고지기’는 여름에.)

105002 # 그것도 보리 갈젠 허민 줍수 엇은 집인 빌영 즈물아근에 보리 시꺼다  
냥 보리 갈아났어.(그것도 보리 갈려고 하면 잠수 없는 집은 빌어서 채취해서 보리  
실어다 놓고 보리 갈았었어.)

105002 @ 듬북은 다 걸름으로만 씹니까?(듬북은 다 거름으로만 씹니까?)

105002 # 응, 다 걸름으로만. 문딱 걸름.(응, 다 거름으로만. 모두 거름.)

105002 @ 여름엔 고지기 가을엔?(여름엔 ‘고지기’ 가을엔?)

105002 # ㄱ을엔 저을 들민 거 거시기 노랑쟁이.(가을엔 겨을 들면 거 거시기  
‘노랑쟁이’.)

105002 @ 노랑쟁이.(‘노랑쟁이’.)

99) ‘고주기’는 ‘고지기’라고도 하며 해초의 한 종류다.

100) ‘춤듬북’은 해초 ‘듬북’의 한 종류다.

101) ‘진대듬북’은 해초 ‘듬북’의 한 종류다.

102) ‘노랑쟁이’는 해초의 한 종류다.

103) ‘쥐듬북’은 해초 ‘듬북’의 한 종류다.

105002 # 노랑쟁이 해당 물리왕 감저밧디 끌고.(‘노랑쟁이’ 해다가 말려서 고구마밭에 깔고.)

105002 @ 아, 이건 감저밧디 끌고. 듬북은 안 먹어?(아, 이건 고구마밭에 깔고. 듬북은 안 먹어?)

105002 # 다 듬북은 밧디 ㄱ는 거. 먹는 건 엇어.(다 듬북은 밧에 까는 거. 먹는 건 엇어.)

105002 @ 노랑쟁이 감저밧디 끌고 고지긴 아까 어디 보리밧디?(‘노랑쟁이’는 고구마밭에 깔고 ‘고지기’는 아까 어디 보리밭에?)

105002 # 통시에 담아놔근에 걸름, 돛걸름.(돼지우리에 담아 놔서 거름, 돼지거름.)

105002 @ 예, 돛걸름?(예, 돼지거름?)

105002 # 통시에 헤영 보릿대영 ㄱ치 담아놔 돛걸에 보리허젠 허민 걸름 허는 거.(돼지우리에 해서 보릿대랑 같이 담아놔서 돼지거름에 보리하려고 하면 거름 하는 거.)

105002 @ 돛걸름?(돼지거름?)

105002 # 응, 돛걸름.(응, 돼지거름.)

105002 @ 고지기는 무신 밧디 갈아?(‘고지기’는 무슨 밧에 갈아?)

105002 # 듬북에 보리 갈젠 허민 돛걸름 멩그는 거.(듬북에 보리 갈려고 하면 돼지거름 만드는 거.)

105002 @ 돛걸름 멩그는 게 고지기?(돼지거름 만드는 게 ‘고지기’?)

105002 # 경허곡 줍수덜 하영 헤지민 이녁냥으로 허는 거난 즈물아당 물리왕 뿌샹 거행 줍아냥 보리도 영 걸름 낱 갈곡.(그리고 잠수들 많이 하면 자기대로 하는 거니까 채취해다가 말려서 부수어서 그거 해서 집어 놔서 보리도 이렇게 거름 놔서 갈고.)

105002 @ 응.(응.)

105002 # 건 걸름, 듬북은 문 걸름.(그건 거름, 듬북은 모두 거름.)

105002 @ 다 걸름. 감태는 무신거파?(다 거름. 감태는 무엇입니까?)

105002 # 이제는 감태 허는 시기, 백 근이 혼 칭 아니파? 그거 허민 십만 원씩 감수게. 옛날은 그거허영 즈물민 술아근에 돌레떡 ㄱ치 찌깍허게 쥘으로만 행 얼마 이 허단 이젠 마다리 담아근에 이십키로민 십만 원.(이제 감태 하는 시기. 백 근이 혼 칭 아십니까? 그거 하면 십만 원씩 가고 있잖아요. 옛날은 그거 해서 채취하면 불 때서 도래떡처럼 뽅뽅하게 쥘으로만 해서 얼마만큼 하다가 이젠 마대에 담아서 이십 킬로면 십만 원.)

105002 @ 건 뒤에 쓰는 거파?(그건 뒤에 쓰는 겁니까?)

105002 # 거 어디 욱지 나감수게.(그거 어디 욱지 나가잖습니까?)

105002 @ 옛날은 뒤에 썬넛수과?(옛날은 뒤에 썬넛습니까?)

105002 # 옛날은 아무것도 안 해나난 돈이 어려와넛수게. 이제 바당에 그거 다

돈이께.(옛날은 아무것도 안 했었으니까 돈이 어려웠었습니다. 이제 바다에 그거 다 돈이잖아요.)

105002 @ 감태는 걸름 안합니까?(감태는 거름 안합니까?)

105002 # 감텐 옛날엔 걸름 해놔어.(감텐 옛날엔 거름 했었어.)

105002 @ 옛날에 감태도 걸름 했수과?(옛날에 감태도 거름 했습니까?)

105002 # 응, 걸름도 허고 술앙 찢으로도 행 풀곡.(응, 거름도 하고 불살라서 찢으로도 해서 팔고.)

105002 @ 찢으로 행 푸는 건 어떻허는 거파?(찢으로 해서 파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5002 # 일본 사름 사가난 것도 행 풀아놔어.(일본 사람 사가니까 그것도 해서 팔았었어.)

105002 @ 그건 어떻행 허는 거파?(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5002 # 술앙 술앙.(불살라서, 불살라서.)

105002 @ 술아근에.(불살라서.)

105002 # 술앙 허민.(불살라서 하면.)

105002 @ 불치?(재?)

105002 # 탁 텅에지주게 돌레떡 ㄴ치. 찢으로 찢 나근에.(탁 텅어리지지. 도래떡 처럼. 찢으로 찢 나서.)

105002 @ 찢 나근에.(찢 나서.)

105002 # 즈문 건 찢이 하영 나근에 바글바글허민 질질질질허게 이제 나이롱 술아가민.(채취한 건 찢이 많이 나서 바글바글하면 질질질질하게 이제 나이론 살라 가면.)

105002 @ 예.(예.)

105002 # 그추록. 경행 놔똥 막 행 열만이 행 것도 멧 칭<sup>104)</sup> 허민 열만이 행 풀아놔어.(그렇게. 그렇게 해서 놔두고 막 해서 열만큼 해서 그것도 멧 ‘칭’ 하면 열만큼 해서 팔았었어.)

105002 @ 감태를 경행 풀아난 거예.(감태를 그렇게 해서 팔았던 거요.)

105002 # 경허단 이제 감태 값이 금값이라 요새. 작년 재작년부터 혼 칭에 십만원.(그러다가 이젠 감태 값이 금값이야 요새. 작년, 재작년부터 한 ‘칭’에 십만원.)

105002 @ 듬북이나 감태는 개인으로 허는 거파, 마을 공동으로 허는 거파?(듬북이나 감태는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105002 # 이녁 개인으로 즈물앙 개인으로 허곡. 이 바당 전체에 올리민 바당 세영 듬북 ㄱ디 밀리민 듬북 허레 나간 사름은 ㄴ찌ㄴ찌 메와냥 허민 오름만씩 메와 놓민 하영 올린 땀 두 덩이엔 허민 물론 거 혼 짐 뉘고. 안 허민 혼 짐 안 헌 때는 공동으로 나가근에 문딱 메와냥 갈르주게. 혼 덩씩, 두 덩씩 갈라, 옛날에.(자기 개인으로 채취해서 개인으로 하고. 이 바다 전체에 올리면 바다 세어서 듬북 바닷가

104) ‘칭’은 무게의 단위로 60kg, 100근을 말한다.

에 밀리면 듬북 하러 나간 사람은 같이같이 메어놓고 하면 오름만큼씩 메워 놓으면 많이 올린 때는 두 더미라고 하면 마른 건 한 짐 되고. 안 하면 한 짐 안 한 때는 공동으로 나가서 모두 메워놓고 가르지. 한 더미씩, 두 더미씩 갈라, 옛날에.)

105002 @ 아, 공동으로 행 갈라.(아, 공동으로 해서 갈라.)

105002 # 경현디 바당에 오염돼 부난 듬북 안 남서.(그런데 바다에 오염되어 버리니까 듬북 안 나고 있어.)

105002 @ 응.(응.)

105002 # 옛날은 비료도 엇곡 아무것도 안 낱 것베끼 걸름헐 게 엇어노난. 경행 듬북 해당 갈아근에 밧디 고랑에 갈양 보릴 갈민 보리가 돼고.(옛날은 비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서 그것밖에 거름할 게 없어서. 그렇게 해서 듬북 해다가 깔아서 밧에 고랑에 깔아서 보리를 갈면 보리가 되고.)

105002 @ 예.(예.)

105002 # 그냥 걸름만 놔근에 웃드르 사름덜 돛걸름만 허민 보리가 안 돼주게. (그냥 거름만 놔서 중산간 마을 사람들 돼지거름만 하면 보리가 안 되지.)

105002 @ 아, 듬북이 이서야.(아, 듬북이 있어야.)

105002 # 옛날은 비료 엇어부난. 이제 비료가 나난 허고 안 허고 해 먹엄주.(옛날은 비료 없어버리니까. 이제 비료 나니까 하고 안 하고 해 먹고 있지.)

105003 @ 보말이영 갱인 어뎡 잡는 거짜?(고둥이랑 게는 어떻게 잡는 겁니까?)

105003 # 보말은 갯갯이 가민 훑은 돌 이만씩헌 돌, 옛날은 존존헌 돌 일러도 보말이 하고. 큰 돌 일르민 하영 잡곡 경허민 보말 잡으레 감젠허민 훑은 훑은 이만씩헌 보말 뒤이 잡으민 남저덜은 혼 말씩 잡아오곡 허는디 이제는 줌수덜이 물에 들영 그걸 든 잡아노난 엇덴 험디다.(고둥은 갯가에 가면 굵은 돌 이만큼씩 한 돌, 옛날은 자잘한 돌 일으켜도 고둥이 많고. 큰 돌 일으키면 많이 작고 그렇게 하면 고둥 잡으려 간다고 하면 굵은 굵은 이만큼씩 한 고둥 두어 사람이 잡으면 남자들은 한 말씩 잡아오고 하는데 이제는 해녀들이 물에 들어서 그걸 모두 잡아 놓으니까 없다고 함디다.)

105003 @ 줌수덜이 잡아 불멘.(해녀들이 잡아 버려.)

105003 # 그것도 일 킬로에 삼만 이천 원인가 삼만 삼천 원에 감텐. 큰 대접으로 하나베끼 안 허여. 경 빗나 보말.(그것도 일 킬로에 삼만 이천 원인가 삼만 삼천 원에 간대. 큰 대접으로 하나밖에 안 해. 그렇게 비싸 고둥.)

105003 @ 아.(아.)

105003 # 줌수덜 고둥 잡양 판매허당 못허민 고메기 느랑 잡아 노난. 줌고메기 보말 잇수게.(해녀들 소라 잡아서 판매하다 못하면 고둥 늘 잡아 놓으니까. 개울타리고둥 있잖아요.)

105004 @ 그때 곱아쥬신디 고메기 종류 다시 혼 번만 곱아쥬서.(그때 말해주셨는데 고둥 종류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105004 # 보말, 수두리.(고둥, 팽이고둥.)

105004 @ 수두리보말.(팽이고등.)  
 105004 # 응, 찰고메기.(응, 개울타리고등.)  
 105004 @ 찰고메기.(개울타리고등.)  
 105004 # 문더닥지.(눈알고등.)  
 105004 @ 문더닥지.(눈알고등.)  
 105004 # 네 개 아니라?(네 개 아니니?)  
 105004 @ 또 이서. 메옹이.(또 있어. 두드럭고등.)  
 105004 # 메옹이.(두드럭고등.)  
 105004 @ 또 엇어?(또 없어?)  
 105004 # 마타살<sup>105)</sup>. 메와져 부난 마타살.(‘마타살’. 메워져 버리니까 ‘마타살’.)  
 105004 @ 메와져 부난.(메워져 버리니까.)  
 105004 # 영헌 돌강알에 찌깍 메와지주게. 켜켜헌 거, 요만씩 헌 거.(이렇게 한 돌 아래에 가득 메워지지. 자잘한 거, 요만큼씩 한 거.)  
 105004 @ 뭐가 켈 맛좋아?(뭐가 제일 맛있어?)  
 105004 # 제일 가는 건 보말. 찰고메기. 보말은 크난에 열아놓민 허곡 존존헌 거 열아 먹는 건 찰고메기가 맛좋아.(제일 가는 건 고등. 개울타리고등. 고등은 크니까 열어 놓으면 하고. 자잘한 거 열어 먹는 건 개울타리고등이 맛있어.)  
 105004 @ 찰고메기가 맛좋아, 갱이도 잡지예?(개울타리고등이 맛있어, 게도 잡지요?)  
 105005 # 갱이도.(게도.)  
 105005 @ 갱이.(게.)  
 105005 # 찰갱이엔 헌 건 영 불긋불긋 너불너불헌 거고.(참게라고 한 건 이렇게 불긋불긋 넓적넓적한 거고.)  
 105005 @ 찰갱이.(참게.)  
 105005 # 지름갱인 켜켜헌 갱이고.(무늬발게는 자잘한 게고.)  
 105005 @ 지름갱이?(무늬발게?)  
 105005 # 응, 똥갱이도 잇주. 건 안 먹는 거.(응, ‘똥갱이’도 있지. 그건 안 먹는 거.)  
 105005 @ 똥갱인 안 먹는 거.(‘똥갱이’는 안 먹는 거.)  
 105005 # 심방갱이도 잇고.(두점박이민꽃게도 잇고.)  
 105005 @ 심방갱이도 잇고.(두점박이민꽃게도 잇고.)  
 105005 # 것도 안 먹는 거.(그것도 안 먹는 거.)  
 105005 @ 아, 이것도 안 먹는 거.(아, 이것도 안 먹는 거.)  
 105005 # 똥갱이랑 심방갱인 안 먹어.(‘똥갱이’랑 두점박이민꽃게는 안 먹어.)  
 105005 @ 아, 이건 안 먹는 거고.(아, 이건 안 먹는 거고.)

105) ‘마타살’은 ‘메옹이’와 같은 것으로 두드럭고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보자는 두 개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105005 # 춤쟁이허고 또 무신 지름쟁인 먹고.(참게와 또 무슨 무늬발게는 먹고.)  
 105005 @ 갯인 어떻 잡아?(게는 어떻게 잡아?)  
 105005 # 돌 일렁.(돌 일으켜서.)  
 105005 @ 것도 돌 일렁, 그냥.(그것도 돌 일으켜서, 그냥.)  
 105005 # 돌 일렁 허민 자갈밭된 막 이젠 엇어도 빙허게시리 돌 일렁 뱅뱅 돌  
 아가명 한가운디 메지민 막 바글바글 허주게. 게난 구덕에 못 잡지. 다 나와불어.  
 이 바가쓰 ㄴ쁜 거나 주전지 갖다놔 잡음베끼.(돌 일으켜서 하면 자갈밭에 막 이젠  
 엇어도 빙하게끔 돌 일으켜서 뱅뱅 돌아가면서 한가운데 모이면 막 바글바글하지.  
 그러니까 바구니에 못 잡지. 다 나와버려. 이 양동이 같은 거나 주전자 갖다놓고 잡  
 음밖에.)  
 105005 @ 아, 달아나불어. 뚜껑 이서야 돼여.(아, 달아나버려. 뚜껑 있어야 돼.)  
 105005 # 달아나지. 바글바글 달아나불지게.(달아나지, 바글바글 달아나버리지.)  
 105005 @ 돌 동글랑허게 일렁?(돌 동그렇게 일으켜서?)  
 105005 # 이게 돌이민 이거 ㄴ치 동글랑허게 마주쳐근에 그 돌 소굽에 바글바글  
 허주. 그레 다 기어 들어근에.(이게 돌이면 이거처럼 동그렇게 마주쳐서 그 돌 속에  
 바글바글하지. 거기로 다 안으로 들어와서.)  
 105005 @ 아, 그레 기어 들어.(아, 그리 안으로 들어와서.)  
 105005 # 춤쟁이가 지중 재주게.(참게가 제일 빠르지.)  
 105005 @ 아, 재어.(아, 빨라.)  
 105005 # 춤쟁이가 지중 재어. 똥쟁인 옛날에 바당 세가민 이깅장 올라오라. 이  
 집이깅지 올라오라.(참게가 제일 빨라. ‘똥쟁이’는 옛날 파도 세면 여기까지 올라와.  
 이 집까지 올라와.)  
 105005 @ 이 집까지?(이 집까지?)  
 105005 # 응, 이젠 똥쟁이도 배랑 엇지.(응, 이젠 ‘똥쟁이’도 별로 없지.)  
 105006 @ 예. 햇불로 해근에 바당에 것도 잡습니까?(예, 햇불로 해서 바다의 것  
 도 잡습니까?)  
 105006 # 응, 햇불.(응, 햇불.)  
 105006 @ 어떻게 잡는 거파?(어떻게 해서 잡는 겁니까?)  
 105006 # 햇불은양 이 옛날엔 삼할 땐 삼대도 허고 시방 새 ㄴ쁜 거 그신새<sup>106)</sup>  
 집 일어난 새 ㄴ린 거, 그런 거 해근에 요만씩 해근에 혼 뽀씩 줄라메어. 그거 행  
 저 봄이 고메기 잡으레 혼 스월만 낭 고메기 잡으레 그거 행 땃 개행 지영 가근에  
 허민 밤이 물이 싸민 보말이나 춤고메기 나주게. 벨롱벨롱허민 그거 물 바래지민  
 보말이 과짝허게 나주게 밤이. 이젠 엇어도 옛날은.(햇불은요 이 옛날에는 삼할 때  
 는 삼대도 하고 요즘 새 같은 거 ‘그신새’ 집 일었던 새 내린 거, 그런 거 해서 요  
 만큼씩 해서 한 뽀씩 줄라매. 그거 해서 저 봄에 고등 잡으러 한 사울만 나서 고등  
 잡으러 그거 해서 땃 개 해서 저 가서 하면 밤에 물이 썩면 고등이나 개울타리고등

106) ‘그신새’는 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나지. 반짝반짝하면 그거 물 보이면 고둥이 ‘과썉’하게 나지 밤에. 이젠 없어도 옛날은.)

105006 @ 불 영행.(불 이렇게 해서.)

105006 # 햇불 싸근에.(햇불 켜서.)

105006 @ 햇불 싸근에 강 보민.(햇불 켜서 가서 보면.)

105006 # 영행 바당더레 들르민 거떻게 잡아. 구덕 차근에.(이렇게 해서 바다에 들어가면 거떻게 잡아. 바구니 차고.)

105006 @ 손으로?(손으로?)

105006 # 구덕 차근에.(바구니 차고.)

105006 @ 구덕으로 영?(바구니로 이렇게?)

105006 # 차근에. 손으로 주성.(차서. 손으로 주워서.)

105006 @ 손으로 주성 구덕에 놔.(손으로 주워서 바구니에 놔.)

105006 # 응, 잡아놔.(응, 잡아 놔.)

105006 @ 돌 아니 일러도 돼어?(돌 안 일으켜도 돼?)

105006 # 안 일렁 폐적이 나주게. 이제도 잠수도 물 들어 갈 때엔 고메기가 돌우이 나와. 잠수덜이 다 잡아 와. 물 썬 땐 안 나고 들어올 때나 썰 땐 돌 우트레몬 솟아올라. 돌 소굽에 잇다근에.(안 일으켜서 표시가 나지. 이제도 잠수도 물 들어 갈 때엔 고둥이 돌 위에 나와. 잠수덜이 다 잡아 와. 물 썰 땐 안 나오고 들어올 때나 썰 땐 동 위로 모두 솟아올라. 돌 속에 있다가.)

105007 @ 아. 원담, 갯담이엔 현 건.(아. 원담, 갯담이라고 한 건.)

105007 # 원담이엔 현 건 바당에 개 안네 빙허게 다는 거 원담.(원담이라고 한 건 바다에 개 안에 빙허게 쌓는 거 원담.)

105007 @ 그 안네 꿰기도 들어와?(그 안네 고기도 들어와?)

105007 # 들어온 거 그물 행 거려.(들어온 거 그물로 떠.)

105007 @ 아, 그물로 거려.(아, 그물로 떠.)

105007 # 그물 논 사름덜 빙허게 그물 놓민 꿰기가 나가젠, 것도 그물 놓는 사름덜.(그물 놓은 사람들 빙허게 그물 놓으면 고기가 나가려고, 그것도 그물 놓는 사람들.)

105007 @ 아.(아.)

105007 # 사름마다 허는 건 아니주게.(사람마다 하는 건 아니지.)

105007 @ 사름마다 허는 건 아니?(사람마다 하는 건 아니?)

105007 # 아니. 갯곳이 땡기는 남저덜 거.(아니. 갯가에 다니는 남자들 거.)

105007 @ 아, 건 남저덜 허는 거짜?(아, 그건 남자들 하는 겁니까?)

105007 # 남저덜 꿰기 치레허영 물싸민 낚당 뒷날 물싸민 그물 걷으레 가곡 남저덜 허는 거, 여청 허는 거 아니.(남자들 고기 자랑하면서 물싸면 낚다가 뒷날 물싸면 그물 걷으러 가고 남자들 하는 거, 여편네들 하는 거 아니.)

105007 @ 여자 허는 거 아니.(여자 하는 거 아니.)

105007 # 남저도 갯굿이 땡기는 사름이 허주, 사름마다 허지 안허여. 거 허러 땡기는 사름이 허주.(남자도 갯가에 다니는 사람이 하지, 사람마다 하지 않아. 그거 하러 다니는 사람이 하지.)

105008 @ 원담이 땡싸지나 허민 어떻 허여?(원담이 무너지거나 하면 어떻게 해?)

105008 # 원담은 땡싸지민 개인으로 허는 거난 허고 무신 믋을에서 허는 건 아니주게. 믋을에서 허는 건 개맞<sup>107)</sup>.(원담 무너지면 개인으로 하는 거니까 하고 무슨 마을에서 하는 건 아니지. 마을에서 하는 건 ‘개맞’.)

105008 @ 개맞은 무신 거라?('개맞'은 뭐야?)

105008 # 개맞은 배 들이미는 거 개맞.('개맞'은 배 들이미는 거 ‘개맞’.)

105008 @ 아.(아.)

105008 # 거 마을에서 보제기, 배허는 사름덜 허민 개맞은 믋을에서 다 해주고. 옛날은 믋을에서 다 해주는데 이젠 우에서 보조 나왔서.(그거 마을에서 어부, 배하는 사람들 하면 ‘개맞’은 마을에서 다 해주고. 옛날은 마을에서 다 해주는데 이젠 위에서 보조 나오고 있어.)

105008 @ 옛날은 믋을에서.(옛날은 마을에서.)

105008 # 옛날은 불턱에 가근에 담 메와냥 영 뵁 싸냥 그 안네 불 썩. 이젠 잠수덜이 호강이라. 그디다 수도 걸어주곡, 전기 걸어주곡, 집 지서주곡.(옛날은 ‘불턱’에 가서 담 메워놓고 이렇게 벽 쌓아놓고 그 안에 불 켜서. 이젠 잠수들이 호강이야. 거기다 수도 걸어주고, 전기 걸어주고, 집 지어주고.)

105008 @ 맞아.(맞아.)

105008 # 물질힘이 아니라. 그디 행 다 해주민 보일라 다 걸어주곡.(물질힘이 아니야. 거기 해서 다 해주면 보일러 다 걸어주고.)

105008 @ 보조 다 나와예.(보조 다 나와요.)

105009 @ 이디서도 땡 거립니까?(여기서도 땡치 잡습니까?)

105009 # 옛날은 땡 들영 서너 말씩 땡 말씩 거려도 이젠 땡 안 든텐 험디다.(옛날은 땡치 들어서 서너 말씩 땡 말씩 잡아도 이젠 땡치 안 들어온다고 함디다.)

105009 @ 옛날엔 어떻 행 거리는 거파?(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잡는 겁니까?)

105009 # 바당에 막 그것가 파닥파닥 멘짝 들어오주게. 바당에서가 굿더레 밀령.(바다에 막 그것이 파닥파닥 모두 들어오지. 바다에서 갯가로 밀려서.)

105009 @ 언제?(언제?)

105009 # 봄 나민 혼 오월더레 나가민 막 들어오민 우터레 올려볼민 본 사름덜은 영 그냥 주서도 오고 동그랑헌 통더레 담양 거려도 오곡. 경행.(봄 나면 한 오월 되어가면 막 들어오면 위로 올려버리면 본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주워도 오고 동그란 통에 담아서 잡아도 오고. 그렇게 해서.)

105009 @ 마을에서 흠치 안 행 개인으로?(마을에서 함께 안 하고 개인으로?)

---

107) ‘개맞’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어귀로 배를 매어두는 포구를 말한다.

105009 # 가근에 아다루<sup>108</sup>헌 사름만.(가서 맞은 사람만.)  
 105009 @ 다 허는 거 아니고?(다 하는 거 아니고?)  
 105009 # 아니, 아니. 아다루헌 사름만.(아니, 아니. 맞는 사람만.)  
 105009 @ 아다루헌 사름만?(맞는 사람만?)  
 105009 # 아다루허민 지네 수정<sup>109</sup>이나 요디 멜 들엇젠 허민 강 해오주, 다른 사름은 참여 못 허여.(맞으면 자기네 가족이나 요기 멀치 들었다고 하면 가서 해오지, 다른 사람은 참여 못 해.)  
 105009 @ 다른 사름 참여 못 해?(다른 사람 참여 못 해?)  
 105009 # 물론 사름 못 가주게.(모른 사람 못 가지.)  
 105009 @ 물론 사름은 못 가.(모른 사람은 못 가.)  
 105009 # 바당에 아무만인 해도 이디 앓인 사름 그거 알아져?(바다에 아무만큼 해도 여기 앓은 사람 그거 알 수 있어?)  
 105009 @ 경해도 거 해당 반찬도 행 먹고.(그래도 그거 해다가 반찬도 해서 먹고.)  
 105009 # 그거 행 멜컷행 먹엇주. 플레도 땡기고. (그거 해서 멀치젓해서 먹엇지. 팔리도 다니고.)  
 105009 @ 같이 허는 건 아니고, 개인으로.(같이 하는 건 아니고, 개인으로.)  
 105009 # 아니, 아니. 개인으로. 이녁만씩 부지런헌 사름 성창 도는 사름 허는 거주. 아무나 못 허여.(아니, 아니. 개인으로. 자기만큼씩 부지런한 사람 선창 도는 사람 하는 거지. 아무나 못 해.)  
 105009 @ 어떤 마을에서는 ㄱ치덜 헌텐 헨게만은?(어떤 마을에서는 같이들 한다고 하던데만?)  
 105009 # 옛날은 해도 이 동네 흠치 해나진 안헨.(옛날은 해도 이 동네는 한꺼번에 하지는 않았어.)  
 105009 @ ㄱ치행 허는 건 엇구나예.(같이해서 하는 건 없군요.)  
 105009 # 하영 밀린 땡 지네 친촉 친촉 알아근에 해오주. 저 알동네 허민 이디 ㄱ장 알앙 허주. 우리도 이디 앓아불민 친촉 엇어불민 몰르주. 이녁 친촉이 곁아줘서 허주. 어떻 행 알아.(많이 밀려올 땡 자기네 친척, 친척 알아서 해오지. 저 아랫동네 하면 여기까지 알아서 하지. 우리도 여기 앓아버리면 친척 없으면 모르지. 자기 친척이 말해줘야 하지. 어떻게 해서 알아.)  
 105010 @ 궤긴 어떻 나끄는 거꽈?(고기는 어떻게 낚는 겁니까?)  
 105010 # 남저덜 춤대행 뒤 발씩 헌 거 해근에 낚시 돌아매고 뽕돌 메근에 덕<sup>110</sup>에 사근에.(남자들 낚싯대해서 두어 발씩 한 거 해서 낚시 돌아매고 낚싯봉 매어서 ‘덕’에 서서.)  
 105010 @ 덕이 어디꽈?(덕이 어디니까?)

108) ‘아다루’는 일본어 ‘あたる’로 맞다, 적중하다, 명중하다는 뜻이다.

109) ‘수정’은 수나 숫자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뜻하는 것이다.

110) ‘덕’은 바닷가나 바다 속의 큰 바위를 말한다.

105010 # 개맛 성창 돌 우이 사근에.(포구 선창 돌 위에 서서.)

105010 @ 아. 돌, 이.(아, 돌, 이.)

105010 # 물 싸불민 느려가그넝 물 썬 디 느려가근에 경험주게.(물 썬면 내려가서 물 썬 데 내려가서 그렇게 하고 있지.)

105010 @ 배 탕 나강도 허여?(배 타고 나가서도 해?)

105010 # 배 탕 나가는 사름도 주낙도 낱 퀴기 잡아오고 배로 나가근에 퀴기도 나까오고. 것도 보제기덜이나 갯곳이 뎡기는 사름이나 허주.(배 타서 나가는 사람도 주낙도 낱서 고기 잡아오고 배로 나가서 고기도 낱아오고. 그것도 어부들이나 갯가에 다니는 사람이나 하지.)

105011 @ 낱싯대, 낱싯줄은 어떻 장만해?(낱싯대, 낱싯줄은 어떻게 장만해?)

105011 # 낱싯줄은 이제사 낱싯줄이주, 옛날은 춤대허영 그자 영 서너 발씩 돌아멧 헛주.(낱싯줄은 이제야 낱싯줄이지, 옛날은 낱싯대해서 그저 이렇게 서너 발씩 달아매서 했지.)

105011 @ 줄 엇이 춤대만?(줄 없이 낱싯대만?)

105011 # 왕대 해근에 그자 돌아맨 뎡겨낱주. 이제사 낱싯줄이주, 옛날 낱싯줄이 어디 서? 낱싯줄 나곤 디가 뎡 년 안 뎡주게.(왕대 해서 그저 달아매서 다녔었지. 이제야 낱싯줄이지, 옛날 낱싯줄이 어디 있어? 낱싯줄 난 지가 뎡 년 안 뎡지.)

105011 @ 그냥 춤대만 해?(그냥 낱싯대만 해?)

105011 # 웃드르 사름도 나끄레 뎡겨주게.(중산간 마을 사람도 낱으러 다녔지.)

105011 @ 낱시는?(낱시는?)

105011 # 낱시 영 오고랑. 낱시덜.(낱시 이렇게 꼬부랑. 낱시들.)

105011 @ 바눔, 낱싯바눔.(바늘, 낱싯바늘.)

105011 # 옛날은 이녁냥으로 뎡글야.(옛날은 자기대로 만들어.)

105011 @ 낱시바눔을?(낱싯바늘을?)

105011 # 낱시바눔 쉼로 영영행 이녁냥으로 뎡글앗주만은 이제사 돈만 주민 다 사당.(낱싯바늘 쇠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대로 만들었지만 이제야 돈만 주면 다 사다가.)

105011 @ 뎡돌은?(낱싯봉은?)

105011 # 뎡돌도 옛날은 연철이엔 현 거 해당 녹영.(낱싯봉도 옛날은 연철이라고 한 거해다가 녹여서.)

105011 @ 무신거엔 현 거?(무엇이라고 한 거?)

105011 # 연, 연이엔 현 연철 허는 것가 이서낱주게.(연, 연이라고 한 연철 하는 것이 있었었지.)

105011 @ 연철?(연철?)

105011 # 그거 해영 불살황 영 솟아근에 구워근에 이녁냥으로 뎡글야.(그거 해서 불살라서 이렇게 삶아서 구워서 자기대로 만들어.)

105011 @ 뎡돌?(낱싯봉?)

105011 # 응, 뽕돌 뎡글야.(응, 낚싯봉 만들어.)

105011 @ 아.(아.)

105011 # 다 뎡글앙 해난. 낚시도 행 낚시도 뎡글앙 허고.(다 만들어서 했었어. 낚시도 해서 낚시도 만들어서 하고.)

105011 @ 낚싯대, 춤대에다가.(낚싯대, ‘참대’에다가.)

105011 # 왕대, 왕대. 혼 뒤 발씩 헌 거 해근에.(왕대, 왕대. 한 뒤 발씩 한 거 해서.)

105011 @ 끝에 낚시틀?(끝에 낚시틀?)

105011 # 이젠 맨살로 행 이서근에 영행 낫당 그레 영행 굿더레 니껍 뎡 대민 그거 물영 나끄주게. 옛날도 꿩기 나끄는 사름은 잘 나끄주게.(이젠 맨살로 해서 이어서 이렇게 해서 낚다가 거기에 이렇게 해서 갯가에 미끼 꿩어서 대면 그거 물어서 낚지. 옛날도 고기 낚는 사름은 잘 낚지.)

105012 @ 작살은?(작살은?)

105012 # 작살?(작살?)

105012 @ 소살?(소살?)

105012 # 소살.(소살.)

105012 @ 건 어떻 행 잡는 거파?(그건 어떻게 해서 잡는 겁니까?)

105012 # 그건 소살 줍수도 허고 남즈덜도 쏘레 뎡기는 사름은 쏘레 뎡기는디 이만인 허게 행 요디 행 연철꺾치 영 꿩기 톱 걸어지민 니껍 꿩민 고기가 탁 물민 꿩어정 거슴 진 것에 무꺼지민 빠지질 안 허난 쏘아, 물에 들어근에.(그건 작살 잠수도 하고 남자들도 쏘러 다니는 사름은 쏘러 다니는데 이만큼 하게 해서 요기 해서 연철처럼 이렇게 고기 톱 걸리면 미끼 끼우면 고기가 탁 물면 끼워져서 얼른 긴 것에 묶이면 빠지지 않으니까 쏘아, 물에 들어가서.)

105012 @ 아.(아.)

105012 # 물소굽에 들어강. 고무줄 줄라메영 총 쏘듯 헤영 톱 쏘아근에.(물속에 들어가서. 고무줄 줄라매서 총 쏘듯 해서 톱 쏘아서.)

105012 @ 아, 고무줄로.(아, 고무줄로.)

105012 # 고무줄로 허고 대 헤영 요만인 허영 소살대 헤영 그디 소살 찢러근에.(고무줄로 하고 대 해서 요만큼 해서 작살대 해서 거기 작살 찢러서.)

105012 @ 건 남자덜 허는 거파?(그건 남자들 하는 겁니까?)

105012 # 여칭덜 줍수덜.(여편네들 잠수들.)

105012 @ 여칭 줍수들 허는 거.(여편네 잠수들 하는 거.)

105012 # 줍수 꿩기 쏘는 사름. 굿디 들영 고동 미신거 못 잡으민 꿩기만 쏘주게. 꿩기 쏘민 오만 꿩길 다 쏘아. 경허민 물질허는 사름덜 꿩기 쏘아당 제숙<sup>111)</sup>도 허고 이녁 뎡질도 행 먹어낫주게.(잠수 고기 쏘는 사름. 갯가에 들어서 소라 무엇 못 잡으면 고기만 쏘지. 고기 쏘면 온갖 고길 다 쏘아. 그러면 물질하는 사름들 고

111) ‘제숙’은 제사에 쓰는 고기로 제육을 이르는 말이다.

기 쏘아다가 제육도 하고 자기 명절도 해서 먹었었지.)

105013 @ 케기 잡으레 땡기는 배도 여러 종류가 잇수과?(고기 잡으러 다니는 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105013 # 옛날은 발동기가 엇이난 풍선.(옛날은 발동기가 없으니까 풍선.)

105013 @ 다 풍선?(다 풍선?)

105013 # 풍선 해근에 허민게 큰 배, 작은 배. 작은 건 뽕메<sup>112</sup>.(풍선 해서 하면 큰 배, 작은 배. 작은 건 거룻배.)

105013 @ 작은 건 뽕메?(작은 건 ‘뽕메’?)

105013 # 뽕메.(‘뽕메’.)

105013 @ 뽕메.(‘뽕메’.)

105013 # 큰 건 큰 배.(큰 건 큰 배.)

105013 @ 큰 건 그냥 큰 배.(큰 건 그냥 큰 배.)

105013 # 작은 건 뽕메 경행 땡겨났지.(작은 건 거룻배 그렇게 해서 다녔었지.)

105022 @ 지금 테우는?(지금 떼는?)

105022 # 테우엔 현 건 술진 남 해근에 딱 남으로만 고작허게 놔근엔 한가운디 남 찢렁 네도 흐나만 행 영행 영영 터밴 짓고.(떼라고 한 건 살찐 나무 해서 딱 나무로만 곧게 놔서 한가운데 나무 찢러서 노도 하나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떼배는 짓고.)

105022 @ 터배.(떼배.)

105022 # 옛날 터배행 자리 거리레 땡겨났주게. 그거행 배 아니라도 터배로, 자리 거리레 땡겨났주게.(옛날 떼배해서 자리 잡으러 다녔었지. 그거 해서 배 아니라도 떼배로, 자리 잡으러 다녔었지.)

105023 @ 초석배도 이수과?(돛단배도 있습니까?)

105023 # 초석이엔 현 건 배에 큰 배민 상선허민 대에 돌아매영 퍼들퍼들 허는 게 배 초석이주게.(돛이라고 한 건 배에 큰 배면 상선하면 대에 달아매어서 ‘퍼들퍼들’ 하는 게 배 돛이지.)

105023 @ 초석은.(돛은?)

105023 # 초석은 다시 또 대해여근에 광목으로 멘드는 거. 배 초석.(돛은 다시 또 대 해서 광목으로 만드는 거. 배 돛.)

105023 @ 배 초석.(배 돛.)

105023 # 이녁양으로 다 멩그는 거, 옛날도.(자기대로 다 만드는 거, 옛날도.)

105023 @ 응.(응.)

105023 # 큰 배 허영 한가운디 대 세우민 그거 허영 돌아매민 브름에 가렌 그 거 배 초석.(큰 배 해서 한가운데 대 세우면 그거 해서 달아매면 바람에 가라고 그 거 배 돛.)

---

112) ‘뽕메’는 일본어 ‘てんません(伝馬船)’에서 온 말로 돛을 달지 않고 가까운 바다를 다니는 가장 작은 배인 거룻배를 이르는 말이다.

105023 @ 예, 그민 풍선에 배 초석을 다는 거?(예, 그러면 풍선은 배 돛을 다는 거?)

105023 # 큰 거 하나 달고 큰 뱀 또 쪼그만헌 거 하나 달고 두 개 들앙.(큰 거 하나 달고 큰 배는 또 쪼그마한 거 하나 달고 두개 달아서.)

105023 @ 배 초석을 두 개 달앙.(배 돛을 두 개 달아서.)

105023 # 뱀 불민 뇌 하나만 젖어도 나가주게. 그거 배 초석.(바람 불면 노 하나만 젖어도 나가지. 그거 배 돛.)

105023 @ 그게 배 초석.(그게 배 돛.)

105023 # 광목으로 허는 거.(광목으로 하는 거.)

105023 @ 광목으로예. 레기배 종류는 풍선 있고, 터배 있고.(광목으로요. 고깃배 종류는 풍선 있고, 떼배 있고.)

105023 # 풍선 있고 터배 있고 족으민 뽕배게. 이젠 발동기이여 무신거 허주만은 옛날은 다 풍선이란. 풍선으로 젖어근에 육지도 가곡. 옛날에 돛 들앙 육지서 부산서 이디도 오곡. 이디서 부산도 가곡 해낫주게. 막 옛날에덜은.(풍선 있고, 떼배 있고, 작으면 거룻배. 이젠 발동기다 무엇 하지만 옛날은 다 풍선이니까. 풍선으로 저어서 육지도 가고. 옛날에 돛 달아서 육지서 부산서 여기 오고. 여기서 부산도 가고 했었지. 아주 옛날에덜은.)

105023 @ 영 젖는 건 뭇엔 곱아?(이렇게 젖는 건 뭇라고 말해?)

105023 # 뇌.(노.)

105023 @ 뇌.(노.)

105023 # 우리도 물질 스 년 탱겨신디 이 뇌 젖어가민 이디 놓민 하뇌<sup>113)</sup>엔 현 큰 뇌 이물에 영 끼우고 양옆인 혼 옆이 큰 뇌 말앙, 뇌 것도 새맞춰<sup>114)</sup> 젖어사.(우리도 물질 사 년 다녔는데 이 노 저어가면 여기 놓으면 ‘하뇌’라고 한 큰 노 이물에 이렇게 끼우고 양옆엔 한 옆에 큰 노 말고, 노 그것도 ‘새맞춰’서 저어야.)

105023 @ 응.(응.)

105023 # 물 거렁 짹짹. 물 안 거렁 사름은 거 새맞춰 젖어사. 우리도 느랑 해 낫어.(물 떠서 짹짹. 물 안 뜬 사름은 그거 ‘새맞춰’서 저어야. 우리도 늘 했었어.)

105023 @ 것도 노래 부르멍.(그것도 노래 부르면서.)

105023 # 이어도 사나, 이어싸 어어. 경허멍 막 신나게 젖어사. 것도, 재미지게 젖어사 것도. 우리도 해낫주. 스 년 가서 뇌 젖는 디만 탱겨나난.(‘이어도 사나, 이어싸, 어어’. 그렇게 하면서 아주 신나게 저어야. 그것도, 재미있게 저어야 그것도. 우리도 했었지. 사 년 가서 노 젓는 데만 다녔었으니까.)

105014 @ 잠수들이 강 잡앙 오는 건 뭇 잡아옵니까?(해녀들이 가서 잡아 오는 건 뭇 잡아옵니까?)

105014 # 잡앙 오는 건 곱암주게. 생복.(잡아 오는 건 말하고 있지. 전복.)

113) ‘하뇌’는 배 뒷쪽에서 젓는 노를 말한다.

114) ‘새맞다’는 보통 방아 찧는 사람이 시간을 잘 맞춰 방앗공이가 서로 부딪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노를 저을 때 시간을 잘 맞춰서 젓는 것을 말하고 있다.

105014 @ 생복.(전복.)

105014 # 생복도 잡곡 고동도 잡고.(전복도 잡고 소라도 잡고.)

105014 @ 고동도 잡곡.(소라도 잡고.)

105014 # 저술 들민 해삼도 잡곡.(겨울 들면 해삼도 잡고.)

105014 @ 해삼도 잡곡.(해삼도 잡고.)

105014 # 그거주게.(그거지.)

105015 @ 잠수덜 바당에 들 때 뭐 뭐 가정가?(해녀들 바다에 들어갈 때 뭐 뭐 가져가?)

105015 # 옛날은 잠수덜 허민 빗창해근에 속곳 입을 때난. 옛날은 속곳 하나만 입으면 속곳 해근에 영 접앙 이녁냥으로 멩글앙 입으면 영 곰 들민 빗창 차곡 해신디, 이젠 빗창을 손에 걸영 지룽지룽 낚고, 망사리도 강 바당에게 다 띄와근에 물질헌텐 헛게. 옛날은 경 안 해나신디.(옛날은 해녀들 하면 ‘빗창’해서 속곳 입을 때니까. 옛날은 속곳 하나만 입으면 속곳 해서 이렇게 접어서 자기대로 만들어서 입으면 이렇게 고름 달면 ‘빗창’ 차고 했는데, 이젠 ‘빗창’을 손에 걸어서 ‘지룽지룽’ 끌고, 망사리도 가서 바다에 다 띄워서 물질한다고 하던데, 옛날은 그렇게 안 했었는데.)

105015 @ 옛날은 어떻게해낫수과?(옛날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105015 # 테왁 내불민 그자 불려난 대로 가주게.(‘테왁’ 내버리면 그저 날아간 대로 가지.)

105015 @ 어떻 좇아?(어떻게 찾아?)

105015 # 히영 강 심어오주게.(헤엄쳐서 가서 잡아오지.)

105015 @ 히영 강? 물질허레 갈 거여 허민 무신거 가정가?(헤엄쳐서 가서? 물질하러 갈 거다 하면 무엇 가져가?)

105015 # 메역혈 땀 호미 아지고.(미역할 땀 호미 가지고.)

105015 @ 물질허레 갈 때 뭐 뭐 가정 간다고? 옛날에.(물질하러 갈 때 뭐 뭐 가지고 간다고? 옛날에.)

105015 # 옛날엔 검질, 질구덕 해근에 검질 짹짹 불르멍 담고 속곳 아지고 메역혈 땀 호미 아지고.(옛날엔 검불, ‘질구덕’ 해서 검불 짹짹 땀으면서 담고 속곳 가지고 미역할 땀 호미 가지고.)

105015 @ 속곳 가지고?(속곳 가지고?)

105015 # 응, 속곳을 입은 걸 헤영 여라 개 행 입으면 물질 뒤 번이나 들젠 허민 갈아입지 안허고 경 안허민 아니 몰르난 속곳 뒤 개 아지곡. 검질 질구덕에 담아 아지고.(응, 속곳을 입은 걸 해서 여러 개 해서 입으면 물질 두어 번이나 들려고 하면 갈아입지 않고 그렇게 안하면 안 마르니까 속곳 두어 개 가지고. 검불 ‘질구덕’에 담아 가지고.)

105015 @ 건 무사 가정 가는 거파?(그건 왜 가지고 가는 겁니까?)

105015 # 불 출 거.(불 췌 거.)



105015 @ 아, 불 출 거.(아, 불 쥘 거.)

105015 # 물에 들어냥 불 출 거.(물에 들어 갔다가 나와서 불 쥘 거.)

105015 @ 것도 아정 가는구나예.(그것도 가져 가는군요.)

105015 # 이녁 아정 가사 이녁냥으로 불 추주게. 불턱에 혼 대으섯이 앓이민 가  
운디 솜양 양펜이 앓앙 추고.(자기 가져 가야 자기대로 불 쥘지. 불턱에 한 대여섯  
이 앓으면 가운데 살라서 양편에 앓아서 쥘고.)

105015 @ 응.(응.)

105015 # 다시 또 썩 앓일 거 뚜데기<sup>115)</sup> 님은 거. 뚜데기 혼나 아지고.(다시 또  
썩서 앓을 거 ‘뚜데기’ 같은 거. ‘뚜데기’ 하나 가지고.)

105015 @ 뚜데기도 혼나 아지고.(‘뚜데기’ 하나 가지고.)

105015 # 경혜사 썩 아정 불 출 거.(그래야 썩서 앓아서 불 쥘 거.)

105015 @ 예.(예.)

105015 # 경행 텡겨낫지. 경행 지아저근예. 테왁 행 그 우이 놓고 행 지아정.(그  
렇게 해서 다녔었지. 그렇게 해서 저서. ‘테왁’ 해서 그 위에 놓고 저서.)

105015 @ 테왁 밋에 잇는 건 뭐라? ‘테왁’ 밑에 잇는 건 뭐야?)

105015 # 망사리. 망사리에 테왁이영 혼디 부튼 거주게.(‘망사리’. ‘망사리’에 ‘테  
왁’이랑 함께 붙은 거지.)

105015 @ 부튼 거예. 빗창이영 호미영 무신 호미엔 안행 그냥 호미?(붙은 거요.  
빗창이랑 호미랑 무슨 호미라고 안하고 그냥 호미?)

105015 # 갯굿이 텡기는 호미 영 무꾼 뭐가 잇주. 중개호미<sup>116)</sup>.(갯가에 다니는  
호미 이렇게 묶은 뭐가 있지. ‘중개호미’.)

105015 @ 중개호미.(‘중개호미’.)

105015 # 아정가민 빗창은 허리에 찻당.(가져가면 ‘빗창’은 허리에 찻다가.)

105015 @ 빗창은 허리에 차고.(‘빗창’은 허리에 차고.)

105015 # 찻당 생복 봐지민 생복 틀 거.(찻다가 전복 보이면 전복 딸 거.)

105015 @ 생복 틀 거. 주로 게민 중개호미 들렁 가는 거파?(전복 딸 거. 주로  
그러면 ‘중개호미’ 들고 가는 겁니까?)

105015 # 메역혈 때 아정 가민 메역혈 거.(미역할 때 가져 가면 미역할 거.)

105015 @ 눈은?(물안경은?)

105015 # 눈 아지고.(물안경 가지고.)

105015 @ 눈은 어떤 눈이파?(물안경은 어떤 물안경입니까?)

105015 # 두 개짜리 조그만헌 거 베롱헌 거. 우린 큰눈은 안 써나신디 베롱헤게  
두 개 영헌디 혼 착씩 실 꿰영 고무줄 행 영 써근에 수건 쓰고.(두 개짜리 조그마한  
거 ‘베롱’한 거. 우린 큰눈은 안 썼었는데 ‘베롱’하게 두 개 이렇게 한테 한 짝씩 실  
꿰어서 고무줄 해서 이렇게 써서 수건 쓰고.)

115) ‘뚜데기’는 해녀들이 간편한 이불로 삼거나 추위를 막기 위해 어깨에 걸치는, 누벼 만든 작은 이불 비슷한 것이다.

116) ‘중개호미’는 해녀들이 물속에서 미역 등의 해초를 베는 데 쓰는 도구이다.

105015 @ 수건 쓰고.(수건 쓰고.)

105015 # 수건 썸 그 우이 영 썸 물 덕에 강 다까근에 느리왕 썸 베리고. 쪼끄만 현 거.(수건 써서 그 위에 이렇게 써서 물 바위에 가서 닦아서 내려서 써서 보고. 조그만 거.)

105015 @ 조끄만현 건 족은눈이엔 곱아?(조그마한 건 ‘족은눈’이라고 말해?)

105015 # 응.(응.)

105015 @ 큰 건 큰눈?(큰 건 ‘큰눈’?)

105015 # 요새덜은 이만씩 현 눈 쓰지 안허여?(요새들은 이만큼씩 한 눈 쓰지 않아?)

105015 @ 예, 옛날엔 족은눈 써낫어예.(예, 옛날엔 ‘족은눈’ 썼었어요.)

105015 # 우린 큰눈 안 써봤 물질 설러 불언. 난 물질 흐, 일 버천에 흐 육십<sup>7</sup>장 베끼 안허난 큰눈 안 써봤.(우린 ‘큰눈’ 안 써보고 물질 그만뒀어. 난 물질 한, 일 힘들어서 한 육십까지밖에 안 하니까 ‘큰눈’ 안 써봤어.)

105017 @ 고무옷은 언제 나왔수과? 할머니 고무옷 입어봤?(고무옷은 언제 나왔습니까? 할머니 고무옷 입어봤어?)

105017 # 우리 안 입어봤. 우리 물질할 때도 고무옷 안 입어봤. 거난 고무옷 나 건 디도 흐 삼십 년 베끼 안 돼실 걸.(우리 안 입어봤어. 우리 물질할 때도 고무옷 안 입어봤어. 그러니까 고무옷 난 지도 한 삼십 년밖에 안 되었을 걸.)

105017 @ 할머니 속곳만 입영 해낫구나예.(할머니 속곳만 입어서 했었군요.)

105017 # 속곳만 입언 해낫주. 물적삼<sup>117</sup>도 베랑 안 입고.(속곳만 입어서 했었지. 물적삼도 별로 안 입고.)

105017 @ 물적삼은 속곳 우이 입는 거?(물적삼은 속곳 위에 입는 거?)

105017 # 속곳행 우이 적삼 입영 해영현 적삼 해근에 입영 그 우터레 네큰<sup>118</sup>매고.(속곳해서 위에 적삼 해서 입어서 하얀 적삼 입어서 그 위에 ‘네큰’ 매고.)

105017 @ 무신거 매고?(무엇 매고?)

105017 # 속곳에 옛날은 이젠 뽀스 닳아도 영행 허민 옆으로 터근에 흐 착 가달은 다 꺾지고 흐 착 가달은 옆으로 영현디 다 단추 매곡 네큰 들앙 매고.(속곳에 옛날은 이젠 팬티 같아도 이렇게 하면 옆으로 터서 한 쪽 다리는 다 꺾고 한 쪽 다리는 옆으로 이렇게 한테 다 단추 매고 ‘네큰’ 달아서 매고. 그랬었어.)

105017 @ 매클?(매클?)

105017 # 네큰.(‘네큰’.)

105017 @ 네큰 들앙 매고.(‘네큰’ 달아서 매고.)

105017 # 경현 때베끼 우리 물질 안 해난.(그런 때 밖에 우리 물질 안 해봤어.)

105017 @ 옛날 물질이영 이제 물질이영 이제 막 쉬와?(옛날 물질이랑 이제 물질이랑 이제 아주 쉬워?)

117) ‘물적삼’은 속곳 위에 입는 적삼으로 물에서 입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118) ‘네큰’은 끈을 달아서 저고리 고름처럼 묶는 것을 말한다.

105017 # 이제 물질은 옷 입언 허곡 허난 이젠 옛날은 잘 산 사람이 혼 시간 살주만은. 늙은 할망덜은 삼십 분베피 못 살주만은 이제덜은 세 시간, 네 시간 살암서, 바당에.(이제 물질은 옷 입어서 하고 하니까 이젠 옛날은 잘 산 사람이 한 시간 살지만은. 늙은 할머니들은 삼십 분밖에 못 살지만은 이제들은 세 시간, 네 시간 살아, 바다에.)

105017 @ 아이고, 힘들지 안해?(아이고, 힘들지 않아?)

105017 # 힘들어도 험주게. 이 헛물<sup>119</sup>헛 뎌 세 시간씩, 네 시간씩 살아.(힘들어도 하지. 이 ‘헛물’할 때는 세 시간씩, 네 시간씩 살아.)

105017 @ 고무옷 나난 경해지는 거짜?(고무옷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105017 # 응, 고무옷 입으난. 우알 다 고무옷, 모즈도 고무옷. 고무옷 입영 연철 해근에 요넨씩 헛 거 시 개 차는 사람, 네 개 차는 사람도 잇고. 경해사 들어가.(응, 고무옷 입으니까. 위아래 다 고무옷, 모자도 고무옷. 고무옷 입어서 연철 해서 요만 큼씩 한 거 세 개 차는 사람, 네 개 차는 사람도 잇고. 그래야 들어가.)

105017 @ 옛날엔 그런 거 엇어났수게?(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습니까?)

105017 # 옛날 엇어, 발에 고무발 요새.(옛날에 엇어, 발에 고무발 요새.)

105017 @ 오리발.(오리발.)

105017 # 오리발 신영 아지고. 경허난 오래 바당에만 사는 거. 궂디 강 베랑 놀지 안허영 그자 일허당도 빠정 물건 행 풀고.(오리발 신어 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바다에만 사는 거. 갯가에 가서 별로 놀지 않으면 그저 일하다가도 빠져서 물건 해서 팔고.)

105016 @ 옛날 허는 거영 비교허민 이젠 막.(옛날 하는 거랑 비교하면 이젠 막.)

105016 # 호강이주.(호강이지.)

105016 @ 호강이라예.(호강이지요.)

105016 # 경허난 불도 솜양 찻주만은 이제도 솜양 찻문 해도 전기불로 전기 걸어노난 그디서 물 데와근에 데와진 물로 목욕허곡, 바당에 물에 들어나민 목욕허곡, 그디서 커피 끌러 먹구정 허민 이녁 커피 아정강 끌러 먹곡. 수도 걸어 놓고게 보일라 걸어 놓고 허난 딱땃헛 디 앓앙 걱정이 엇주게.(그러니까 불도 때서 쪼지만 이제도 때서 쪼면 해도 전깃불로 전기 걸어놓으니까 거기서 물 덥혀서 덥힌 물로 목욕하고, 바다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목욕하고, 거기서 커피 끓여서 먹고 싶으면 자기 커피 가져가서 끓여 먹고. 수도 걸어 놓고 보일러 걸어 놓고 하니까 따듯한 데 앓아서 걱정이 없지.)

105016 @ 예.(예.)

105016 # 집 이서 놓난게 집이 행장 놓고 집 안네 앓앙 불추곡. 시방 물질허는

119) ‘헛물’은 해녀들이 전복이나 소라를 캐는 작업으로, 해조류를 일정기간에 때 맞추어 캐는 경우와 달리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헛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거 호강허는 거주. 이제 물질허는 사름덜 우리 동네 배우는 사름도 엇곡 이제 줌수덜 몇 개 엇어불민 줌수도 엇주.(집 있어 놓으니까 집에 행장 놓고 집 안에 앉아서 불찌고. 시방 물질하는 거 호강하는 거지. 이제 물질하는 사람들 우리 동네 배우는 사람도 없고 이제 해녀들 몇 개 없어버리면 해녀도 없지.)

105016 @ 물질허는 옷은 그냥 옛날에 속곳 그다음은 바로 고무옷 낫수과?(물질하는 옷은 그냥 옛날에 속곳 그다음에 바로 고무옷 낫습니까?)

105016 # 응, 속곳 입단 다음은 고무옷 난.(응, 속곳 입다가 다음은 고무옷 나왔어.)

105016 @ 아, 그 더 옛날에도 속곳 똑ㄴ튼 거?(아, 그 더 옛날에도 속곳 똑같은 거?)

105016 # 옛날에도 속곳이 소중의.(옛날에도 속곳이 ‘소중의’.)

105016 @ 소중의, 속곳이나 소중의나 ㄴ튼 거.(‘소중의’, 속곳이나 ‘소중의’나 같은 거.)

105016 # 응, ㄴ튼 거. 옛날 물질허는 사름덜이나 따시 물질 안허는 사름도 옛날은 소중의 입어낫주게, 여청덜은.(응, 같은 거. 옛날 물질하는 사람들이나 다시 물질 안하는 사람도 옛날은 ‘소중의’ 입었었지, 여편네들은.)

105016 @ 예.(예.)

105016 # 입어낫어. 아이들도 행 입고. 옛날은 바지도 영행 허민 밋 영행 밋 튼 바지행 입영. 이젠 바지도 밋 부짱 혼디 다 어울령 나오지 안햐수과? 옛날은 경 안해낫주. 다 갈라전.(입었었어. 아이들도 해서 입고. 옛날은 바지도 이렇게 하면 밑이렇게 밑 터진 바지 해서 입어서. 이젠 바지도 밑 붙여서 함께 다 어울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은 그렇게 안했었지. 다 갈라져서.)

105016 @ 줌수덜 입는 옷이 옛날 입어난 거영 이제영.(해녀들 입는 옷이 옛날 입었던 거랑 이제랑.)

105016 # 저 이제 옛날은 그 소중의 입언, 속곳 입언 물질 해신디 이젠 고무옷 입으난 뽀스 입영 물질허는, 뽀스 입영 고무옷 입엄주게. 팬티 입어근에. 경행 물질 허여.(저 이제 옛날은 그 ‘소중의’ 입어서, 속곳 입어서 물질했었는데 이젠 고무옷 입으니까 팬티 입어서 물질하는, 팬티 입어서 고무옷 입고 있지. 팬티 입어서. 그래서 물질 해.)

105018 @ 툄?(툄?)

105018 # 툄는 바당에서 옛날은 경 툄 하영 나민 우리가 물찌 나민 줌수덜 물질헌 사름 들영 비어근에 지어당 물덕에 저당 테역밧디 저당 물리와근에 걸 폴양 공동으로 돈 걷어나신디 이젠 툄 오염 돼영 배랑 안 나난 그자. 요새덜은 그자 당헌 냥.(툄은 바다에서 옛날은 그렇게 툄 많이 나면 우리가 물때 나면 줌수덜 물질한 사람 들어서 베어서 저다가 물가 바위에 저다가 잔디밭에 저다가 말려서 그걸 팔아서 공동으로 돈 걷었었는데 이젠 툄 오염 되어서 별로 안 나니까 그저. 요새들은 그저 당한 대로.)

105018 @ 예.(예.)

105018 # 것도 팔월 나근에 구월이나 나사 톨 나주게. 이젠 당허는 냥 비어당 먹어비영. 옛날은 잠수덜 그것에 헨 돈 하영 해낫주게. 공동으로 해여근에.(그것도 팔월 나사 구월이나 나야 톨 나지. 이젠 당하는 대로 베어다가 먹어버려. 옛날은 잠수들 그것에 해서 돈 많이 했었지. 공동으로 해서.)

105018 @ 공동으로 톨은.(공동으로 톨은.)

105018 # 바당에 텅기는 사름 전부 공동으로 허영.(바다에 다니는 사람 전부 공동으로 해서.)

105018 # 바당에 텅기는 사름은 전부 공동으로 해영. 공동으로 해근에 강 그거 행 물리왕 창고에 낫당 풀민 공동으로 돈 해나신디 옛날은, 이젠 그자 톨 나민 뽕아 먹어불민.(바다에 다니는 사람은 전부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해서 가서 그거 해서 팔려서 창고에 낫다가 팔면 공동으로 돈 했었는데 옛날은, 이젠 그저 톨 나면 뽕아 먹어버리면.)

105018 @ 옛날엔 공동을 행 어디?(옛날엔 공동을 해서 어디?)

105018 # 육지서 다 받아 가주게. 어촌계 조합에서 오라근에 다 받아 가주게. 하영 나민 하영 갈라먹고 죽영 나민 죽영.(육지서 다 받아 가지. 어촌계 조합에서 와서 다 받아 가지. 많이 나면 많이 나눠먹고 적게 나면 적게.)

105018 @ 옛날에 할머니 물질할 때도?(옛날에 할머니 물질할 때도?)

105018 # 톨 해나건 디도 우리 쉬남은 난 때사 톨 헨 풀앗주. 그 전인 안 해낫어. 바당에 양어장 해부난 오염돼연. 게난 듬복도 흐나토 엇고.(톨 했던 때도 우리 쉬남은 난 때야 톨 해서 팔았지. 그 전엔 안 했었어. 바다에 양식장 해버리니까 오염되어서. 그러니까 듬복도 하나도 없고.)

105019 @ 우미는?(우뭇가사리는?)

105019 # 작년에 궂디 우미덜 하영 낫젠 헨게만은 올린 안 낫젠.(작년에 갯가에 우뭇가사리들 많이 낫다고 하던데 올해는 안 낫대.)

105019 @ 우민 행 오민 어떻 장만합니까?(우뭇가사리 해서 오면 어떻게 장만합니까?)

105019 # 물질허는 사름덜은 베랑 안 해. 이 궂할망<sup>120)</sup>덜 강 매어다근에 갯궂이도 널고 집이 완 물리왕 멧 키로 행 풀암주.(물질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해. 이 ‘궂할망’들 가서 매어다가 갯가에도 널고 집에 와서 팔려서 몇 킬로 해서 팔지.)

105019 @ 경행 풀양.(그렇게 해서 팔아서.)

105019 # 올리덜은 바당에 우미 안 나고 허난 우리 동네 우미 현 사름덜 엇어. 작년엔 하영 해신디.(올해들은 바다에 우뭇가사리 안 나고 하니까 우리 동네 우뭇가사리 하는 사람들 없어. 작년엔 많이 했었는데.)

105019 @ 잠수덜은 안 허는구나예.(해녀들은 안 하는군요.)

105019 # 궂할망덜이나 허주.(‘궂할망’들이나 하지.)

120) ‘궂할망’은 해녀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할 수 없는 할머니들을 말한다.

105019 @ 궂할망덜은?('궂할망'들은?)  
 105019 # 잠수 못 허는 사름덜게.(해녀 못 하는 사람들.)  
 105019 @ 나이 든 할머니들?(나이든 할머니들?)  
 105019 # 응.(응.)  
 105019 @ 잠수허당 나이 들영 안 허는 할머니들이 궂할망?(해녀하다가 나이 들어서 안 하는 할머니들이 '궂할망'?)  
 105019 # 응.(응.)  
 105020 @ 생복은 어떻행 트는 거꽈?(전복은 어떻게 해서 떼는 겁니까?)  
 105020 # 빗창 췌 요만이헌 걸로 튼주게.('빗창' 췌 요만큼한 걸로 떼지.)  
 105020 @ 눈 쓰곡 행 물에 들어신디 생복을 받.(물안경 쓰고 해서 물에 들었는데 전복을 봤어.)  
 105020 # 빗창을 떼사주게.('빗창'으로 떼야지.)  
 105020 @ 쉽게 테저?(쉽게 떼져?)  
 105020 # 쉽게 테지는 것도 싯곡 힘도 들곡.(쉽게 떼어지는 것도 있고 힘도 들고.)  
 105020 @ 건드리민 딱 부터불어?(건드리면 딱 붙어버려?)  
 105020 # 술 거저불민 못 풀주게. 빗창 꼭 찢렁 영 자쳐.(살 건드려 버리면 못 팔지. 빗창 꼭 찢려서 이렇게 젓혀.)  
 105020 @ 흔꺼번에 해야 해?(한꺼번에 해야 해?)  
 105020 # 응, 한꺼번에 헤사. 경 안 허민 중들영<sup>121)</sup> 빗창<sup>122)</sup>을 못 찢르주게.(응, 한꺼번에 해야. 그렇지 않으면 '중들어'서 빗창을 못 찢르지.)  
 105020 @ 무신거 들어불어?(무엇 들어버려?)  
 105020 # 중들영 돌빌레드레 딱 부터비어. 빗창이 이 고냥더레 못 찢르주게. 처암 폴폴<sup>123)</sup>헐 땀 꼭 찢르민 테지고. 엉덕 안네 지픈 엉덕이나 들리민 아무나 못허민 저곳디 빌영 허는 사름은 빌영 허고.('중들어'서 너럭바위에 딱 붙어버려. '빗창'이 이 구멍에 못 찢르지. 처음 '폴폴'할 땀 꼭 찢르면 떼어지고. 바위 안에 깊은 바위이나 걸리면 아무나 못하면 곁에 빌어서 하는 사름은 빌어서 하고.)  
 105020 @ 할머니 물질헐 땀 생복도.(할머니 물질할 땀 전복도.)  
 105020 # 땀 개도 잡곡 서너 개도 잡고 아니 잡을 때도 잇곡 허주게. 생복은 고동ㄱ치 한 건 아니주게.(땀 개도 잡고 서너 개도 잡고 안 잡을 때도 있고 하지. 전복은 소라처럼 많은 건 아니지.)  
 105020 @ 꿈을 잘 꺼사?(꿈을 잘 꺼야?)  
 105020 # 재수 좋아사 잡는 거주게.(재수 좋아야 잡는 거지.)

121) '중들다'는 전복을 잡을 때 조금 건드리면 돌에 딱 붙어 버리는 것으로 무언가 전복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것 같다.

122) '빗창'은 전복을 잡을 때 쓰는 도구다.

123) '폴폴'은 원래 풀기가 많은 모양을 뜻하나 여기서는 전복이 외부 충격이 없이 자연스럽게 다닐 때의 모습을 말한다.

105020 @ 잘 잡는 사름이 이신가?(잘 잡는 사름이 있나?)

105020 # 상군덜은 잘 잡는 사름 잘 잡고. 상군덜도 못 잡는 날은 못 잡고. 혼 물끼 잘허민 혼 물낀 못허고. 것도 상군이엔 매날 생복 잡는 건 아니고.(상군들은 잘 잡는 사름 잘 잡고. 상군들도 못 잡는 날은 못 잡고. 한 물때 잘하면 한 물때 못 하고. 그것도 상군이라고 맨날 전복 잡는 건 아니고.)

105020 @응.(응.)

105020 # 고동은 상군이엔 하영 잡아도 생복 ㄴ쁜 건 그날 소망이주, 그날 재수.(소라는 상군이라고 많이 잡아도 전복 같은 건 그날 행운이지, 그날 재수.)

105020 @ 고동은?(소라는?)

105020 # 고동은 바당에 들영 숨빔만 허민 하영 숨비민 하영 잡을 거고 죽영 숨비민 죽영 잡을 거주게.(소라는 바다에 들어가서 ‘숨빔’만 하면 많이 ‘숨비’면 많이 잡을 거고 적게 ‘숨비’면 적게 잡을 거지.)

105020 @ 바당에 하영 잇어낫구나예.(바다에 많이 있었군요.)

105020 # 우리 두린 댜 물에 들영 허민 고동이 빌레 우이 종종종종 나는데 이젠 경 안혜영 이제도 먼 여더렌 경 남도 햐주게, ㄴ딘 엇어도. 이젠 백 메다 넘어씩 나가주게. 물질 혼 댜 질씩 들어가사 잡는 거라. 깊은 디 못 허는 사름덜은 못 헤. (우리 어린 댜 물에 들어가서 하면 소라가 너럭바위 위에 종종종종 나는데 이젠 그렇게 앓고 이제도 먼 여에는 그렇게 나기도 하지, 갯가엔 없어도. 이젠 백 미터 넘게 나가지. 물질 한 댜 질씩 들어가야 잡는 거야. 깊은 데 못하는 사람들은 못해.)

105020 @ 숨이 질어사쿠다예?(숨이 길어야겠네요.)

105020 # 막 지픈 디 들어가는 사름은 들어가고 못허는 사름은 못 들어가. 경허난 그디 들어가는 사름은 상군.(아주 깊은 데 들어가는 사름은 들어가고 못하는 사름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름은 상군.)

105020 @ 나 ㄴ쁜 사름은 겁낱 들어가지도 못헐 건디.(나 같은 사름은 겁나서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105020 # 못 들어가주게.(못 들어가지.)

105021 @ 생복도 종류가 잇수과?(전복도 종류가 있습니까?)

105021 # 암커, 수커주게. 암침복, 수침복.(암컷, 수컷이지. 암전복, 수전복.)

105021 @ 어떤 건 암침복이고 어떤 건 수침복이파?(어떤 건 암전복이고 어떤 건 수전복입니까?)

105021 # 암침복은 영 베짜<sup>124)</sup>허고 수컨 영 웅쿨랑<sup>125)</sup>허주게, 솔도 거멍허고.(암전복은 ‘베짜’하고 수전복은 ‘웅쿨랑’하지. 살도 거멍고.)

105021 @ 솔이 거멍헌 게?(살이 거먼 게?)

105021 # 거멍허고 움탕허여 겁덕이.(거멍고 움푹해 꺾데기가.)

105021 @ 그게 암침복?(그게 암전복?)

124) ‘베짜’는 속이 드러날 정도로 밖으로 드러나 있다는 말이다.

125) ‘웅쿨랑’은 움푹한 모양을 흉내낸 말이다.

105021 # 수침복은 움틀랑허고 암컨 겁덕도 베짜허여.(수전복은 ‘움틀랑’하고 암  
컷은 껍데기도 ‘베짜’해.)

105021 @ 거멍허고 움틀랑헌 게 수침복?(거멍고 ‘움틀랑’한 게 수전복?)

105021 # 응.(응.)

105021 @ 암침복은?(암전복은?)

105021 # 베짜허여.(‘베짜’해.)

105021 @ 베짜허여. 것도 가격이 트나거나 맛이 트납니까?(‘베짜’해. 그것도 가  
격이 다르거나 맛이 다릅니까?)

105021 # 건 아니. 게난 수컨 메다가 하영 나가고 암컨 메다가 흐쫄 덜 나가.  
깡은 다 ㄴ트고.(그건 아니. 그러니까 수컷 그림이 많이 나가고 암컷 그림이 조금  
덜 나가. 값은 다 같고.)

105021 @ 깡은 ㄴ튼디 수커 메다가 더 나가는구나예.(값은 같은데 수컷 그림이  
더 나가는군요.)

105021 # # 움틀랑허영 크꼭 크주게. 흐 이백 메, 삼백 메 나가는 것도 생복 시  
난.(‘움틀랑’해서 크고 크지. 한 이백 ‘메’, 삼백 ‘메’ 나가는 것도 전복 있으니까.)

105021 @ 생복도 이 껍데긴 이름 뭐엔 곱읍니까?(전복도 이 껍데긴 이름 뭐라  
고 말합니까?)

105021 # 생복 겁데기, 생복겁덕.(전복 껍데기, 전복깡.)

105021 @ 거평?(‘거평’?)

105021 # 겁덕, 겁덕.(껍데기, 껍데기.)

105021 @ 겁덕, 생복겁덕. 생복도 이디 영 부튼 거 이수게?(껍데기, 전복깡. 전  
복도 여기 이렇게 붙은 거 있잖습니까?)

105021 # 게웃.(‘게웃’.)

105021 @ 게웃? 게웃은 창지 아니?(‘게웃’? ‘게웃’은 창자 아니?)

105021 # 생복 게웃. 생복에 흐디 부뜨주. 사름 ㄴ트민 배설광 똥이난 흐디 부  
떠.(전복 ‘게웃’. 전복에 함께 붙지. 사람 같으면 창자와 똥이니까 함께 붙어.)

105021 @ 껍데기하고 영.(껍데기하고 이렇게.)

105021 # 껍데기허고 허민 생복허고 똥은 흐디 생복에 흐디 부땡 나오주게.(껍  
데기하고 하면 전복하고 똥은 함께 전복에 함께 붙어서 나오지.)

105021 @ 그게 게웃이고. 그다음예.(그게 ‘게웃’이고. 그다음예.)

105021 # 겁덕게 그건. 생복겁덕.(껍데기 그런. 전복깡.)

105021 @ 그다음에 이빨이나 그런 건.(그다음에 이빨이나 그런 건.)

105021 # 생복 똥에 잇는 거.(전복 똥에 잇는 거.)

105021 @ 생복 똥에 잇는 거?(전복 똥에 잇는 거?)

105021 # 응, 똥에 부떠. 생복도 영 허민 동그랑허게 똥이 이시민 일로 영 부떠  
근에 니빨이 잇주게. 게웃에도 영행 허민 그디 듬복 먹은 거 게웃에 딱로 잇어.(응,  
똥에 붙어. 전복도 이렇게 하면 동그랑허게 똥이 있으면 이리로 이렇게 붙어서 이빨



이 있지. ‘게웃’에도 이렇게 해서 하면 거기 듬북 먹은 거 ‘게웃’에 따로 있어.)

105021 @ 예?(예?)

105021 # 생복도 영 게웃이민 똥만 잊지 안행 먹은 것가 트로 이서. 트로 이서.  
(전복도 이렇게 ‘게웃’이면 똥만 잊지 않고 먹은 것이 따로 있어. 따로 있어.)

105021 @ 아.(아.)

105021 # 시방 양어장헌 생복덜은 그냥 그자 똥차 무시거해도, 영 이디 헌 거 보민 이 듬북 먹은 거 혼디 이서. 몰래 먹은 것도 있고, 다. 이빨 밋에. 배설에 이서, 배설에.(시방 양어장헌 전복들은 그냥 그저 똥째 무엇해도, 이렇게 여기 한 거 보면 이 듬북 먹은 거 함께 있어. 몰래 먹은 것도 있고, 다. 이빨 밑에. 창자에 있어, 창자에.)

105021 @ 생복곹테기에 구멍 이수게, 건 무신거에 허여?(전복갑에 구멍 있잖습니까. 그건 무엇이라고 해?)

105021 # 생복곹덕 고망이주, 무신거라?(전복갑 구멍이지, 뭐야?)

105021 @ 그냥 고망이라? 고망이 멧 개나 이신 거파?(그냥 구멍이야? 구멍이 멧 개나 있는 겁니까?)

105021 # 몰라, 혼 댓 개 신 것도 있고 생복 큼에 메여.(몰라, 한 댓 개 있는 것도 있고 생복 크기에 따라.)

105021 @ 고통곹테기는 뭤엔 곹읍니까?(소라딱지는 뭤라고 말합니까?)

105021 # 옛날은 구쟁이곹덕.(옛날은 소라딱지.)

105021 @ 똥은?(똥은?)

105021 # 게웃. 고통 똥.(‘게웃’. 소라 똥.)

105021 @ 고통 똥도 게웃이엔 곹아?(소라 똥도 ‘게웃’이라고 말해?)

105021 # 고통 똥. 고통각.(소라 똥. ‘고통각’.)

105021 @ 고통각?(‘고통각’?)

105021 # 이젠 고통각이엔 해도 옛날엔 고통똥.(이젠 ‘고통각’이라고 해도 옛날엔 ‘고통똥’.)

105021 @ 이거 썩 못 먹는 거예?(이거 썩서 못 먹는 거요?)

105021 # 응, 못 먹어.(응, 못 먹어.)

105021 @ 쏸쏸헌 거예. 또 앞이는?(쏸쏸한 거요. 또 앞에는?)

105021 # 소중의.(맹낭.)

105021 @ 소중의?(맹낭?)

105021 # 데맹이광 똥 새에 곹덕 닳은 거 잊주게. 그건 먹으민 썩. 안 베껴불민 썩.(대가리랑 똥 사이에 곹테기 같은 거 있지. 그건 먹으면 썩. 안 벗겨버리면 썩.)

105021 @ 이건 거난.(이건 그러니까.)

105021 # 데맹이만 먹어 고통은. 각광 소중원 썩 못 먹어.(대가리만 먹어 소라는. ‘각’과 맹낭은 썩서 못 먹어.)

105021 @ 뚜경 이수게. 건 뭤엔 곹아.(뚜경 있잖아요. 그건 뭤라고 말해.)

105021 # 옛날엔 구쟁이겁덕.(옛날엔 소라딱지.)

105021 @ 밖에 잇는 거 말고 뚜껑 얇은 거.(밖에 잇는 거 말고 뚜껑 같은 거.)

105021 # 바둑<sup>126</sup>.(‘바둑’.)

105021 @ 바둑?(‘바둑’?)

105021 # 응, 고동 바둑. 바둑 이서, 동글랑헌 거.(응, 소라 ‘바둑’. ‘바둑’ 있어, 동그란 거.)

105021 @ 이게 바둑. 솔 이신 디가 머리. 소중의, 똥.(이게 ‘바둑’. 살 잇는 데가 머리. 땡, 똥.)

105021 # 똥에 소중의가 혼디 부뜨주게. 요영헌 디 고동 요디 부튼 건 바둑, 요 건 데뎡이. 요 아래 부튼 건 고동 똥에 그디 소중의 헌 거, 납작헌 거, 알룬 거.(똥에 땡이 함께 붙지. 요렇게 한 데 소라 요기 붙은 건 ‘바둑’, 요건 머리. 요 아래 붙은 건 소라 똥에 거기 땡 한 거, 납작한 거, 얇은 거.)

105021 @ 이 껍데기에 뽕 난 건 뭇엔 허는 거 엇어?(이 껍데기에 뽕 난 건 뭇라고 하는 거 엇어?)

105021 # 고동 껍데이주 무신거라. 고동깍, 고동꺾덕.(소라딱지지 뭇야. ‘고동깍’, 소라딱지.)

105021 @ 고동깍은 뭇라?(‘고동깍’은 뭇야?)

105021 # 고동깍은 고동에 붙은 똥이 깍이라.(‘고동깍’은 소라에 붙은 똥이 ‘깍’이야.)

105021 @ 고동 똥이 깍?(소라 똥이 ‘깍’?)

105021 # 응. 그게 고동깍이라.(응. 그게 ‘고동깍’이야.)

105021 @ 고동이엔 험니까, 구쟁기엔 험니까?(‘고동’이라고 험니까, ‘소라’라고 험니까?)

105021 # 옛날은 구쟁이.(옛날은 소라.)

105021 @ 옛날 말로 굴아사지. 구쟁이, 구쟁기?(옛날 말로 말해야지. ‘구쟁이’, ‘구쟁기’?)

105021 # 구쟁기게.(‘구쟁기’.)

105021 @ 구쟁기도 쪼글락헌 거 잇고 큰 거 잇수게?(소라도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거 잇잖습니까?)

105021 # 작은 건 생켁이<sup>127</sup>.(작은 건 ‘생켁이’.)

105021 @ 작은 건 무신거?(작은 건 뭇?)

105021 # 생켁이.(‘생켁이’.)

105021 @ 큰 건?(큰 건?)

105021 # 큰 구쟁기.(큰 ‘구쟁기’.)

105021 @ 큰 구쟁기.(큰 ‘구쟁기’.)

126) ‘바둑’은 소라 따위의 살을 보호하는 단단한 뚜껑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돈, 장군, 장귀’라 한다.

127) ‘생켁이’는 아직 크지 않은 크기가 작은 소라를 말한다.

105021 # 죽은 건 생켤이.(작은 건 ‘생켤이’.)  
 105021 @ 전복도 죽은 거 있고.(전복도 작은 거 있고.)  
 105021 # 죽은 건 물메기<sup>128)</sup>. 큰 건 생복.(작은 건 ‘물메기’. 큰 건 전복.)  
 105021 @ 큰 건 생복.(큰 건 전복.)  
 105021 # 그 말 안 해져신디 매죽은 거 굶디 부튼 거 꺼꼬막<sup>129)</sup>.(그 말 안 했는데 제일 작은 거 갯가에 붙은 거 ‘꺼꼬막’.)  
 105021 @ 무신거?(뭐?)  
 105021 # 꺼꼬막. 굶디 바당에 안 이성 굶디 물싸민 부튼 거 꺼꼬막.(‘꺼꼬막’. 갯가에 바다에 안 있고 갯가에 물싸면 붙은 거 ‘꺼꼬막’.)  
 105021 @ 그게 크민 생복 댜는 거?(그게 크면 전복 되는 거?)  
 105021 # 응. 막 크민. 따시 오분작도 있고.(응. 아주 크면. 다시 떡조개도 있고.)  
 105021 @ 오분작이영 생복이영 어떻 구별힙니까?(떡조개랑 전복이랑 어떻게 구별힙니까?)  
 105021 # 오분작이 크주게 맛도 있고 꺼꼬메기보다. 켜디 그건 고망에만 이서.(떡조개가 크지, 맛도 있고 ‘꺼꼬메기’보다. 그런데 그건 구멍에만 있어.)  
 105021 @ 아.(아.)  
 105021 # 물싸민 벌정게 물쌍 톨팍디 그거가 하낫주게. 이제 잠수덜 몬 잡아부난. 생복 갑이나 ㄱ탐주.(물싸면 벌정게 물싸서 톨발에 그것이 많았었지. 이제 잠수덜 모두 잡아버리니까 전복 값이나 같지.)  
 105021 @ 예, 오분작이나 생복이나예.(예, 떡조개나 전복이나요.)  
 105021 # 오분작이 맛이 더 좋주게.(떡조개가 맛이 더 좋지.)  
 105021 @ 더 좋은 거꽼?(더 좋은 겁니까?)  
 105021 # 꺼꼬메기 준 생복보단 좋아, 돌콤돌콤.(‘꺼꼬메기’ 잔 전복보다 좋아, 달콤달콤.)  
 105021 @ 꺼꼬막, 꺼꼬메기?(‘꺼꼬막’, ‘꺼꼬메기’?)  
 105021 # 꺼꼬메긴 생복 닮은 거 켜켜헌 거 이서.(‘꺼꼬메기’는 전복 같은 거 자잘한 거 있어.)  
 105021 @ 꺼꼬메기?(‘꺼꼬메기’?)  
 105021 # 응, 이서. 그 오분작 이신 고망에 이서.(응, 있어. 그 떡조개 있는 구멍에 있어.)

## 6. 의생활

128) ‘물메기’는 작은 전복을 이르는 말이다.

129) ‘꺼꼬막’은 ‘물메기’보다 더 작은 새끼 전복을 말한다. ‘꺼꼬메기’라고도 한다.

## 옷감

106001 @ 옷감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예. 옷감은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있어마씨?  
이런 옷 천?(옷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옷감은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있어요?)

106001 # 옛날은 저 일본 사름덜은 저 청목허고 헌디 제주선 미녕허고 베옷베  
핀 안 헌다.(옛날은 저 일본 사람들은 저 청목하고 한테 제주에선 무명하고 베옷밖  
에 안 한다.)

106001 @ 주로 미녕허고 베예.(주로 무명하고 베요.)

106001 # 그 미녕해근에 겨울에 입고 벤 여름에 입곡.(그 무명해서 겨울에 입고  
베는 여름에 입고.)

106001 @ 아. 멩지도 해낫수과?(아. 명주도 했었습니까?)

106001 # 멩지 스몫 옛날엔 우리 두린 때 혼 여남은 설 때 멩지해낫어.(명주 사  
몫 옛날엔 우리 어린 때 한 여남은 살 때 명주했었어.)

106001 @ 응, 멩지 어떻 행 멘드는 거라?(응, 명주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야?)

106001 # 멩지 누에 행 질좌근에 누에 빼영 낫당 봄 나민 그거 깨영 나오랑 굼  
벵이 ㄴ치.(명주 누에 해서 길러서 누에 빼서 낫다가 봄 나면 그거 깨서 나와서 굼  
벵이 같이.)

106001 @ 응.(응.)

106001 # 굼벵이 싯당 봄 나민 나오잖아. 나오랑 그놈을 질루젠 허민 산에 강은  
에 뽕남쌔 해영 부제칩인 갈앙 허곡 엇은 사름은 들에 강 톨아당 그거 췌 질황 이  
만씩 커 가민 것가 집 짓영 들어가불주게. 집 짓영 들어가민 그 집으로 들어근에  
실 해근에.(굼벵이 있다가 봄 나면 나오잖아. 나와서 그놈을 기르려고 하면 산에 가  
서 뽕나무 잎 해서 부жат집엔 갈아서 하고 엇은 사름은 들에 가서 뜯어서 그거 줘서  
길러서 이만큼씩 커 가면 그것이 집 지어서 들어가 버리지. 집 지어서 들어가면 그  
집으로 들어서 실 해서.)

106001 @ 응.(응.)

106001 # 그거해근에 멩지해근에 짱덜 행 입는 사름은 부제칩이 사름덜은 입  
곡.(그거해서 명주해서 짜서들 해서 입는 사름은 부жат집 사름들은 입고.)

106001 @ 응.(응.)

106001 # 다른 사름덜은 베에 미녕 행 입곡.(다른 사름들은 베에 무명 해서 입  
고.)

## 명주

106003 @ 아, 혹시 멩지도 종류가 여러 개 이신가?(아, 혹시 명주도 종류가 여  
러 개 있나?)

106003 # 멩진 저 삶앙 허는 건 익은 거고 생 건 이녁냥으로 짠 거 따시 삶앙  
내지 안허민 생채 빠작허영 베옷ㄴ치.(명주는 저 삶아서 하는 건 익은 거고 생 거는  
자기대로 짠 거 다시 삶아서 내지 않으면 생채 바작해서 베옷같이.)

106003 @ 그민 생멩지엔 곴아?(그러면 생멩주라고 말해?)

106003 # 응.(응.)

106003 @ 그럼 생멩지허고 또 무신 멩지라?(그럼 생멩주하고 또 무슨 멩주야?)

106003 # 생멩진 낸멩지 헤영. 낸 건 익은 것가 낸멩지. 내영 영 솥앙 다듬앙.  
(생멩주는 ‘낸멩지’ 해서. ‘낸’ 건 익은 것이 ‘낸멩지’. ‘내어서’ 이렇게 삶아서 다듬어서.)

106003 @ 아 솥앙 다듬은 건 낸멩지.(아, 삶아서 다듬은 건 ‘낸멩지’.)

106003 # 멩진 혼 가진디 다듬은 것광 안 솥은 거, 생 건 생멩지고 다듬은 건 다듬은 멩지.(멩주는 한 가진데 다듬은 것과 안 솥은 거, 생 건 생멩주고 다듬은 건 다듬은 멩주.)

106003 @ 다듬은 거 아까 무신 멩지?(다듬은 거 아까 무슨 멩주?)

106003 # 다듬은 멩지는 다듬은 거난 그, 다듬은 멩지 다듬어진 거고 생 건 생차 혼 냥 잇고.(다듬은 멩주는 다듬은 거니까 그, 다듬은 멩주 다듬어진 거고 생 건 생짜 한 대로 잇고.)

106003 @ 응.(응.)

106003 # 멩진 혼 가지. 겐디, 육지 사름 멩진 육깃멩지, 제줏멩지허주게.(멩주는 한 가지. 그런데, 육지 사름 멩주는 육지 멩주, 제주 멩주하지.)

106003 @ 아.(아.)

106003 # 육깃멩진 제줏멩지만이 아니 허주.(육지 멩주는 제주 멩지만 안 하지.)

106003 @ 아, 제줏멩지가 좋아?(아, 제주 멩주가 좋아?)

106003 # 응, 옛날에 헐 때 제주서 헐 거가 파작허영 종곡 육지서 헐 건 뽕랑뽕랑허고.(응, 옛날에 할 때 제주서 한 것이 ‘파작’해서 종고 육지서 한 건 말랑말랑하고.)

106004 @ 응, 멩지로는 어떤 옷 멘들아마씨?(응, 멩주로는 어떤 옷 만들어요?)

106004 # 멩지론 새각시 옷.(멩주로는 새색시 옷.)

106004 @ 새각지 옷?(새색시 옷?)

106004 # 응, 게난 새서방도 안 해원, 그 새각시나 옛날은 치메저고리 해주주게.(응, 그러니까 새신랑도 안 해줬어, 그 새색시나 옛날은 치마저고리 해주지.)

106004 @ 예.(예.)

106004 # 경헐 해주고 따시 또 부제칩인 이진 토멩지엔 헤영, 이딴 멩지 토멩지, 토멩지엔 허주. 그 토멩지로 헤영 저고리나 헤영 주고.(그렇게 해주고 다시 또 부잣집은 이진 토멩주라고 해서, 여기 멩주 토멩주, 토멩주라고 하지. 그 토멩주로 해서 저고리나 해 주고.)

106002 @ 응, 그른 아까 누에 질황, 질론 다음에 실 어떻 빠마씨?(응, 그러면 아까 누에 길러서, 기른 다음에 실 어떻게 빼요?)

106002 # 실 빠는 것가 저 미녕실 빠듯.(실 빼는 것이 저 무녕실 빠듯.)

106002 @ 아.(아.)

106002 # 같은 걸로.(같은 걸로.)

106002 @ 누에 삶아?(누에 삶아서?)

106002 # 누에 행 질좌근에 그거 행 삶아근에.(누에 해서 길러서 그거 해서 삶아서.)

106002 @ 누에 삶아근에.(누에 삶아서.)

106002 # 경 삶앙 허민 영 심영 직직허게 빠똥은에. 미녕실 나똥 허여.(그렇게 삶아서 하면 이렇게 잡아서 ‘직직’하게 빠두고. 무명실 나똥 해.)

106006 @ 아, 겐 누에 질좌낫수과?(아, 그래서 누에 길렀었습니까?)

106006 # 질좌난.(길렀었어.)

106006 @ 할무니네 집이서도?(할머니네 집에서?)

106006 # 아니, 우리 두린 때 어무니 현 때 질좌낫주게.(아니, 우리 어린 때 어머니 한 때 길렀었지.)

106006 @ 아, 어무니 허는 거 좌난?(아, 어머니 하는 거 봤었어?)

106006 # 난 허지 안허고 할무니 허는 거, 어무니 허는 거 좌낫주, 나 허진 안허연.(난 하지 않고 할머니 하는 거, 어머니 하는 거 봤었지, 나 하진 않았어.)

106006 @ 아. 게민 할무니 어렸을 때 헐 때는 그 뽕입, 뽕썸?(아. 그러면 할머니 어렸을 때 할 때는 그 뽕잎, 뽕잎?)

106006 # 뽕남썸.(뽕나무잎.)

106006 @ 뽕남썸은 집에서 허는 게 아니라 드르에 강?(뽕나무잎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들에 가서?)

106006 # 드르에 강 톤아다근에.(들에 가서 뜯어다가.)

106006 @ 아.(아.)

106006 # 겨난 우리 어머니허고 나허고 허영 저 성읍리 몬 톤으레 땡겨낫주게.(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해서 저 성읍리 모두 뜯으러 다녔었지.)

106006 @ 아, 썸 톤으레.(아, 잎 뜯으러.)

106006 # 응. 두린 때.(응. 어린 때.)

106006 @ 하영 먹어?(많이 먹어?)

106006 # 응?(응?)

106006 @ 누에가 그거 하영 먹습니까?(누에가 그거 많이 먹습니까?)

106006 # 하영 먹주게. 영 차반지에 행 그거 행 주민 그거 먹는 소리가 와상와상와상허주게. 막 먹어 가는 소리가 와상와상허게시리.(많이 먹지. 이렇게 채반에 해서 그거 해서 주면 그거 먹는 소리가 ‘와상와상와상’하지. 막 먹어 가는 소리가 ‘와상와상’하게.)

106006 @ 아, 예.(아, 예.)

106006 # 경행 질루주. 혼 혼 덜썸은 경행 질좌.(그렇게 해서 기르지. 한 한 달 썸은 그렇게 해서 길러.)

106006 @ 아, 봄 나민 질루는 거좌?(아, 봄 나면 기르는 겁니까?)

106006 # 아니, 집안에.(아니, 집안에.)  
 106006 @ 집 안에서?(집 안에서?)  
 106006 # 응.(응.)  
 106006 @ 언제쯤에 허는 거라?(언제쯤에 하는 거야?)  
 106006 # 봄이.(봄에.)  
 106006 @ 봄이?(봄에?)  
 106006 # 흔 삼사월. 뽕남쌈 나민.(한 삼사월. 뽕나무잎 나면.)  
 106006 @ 아, 뽕남쌈 나민.(아, 뽕나무잎 나면.)  
 106006 # 겨울에 엇주게. 뽕남쌈 나사.(겨울에 없지. 뽕나무잎 나야.)  
 106006 @ 그거 어디 영, 어디 차반지에 해?(그거 어디 이렇게, 어디 채반에 해?)  
 106006 # 옛날에 차반지, 큰 차반지덜 혜영, 그것에 놔근에 질루주게.(옛날에 채반, 큰 채반들 해서, 그것에 노서 기르지.)  
 106006 @ 기여 나불지 안허여?(달아나 버리지 않아?)  
 106006 # 안 기여나.(안 달아나.)  
 106006 @ 예.(예.)  
 106006 # 경헨 한 여남은 차반지씩. 따시 또 그거 혜영근에 멩지 안 빠는 사름은 누에 벌랭이 이만이 집 짓영 들어가민 거 품도 허여.(그렇게 해서 여남은 채반씩. 다시 또 그거 해서 명주 안 빠는 사름은 누에 벌레 이만큼 집 지어서 들어가면 그거 팔기도 해.)  
 106006 @ 거 뭐, 뭐에 쓰는 거라?(그거 뭐, 뭐에 쓰는 거야?)  
 106006 # 풀민 그 사름덜 다덜 그거 사당 그 멩지실 빠는 사름덜 사 가.(팔면 그 사름들 다들 그거 사다가 그 명주실 빠는 사름들 사 가.)  
 106006 @ 아, 집에서 멩지를 하지 않고 누에만 질황 품으로.(아, 집에서 명주를 하지 않고 누에만 길러서 파는 것으로.)  
 106006 # 응. 품도 허여.(응. 팔기도 해.)

## 무명

106007 @ 게민 이번엔 미녕예. 미녕도 종류가 여러 종류 잇수과?(그러면 이번엔 무명요. 무명도 종류가 여러 종류 있습니까?)  
 106007 # 아니.(아니.)  
 106007 @ 토목, 생목 이런 거 잇수과?(토목, 생목 이런 거 있습니까?)  
 106007 # 아니 미녕은 흔 가지.(아니 무명은 한 가지.)  
 106007 @ 광목은 무신거라? 게믄.(광목은 뭐야? 그러면.)  
 106007 # 광목은 일본서 난 거주, 제주선 광목 안 낫어.(광목은 일본서 난 거지, 제주에선 광목 안 낫어.)  
 106007 @ 아. 게민 닻새미녕, 옛새미녕이엔 허여?(아. 그러면 닻새무명, 옛새무

명이라고 해?)

106007 # 응, 닳새미녕은 그 ㄴ는 거, 옛새미녕은 ㄴ는 거, 닳새미녕은 ㅎ은 베.(응, 닳새무명은 그 가는 거, 옛새무명은 가는 거, 닳새무명은 ㄴ은 베.)

106007 @ 아. 무사 옛새미녕, 닳새미녕 험수과?(아. 왜 옛새무명, 닳새무명 합니까?)

106012 # 그 옛새미녕은, 닳새미녕이엔 현 건 ㅎ은 베난 그 밧디 옛날은 이젠 그. 그 옛날 밧디 해영 존 밧디 가민 이만인 걸주게, 걸민 봄 나민 갈아근에 미연에 갈앙 꺽행 크민 이만이씩 행 걸영, 짓가 다시 삼사월 혼 오월쯤 나민 짓가 다시 다 피어.(그 옛새무명은, 닳새무명이라고 한 건 ㄴ은 바니까 그 밧에 옛날은 이젠 그. 그 옛날 밧에 해서 좋은 밧에 가면 이만큼 걸지, 걸면 봄 나면 갈아서 미리 갈아서 그래서 크면 이만큼씩 해서 걸어서, 그것이 다시 삼사월 한 오월쯤 나면 그것이 다시 다 피어.)

106012 @ 예.(예.)

106012 # 이녁냥으로 우리 할마님네 허는 거 보민 비여근에 그디 ㄴ는 ㄴ는 현 거 영 현 건 그거 허영 허민, 옛새미녕 ㄴ는 베가 돼고 이 혼 밧씩 현 거 ㅎ은 베가 돼여.(자기대로 우리 할머님네 하는 거 보면 베어서 거기 가는가는 거 이렇게 한 건 그거 해서하면, 옛새무명 가는 바가 되고 이 한 밧씩 한 거 ㄴ은 바가 되어.)

106012 @ 응.(응.)

106012 # 경허민 그거 해여근에 비여근에 썸도 영 호미로 확확확확 비여뒤근에 이젠 그거 그 혼 밧씩 현 건 ㅎ은 건 그냥 막텅이로 행 막텅이 마주쳐근에 영 짹짹 짹 짹터 놔근에 그걸 영행 쪽쪽쪽 뱃기주게.(그러면 그거 해서 베어서 잎도 이렇게 낫으로 확확확확 베어두고 이젠 그거 그 한 밧씩 한 건 ㄴ은 건 그냥 막대기로 해서 막대기 마주쳐서 이렇게 짹짹짹 짹어 놔서 그걸 이렇게 해서 쪽쪽쪽 뱃지.)

106012 @ 예, 예.(예, 예.)

106012 # 꺽터를 뱃기곡. ㄴ는 벤 다시 누에현 건 ㄴ는ㄴ는 현 건 다시 솟디 낱 삶아.(꺽질을 뱃기고. 가는 바는 다시 누에한 건 가는가는 한 건 다시 술에 놔서 삶아.)

106012 @ 아.(아.)

106012 # 삶으민 흐랑허민 따시 또 그영 행 속속하게 뱃경, 뱃기곡.(삶으면 ‘흐랑’하면 다시 또 그영 속속하게 뱃경, 뱃기고.)

106012 @ 아. 경행 실 멩그는 거?(아. 그렇게 해서 실 만드는 거?)

106012 # 실, 베힐 거.(실, 바힐 거.)

106012 @ 아.(아.)

106012 # 베가 잘도 공들주게.(바가 아주 공들지.)

106012 @ 예, 예.(예, 예.)

106012 # 뱃 번을 해영.(뱃 번을 해서.)



106008 @ 게민 미녕은 미녕으론 어떤 옷 멘들앙 입는 거?(그러면 무명은 무명으로  
어떤 옷 만들어서 입는 거?)

106008 # 미녕으론 허민게 바지 저고리도 행 입곡게 그걸로 전부 행 옷 입주.  
후리메<sup>130)</sup>도 행 입곡 그걸로 다 행 입어낫주, 옛날엔.(무명으로는 하면 바지 저고리  
도 해서 입고 그걸로 전부 해서 옷 입지. ‘후리메’도 해서 입고 그걸로 다 해서 입  
었었지, 옛날에.)

106008 @ 응. 후리베?(응. 후리베?)

106008 # 응.(응.)

106008 @ 후리베가 뭐?(후리베가 뭐?)

106008 # 후리메 저,(후리메 저.)

106008 @ 아, 후리멘 두루막 닳은 거?(아, ‘후리메’는 두루마기 같은 거?)

106008 # 응. 그 옛날 후리메주. 지금은 두루마기라도.(응. 그 옛날 ‘후리메’지.  
지금은 두루마기라도.)

106008 @ 예, 옛날은 후리메예.(예, 옛날은 ‘후리메’요.)

106008 # 응. 게난 옛날은 이녁냥으로 허는 사름 그걸로 다 헨 입언 옛날 어른  
들은 살았주게.(응. 그러니까 옛날은 자기대로 하는 사람 그걸로 다 해서 입어서 옛  
날 어른들은 살았지.)

106008 @ 주로 미녕으로예.(주로 무명으로요.)

106008 # 응, 미녕허고 여름에 베중의 적삼으로 베옷 행 입곡. 엇으민 상도 입  
곡 허명 그걸로.(응, 무명하고 여름에 베중의 적삼으로 베옷 해서 입고. 없으면 사  
서도 입고 하면서 그걸로.)

106008 @ 토목이엔 현 거, 이 미녕에도 토목이 잇수과, 토목?(토목이라고 한  
거, 이 무명에도 토목이 있습니까, 토목?)

106009 # 토목이엔 현 거 그건 토목 장시. 장시 폴레 다니는 거 토목 사렌 허민  
헤난 거주게. 집이서 현 건 토목이 엇고, 폴레 땡기는 것이 토목 장시. 옛날은 옷장  
시 오민 토목 장시 왓젠.(토목이라고 한 거 그건 토목 장사. 장사 팔러 다니는 거  
토목 사려고 하면 했던 거지. 집에서 한 건 토목이 없고, 팔러 다니는 것이 토목 장  
사. 옛날은 옷장사 오면 토목 장사 왔다고.)

106009 @ 아.(아.)

106009 # 그거 행 어디 저 대정 사름덜 폴레 땡기주게.(그거 해서 어디 저 대정  
사람들 팔러 다녔지.)

106009 @ 예.(예.)

106009 # 경허민 사름덜 그거 폴레 땡기는 거 토목.(그러면 사람들 그거 팔러  
다니는 거 토목.)

106011 @ 응. 흥세미녕은 무신거짜?(응. 흥세무명은 무엇입니까?)

106011 # 흥세미녕 엇어.(흥세무명 없어.)

---

130) ‘후리메’는 ‘후루메’라고도 하며 두루마기의 중세국어형인 ‘쿠루메, 쿠리메’에서 온 말이다.

106011 @ 아니, 시집갈 때, 시집갈 때.(아니, 시집갈 때, 시집갈 때.)

106011 # 거 홍세에 놓는 거. 옛날은 시집가젠 허민 그거 미녕 해근에 혼 필, 두 필씩 마흔 자짜리 두 필씩 놔.(그거 홍세에 놓는 거. 옛날은 시집가려고 하면 그거 무명 해서 한 필, 두 필씩 마흔 자짜리 두 필씩 놔.)

106011 @ 아, 두 필씩 놔? 홍세함에?(아, 두 필씩 놔? ‘홍세함’에?)

106011 # 함에, 함에. 그디 예장 써 놓고 해영. 보내민 사둔침이 행 가민 저 새 서방침이서 해영 뜰레 집이 가민 새각시 집이 뜰레 가민 예장이 익어 봐근에 예장을 그 집이 가문 하간 거 안 낱 허민 돌려 보내벼.(함에, 함에. 거기 예장 써 놓고 해서. 보내면 사둔집에 해서 가면 저 새신랑집에서 해서 딸의 집에 가면 새색시 집에 데리러 가면 예장 읽어 봐서 예장을 그 집에 가면 온갖 거 안 놔서 하면 돌려 보내벼려.)

106011 @ 응. 근디 미녕은 무사 낱신고?(응. 그런데 무명은 왜 왔는가?)

106011 # 그 홍세, 새각시 선물로 놓는 거주. 이제 이바지덜 안 험서?(그 혼서, 새색시 선물로 놓는 거지. 이제 이바지들 안 해?)

106011 @ 예, 예.(예, 예.)

106011 # 그거라, 그거라. 매일반 혼 가지이라.(그거야, 그거야. 매일반 한 가지야.)

106011 @ 아.(아.)

106011 # 이젠 다 돈으로 허지 안험서?(이젠 다 돈으로 하지 않니?)

106011 @ 예.(예.)

106011 # 이젠 돈으로 허당도 돈도 설러비똥 이젠 예장도 엇지 안허여? 예장도 엇주게.(이젠 돈으로 하다가도 돈도 그만두고 이젠 예장도 없지 않아? 예장도 없지.)

106012 @ 미녕은 멘네로 허는 거지예?(무명은 목화로 하는 거지요?)

106012 # 응, 멘네로. 멘네, 멘네 허는 거이 것도 나 곧주. 밧디 멘네 씨 해여근에 밧디 갈앙.(응, 목화로. 목화, 목화 하는 것이 그것도 내가 말하지. 밧에 목화 씨 해서 밧에 갈아서.)

106012 @ 예.(예.)

106012 # 갈앙 그거 문 해가민 열매가 올라가민 그거가 세 갑이, 세 갑이야. 아 울아울 캐가민 소게가 바글바글바글 캐여와.(갈아서 그거 모두 해가면 열매가 열어가면 그것이 세 번, 세 번이야. ‘아울아울’ 터가면 숨이 바글바글 터와.)

106012 @ 예.(예.)

106012 # 게민 그 소게가 초벌할 때 허민 흑흑흑흑 뽑아오곡 따시 두벌 돼 가민 캐민 해도 거 나오진 안허주게.(그러면 그 숨이 초벌할 때 하면 흑흑흑흑 뽑아오고 다시 두벌 되어가면 트면 해도 그거 나오진 않지.)

106012 @ 예.(예.)

106012 # 게민 그 각지벨로 각지차 문 해다근에 널영 물류민 폭폭폭폭 해근에

박삭허게 나오, 거 소겐 혜영 초불 건 허민 박삭허영 건 남에 돌아진 양 훌훌훌 훌  
빠곡 경헌디 그 막물엔 그추룩. 그거 해다근에 혼번이 물레여 무시거여 곤지 안혜  
서?(그러면 그 꼭지별로 꼭지째 모두 해다가 널어서 말리면 폭폭폭폭 해서 폭신하  
게 나오, 그 끝물엔 그렇게. 그거 해다가 한번 물레다, 뭐다 말하지 않았어?)

106012 @ 예, 예.(예, 예.)

106012 # 그걸로, 그걸로 불라.(그걸로, 그걸로 발라.)

106012 @ 예.(예.)

106012 # 실 내영 미녕 멘들고.(실 내어서 무명 만들고.)

106012 @ 아.(아.)

106012 # 그거, 그거 미녕.(그거, 그거 무명.)

106005 @ 어. 그거 실 멘들젠 허든 실은 어떻 질게 빠집니까?(어. 그거 실 만들  
려면 실은 어떻게 길게 빼집니까?)

106005 # 혼번이 그거 나왔잖아. 그거 영 행 요래 영 허민 가락지 영 헌 거 혜  
근에 뽕뽕뽕뽕 줄 둘러가민 영행 둘러가민 뽕뽕허주게. 경허민 영 행 불불불불 돌  
리민 막 나오주.(지난번 그거 나왔잖아. 그거 이렇게 해서 요리 이렇게 하면 가락  
이렇게 한 거 해서 뽕뽕뽕뽕 줄 둘러가민 이렇게 해서 둘러가민 뽕뽕하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불불불불’ 돌리면 막 나오지.)

106005 @ 예, 예.(예, 예.)

106005 # 막 나오민 실이 막 꼬아질 거 아니라? 영혜근에 따시 영 허민 가락지  
더래 감아져.(막 나오면 실이 막 꼬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  
가락에 감아져.)

106005 @ 아, 가락지더래 감아?(아, 가락에 감아?)

106005 # 그 줄 감는 것더래 감아. 그 줄 감는 데가 잇주게.(그 줄 감는 것에 감  
아. 그 줄 감는 데가 있지.)

106005 @ 응.(응.)

106005 # 쟁행 하영 행 요만인 허민 훌허게 빠고 따시 다른 거 꺾왕 다시 쟁  
허는 거라.(그렇게 해서 많이 해서 요만큼 하면 훌허게 빠고 다시 다른 거 꺾워서  
다시 그렇게 하는 거야.)

106005 @ 응.(응.)

106005 # 우리가 그거 내나난 알아.(우리가 그거 냈어서 알아.)

106005 @ 그민 그 멘네에서 실, 실을 뽑아근에 미녕 어떻 차?(그러면 그 목화  
에서 실, 실을 뽑아서 무명 어떻게 짜?)

106005 # 깍지 행영 까비뒤근에, 옛날은 소게 태우는 기계가 우리 두린 때 엇으  
난.(‘깍지’ 해서 까두고, 옛날은 솜 태우는 기계가 우리 어린 때 없으니까.)

106005 @ 예.(예.)

106005 # 그걸 초석 길앙 이디 낵 대 혜근에 수리대 요만큼헌 거 혜근에 세 깢  
혜영 무꺼낵 탁탁탁탁 두드려 가민 영 영 영허멍 두드려 가민 소게가 박썩<sup>131)</sup>허주

게.(그걸 초식 깎아서 여기 와서 대 해서 수리대 요만큼한 거 해서 세 깎 해서 묶어  
놔 탁탁탁탁 두드려 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두드려 가면 숨이 ‘박싹’하  
지.)

106005 @ 아.(아.)

106005 # 박싹허민 그때 싹싹하게 그걸 헤영 영 멘짝, 초식 ㄴ치 멘짝하게 행  
냥 그제 따시 또 영 그거 혼 방울씩 그치멍 틀레<sup>132)</sup> 짓주, 영영영영 틀레 짓영 요  
만씩 행 전기 들듯.(‘박싹’하면 그때 싹싹하게 그걸 해서 이렇게 매끈, 초식 같이 매  
끈하게 해놓아서 그때 다시 또 이렇게 그거 한 방울씩 자르면서 타래 짓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타래 지어서 요만큼씩 해서 빙떡 말듯.)

106005 @ 응.(응.)

106005 # 헤 냇 그거 하나씩 냇 영영영영 내곡 내곡 허멍.(해 놔서 그거 하나씩  
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고 내고 하면서.)

106005 @ 응.(응.)

106005 # 겐 옛날은 그 소게 타는 거 엇으난 영 두드렁 허민 박싹헤여.(그래서  
옛날은 그 숨 타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두드려서 하면 ‘박싹’해.)

106005 @ 예.(예.)

106005 # 경헨 소게 헤난.(그렇게 숨 했었어.)

106005 @ 예. 그른 경헨 다음에는 미녕은 어떻 짜는 거라?(예. 그러면 그런 다  
음에는 무명은 어떻게 짜는 거야?)

106005 # 미녕헤여근에 그추룩 행 막 으라 개 행 하영 헤 놓민, 따시 또 혼, 일  
로 저만씩 허게시리 허여근에 마흔 자가 옛날엔 혼 필이라.(무명해서 그렇게 해서  
막 여러 개 해서 많이 해 놓으면, 다시 또 한, 이리로 저만큼씩 하게끔 해서 마흔  
자가 옛날엔 한 필이야.)

106005 @ 예.(예.)

106005 # 마흔 자허민 그 마흔 자 발수만이 뗏 발이엔 발아근에 따시 정 또 막  
댕이 빙빙빙빙 헤영 그거 따시 만딱 틀레 짓주게.(마흔 자하면 그 마흔 자 발수만큼  
재어서 다시 정 또 막대기 빙빙빙빙 해서 그거 다시 모두 타래 짓지.)

106005 @ 예.(예.)

106005 # 틀레 짓어 냇 이젠 따시 또 베클헤근에 무시거 헤영 그거 다 헤영 그  
차근엔 문딱 그디 혼 고망에 두 개씩 다 꿰여.(타래 지어 놔서 이젠 다시 또 베틀해  
서 무엇 해서 그거 다 해서 잘라서 모두 거기 한 구멍에 두 개씩 다 끼워.)

106005 @ 예.(예.)

106005 # 꿰영 차근에 미녕헤낫주.(끼워서 짜서 무명했었지.)

106005 @ 어떻 영영영영 차는 거라?(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짜는  
거야?)

131) ‘박싹’은 사이가 촘촘하게 아주 많이 난 모양이나 숨 따위가 부풀어 오른 모양을 말한다.

132) ‘틀레’는 실을 감아서 틀어 놓은 얼마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표준어 ‘타래’이다.

106005 # 영허민 그 베클이나 미녕클이나 혼 거리난 영영영영 돌아매민 이거 영 허는 것가 소복허민 영행. 보디 특허게 찢르고 영행 특허게 찢르고 경허멍 헤낫 주.(이렇게 하면 그 베틀이나 무명틀이나 한 거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달아매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소복하면 이렇게 해서. 바디 특하게 찢르고 이렇게 해서 특하게 찢르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지.)

106005 @ 보디, 보디 찢르는 거봐?(바디, 바디 찢르는 겁니까?)

106005 # 응, 보디가 잇주, 영영 등기는.(응, 바디가 있지, 이렇게 이렇게 당기는.)

106005 @ 아, 영영 등기는 거?(아, 이렇게 이렇게 당기는 거?)

106005 # 응, 것가 잇주게. 경허민 하영 짜는 사름은 혼 스무남은 자 짜고 못 짜는 사름은 열댓 자베끼 못허고.(응, 그것이 있지. 그러면 많이 짜는 사름은 한 스무남은 자 짜고 못 짜는 사름은 열댓 자밖에 못하고.)

106005 @ 하루에?(하루에?)

106005 # 응.(응.)

106005 @ 흐룻저녁이?(하루저녁에?)

106005 # 하루에.(하루에.)

106005 @ 하루에.(하루에.)

106005 # 낮이.(낮에.)

106005 @ 하루해원.(하루종일.)

106005 # 응, 흐루저물앙 헤영 잘 짜는 사름은 스무 잘 짜고 경 안허는 사름은 혼 열댓 자베끼 못 짜고.(응, 하루 저물도록 해서 잘 짜는 사름은 스무 자를 짜고 그렇지 않은 사름은 한 열댓 자밖에 못 짜고.)

106005 @ 아. 겐 그거 헤근에 옷도 행 입고.(아. 그래서 그거 해서 옷도 해서 입고.)

106005 # 응, 그거 헤근에.(응, 그거 해서.)

106005 @ 어디 강 풀고?(어디 가서 팔고?)

106005 # 그 시절에 풀지 안허고 헤영 입곡 남으민 따시 누게 폴아도렌 허민 폴아주고.(그 시절에 팔지 않고 해서 입고 남으면 다시 누가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 주고.)

106005 @ 아. 할무니도 막 잘 차낫지예?(아. 할머니도 아주 잘 찢었지요?)

106005 # 응?(응?)

106005 @ 할무니도 그런 거 막 잘헤낫지예.(할머니도 그런 거 아주 잘했었지요?)

106005 # 난 베나 미녕이나 어멍허는 거 도웨주, 차나진 안해서.(난 베나 무명이 나 어머니 하는 거 도왔지, 찢진 않았어.)

106005 @ 아, 할무니가 허진 안허고.(아, 할머니가 하진 않고.)

106005 # 허는 것만 도웨즘만 헛주.(하는 것만 도와즘만 했지.)

106005 @ 아, 하는 거 도와주기만예?(아, 하는 거 도와주기만요?)

106005 # 응, 나랏으로 허진 안헤낫어.(응, 나대로 하진 않았었어.)

### 모시

106013 @ 모시도 헤낫수과?(모시도 했었습니까?)

106013 # 모신 우린 안 헤봤어. 모시허는 사름은 모시도 허주.(모신 우린 안 헤봤어. 모시하는 사람은 모시도 하지.)

106013 @ 제주도에서도 허여?(제주도에서도 해?)

106013 # 저, 어디 저 모관<sup>133</sup>더레 헤나실 거라.(저, 어디 저 모관에 했었을 거야.)

106013 @ 아, 모관더레?(아, 모관에?)

106013 # 이렌 안 헤낫어.(이리는 안 했었어.)

106013 @ 예.(예.)

106013 # 모시도.(모시도.)

106013 @ 예.(예.)

106013 # 모시도 저 삼달게 허는 거주게.(모시도 저 삼처럼 하는 거지.)

106013 @ 삼달게.(삼처럼.)

106013 # 응.(응.)

### 삼

106016 @ 삼은 헤근에 어떻 행 허는 거파?(삼은 해서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6016 # 삼은 허여근에 그거 행 물류왕 그거 다 널영 물류왕 낫당 따시 또 그거 허영 물에 켕 허민, 따시 또 혼 줌 헤근에 이만씩, 이만씩, 요만씩 행 무경 낫당 따시 물르민 ㄱ슬 들어가민, 팔월 나가민 그거 다 물에 켕 따시 또 혼 방울씩 다 꿔주, 꿔영 문 꿔영.(삼은 해서 그거 해서 말려서 그거 다 널어서 말려서 낫다가 다시 또 그거 해서 물에 담가서 하면, 다시 또 한 줌해서 이만큼씩, 이만큼씩, 요만큼씩 해서 묶어 낫다가 다시 마르면 가을 들어가면, 팔월 나가면 그거 다 물에 담가서 다시 또 한 방울씩 다 꿔지, 꿔어서 모두 꿔어서.)

106016 @ 예.(예.)

106016 # 꿔영 따시 무경 물려 낫다근에 요만씩, 요만씩 무경, 요만씩 무꺼근에 열 개 무경 톡허게 가늌헤 낫다근에 걸 따시 삼아.(꿔어서 다시 묶어서 말려 낫다가 요만큼씩, 요만큼씩 묶어서, 요만큼씩 묶어서 열 개 묶어서 톡하게 가늌헤 낫다가 그걸 다시 삼아.)

106016 @ 응.(응.)

106016 # 동무렵에 낵.(무릎에 낵서.)

133) '모관'은 제주도 북제주군의 옛 행정구역으로 제주목을 이르는 말이다.

106016 @ 어떻 삼는 거파?(어떻게 삼는 겁니까?)

106016 # 영 헤영, 영 헤영 실밥 헤근에 실 잇دت. 실 잇دت 영 헤영 꿰영, 영 헤영 꿰영 헤 낱 이레 영 대여 낱, 이레 영, 영 허곡, 영 허곡 허멍.(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실밥 해서 실 잇دت. 실 잇دت 이렇게 해서 꿰어서, 이렇게 해서 꿰어서 해 놓고 이리 이렇게 대어 놓고, 이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106016 @ 경허민 질게 꿰는 거라?(그러면 길게 되는 거야?)

106016 # 응, 그거 잇는 거.(응, 그러 잇는 거.)

106016 @ 잇는 거예.(잇는 거요.)

106016 # 응, 삼을 잇는 거.(응, 삼을 잇는 거.)

106016 @ 어, 어.(어, 어.)

106016 # 경헝 몬 잇어 낱 그거 헤영 몬딱 헤지민 따시 미녕거추룩 것도 몬딱 빨주게.(그렇게 해서 모두 이어 놔서 그거 해서 모두 할 수 있으면 다시 무명처럼 그것도 모두 빨지.)

106016 @ 예.(예.)

106016 # 따시 또 발아 놔근에 그거 헤 낱 솥앙 몬딱 헤 낱. 따시 그놈을 또 옛날에 믱물체 솥아난 가메에 낱 또 솥아.(다시 또 ‘발아’ 놔서 그거 헤 놔서 솥아서 모두 헤 놔서. 다시 그놈을 또 옛날에 메밀겨 솥았던 가마에 놔서 또 솥아.)

106016 @ 그 솥을 솥아?(그 솥을 또 솥아?)

106016 # 응, 또 솥앙 물에 강 막 씻어다근에 이제 또 물류왕 그거 다시 또 그거 헤 논 것더레.(응, 또 솥아서 물에 가서 막 씻어다가 이제 말려서 그거 다시 또 그거 헤 놓은 것에.)

106016 @ 공들이는 거예, 잘도.(공들이는 거요, 아주.)

106016 # 공들어.(공들어.)

106016 @ 예.(예.)

106016 # 경헤낭 다시 또 놀아냥 짜주게.(그렇게 해놔서 다시 또 날아놔서 짜지.)

106016 @ 응.(응.)

106016 # 겐 나가, 할망 허는 거, 누게 허는 거 보난 알암주.(그래서 내가, 할머니 하는 거, 누가 하는 거 보니까 알고 있지.)

106016 @ 예.(예.)

106016 # 아니 본 사름덜 하나토 몰라.(안 본 사람들 하나도 몰라.)

106016 @ 계난.(그러니까.)

106016 # 경헝 알아. 나가 허진 안헤도 어무니, 할무니 허는 걸 보아 나난 아는 거라. 허는 거 보난.(그래서 알아. 내가 하지는 않아도 어머니, 할머니 하는 걸 봐서 아는 거야. 하는 거 보니까.)

106016 @ 어.(어.)

106016 # 나가 허진 안헤도.(내가 하진 않아도.)

106016 @ 응.(응.)

106016 # 삼 삼는 거 ㄴ튼 거 미녕 올 내는 거 ㄴ튼 건 헛주게.(삼 삼는 거 같은 거 무명 올 내는 거 같은 건 했지.)

106016 @ 응.(응.)

106016 # 짜지만 안허고.(짜지만 앓고.)

106016 @ 짜지만 안허고예, 올 내는 건 허고.(짜지만 앓고요, 올 내는 건 하고.)

106016 # 건 다 허여난.(그건 다 했었어.)

106016 @ 아.(아.)

106016 # 삼도 영 삼으민 동무렵에 영 헤여근에 삼아노민 ㄴ슬엔 이 동무렵이 다 케여. 하도 언 거 헤영 영영, 종애 걷영 앓앙, 영 종애 걷영 앓아근에 영영 이디서 허민.(삼도 이렇게 삼으면 무릎에 이렇게 해서 삼아놓으면 가을엔 이 무릎이 다 터. 하도 찬 거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종아리 걸어 앓아서. 이렇게 종아리 걸어 앓아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하면.)

106016 @ 이디서 허민?(여기서 하면?)

106016 # 응, 이디서 허민. 이디가 케여.(응, 여기서 하면. 여기가 터.)

106016 @ 아이고, 옷 우이서 안 허고 슬, 슬 우이에.(아이고, 옷 위에서 안 하고 살, 살 위에.)

106016 # 물에 켄 즈물러 가난.(물에 담가서 주물러 가니까.)

106016 @ 아.(아.)

106016 # 경허민 어떤 때 화리에 불살라 놔근에 불 초아 가명.(그러면 어떤 때 화로에 불살라 놔서 불 쪼어 가면서.)

106014 @ 게민 베로는 무신 옷 멘들앙 입읍니까?(그러면 베로 무슨 옷 만들어서 입읍니까?)

106014 # 베 허민 여름에 베, 남저덜 베 정벙이 행 입곡 베 적삼 행 입곡 따시 또 장게갈 때 큰 도복도 행 입곡.(베 하면 여름에 베, 남자들 베 잠방이 해서 입고 베 적삼 해서 입고 다시 또 장가갈 때 큰 도복도 해서 입고.)

106014 @ 아, 도복도 베로 허는 거파?(아, 도복도 베로 하는 겁니까?)

106014 # 응, 베로 허는 거주.(응, 베로 하는 거지.)

106014 @ 아.(아.)

106014 # 응, 베로. 게난 요새 멩지해도 옛날에 다 베허민 ㄴ는베 헤여근에.(응, 베로. 그러니까 요새 명주해도 옛날에 다 베하면 가는베 해서.)

106014 @ 아.(아.)

106014 # ㄴ는베 해 놓민 보통은 못 입지. 그 ㄴ는 걸로 허민 남저덜이나 중의 적삼허고 장게갈 때 도복이나 허고. 그건 막 폴아드렌 허민 폴아주곡.(가는베 해 놓으면 보통은 못 입지. 그 가는 걸로 하면 남자들이나 중의 적삼하고 장가갈 때 도복이나 하고. 그건 마구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주고.)

106014 @ 아.(아.)



106014 # 경혜여.(그렇게 해.)

106014 @ 이거 어디 영장 날 때도 베옷 할 거 아니?(이거 어디 상 날 때도 베옷 할 거 아니?)

106014 # 영장 날 때 흙은베.(상 날 때 굵은베.)

106014 @ 아, 그땐 흙은베?(아, 그땐 굵은베.)

106014 # 응, 흙은베하고. ㄴ는벤 하지 안 허난 그 ㄴ는벤 헤영 거 줌진, 새서방 옷이나 허고 도복이나 허고 창옷이나 허주. 어디 누게 도복이나 헤도렌 허믄 좇아 오주. 폴아도렌 허민 폴아주고.(응, 굵은베하고. 가는베는 하지 않으니까 그 가는베는 해서 그거 가는, 새신랑 옷이나 하고 도복이나 하고 창옷이나 하지. 어디 누가 도복이나 헤달라고 하면 찾아오지. 팔아 달라고 하면 팔아주고.)

106018 @ 아. 게민 삼도 질좌났수과?(아, 그러면 삼도 길렀었습니까?)

106018 # 질루지. 저 밧디 갈앙.(기르지. 저 밧에 갈아서.)

106018 @ 아, 밧디 갈앙?(아, 밧에 갈아서?)

106018 # 응, 우영에 갈앙.(응, 텃밭에 갈아서.)

106018 @ 건 어떻 행 허는 거파?(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6018 # 어떻 행 거 봄 나민, 그거 씨 뿌여근에, 나근에, 크민 허는 거주게.(어떻게 해서 그거 봄 나면, 그거 씨 뿌려서, 나서, 크면 하는 거지.)

106018 @ 기민 낭채 다 뽑앙?(그러면 나무채 다 뽑아서?)

106018 # 경허민 막 크민 이제 비여.(그러면 아주 크면 이제 베어.)

106018 @ 응.(응.)

106018 # 비여다근에 썸 행 왕상허민 썸은 호미로 탈탈 털어근에 헤다근에 그거 헤영 이젠 그 ㄴ는 건 트로 놓고 흙은 건 이추록 흙은 건 헤여근에 박박 훑트민 낭이 땔싸지민 이젠 그거 다 벳겨.(베어다가 잎 해서 무성하면 잎은 호미로 탈탈 털어서 헤다가 그거 해서 이젠 그 가는 건 따로 놓고 굵은 건 이렇게 굵은 건해서 박박 훑으면 나무가 무너지면 이젠 그거 다 벳겨.)

106018 @ 응.(응.)

106018 # 벳겨근에 딱딱 벳기명 다 물렁 혼 줌씩 허명 담 우이 널영 물리와근에 또 이젠 저슬 들민 그거 다, ㄴ슬 들기 전이 팔월 나민 물 즈물앙 그거 다 꿰고 줌질게 영영영 꿰명, 꿰영 낫당.(벳겨서 딱딱 벳기면서 다 말려서 한 줌씩 하면 담 위에 널어서 말려서 또 이젠 가을 들면 그거 다, 가을 들기 전에 팔월 나면 물 담가서 그거 다 꿰고 잘게 이렇게 이렇게 꿰면서, 꿰면서 낫다가.)

106018 @ 다 일일이예.(다 일일이요.)

106018 # 또 헤영 이제 이경 멧 번 데움허는지 몰라.(또 해서 이제 이겨서 몇 번 비트는 지 몰라.)

## 도구

106019 @ 응. 게믄 그 베허는 거영, 미녕헐 때 허는 그 씨 빼는 물레?(응. 그러

면 그 베하는 거랑, 무명할 때 하는 그 씨 빼는 물레?)

106019 # 응, 미녕허는 거 씨 빼는 거 잇곡 저.(응, 무명하는 거 씨 빼는 거 있고 저.)

106019 @ 삼도 잇곡예.(삼도 있고요.)

106019 # 벤 삼으로만 허는 거주.(베는 삼으로만 하는 거지.)

106019 @ 예. 저 소게, 숨 빼는 거, 멘네 숨 빼는 거. 그거 어떻게 빼는 거파?  
(예. 저 숨, 숨 빼는 거, 목화 숨 빼는 거. 그거 어떻게 해서 빼는 겁니까?)

106019 # 그거 안 곱아냐, 소게 빼는 건 영 행 이거 혼 착 다리 진진헌 거 시난  
거 영 깎앙 앓앙 이착으로 체경을 빙빙 돌당, 돌아가당 그레 영 소게 복삭허게 대  
민 썰 빠지고 소겐 떨어지주. 경해근에 빼는 거.(그거 안 말했냐, 숨 빼는 건 이렇  
게 해서 이거 한 쪽 다리 긴긴한 거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깔아서 앉아서 이쪽으로  
체경을 빙빙 돌다가, 돌아가다가 그리 이렇게 숨 ‘복삭’하게 대면 실 빠지고 숨은  
떨어지지. 그렇게 해서 빼는 거.)

106019 @ 그제, 그제 일름이 뭐?(그제, 그제 이름이 뭐?)

106019 # 물레, 물레. 거 씨 빼는 거.(물레, 물레. 그거 씨 빼는 거.)

106020 @ 실 영 감는 그거 잇수게? 실 영 감는 거. 것도 물레?(실 이렇게 감는  
그거 있잖습니까? 실 이렇게 감는 거. 그것도 물레?)

106020 # 저 소게 빼는 건 물르레고 실 영 허는 건 물레.(저 숨 빼는 건 ‘물르  
레’고 실 이렇게 하는 건 물레.)

106020 @ 똑같애? 물레?(똑같아? 물레?)

106020 # 물르레.(‘물르레’.)

106020 @ 물르레, 어느 게 물르레?(‘물르레’, 어느 게 ‘물르레’?)

106020 # 씨 빼는 거.(씨 빼는 거.)

106020 @ 아, 씨 빼는 게 물르레. 그민 실 영 감는 건?(아, 씨 빼는 게 ‘물르  
레’. 그러면 실 이렇게 감는 건?)

106020 # 물레.(물레.)

106020 @ 건 물레.(그건 물레.)

106020 # 영영 넘만 허는 거.(이렇게 내기만 하는 거.)

106020 @ 건 어떻게근에. 한 번만 더 곱아줍서. 실 영 해근에 어떻?(그건 어떻  
게 해서. 한 번만 더 말해 주세요. 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106020 # 췌 영 해근에 흐나 끼와근에 영영 둘러가민 그 실이 영영 돌지 안헤  
게.(쇠 이렇게 해서 하나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둘러가면 그 실이 이렇게 이렇게 돌  
지 않아?)

106020 @ 예.(예.)

106020 # 돌아가민 그 속에 영행, 영행 내여가민 요만이.(돌아가면 그 속에 이렇  
게해서, 이렇게 해서 내어 가면 요만큼.)

## 바느질

106022 @ 그민 이젠 바느질허는 거예.(그러면 이젠 바느질하는 거요.)

106022 # 예.(예.)

106022 @ 바느질허젠 허민 무신거, 무신거 잇어야 됩니까?(바느질하려고 하면 무엇, 무엇 있어야 됩니까?)

106022 # 바느질허는 건 바느허고 실허고.(바느질하는 건 바늘하고 실하고.)

106022 @ 그거 어디 담앙 놔 뒤. 무시거에 영 담앙 놔두지 안허여.(그거 어디 담아서 놔 뒤. 무엇에 이렇게 담아서 놔두지 않아.)

106022 # 응.(응.)

106022 @ 거 뭐엔 곶아?(그거 뭐라고 말해?)

106022 # 고녕이포. 거 실, 오만 거 담는 거 고녕이포. 고녕이포 어떻게영 고녕 이폰고 허민 이것가이 저, 이것가이 영 네 귀 나민 이것가 영 영 영 행 꼬부리민 이거 허고 이거 요디 영허고 영허민 이것가 고녕이 귀ㄴ치, 고녕이 귀가 나주게. ('고녕이포'. 그거 실, 온갖 거 담는 거 '고녕이포'. '고녕이포' 어떻게 해서 '고녕이포'인가 하면 이것이 저, 이것이 이렇게 네 귀통이 나면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부리면 이거하고 이거 요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고양이 귀 처럼, 고양이 귀가 나지.)

106022 @ 아, 하하하. 거기다가 실 담아, 실?(아, 하하하. 거기다가 실 담아, 실?)

106022 # 실도 담고 험벅도 놓고게.(실도 담고 형겔도 놓고.)

106022 @ 아.(아.)

106022 # 바놓도 놓고 허는 게 고녕이포.(바늘도 놓고 하는 게 '고녕이포'.)

106022 @ 아.(아.)

106022 # 게난 고녕이포엔 현 게 귀 두 개라부난 고녕이포텐 허주.(그러니까 '고녕이포'라고 한 게 귀 두 개라서 '고녕이포'라고 하지.)

106022 @ 아, 귀 두 개라부난.(아, 귀 두 개라서.)

106022 # 아.(아.)

106022 @ 그민 무신 저 소쿠리 같은 거에라도?(그러면 무슨 저 소쿠리 같은 거에라도?)

106022 # 바놓상지.(반짚고리)

106022 @ 바놓상지?(반짚고리?)

106022 # 응.(응.)

106022 @ 바놓 영 써나민 영영 찢르는 건 뭐라?(바늘 이렇게 쓰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찢르는 건 뭐야?)

106022 # 바놓줄레.(바늘겨레.)

106022 @ 바놓줄레. 게민 손에 영 끼와근예?(바늘겨레. 그러면 손에 이렇게 끼워서?)

106022 # 그건 사름마다 안 끼와.(그건 사람마다 안 끼워.)

106022 @ 아, 건 무시거렌?(아, 그건 뭐라고?)

106022 # 손골메, 손골메.(골무, 골무.)

106022 @ 손골메. 그것도 끼왕 허고예?(골무. 그것도 끼워서 하고요?)

106022 # 그거 사람마다 안 허여.(그거 사람마다 안 해.)

106022 @ 아.(아.)

106022 # 거 손콥에 바농 들어가카부텐 찢렁 허는 거난.(그거 손톱에 바늘 들어 갈까봐 찢러서 하는 거니까.)

106022 @ 응.(응.)

106022 # 이 상손가락에 영 찢렁.(이 가운데손가락에 이렇게 끼워서.)

106022 @ 아, 이 상손가락에 찢르는 거파?(아, 이 가운데손가락에 끼우는 겁니까?)

106022 # 응. 영 행 바농 찢르민 손콥 아래로 쑥쑥 찢르멍 게난 허는 거주. 거 사름마다 허는 건 아니.(응. 이렇게 해서 바늘 찢르면 손톱 아래로 쑥쑥 찢르면서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거 사람마다 하는 건 아니.)

106022 @ 사람마다 허는 건 아니예.(사람마다 하는 건 아니요.)

106022 # 아니주게.(아니지.)

106023 @ 그럼 바농질허는 거, 영영영영 허는 건 무신 질이라?(그럼 바느질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질이야?)

106023 # 영영영영 허는 건 호, 호는 거.(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호, 호는 거.)

106023 @ 호는 거. 그다음예?(호는 거. 그다음예?)

106023 # 혼 번 영 행 다시 영 허는, 뒤터레 바농 뒤터레 땡침허는 거.(한 번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뒤에 바늘 뒤에 박음질하는 거.)

106023 @ 땡침허는 거.(박음질하는 거.)

106023 # 미싱ㄹ치 영 박아지멍.(미싱처럼 이렇게 박아지면서.)

106023 @ 예, 예.(예, 예.)

106023 # 땡침허는 거고, 영영 허는 건 호는 거.(박음질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호는 거.)

106023 @ 아, 영영영 허는 건?(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106023 # 어디 영영 허느냐?(어디 이렇게 이렇게 하니?)

106023 @ 아니, 바농 찢러근예?(아니, 바늘 찢러서.)

106023 # 건 감치는 거.(그건 감치는 거.)

106023 @ 감치는 거. 그럼 주로 호거나 땡침허거나 아니면.(감치는 거. 그럼 주로 호거나 박음질하거나 아니면.)

106023 # 땡침허는 것은 든든허게 허는 것이고. 옷 해근에 자꾸 뜯는 건 호와.(박음질하는 것은 든든하게 하는 것이고. 옷 해서 자꾸 뜯든 건 호아.)

106023 @ 응.(응.)

106023 # 오래 놔두는 건 적삼 거튼 건 땡침을 허고. 저슬에 바지 무스거 허는 건 그냥 호와.(오래 놔두는 건 적삼 같은 건 박음질 하고. 겨울에 바지 무엇 하는 건 그냥 호아.)

106023 @ 아.(아.)

106023 # 호와. 감추는 것도 감추는 건 옷 풀어지지 말렌 감추는 거.(호아. 감추는 것도 감추는 건 옷 풀어지지 말라고 감추는 거.)

106023 @ 예, 예.(예, 예.)

106023 # 계난 보선 같은 건 옛날엔 만딱 보선 행 신으나 그 보선 ㄴ튼 건 감춰.(그러니까 버선 같은 건 옛날엔 모두 버선 해서 신으니까 그 버선 같은 건 감춰.)

106023 @ 아.(아.)

106023 # 감춰, 감춰.(감춰, 감춰.)

106023 @ 아.(아.)

#### 옷 종류

106024 @ 이번엔, 남자 옷은 종류가 어떤 거, 어떤 거 이신고?(이번엔, 남자 옷은 종류가 어떤 거, 어떤 거 있는가?)

106024 # 남자옷 종류엔 여름엔 점벙이.(남자 옷 종류엔 여름엔 잠방이.)

106024 @ 응.(응.)

106024 # 따시 저슬엔 바지.(다시 겨울엔 바지.)

106024 @ 응.(응.)

106024 # 그거 다주. 여름에 점벙이허고 적삼허고.(그거 다지. 여름에 잠방이하 고 적삼하고.)

106024 @ 응.(응.)

106024 # 다시 또 적삼도 마고지 적삼이엔 현 건 이추록 영 해근에 저 거시기 메왕 허고 여기 게와 달린 건 마고지 적삼이고.(다시 또 적삼도 마고자 적삼이라고 한 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거시기 메워서 하고 여기 주머니 달린 건 마고자 적삼이고.)

106024 @ 응.(응.)

106024 # 또 영혜영 깃 혜영 돌아근에 쪼개 입는 건 그자 적삼. 저고리도 경 허고.(또 이렇게 해서 깃 해서 달아서 조끼 입는 건 그저 적삼. 저고리도 그렇게 하 고.)

106025 @ 여자 옷은?(여자 옷은?)

106025 # 여자도 그거라. 여자도 옛날엔 이추록 몸빠로 나오지 안 허영 굴중의. 굴중의가 혼, 미녕이나 베나 다섯 폭해근에 혼짝이 폭 반씩, 폭 반씩.(여자도 그거 야. 여자도 옛날엔 이렇게 일 바지'로 나오지 았고 굴중의. 굴중의가 한, 무명이나

베나 다섯 폭해서 한 짝이 폭 반씩, 폭 반씩.)

106025 @ 응.(응.)

106025 # 저슬에 바지 소굽에 입꼭 우이 굴중의 입주게.(겨울에 바지 속에 입고 위에 굴중의 입지.)

106025 @ 바지 소굽에 굴중의 입는 거?(바지 속에 굴중의 입는 거?)

106025 # 응, 아니. 우이.(응, 아니. 위에.)

106025 @ 바지 우이 굴중의 입어?(바지 위에 굴중의 입어?)

106025 # 우이, 우이 중의 입어.(위에. 위에 중의 입어.)

106025 @ 아, 바지 우이 중의 입어?(아, 바지 위에 중의 입어?)

106025 # 어. 여청덜은.(어. 여편네들은.)

106025 @ 여청덜은.(여편네들은.)

106025 # 경헌디 따시 모른 디 가민 또 치메 입영 가주. 이것 바람에 안 가주 게. 옛날은.(그런데 다시 모른 데 가면 또 치마 입어서 가지. 이것 바람에 안 가지.)

106025 @ 아, 그 우이 다시 치메 입영?(아, 그 위에 다시 치마 입어서.)

106025 # 응, 치메 입어. 다시 또이 어른덜은 옆치메 입고 아이덜은 통치메 입어.(응, 치마 입어. 다시 또 어른들은 옆치마 입고 아이들은 통치마 입어.)

106025 @ 아, 어른들은 무슨 치메?(아, 어른들은 무슨 치마?)

106025 # 옆이 갈라진 치메.(옆이 갈라진 치마.)

106025 @ 아까 무슨?(아까 무슨?)

106025 # 허리 돌아진 거.(허리 달린 거.)

106025 @ 허리 돌아진 거.(허리 달린 거.)

106025 # 옆치메게.(옆치마요.)

106025 @ 옆치메허고 아이덜은 통치메허고.(옆치마하고 아이들은 통치마하고.)

106025 # 응, 통은 문딱 주워정 입는 거 통치메.(응, 통은 모두 주워서 입는 거 통치마.)

106025 @ 어. 여자 우이는?(어, 여자 위에는?)

106025 # 어?(어?)

106025 @ 여자 우이는?(여자 위에는?)

106025 # 여름에 적삼 입꼭 저슬엔 저고리 입고게.(여름에 적삼 입고 겨울엔 저고리 입고.)

106025 @ 아.(아.)

106025 # 다 혼 가지. 이제나 저제나 옷 입는 건 혼 가지.(다 한 가지. 이제나 저제나 옷 입는 건 한 가지.)

106026 @ 애기덜은?(아기들은?)

106026 # 애기덜도 경허주.(아기들도 그렇지.)

106026 @ 애기덜도 경허여예. 아까 치메만 통치메헌 게 흐끔 트나고, 응.(아기들도 그렇지. 아까 치마만 통치마한 게 조금 다르고, 응.)

106026 # 응. 아기덜도 다 그거주. 경험 주주. 남저덜은 스나이덜은 바지험 입지곡 점벙이 험 입지곡.(응. 아기들도 다 그거지. 그렇게 해서 주지. 남자들은 사나이들은 바지해서 입히고 잠방이 해서 입히고.)

106024 @ 속에 뭐 속옷 같은 건?(속에 뭐 속옷 같은 건?)

106024 # 옛날에 었어. 옛날은 흐쫄 셔 나난 속곳 입지곡 남저덜은 이 팬티 같은 거 안 입어났어. 우리도 영 험 보민 훈도시<sup>134</sup>)라고 거 일본 사름덜 훈도시 아니, 그런 거라. 이 팬티 안 입어.(옛날에 었어. 옛날은 조금 있었으니까 속곳 입히고 남자드르은 이 팬티 같은 거 안 입었었어. 우리도 이렇게 해서 보면 ‘훈도시’라고 그거 일본 사람들 ‘훈도시’ 아니, 그런 거야. 이 팬티 안 입어.)

106024 @ 아.(아.)

106024 # 훈도시 험 영 즐라메영 영영.(‘훈도시’ 해서 이렇게 즐라매서 이렇게 이렇게.)

106024 @ 훈도시?(‘훈도시’?)

106024 # 응, 옛날덜은.(응, 옛날들은.)

106024 @ 응.(응.)

106024 # 경허곡 거 안 허는 사름덜은이 여남은씩 난 스나이덜은 베 헤여근에 거 감 들잖아?(그리고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여남은씩 난 사나이들은 베 해서 그거 감 들잖아?)

106024 @ 예, 감.(예, 감.)

106024 # 감 들영 영 헤영 사민 다 바레져. 굴메로. 지랑허게 다 바레져.(감 들여서 이렇게 해서 사면 다 보여. 그림자로. 길게 다 보여.)

106024 @ 아.(아.)

106024 # 훈도시도 안 허고 팬티도 안 입고 해불민.(‘훈도시’도 안 하고 팬티도 안 입고 해버리면.)

106024 @ 아.(아.)

106024 # 남자덜은 중의덜만 험, 여름에 입저불민.(남자들은 중의들만 해서, 여름에 입혀버리면.)

106024 @ 응, 응.(응, 응.)

106024 # 경허민 다 바레서.(그러면 다 봐서.)

106027 @ 응. 옷은 집이서 다 만들엇주예?(응, 옷은 집에서 다 만들엇지요?)

106027 # 응, 다 멘들안.(응, 다 만들엇어.)

106027 @ 멘들젠 허민 어떻 험 멘들아.(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

106027 # 멘들젠 허민 어떻 험 멘들아, 바지도 멘들고 저고리도 멘들고. 경허민 옛날엔 저 멩질이나 돌아오젠 허민 하지 안허지, 안 허여. 쟁허민 그 시아방, 시어명도 췌고, 남팬도 췌고, 아이덜도 췌고 허민 선달 혼 브름만 돼가민 그거 만딱 빨아근에, 입던 거 몬 빨앙 그 선달 그물어 가민 그거 만딱 빨앙 그거 호앙 멘글아.

134) ‘훈도시’는 일본어 ‘ふんどし’로 일본의 성인 남성이 입는 전통 속옷이다.

남저덜 소게 저고리허고, 소게 바지허고.(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 바지도 만들고 저고리도 만들고. 그러면 옛날엔 저 명절이나 돌아오려고 하면 하지 않지, 안 해. 그러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면 선달 한 보름만 되어가면 그거 모두 빨아서, 입던 거 모두 빨아서 그 선달 그물어 가면 그거 모두 빨아서 그거 호아서 만들어. 남자들 솜 저고리하고, 솜 바지하고.)

106027 @ 응.(응.)

106027 # 다 멘글앙 내놓꼭 시어멍, 시아방네도 경허멍 다 내놓고. 멩질에 입젠 허믄.(다 만들어서 내놓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네도 그렇게 하면서 다 내놓고. 명절에 입으려 하면.)

106027 @ 아.(아.)

106027 # 초흐를날 입지젠 허민.(초하룻날 입히려고 하면.)

106027 @ 응.(응.)

106027 # 게난 옛날 메누리덜 잘도 힘들아났어.(그러니까 옛날 며느리들 아주 힘들었었어.)

106027 @ 게난. 이젠 강 확 사불민 돼는다.(그러니까. 이젠 가서 확 사버리면 되는데.)

106030 # 거 다 빨앙 풀헿 두드렁 그거 다. 게민 선달 그물어 가민 즘을 자져? 그거 다 헿 내놓젠 허민.(그거 다 빨아서 풀해서 두드려서 그거 다. 그러면 선달 그물어 가면 잠을 잘 수 있어? 그거 다 해서 내놓으려고 하면.)

106030 @ 낮엔 강 일허고.(낮엔 가서 일하고.)

106030 # 낮인, 낮인 거 문딱 풀헿 다듬고, 옛날은 풀헿 다 두드렷주게.(낮엔, 낮엔 그거 모두 풀해서 다듬고, 옛날은 풀해서 다 두드렸지.)

106030 @ 예.(예.)

106027 # 두드려살 거난게. 경허고 밤인 다 멘들고.(두드려야할 거니까. 그리고 밤엔 다 만들고.)

106027 @ 그 옷감 가져오민 무신거 본이라도 영 놔근예.(그 옷감 가져오면 무엇 본이라도 이렇게 놔서.)

106027 # 본 안 낱 허여.(본 안 놔서 해.)

106027 @ 게민 어떻 헿 잘라?(그러면 어떻게 해서 잘라?)

106027 # 물르는 건. 본 안 낱 물라.(마르는 건 본 안 놔서 말라.)

106027 @ 어떻 그냥 대충.(어떻게 그냥 대충.)

106027 # 치수로만. 치수로.(치수로만. 치수로.)

106027 @ 어떻 치수로?(어떻게 치수로?)

106027 # 영영 멧 치 발, 이거 품이민 멧 치 허민 멧 치 헿 입을 거엔 자가 있주게.(이렇게 멧 치 발, 이거 품이면 멧 치 하면 멧 치 해서 입을 거라고 자가 있지.)

106027 @ 아, 본이 이신 게 아니고?(아, 본이 있는 게 아니고?)



106027 # 옷도 지냥으로 몰르지 못하고 옷 몰르는 사름 빌영 몰라.(옷도 자기대로 마르지 못하고 옷 마르는 사람 빌어서 말라.)

106027 @ 아. 빌영도 몰르고.(아. 빌어서도 마르고.)

106027 # 응, 빌영도 몰르고. 빌영 따시 또 해영 못 해 노민 거랑 따시 누게 빌영도 허고. 바농와치 빌어당. 옛날은 결혼시키젠 허민, 아덜이나 딸이나 결혼시키젠 허민 그 옷을 다 멘글젠 허민 혼 댓씩 빌영 옷덜 멘글아낫주.(응, 빌어서도 마르고. 빌어사 다시 또 해서 못 해 놓으면 그걸랑 다시 누구 빌어서도 하고. ‘바느질와치’ 빌어다가. 옛날은 결혼시키려고 하면, 아들이나 딸이나 결혼시키려고 하면 그 옷을 다 만들려고 하면 한 댓씩 빌어서 옷들 만들었었지.)

106027 @ 아.(아.)

106027 # 그 옷을 다 멘들젠 허민.(그 옷을 다 만들려고 하면.)

106027 @ 그 아까 무신거 바농와치?(그 아까 무엇 ‘바농와치’?)

106027 # 바농질허는 사름. 바농질허는 사름.(바느질하는 사람. 바느질하는 사람.)

106027 @ 바농질허는 사름이 아까 바농와치파? 바농질허는?(바느질하는 사람이 아까 ‘바농와치’입니까? 바느질하는?)

106027 # 바농질허는 사름, 바농질허는 사름이니까게 바농와치엔도 바농질허는 사름이주게.(바느질하는 사람, 바느질하는 사람이니까 ‘바농와치’라고도 바느질하는 사람이지.)

106027 @ 응.(응.)

106027 # 게난 그 사름덜 빌어당 그거 다 멘글앗주. 겨고 옛날은 새서방 옷이나 새각시 옷이라도 허젠 허민 이 홀어명도 안 빌어.(그러니까 그 사람들 빌어다가 그거 다 만들었지. 그리고 옛날은 새신랑 옷이나 새색시 옷이라도 하려고 하면 이 홀어머니도 안 빌려.)

106027 @ 아.(아.)

106027 # 밥도 홀어명, 새각시 밥도 홀어명 안 거리고 새서방 밥도 홀어명 안 거리고.(밥도 홀어미니, 새색시 밥도 홀어머니 안 뜨고 새신랑 밥도 홀어머니 안 뜨고.)

106027 @ 응.(응.)

106027 # 아무것도 이 새각시 펜 안 출려.(아무것도 이 새색시 펜 안 차려.)

106027 @ 예.(예.)

106027 # 상대도 안 해, 사름 곁려. 옷도 경 다. 옷도 서방도 안 죽고 애기도 안 죽고 낫인 사름덜 빌어당 옷도 해여.(상대도 안 해, 사람 가려. 옷도 그렇게 다. 옷도 서방도 안 죽고 아기도 안 죽고 갓춘 사람들 빌어다가 옷도 해.)

106027 @ 것도 나중에 시집강 잘살렌 경 허는 거주예.(것도 나중에 시집가서 잘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106027 # 응. 이젠 기자 아무라도 해도.(응. 이젠 그저 아무라도 해도.)

106028 @ 바지 허민 이딘 무신거고 일름 이수과?(바지 하면 여긴 무엇이고 이름 있습니까?)

106028 # 요건 바짓 허리.(요건 바지 허리.)

106028 @ 요건 허리.(요건 허리.)

106028 # 요건 바지 가달이나, 가달.(요건 바지 가랑이나, 가랑이.)

106028 @ 이건 가달.(이건 가랑이.)

106028 # 이것가 바지 허민이 큰 목 허고 따시 죽은 셋복, 큰 셋복 두 개주게. 영 부찌곡 영 부찌곡 혜근에.(이것이 바지면 큰 목 하고 다시 작은 살폭, 큰 살폭 두 개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해서.)

106028 @ 영 갈르지 안헤?(이렇게 가르지 않아?)

106028 # 요것이 셋복이고 요디 셋복을 부찌.(요것이 살폭이고 요기 살폭을 붙여.)

106028 @ 이딘 뭐라?(여긴 뭐야?)

106028 # 그딘 다님 치는 디주게.(거긴 대님 매는 데지.)

106028 @ 따로 굳는 말은 엇수과?(따로 하는 말은 없습니까?)

106028 # 요거 바짓 가달.(요거 바지 가랑이.)

106028 @ 그다음에 저고리에, 저고리도 이름 잇수게?(그다음에 저고리요, 저고리도 이름 있잖습니까?)

106028 # 저고리 무신 일름이 셔?(저고리 무슨 이름이 있어?)

106028 @ 영 이시민예.(이렇게 있으면요.)

106028 # 요거, 요거, 요건 요디 부찌는 건 앞섰이고.(요거, 요거, 요건 요기 붙이는 건 앞섰이고.)

106028 @ 요딘 앞섰이고.(요기 앞섰이고.)

106028 # 요것 밧 앞섰, 이건 안 앞섰.(요것 밧 앞섰, 이건 안 앞섰.)

106028 @ 아, 안 앞섰.(아, 안 앞섰.)

106028 # 영 짓 들민 짓.(이렇게 짓 달면 짓.)

106028 @ 여긴 짓.(여긴 짓.)

106028 # 따씨 동전.(다시 동정.)

106028 @ 동전 들고.(동정 달고.)

106028 # 요렌 곶 들곡.(요리는 곶름 달고.)

106028 @ 이딘 곶 들곡. 그다음에 이딘 무신거엔 곶아, 소미?(여긴 곶름 달고. 그다음엔 여긴 무엇이라고 말해, 소매?)

106028 # 이거 옷 소미.(이거 옷 소매.)

106028 @ 소미. 소미도 이디 굳는 거 엇수과?(소매, 소매도 여기 말하는 거 없습니까?)

106028 # 엇어, 소미엔. 옷소미주.(없어, 소매라고. 옷소매지.)

106028 @ 그다음 치메예.(그다음 치마요.)

106028 # 치메, 치멘 따시 또 이거 치메허민 어른덜은 다섯폭 허주. 어른덜은 요영 갈라근에 요추룩 허리 들곡.(치마, 치만 다시 또 이거 치마면 어른들은 다섯 폭 하지. 어른들은 요렇게 갈라서 요처럼 허리 달고.)

106028 @ 요건 허리.(요건 허리.)

106028 # 요건 곶.(요건 곶.)

106028 @ 이건 곶.(이건 곶.)

106028 # 정혜근에 매영 입곡.(그렇게 해서 매어서 입고.)

106028 @ 이건?(이건?)

106028 # 돈딱 쥐진 건 통치메. 이거영 양편이 다 쥐지민 통치메.(모두 꿰매진 건 통치마. 이거랑 양편이 다 꿰매면 통치마.)

106028 @ 이건 치메폭?(이건 치마폭?)

106028 # 치메폭은 영허는 거주, 그영허느냐?(치마폭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느냐?)

106028 @ 폭 영 나누는 거. 치메 끝은 뭐엔 곶아?(폭 이렇게 나누는 거. 치마 끝은 뭐라고 말해?)

106028 # 치메 끝이주 무신거라?(치마 끝이지 뭐야?)

106028 @ 치메단?(치맛단.)

106028 # 치메곶.(치마곶.)

106028 @ 곶. 요 옆인?(곶. 요 옆에는?)

106028 # 치메옆. 요건 허리.(치마 옆. 요건 허리.)

106028 @ 계민 이제 보선예. 이딘 뭐엔 곶아.(그러면 이제 버선요. 여긴 뭐라고 말해?)

106028 # 이거 보선목. 요건 창, 보선창.(이거 버선목. 요건 볼, 버선볼.)

106028 @ 그다음예.(그다음예.)

106028 # 요건 보선 뒤척이.(요건 버선 곶치.)

106028 @ 여긴 뒤척이. 이디 영 들어간 딴?(여긴 곶치. 여기 이렇게 들어간 덴?)

106028 # 이거 보선톡게, 톱.(이거 ‘버선톱’, ‘톱’.)

106028 @ 여기가 톱.(여기가 ‘톱’.)

106028 # 요것도 발창예 톱.(요것도 발창예 ‘톱’.)

106028 @ 아 그냥 톱. 요딘?(아 그냥 ‘톱’, 요긴?)

106028 # 보선 코지게.(버선크.)

106028 @ 여기도 그냥 톱예?(여기도 그냥 ‘톱’요?)

106028 # 요건 칩이톡, 이거 발창이난, 이거 발창톡.(요건 뒷축 톱, 이거 발창이니까, 이거 발창 톱.)

106028 @ 이거 무신 톱? 아, 칩이톡. 이건 발창톡.(이거 무슨 ‘톱’? 아, ‘칩이톡’. 이건 ‘발창톡’.)

106028 # 이견 코지난 코지.(이견 코니까 코.)

106028 @ 그냥 코지고. 요딘 혹시 굳는 말 잇수과?(그냥 코고. 요긴 혹시 하는 말 있습니까?)

106028 # 요거 보선이난게 영 툇 이서부난. 요거 보선창.(요거 버선이니까 이렇게 ‘툇’ 있어버리니까. 요거 버선볼.)

106028 @ 요디가 잘 고망 납니까?(요기가 잘 구멍 납니까?)

106028 # 이디가 잘 고망 나고. 이렌 안 고망 나. 요디광 요디가 고망 나주.(여기가 잘 구멍 나고. 이쪽은 안 구멍 나. 요기와 요기가 구멍 나지.)

106028 @ 이디 고망 나민 보선창 고망 낫저, 영 해?(여기 구멍 나면 버선볼 구멍 낫어, 이렇게 해?)

106028 # 보선 터지난 보선 받으라 해근에. 받으는 건 험벽 놔근에 요영 내우민 이추룩 주어낭 툇 데싸근에 허민 이착도 허고 이착도 허고 요것도 경허고.(버선 터지니까 버선 받아라 해서. 받는 건 형겼 놔서 요렇게 내우면 이렇게 기워놓고 툇 뒤집어서 하면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학 요것도 그렇게 하고.)

106028 @ 받았예.(받아서요.)

106028 # 이거 터지난 보선 주라, 받으라 영.(이거 터지니까 버선 기워라, 받아라 이렇게.)

106029 @ 받으라 영 곶아. 할머니 단추도 잇수게?(받아라 이렇게 말해. 할머니 단추도 있잖습니까?)

106029 # 응, 단추 옛날엔 별모작도 허고 기자 남즈는 단추 돌아. 이제 단추 ㄱ 뜯 거.(응, 단추 옛날엔 매듭단추도 하고 그저 남자는 단추 달아. 이제 단추 같은 거.)

106029 @ 별모작은 어떻 현 거파?(매듭단추는 어떻게 한 겁니까?)

106029 # 별모작은 험벽 ㄱ는가는 허게 팽팡팡팡 감창 그거 못쳐. 이녁냥으로 못쳐근에 들고.(매듭단추는 형겼 가늘게 팽팡팡팡 감쳐서 그거 매듭지어. 자기대로 매듭져서 달고.)

106029 @ 별모작은 여자 옷에?(매듭단추는 여자 옷에?)

106029 # 여즈 옷에 허고 남즈 옷에 별모작 들 거 엇주게. 단추 들주. 쪼끼 ㄱ 뜯, 남즈덜 쪼끼베끼 안 입고 마고자 적삼허민 다 단추 들앙 입엇주.(여자 옷에 하고 남자 옷에 매듭 달 거 없지. 단추 달지. 조끼 같은, 남자들 조끼밖에 안 입고 마고자, 적삼하면 다 단추 달아서 입엇지.)

106029 @ 저고리는 이 안으로 무끄는 거 잇수게?(저고리는 이 안으로 묶는 거 있잖습니까?)

106029 # 그건 후리메. 요새 신식이난 안네 저곰 잇주만은 옛날엔 저곰 엇어낫 주. 후리메만 저곰 돌아낫주.(그건 ‘후리메’. 요새 신식이니까 안에 ‘저곰’ 있지만 옛날엔 ‘저곰’ 있었지. ‘후리메’만 ‘저곰’ 달았었지.)

106029 @ 저곰?(‘저곰’?)

106029 # 저곰이엔 현 건 요 젓에 들곡 요디 드난 저곰.(‘저곰’이라고 한 건 요 젓에 달고 여기 다니까 ‘저곰’.)

106029 @ 아, 계난 저곰. 안에 있는 거, 저곰.(아, 그러니까 ‘저곰’. 안에 있는 거, ‘저곰’.)

106029 # 건 다 잇는 건 아니주. 남즈 옷에만 후리메 입으민 갈라지난 이룬디 매어부난 저곰.(그건 다 잇는 건 아니지. 남자 옷에만 ‘후리메’ 입으면 갈라지니까 이룬 데 매어버리니까 ‘저곰’.)

### 재단과 염색

106030 @ 계민 옷감을 손질하는 방법, 저 아까 멧질 돌아와 가민 옷 빨아근에 어떻 손질?(그러면 옷감을 손질하는 방법, 저 아까 멧질 돌아와 가면 옷 빨아서 어떻게 손질?)

106030 # 돛베가 이추룩 현 두더운 돛베가 소랑현 거 잇주게.(도마가 이렇게 한 두꺼운 도마가 길쭉한 거 있지.)

106030 @ 예.(예.)

106030 # 그거 해당 마께로 풀허민 그거 영영 속속속 개영 낵 그디 낵 두드려.(그거 해당마 방망이로 풀하면 그거 이렇게 이렇게 속속속 개어서 놔서 거기 놔서 두드려.)

106030 @ 영 두드려?(이렇게 두드려?)

106030 # 응.(응.)

106030 @ 둘이가 ㄴ치허여, 아니면 혼자 허여?(둘이가 같이해, 아니면 혼자 해?)

106030 # 혼자만도 허고 따시 또 으라이 신 사름은 저을 옷은 미녕 옷은 혼자 두드려도 돼여.(혼자만도 하고 다시 또 여러 명 잇는 사름은 겨을 옷은 무명 옷은 혼자 두드려도 돼.)

106030 @ 응.(응.)

106030 # 경허민 후리메 ㄴ튼 거 폐와지젠 허민 영 흥짓대 남 요만인 현 거 해 근에 영 동글랑현 거 낵 찍허영 흔착 손 놓고, 흔착 손 두드리고 허영. 경허민 바짝 허영 다 곱이가 폐와지주기.(그러면 ‘후리메’ 같은 거 퍼지려고 하면 이렇게 흥두께 나무 요만큼 한 거 해서 이렇게 동그란 거 놔서 찍해서 한쪽 손 놓고, 한쪽 손 두드리고 해서. 그러면 ‘바짝’해서 다 주름이 퍼지지.)

106030 @ 아.(아.)

106030 # 경헤영 멧그는 거.(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

106031 @ 풀은 무슨 풀?(풀은 무슨 풀?)

106031 # 풀 밀풀. 옛날은 이제는 밀가루 시난 해도 옛날은 밀 간 거 ㄴ레에 곱 앙 물 커근에 허민 잘리에 낵 접지라.(풀 밀풀. 옛날은 이제는 밀가루 있으니까 해도 옛날은 밀 간 거 맷돌에 갈아서 물 담갔다가 하면 자루에 놔서 짜.)

106031 @ 아.(아.)

106031 # 접정 이제 청목<sup>135)</sup>허는 거 안 봤나? 그추록 허영 쑤어.(짜서 이제 청목하는 거 안 봤나? 그렇게 해서 쑤어.)

106031 @ 예.(예.)

106031 # 옛날은 경해낫어.(옛날은 그렇게 했었어.)

106031 @ 경행 그거 옷에 옷 영 커근에.(그렇게 해서 그거 옷에 옷 이렇게 담가서.)

106031 # 옷해근에 빨앙 그레 낱 잘락잘락 놀령 접지랑 널엇당 경허주게. 거 폴 맥영.(옷해서 빨아서 그리 놔서 ‘잘락잘락’ 움직여서 짜서 널었다가 그렇게 하지. 그거 폴 먹여서.)

106030 @ 영영 땡겨?(이렇게 이렇게 당겨?)

106030 # 양편이 앓아근에 저 이불 ㄴ튼 거 풀허민 등기지 못허민 양편이 앓앙 등기주게.(양편에 앓아서 저 이불 같은 거 풀하면 당기지 못하면 양편이 가져가서 당기지.)

106030 @ 경 안허민 주로 다듬이로. 또 뭘로 영.(그렇게 안 하면 주로 다듬이로. 또 뭘로 이렇게.)

106030 # 윤디, 건 윤디.(인두, 그건 인두.)

106030 @ 윤딘 어디 허는 거파?(인두는 어디 하는 겁니까?)

106030 # 윤딘 허민 바농질 영 호와근에 바농질행 꺼경 오그령 영 찹찹하게 오그리지 안허나? 이거 바농질행 영영 쥐놓민 영 오그려 낱 윤디 영 와근에 판 와근에 찹허민 이거가 오그라지주게. 경허난 허는 거라.(인두는 하면 바느질 이렇게 호아서 바느질해서 꺾어서 오그려서 이렇게 찹찹하게 오그리지 않니? 이거 바느질해서 이렇게 이렇게 기워놓으면 이렇게 오그려 놔서 인두 이렇게 놔서 판 놔서 찹하면 이것이 오그라지지. 그러니까 하는 거야.)

106030 @ 아, 윤딘 경허는 거. 윤디 말고 다리미.(아, 인두 그렇게 하는 거. 인두 말고 다리미.)

106030 # 다루웬 이거 옷 다 멘글아낱. 옷 따시 잡는 사름 시민 이젠 영 저 다루웨가 잇주. 옛날에. 숯불 살좌낱 그레 담아낱 경행 허민 일로 혼 사름은 심영 좁아당기고 찹찹찹 밀영 고비 폐왕 다리고. 거 다리웬 혼자 못 허여.(다리미는 이거 옷 다 만들어놓고. 옷 다시 잡는 사람 있으면 이젠 이렇게 저 다리미가 있지. 옛날에. 숯불 살라놓고 그리 담아놔서 그래서 하면 이리로 한 사람은 잡아서 잡아당기고 찹찹찹 밀어서 주름 펴서 다리고. 그거 다리미는 혼자 못 해.)

106030 @ 혼자 못 허는 거.(혼자 못 하는 거.)

106030 # 옛날은, 양편이 앓앙 등경 다리곡.(옛날은, 양편에 앓아서 당겨서 다리고.)

106030 @ 보통 옷 빨앙 헐 때 허는 게 아니고 옷 처음 멘들 때만 허는 거?(보

135) ‘청목’은 메밀쌀을 자루에 담아 물에 눌러서 나온 맑은 물로 쑤어서 만든 묵이다.

통 옷 빨아서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옷 처음 만들 때만 하는 거?)

106030 # 문 멩글아 낱. 멘들 때 허는 건 윤디, 윤디.(모두 만들어 놔서. 만들 때 하는 건 인두, 인두.)

106030 @ 넬 멩질이여 허영.(내일 명절이다 해서.)

106030 # 아무 때라도 그건 바농질허젠 허민 오그라지민 그거 허여. 멩질 때 아니라도 남저덜 선비덜은 후리메 입영 혼 달만 입으민 버물지 안허느냐게? 버물민 그걸 다시 빨앙 끼왕 경헝 허영 입져.(아무 때라도 그건 바농질하려고 하면 오그라지면 그거 해. 명절 때 아니라도 남자들 선비들은 ‘후리메’ 입어서 한 달만 입으면 더럽지 않니? 더러우면 그걸 다시 빨아서 끼워서 그렇게 해서 입혀.)

106030 @ 아.(아.)

106030 # 혼 해 후리메 두 번 끼왓주게. 안 트딩 빨앙 문딱 풀헝 다듬영 다 멩글앙.(한 해 ‘후리메’ 두 번 끼웠지. 안 뜯어서 빨아서 모두 모두 풀해서 다듬어서 다 만들어서.)

106031 @ 염색은 어떻헝 허는 거파? 감물 들이는 거.(염색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6031 # 감물 들이는 건 감 헤여근에 옛날에 감헤여근에.(감물 들이는 건 감 해서 옛날에 감 해서.)

106031 @ 감 안 익어실 때예?(감 안 익었을 때요?)

106031 # 안 익어근에 칠월 초승날.(안 익어서 칠월 초승날.)

106031 @ 아 칠월[칠월] 초승날.(아 칠월 초승날.)

106031 # 감 타다근에 덩드렁 저 도구리에 낱 덩드렁 마께로 삐정 천을 헤영 앓다좌근에 도구리더레 낱 영헝 감 살살 허꺼낱 영헝 들고 따시 영 허꺼낱 돌곡 헝 자락자락 영 놀려. 서답허듯. 파삭 돌령 감물로 다 들여지주게. 감 안 간 던 얼룩빼기 지고. 골루루 막 놀령 널영 물리왕 발레민 감물.(감 따서 ‘덩드렁’ 저 함지박에 놔서 ‘덩드렁 마께’로 빵아서 천을 해서 가져다 놔서 ‘도구리’에 놔서 이렇게 해서 감 살살 섞어놔서 이렇게 해서 말고 다시 이렇게 섞어놔서 말고 해서 자락자락 이렇게 움직여. 빨래하듯. 파삭 말려서 감물로 다 들여지지. 감 안 간 텐 얼룩빼기 지고. 골고루 막 움직여서 널어서 말려서 바래면 감물.)

106031 @ 어디다 널어?(어디다 널어?)

106031 # 이 마당에도 테역밧디 널곡 따시 베 매영 베에도 널곡.(이 마당에도 잔디밭에 널고 다시 바 매어서 바에도 널고.)

106031 @ 아, 베에도 널곡.(아, 바에도 널고.)

106031 # 서답 너는 베에도 널주게. 비 안 오민 밤낮 내비어. 데싸낱 발레곡.(빨래 너는 바에도 널지요. 비 안 오면 밤낮 내버려. 뒤집어서 바래고.)

106031 @ 메칠 널어삽니까?(며칠 널어야합니까?)

106031 # 발도록. 발민 걷어볼곡 안 발민 발강허게 발도록 널어. 두루 발민 히뚜룩헤영 밀끗허여. 발강 안허여.(바래도록. 바래면 걷어버리고 안 바래면 발강게

바래도록 널어. 덜 바래면 ‘히뚜룩’해서 ‘밀끗’해. 발장지 않아.)

106031 @ 응.(응.)

106031 # 경허민 막 세주기. 배에도 허민 이만인 왕상왕상 입으면 저 미시거 물에 낵 삶는 사름도 잇꼭 밤이 입영 뉘 둥굴어, 풀 죽이젠.(그러면 막 세지. 배에도 하면 이만큼 왕상왕상 입으면 저 무엇 물에 놔서 삶는 사람도 있고 밤에 입어서 누어서 뉘굴어, 풀 죽이려고.)

106031 @ 아, 풀 죽이젠. 감물 들이민 왕상행 세여.(아, 풀 죽이려고. 감물 들이면 ‘왕상’해서 세어.)

106031 # 물 낵 허민 소분소분헌디 물 안 낵 옛날은 분시 몰랑 물 안 낵 해불민 막 세여. 감물은 매해 허주게.(물 놔서 하면 ‘소분소분’한데 물 안 놔서 옛날은 분수 몰라서 물 안 놔서 해버리면 막 세어. 감물은 매해 하지.)

106031 @ 아, 매해. 감물 말고 다른 물도 들여놔수과?(아, 매해. 감물 말고 다른 물도 들었었습니까?)

106031 # 이제난 다른 물들염주, 옛날은 중간에 검은 물.(이제니까 다른 물들이고 있지, 옛날은 중간에 검은 물.)

106031 @ 검은 물은 어떻게 들이는 거과?(검은 물은 어떻게 들이는 겁니까?)

106031 # 검은 물, 물장시신디 강 사당.(검은 물, 염색 물감 장사에게 가서 사다가.)

106031 @ 아, 사당.(아, 사다가.)

106031 # 사당 들여. 사당 물 커낵 솟디 낵 그거 들영 삶앙 빨앙. 붉은 물도 경허고.(사다가 들여. 사다가 물감에 담가놔서 솥에 놔서 그거 들여서 삶아서 빨아서. 붉은 물도 그렇게 하고.)

106031 @ 사다근에. 그 쪽은 쪽으로 물들이는 건 엇수과?(사다가. 그 쪽은 쪽으로 물들이는 건 없습니까?)

106031 # 아니, 물 엇영. 이제는 해도 옛날은 문딱 물 사당 아이덜 옷 허젠 허민 붉은 물 사당 들여주고 노란 옷 허젠 허민 노란 옷. 경 안 허민 검은 물 사당 들여. 미녕옷에 물 사당 들여.(아니, 물감 없어서. 이제는 해도 옛날은 모두 물감 사다가 이이들 옷 하려고 하면 붉은 물 사다가 들여주고, 노란 옷 하려고 하면 노란 옷. 그렇게 안 하면 검은 물감 사다가 들여. 무명옷에 물감 사다가 들여.)

106031 @ 사당 들이는 거구나예?(사다가 들이는 거군요?)

106031 # 남즈 후리메도 검은 후리메 헤 주구정 허민 검은 물 사당 미녕에 검은 물 들여. 경행 이녁이 삼도 허고 이녁냥으로 허고. 미녕옷만 행 입어놔주게.(남자 ‘후리메’도 검은 ‘후리메’ 해주고 싶어 하면 검은 물 사다가 무명에 검은 물 들여. 그렇게 해서 자기도 사기도 하고 자기대로 하고. 무명옷만 해서 입었었지.)

## 신발

106032 @ 신발은 무신거 신어놔수과?(신발은 무엇 신었었습니까?)



106032 # 옛날 우리 두린 땀 초신.(옛날 우리 어린 때 짚신.)

106032 @ 주로 초신 신고 다른 건 무신 신 이수과?(주로 짚신 신고 다른 건 무슨 신 있습니까?)

106032 # 초신 신당 새각시덜은 산뒤짚 배설 내근에 ㄴ는ㄴ는 나룩짚 배설로 해근에 노란 물 들여근에 보비영 노랑허게 허영 옛날 새각시덜은 그거 허영 신 삼양.(짚신 신다가 새색시들은 밭벗짚 배설 내어서 가는가는 벗짚 배설로 해서 노란 물 들여서 비벼서 노랑게 해서 옛날 새색시들은 그거 해서 신 삼아서.)

106032 @ 것도 초신?(그것도 짚신?)

106032 # 깍신.(‘깍신’.)

106032 @ 건 깍신.(그건 ‘깍신’.)

106032 # 경행 새각시 줘서.(그렇게 새색시 줘서.)

106032 @ 아, 건 새각시 신발.(아, 그건 새색시 신발.)

106032 # 응, 깍신, 노랑게 해영 곱닥허게 깍신.(응, ‘깍신’, 노랑게 해서 곱게 ‘깍신’.)

106034 @ 나무로 행 만듭니까?(나무로 해서 만듭니까?)

106034 # 어, 옛날 어른덜은 남해근에 남신 해영 팡.(어, 옛날 어른들은 나무해서 나막신 해서 파서.)

106034 @ 아, 파근에.(아, 파서.)

106034 # 팡 남신, 자구로 파근에 곱닥허게 팡 코 뜯지고 행.(파서 나막신, 자구로 파서 곱게 파서 코 달리고 해서.)

106034 @ 그건 어떻 험 때 신는 거짜?(그건 어떤 때 신는 겁니까?)

106034 # 비 온 때.(비 올 때.)

106034 @ 아, 물 드난.(아, 물 들어오니까.)

106034 # 물 드난 비 온 때 초신 신영 허민 남신 안 허민 갈탁갈탁 허난 비 온 때랑 눈 온 때만 그런 거 신어.(물 들어오니까 비 올 때 짚신 신어서 하면 나막신 안 하면 ‘갈탁갈탁’하니까 비 올 때랑 눈 올 때만 그런 거 신어.)

106034 @ 아, 남신은 경현 때 신는 거예. 초신도 잇고 남신도 잇고. 가족신도 잇수과?(아, 나막신은 그런 때 신는 거요. 짚신도 잇고 나막신도 잇고. 가족신도 있습니까?)

106033 # 응, 가족신도 서. 가족해근에 잘 행 과썩허게 행 보선 줘근에.(응, 가족신도 있어. 가족해서서 잘 해서 ‘과썩’하게 해서 버선 줘서.)

106033 @ 보선 식으로 멘드는 거?(버선 식으로 만드는데?)

106033 # 남신 소굽에 신어.(나막신 속에 신어.)

106033 @ 이 가족으로 웬 건데 남신 소굽에 신어?(이 가족으로 된 건데 나막신 속에 신어?)

106033 # 응, 부제 하르방덜.(응, 부자 할아버지들.)

106033 @ 아, 보선이 가족 보선이구나, 계난예.(아, 버선이 가족 버선이구나, 그

러니까요.)

106033 # 응, 보선을 가죽 보선행 경행 신어. 아주 옛날 하르방도 족제비 잡아 당 손도매도 가죽 손도매, 족제비 손도매.(응, 버선을 가죽 버선행서 그렇게 해서 신어. 아주 옛날 할아버지도 족제비 잡아다가 토시도 가죽 토시, 족제비 토시.)

106035 @ 아. 게민 저 짚신도 멘들아 낚디가? 초신.(아. 그러면 저 짚신도 만들었었습니까? 짚신.)

106035 # 난 초신 안 삼아봤. 초신 안 멩글아봤.(난 짚신 안 삼아봤어. 짚신 안 만들어봤어.)

106035 @ 하르버지 멘드는 건 봐놔지예?(할아버지 만드는 건 봤었지요?)

106035 # 우리집이 하르방도 초신 안 해놔어.(우리집의 할아버지도 짚신 안 했었어.)

106035 @ 기파? 집이서 안 삼아봤?(그렇습니까? 집에서 안 삼아봤어?)

106035 # 헛는 것만 봐놔주. 우린 허여보진 안허연.(하는 것만 봤었지. 우린 해보진 않았어.)

106036 @ 아, 짚신도 여러 종류가 잇수과?(아, 짚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106036 # 짚신도 초신도 여러 가지가 잇주게. 저 미 헤여근에 노 꼬아근에 놀이엔 헌 거 영 곱이청 허민, 네 가달 해와근에 삼아근에 영 발에 신늘 헤근에 멘들앙 영 행 문딱 행 각행 영 산뒤칩 행 엮어 가당 요디 가민 요영 헤근에 산뒤칩 데와근에 짤 거 짚신이주게.(짚신도 짚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저 미빠쟁이 해서 노 꼬아서 날이라고 한 거 이렇게 접어서 하면, 네 가달 해와서 삼아서 이렇게 발에 신날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모두 해서 총해서 이렇게 발벗짚 해서 엮어 가다가 요기 가면 요렇게 해서 발벗짚 비틀어서 짤 거 짚신이지.)

106036 @ 응.(응.)

106036 # 경허고 각신<sup>136)</sup>이엔 헌 건 영 각 내어놔 신 삼은 건 각신.(그리고 판총박이라고 한 건 이렇게 총 내어놔서 신 삼은 건 판총박이.)

106036 @ 아, 각 내영 헌 건 각신.(아, 총 내어서 한 건 판총박이.)

106036 # 신 삼아 가명 헌 건 짚신. 훤은 훤은 헌 거. 바당에나 신영 땡기곡 허는 거.(신 삼아 가면서 한 건 짚신. 굵은 굵은 거. 바다에나 신어서 다니고 하는 거.)

106036 @ 그게 짚신? 초신이엔도 허여?(그게 짚신? ‘초신’이라고도 해?)

106036 # 초신이 짚신이주. 옛날은 저 이제난 중간에난 짚신이주, 초신. 게난 각 내영 신는 건 각신.(‘초신’이 짚신이지. 옛날은 저 이제니까 중간에니까 짚신이지, 짚신. 그러니까 총 내어서 신는 건 판총박이.)

106036 @ 옛날은 초신예, 아까 새각시 신는 게 각신이엔.(옛날은 짚신요, 아까 새색시 신는 게 판총박이라고.)

106036 # 새각시도게 고양헌 건 고운 각신게. 새각시 주는 것도 각신인디 그자

---

136) ‘각신’은 총을 따로 꼬아 붙여서 삼은 판총박이를 말한다.

신도 영 궤양해영 신는 사름은 영 깍 문 내영 이만씩 무경 허주게. 훤은 것만 그자 아무디나 갇곳이나 신는 건 영 삼아가명 허는 거 그런 건 보통으로 그거. 밧디나 신영 땡기고. 선비덜은 깍신 신고.(새색시도 ‘고양’한 건 고운 판총박이야. 새색시 주는 것도 판총박인데 그저 신도 이렇게 ‘궤양’해서 신는 사름은 이렇게 총 모두 내어서 이만큼씩 묶어서 하지. 굵은 것만 그저 아무테나 갇가나 신는 건 이렇게 삼아가면서 하는 거 그런 건 보통으로 그거. 밧이나 신어서 다니고. 선비들은 판총박이 신고.)

106036 @ 선비들은 깍신 신고. 그건 금방 금방 헐어볼지 안허여?(선비들은 판총박이 신고. 그건 금방 금방 헐지 않아?)

106036 # 잘 삼으민 혼 들. 궤양 신으민 혼 들.(잘 삼으면 한 달. 고이 신으면 한 달.)

106036 @ 한 달.(한 달.)

106036 # 경허곡 시방 어디 저 영화에 나오는 것덜도 안 뵈서? 신혜영 돌아매 영 경허난 가당 그차지민 거 신을 거.(그리고 시방 어디 저 영화에 나오는 것들도 안 모니? 신해서 달아매서 그러니까 가다가 끊어지면 그거 신을 거.)

106036 @ 아. 경행 들렁 땡기는 거?(아. 그렇게 해서 들고 다니는 거?)

106036 # 그거 옛날 역사 아니라게. 선비덜도 저 고을더레 가당 그차지민 툼락 툼락 해불민 그거 신을 거. 영화에 나오는 거, 신 돌아매언 땡기는 거.(그거 옛날 역사 아니냐. 선비들도 저 고을에 가다가 잘라지면 ‘툼락툼락’ 해버리면 그거 신을 거. 영화에 나오는 거, 신 달아매어서 다니는 거.)

106032 @ 고무신은 언제쯤에 나왔수과?(고무신은 언제쯤에 나왔습니까?)

106032 # 고무신은 우리 여남은 슬, 열댓 나사 고무신 낫주. 경허난 그때 고무신 난 때도 아으덜은 못 신어봤어.(고무신은 우리 여남은 살, 열댓 나야 고무신 낫지. 그러니까 그때 고무신 난 때도 아이들은 못 신어봤어.)

106032 @ 부제나 신고?(부자나 신고?)

106032 # 부제나 신고. 옛날은 새색시가 막 행 고무신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고무신이라도 거 부제첩이 시집가사 고무신 말아보주. 경 안허민 고무신 못 말아.(부자나 신고. 옛날은 새색시가 막 해서 고무신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고무신이라도 그거 부갓집에 시집가야 고무신 받아보지. 그렇지 않으면 고무신 못 받아.)

106032 @ 할머니 시집올 땐 고무신 받았수과?(할머니 시집올 땐 고무신 받았습니까?)

106032 # 나 시집올 때 고무신 안 받안. 옛날은 고무신도 툼어지민 이거 바위 다 주멍 신지 안해서? 그걸 막 곧 걸로. 밧된 초신 신영 땡기고.(나 시집올 때 고무신 안 받았어. 옛날은 고무신 툼어지면 이거 가장자리 다 궤매면서 신지 않았어? 그걸 아주 고운 걸로. 밧엔 짚신 신어서 다니고.)

106032 @ 밧된 초신 신영 가고.(밧엔 짚신 신어서 가고.)

## 모자 등

106037 @ 모자도 여러 종류 이신가마씨?(모자도 여러 종류 있나요?)

106037 # 모즈 휘양도레기엔 현 거 험벅으로 멘글앙 영 안팍디 헤근에 우인 트고 영행 휘양 들앙 부자칩 하르방 이디 터럭 들고 개터럭인지 쉼터럭인지 행 영 들앙 쓰곡 그자 사름덜은 휘양도레기엔 행 이딘 씨지고 이딘 터지곡 현 거 씨낫어.(모자 ‘휘양도레기’라고 한 거 형겔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안팍에 해서 위엔 트고 이렇게 해서 챙 달아서 부자집 할아버지 여기 털 달고 개털인지 쇠털인지 해서 이렇게 달아서 쓰고 그제 사람들은 ‘휘양도레기’라고 해서 여기는 씨지고 여긴 터지고 한 거 썼었어.)

106038 @ 거 말고 샷갓도 잇고 갓도 잇고.(거 말고 샷갓도 잇고, 갓도 잇고.)

106038 # 여름에 쓰는 건 샷갓.(여름에 쓰는 건 샷갓.)

106039 @ 겨울에는?(겨울에는?)

106039 # 저슬엔 여청덜은 수건. 몬 수건 썬 텡건.(겨울엔 여편네들은 수건, 모두 수건 써서 다녔어.)

106039 @ 남자덜들은?(남자들은?)

106039 # 남즈덜은 베랑 쓰질 안허잖아. 여편네덜이나 수건 썬 텡기주. 나까오리<sup>137)</sup> 나낫주게. 그것덜 상 쓰는 사름.(남자들은 별로 쓰지 않잖아. 여자들이나 수건 써서 다니지. 중절모 낫었지. 그것들 사서 쓰는 사람.)

106039 @ 거 나기 전인?(그거 나기 전엔?)

106039 # 나까오리 나기전인 베랑 모즈 엇어낫어.(중절모 나기 전엔 별로 모자 없었어.)

106039 @ 선비덜은 갓 쓰고.(선비들은 갓 쓰고.)

106039 # 응, 털모즈덜 영 나나고. 동글랑현 짬 모즈 닳은 거, 그런 거 오수리.(응, 털모자들 이렇게 나왔었고. 동그란 짬 모자 같은 거, 그런 거 ‘오수리’.)

106039 @ 건 오수리엔 굴읍니까?(그건 ‘오수리’라고 말합니까?)

106039 # 응. 오수리 그거, 그런 거 썬 텡기고. 경 안허민 그자 텡기고.(응. ‘오수리’ 그거, 그런 거 써서 다니고. 그렇게 안하면 그제 다니고.)

106040 @ 이디는 양태나 탕건 안허지예?(여기는 양태나 탕건 안하지요?)

106040 # 그런 건 안허여. 이 스방엔 아니 저 동이서베끼 아니. 조천<sup>138)</sup>더레 그런 더레 허주.(그런 건 안 해. 이 근처엔 아니 저 동에서밖에 아니. 조천에 그런 데나 하지.)

106044 @ 도롱이는?(도롱이는?)

106044 # 도롱이가 무시거혈 때 쓰는 거라. 나 도롱이 안 들어봐신디.(도롱이가 뭇할 때 쓰는 거야. 나 도롱이 안 들어봤었는데.)

106044 @ 우장?(우장?)

137) ‘나까오리’는 일본어 ‘なかおり’로 중절모(中折帽)를 이르는 말이다.

138) ‘조천’은 지명으로 제주도 조천읍 조천리를 말한다.

106044 # 우장은 우장이주.(우장은 우장이지.)

106044 @ 우장은 어떻 행 허는 거봐?(우장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6044 # 우장은 것도 노 꼬아근에 즘질이 새 허여근에 막 즘질이 꿰어근에 낫다근에 것도 짜는 거. 매 모작모작해근에 짜근에 영 야가지에 해근에 우장행 썩 텡 겨났어.(우장은 그것도 노 꼬아서 잘게 새 해서 아주 잘게 꿰어서 낫다가 그것도 짜는 거. 매듭 매듭마다 해서 짜서 이렇게 목에 해서 우장해서 써서 다냈어.)

106044 @ 비 올 때?(비 올 때?)

106044 # 비 올 때.(비 올 때.)

106044 @ 어디 드르에 갈 때?(어디 들에 갈 때?)

106044 # 비 올 때 가곡 어디 선비덜 나갈 때도 옛날에 그거 우장 써났어.(비 올 때 가고 어디 선비들 나갈 때도 옛날에 그거 우장 썼었어.)

106044 @ 선비덜도 써났수과?(선비들도 썼었습니까?)

106044 # 선비덜도 다 써났어. 비 올 때 우산 엇이난 그거 써난. 우산으로.(선비들도 다 썼었어. 비 올 때 우산 없으니까 그거 썼었어. 우산으로.)

106038 @ 우산으로, 샷갓, 패랭이.(우산으로, 샷갓, 패랭이.)

106038 # 옛날은 패랭이도 이녀냥으로 밀짚해근에 멩글아났어.(옛날은 패랭이도 자기대로 밀짚해서 만들었었어.)

106038 @ 밀냥으로?(밀짚로?)

106038 # 밀냥으로 허민 질기고 보릿대 허민 야리고. 우리 패랭인 우리냥으로 짜 나트어.(밀짚으로 하면 질기고 보릿대 하면 약하고. 우리 패랭인 우리대로 짚었어.)

106038 @ 꼭이나 정당으로도 멘듭니까?(췌이나 땡땡이덩굴로도 만듭니까?)

106038 # 정당으로 모즌 안 만들야. 정당으로 ㄱ는 정당으로 남즈덜 정당 모즈덜 써났어.(땡땡이덩굴로 모잔 안 받들어. 땡땡이덩굴로 가는 땡땡이덩굴로 남자들 땡땡이덩굴 모자들 썼었어.)

106038 @ 써났수과?(썼었습니까?)

106038 # 써났어. 사름마다 헌 건 아니고 남즈덜 써났주게.(썼었어. 사람마다 한 건 아니고 남자들 썼었지.)

106038 @ 것도 패랭이추룩 짱?(그것도 패랭이처럼 짜서.)

106038 # 이녀냥으로 짱 허는 사름덜은 정당으로.(자기대로 짜서 하는 사람들은 땡땡이덩굴로.)

106038 @ 패랭인 어떻 짜는 거봐?(패랭인 어떻게 짜는 겁니까?)

106038 # 패랭인 게 밀짚행 대헤영 이만씩허게 문딱 불랑낫당 무경 낫당. 그걸로 영영영 절야. 절야근에 다시 또 영 뱅뱅 돌아냥 주워가멍 뱅뱅 낱 줍곡 망 족으민 망헤지민 뱅뱅 늘랑 짜곡게.(패랭이는 게 밀짚해서 대 해서 이만씩씩하게 모두 발라났다가 묶어났다가.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결어. 결어서 다시 또 이렇게 뱅뱅 돌아와서 기워가면서 뱅뱅 놔서 집고 망 작으면 망 하면 뱅뱅 늘려서 짜고.)

106038 @ 밀짚으로예?(밀짚으로요?)

106038 # 건 해봤어. 아이덜은 줄게 멩글고 어른은 헛쫄 크게 멩글고.(그건 해봤어. 아이들은 잘게 만들고 어른은 조금 크게 만들고.)

106038 @ 아이덜 것도 다 멘들고.(아이들 것도 다 만들고.)

106038 # 아이덜 것도 다 멩글앙 다 주어낫주게. 헛쫄 줄게 멩글앙.(아이들 것도 다 만들어서 다 기웠었지. 조금 잘게 만들어서.)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 밥 종류는 옛날에 무신 밥 무신 밥 이서나신고?(밥 종류는 옛날에 무슨 밥, 무슨 밥 있었는가?)

107001 # 옛날에게 조밥, 보리밥, 산뒤밥 따시 히린 건 나룩밥 허멍 경해낫주게.(옛날에 조밥, 보리밥, 발벼밥 다시 차진 건 쌀밥하면서 그렇게 했었지.)

107002 @ 아까 다른 밥도 이선게, 석상베 밥?(아까 다른 밥도 있던데, ‘석상베’ 밥?)

107002 # 석상베, 게 석상베 쌀. 옛날은 석상베 쌀이 나룩쫄이라고. 히령.(‘석상베’, 그게 ‘석상베’ 쌀. 옛날은 ‘석상베’ 쌀이 벼쌀이라고 차져서.)

107003 @ 응, 게민 보리밥은.(응, 그러면 보리밥은.)

107003 # 보리밥은 보리쫄로 허는 거.(보리밥은 보리쌀로 하는 거.)

107004 @ 반지기밥은?(반지기밥은?)

107004 # 반지기밥은 줍쫄에 보리쫄에 논 거 반지기. 곤쫄에 다시 줍쫄에 놔도 반지기.(반지기밥은 줍쌀에 보리쌀에 놓은 거 반지기. 쌀에 다시 줍쌀에 놔도 반지기.)

107004 @ 아, 보리쫄에 놔도?(아, 보리쌀에 놔도?)

107004 # 응, 반지긴 반지기. 반씩 놓민 반지기.(응, 반지기는 반지기. 반씩 놓으면 반지가.)

107004 @ 아, 반씩 놓민 반지기.(아, 반씩 놓으면 반지기.)

107004 # 응, 서경 놓민 아무거라도 반지기.(응, 섞어 놓으면 아무거라도 반지기.)

107005 @ 게민 곤밥은 어떻게?(그러면 ‘곤밥’은 어떻게?)

107005 # 곤밥은 곤쫄만 헛 거, 곤밥.(‘곤밥’은 흰쌀만 한 거, ‘곤밥’.)

107005 @ 곤밥은 옛날에 어떤 때 먹어낫수과?(‘곤밥’은 옛날에 어떤 때 먹었었습니까?)

107005 # 제스날에나 저 행 먹곡, 멩질 때나 행 먹곡. 잔치 때엔 옛날은 새각시 보레 가민 새각시상 출려 나민 그 새각시밥 수꾸락으로 허당 먹젠 허민 요거 방이 민 마당이 ㄱ득 사낫저, 두린 때덜.(제삿날에나 저 해서 먹고, 멩질 때나 해서 먹고.

잔치 때엔 옛날은 새색시 보러 가면 새색시상 차리고 나면 그 새색시밥 숟가락으로 하다가 먹으려고 하면 요거 방이면 마당에 가득 쏘았어, 어린 때들.)

107005 @ 그 곤밥 먹젠.(그 ‘곤밥’ 먹으려고.)

107005 # 곤밥 수꾸락으로 하나 먹젠. 아이고, 그것도 경행 조름에 사람은 못 얻어 먹영. 경허당 밥행 새각시밥을 허민 밥 혼 상 행 저디 대반상이영 다 출령 내 노민 따시 걸로 족양 상지로 밥 하나 행 날라도 그밥이 족양 못 먹어. 요 수꾸락으로 하나씩 갈랑 수꾸락으로 툭툭 거리명.(‘곤밥’ 숟가락으로 하나 먹으려고. 아이고, 그것도 그렇게 뒤에 사람은 못 얻어 먹어서. 그러다가 밥해서 새색시밥을 하면 밥 한상 해서 저기 대반상이랑 다 차려서 내놓으면 다시 그걸로 적어서 ‘상지’로 밥 하나 해서 날라도 그 밥 적어서 못 먹어. 요 숟가락으로 하나씩 갈라서 숟가락으로 툭툭 뜨면서.)

107005 @ 아까 무신 걸로?(아까 무엇으로?)

107005 # 산뒤줄 놔근에 밥행, 새각시밥.(발벼썰 놔서 밥해서, 새색시밥.)

107005 @ 무신 걸로 거려도 족아?(무엇으로 떠도 작아?)

107005 # 수까락으로, 수까락으로 혼 수꾸락씩 거 아이덜 조랑조랑헌 아이덜 쥐도 족양. 상지착으로 밥, 차반착으로 밥.(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그거 아이들 ‘조랑조랑’한 아이들 쥐도 적어서. ‘상지착’으로 밥, 채롱으로 밥.)

107005 @ 상지착으로?(‘상지착’으로?)

107005 # 응, 차반지, 대차반지 엇어게? 그걸로 밥 하나 헤영 새각시신디 대반 앓인 사람 주민 에영헌 문에 조랑조랑조랑 사민 수까락에 하나 마트민 돌아나불민 그 조름에 따시 강 수까락 하나 강 마트고. 아이고, 옛날에 살아난 기가 맥힌 세상 이랴어.(응, 채롱, 대채롱 없어? 그걸로 밥 하나 해서 새색시에게 대반 앓은 사람 주면 이러한 문에 ‘조랑조랑조랑’ 서면 숟가락에 하나 말으면 달아나버리면 그 뒤에 다시 가서 숟가락 하나 가서 말고. 아이고, 옛날에 살았던 기가 막힌 세상이었어.)

107006 @ 조팝은?(조밥은?)

107006 # 줍쌀만 낱 허는 거.(줍쌀만 놔서 하는 거.)

107006 @ 줍쌀만 낱 허는 거? 무신 조로 헤근에 험니까?(줍쌀만 놔서 하는 거? 무슨 조로 해서 험니까?)

107006 # 히린줍쌀도 싯곡, 모원줍쌀도 싯곡.(차줍쌀도 있고, 메줍쌀도 있고.)

107006 @ 보통 무신걸로 밥험니까?(보통 무엇으로 밥을 험니까?)

107006 # 히린줍쌀도 밥허곡 히린줍쌀도 낱 밥허곡 모원줍쌀도 허명 밥허고 두 가지 다 밥허여저.(차줍쌀도 밥하고 차줍쌀도 놔서 밥하고 메줍쌀도 하면서 밥하고 두 가지 다 밥할 수 있어.)

107006 @ 어떤 게 맛종아?(어떤 게 맛있어?)

107006 # 옛날에 히린줍쌀은 낱 밥은 허민 이젠 나룩밥 저 히리곡, 모원 줍쌀은 사락사락허곡. 따시 또 모원줍쌀에 감저 썰어낱 밥행 먹곡.(옛날에 차줍쌀은 놔서 밥은 하면 이젠 쌀밥 저 차지고, 메진 줍쌀은 사락사락하고. 다시 또 메줍쌀에 고구

마 썰어놔서 밥해서 먹고.)

107009 @ 건 무신 밥이라?(그건 무슨 밥이야?)

107009 # 감저밥.(고구마밥.)

107009 @ 건 감저밥.(그건 고구마밥.)

107009 # 감저 낱 밥행 먹어놔주게, 옛날에.(고구마 놔서 밥해서 먹었었지, 옛날에.)

107007 @ 풋 낱도 밥 허주예?(팔 놔서도 밥 하지요?)

107007 # 보리쌀에 풋에 낱 삶아. 거 잔치 때나, 잔치 때나, 영장 때나 허주. 거 때마다 풋 보리쌀에 낱 안 먹주게.(보리쌀에 팔 놔서 삶아. 그거 잔치 때나, 잔치 때나, 상 때나 하지. 그거 때마다 팔 보리쌀에 놔서 안 먹지.)

107007 @ 풋은 따로 삶앙 놔야 되는가?(팔은 따로 삶아 놔야 되는가?)

107007 # 풋만 따로 삶앙. 보리쌀에 풋에 혼디 삶앙 잔치 때엔 보리쌀광 풋 논 건 하영 놓고 곤쌀은 흐끔만 놓고.(팔만 따로 삶아서. 보리쌀에 팔에 함께 삶아서 잔치 때엔 보리쌀과 팔 놓은 건 많이 놓고 쌀은 조금만 놓고.)

107007 @ 게민 잔치 땐 보리쌀 풋 곤쌀 세 개 낱 밥허는 거파?(그러면 잔치 때는 보리쌀 팔 쌀 세 개 놔서 밥하는 겁니까?)

107008 # 다시 또 어떤 집인 피쌀에 곤쌀에 모밀쌀 낱 세 가지도 낱 밥허고.(다시 또 어떤 집은 찰쌀에 쌀에 메밀쌀 놔서 세 가지도 놔서 밥하고.)

107008 @ 잔치 때?(잔치 때?)

107008 # 게민 모밀쌀 낱 밥허영 복삭복삭. 피쌀 낱 밥허민 피쌀에 보리쌀만 낱 밥허민 밥이 사락사락헌디 모밀쌀을 놓민 흐끔 포고락하게 좋아.(그러면 메밀쌀 놔서 밥해서 ‘복삭복삭’. 찰쌀 놔서 밥하면 찰쌀에 보리쌀만 놔서 밥하면 밥이 사락사락헌데 메밀쌀을 놓으면 조금 ‘포고락’하게 좋아.)

107010 @ 아, 모밀쌀도 놔. 밥에 늠빼도 낱 먹읍니까?(아, 메밀쌀도 놔. 밥에 무도 놔서 먹습니까?)

107010 # 늠빼 안 놔. 늠뽕 모밀 ㄱ루에 낱 범벅이나 허주 밥 늠빼엔 안 놔.(무안 놔. 무는 메밀가루에 놔서 범벅이나 하지, 밥 무엔 안 놔.)

107011 @ 툄도 놓는가?(툄도 놓는가?)

107011 # 옛날에 송년 질 때 건 느랑 행 먹는 건 아니고 송년에 툄밥 먹어놔주게.(옛날에 흥년 질 때 그건 늘 해서 먹은 건 아니고 흥년에 툄밥 먹었었지.)

107011 @ 건 어떻 허는 거파?(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11 # 툄 갇궂이 강 비어다근에 거 삶앙 물리왕 굴앙 복삭 백수아. ㄱ루로 백수아근에 그거 농곡 좁쌀 농곡 행 밥행 먹어놔어.(툄 갇가에 가서 베어다가 그거 삶아서 말려서 갈아서 ‘복삭’ 뽕아. 가루로 뽕아서 그거 놓고 좁쌀 놓고 해서 밥해서 먹었었어.)

107011 @ 처음부터 놓는 거파, 다 해가민 놓는 거파?(처음부터 놓는 겁니까, 다 해가면 놓는 겁니까?)



107011 # 다 해가민 좁쌀 해근에 밥행 몬 케민 그레 낭 휘휘 져엉.(다 해가면 좁쌀 해서 밥 해서 모두 끓으면 그리 놔서 휘휘 저어서.)

107011 @ 아, 경헌 게 톨밥.(아, 그렇게 한 게 톨밥.)

107011 # 응, 톨밥.(응, 톨밥.)

107012 @ 패밥은 안 해놔주예?(패밥은 안 했었지요?)

107012 # 패밥은 아니, 프레밥은 허주. 프렌 갯갯이 강 퍼렁헌 거 올린 거 주서 다근에 그거 행 씻엉 돌리와근에 브수왕 것도 프레밥.(패밥은 아니, 파래밥은 하지. 파래는 갯가에 가서 파란 거 올린 거 주워다가 그거 해서 씻어서 말려서 부수어서 그것도 파래밥.)

107012 @ 아까 톨밥 허듯이.(아까 톨밥 하듯이.)

107012 # 응. 우린 그거가 두린 때도 경 기자 흥쫄만 먹어나난 프레밥, 톨밥 안 먹어놔어. 못살아도 거 프레밥, 톨밥 먹을 땐 나 육지 땡겨불고 허난 안 먹어놔주게. 우리 역은 후제덜 경 톨밥. 옛날엔 못도 해근에 거 구웁 먹어나지 안해서? 못도 구웁 먹어놔어.(응. 우린 그것이 어린 때도 그렇게 그저 조금만 먹었어서 파래밥, 톨밥 안 먹었었어. 못살아도 그거 파래밥, 톨밥 먹을 땐 나 육지 다녀버리고 하니까 안 먹었었지. 우리 큰 후에들 그렇게 톨밥. 옛날엔 무릇도 해서 그거 구워서 먹었었지 않았어? 못도 구워서 먹었었어.)

107012 @ 못?(무릇?)

107012 # 응.(응.)

107012 @ 못이 무신거짜?(무릇이 무엇입니까?)

107012 # 못이 밧디 나는 못, 무사 영 동골동골헌 거 엇어?(무릇이 밧에 나는 무릇, 왜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없어?)

107012 @ 물웃, 아.(무릇, 아.)

107012 # 물웃. 그것도 다 구웁 프레, 패에 농곡 행 때로 먹어난 사름이 하났어.(무릇. 그것도 다 구워서 파래, 패에 놓고 해서 끼니로 먹었던 사람이 많았어.)

107012 @ 못도 밥에 놔?(무릇도 밥에 놔?)

107012 # 구웁, 구웁.(구워서, 구워서.)

107012 @ 그냥 구웁?(그냥 구워서?)

107012 # 육깃항에 행 담아근에 못 씻엉 담아놔근에 이젠 그레 패 농곡 해근에 막 불살랑 구워근에 것도 잘 구민 돌코롬허고 못 구민 독허여.(육지 항아리에 해서 담아서 무릇 씻어 담아놔서 이젠 그리 패 놓고 해서 막 불살라서 구워서 그것도 잘 구우면 달콤하고 못 구우면 독해.)

107012 @ 잘 구민 어떻허여?(잘 구우면 어떻게 해?)

107012 # 잘 구민 흥쫄 맛있고 못 구민 독허여. 못이 독허여. 우린 안 먹어봤어.(잘 구우면 조금 맛있고 못 구우면 독해. 무릇이 독해. 우린 안 먹어봤어.)

107012 @ 감저 굽듯이 행 먹는 거짜?(고구마 굽듯 해서 먹는 겁니까?)

107012 # 큰 오가리 육깃 오가리에 혼 오가리 담아놔 알로 불 솥양 옛날에.(큰

오라기 육지 향아리에 한 향아리 담아와서 아래로 불 때서 옛날에.)

107012 @ 감저 치듯이.(고구마 찌듯이.)

107012 # 게난 옛날에 경허멍 먹영 산 사름덜 해주게. 옛날 할망덜.(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먹어서 산 사람들 많지. 옛날 할머니들.)

107005 @ 게민 밥은 어떻 허는 거봐?(그러면 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05 # 어떻게 솟디 낵 불 솜아.(어떻게 해서 솥에 와서 불 때.)

107005 @ 산뒤밥은 헐 때는?(밭벼쌀밥은 할 때는?)

107005 # 산뒤쌀을 물 헐 때<sup>139)</sup> 씻어근에, 물 헐 때 놔근에.(밭벼쌀을 물 끓지 않을 때 씻어서, 물 끓지 않을 놔서.)

107005 @ 무신거헐 때 낵?(뭘한 때 놔서?)

107005 # 물 안 켜 때 낵, 솟디 놔근에 영 물 맛좌근에 불 솜아근에.(물 안 끓은 때 놔서. 솥에 와서 이렇게 물 맞춰서 불 때서.)

107005 @ 물은 영 손 놔근에.(물은 이렇게 손 놔서.)

107005 # 가메에 낵 불 솜앙.(가마에 와서 불 때.)

107003 @ 보리밥헐 때는.(보리밥할 때는.)

107003 # 보리밥도 그거주게. 물 헐 때 보리쌀도 물 헐 때 씻영 물 헐 때 놔근에 바글바글 부꺼가민 부껌젠 행 두께 툇허게 더경 낵당 혼 십분이나 이십분이나 시민 따시 보리쌀에 물이 브뜨지. 그젠 따시 불 솜아근에 허민 밥이 부들부들허주게. 경헐 먹어.(보리밥도 그거지. 물 한 때 보리쌀도 물 한 때 씻어서 물 한 때 놔서 바글바글 끓어 넘쳐가면 넘친다고 해서 뚜껑 툇허게 덮어서 놔다가 한 십 분이나 이십 분이나 있으면 다시 보리쌀에 물이 받지. 그땐 다시 불 때서 하면 밥이 부글부글하지. 그렇게 해서 먹어.)

107003 @ 보리밥이 물이 하영 들주예?(보리밥이 물이 많이 들지요?)

107003 # 응, 오래 삶앙 물 헐 때 낵 바글바글 부꺼가민 불 꺼근에 솟두께 툇 더경 낵당 십분만 쫓다근에 따시 불 솜아근에 박박 짓영 불 솜으민 밥이 물 브따갈 거. 경헐 먹어났어.(응, 오래 삶아서 물 한 때 놔서 바글바글 끓어 넘쳐가면 불 꺼서 솥뚜껑 툇 덮어서 놔다가 십 분만 있다가 다시 불 때서 박박 저어서 불 때면 밥이 물 받아 갈 거. 그렇게 해서 먹었어.)

107003 @ 아까 물 무신거 헛헛 굴아라만은.(아까 물 무엇한다고 말하더라만.)

107003 # 물 빨엇저. 물 부껏저.(물 빼었다, 물 끓어 넘쳤다.)

107007 @ 쫓 같은 거는 따로 삶아근에.(팔 같은 거는 따로 삶아서.)

10700 # 아니, 쫓은 보리쌀에 ㄱ찌 낵 삶아. 보리쌀 통보리쌀 허여근에 보리쌀 별르지 안허영 곳인차 따까다근에 쫓이 혼디 낵 삶아. 경헤영 잔치 때나 낵 그 보리쌀 낵 밥헤났주. 건 매 때 아니 먹어났어게. 영장헐 때나 다시 또 잔치 때난 경헐 밥 먹어났주.(아니, 팔은 보리쌀에 같이 와서 삶아. 보리쌀 통보리쌀 해서 보리쌀 쫓개지 않고 온 채 닭아다가 팔이 함께 와서 삶아. 그렇게 해서 잔치 때나 와서 그

139) ‘물 헐 때’는 뒤에 제보자에게 다시 물어서 물을 끓지 않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리쌀 와서 밥했었지. 그건 매 때 안 먹었었어. 장사 지낼 때나 다시 또 잔치 때니까 그런 밥 먹었었지.)

107013 @ 국은 무신 국, 무신 국 잇수과?(국은 무슨 국, 무슨 국 있습니까?)

107013 # 누물국.(나물국.)

107013 @ 누물국.(나물국.)

107013 # 메역국.(미역국.)

107013 @ 메역국.(미역국.)

107013 # 메역세<sup>140)</sup>도 낡 국 끌리고.(미역새도 와서 국 끓이고.)

107013 @ 메역새도 낡 국 끌리고.(미역새도 와서 국 끓이고.)

107013 # 경해낫주. 늪뻘국도 끌리고.(그랬었지. 무국도 끓이고.)

107014 @ 누물국은 어떻 끌리는 거와?(나물국은 어떻게 끓이는 겁니까?)

107014 # 누물국은 배치누물 싹싹 꿔민 톡허게 드리쳐근에 꿔민 국이주. 웬장 카 놓고 해근에.(나물국은 배추나물 싹싹 끓으면 톡하게 집어넣어서 끓으면 국이지. 된장 타 놓고 해서.)

107014 @ 웬장은 물 끓이민 놔 아니민?(된장은 물 끓이면 놔 아니면?)

107014 # 물 끓임 전이 놔.(물 끓기 전에 놔.)

107014 @ 아, 물 끓이기 전이 웬장 풀어?(아, 물 끓이기 전에 된장 풀어?)

107014 # 웬장 풀어놔, 물 꿔와근에.(된장 풀어놔서, 물 끓어서.)

107014 @ 물 꿔왕 누물 그레 놓민 꿔는 거예.(물 끓어서 나물 그리 놓으면 되는 거요.)

107016 # 늪뻘국은 물장 낡 끌리고.(무국은 간장 와서 끓이고.)

107016 @ 무신 물장?(무슨 간장?)

107016 # 응, 장물 낡 끌리고.(응, 간장 와서 끓이고.)

107016 @ 장물이엔도 허고 물장이엔도 허여?(‘장물’이라고도 하고 ‘물장’이라고도 해?)

107016 # 응, 물장이 장물이엔도 허고. 장물 낡 끌리고.(응, ‘물장’이 ‘장물’이라고도 하고, 간장 와서 끓이고.)

107016 @ 못도 국 끌립니까?(무릇도 국 끓입니까?)

107016 # 안 끌려. 건 엇인 때 송년에나 못 먹는 거주 아무 때나 먹는 건 아니주게.(안 끓여. 그건 없는 때 흥년에나 무릇 먹는 거지, 아무 때나 먹는 건 아니지.)

107017 @ 게민 콩국은 어떻 끌립니까?(그러면 콩국은 어떻게 끓입니까?)

107017 # 콩국은 콩 와근에 물 낡 꿔어근에 허민 그디 누물이나 무나 낡 꿔어근에 거 익으민 콩가루 그레 그레에 강 굴아당 그레 카 놓민 꿔주게.(콩국은 콩 와서 물 와서 끓여서 하면 거기 나물이나 무나 와서 끓여서 익으면 콩가루 그리 맷돌에 가서 갈아다가 그리 타 놓으면 되지.)

107017 @ 그냥 그루채 놓니까?(그냥 가루째 놓습니까?)

140) ‘메역새’는 바다의 돌에 찰막하게 돋은, 미역과 비슷한 해초이다.

107017 # ㄱ루 영 캉.(가루 이렇게 카서.)

107017 @ 물에 안 카?(물에 안 타?)

107017 # 물에 카. 물에 영 돼직허게 캉 비와냥 영 박삭 궤민 그디 몽쿨몽쿨 허곡 딱시 물 혼 때 놓민 갈갈 허곡 허주게.(물에 타. 물에 이렇게 되직하게 타서 부어 놔서 이렇게 박삭 끓으면 거기 몽글몽글하고 다시 물 혼 때 놓으면 갈갈하고 하지.)

107017 @ 난 그거 허지 못 해서요 맨날 갈갈갈갈 해볼어.(난 그거 하지 못 해서요 맨날 갈갈갈갈 해버려.)

107017 # 그거 물 삭삭 궤민, 콩국에도 다시다 놔야 맛있지, 콩국만 끌리민 맛있어.(그거 물 삭삭 끓으면, 콩국에도 다시다 놔야 맛있지, 콩국만 끓이면 맛있어.)

107017 @ 궤민 처음에 다시다 냇 끌렛당, 물 끌렛.(그러면 처음에 다시다 놔서 끓였다가, 물 끓여서.)

107017 # 아니, 물 삭삭 궤거든에 무나 배추나 냇 그거 익지 안허영, 박삭 궤건 익건 그레 콩을 돼직허게 카근에 사발에 냇 캉 그레 비와 냇 그자 궤와. 궤 전이 젓이민 카저불곡.(아니, 물 삭삭 끓거든 무나 배추나 놔서 그거 익지 않아서, 박삭 끓건 익건 그리 콩을 되직하게 타서 사발에 놔서 타서 그리 부어 놔 그저 끓여. 끓기 전에 저으면 ‘카저’ 버리고.)

107017 @ 젓으면 안 돼는 거.(저으면 안 되는 거.)

107017 # 응, 젓으면 카지메. 궤거든에 박삭 궤건 영 젓영 보민 드불드불허잖아. 경행 허민 그레 다시다 흐쉴 냇 소금 농곡 허민 그젠 맛있어.(응, 저으면 ‘카저’. 끓거든 박삭 끓으면 이렇게 저어서 보면 ‘드불드불’하잖아. 그렇게 하면 그리 다시다 조금 놔서 소금 놓고 하면 그땐 맛있어.)

107017 @ 쥬 나중에 소금이영 다시다 놓는 거.(쥬 나중에 소금이랑 다시다 놓는 거.)

107017 # 소금은 부꺼가민 놔사해, 경 안허민 막 부꺼비어.(소금은 끓어 넘쳐 가면 놔야 해, 그렇게 안하면 막 넘쳐 버려.)

107017 @ 게난 맨날 부경 나가 콩국을 끌리민 다 헤싸저 가지고예.(그러니까 맨날 끓어넘쳐서 내가 콩국을 끓이면 다 흘러져 가지고요.)

107017 # 게난 콩국은 콩 카냥 돼직허게 카 냇 젓지 말앙.(그러니까 콩국은 콩 타 놓고 되직하게 카 놓고 젓지 말고.)

107017 @ 젓지 말앙.(젓지 말고.)

107017 # 젓지 말앙 영 삭허게 궤가건 확허게 냇 젓으면 드불드불해.(젓지 말고 이렇게 삭하게 끓어 넘쳐가면 확하게 놔서 저으면 ‘드불드불’해.)

107017 @ 드불드불허게가 안돼여.(‘드불드불’하게가 안 돼.)

107017 # 콩 얹게 칸 놔부난.(콩 얹게 타서 놔버리니까.)

107017 @ 아, 그거 콩가루 하영 놔?(아, 그거 콩가루 많이 놔?)

107017 # 하영 놔. 콩ㄱ루 하영 냇 드박드박 허영, 허게시리 막 돼게 카근에 소

룩하게 비와사지. 압게 캥 농민 갈갈해 불어. 하영 놔야지.(많이 놔. 콩가루 많이 놔서 ‘드박드박’ 해서. 하계끔 막 되게 카서 ‘소룩’하게 부어야지. 얇게 타서 놓으면 ‘갈갈’해 버려. 많이 놔야지.)

107017 @ 옛날에 어머니가 해줄 땐 두부추룩 허는디 나가 허민 경이 안 돼여. (옛날에 어머니가 해줄 땐 두부처럼 하는데 내가 하면 그렇게가 안 돼.)

107017 # 콩가루 죽영 놔부난. 돼직허게 캥 속허게 낱 박작허게 부끄민 그제랑 두께 확 열영 소금 안 농민 막 부껴불지. 소금 속허게 농곡 다시다나 흥끔 농곡 허민 국 맛 좋게 먹지.(콩가루 적게 놔버리니까. 되직하게 타서 ‘속’하게 놔서 ‘박작’하게 끓여넘치면 그때는 두경 확 열어서 소금 안 놓으면 아주 끓어 넘쳐버리지. 소금 ‘속’하게 놓고 다시다나 조금 놓고 하면 국 맛있게 먹지.)

107018 @ 호박잎국도 끌렁 먹읍니까?(호박잎국도 끓여서 먹잖습니까?)

107018 # 호박잎국 좋아.(호박잎국 좋아.)

107018 @ 건 어떻 허는 거파?(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18 # 건 호박잎국은 호박잎행 장 카근에, 웬장 농민 미리 카놔근에 꿔거든에 호박잎 행 즈질이 썰어놓고 호박잎 우에 ㄱ루 놔근에 낭푼에 호박잎 썰어놔 ㄱ루 그레 밀ㄱ루 거려놔 다불다불허민 ㄱ루 다 미쳐지지 안허여. 쏘에 그제랑 놔근에 싹허게 꿔민 호박잎에 허민 더불더불 막 좋아.(그건 호박잎국은 호박잎해서 장 타서, 된장 놓으면 미리 타 놔서 끓거든 호박잎 해서 자잘하게 썰어놓고 호박잎 위에 가루 놔서 양푼에 호박잎 썰어놔서 가루 그리 밀가루 떠놔서 ‘다불다불’하면 가루 다 묻혀지지 않아. 위에 그때랑 놔서 싹하게 끓으면 호박잎에 하면 ‘더불더불’ 아주 좋아.)

107018 @ ㄱ루를 따로 물에 안 카고?(가루를 따로 물에 안 타고?)

107018 # 물에 카는 사름은 카. 캥 허는디 우리 어디 간 배완에 경험센 허연 경해보민 나가 느랑 해보민 호박잎에 ㄱ루 미쳐지민 다불다불허여. 경허민 저베기 돼듯 허여.(물에 타는 사름은 타. 타서 하는데 우리 어디 가서 배워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보니 내가 늘 해보면 호박잎에 가루 묻혀지면 ‘다불다불’해. 그러면 수제비 되듯 해.)

107018 @ 경허민 저베기허듯이 돼어마씨? 그건 처음 들엄저.(그러면 수제비하듯이 돼요? 그런 처음 듣는다.)

107018 # 우리도 배웠어. 땡기멍.(우리도 배웠어. 다니면서.)

107018 @ 옛날에 할머니가 해난 걸 골아야지.(옛날에 할머니 했던 걸 말해야지.)

107018 # 호박잎 놓고 ㄱ루를 놔근에 해놔지게.(호박잎 놓고 가루를 놔서 했었지.)

107018 @ ㄱ루를 거난 물에 카근에?(가루를 그러니까 물에 타서?)

107018 # 물에 카도 돼고 그자 놔도 돼여. 허끄멍 영영 놔도 돼고.(물에 타도 되고 그저 놔도 돼. 섞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놔도 되고.)

107018 @ 그냥도 ㄱ루를 놔도 돼여예. 무신 ㄱ루 놔?(그냥도 가루를 놔도 돼요.

무슨 가루 봐?)

107018 # 콩가루도 농곡.(콩가루도 넣고.)

107018 @ 호박잎국에?(호박잎국에?)

107018 # 아니, 호박잎국엔 밀가루 농곡 모뎀가루도 봐도 돼고.(아니, 호박잎국엔 밀가루 넣고 메밀가루도 봐도 되고.)

107018 @ 모뎀가루도 됩니까?(메밀가루도 됩니까?)

107018 # 엇이민 모뎀가루도 농곡 아무거라도 농민 돼주.(없으면 메밀가루도 넣고 아무거라도 농으면 되지.)

107018 @ 호박잎국에 웬장 풀어봐?(호박잎국에 된장 풀어봐?)

107018 # 응, 웬장 농주, 뭘 넣 끌려, 오복간장 남서?(응, 된장 농지, 뭘 봐서 끓여, 오복간장 농나?)

107018 @ 아무것도 안 넣 소금 넣.(아무것도 안 봐서 소금 봐서.)

107018 # 소금 넣은 맛엇지. 아멩헤도 국엔 웬장을 농나 장을 봐야 맛잇주, 소금국은 맛엇지게.(소금 봐서는 맛엇지. 아무래도 국엔 된장을 농거나 간장을 봐야 맛잇지, 소금국은 맛엇지.)

107018 @ 호박잎국도 웬장을 봐사.(호박잎국도 된장을 봐야.)

107018 # 장을 봐야지게.(장을 봐야지.)

107018 @ 웬장 넣 호박잎국 안 끌려 봤수다.(된장 봐서 호박잎국 안 끓여 봤습니다.)

107018 # 소금만 넣? 계난 맛엇지게. 장물 논 것광 소금만 넣 국 끌려봐 훨씬 차이 나. 장 안 담양 먹엄서?(소금만 봐서? 그러니까 맛엇지. 간장 농은 것과 소금만 봐서 국 끓여봐, 훨씬 차이 나. 장 안 담아서 먹고 있어?)

107018 @ 상 먹엄주마씨.(사서 먹고 있지요.)

107018 # 상 먹어도 조선간장 폭는 디가 잇넨 헨게마는.(사서 먹어도 조선간장 폭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마는.)

107018 @ 장물을 농는 거봐, 웬장을 농는 거봐?(간장을 농는 겁니까, 된장을 농는 겁니까?)

107018 # 호박잎국엔 웬장 봐도 돼여.(호박잎국엔 된장 봐도 돼?)

107018 @ 할머니 어떻게여?(할머니 어떻게 해?)

107018 # 장물 놀 때도 잇고 웬장 엇이민 장물도 농곡 장물 엇일 땐 웬장 농곡.(간장 농을 때도 잇고 된장 없으면 간장도 농고 간장 없을 땐 된장 농고.)

107018 @ 아무거나 봐도 돼여예.(아무거나 봐도 돼요.)

107018 # 우린 장물 사당 먹으난 웬장 풀어놓 그자. 다시다나 농곡.(우리 간장 사다 먹으니까 된장 풀어봐서 그저. 다시다나 농고.)

107019 @ 뎡국은 어떻 허는 거봐?(모자반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19 # 뎡국은 뎡 뽕앙 썰어와근에 국 끌렁 그디도 가루, 모뎀코루 봐야.(모자반국은 모자반 뽕아서 썰어와서 국 끓여서 거기도 가루, 메밀가루 봐야.)

107019 @ 건 도새기 삶은 국물로 허는 거파?(그건 돼지 삶은 국물로 하는 겁니까?)

107019 # 도새기 삶은 국물도 허곡 우리 옛날엔 녹물 엮은 땀 바당에 몰망 나 난 즈물아단 몸국 끌렁 먹어놔주게. 나도 물질도 해난.(돼지 삶은 국물도 하고 우리 옛날엔 나물 엮을 땀 바다에 모자반 나니까 채취해다가 모자반국 끓여서 먹었었지. 나도 물질도 했었어.)

107019 @ 잔칫날 먹는 게 아니고?(잔칫날 먹는 게 아니고?)

107019 # 몸이 엮으난 잔칫날만 먹엄주게. 몸해영 무쳐도 먹곡게. 몸이 빗나지 안허여.(모자반이 없으니까 잔칫날만 먹고 있지. 모자반해서 무쳐도 먹고. 모자반이 비싸지 않아.)

107019 @ 예, 이제 막 비싸.(예, 이제 아주 비싸.)

107019 # 막 빗나주. 우리 옛날에 시난 즈물명 다 혼 짐 즈물아당 놔뒀근에 여름에도 냉국행 먹곡. 느랑 행 먹주.(아주 비싸지. 우리 옛날에 있으니까 채취하면서 다 한 짐 채취해다가 놔뒀서 여름에도 냉국해서 먹고. 늘 해 먹지.)

107019 @ 이던 그냥 몸이엔 험니까?(여긴 그냥 모자반이라고 험니까?)

107019 # 몸, 몸. 옛날엔 몰망.(‘몸’, ‘몸’. 옛날엔 ‘몰망’.)

107020 @ 생선국도 끌렁 먹지예?(생선국도 끓여서 먹지요?)

107020 # 생선국은 어떻 끌려. 물 현 때라도 놔근에 메역 농곡 근장 농곡행 끌리민 돼주.(생선국은 어떻게 끓여. 물 한 때라도 놔서 미역 놓고 간장 놓고 해서 끓이면 돼지.)

107020 @ 보통 무슨 생선으로 국 끌려?(보통 무슨 생선으로 국 끓여?)

107020 # 생선은 솔래기도 좋고 갈치도. 갈치국은 호박 넣 끌려야 좋아. 솔래기 국광 거시긴 메역 놔도 갈치국은 늪빠 놔야 좋아.(생선은 옥돔도 좋고 갈치도. 갈치국은 호박 놔서 끓여야 좋아. 옥돔국과 거시기는 미역 놔도 갈치국은 무 놔야 좋아.)

107020 @ 호박.(호박.)

107020 # 침 호박.(참 호박.)

107020 @ 솔래기국은 메역.(옥돔국은 미역.)

107020 # 메역도 좋고 솔래기국은 늪빠도 존디 갈치국엔 호박이 좋아.(미역도 좋고 옥돔국은 무도 좋은데 갈치국엔 호박이 좋아.)

107020 @ 그건 물 끓인 다음에 솔래기 놔?(그건 물 끓인 다음에 옥돔 놔?)

107020 # 아니, 물 현 때 놔도 돼주게.(아니, 물 현 때 놔도 되지.)

107020 @ 아, 물이영 혼디 놔. 경행 끌려.(아, 물이랑 함께 놔. 그렇게 해서 끓여.)

107020 거 끌려지건게 메역도 놓고 솔래기국엔 메역 농곡게 장물 농곡 허민 돼잖아. 맛잇이민 다시dana 흐뎡 놓고 허민 돼지, 뉘.(그거 끓으면 미역도 놓고 옥돔국엔 미역 놓고 간장 놓고 하면 되잖아. 맛없으면 다시dana 조금 놓고 하면 되지,

튀.)

107020 @ 다시단 다 들어가. 옛날에 다시다 엇일 땐 어떻 해놔수과?(다시다는 다 들어가. 옛날에 다시다 없을 땐 어떻게 했었습니까?)

107020 # 옛날엔 미원 엇수과?(옛날엔 미원 없었습니까?)

107020 @ 미원도 엇일 때.(미원도 없을 때.)

107020 # 스몓 옛날엔 그자 꿔기헌 냥. 스몓 옛날엔 솔래기행 소금행 놔두민 팔 월맹질날 바짝 들른 솔래기 썰어놔 국 끓리민 엇어도 먹었주. 그거 무신 맛 출리멍 먹었수과? 옛날에사, 이제 사름덜 호강으로 먹엄주. 늬빠나 썰어놓국 메역이나 농국 행 먹었주. 아이고, 옛날에 삶이사게. 맛있고 하간 거. 쟁국ㄴ치 혼 국자씩 거려주민 것도 맛좋앗주게. 옛날은 아이덜 맹질 먹으레 땡겼주. 이제 맹질 먹으레 땡겸수과? (사몓 옛날엔 그저 고기한 대로. 사몓 옛날엔 옥돔 해서 소금해서 놔두면 팔월맹질 날 바짝 마른 옥돔 썰어놔서 국 끓이면 엇어도 먹었지. 그거 무슨 맛 차리면서 먹 었습니까? 옛날에야, 이제 사람들 호강으로 먹고 있지. 무나 썰어놓고 미역이나 농 고 해서 먹었지. 아이고, 옛날에 삶이야. 맛있고 온갖 거. ‘쟁국’같이 한 국자씩 떠 주면 그것도 맛있었지. 옛날은 아이들 맹질 먹으러 다녔지. 이제 맹질 먹으러 다니 고 있습니까?)

107020 @ 옛날은 맹질 먹으레 막 땡겨나신디예.(옛날은 맹질 먹으러 막 다녔었 는데요.)

107020 # 이젠 안 땡겨. 제관덜이나베끼.(이젠 안 다녀. 제관들이나밖에.)

107021 @ 메역국은 솔래기나 그런 국 끓일 때만 놓는가? 그냥 장국에는.(미역 국은 옥돔이나 그런 국 끓일 때만 놓는가? 그냥 장국에는.)

107021 # 그자 장물 땡 국 끌렁 먹는디 땡장엔 혼엇이 좋지 안허여.(그저 간장 놔서 국 끓여서 먹는데 땡장엔 한없이 좋지 않아.)

107021 @ 게민 어떻?(그러면 어떻게?)

107021 # 물장.(‘물장’.)

107021 @ 장물 땡 메역국 끌렁 아무것도 안 땡.(간장 놔서 미역국 끓여서 아무 것도 안 놔서.)

107021 # 아니 것도 맛존 거 놔야주 멘 장물만 땡 국 끌렁 맛이 십니까?(아니 그것도 맛좋은 거 놔야지. 멘 간장만 놔서 국 끓여서 맛이 있습니까?)

107021 @ 이제사 다시다 잇주만은 옛날에 엇일 때.(이제야 다시다 있지만 옛날 에 없을 때.)

107021 # 옛날은 엇이난 엇인 대로 먹었주게. 옛날은 봄 나민 드룻마농 강 케당 그거 데왕 먹고 그거 해근에 메역국에 마농을 썰어놓민 옛날엔 잘도 맛좋아났주.(옛 날은 없으니까 없는 대로 먹었지. 옛날은 봄 나면 달래 가서 캐다가 그거 데쳐서 먹고 그거 해서 미역국에 마늘을 썰어놓으면 옛날엔 아주 맛있었지.)

107021 @ 드룻마농을 메역국에.(달래를 미역국에.)

107021 # 메역 해다 놓고 드룻마농 캐영 농국 허민 잘도 맛좋앙. 옛날은 장물이



메역만 낱 국 끌려도 맛좋게 먹어놔주게. 이췌 사람은 입 높아근에. 이제 늑어가난 점점 높아감주. 옛날 먹어난 거 이제 사람덜 하나도 못 먹어.(미역 해다가 놓고 달래 캐서 놓고 하면 아주 맛있어. 옛날은 간장에 미역만 놔서 굴 끓여도 맛있게 먹었었지. 이제 사람은 입 높아서. 이제 늑어가니까 점점 높아가고 있지. 옛날 먹었던 거 이제 사람들 하나도 못 먹어.)

107021 @ 맛엇어.(맛없어.)

107021 # 맛엇어.(맛없어.)

107021 @ 메역은 바당에 강.(미역은 바다에 가서.)

107021 # 이녁냥으로 해당 먹엇어.(자기대로 해다가 먹엇어.)

107021 @ 어떻 험니까?(어떻게 험니까?)

107021 # 빨앙게 물리왕 낯당 국도 행 먹고 냉국도 행 먹고 따시 또 이제 사람덜은 메역 해당 놀차 냉장고에 빨앙 담앙 놔둬서 여름 내냥 먹고 허고. 옛날은 그냥 물리왕.(빨아서 말려서 놔다가 국도 해서 먹고 냉국도 해서 먹고 다시 또 이제 사람들은 미역 해다가 생채 냉장고에 빨아서 담아 놔두면서 여름 내내 먹고 하고. 옛날은 그냥 말려서.)

107021 @ 메역은 시청 물리기만 험니까?(미역은 씻어서 말리기만 험니까?)

107021 # 그자 물리우는 건 그냥 물려.(그저 말리는 건 그냥 말려.)

107021 @ 솟앙 물리는 거짜?(삶아서 말리는 겁니까?)

107021 # 아니. 그냥. 그냥 물리와. 물리우는디 냉장고 신 사람덜은 이제 메역 안 돌림수게.(아니, 그냥. 그냥 말려. 말리는데 냉장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미역 안 말리고 있습니다.)

107021 @ 건 이제고 옛날에.(그건 이제고 옛날에.)

107021 # 옛날엔 그자 벳디 그냥 물려.(옛날엔 그저 별에 그냥 말려.)

107021 @ 벳디 그냥 물려.(별에 그냥 말려.)

107021 # 담더레 그냥 톡톡 걸쳐 그자 파썩 물렁 낯당 어디 담앙 멩텅이레 담앙 놔둬서 끌려 먹어놔주.(담에 그냥 톡톡 걸쳐서 그저 바썩 말려서 놔다가 어디 담아서 망태기에 담아 놔두면서 끓여 먹었었지.)

107022 @ 냉국도 하영 끌렁 먹어놔지예?(냉국도 많이 끓여서 먹었었지요?)

107022 # 그 메역 빨멍.(그 미역 빨면서.)

107022 @ 냉국은 어떻 만들어?(냉국은 어떻게 만들어?)

107022 # 웨도 낱 행 먹고. 웨 썰영 웨헤영 이젠 벳경 먹엄주, 옛날은 더덕더덕헌 웨도 썰영 벌경헌 낱 채로 썰어놔 그거 낱 장물이나 낱 먹엇수게.(오이도 놔서 해서 먹고. 오이 썰어서 오이해서 이젠 벗겨서 먹고 있지, 옛날은 더덕더덕한 오이도 썰어서 벌건 대로 채로 썰어놔서 그거 놔서 간장이나 놔서 먹었습니다.)

107022 @ 물웨 썰어 놓고.(노각 썰어 놓고.)

107022 # 물웨만.(노각만.)

107022 @ 메역도 썰영 장물에.(미역도 썰어서 간장에.)

107022 # 장물에 낱 먹고.(간장에 놔서 먹고.)

107022 @ 웬장 아니고?(된장 아니고?)

107022 # 옛날은 웬장 아니랑 장물이 하낫수게. 팽에 밧디 가젠 허민 장물 팽이 질영 강 행 먹어낫어.(옛날은 된장 아니고 간장이 많았지. 병에 밧에 가려고 하면 간장 병에 길어 가서 해서 먹었었어.)

107022 @ 팽에 장물을 질영 강 밧디 강 그거 비왕.(병에 간장 길어 가서 밧에 가서 그거 부어서.)

107022 # 메역 농곡 그 물 농곡 장물 농곡 행 국행 먹어낫수게. 무시거 난에 먹어수과?(미역 놓고 그 물 놓고 간장 놓고 해서 국해서 먹었었습니다. 무엇 놔서 먹었습니까?)

107022 @ 웬장 아니고?(된장 아니고?)

107022 # 웬장도 아니고 물장행 옛날은 이녁냥으로 장 담으난 물장이 하낫수게. 계난 물장이나 웬장이나 ㄹ치 ㄹ치 허민. 메역 냉국할 땐 물장 밧디 질영 강 냉국행 먹어낫수게.(된장도 아니고 간장해서 옛날은 자기대로 장 담으니까 간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장이나 된장이나 같이 같이 하면. 미역 냉국할 땐 간장 밧에 길어 가서 냉국해서 먹었었습니다.)

107022 @ 이젠 무사 냉국허민 웬장만 험니까?(이젠 왜 냉국하면 된장만 하잖습니까?)

107022 # 이제도 사온 이 곤장은 냉국허민 별경허는디 그자 장은 시방도 물장 낱 냉국헌 게 좋주게. 웬장은 아메도 걸른 거라. 웬장 덩이차 웬장 콩차 낱 국허민 저불저불 손님 온 디 내놓지 못허지 안허파? 너미 두불 거렁 걸레여야 허주.(이제도 사온 이 간장은 냉국하면 별건데 그제 장은 시방도 간장 놔서 냉국한 게 좋지. 된장은 아무래도 거른 거야. 된장 덩어리째 된장 콩째 놔서 국하면 ‘저불저불’ 손님 온 데 내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두벌 걸러서 걸러야 하지.)

107022 @ 뭇로 영 걸렁게.(뭇로 이렇게 걸러서.)

107022 # 우린 시방도 이녁 먹는 것도 걸렁 놓주 그냥은 안 낱 먹어.(우린 시방도 자기 먹는 것도 걸러서 놓지 그냥은 안 놔서 먹어.)

107023 @ 이딘 경해도 바당 동네난 성계 이런 거.(여긴 그래도 바다 동네니까 성계 이런 거.)

107023 # 성귀.(성계.)

107023 @ 성귀? 국도 끌렁 먹지예?(성계? 국도 끓여서 먹지요?)

107023 # 성귀국 끌렁 먹어. 큰일 때 무사 성귀국 안 끌렁 줘?(성계국 끓여서 먹어. 큰일 때 왜 성계국 안 끓여 줘?)

107023 @ 이젠 막 먹는디 옛날도 먹어낫수과?(이젠 막 먹는데 옛날도 먹었었습니까?)

107023 # 옛날은 그거 서우기엔 현 거 거멍헌 건 아니고 옛날엔 숨이 이서낫수게. 숨 잡아당 옛날은 멍청허난 숨 강근에 혼 구덕. 강 우린 저 두린 때 가름에 살

멍 보민 할망이나 고모나 숨을 혼 구덕 잡아단 도구리 시난 도구리에 던드렁 마께로 딱딱하게 빠정 대구덕에 낱 걸렁걸렁 해근에 국물 빠근에 국 끌렁 먹어낫수게. 이젠 까멍 먹어도 경헛수게, 옛날은. 경헛 국 끌리민 메역 농곡 국 끌리민 경 맛종텐 먹어낫주.(옛날은 그거 ‘서우기’라고 한 거 거먼 건 아니고 옛날엔 말뚱성게가 있었습니다. 말뚱성게 잡아다가 옛날은 멍청하니까 말뚱성게 가서 한 구덕. 가서 우린 저 어린 때 동네에 살면서 보면 할머니나 고모나 말뚱성게를 한 구덕 잡아다가 함지박 있으니까 함지박에 ‘던드렁 마께’로 딱딱하게 뺑아서 대바구니에 놔서 ‘걸렁 걸렁’ 해서 국물 빼서 국 끓여서 먹었습니다. 이젠 까면서 먹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옛날은. 그렇게 해서 국 끓이면 미역 넣고 국 끓이면 그렇게 맛있다고 먹었었지.)

107023 @ 성귀는 하영 납니까? 숨으로만 헛?(성게는 많이 납니까? 말뚱성게로만 했어?)

107023 # 옛날은 성귀 ㄴ쁜 건 고망에 신 거 고망에 파멍 옛날은 안 잡아낫수게. 숨은 돌 일리민 녀석녀석 허난 그거 잡앗주만은 옛날은 고망에 거 아이파낫수게. 이제덜이난 거 돈 나는 거난 고망에 거 요멘씩헌 거 다 팍주. 잠수덜 그거만 잡압수게. 시방은 줄어부난 못 잡아도.(옛날은 성게 같은 건 구멍에 있는 거 구멍에 파면서 옛날은 안 잡았었습니다. 말뚱성게는 돌 일으키면 ‘녀석녀석’하니까 그거 잡았지만 옛날은 구멍에 거 안 팠었습니다. 이제들이니까 그거 돈 나는 거니까 구멍의 거 요만씩한 거 다 파고 있지. 잠수들 그것만 잡고 있습니다. 시방은 줄어버리니까 못 잡아도.)

107023 @ 이젠 막 보말국도에 헛 먹는디 옛날도 헛 먹어낫수과?(이젠 막 고등국도요 해서 먹는데 옛날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23 # 옛날도 보말 잡으멍 옛날 이젠 돈 사부난 안 먹는디 옛날은 돈 안 사난 이녀냥으로 가근에 어떤 땀양 이 저 상동서 알동네 가근에 잡는 사름덜 옛날은 하도 하난양 혼 술박으로 하나씩 잡아와 놓민 그거만 열앙 영 문작문작 딱지 떼뵈문질문질 췌멍 국 끌렁 먹어낫어.(옛날도 보말 잡으면서 옛날 이젠 돈 사버리니까 안 먹는데 옛날은 돈 안 사니까 자기대로 가서 어떤 땀요 이 저 상동에서 아랫동네 가서 잡는 사람들 옛날은 하도 많으니까요 한 ‘술박’으로 하나씩 잡아와 놓으면 그거만 열어서 이렇게 ‘문작문작’ 딱지 떼어두고 ‘문질문질’ 주무르면서 국 끓여서 먹었었어.)

107023 @ 이젠 보말국도 막 빗납니다.(이젠 고등국도 아주 비쌉니다.)

107023 # 시방 보말 혼 일 키로에 이만삼천 원인가, 얼마가 삼만 원인가 험젠 험디다, 이제. 일 키로에.(시방 고등 한 일 킬로에 이만삼천 원인가, 얼마가 삼만 원인가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일 킬로에.)

107023 @ 보말 잡으레 가사키여예.(고등 잡으러 가야겠어요.)

107023 # 어디 강 잡아?(어디 가서 잡아?)

107023 @ 바당에 엇수과?(바다에 없습니까?)

107023 # 이딘 엇어.(여긴 없어.)  
 107023 @ 이젠 엇어.(이젠 없어.)  
 107023 # 응, 조천<sup>141)</sup>이난 실 거라.(응, 조천이니까 있을 거야.)  
 107023 @ 하하하. 그디도 엇어마씨.(하하하. 거기도 없어요.)  
 107023 # 줌수덜 민 보말 잡아놓난에 물 봉봉<sup>142)</sup>허민 줌수덜, 물 싸민 궂할망덜  
 헨 잡아놓난 ㄴ메기 엇덴. 하도 잡아부난. ㄴ메기 허민 일 키로 잡으민게 삼만 원이  
 난. 어떤 땐 혼 일 키로 잡는 사름, 삼 키로 잡는 사름.(해녀들 모두 고등 잡아놓으  
 니까 물 ‘봉봉’하면 잠수들, 물 썬면 ‘궂할망’들 해서 잡아놓으니까 고등 없대. 하도  
 잡아버리니까. 고등 하면 일 킬로 잡으면 삼만 원이니까. 어떤 땐 한 일 킬로 잡는  
 사름, 삼 킬로 잡는 사름.)  
 107023 @ ㄴ메기?(‘ㄴ메기’?)  
 107023 # 응, 보말.(응, 고등.)  
 107023 @ 보말이 ㄴ메기예?(고등이 ‘ㄴ메기’요?)  
 107023 # 응. 보말이 보말.(응. 고등이 고등.)  
 107023 @ 보말이 보말. ㄴ메긴?(고등이 고등. ‘ㄴ메기는’?)  
 107023 # 춤ㄴ메긴 켜켜헌 거. 춤ㄴ메기.(‘춤ㄴ메기’는 자잘한 거. ‘춤ㄴ메기’.)  
 107023 @ 아, 켜켜헌 게 춤ㄴ메기.(아, 자잘한 게 ‘춤ㄴ메기’.)  
 107023 # 춤ㄴ메기, 보말, 수두리. 것도 세 가지라.(‘춤ㄴ메기’, 보말, 팽이. 그것  
 도 세 가지야.)  
 107023 @ 수두리.(팽이.)  
 107023 # 춤ㄴ메기.(‘춤ㄴ메기’.)  
 107023 @ 춤ㄴ메기.(‘춤ㄴ메기’.)  
 107023 # 보말.(고등.)  
 107023 @ 보말 영 세 개?(고등 이렇게 세 개?)  
 107023 # 문더닥지도 썬고 문더닥진 영 딱지 신 거, 문더닥지.(눈알고등도 있고  
 눈알고등은 이렇게 딱지 있는 거, 눈알고등.)  
 107023 @ 문더닥지?(눈알고등?)  
 107023 # 응, 칼칼 쓴 거. 세 가지라.(응, ‘칼칼’ 쓴 거. 세 가지야.)  
 107023 @ 매운 것도 이수게. 매운 거.(매운 것도 있잖아요. 매운 거.)  
 107023 # 메옹이 잇주.(두드럭고등.)  
 107023 @ 메옹이도 잇지예, 막 하신게.(두드럭고등도 있지요, 아주 많네.)  
 107023 # 하주. 마타살도 잇고, 존존헌 거.(많지. ‘마타살’도 있고, 자잘한 거.)  
 107023 @ 마타살도 잇고.(‘마타살’도 있고.)  
 107023 # 아이고, 하주게.(아이고, 많지.)  
 107023 @ 막 하다예. 아까 수두리, 춤ㄴ메기 그다음 무신거마씨?(아주 많아요.

141) ‘조천’은 지명으로 제주도 조천읍 조천리를 말하는데 조사자의 시택이 조천이라고 했더니 조사자가 사는 곳  
 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142) ‘봉봉’은 밀물이 되어서 물이 많이 들어온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아까 팽이, ‘춤ㄴ메기’ 그다음 뭐요?)

107023 # 수두리, 춤ㄴ메기, 보말.(팽이, ‘춤ㄴ메기’, 고등.)

107023 @ 그냥 보말, 응.(그냥 고등, 응.)

107023 # 문더닥지.(눈알고등.)

107023 @ 문더닥지.(눈알고등.)

107023 # 메옹이.(두드럭고등.)

107023 @ 메옹이, 마타살.(두드럭고등, ‘마타살’.)

107023 # 응.(응.)

107023 @ 또, 또 엇수과?(또, 또 없습니까?)

107023 # 또 고등.(또 소라.)

107023 @ 고등.(소라.)

107023 # 생복.(전복.)

107023 @ 생복. 하하하.(전복. 하하하.)

107023 # 성귀 오죽 하계. 숨.(성계 오죽 많아. 말뚱성계.)

107023 @ 성귀, 숨.(성계, 말뚱성계.)

107023 # 하주계. 바당 것도 오죽 하?(많지. 바다 것도 오죽 많아?)

107023 @ 계난예. 혹시 너패국도 해낫수과?(그러니까요. 혹시 넓패국도 했었습니까?)

107023 # 너패 메다근에 바당에서 막 손으로 작작 빨아당 그거 놔근에 솥앙 솥디 낱 폭허게 솥앙 놔둬서 거러놓멍 국 끌리민 잘도 맛중주, 옛날에.(넓패 매다가 바다에서 막 손으로 작작 빨아다가 그거 놔서 삶아서 솥에 노서 폭하게 삶아서 놔두고 떠놓으면서 국 끓이면 아주 맛있지, 옛날에.)

107023 @ 응, 먼저 너패를 바당에서 행궤.(응, 먼저 넓패를 바다에서 행궤서.)

107023 # 막 밀영 빨아다근에.(막 밀어서 빨아다가.)

107023 @ 바당에서 빨앙?(바다에서 빨아서?)

107023 # 응.(응.)

107023 @ 바당에서 빨앙 가정왕.(바다에서 빨아서 가져와서.)

107023 # 솥디 낱 물 안 낱 보까근에 문착 솥아.(솥에 놔서 물 안 놔서 볶아서 폭 삶아.)

107023 @ 아, 물 안 놔근에. 솥앙 그다음에.(아, 물 안 놔서. 삶아서 그다음에.)

107023 # 솥앙 이젠 옛날엔 그거 국거리난 하영 행 혼 솥 솥아놓민 하지 았아. 무시거 컵으로 평 덜어놓멍 ㄴ루 놓멍 국 끌리민.(삶아서 이젠 옛날엔 그거 국거리니까 많이 해서 한 솥 삶아놓으면 하지 았아. 뭐 컵으로 퍼서 덜어놓으면서 가루 놓으면서 국 끓이면.)

107023 @ 아, 그거 말리나 그렇게 안 하고?(아, 그거 말리거나 그렇게 안 하고?)

107023 # 들령은 안 해.(말려서는 안 해.)

107023 @ 그냥 솟디서 한 솟 해낭 그거 떠낭 국 끌령예.(그냥 술에서 한 술 해  
와서 그거 떠와서 국 끓여서요.)

107023 # 국 끌령, 너패국.(국 끓여서, 넓패국.)

107023 @ 너패국. 다른 거 뭐 안 놓고 그거만?(넓패국. 다른 거 뭐 안 놓고 그  
것만?)

107023 # 거 다른 거 안 낭 ㄱ루나 놓고.(그거 다른 거 안 와서 가루나 놓고.)

107023 @ 무신 ㄱ루? 밀ㄱ루?(무슨 가루? 밀가루?)

107023 # 옛날은 모믈ㄱ루.(옛날은 메밀가루.)

107023 @ 아, 모믈ㄱ루.(아, 메밀가루.)

107023 # 옛날은 느쟁이, 모믈코루 느쟁이 와근예.(옛날은 나깨, 메밀가루 나깨  
와서.)

107023 @ 모믈ㄱ루도 옛이민 느쟁이 와근예?(메밀가루도 없으면 나깨 와서?)

107023 # 모믈 곁아난 거, 모믈쫄 곁아난 ㄱ루 잇주게. 그거 낭 국 끌리주게.(메  
밀 곁앗던 거, 메밀쫄 곁앗던 가루 있지. 그거 와서 국 끓이지.)

107023 @ 그거 와근예 너패 놓고, 물도 와?(그거 와서 넓패 놓고, 물도 와?)

107023 # 물 와야 국 끌리지.(물 와야 국 끓이지.)

107023 @ 계민 물 췌운 다음예?(그러면 물 끓인 다음예?)

107023 # 물 췌민 와근예게.(물 끓이면 와서.)

107023 @ 물 췌민 너패 끌린 거 놓고 그다음에 느쟁이 ㄱ루 놓고.(물 끓이면  
넓패 끓인 거 놓고 그다음에 나깨 가루 놓고.)

107023 # 경허민 뒤주게.(그러면 되지.)

107023 @ 경허민 너패국이 뒤는 거?(그러면 넓패국이 되는 거?)

107023 # 응.(응.)

107023 @ 가시리도 국 행 먹읍니까?(가시리도 국 해서 먹읍니까?)

107023 # 응.(응.)

107023 @ 그건 또 어떻허는 거라?(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107023 # 가시린 그냥 메어다근예 그냥 와근예.(가시리는 그냥 매어다가 그냥  
와서.)

107023 @ 그냥 와? 끌러?(그냥 와? 끓여?)

107023 # 끌영. 그냥 빨아뒤, 그냥 놓민 아 건 빨지도 안행 와도. 이 ㄴ물에나  
아무것에라도 와근예 그냥 국 끌령 먹주게. ㄱ루 안 와도.(끓여서. 그냥 빨아두고,  
그냥 넣으면 아 그건 빨지도 안하고 와도. 이 나물에나 아무것에라도 와서 그냥 국  
끓여서 먹지. 가루 안 와도.)

107023 @ ㄱ루 안 놓고예, 건 그냥 물장예?(가루 안 놓고요. 그건 그냥 간장  
예?)

107023 # 물장이나 췌장이나 아무거라도.(간장이나 된장이나 아무거라도.)

107023 @ 아, 아무거나.(아, 아무거나.)

107023 # 국 끌렁 문작허게 행 먹주. 가시리국.(국 끓여서 ‘문작’하게 해서 먹지. 가시리국.)

107023 @ 가시리국. 파래도 국 행 먹주예?(가시리국. 파래도 국 해서 먹지요?)

107023 # 프랜 안 해.(파랜 안 해.)

107023 @ 프랜 안 해.(파랜 안 해.)

107023 # 프래국은 안 해.(파래국은 안 해.)

107023 @ 이젠 물훼도 막 하영 허는디 옛날도 물훼행 먹어났수과?(이젠 물회도 아주 많이 하는데 옛날도 물회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23 # 물웨, 옛날도 물웨 행 밧마다 안 놓민 웨 놓는 하르방이 싯잖아.(노각, 옛날도 노각 해서 밧마다 안 놓으면 외 놓는 할아버지 있잖아.)

107023 @ 아니, 거 말고. 자리물훼.(아니, 그거 말고. 자리물회.)

107023 # 자리물훼 허주게.(자리물회 하지.)

107023 @ 건 어떻 허는 거파?(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23 # 자리물웁 이젠, 옛날은 이녁 개인마다 자리 해당 해먹는디 이젠 자리가 하영 안 나지 안합니까? 어디 저 서이 법환<sup>143)</sup>이서나 어디서나 폴레 읍니께. 폴레 오민 상 먹는 사름은 허고. 이 자리 허는 저 식당이 시께. 우리 노인덜도 식당에 저 봄 나민 자리훼 먹으레 돼 번씩 갑니다. 혼 달에 보름에씩 먹으난 가민 그디 강사먹읍니께?(자리돔물회는 이젠, 옛날은 자기 개인마다 자리돔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어디 저 서쪽 법환에서나 어디서나 팔러 오잖아요. 팔러 오면 사서 먹는 사름은 하고. 이 자리돔 하는 저 식당이 있잖아요. 우리 노인들도 식당에 저 봄 나면 자리돔회 먹으러 두어 번씩 갑니다. 한 달에 보름씩 먹으니까 가면 거기 가서 사 먹잖습니까?)

107023 @ 아니, 옛날에.(아니, 옛날에.)

107023 # 옛날엔 이녁냥으로 막 해먹어났수다.(옛날엔 자기대로 막 해먹었었습니다.)

107023 @ 이녁냥으로 행 먹읍니까?(자기대로 해서 먹습니까?)

107023 # 옛날엔 해먹어났어. 자리 사당. 개뿔마다 자리 거리난게.(옛날엔 해먹었었어. 자리돔 사다가. 포구마다 자리돔 잡으니까.)

107023 @ 어디마다?(어디마다?)

107023 # 이 바당에 개뿔마다 옛날엔 자리 거러났수게.(이 바다에 포구마다 옛날엔 자리돔 잡았었지.)

107023 @ 개뿔마다?(포구마다?)

107023 # 응, 개뿔디, 배 매는 거 개뿔 아니파?(응, 포구, 배 매는 거 포구 아닙니까?)

107023 @ 아, 개뿔. 개뿔마다.(아, 포구. 포구마다.)

107023 # 자리 사례 강 자리 혼 박세기 삼서 허민 거린 땐 행 사고 사름이나

143) ‘법환’은 지명으로 서귀포시 법환동을 말한다.

하곡 허민 켤당덜이나 무시거 가까운 사름은 자리도 혼 박세기 풀아주고 경 안 허민 자리 못 사.(자리돔 사러 가서 자리돔 한 바가지 사세요 하면 잡은 켤 해서 사고 사람이나 많고 하면 켤당덜이나 뭐 가까운 사름은 자리돔도 한 바가지 팔아주고 그렇게 안 하면 자리돔 못 사.)

107023 @ 그민 어떻 해?(그러면 어떻게 해?)

107023 # 못 사민 그냥 올라오고. 상동서 하동 오라도 못 상 가고. 신천리<sup>144)</sup> 가도 엇이민 못하고.(못 사면 그냥 올라오고. 상동에서 하동 와도 못 사서 가고. 신천리 가도 없으면 못하고.)

107023 @ 예.(예.)

107023 # 계난 여청덜은 사례 안 텅기고 남즈 신 디나 자리 산 텅기주, 여청덜이 자리 사례 텅겨집니까? 옛날에.(그러니까 여편네들은 사례 안 다니고 남자 있는 데나 자리돔 사서 다니지, 여자들이 자리돔 사러 다닐 수 있습니까? 옛날에.)

107023 @ 무사 바빻?(왜 바빠서?)

107023 # 아이 개뭇디 자리 사례 가집니까? 경허난 창피스령 안 가민. 옛날은 따시 풀당 버치민 옷드르 사례 낱 가민 그젠 강 상 자리 켤장 낱 보깡 먹곡 자리젓 허고. 경헤낫수게.(아니 포구에 자리 사러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피해서 안 가면. 옛날은 다시 팔다가 부치면 중산간 사러 놔서 가면 그젠 가서 사서 자리 된장 놔서 볶아서 먹고 자리돔젓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23 @ 거난 물훼허는 건 어떻헤근에 험니까?(그러니까 물회하는 건 어떻게 해서 합니까?)

107023 # 물훼허는 건 자리 훑은 거, 사당 훑은 거 골려뒤근에 벤허민 안허고 싱싱헌 건 해당 자리 비늘을 문 거시려.(물회하는 건 자리돔 굵은 거, 사다가 굵은 거 가려내고 변하면 안하고 싱싱한 건 해당 자리돔 비늘을 모두 굵어내.)

107023 @ 응.(응.)

107023 # 양옆이 가시 문딱 다스려근에 즘질이 썰어낱 그젠 마농 행 놓고 켤장에 무시거 놔근에 초 놓곡 행 먹어낫주.(양옆에 가시 모두 굵어내서 잘게 썰어놔서 그젠 마늘 해서 놓고 된장에 뭐 놔서 식초 놓고 해서 먹었었지.)

107023 @ 물훼는 자리물훼 말고 다른 건 안 행 먹읍니까?(물회는 자리돔물회 말고 다른 건 안 해서 먹읍니까?)

107023 # 다른 물훼 아니고 이 식당허는 딴 여라 물훼 허주만은 이디사 경 무신 꿩기, 여청덜이 꿩기 나끄레, 사름마다 가는 거짱게? 아니주, 사당은 안허주게. (다른 물회는 아니고 이 식당하는 켤 여러 물회 하지만 여기야 그렇게 무슨 고기, 여편네들이 고기 낱으려, 사름마다 가는 겁니까? 아니지, 사다가는 안하지.)

107023 @ 옛날에 헤난 것만 곱아줍서.(옛날에 했던 것만 말해주세요.)

107023 # 옛날에 헤난 거 거. 옛날엔 자리 그거베끼 안헤여.(옛날에 했던 거 그 거. 옛날엔 자리 그거밖에 안 해.)

144) '신천리'는 지명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를 말한다.



107023 @ 이젠 막 한치물훼 영 허는디.(이젠 막 한치물훼 이렇게 하는데.)

107023 # 그것도 식당에서. 집이선 안 먹어.(그것도 식당에서. 집에선 안 먹어.)

107023 @ 옛날엔 안 먹어난예.(옛날엔 안 먹었었어요.)

107023 # 옛날엔 안 먹어봤수다. 옛날에 상 먹으민 자리나베끼 상 먹지. 애리, 애리 이만씩 현 거, 이제 그뜨민 뱀이 닳은 거 먹지 안허는 사름은 안 먹어. 이만씩 슬진 애리. 갱행 그걸로 구웁도 먹고 보깡도 먹고 국도 끌렁 먹고 해낫주. 옛날엔 자리도 베랑 엇엇어.(옛날엔 안 먹어봤습니다. 옛날에 사서 먹으면 자리돔이나밖에 사서 먹지. 매통이, 매통이 이만끔씩 한 거, 이제 같으면 뱀 같은 거 먹지 않는 사름은 안 먹어. 이만끔씩 살찐 매통이. 그렇게 해서 그걸로 구워도 먹고 볶아도 먹고 국도 끓여서 먹고 했었지. 옛날엔 자리돔도 별로 없었어.)

107023 @ 애리? 애린 어떤 거?(매통이? 매통인 어떤 거?)

107023 # 바당에 꿩기, 애리.(바다의 고기, 매통이.)

107023 @ 바당에 꿩기 이름이 애리.(바다에 고기 이름이 매통이.)

107023 # 옛날엔 그거 막 하낫어.(옛날엔 그거 아주 많았어.)

107023 @ 막 하난. 영 진 거꽈?(아주 많으니까. 이렇게 긴 겁니까?)

107023 # 이만씩 질주게. 이만씩 슬지고.(이만끔씩 길지. 이만끔씩 살찌고.)

107023 @ 이만씩 슬지고, 아.(이만끔씩 살찌고, 아.)

107023 # 막 슬 지퍼. 계난 그거나 행 상, 폴레 가민 상 먹고. 따신 남저덜 보제기<sup>145)</sup>질이나 허는 사름은 나까당도 먹고 해낫주. 옛날에 경 하간 거 산, 꿩기가 경 쉬워낫수과, 옛날에.(아주 살이 깊어. 그러니까 그거나 해서 사서, 팔러 가면 사서 먹고. 다신 남자들 어부질이나 하는 사름은 낚아다가도 먹고 했었지. 옛날에 그렇게 온갖 거 사서, 고기가 그렇게 쉬웠습니까, 옛날에.)

107023 @ 하하하.(하하하.)

107023 # 참, 꿩기꼐 행, 식게 때나 보곡 멍질 때나 꿩기꼐 봤주. 어디 꿩기 먹어나수과, 옛날에. 그거 아니.(참, 고기꼐 해서, 제사 때나 보고 멍질 때나 고기꼐 봤지. 어디 고기 먹었었습니까, 옛날에. 그거 아니.)

## 죽류

107024 @ 죽은 무신 죽, 무신 죽 행 먹어낫수과?(죽은 무슨 죽, 무슨 죽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24 # 행 먹어난 거 콩죽도 쭈영 먹고, 팥죽도 쭈영 먹고, 동지죽도 쭈영 먹고 그거주 무시거 험니까? 깨죽도 쭈영 먹고 거베끼.(해서 먹었던 거 콩죽도 쭈어서 먹고, 팥죽도 쭈어서 먹고, 동지죽도 쭈어서 먹고 그거지 뭐 합니까? 깨죽도 쭈어서 먹고 그거밖에.)

107025 @ 곤죽은 어떤 때 먹는 거꽈?(흰죽은 어떤 때 먹는 겁니까?)

107025 # 곤죽은 이제 무시거 허민 심심허민, 곤죽은 어디 옛날에 경 쉬와낫수

145) '보제기'는 고기를 낚는 일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과?(흰죽은 이제 왜 하면 심심하면 흰죽은 어디 옛날에 그렇게 쉬웠었습니까?)

107025 @ 쫄 엇이난예.(쌀 없으니까요.)

107025 # 엇이난게. 막 뱅이나 들엉 죽어가민 쫄 혼 줌 낭 죽 썬근에 입더레 거러냈주. 곤죽이 어디 싯과, 옛날에 산된 어디 심광. 아이고.(없으니까. 막 뱅이나 들어서 죽어가면 쌀 한 줌 놔서 죽 쑤어서 입에 떠냈지. 흰죽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발벼는 어디 있으며. 아이고.)

107025 @ 계난예.(그러니까요.)

107025 # 사름마다 산된 갈아нат수과? 부제칩이나 산된 갈주. 히린조도 옛날은 엇으면 부제칩이 가민 히린조팝 행 먹어도 가난헌 딴 사락사락헌 모원조팝베끼 못 먹어нат수다. 옛날에.(사람마다 발벼 갈았었습니까? 부жат집이나 발벼 갈지. 차조로 옛날은 없으면 부жат집에 가면 차조밥 해서 먹어도 가난한 데 ‘사락사락’한 메조밥밖에 못 먹었었습니다. 옛날에.)

107026 @ 조도 죽 썬 먹습니까?(조도 죽 쑤어서 먹습니까?)

107026 # 줍쫄. 줍쫄 낭 흰죽 쑤민. 옛날엔.(줍쌀. 줍쌀 놔서 흰죽 쑤면. 옛날엔.)

107026 @ 조만 낭은에도 허여?(조만 놔서도 해?)

107026 # 줍쫄이 곶아사주게, 물 그레에 곶아근에.(줍쌀을 갈아야지, 연자매에 갈아서.)

107026 @ 줍쫄 곶아근에.(줍쌀 갈아서.)

107026 # 조 곶아근에 줍쫄게. 그거 낭 죽 썬 먹어нат수게. 거 낭 죽 쑤민 흰죽. (조 갈아서 줍쌀. 그거 놔서 죽 쑤어서 먹었었습니다. 그거 놔서 죽 쑤면 흰죽.)

107026 @ 건 흰죽이라? 아까 곤죽은?(그건 흰죽이야? 아까 ‘곤죽’은?)

107026 # 곤죽은 곤쫄, 흰죽은 줍쫄 낭 쑤 건 흰죽.(‘곤죽’은 흰쌀, 흰죽은 줍쌀 놔서 쑤 건 흰죽.)

107026 @ 줍쫄 낭 쑤 건 흰죽? 조축이 아니라?(줍쌀 놔서 쑤 건 흰죽? 조축이 아니라?)

107026 # 조축 아니 흰죽.(조축 아니 흰죽.)

107026 @ 아.(아.)

107026 # 곤죽은 산된쫄로 허민 곤죽. 줍쫄로 논 건 흰죽.(‘곤죽’은 발벼쌀로 하면 ‘곤죽’. 줍쌀로 놓은 건 흰죽.)

107026 @ 줍쫄 논 건 흰죽.(줍쌀로 놓은 건 흰죽.)

107032 # 따시 녹물 낭 쑤민 국죽.(다시 나물 놔서 쑤면 갱죽.)

107032 @ 녹물 낭 쑤민 국죽예. 팯죽은?(나물 놔서 쑤면 갱죽요. 팔죽은?)

107032 # 팯죽은 팯에 보리쫄이나 줍쫄이나 낭 쑤민 팯죽.(팔죽은 팔에 보리쫄이나 줍쌀이나 놔서 쑤면 팔죽.)

107032 @ 응.(응.)

107032 # 그건 어디 죽 쑤어 가젠이나 허민 영장밧디나 썬 가젠 허민 보리쫄허

고 산뒤썰허고 행 쫓죽 썩가고. 갱 안헌 후제사 쫓죽은 무신 좁쌀에 낱 쫓죽은 혼  
엇이 좋진 안헛니다.(그건 어디 죽 썩 가려고나 하면 장지에나 썩 가려고 하면 보리  
쌀하고 발벼쌀하고 해서 팔죽 썩어가고. 그렇게 안하고 후에야 팔죽은 무슨 좁쌀에  
놔서 팔죽은 한없이 좋지는 않습니다.)

107028 @ 콩죽, 콩도 죽 썩 먹주예?(콩죽, 콩도 죽 썩어서 먹지요?)

107028 # 게 콩ㄴ루 낱. 죽 썩 먹읍니께.(그렇게 콩가루 놔서. 죽 썩어서 먹습니  
다.)

107028 @ 아, 콩ㄴ루 낱.(아, 콩가루 놔서.)

107028 # 콩ㄴ루 곶아당 옛날엔 콩죽 하영 썬 먹어놔수게.(콩가루 갈아다가 옛  
날엔 콩죽 많이 썩어서 먹었었습니다.)

107028 @ 맛종읍니까?(맛있읍니까?)

107028 # 맛종주게, 옛날에. 옛날에 좁쌀에 콩ㄴ루 낱 죽 썩민 옛날은 느랑 죽  
썬 먹어놔수게. 경해영 허민 해벤 사름덜 못사는 사름덜은 콩ㄴ루에 물망도 썩영  
먹어나고, 메역도 낱 썩 먹어, 콩ㄴ루에.(맛있지, 옛날에. 옛날에 좁쌀에 콩가루 놔  
서 죽 썩면 옛날은 늘 죽 썩어서 먹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변 사람들 못사는  
사람들은 콩가루에 모자반도 썩어서 먹었었고, 미역도 놔서 썩어서 먹어, 콩가루  
에.)

107028 @ 죽을? 콩ㄴ루에 좁쌀에 메역 놔근에.(죽을? 콩가루에 좁쌀에 미역 놔  
서.)

107028 # 메역도 낱 썩민 옛날엔 메역 놓고 콩ㄴ루 낱 콩죽 썩민 맛종아난. 콩  
죽에 마농도 썰영, 드룻마농도 썰어놔 죽 썩고. 옛날에 엇이민 그것 저것 다 헛 먹  
어수게게.(미역도 놔서 썩면 옛날엔 미역 놓고 콩가루 놔서 콩죽 썩면 맛있었어. 콩  
죽에 마늘도 썰어서, 달래도 썰어놔서 죽 썩고. 옛날에 없으면 그것 저것 다 해서  
먹었습니다.)

107028 @ 죽에도 그런 거 막 놓는구나예?(죽에도 그런 거 막 놓는군요.?)

107028 # 죽에, 콩죽에 드룻마농 썰어 놓민 옛날엔 쿠성 이젠 경 안 해도, 쿠성  
헛 맛종아놔수다.(죽에, 콩죽에 달래 썰어놓으면 옛날엔 고소해서 이젠 그렇게 안  
해도, 고소해서 맛있었습니다.)

107028 @ 모밀죽은?(메밀죽은?)

107028 # 모밀썰 낱 흰죽 썩 거 모밀죽. 모밀썰 곶앙 모밀썰만 낱 썩 건 모밀  
죽.(메밀쌀 놔서 흰죽 썩 거 메밀죽. 메밀을 갈아서 메밀쌀만 놔서 썩 건 메밀죽.)

107030 @ 모밀죽. 녹디죽은?(메밀죽. 녹두죽은?)

107030 # 녹디에 낱 좁쌀이나 곤쌀이나 놓민 녹디죽은 녹디 낱 썩 건 녹디죽.  
쫓 낱 썩 건 쫓죽. 콩 낱 썩 건 콩죽. 그거 아니뵘게?(녹두에 놔서 좁쌀이나 흰쌀이  
나 놓으면 녹두죽은 녹두 놔서 썩 건 녹두죽. 팔 놔서 썩 건 팔죽. 콩 놔서 썩 건  
콩죽. 그거 아닙니까?)

107030 @ 특별히 그거 먹는 날이 있는 건 아니지예?(특별히 그거 먹는 날이 있

107030 # 아니, 콩죽 ㄱ쁜 건 특별히 안 먹어. 아무 때라도 먹고.(아니, 콩죽 같은 건 특별히 안 먹어. 아무 때라도 먹고.)

107030 # 풋죽만 특별허주. 꿩죽도 쭈영 먹쟁 옛날엔 꿩허난 쭈영 먹쟁 허민 쭈영 먹고 경혜낫수게.(팔죽만 특별하지. 깨죽도 쭈어서 먹으려고 옛날엔 깨하니까 쭈어서 먹으려고 하면 쭈어서 먹고 그랬었지.)

107031 # 옛날엔양 덕 잡양 아이덜 ㄱ라, 재기 검질매라, 덕 잡양 덕 준텐 허민. 집이 덕 질루민 요맨씩헌 덕 행 잡양 수정 여라이민 혼 대여섯 수정헌 디 덕 두 마리 잡으민 곤쫄 엇이 밀쫄 놔근에, 옛날에 밀 낵 밀 곶아단 죽 췌 먹어놔수게. 곶아다가 물ㄱ레에 곶아다 낵 그거 쫄 벌렁 ㄱ레에 낵 벌렁 손ㄱ레에 낵 벌렁 그거 낵 죽 췌근에 죽 혼 사발허고 덕 혼 각 허멍 아이덜 줘놔수게.(옛날엔요 닭 잡아서 아이들보고, 빨리 김매라, 닭 잡아서 닭 준다고 하면. 집에 닭 기르면 요만큼씩 한 닭 해서 잡아서 숫자 여러 명이면 한 대여섯 숫자한 데 닭 두 마리 잡으면 흰쌀 없이 밀쌀 놔서, 옛날에 밀 놔서 밀 갈아다가 죽 췌어서 먹었었습니다. 갈아다가 연자매에 갈아다 놓고 그거 쌀 쪼개서 맷돌에 놔서 쪼개서 손맷돌에 놔서 쪼개서 그거 놔서 죽 췌어서 죽 한 사발하고 닭 한 다리 하면서 아이들 줬었습니다.)

107031 @ **현대** 낱어.(함께 봐서 낱어.)

107032 @ 아까 국죽은 허는 거 어떻허는 건지 알아줍서.(아까 갱죽은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말해주세요.)

107032 # 배치늑물. 배치늑물도 놓고 따시 엇이민 늑뻘늑물도 놓고.(배추나물. 배추나물도 놓고 또 없으면 무나물도 놓고.)

107032 # 건 아무 때라도 헛 먹어. 때마다 그 수정 여라이 밥헛 허민 쫓 하영

안 듬니까? 경허민 수정 하민 그거라도 행 혼 사발씩 먹으면 때 돼는 거.(그건 아무 때라도 해서 먹어. 끼니마다 그 숫자 여러 명 밥해서 하면 쌀 많이 안 듬니까? 그러면 숫자 많으면 그거라도 해서 한 사발씩 먹으면 끼니 되는 거.)

107032 @ 아. 그거 말고도 혹시 죽 썰 먹는 거 이수과?(아. 그거 말고도 혹시 죽 쪄서 먹는 거 있습니까?)

107032 # 콩허고 저 미시거 풋허고 미시거베끼 다 죽썰 먹는 것가 싯과? 좁쌀 낱 흰죽 썰 먹고, 모뎀쌀 낱 모뎀죽도 썰 먹고. 경헛주게.(콩하고 저 무엇 팔하고 무엇밖에 다 죽 쪄서 먹는 것이 있습니까? 좁쌀 놔서 흰죽 쪄서 먹고, 메밀쌀 놔서 메밀죽도 쪄서 먹고. 그랬지.)

###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이번엔 범벅이영 수제비.(이번엔 범벅이랑 수제비.)

107034 # 범벅은 모뎀궤루 허영 범벅 허는디 모뎀쌀 행 곶앙 현 건 범벅 진궤루 범벅.(범벅은 메밀가루 해서 범벅 하는데 메밀쌀 해서 갈아서 한 건 범벅 ‘진궤루’ 범벅.)

107034 @ 응.(응.)

107034 # 느쟁이 논 건 느쟁이범벅.(나깨 놓은 건 나깨범벅.)

107034 @ 건 어떻 만드는 거파?(그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7034 # 범벅? 건 감저나 무나 행 허민 케민 무 놓민, 문작 삶아낱 그레 모뎀궤루 낱 케와근에 궤루 비와 낱 케민 남죽으로 막 젓으면 범벅.(범벅? 그건 고구마나 무나 해서 하면 끓으면 무 놓으면, 폭 삶아놔서 그리 메밀가루 놔서 끓여서 가루 부어 놔서 끓으면 죽젓개로 막 저으면 범벅.)

107034 @ 응.(응.)

107034 # 따시 또 밀궤루로 범벅허젠 허민 모뎀궤루나 감저나 썰어낱 것도 헤 낱 삶아와근에 그레 밀궤루 낱 젓으면 범벅.(다시 또 밀가루로 범벅하려고 하면 메밀가루나 고구마 썰어놔서 그것도 해놔서 삶아놔서 그리 밀가루 놔서 저으면 범벅.)

107034 @ 응.(응.)

107034 # 옛날은 이 새 비레나 무신 놉 빌영 일허젠 허민 저 궤루헤근에 느쟁이. 모뎀들 옛날엔 모뎀 막 갈아낱수게. 가난 모뎀쌀 곶아난 느쟁이 와근에 늬뻬 놓곡 감저 놓곡 헤근에 범벅행 느랑 거 점심으로 아전 텅것어. 그게 막 맛있는 걸로 먹언.(옛날은 이 떠 베러나 무슨 놉 빌어서 일하려고 하면 저 가루해서 나깨. 메밀들 옛날엔 메밀 막 갈았었습니다. 가니까 메밀쌀 갈았던 나깨 놔서 무 놓고 고구마 놓고 해서 범벅해서 늘 그거 점심으로 가져 다녔어. 그게 아주 맛있는 걸로 먹었어.)

107034 @ 맛있는 걸로예. 게난 느쟁이 범벅이나 모뎀범벅베끼 엿수과? 다른 범벅은 엿어?(맛있는 걸로요. 그러니까 나깨 범벅이나 메밀범벅밖에 없습니까? 다른 범벅은 없어?)

107034 # 느쟁이범벅이나 모물ㄱ루 범벅베끼 엇주. 밀ㄱ루범벅.(나깨범벅이나 메밀가루 범벅밖에 없지. 밀가루범벅.)

107034 @ 밀ㄱ루범벅도 헨 먹어낫수과?(밀가루범벅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34 # 밀ㄱ루도 범벅허여. 밀ㄱ루도 합니다, 범벅. 모물ㄱ루 엇이민 밀ㄱ루도 낱 범벅허고.(밀가루도 범벅해. 밀가루도 합니다, 범벅. 메밀가루 없으면 밀가루도 와서 범벅하고.)

107034 @ 감저는?(고구마는?)

107034 # 감저영 혼디 밀ㄱ루 낱 범벅허고, 모물ㄱ루도 낱 혼디 범벅허고. 늬빠도, 늬뻔 범벅에 아무것에라도 들어갑니다.(고구마랑 함께 밀가루 와서 범벅하고, 메밀가루도 와서 함께 범벅하고. 무도, 무는 범벅에 아무것에라도 들어갑니다.)

107034 @ 아무것에라도.(아무것에라도.)

107034 # 예, 범벅엔 다 들어가.(예, 범벅엔 다 들어가.)

107034 @ 감저만 따로 헹 감저범벅은 안 허여?(고구마만 따로 해서 고구마범벅은 안 해?)

107034 # 감저만은 범벅 안 뵈주게. ㄱ를 봐야.(고구마만은 범벅 안 되지. 가루를 봐야.)

107034 @ ㄱ를 봐야 범벅이구나예.(가루를 봐야 범벅이군요.)

107034 # 감저만은 범벅 안 뵈니다. ㄱ를 봐야 범벅 뵈주.(고구마만은 범벅 안 뵈니다. 가루를 봐야 범벅 되지.)

107035 @ 수제비, 조배기?(수제비, 수제비?)

107035 # 수제빈 옛날 저배기.(수제비는 옛날 ‘저배기’.)

107035 @ 저배기, 저배긴 어떻 허는 거꽈?(수제비, 수제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35 # 저배긴 따시 또 모물ㄱ루 해근에 저배기허민, 물 꿰민 ㄱ루 봐근에 그릇에 낱 물 꿰민 거려낱 영영해근에 딱딱허게 말아봐근에 툭툭 수가락으로 거려낱 저배기허고.(수제비는 다시 또 메밀가루 해서 수제비하면, 물 끓으면 가루 와서 그릇에 와서 물 끓으면 떠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딱하게 말아와서 툭툭 손가락으로 떠와서 수제비하고.)

107035 @ 건 밀ㄱ루?(그건 밀가루?)

107035 # 밀ㄱ루도 허고 저 모물ㄱ루도 뵈고.(밀가루도 하고 저 메밀가로도 되고.)

107035 @ 모물ㄱ루도 허고. 거긴 메역이나 늬물 안 놓니까?(메밀가루도 하고. 거긴 미역이나 나물 안 놓습니까?)

107035 # 늬빠나 시민 놓고 경 안 허민 그냥도 허고. 허는 사름도 싣고. 그거 싣는 냥 허는 거 그건.(무나 있으면 놓고 그렇게 안 하면 그냥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있는 대로 하는 거 그건.)

107035 @ 아, 싣는 냥 허는 거.(아, 있는 대로 하는 거.)

107035 # 시민 농곡 엇이민 말곡 허는 거. 똑 백여논 건 아니우다.(있으면 농고 없으면 말고 하는 거. 꼭 박아놓은 건 아닙니다.)

107035 @ 그런 저베긴 언제 행 먹는 거봐?(그런 수제빈 언제 해서 먹는 겁니까?)

107035 # 아무 때라도 그자 시민 행 먹는 거주.(아무 때라도 그저 있으면 해서 먹는 거지.)

107035 @ 혹시 그 애기 날 때도.(혹시 그 애기 낳을 때도.)

107035 # 애기 날 땐 피 삭으렌 애기 날 땐 모뎀루 허는 거 아니봐?(아기 낳을 땐 피 삭으라고 아기 낳을 땐 메밀가루 하는 거 아닙니까?)

107035 @ 그때 모뎀저베기 행 준덴.(그때 메밀수제비 해서 준다고.)

107035 # 모뎀루 카근에.(메밀가루 타서.)

107035 @ 모뎀루 카근에 어떻?(메밀가루 타서 어떻게?)

107035 # 모뎀루, 그 애기 난 때 모뎀루에 물 꿩왕 탁탁 거러 놓민 드불드 불 허민 그냥 그레 물, 더운 물 거러놓민 탁탁하게 좇으민 ㄱ루 카지지 안헉니까? 경혜영 ㄱ루 카집니다.(메밀가루, 그 아기 낳을 때 메밀가루에 물 끓여서 탁탁 떠 놓으면 ‘드불드불’하면 그냥 그리 물, 뜨거운 물 떠놓으면 ‘탁탁’하게 쪼면 가루 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루 타집니다.)

107035 @ 물에 모뎀루 낳.(물에 메밀가루 놔서.)

107035 # 물 흐쉴 놓민 ㄱ루 빙빙 젓영 풀테기 ㄱ루 젓어놓민 두불두불허민 그레 따시 물, 켜 물 그레 거러놓민 탁탁하게 수가락으로 좇으민 거 ㄱ루 카는 거 아니봐?(물 조금 놓으면 가루 빙빙 저어서 풀 가루 저어 놓으면 ‘두불두불’하면 그리 다시 물, 끓은 물 그리 떠 놓으면 탁탁하게 숟가락으로 쪼면 그거 가루 타는 거 아닙니까?)

107035 @ 물 꿩왕근에 그레 비우는 게 아니고?(물 끓여서 그리 비우는 게 아니고?)

107035 # 물 꿩왕게.(물 끓여서.)

107035 @ 다시 물 꿩왕.(다시 물 끓여서.)

107035 # 물 꿩왕게 낭퐁이에 ㄱ루 농곡 물 꿩왕 삭삭 꿩민 국자로라도 거러낭 수가락으로 영영 젓으민 ㄱ루 영 몰아질 거 아니봐? 몰아지민 그레 더운물 거러낭, 더운물 비와 낭 수가락 독독하게 그것더레 좇아놓민 ㄱ루 카저.(물 끓여서 양퐁에 가루 놓고 물 끓여서 팔팔 끓으면 국자로라도 떠놔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 가루 이렇게 반죽될 거 아닙니까? 반죽되면 그리 더운 물 떠놔서, 더운 물 부어 놔서 숟가락 독독하게 그것에 쪼아 놓으면 가루 타저.)

107035 @ 영 줍앙 이레 놓는 게 아니고?(이렇게 집어서 이리 놓는 게 아니고?)

107035 # 줍앙은 그자 행 먹을 땐 줍아 놔도 그 겔혼행 아기어멍.(집어서 그저 해서 먹을 땐 집어 놓아도 그 겔혼해서 아기 어머니.)

107035 @ 애기 날 때는.(아기 날 때는.)

107035 # 애기 낳 땐 경 안행 ㄱ루 카는 걸로 경 캉 줘.(아기 낳을 땐 그렇게 안하고 가루 타는 걸로 그렇게 타서 줘.)

107035 @ 난 저베기 영 톳아 놓는 건 줄 알았지.(난 수제비 이렇게 뜯어 놓는 건 줄 알았지.)

107035 # 그건 그자 행 먹을 때. 애기 어명은 경 안허여.(그건 그저 해서 먹을 때. 아기 어머니는 그렇게 안해.)

107035 @ 애기 어명은 경, 부드럽게 먹으렌 허는 건가마씨?(아기 어머니는 그렇게, 부드럽게 먹으라고 하는 건가요?)

107035 # 부드럽게 먹으렌게. 경허민 드박드박합니다게. 트랑트랑헤여.(부드럽게 먹으라고. 그러면 ‘드박드박’합니다. ‘트랑트랑’해.)

107035 @ 아.(아.)

107035 # 이젠 병원에서 애기 나부난 애기 어명도 모믈ㄱ루 카웁수과?(이젠 병원에서 아기 낳아버리니까 아기 어머니도 메밀가루 타주고 있습니까?)

107035 @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35 # 옛날엔 그거 피 삭을렌 경행 그거 방스로 모믈ㄱ루 카웁주.(옛날엔 그거 피 삭으라고 그렇게 그거 방사로 메밀가루 타줬지.)

107035 @ 건 흔 번만 먹는 거파? 아니민.(그건 한 번만 먹는 겁니까? 아니면.)

107035 # 아니 먹는 사름은. ㄱ루 서근에 흔 댓 때도 먹는 사름도 잇고 우린 옛은 사름이난 흔 번 애기 ㅎ나 나민 관웨 ㅎ나베피 안 먹어놋수다.(안 먹는 사름은. 가루 있어서 한 댓 끼니도 먹는 사람도 있고 우린 없는 사람이니까 한 번 아기 하나 낳으면 되 하나밖에 안 먹었었습니다.)

107035 @ 관 ㅎ나?(관 하나?)

107035 # 관웨로 ㅎ나.(되로 하나.)

107035 @ 관웨로 ㅎ나?(되로 하나?)

107035 # 응.(응.)

107035 @ 무신거 모믈쫄을?(뭘 메밀쫄을?)

107035 # 모믈ㄱ루 곶앙 흔 관웨 갈앙 거베피 안 먹영, 서너너 때 베피 안 먹어놋어. 옛이난.(메밀가루 갈아서 한 되 갈아서 그거밖에 안 먹어서, 서너너 끼니밖에 안 먹었었어. 없으니까.)

107035 @ 아.(아.)

107035 # 우린 시어명도 옛영 애기 낳곡 행, 시어명도 옛이 살곡 시아방도 옛이 살곡 허난 경 호강으로 살지 안헛수다. 고생허명 살앗주.(우린 시어머니도 없어서 아기 낳고 해서, 시어머니도 없이 살고 시아버지도 없이 살고 하니까 그렇게 호강으로 살지 않았습시다. 고생하면서 살았지.)

107035 @ 예.(예.)

107035 # 게난 념편도 아방 어명 몰랑 크고 나도 흔 두어 술에 아방 가부난, 아방 얼굴 몰르고 허난 념편도 어명 아방도 옛이 할망 손에 켜 살곡. 사춘 시아주방



신디 나가 결혼헨 산 사름이주. 나 호강시리 산 사름 아니우다.(그러니까 남편도 아버지 어머니 몰라서 크고 나도 한 두어 살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 모르고 하니까 남편도 어머니 아버지도 없이 할머니 손에 커서 살고. 사촌 시아주버니에게 내가 결혼해서 산 사람이지. 나 호강스럽게 산 사람 아닙니다.)

107035 @ 하하하.(하하하.)

107035 # 나 살아난, 기가 맥히게 산 사름이우다.(나 살았던, 기가 막히게 산 사람입니다.)

107035 @ 예.(예.)

107035 # 게난 두린 때 경 고생허멍 살아도 무시거 어떻 허민 옛날 역술 다 다 끄렌. 이녁이 못 살아노난 옛날 역살 알아지주, 잘사는 사름은 몰릅니다. 호강시리 산 사름덜은.(그러니까 어린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도 뭐 어떻게 하면 옛날 역사를 다 말하라고. 자기가 못 살아서 옛날 역사를 알지, 잘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호강스럽게 산 사람들은.)

107036 @ 칼국수도 행 먹어낫수과?(칼국수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36 # 칼국순게, 모밀도 허곡 밀꺾루도 허고 험니다. 칼국순게, 모밀꺾루 딱딱허게 몰양 돤베에 밀영 딱딱 썰어근에.(칼국수는, 메밀도 하고 밀가루도 하고 합니다. 칼국수는, 메밀가루 딱딱 하게 반죽해서 도마에 밀어서 딱딱 썰어서.)

107036 @ 응.(응.)

107036 # 큰일<sup>146)</sup> 때에 옛날엔 일포 때에도 칼국수 허고게. 칼국수 이녁냥으로도 행 먹곡 헤낫수게게.(큰일 때에 옛날엔 일포 때도 칼국수 하고. 칼국수 자기대로도 해 먹고 했었습니다.)

107036 @ 아, 일포헐 때 칼국수 행 먹어낫수과?(아, 일포할 때 칼국수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36 # 옛날은 일포헐 때 느랑 칼국수 헤낫수다. 모밀꺾루 행 곶아근에.(옛날은 일포할 때 늘 칼국수 했었습니다. 메밀가루 해서 갈아서.)

107036 @ 모밀쫄로마씨?(메밀쌀로요?)

107036 # 모밀쫄로. 잘 허는 집이덜이 허고 경 안 현 집인 죽도 허고, 우동도 허고. 옛날은 떡국허고 못허는 딴 칼국수허고 헤낫수게. 칼국수행 허민 경 드불드불허게 허영 가근에 혼 사발씩 쥘. 패마농 썰어놓고.(메밀쌀로. 잘 하는 집에서 하고 그렇게 안 한 집은 죽도 하고, 우동도 하고. 옛날은 떡국하고 못 하는 덴 칼국수하고 했었지. 칼국수해서 하면 그렇게 ‘드불드불’하게 해서 가서 한 사발씩 줘서. 쪽파 썰어놓고.)

107036 @ 무신거 썰어놓곡?(뭐 썰어놓고?)

107036 # 패마농 썰어놓곡 헤영.(쪽파 썰어놓고 해서.)

107036 @ 아, 패마농.(아, 쪽파.)

107036 # 양념으로 놔근에.(양념으로 놔서.)

146) ‘큰일’은 집안의 결혼, 장례 등이 일을 말한다.

107036 @ 양념으로.(양념으로.)

107036 # 밀가루도 해영 좋고. 이제도 행 먹구정 허민 거 행 먹었수게.(밀가루도 해서 좋고. 이제도 해서 먹고 싶으면 그거 해서 먹고 있습니다.)

107036 @ 옛날부터 칼국수행 먹어났구나예?(옛날부터 칼국수해서 먹었었군요.)

107036 # 옛날부터도 헐 먹어났수다.(옛날부터도 해서 먹었었습니다.)

107036 @ 난 저베기만 행 먹어나시카부텐.(난 수제비만 해서 먹었었을까봐.)

107036 # 저베기도 행 먹고 저 칼국수도 행 먹고 옛날부터 건.(수제비도 해서 먹고 저 칼국수도 해서 먹고 옛날부터 그건.)

107036 @ 특별히 행 먹어야 되는 때가 있는 건 아니지예?(특별히 해서 먹어야 되는 때가 있는 건 아니지요?)

107036 # 아니고, 옛날 그자 이녀 먹구정 허민 행 먹고. 옛날도 신 사름은 이녀 먹구정 허민 느랑 헐 먹었수다. 느쟁이도 행 경 칼국수 행 먹는 사름도 있고.(아니고, 옛날 그저 자기 먹고 싶으면 해서 먹고. 옛날도 있는 사람은 자기 먹고 싶으면 늘 해서 먹었습니다. 나깨도 해서 그렇게 칼국수 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107036 @ 느쟁이로도?(나깨로도?)

107036 # 모를 갈아난 ㄱ루도 해근에 그 쓸 빼난 ㄱ루도 행 곶앙 것도 행 몰앙 늑뻘 놓곡 행 칼국수행. 옛날도 그건 행 먹어났수다.(메밀 갈았던 가루도 해서 그 쌀 가니까 가루로도 해서 갈아서 그것도 해서 반죽해서 무 놓고 해서 칼국수해서. 옛날도 그건 해서 먹었었습니다.)

107036 @ 게난 아까 일포 때도 모를 국수행 주고예?(그러니까 아까 일포 때도 메밀국수해서 주고요?)

107036 # 예, 옛날에 해났수게.(예. 옛날에 했었습니다.)

## 김치

107037 @ 김치 종류?(김치 종류?)

107037 # 김치 인척이 다 들언게.(김치는 아까 다 묻던데.)

107037 @ 흔 번 더 곱아줍서.(한 번 더 갈아주세요.)

107037 # 짐친게 배치늑물도 짐치허고.(김친 배추나물도 김치하고.)

107037 @ 또.(또.)

107037 # 늑뻘도 행 동지미짐치도 허고 깍데기짐치도 허고 나베기, 납작납작하게 썰영 나베기짐치도 허고, 경허명 짐치해났수게.(무도 해서 동치미김치도 하고 깍두기김치도 하고 나박,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나박김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김치 했었습니다.)

107038 @ 배치짐치부터.(배추김치부터.)

107038 # 배치짐친게 배추 옛날은 고치해근에 허민 이제 기계방 싯주만은 옛날에 기계방 서수광? 파삭 물른 건 벵이혹에 낱 벵이 지명 뽕앙 채로 쳐 놓멍 허고 따시 두루 물른 건 그냥 따시 솟뚜쟁이, 솟디 낱 바생이 보까근에 허민 거물거물

강 허민 그건 잘도 쿠싱허게 맛쥬디다.(배추김치는 배추 옛날은 고추해서 하면 이제 공장 있지만 옛날에 공장 있었습니까? 바짝 마른 건 방아확에 놔서 방아 찧어서 빵아서 채로 쳐 놓으면서 하고 다시 덜 마른 건 그냥 다시 솔뚜껑, 술에 놔서 박삭 볶아서 하면 거뭇거뭇 타서 하면 그건 아주 고소하게 맛있습니다.)

107038 @ 무신거마씨?(뭐요?)

107038 # 고치 두루 들른 건 보깡.(고추 덜 마른 건 볶아서.)

107038 @ 고치.(고추.)

107038 # 솟디 낱 보깡 경행 뽕앙 허고 경해낫수게, 옛날에. 경행 마놓이나 놓고 행 짐치 헛주. 무신 옛날에 벨 거 낱 짐치헛수과? 옛날 살아가는 거.(술에 놔서 볶아서 그렇게 해서 빵아서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마놓이나 놓고 해서 김치 했지. 무슨 옛날에 벨 거 놔서 김치했습니까? 옛날 살아가는 거.)

107038 @ 배치도 엇어낫수게. 이제추록 현.(배추도 없었습니다. 이제처럼 현.)

107038 # 옛날 배치도 엇곡 늑뻘도 엇영 저 성읍리<sup>147)</sup> 늑뻘 사례 땡겨낫수다. 이젠 집마다 씻는 늑뻘. 강 멍탱이 가정 강은에 돈 얼마이 쥬 사당 먹곡 해낫주, 경 늑뻘. 갈민 뉘는 늑뻘 옛날은 다 멍청헌 ㄱ라 것도 못 갈앙 먹어낫수다.(옛날 배추도 없고 무도 없어서 저 성읍리 무 사러 다녔었습니다. 이젠 집마다 있는 무. 가서 먹서리 가져 가서 돈 얼마 줘서 사다 먹고 했었지, 그렇게 무는. 갈면 되는 무 옛날은 다 멍청한지 그것도 못 갈아서 먹었었습니다.)

107038 @ 하하하.(하하하.)

107038 # 뻘작뻘작 배치 갈앙 땅에 뻘민 옛날에 비료 서낫수과? 엇영 맨 밧디 땅에 뻘민 강 수정 여라이 행 사난 혼 구덕 행 강 못에 강 그거 씻어당 국 끌렁 먹고 해낫주.(‘뻘작뻘작’ 배추 갈아서 땅에 뿌리면 옛날에 비료 있었습니까? 없어서 맨 밧에 땅에 뿌리면 가서 숫자 여러 명 해서 사니까 한 바구니 해서 가서 못에 가서 그거 씻어다가 국 끓여서 먹고 했었지.)

107038 @ 배치는 이제 배추 아니고 옛날 배추는.(배추는 이제 배추 아니고 옛날 배추는.)

107038 # 옛날도 이젠 곧 배추지만은 옛날은 더덕더덕헌 배치 행 갈앙 허민게. 씨 이녁냥으로 받으멍 헛수게.(옛날도 이젠 고운 배추지만 옛날은 ‘더덕더덕’한 배추 해서 갈아서 하면. 씨 자기대로 받으면서 했습니다.)

107038 @ 예.(예.)

107038 # 혼 번 갈앙 낫당 받으민 혼 멧 년씩 허곡 계속.(한 번 갈아서 왔다가 받으면 한 몇 년씩 하고 계속.)

107038 @ 소금해근에 김치해실 거 아니파예?(소금해서 김치했을 거 아닙니까요?)

107038 # 소금 낱 허는 디도 싹곡. ㅎ쫄 행 먹엄주, 경 저슬 내냥 김치 먹는 디 어디 이서수과게?(소금 놔서 하는 데도 있고. 조금 해서 먹고 있지, 그렇게 겨우내

147) ‘성읍리’는 지명으로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말한다.

김치 먹는 데 어디 있었습니까?)

107038 @ 아.(아.)

107038 # 그자 엇주게. 계난 국에 밥에나 먹고 찹 된장이나 메와 먹고 장에나 찍어 먹곡 헛주. 어디 상에 옛날에 우리 두린 때, 우리 서너 살에 김치 경 먹엇수과? 아니 헛수다. 이제사름덜 짐치여, 오만 짐치 다 험주.(그저 없지. 그러니까 국에 밥에나 먹고 찹 된장이나 양념해서 먹고 간장에나 찍어 먹고 헛지. 어디 상에 옛날에 우리 어린 때, 우리 서너 살에 김치 그렇게 먹엇습니까?)

107038 @ 거난 배치를 절여살 거 아니꽈?(그러니까 배추 절여야할 거 아닙니까?)

107038 # 소금에 절영게.(소금에 절여서.)

107038 @ 소금에 절여? 바닷물에도 강 절인텐 헨 게마는.(소금에 절여? 바닷물에도 가서 절인다고 하던테마는.)

107038 # 바닷물에 해영. 옛날에 췌 신 사름은 그거 따시 또 흥쉴 후제. 우리 두린 후제, 역은 후제 췌에 시경 오랑 바당에 강 그거주. 우리 두린 땀 경 시경 텅 기명 짐치행 먹진 안 해낫수다. 우리 흥 대으섯 살에. 경 안 해낫수다.(바닷물에 해서. 옛날에 소 있는 사람은 그거 다시 또 조금 후에. 우리 어린 후에, 큰 후에 소 실어 와서 바다에 가서 그거지. 우리 어린 땀 그렇게 실어서 다니면서 김치해서 먹진 았았었습니다. 우리 한 대여섯 살에.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107039 @ 게민 열무김치는 옛날에 안 해나수과?(그러면 열무김치는 옛날에 안 했었습니다?)

107039 # 엇어낫수다, 옛날 짐치게.(없었습니다, 옛날 김치.)

107040 @ 물김치도 옛날에 행 먹어낫수다.(물김치도 옛날에 해서 먹엇었습니다.)

107040 # 엇어나수게.(없었습니다.)

107040 @ 이것도 엇고예.(이것도 없고요.)

107040 # 옛날에 경 김치 하나지 안헛수다. 늬뻘 엇은, 늬물 엇영 베작베작헌 늬물 먹는디 어디 성 김치허곡 하간 거 행 먹엇수과게?(옛날에 그렇게 김치 많지 았았었습니다. 무 없는, 나물 없어서 ‘베작베작’한 나물 먹는데 어디 있어서 김치하고 온갖 거 해서 먹엇습니까?)

107041 @ 동지짐친?(장다리김치는?)

107041 # 늬뻘 문착문착 썬 거, 동지짐치, 더베기짐치.(무 몽턱몽턱 썬 거, 장다리김치, ‘더베기’김치.)

107041 @ 아니, 거 말고. 동지 산 거. 배치 동 산 거.(아니, 그거 말고. 장다리 선 거. 배추 장다리 선 거.)

107041 # 동 산 건. 그 노물동, 배치동 그거헤여근에 이젠 김치행 먹엄주. 옛날엔 거 배치동도 안행 먹어낫수다.(장다리 선 건. 그 나물 장다리, 배추 장다리 그거 해서 이젠 김치해서 먹고 있지. 옛날엔 그거 배추 장다리 안 해서 먹엇었습니다.)

107041 @ 아, 동지김치도 안 행 먹어난마썸.(아, 장다리김치도 안 해서 먹었었어요.)

107041 # 아무것도, 김치도 경 혼전허게 안 헐 먹어났수다, 옛날에.(아무것도, 김치도 그렇게 혼하게 안 해서 먹었었습니다, 옛날에.)

107041 @ 그거 동 산 거 김치헌 거 뭐엔 험니까?(그거 장다리 선 거 김치한 거 뭐라고 합니까?)

107041 # 동김치게.(장다리김치.)

107041 @ 동김치.(장다리김치.)

107041 # 이젇 사름은 동김치, 그 동 산 거 행 김치헌 거 동김치.(이제 사름은 장다리김치, 그 장다리 선 거 해서 김치 한 건 장다리김치.)

107041 @ 동김치. 예.(장다리김치. 예.)

107041 # 거 이제 난 말이주, 옛날엔 엇어났수다.(그거 이제 나온 말이지, 옛날엔 없었습니다.)

107041 @ 옛날엔 엇어났구나예.(옛날엔 없었군요.)

107041 # 엇어났수다, 거. 이제 사름덜 다 신식말덜 다. 우리 시절엔, 우리 두린 땐 동김치랑마랑.(없었습니다, 그거. 이제 사람들 다 신식말들 다. 우리 시절엔, 우리 어린 땐 장다리김치는커녕.)

107041 @ 예.(예.)

107041 # 이 나물 엇이민 우리 시집간 후제도 우리 큰시어멍 돌아가난 여름이 난에 칠월엔디 엇으난 저 무시거 마농헤근에 시방 것ᄃ라 다마네기<sup>148</sup>.(이 나물 없으면 우리 시집간 후에도 우리 큰시어머니 돌아가니까 여름이니까 칠월엔데 없으니까 저 무엇 마늘 해서 시방 그것보고 양파.)

107041 @ 응.(응.)

107041 # 다마네기 그때 우리 시아주방네 다마네기혜영 갈양 허민 김치 나물 엇이난에 그거 썰어와근에 김치 해근에 상에 와났주. 경 나물 옛날에 경 어디 나물이 셔? 이제난 동천 물론 나물덜. 이 동천 물론 나물 댜 건디 오래지 안헐수다.(양파 그때 우리 시아주버니네 양파해서 갈아서 하면 김치 나물 없으니까 그거 썰어와서 김치 해서 상에 뵈었지. 그렇게 나물 옛날에 그렇게 어디 나물이 있어? 이제니까 동천 모른 나물들. 이 동천 모른 나물 된 지 오래지 았았습니다.)

107041 @ 무신거 헌 나물? 동천 물론 나물?(무엇 한 나물? 동천 모른 나물?)

107041 # 동천, 여름에나 저슬에나 나물, 배추 싹진 디가 땃 년 안뵈서마썸.(동천, 여름에나 겨울에나 나물, 배추 있는 지가 땃 년 안 뵈었어요.)

107041 @ 동천이 뵈파?(동천이 뵈니까?)

107041 # 동천이엔 헌 건 저슬이고 여름이고 물론 게 동천이라.(동천이라고 한 건 겨울이고 여름이고 모른 게 동천이야.)

107041 @ 아, 아무 때나 난텐 헌 말이파?(아, 아무 때나 난다고 하는 말입니

148) '다마네기'는 일본어 'たまねぎ'로 양파를 말한다.

까?)

107041 # 응, 경 안 난텐 말이주게. 게난 경 김치가 배치 엇어나수게게.(응, 그렇게 안 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김치가 배추 없었었습니다.)

107041 @ 응.(응.)

107041 # 이제난 경 여름이나 저을이나 김치 잇주, 옛날에 경 엇어낫주게. 경 허곤 디 멧 년 안땃주게.(이제니까 그렇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김치 있지, 옛날에 그렇게 엇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 몇 년 안 땃지.)

107041 @ 예.(예.)

107041 # 경허고 이제 녹물허민 저 함덕<sup>149)</sup>베끼 녹물 안 갈아낫어. 함덕 녹물 갈민 저 어디 장애나 어디 오민 함덕 녹물 사당, 멧 포기 사당 김치해낫주. 이제난 그자 여름에도 김치 잇곡, 봄에도 잇곡, 저을에도 잇곡 허주. 옛날엔 경 엇어난. 옛날엔 경 김치 엇어낫주. 우리 두린 땐 엇어낫어.(그리고 이제 나물하면 저 함덕밖에 나물 안 갈았었어. 함덕 나물 갈면 저 어디 장애나 어디 오면 함덕 나물 사다가, 멧 포기 사다가 김치했었지. 이제니까 그저 여름에도 김치 있고, 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하지. 옛날엔 그렇게 없었어. 옛날엔 그렇게 김치 없었었지. 우리 어린 땐 없었었어.)

107042 @ 늠뻘김치.(무김치.)

107042 # 늠뻘김치도 시방게 동치미김치여.(무김치도 시방 동치미김치다.)

107042 @ 동치미김치영 또. 무신 김치엔 골아라만은.(동치미김치랑 또. 무슨 김치라고 말하더라만.)

107042 # 다 써신디.(다 썼는데.)

107042 @ 경해도 다시 혼 번 골아줍서. 나베기김치.(그래도 다시 한 번 말해주세요. 나박김치.)

107042 # 동치미김친 늠뻘 스랑스랑 훌게 썬 건 동치미김치. 납작납작헌 건 각제기김치.(동치미김친 무 가름가름 굵게 썬 건 동치미김치. 납작납작한 건 ‘각제기’ 김치.)

107042 @ 각제기? 나베기 아니?(‘각제기’? 나박 아니?)

107042 # 나베기김치. 흥쉴 몽쿨몽쿨허게 헌 건 각제기김치. 몽쿨몽쿨허게 썰어냥.(나박김치. 조금 몽쿨몽쿨하게 한 건 ‘각제기’김치. 몽쿨몽쿨하게 썰어놔서.)

107042 @ 건 각제기김치? 아, 깍두기.(그건 ‘각제기’김치? 아, 깍두기.)

107042 # 깍두기 김치. 게난 옛날은 각제기 허난 각제기주. 이제 깍두기주.(깍두기 김치. 그러니까 옛날은 ‘각제기’ 하니까 ‘각제기’지. 이제 깍두기지.)

107042 @ 아, 이제 깍두기고 옛날은 각제기 김치?(아, 이제 깍두기고 옛날은 ‘각제기’김치?)

107042 # 응.(응.)

107042 @ 드룻녹물도 김치행 먹어낫수과?(들나물도 김치해서 먹었었습니까?)

149) ‘함덕’은 지명으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를 말한다.

107042 # 풀늑물.(풋나물.)

107042 @ 아, 건 어떻게?(아, 그건 어떻게?)

107042 # 풀늑물도게 소금물에 강 씻어 컷다근에 그거 허영 춘물에, 소금물에 동갓당 김치했주. 고친 어디 경 옛날에 동천 물론 거 서났어?(풋나물도 소금물에 가서 씻어서 담갔다가 그거 해서 찐물에, 소금물에 잠갔다가 김치했지. 고추는 어디 그렇게 옛날에 동천 물론 거 있었어?)

107042 @ 하하하.(하하하.)

107042 # 게난 그거 허여근에 크민, 소금물에 등강 크민, 익으민 짓별경허주게. 찐찐허게시리 해근에 소금 하영 놓민 딱 질어당 황에 질어 놔둬서 그거 허영 여름에 먹곡. 따시 드룻마농 캐다근에 따시 그거 해근에 드룻마농 해근에 썰어놔 지 담양 먹는 사람도 있고, 따시 영영 몽크령 김치 혼 황 행 놔둬서 쫄물에 켕 낫당 여름에 먹고.(그러니까 그거 해서 담그면, 소금물에 담가서 잠그면, 익으면 시뻔겉지. 짜게 해서 소금 많이 놓으면 딱 길어다가 항에 길어 놔두어서 그거 해서 여름에 먹고. 다시 달래 캐다가 다시 그거 해서 달래 해서 썰어놔서 장아찌 담아서 먹는 사람도 있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몽크려서 김치 한 항아리 해서 놔두면서 찐물에 잠가 놔다가 여름에 먹고.)

107044 @ 드룻마농?(달래?)

107044 # 드룻마농 옛날엔 막 드룻마농 좋아났수게. 밧디 약 안허고 허고 이젠 약해부난 아무것도 엇엄수게. 드룻마농이 잘도 좋아났수게.(달래 옛날엔 막 달래 좋았었지. 밧에 약 안 하고 하고 이젠 약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지. 달래 아주 좋았었습니다.)

107044 @ 아까 두루에기도 꺾치해마씨?(아까 하눌타리도 같이 해요?)

107044 # 아니 드룻마농.(아니, 달래.)

107045 @ 아, 드룻마농.(아, 달래.)

107045 # 드룻마농. 드르에 가난 드룻마농.(달래, 들에 가니까 달래.)

107045 @ 갓집친 아까 여기 엇어났어예?(갓김치는 아까 여기 없었어요?)

107045 # 옛날에 갓김치 엇엇수다게.(옛날에 갓김치 없었습니다.)

107046 @ 게민 저 쉼우리집친?(그러면 저 부추김치?)

107046 # 쉼우리도 옛날에 쉼우리김치 안 해났수다. 이제난 쉼우리김치험주, 옛날에 엇어났어. 옛날에 경 김치 엇어나수게.(부추도 옛날에 부추김치 안 했었습니다. 이제니까 부추김치하고 있지, 옛날에 없었었어. 옛날에 그렇게 김치 없었습니다.)

107046 @ 김치 엇어났어예.(김치 없었어.)

107047 # 침 풀늑물 김치나 행 아이덜 한디 풀늑물 김치나 행 먹고, 따시 또 대산이지나 행 장물에 켕 먹곡 했주. 어디 경 서났수과? 엇어났수다.(참 풋나물 김치나 해서 아이들 많은 데 풋나물 김치나 해서 먹고, 다시 또 마늘장아찌나 해서 간장에 잠가서 먹고 했지. 어디 그렇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07047 @ 이런 김치를 담그젠 허민 배치는 소금에 절였당 씻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이런 김치를 담그려고 하면 배추는 소금에 절였다가 씻어서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107047 # 옛날엔 경헌 김칠 안 허난 허고 시에 사름덜은게 오만 양념 다 넣 줘게.(옛날엔 그런 김치를 안 하니까 하고 시에 사람들은 오만 양념 다 봐서 하고 있지.)

107047 @ 오만 양념 다 넣 줘. 옛날엔 어떻 해놔수과게?(오만 양념 다 봐서 하고 있지. 옛날엔 어떻게 했었습니까?)

107047 # 옛날 우리 두린 땀 경헌 김치가 었어났덴, 배추가 었어났수덴 안 곱암 수과?(옛날 우리 어린 때 그런 김치가 없었었다고, 배추가 없었었다고 안 말하고 있습니까?)

107047 @ 경해도 흐끔 큰 다음엔마씨?(그래도 조금 큰 다음엔요?)

107047 # 흐썰 켜 우리 결혼이나 현 후젠 그 배추 해근에 저 웃드른 그냥 소금 물에 행 둥그고 해변은 가까이 컷당, 소금물 둥가놔근에 그디 해영 마농, 대산이마 농 빼져놓고 따시 또 고춧가루 행 방애에 췌앙 허곡 그것에 허영 췌나 농곡 행 김 치해도 맛 좋게 먹어났주.(조금 커서 우리 결혼이나 한 후엔 그 배추 해서 저 중산간 은 그냥 소금물에 해서 담그고 해변은 가까이 잠갔다가, 소금물 담가놔서 거기 해서 마늘, 마늘 빵아 놓고 다시 또 고춧가루 해서 방애에 빵아서 하고 그것에 해서 깨나 놓고 해서 김치해도 맛있게 먹었었지.)

107047 @ 응.(응.)

107047 # 이젠 오만 다시다여 오만 거 봐도 옛날에 켜 다시다 서났어? 미원이나 흐썰 놓고.(이젠 오만 다시다다 오만 거 봐도 옛날에 그렇게 다시다 있었어? 미원이나 조금 놓고.)

107047 @ 예.(예.)

107047 # 옛날은 미원 뉘 해놔주. 미원이 전세주 옛날에.(옛날은 미원 봐서 했었 지. 미원이 주지, 옛날에.)

107047 @ 늬빼는, 늬빼김치는?(무는, 무김치는?)

107047 # 늬빼김치는 그냥.(무김치는 그냥.)

107047 @ 것도 소금에.(그것도 소금에.)

107047 # 소금 해영 컷당 그자 건져놔은에 고치고루나 넣 마농이나 넣 무청 담 압주. 다른 양념 안 놔수게, 옛날에. 미원이나 흐썰 놓고.(소금 해서 담갔다가 그저 건져놔서 고춧가루나 봐서 마늘이나 봐서 무쳐서 담그지. 다른 양념 안 놔습니다, 옛날에. 미원이나 조금 놓고.)

107047 @ 미원이나 흐썰 놓고예.(미원이나 조금 놓고요.)

107047 # 경허민 황에 담으민 것도 쿠싱허민 딱딱 씹으멍 하영 먹었주게.(그러 면 항아리에 담으면 그것도 고소하면 딱딱 씹으면서 많이 먹었지.)

107047 @ 막 옛날 었어도.(막 옛날 었어도.)



107047 # 중간에, 중간에.(중간에, 중간에.)

107047 @ 중간에예, 할머니 시집강 애기 키울 땐 행 먹어났어예.(중간에요, 할머니 시집가서 아기 키울 땐 해서 먹었었어요.)

107047 # 경헐 먹어났어. 우리 그때도 애기 나고 헐 때도 고치 해영, 매운 고치 우갸에 싱그민 이디 싱거나근에 허민, 하영 허민, 해영 뽕아근에 짐치 해났어. 뽕이 혹에 뽕앙.(그렇게 해서 먹었었어. 우리 그때도 아기 나고 할 때도 고추 해서, 매운 고추 텃밭에 심으면 여기 심어서 하면, 많이 하면, 해서 뽕아서 김치 했었어. 방아 확에 뽕아서.)

107047 @ 뽕이혹에 뽕앙.(방아확에 뽕아서.)

107047 # 응, 뽕이혹에 뽕앙. 행 그루헐.(응, 방아확에 뽕아서. 해서 가루해서.)

107047 @ 이디 우갸?(여기 텃밭?)

107047 # 이거 우갸, 우녕에. 이디 삼간집 두 개 짓어났수다. 요 안트레 영. 경 허단에 아덜 폭난, 큰아덜 폭난, 아덜네 줘된 저 우이 간 집 지선 살단에, 이디 작년이 오랏수게. 큰메누리 저디 우이 따시 집 짓젠 허난 나 살단 집 튼언 집 짓어부난 따시 그디 갈 거우다. 이거 임시 살암주.(이거 텃밭, 텃밭에. 여기 삼간집 두 개 지었었습니다. 요 안에 이렇게 그러다가 아들 파니까, 큰아들 파니까, 아들네 줘두고 저 위에 가서 집 지어서 살다가, 여기 작년에 왔습니다. 큰며느리 저기 위에 다시 집 지으려고 하니까 나 살다가 집 뜯어서 집 지어버리니까 다시 거기 갈 겁니다. 이거 임시 살고 있지.)

## 젓갈

107048 @ 게민 이번엔 젓갈. 무신 젓갈, 무신 젓갈 행 먹어났수과?(그러면 이번엔 젓갈. 무슨 젓갈, 무슨 젓갈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48 # 젓갈은 옛날엔 젓 었엇고.(젓갈은 옛날엔 젓 없엇고.)

107048 @ 젓, 젓, 자리젓 이런 거.(젓, 젓. 자리젓 이런 거.)

107048 # 자리젓, 뽕젓.(자리돔젓, 멸치젓.)

107048 @ 뽕젓?(멸치젓?)

107048 # 응.(응.)

107048 @ 자리젓, 뽕젓?(자리돔젓, 멸치젓?)

107048 # 응, 젓베끼 었어났어. 이제도 젓베끼 었주게.(응, 그것밖에 없었어. 이제도 그것밖에 없지.)

107048 @ 예, 아니 뭐 무신 아가미젓, 게젓?(예, 아니 뭐 무슨 아가미젓, 게젓?)

107048 # 그런 건 촌엔 안헐니다게. 어디 젓도 상인덜, 장스덜 폭는 사름 허는 거주, 그자 개인 사름은 안 헐수다게.(그런 건 촌엔 안합니다. 어디 그것도 상인들, 장사들 파는 사람 하는 거지, 그자 개인 사람은 안 했습니다.)

107049 @ 자리젓은 어떻 허는 거파?(자리돔젓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49 # 자리젓은 해당 소금해다근에 소금해영 단지에나 담앙 놔두민 자리젓

이주.(자리돔것은 해다가 소금해다가 소금해서 단지에나 담아서 놔두면 자리돔것이지.)

107049 @ 소금은 얼마이 놓니까?(소금은 얼마큼 놓니까?)

107049 # 자리 세 개민 소금 하나 놓고. 네 개, 네 사발 이민 소금 한 사발 놔사주, 두 사발에 한 사발 놓민 찐덴 허주. 자리 네 사발, 소금 한 사발 놔야.(자리돔 세 개면 소금 하나 놓고. 네 개, 네 사발이면 소금 한 사발 놔야지, 두 사발에 한 사발 놓으면 짜다고 하지. 자리돔 네 사발, 소금 한 사발 놔야.)

107049 @ 자리 네 사발이민 소금 한 사발.(자리돔 네 사발이면 소금 한 사발.)

107049 # 경해사 헌덴 허주.(그래야 한다고 하지.)

107049 @ 경해 단지에 놔뒤예. 얼마나 놔두민 됩니까?(그래서 단지에 놔뒤요. 얼마나 놔두면 됩니까?)

107049 # 한 달만 놔두민. 뒤 달 돼민 별경허주게.(한 달만 놔두면. 뒤 달 되면 별절지.)

107049 @ 뒤 둘 돼민.(뒤 달 되면.)

107049 # 응, 버랭이 안 일게 행 놔두민. 경허곡 어가라 냉장고에 놔두민 거멍 허영 안 익고, 베끗디 뱃 맞게 해여근에 부리 딱 쌍 어디 그늘에 베끗디 그늘에 놔 놔뒤사 쿠싱허게 익주, 냉장고에 놔두민 안 익읍니다. 익어사 놓주.(응, 별레 안 일게 해서 놔두면. 그리고 열씨구나 냉장고에 놔두면 거메서 안 익고, 밖에 별 맞게 해서 부리 딱 싸서 어디 그늘에 밖에 그늘에 놓아 놔뒤야 고소하게 익지, 냉장고에 놔두면 안 익읍니다. 익어야 놓지.)

107049 @ 부린 무신걸로 찜니까?(부린 뒤로 찜니까?)

107049 # 요새 무신 비니루 엇어?(요새 무슨 비닐 없어?)

107049 @ 아니 옛날에.(아니 옛날에.)

107049 # 옛날에 경, 옛날에 험벅으로.(옛날에 그렇게, 옛날에 형겔으로.)

107049 @ 험벅으로.(형겔으로.)

107049 # 응, 험벅으로. 험벅으로 찜낫수게.(응, 형겔으로. 형겔으로 찜었습니다.)

107050 @ 멜컷은 담그젠 허민 자리젓이나 ㄱ듭니까?(멜치젓 담그려고 하면 자리돔것이나 같습니까?)

107050 # 멜컷이나 저 자리젓이나 ㄱ찌.(멜치젓이나 저 자리돔것이나 같이.)

107050 @ 것도 네 사발에 소금 하나, 한 사발?(그것도 네 사발에 소금 하나, 한 사발?)

107050 # 응.(응.)

107050 @ 멜컷이나 자리젓이나?(멜치젓이나 자리돔것이나?)

107050 # 응.(응.)

107050 @ 자리젓은 몇 월달에 담그는 거짜?(자리돔것은 몇 월에 담는 겁니까?)

107050 # 자리젓은 오월이나 스월이나 나민. 그때 돼민 자리 폴레 땡기는 게.(자

리돔것은 오월이나 사월이나 나면. 그때 되면 자리돔 팔러 다니는 게.)

107050 @ 아, 자리젓할 거예.(아, 자리돔것할 거요.)

107050 # 이디 사름덜도 시방도 일 키로, 이 키로 상 담양 먹는 생이라. 우린 안 해도.(여기 사람들도 시방도 일 킬로, 이 킬로 사서 담가서 먹는 모양이야. 우린 안 해도.)

107053 @ 옛날엔 경해도 자리젓 하영 담가놔주예?(옛날은 그래도 자리돔것 많이 담갔었지요?)

107053 # 옛날엔 부제칩인양 춘이<sup>150)</sup>로 하나씩 담양 먹꼭 가난헌 사름은 자리젓도 엇엇놔수게게.(옛날엔 부잣집은요 ‘춘이’로 하나씩 담아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자리젓도 없었습니다.)

107053 @ 아니, 경해도 여름 내냥 먹젠 허민 흥뽀.(아니, 그래도 여름 내내 먹으려고 하면 조금.)

107053 # 여름엔 엇을 거 아니파, 저을에베피 엇주게, 여름에 돕는 거난. 옛날은 자리 영 바당마다, 영 개못마다 자리, 이디도 저 신평 바당도 허고 우리 바당도 허고 허민 자리 강 사오민 자리젓을 헛주만은, 우리 두린 땀 자리 사례 탱기도 안허고, 자리젓도 엇어놔수다. 우리 두린 땀. 우리 중간에 자리젓 행 허민 강 사명덜 자리젓해놔주. 경 엇어놔수다.(여름엔 엇을 거 아녜니까, 겨울에밖에 없지, 여름에 담그는 거니까. 옛날은 자리 이렇게 바다마다, 이렇게 포구마다 자리돔, 여기도 저 신평 바다도 하고 우리 바다도 하고 하면 자리돔 가서 사오면 자리돔것을 했지만, 우리 어린 땀 자리 사례 다니지도 앓고, 자리돔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린 땀. 우리 중간에 자리돔것 해서 하면 가서 사면서들 자리젓했었지. 그렇게 없었습니다.)

107053 @ 뽀젓은?(뽀치젓은?)

107053 # 뽀젓은 따시 또 해벤 사름덜은 강 거려당.(뽀치젓은 다시 또 해변 사람들은 가서 잡아다가.)

107053 @ 게난 할머니네도 이디 강 거려당 헐?(그러니까 할머니네도 여기 가서 잡아다가 했어?)

107053 # 우린 저 옥안에 헐 땀 저 우이 간에 살아부난, 이디 오란 살단에 스물, 저 어디 살안 열 술에 이디 느려완, 저 우이서 난 켜 열 술에 이디 느려오란 살단, 스물 둘에 우이 시집가난에 우이 간 살아부난 우이 살단에 스물 으섯 나는 해에 이디 오란 살았수게. 게난 뽀 거리레 안 탱겨놔수다.(우린 저 커서 할 땀 저 위에 가서 살아버리니까. 여기 와서 살다가 스물, 저 어디 살아서 열 살에 여기 내려와서, 저 위에서 나서 커서 열 살에 여기 내려와서 살다가, 스물 둘에 위에 시집가니까 위에 가서 살아버리니까 위에 살다가 스물여섯 나는 해에 여기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뽀치 잡으러 안 다녔었습니다.)

107053 @ 뽀 거리레 안 탱겨놔구나예.(뽀치 잡으러 안 다녔군요.)

107053 # 안 탱겨놔수다. 그거 해변 사는 사름이나 허고 이렌 소문도 못 듣고

150) ‘춘이’는 술을 담는 큰 항아리다.

안 탕겨봤수다. 우린 멜 거리레 무시거 허레 안 탕겨봤수다.(안 다녔습니다. 그거 해변 사는 사람이나 하고 이리는 소문도 못 듣고 안 다녀봤습니다. 우린 멸치 잡으러 뭐 하러 안 다녀봤습니다.)

107053 @ 게른 저 멜컷은 주로 반찬으로 먹젠 담그는 거파?(그러면 저 멸치컷은 주로 반찬으로 먹으려고 담그는 겁니까?)

107053 # 멜컷헿 반찬으로 먹음도 허고 짐치도 허고.(멸치컷해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김치도 하고.)

107053 @ 짐치헿 때도 놓니까?(김치할 때도 놓습니까?)

107053 # 응. 짐치헿 때 거.(응. 김치할 때 그거.)

107053 @ 아까 짐치헿 때 멜컷 낫텐 헿 말 안 곶안게게.(아까 김치할 때 멸치컷 낫다고 한 말 안 말하던데.)

107053 # 아, 옛날에주. 옛날엔 멜컷 어디 성 놔놔수과? 중간에.(아, 옛날에지. 옛날엔 멸치컷 어디 있어서 낫었습니까? 중간에.)

107053 @ 아, 중간에.(아, 중간에.)

107053 # 신식으로 난 후제 멜 난 해놔수게. 경헿 허곡 잘 익으면 헿영 그거 씹싸 먹은텐 헿니까. 우리도 멜컷 안해봔수다.(신식으로 난 후에 멸치 놔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 익으면 해서 그거 씹싸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멸치컷 안해봔습니다.)

107053 @ 할머니도 멜컷 잘 안헿 먹어놔수과?(할머니도 멸치컷 잘 안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53 # 안 해봔수다.(안 해봔습니다.)

107053 @ 안 해봔마씨? 무사?(안 해봔어요? 왜?)

107053 # 우리 경 중간에.(우리 그렇게 중간에.)

107053 @ 안 좋아해?(안 좋아해?)

107053 # 경허고 멜 거리레도 안 탕기고 허난 멜컷 안 해놔수다.(그리고 멸치 잡으러도 안 다니고 하니까 멸치컷 안 했었습니다.)

### 장아찌와 회

107055 @ 마농지 이런 거 이수게. 마농지 말고 또 그런 거 지시 담가 먹는 거 뭐 잇수과?(마늘장아찌 이런 거 있잖습니까. 마늘지 말고 또 그런 거 장아찌 담가 먹는 거 뭐 있습니까?)

107055 # 마농지 말안 무신 지가 잇수과?(마늘장아찌 말고는 무슨 장아찌가 있습니까?)

107055 @ 무슨 지헿 먹는 거 엇수과?(무슨 장아찌해서 먹는 거 없습니까?)

107055 # 마농지 말안 엇수다. 늣뻘 헿 그 물리왕 그거 헿 그자 허는 사름덜 대산이영 혼디 낵 장아찌 톱음베끼 무시거.(마늘장아찌 말고는 없습니다. 무해서 그 말려서 그거 해서 그저 하는 사람들 마늘이랑 함께 놔서 장아찌 담금밖에 뭐.)

107055 @ 계민 뭐 유, 유썬.(그러면 뭐 들깨, 들깻잎.)

107055 # 유썬 행 그자 장아찌 해근에 장물에 등강 먹는 사름은 먹고 아니허는 사름은 아니허주. 것도 사름마다 안합니다. 이녀 수정 여라이 먹는 사름이 허주.(들깻잎 해서 그저 장아찌 해서 간장에 담가서 먹는 사름은 먹고 안하는 사름은 안하지. 그것도 사름마다 안 합니다. 자기 숫자 여러 명 먹는 사름이 하지.)

107055 @ 반치?(반치?)

107055 # 반치도 옛날 아니파?(반치도 옛날 아납니까?)

107055 @ 옛날에 행 먹어났수과, 것도?(옛날에 해서 먹었었습니까, 그것도?)

107055 # 옛날은 반치해여근에 집이 키와근에 거 쫄랑 웬장에 물어. 그거 반찬으로 옛날엔 그거 반찬으로 먹어났수게게.(옛날은 반치해서 집에 키워서 그거 잘라서 된장에 물어. 그거 반찬으로 옛날엔 그거 반찬으로 먹었었습니다.)

107055 @ 양에?(양하?)

107055 # 양엔 안 합니다.(양하는 안 합니다.)

107055 @ 양엔 지 안 해마씨?(양하는 장아찌 안 해요?)

옛날에 안해났수다.(양하뿌리 해서 중산간 마을 사름들 장아찌 담그는 사름들 이제 신식사름들 담그지.)

107055 @ 안 해났어예. 아까 물망, 물망도 지시 담급니까?(안 했었어요. 아까 모자반, 보자반도 장아찌 담급니까?)

107055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55 @ 안 담가?(안 담가?)

107055 # 국베끼 안허영. 국허고 무쳐 먹음베끼 안합니다. 거 냉국에 행 먹주, 그거. 그런 거 안 해여.(국박에 안 해서, 국하고 무쳐 먹음밖에 안 합니다. 그거 냉국에 해서 먹지, 그거. 그런 거 안 해서.)

107056 @ 계민 마농진 어떻행 허는 거파?(그러면 마늘장아찌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56 # 마농지 무사 안 해봤어?(마늘장아찌 왜 안 해봤어?)

107056 @ 나가 허민 맛이 엇어마씨.(내가 하면 맛이 없어요.)

107056 # 우리도 허영 맛엇영 헌디 장아찌 돕는 거 곤장허곡 초 농곡 무신 오만 거 다 농민 안 쥔텐 허명 헌디. 우린 허여볼 땐 초나 농곡 소금물에 컷다근에 건정 오복곤장이나 농곡 저 거시기 초나 농곡 해봤주. 다른 거 안 놔봐나난, 다른 거 여라 개 놓는 사름들은 하영 논텐.(우리도 해서 맛없어서 하는데 장아찌 담그는 거 간장하고 식초 놓고 무슨 오만 거 다 놓으면 안 쥔다고 하면서 했는데. 우린 해볼 땐 식초나 놓고 소금물에 잠갔다가 건져서 오복간장이나 놓고 저 거시기 식초나 놓고 소금물에 잠갔다가 건져서 오복간장이나 놓고 저 거시기 식초나 놓고 해봤지. 다른 거 안 봤었어, 다른 거 여라 개 놓는 사름들은 많이 놓는 사름들은 많이 놓는다고.)

107056 @ 옛날은 아무것도 안 낱 장물만 낱텐 헨게만은.(옛날은 아무것도 안

놔서 간장만 놔다고 하던데.)

107056 # 옛날은 옛날은 허는 사름덜은 이디서 돕은 이녁 근장에 저 마농 대산 이 지해도. 그거 우리 두린 때 어디 검질 메도렌 헨 검질 메레 부제칩이 가민 잘도 맛 좋아났어.(옛날은 옛날은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담근 자기 간장에 저 마늘, 마늘 장아찌해도. 그거 우리 어린 때 어디 김매달라고 해서 김매러 부잣집에 가면 아주 맛있었었어.)

107056 @ 마농, 대산이마농 대로 허는 거지예?(마늘, 마늘 대로 하는 거지요?)

107056 # 대산이 허민 옛날은 이 부쁜 놈물 대산이도 요만씩 요만씩 큼니다게. 크민 이제 장스 대산인 막 영허는디 요만씩베끼 안 크주게. 경허민 그거 쉼 헤영 쉼 돈 꼬랑지만 다듬아튀 썩이영 대가리영 흠치 썰어놔 허여.(마늘이 하면 옛날은 이 붙은 나물 마늘도 요만큼씩 요만큼씩 큼니다. 크면 이제 장사 마늘은 아주 이렇게 하는데 요만큼씩밖에 안 크지. 그러면 그거 잎 해서 잎 모두 꼬리만 다듬어두고 잎이랑 대가리랑 함께 썰어놔서 해.)

107056 @ 썩이영 대가리영. 밑에 마농은 안 허고?(잎이랑 대가리랑. 밑에 마늘은 안 하고?)

107056 # 마농 불리 채 안 든 때.(마늘 뿌리 채 안 든 때.)

107056 @ 아, 불리 채 안 든 때 허는 거난.(아, 뿌리 채 안 든 때 하는 거니까.)

107056 # 안 든 때 허는 거게.(안 든 때 하는 거.)

107056 @ 쟁 그거는.(그래서 그거는.)

107056 # 그냥 장물 낱게.(그냥 간장 놔서.)

107056 @ 그냥 장물만 놔?(그냥 간장만 놔?)

107056 # 응.(응.)

107056 @ 장물에 그냥 놓기만 해?(간장에 그냥 놓기만 해?)

107056 # 장물 꿩왕 그자 것만 남수게게.(간장 끓여서 그거 그것만 놓니다.)

107056 @ 장물 꿩왕.(간장 끓여서.)

107056 # 꿩왕 식으민 거 놔근에.(끓여서 식으면 그거 놔서.)

107056 @ 식으민 그레 낱, 단지에 낱 담양 놔두민 돼는 거?(식으면 그리 놔서, 단지에 놔서 담아서 놔두면 되는 거?)

107056 # 응.(응.)

107056 # 그건 얼마나 담강 놔둬야 됩니까?(그건 얼마나 담가서 놔둬야 됩니까?)

107056 # 아, 그건 오래 가지 안합니다. 소금 허곡 허난 혼 열흘만 돼민 익어갑니다, 그건. 옛날엔 경헤신디 이젠 오복근장 농곡, 초 농곡 막 여러 가지 놔사 쉬지 안헌덴 허는디 젊은 사름덜 곤는디 우린 경허명 복잡하게 안 해봤수다.(아,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소금 하고 하니까 한 열흘만 되면 익어갑니다, 그건. 옛날엔 그랬었는데 이젠 오복간장 놓고, 식초 놓고 막 여러 가지 놔야 쉬지 않는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말하는데 우린 그렇게 하면서 복잡하게 안 해봤습니다.)

107056 @ 거난예, 옛날엔 그냥 장물만 낵예.(그러니까요, 옛날엔 그냥 간장만 낵서요.)

107056 # 옛날엔 장물만 낵.(옛날엔 간장만 낵서.)

107056 @ 혼 번 궤왕예?(한 번 끓여서요?)

107056 # 궤왕 식으민 낵 허당 따시 또 그거 행 혼 들만이 쉬엄직 허민 그거 건정 또 혼 번 장물을 궤왕 낵야 안 쐰텐. 두 번 궤왕 낵사.(끓여서 식으면 낵서 하다가 다시 또 그거 해서 한 달 만에 쉼 것 같으면 그거 건져서 또 한 번 간장 끓여 낵야 안 쐰다고. 두 번 끓여서 낵야.)

107056 @ 아, 두 번 궤왕 낵사.(아, 두 번 끓여서 낵야.)

107056 # 식으민 농곡 농곡 해사.(식으면 농고 농고 해야.)

107056 @ 응.(응.)

107056 # 경헌디 이제 사름덜은 곤는 거 보난 초에 무시거에 뇌근에 궤왕 허민 그거 혼 번 뇌근에 해도 안 쐰텐 해도 우린 경해보지 안허고.(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말하는 거 보니까 식초에 무엇에 낵서 끓여서 하면 그거 한 번 뇌서 해도 안 쐰다고 우린 그렇게 해보지 았고.)

107056 @ 옛날엔 다 경 그냥 장물에만 낵 행 먹엇텐 헐게마씨.(옛날엔 다 그렇게 그냥 간장에만 낵서 해서 먹엇다고 하던데요.)

107056 # 오복근장 담고 초나 혼쉴 농곡 행 나도 지나 무시거나 짐칠 허나 젊을 때 산 땐 맛 좋게 먹어낵주. 궤겐 안 행 먹어낵주게.(오복간장 담고 식초나 조금 농고 해서 나도 장아찌나 뭐 김치를 하거나 젊을 땐 산 땐 맛있게 먹엇었지. 궤게는 안 해서 먹엇었지.)

107056 @ 혹시 콥대산이도 지협니까?(혹시 마늘도 장아찌합니까?)

107056 # 콥대산이가 지허주, 다른 거 무신거.(마늘이 지하지. 다른 거 뭐.)

107056 @ 궤마농?(쪽파?)

107056 # 궤마농은 불리 막 읊아사 행 거 허는 사름 이신디 그거 베랑 허는 사름 엇읍니다.(쪽파는 뿌리 막 여물어야 해서 그거 하는 사람 있는데 그거 별로 하는 사람 없읍니다.)

107056 @ 아, 궤마농 불리로도 해근예.(아, 쪽파 뿌리로도 해서.)

107056 # 불리로 해근에 문딱 벳겨근에 장아찌 듬은 사름은 봐나도. 궤마농 장아찌 담은 사름 베랑 엇읍니다.(뿌리로 해서 모두 벳겨서 장아찌 담그는 사람은 봤어도. 쪽파 담그는 사람은 별로 없읍니다.)

107056 @ 베랑 엇어예.(별로 없어요.)

107057 @ 휘.(회)

107057 # 무신 휘?(무슨 회?)

107057 @ 게메, 자리휘.(그러게, 자리돔회)

107057 # 자리휘베끼 엇주게.(자리돔회밖에 없지.)

107057 @ 자리휘는 자리 날 때예.(자리돔회는 자리돔 날 때요.)

107057 # 자리 날 때베끼 엿읍니다. 거 혼철이주.(자리돔 날 때밖에 없읍니다. 그 혼철이지.)

107057 @ 혹시 새끼훼도?(혹시 새끼회도?)

107057 # 도새기 새끼.(돼지 새끼.)

107057 @ 그것도 행 먹어났수과?(그것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57 # 옛날은 도새기 이녁냥으로 질룰 때 개인으로 질좌근에 추렴할 때 도새기 새끼훼 행 먹었주. 이제 어디 저 무관장 허는디 도새기 새끼훼가 시파?(옛날은 돼지 자기대로 기를 때 개인으로 길러서 추렴할 때 돼지 새끼회 해서 먹었지. 이제 어디 저 식육점 하는데 돼지 새끼회가 있습니까?)

107057 @ 계난예 옛날엔 그것도 잔치 때 이시민 행 먹기도.(그러니까요. 옛날엔 그것도 잔치 때 있으면 해서 먹기도.)

107057 # 잔치 뎌 안 해났수다.(잔치 뎌 안 했었습니다.)

107057 @ 아, 잔치 뎌 아니.(아, 잔치 뎌 아니.)

107057 # 개인으로 행 먹어났주. 잔치 때 그런 거 어디 성 험니까? 도새기 꿩기도 요멘씩 헌 거 서넉 점 낱 해나신디.(개인으로 해서 먹었었지. 잔치 때 그런 거 어디 있어서 험니까? 돼지고기도 요만큼씩 한 거 서넉 점 낱서 했었는데.)

107057 @ 계난예.(그러니까요.)

107057 # 옛날엔 자릿도새기 혼나 잡앙 혼텐, 혼 십 관짜리 잡앙 잔치 허는디 어디 강 훼허곡 하간 거 험니까? 아이고.(옛날엔 ‘자릿도새기’ 하나 잡아서 한다고, 한 십 관짜리 잡아서 잔치 하는데 어디 가서 회하고 온갖 거 험니까? 아이고.)

107058 @ 그거 말고도 반찬 뭘행 먹어났수과? 옛날에 해난 거.(그거 말고도 반찬 뭘 해서 먹었었습니까? 옛날에 했던 거.)

107058 # 옛날 반찬 그거베끼 어디 셔났수과? 고등어나 싯당 혼 번이나 장이나 가민 사당 먹는 사름 사당 먹고. 갈치나 사당 먹는 사름 사당 먹곡 헛주. 무신 반찬 이 십니까? 솔레긴 어디 경 사름마다 먹어짐광 먹는 건 고등어나 허고 자리나 저, 갈치나 사당 먹어났주.(옛날 반찬 그거밖에 어디 있었습니까? 고등어나 있다가 한 번이나 장이나 가면 사다 먹는 사람 사다가 먹고. 갈치나 사다가 먹는 사람 사다가 먹고 헛지. 무슨 반찬이 있습니까? 옥돔은 어디 그렇게 사람마다 먹을 수 있으며 먹는 건 고등어나 하고 자리나 저, 갈치나 사다가 먹었었지.)

107058 @ 옛날은 갈치도 막 하영 나났어예?(옛날은 갈치도 아주 많이 낳았어요?)

107058 # 응, 갈친 하영 나났어.(응, 갈친 많이 낳았어.)

107058 @ 이젠 갈치가 젤 비싸. 이젠 완전 비싸마씨. 비쌍 못 먹어.(이젠 갈치가 젤 비싸. 이젠 완전 비싸요. 비싸서 못 먹어.)

107058 # 옛날은 갈치 행 사민게 갈치 해다근에 할망덜 출 시끄젠 허민 막 소금에 곤헛당 그거 행 요멘씩 행 썰어낱 조막조막 찰랑 썰어놓곡 호박 놓곡 허민 그것도 잘도 맛좋아.(옛날은 갈치 해서 사면 갈치 해다가 할머니들 풀 실으려고 하면



막 소금에 간했다가 그거 해서 요만큼씩 해서 썰어놔서 ‘조막조막’ 잘라서 썰어놓고 호박 놓고 하면 그것도 잘도 맛있어.)

107058 @ 그다음에 고사리도 무쳐근에 먹고.(그다음에 고사리도 무쳐서 먹고.)

107058 # 고사리 보까근에.(고사리 볶아서.)

107058 @ 보깡예, 어떻 보릅니까?(볶아서요, 어떻게 볶습니까?)

107058 # 고사리도양 저 요새 사름덜은 두루 삶아근에 허는디 저 서너불 삶앙 그거 보끌 때라근에 혼불, 뒤불 삶앙 혼불 꿩왕 뜨뜻할 때 물 걸렁 냄비에나 놓고 찹지름 양념 놔근에 찹기름에, 찹 근장 낱 문착 보까야 고사린 맛있주, 두루 보깡은 맛있어.(고사리도요 저 요새 사람들은 덜 삶아서 하는데 저 서너 벌 삶아서 그거 볶을 때는 한벌, 뒤벌 삶아서 한벌 끓여서 따뜻할 때 물 걸려서 냄비에나 놓고 찹기름 양념 놔서 찹기름에, 찹 간장 놔서 푹 볶아야 고사린 맛있지, 덜 볶아서는 맛있어.)

107058 @ 아.(아.)

107058 # 잘 보까야 고사린 맛있주.(잘 볶아야 고사린 맛있지.)

107058 @ 경해도 혼 번 삶아근에 물린 거난.(그래도 한 번 삶아서 말린 거니까.)

107058 # 삶앙 물리봐도 뒤 번 삶아사주, 경 안 허민 씨, 씨.(삶아서 말려도 뒤 번 삶아야지, 그렇게 안 하면 씨, 씨.)

107058 @ 아.(아.)

107058 # 우린 혜영 삶앙 싯영 낫다근에 삶을 땀 물 켜 서너불 부정 삶앗당. 나 식게 멍질할 땀 따시 고사리 보끌 때 낱 혼불 낱 꿩왕 허민 파삭 데불 때 건정 그젠 물 놔근에 그레 비와낱 찹지름 놓곡, 찹 근장 놓곡 행 문착행 보끄민 그젠 쿠싱행 맛중주. 고사리 두루 보끄민 맛있어. 고사리도 잘 보까야.(우린 해서 삶아서 씻어 놔다가 삶을 땀 물 잠가서 서너 벌 붙여서 삶았다가. 나 제사 명절할 땀 다시 고사리 볶을 때 놔서 한벌 놔서 끓여서 하면 파삭 뜨거울 때 건져서 그젠 물 놔서 그리 부어 놔서 찹기름 놓고, 찹 간장 놓고 해서 푹해서 볶으면 그젠 고소해서 맛있지. 고사리 덜 볶으면 맛있어. 고사리도 잘 볶아야.)

107058 @ 호박도.(호박도.)

107058 # 호박은게 호박채 허는 거, 그자 물 꿩왕 놔근에 삶아지민 건지민 꿩나 놓고, 소금. 우리도 호박엔 옛날엔 장 듬양 먹을 때난 장물 카근에 호박 삶아놔주, 소금도 안 해봤수다.(호박은 호박채 하는 거, 그저 물 끓여 놔서 삶아지면 뜨면 깨나 놓고, 소금. 우리도 호박엔 옛날엔 장 담가 먹을 때니까 간장 타서 호박 삶았었지, 소금도 안 해봤습니다.)

107058 @ 아, 장물 놔야 맛중아마씨?(아, 간장 놔야 맛있어요?)

107058 # 응, 장물 낱, 물 낱 카놔근에 맛뵈 혼썰 짹짹하게 허여낱 싹싹 꿩민 그레 호박 낱 꿩왕근에 허민 꿩나 놓곡 허민 마친디. 이제 사름덜은 다 소금 낱주. 갱국에도 소금 놓곡, 근장 낱수과?(응, 간장 놔서, 물 놔서 타서 맛봐서 조금 짹짹

하게 해놔서 싹싹 끓으면 그리 호박 놔서 끓여서 하면 깨나 넣고 하면 마치는데. 이제 사람들은 다 소금 놓지. 제사 국에도 소금 넣고, 간장 놓습니까?)

107058 @ 간장이 오복간장베끼 엇어부난.(간장이 오복간장밖에 없어버리니까.)

107058 # 장 안 듬안 먹어부난게.(장 안 담가서 먹어버리니까.)

107058 @ 거난마씨.(그러니까요.)

107058 # 이제 촌에 사름덜은 시방도 장을 듬안 먹는다 시에 사름덜 장 안 듬안 먹어부난.(이제 촌에 사람들은 시방도 장을 담가 먹는데 시에 사람들 장 안 담가서 먹어버리니까.)

### 장 담그기

107061 @ 게민 장은 어떻 담그는 거마씨?(그러면 장은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107061 # 장?(장?)

107061 @ 응.(응.)

107061 # 장, 콩 삶앙 그거 발로 불랑 문짝허게 불랑 차? 콩엇이 불랑 이젠 그거 헤여근에 메주 열 말씩 행 돌아맹 낮당 그거 헤영케 곰생이 피건 바싹 물리왕 그젠 따시 또 물에 낱 관짝 곰생이 벳경 씻어뵈 황에 놔근에 소금, 콩 혼 말 삶으민 관뵈로 소금 세 개만 놓민 뵈어.(장, 콩 삶아서 그거 발로 밟아서 ‘문짝’하게 밟아서 차? 콩 없이 밟아서 이젠 그거 해서 메주 열 말씩 해서 달아매서 뵈다가 그거 하얗게 곰팡이 피면 바싹 말려서 그젠 다시 또 물에 놔서 깨끗이 곰팡이 벗겨서 씻어두고 항아리에 놔서 소금, 콩 한 말 삶으면 되로 소금 세 개만 놓으면 돼.)

107061 @ 콩 혼 말에 소금 관뵈로 세 개.(콩 한 말에 소금 되로 세 개.)

107061 # 응, 물 혼 허벅. 물은 혼 허벅만 놓고.(응, 물 한 허벅. 물은 한 허벅만 놓고.)

107061 @ 물은 혼 허벅 놓고.(물은 한 허벅 놓고.)

107061 # 소금은 관뵈로 세 개만 놔. 혼 말 놓민 짜. 세 개만 놔야지 쟁행 담아야.(소금은 되로 세 개만 놔. 한 말 놓으면 짜. 세 개만 놔야지, 그렇게 해서 담가야.)

107062 @ 언제 허는 거파? 메주는 언제?(언제 하는 겁니까? 메주는 언제?)

107062 # 메준 이 동짓달만 낱 삶앙 뵈니다.(메주는 이 동짓달만 나면 삶아서 뵈니다.)

107062 @ 동짓달 낱.(동짓달 나서.)

107062 # 장은 묵은해 담아야 새해 나민 인칙 건지주. 묵은해 안 담아난. 선들 그물어 가민 듬아야.(장은 묵은해 담가야 새해 나면 일찍 건지지. 묵은해 안 담았어. 선달 저물어 가면 담가야.)

107062 @ 그른 동짓들에 메주 삶앙.(그러면 동짓달에 메주 삶아서.)

107062 # 물리왕. 혼 선들 그물어가민, 선들 그물어 가민 삶앙 앓당 이월, 삼월만 나가민 갈림을 허여.(말려서. 한 선달 저물어가면, 선달 저물어 가면 삶아서 가

저다가 이월, 삼월만 나가면 가름을 해.)

107062 @ 아, 갈림을 허여.(아, 가름을 해.)

107062 # 웬장이랑 웬장만 장물랑 장물만.(된장이랑 된장만 장물이랑 장물만.)

@ 아. 게난 다시예. 동짓달에 메주를 삶양.(아. 그러니까 다시요. 동짓달에 메주를 삶아서.)

107062 # 거 띄와근에.(그거 띄워서.)

107062 @ 띄와근에. 혼 들 잇당?(띄워서. 한 달 있다가?)

107062 # 아, 띄우젠 허민 돌아매나, 돌아매야지. 돌아멩 놔두민 박세기 해양케 트민. 그제 트멍 돌르멍 허당도 벳디 내놔 돌리와야 다 돌릴 거 아니짜? 바싹 돌리왕.(아, 띄우려고 하면 돌아매거나, 돌아매야지. 돌아매서 놔두면 박삭 하얏게 뜨면. 그제 뜨면서 마르면서 하다가도 별에 내놔서 말려야 다 마를 거 아닙니까? 바싹 말려서.)

107062 @ 어느 정도 있다가?(어느 정도 있다가?)

107062 # 아니 돌리우는 해양케 트민 돌리웁서.(아니 말리는 하얏게 뜨면 말리세요.)

107062 @ 그제 한 달 정도? 두 달?(그제 한 달 정도? 두 달?)

107062 # 혼 들만 웨민 트건 돌리와. 벳디 내놔.(한 달만 되면 뜨면 말려. 별에 내놔서.)

107059 @ 아, 거문 이제 시쳐근에 장 담그는 거구나예.(아, 그러면 이제 씻어서 장 담그는 거군요.)

107059 # 혼 말만, 콩 혼 말만 허민 소금 관웨로 세 개만 놔 듬으민 웨여.(한 말만, 콩 한 말만 하면 소금 되로 세 개만 놔서 담그면 돼.)

107059 @ 장은 묵은해에 담아야 되는 거예?(장은 묵은해에 담가야 되는 거예요?)

107059 # 묵은해에.(묵은해에.)

107059 @ 새해에.(새해에.)

107059 # 정월 낡은 듬젠 허민 정월 그물어야 듬주, 상들엔 장 안 듬읍니다.(정월 나서는 담그려고 하면 정월 저물어야 담그지, 상달엔 장 안 담굽니다.)

107059 @ 아, 정월 상들엔 안 담그고.(아, 정월 상달엔 안 담그고.)

107059 # 막 그물어야 담주.(막 저물어야 담지.)

107059 @ 아, 무사 경 허는 거마씨?(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7059 # 거 장은 짬 거난 장이 듬아근에 집안에 콧젠 허민 장이 고리나 무시 거 허영 장으로도 승시 납니다.(그제 장은 짬 거니까 장을 담가서 집안이 콧으려고 하면 장이 고리나 뭐 해서 장으로도 흥사 납니다.)

107059 @ 아.(아.)

107059 # 옛날에. 경허난 딱 장은 상, 그거에 상이 음식이난 남저덜 잇곡 현디 정월엔 장 안 듬읍니다.(옛날에. 그러니까 딱 장은 상, 그거에 상이 음식이니까 남

자들 있고 한테 정월엔 장 안 담급니다.)

107059 @ 정월엔 장 안 담가예.(정월엔 장 안 담가요.)

107059 # 이월에도 안 듬곡.(이월에도 안 담그고.)

107059 @ 이월에도 안 담그고.(이월에도 안 담그고.)

107059 # 딱 철이 잇는 거난. 선돌 그름에 안 담으민 정월 나민 딱 그물영 담아야.(딱 철이 잇는 거니까. 선달 그름에 안 담그면 정월 나면 아주 저물어야 담아야.)

107059 @ 아까 무슨 상이 음식?(아까 무슨 상이 음식?)

107059 # 장이게 그 큰 음식 중에 큰 거 아니꽈? 장 안 들어가는 게 싯꽈?(장이 그 큰 음식 중에 큰 거 아닙니까? 장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107059 @ 예, 계난 상이 음식이엔 곱습니까?(예, 그러니까 상이 음식이라고 말합니까?)

107059 # 응, 장이 큰 거주게.(응, 장이 큰 거니.)

107059 @ 응. 쥬 큰 거주예?(응. 쥬 큰 거지요?)

107059 # 음식에 장 안 들어가는 게 이서?(음식에 장 안 들어가는 게 있어?)

107061 @ 계민 아까 두 개. 똥장 건지고 장물은?(그러면 아까 두 개. 똥장 건지고 간장은?)

107061 # 장물만 해영.(간장만 해서.)

107061 @ 그건 아까 언제 헐다고마썬?(그건 아까 언제 헐다고요?)

107061 # 그때 혼 정월 그물어가나 혼 삼월 나민 거 갈림해도 쥬 거라.(그때 혼 정월 저물어가나 한 삼월 나면 그거 가름해도 쥬 거야.)

107061 @ 아, 갈림해도 쥬여. 갈림헐 땐 어떻습니까?(아, 가름해도 쥬. 가름할 땐 어떻게 합니까?)

107061 # 아, 메주랑 메주만 건지고 장물은 장물만 헐 딱 봉헐 놔두고. 우이 소금을 약간.(아, 메주랑 메주만 건지고 장물은 장물만 해서 딱 봉해서 놔두고. 위에 소금을 약간.)

107061 @ 우이 소금 놔.(위에 소금 놔.)

107061 # 아이, 장물엔 그자 소금 헐쥬 그냥 장물더레 쌍을 놓나 그냥 놓나 해도 되고 메주는 요새 시에 사난 시에 장에 가민 고징<sup>151)</sup> 꺾는 거 잇지?(아니. 간장엔 그저 소금 조금 그냥 간장에 싸서 놓거나 그냥 놓거나 해도 되고 메주는 요새 시에 사니까 시에 장에 가면 ‘고징’ 꺾는 거 잇지?)

107061 @ 무신거 꺾는 거?(뭘 꺾는 거?)

107061 # 고징.(‘고징’.)

107061 @ 고징이 뭘꽈?(‘고징’이 뭘니까?)

107061 # 고징, 밀 띄우는 거.(고징, 밀 띄우는 거.)

107061 @ 밀 띄우는 거?(밀 띄우는 거?)

107061 # 응, 밀 띄우는 거. 거 꺾는 거 싯건 그거 사당 똥장에 저 그 사온 메

---

151) ‘고징’은 밀을 싹이 트게 띄운 것을 말한다.

주 ㄱ루에 행 혼디 버물영 낱 딱 담아 놔두민 맛있지. 맨 웬장만은 놔두민 맛있어.  
(응, 밀 띄우는 거. 그거 파는 거 있으면 그거 사다가 된장에 저 그 사온 메주 가루  
에 해서 함께 버무려서 놔서 딱 담아두면 맛있지. 맨 된장만은 놔두면 맛있어.)

107061 @ 옛날은 그런 거 잊어나실 거 아니파?(옛날은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닙  
니까?)

107061 # 옛날도, 옛날부터 우린 그거 낱 해놔어.(옛날도, 옛날부터 우린 그거  
놔서 했었어.)

107061 @ 건 어떻게 만드는 거마씨?(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107061 # 아, 장에 가민 거 푼는 거 있어. 곶앙.(아, 장에 가면 그거 파는 거 있  
어. 갈아서.)

107061 @ 건 뭘로 만든 거라?(그건 뭘로 만든 거야?)

107061 # 밀 띄왕.(밀 띄워서.)

107061 @ 아, 밀 띄운 걸로.(아, 밀 띄운 걸로.)

107061 # 밀도 옛날은 우리냥으로 이녁냥으로 밀을 띄와근에 빈직빈직하게 띄  
왕 ㄱ래 이녁냥으로 ㄱ래 곶민 ㄱ루가 들크룽헌디 이제 사온 ㄱ룬 경 맛있어. 경  
장을 듬으민 장이 잘도, 무시거 놓나 안 놓나 장은 맛좋아난디 이젠 경 있어. 경행  
맨 장만 웬장만 담앙 놔두민 맛있어.(밀도 옛날은 우리대로 자기대로 말을 띄워서  
'빈직빈직'하게 띄워서 맷돌 자기대로 맷돌 갈면 가루가 '들크룽'헌데 이제 사온 가  
루는 그렇게 맛있어. 그래서 장을 담그면 장이 잘도, 무엇 놓거나 안 놓거나 장은  
맛있었는데 이젠 그렇게 없어. 그렇게 해서 맨 장만 된장만 담아서 놔두면 맛있어.)

107060 @ 맛있어. 옛날에 고추장은 안 담가놔지예?(맛있어. 옛날에 고추장은 안  
담갔었지요?)

107060 # 고치장도 이녁냥으로 담안 먹는 사람은 담앙 먹어. 이제도 듬암수게.  
(고추장도 자기대로 담가서 먹는 사람은 담가서 먹어. 이제도 담그고 있습니다.)

107060 @ 이젠 허주만은 옛날은 고치도 엇고, 고치장을 거의 담강 집이서 안  
담강 먹지예?(이젠 하지만 옛날은 고추도 없고, 고추장을 거의 담가서 집에서 안 담  
가서 먹지요?)

107060 # 옛날도 고치 하영 헌 사람은 이녁냥으로 파싹 매운 고치장 흥쫄 쪼그  
만헌 단지로 흥나씩 담안 먹어놔주게.(옛날도 고추 많이 한 사람은 자기대로 파싹  
매운 고추장 조그마한 단지로 하나씩 담아서 먹었었지.)

107060 @ 아, 그건 어떻게 담그는 거마씨?(아, 그건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107060 # 그건 옛날은 소금에 저 무시거 장게, 그 무시거 ㄴ 해신디 이젷사람덜  
은 그 메주 띄운 거나 고징이나 ㄴ쭈, 것도.(그건 옛날은 소금에 저 무엇 장, 그 뭐  
놔서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메주 띄운 거나 '고징'이나 놓고 있지, 그것도.)

107060 @ 음, 메주 띄운 거나 고징이나.(음, 메주 띄운 거나 '고징'이나.)

107060 # 메주콩 띄왕 곶아당 ㄴㅅ이고 밥을 헨 놓나. 우리 저디 고치행 해도, 텡  
기는 사람 빌어근에 허민 그 저 거시기 옛날에 정중.(메주콩 띄워서 갈아다가 놓고

밥을 해서 놓거나 우리 저기 고추해서 해도, 다니는 사람 빌어서 하면 그 저 거시기 옛날에 정종.)

107060 @ 정종?(정종?)

107060 # 응, 정종 난 됴드라고.(응, 정종 놔서 담그더라고.)

107060 @ 아, 고치장을?(아, 고추장을?)

107060 # 응, 정종 난 됴안게. 겐 우리도 헐 됴아 놓기는 됴안 먹어놔어. 그 사람 고징 그든 건 아징 오꼭 정종을 이녀냥으로 헐. 이젿사람덜도 물엿도 남실 거라.(응, 정종 놔서 담그더라. 그래서 우리도 해서 담가 놓기는 담가서 먹었었어. 그 사람 ‘고징’ 같은 건 가져 오고 정종을 자기대로 해서. 이제 사람들도 물엿도 놓고 있을 거야.)

107060 @ 예, 이제사 무신.(예, 이제야 무슨.)

107060 # 물엿 난 헐실 겨우다.(물엿 놔서 하고 있을 겁니다.)

107063 @ 장 담글 때 혹시 영허민 안 웬다 허는 거 잇수과?(장 담글 때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있습니까?)

107063 # 선덜 구물 때, 그믐날쯤에 담는 건 탈이 엿주. 부정도 안허고 탈이 없어. 그잔 떼ن 것도 날을 봐사 됴아, 장도.(선달 저물 때, 그믐달쯤에 담그는 건 탈이 없지. 부정도 안 하고 탈도 없어. 그저 때는 그것도 날을 봐야 담아, 장도.)

107063 @ 아, 장도 날 봐서 담아.(아, 장도 날 봐서 담아.)

107063 # 게난 아무것도 안 들영 정월, 선덜 그물어가민 됴으민 뉼여. 날 안 봐도.(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서 정월, 선달 저물어가면 담그면 돼. 날 안 봐도.)

107063 @ 선달 그믐날은?(선달 그믐날은?)

107063 # 응, 구물어 가건 그자 됴으민 날 안 봐도 뉼곡. 이 저 장헐 됴젠 허민 이녀 남헐 목뻬날이나 이녀 범뻬날엔 장 안 됴아. 독날이나 만약에 독헐치, 개헐치 시민 그 헐치엔 장 안 됴아.(응, 저물어 가면 그저 담그면 날 안 봐도 되고. 이 저 장해서 담그려고 하면 자기 남편 ‘목뻬날’이나 자기 ‘범뻬날’엔 장 안 담가. 닭날이나 만약 닭띠, 개띠 있으면 그 띠엔 장 안 담가.)

107063 @ 아, 그날은 안 담그는 거.(아, 그날은 안 담그는 거.)

107063 # 응, 장 안 됴아. 쿵은 늦영 삶으민 거 날 봐서 삶곡.(응, 장 안 담가. 쿵은 늦어서 삶으면 그거 날 봐서 삶고.)

107063 @ 쿵 삶으는 것도 날 봐사?(쿵 삶는 것도 날 봐야?)

107063 # 응, 묵은해 삶은 건 날 안 봐도 되고.(응, 묵은해 삶은 건 날 안 봐도 되고.)

107063 @ 아, 묵은헐 괜찮고.(아, 묵은헐 괜찮고.)

107063 # 응. 것도 날 봐사.(응. 그것도 날 봐야.)

107063 @ 것도 햇빔 나민 뚜껑 열어주고 헐사주예?(그것도 햇빔 나면 뚜껑 열어주고 해야지요?)

107063 # 장 됴앙양 저 황에 됴으민 황에 헐 됴앙 그디 요시 두더운 비니루덜

시지 안허파?(장 담가서요 저 항아리에 담그면 항아리에 해서 담가서 거기 요새 두꺼운 비닐들 있지 않습니까?)

107063 @ 예.(예.)

107063 # 두더운 비니루 해근에 콩 저 딱 뚜껑 내불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두께 더끄젠 안허고 걷젠 안허고.(두꺼운 비닐 해서 콩 저 딱 묶어서 내버리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두껍 더으려고 안 하고 걷으려고 안 하고.)

107063 @ 하하하. 옛날엔 무사 장항 더끄레.(하하하. 옛날엔 왜 장항아리 덮으러.)

107063 # 옛날엔 갱 안행 내불민 장항 두께 더끄레 장항 더끄레 오죽 해났어. 이젠 갱 안해. 게난 이제도 경허는 사름 서도, 우리도 늙신디 배완 경허난 꼬딱 안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아멩치도 안해.(옛날엔 그렇게 안해서 내버리면 장항아리 두껍 더으러 장항아리 덮으러 오죽 했었어. 이젠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이제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도. 우리도 남에게 배워서 그러니까 꼬딱 안 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아무렇지도 않아.)

107063 @ 옛날은 몰란에 갱.(옛날은 몰라서 그렇게.)

107063 # 몰란. 옛날 사름덜 나나 늙이나 멍청허게.(몰라서. 옛날 사람들 나나 늙이나 멍청하게.)

107063 @ 아이고, 무슨.(아이고, 무슨.)

107063 # 나도 농장일 허레 텅기멍 저거 다 배웠수게. 장항 뚜껑 더끄지 못헤영 아이고 장항 뚜껑 열앙 허민 아 무사 장항 뚜껑 열앙, 열앙 험이펜. 딱 행 영행 봉행 놔두민 꼬딱 안헉니덴. 나 해보난 꼬딱 안 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항 뚜껑 더끄젠 안허고 걱정 안 해.(나도 농장일 하러 다니면서 저거 다 배웠습니다. 장항아리 뚜껑 덮지 못해서 아이고 장항아리 뚜껑 열어서 하면 아 왜 장항아리 뚜껑 열어서, 열어서 하는 것이냐고. 딱 해서 이렇게 해서 봉해서 놔두면 꼬딱 안 한다고. 나 해보니까 꼬딱 안 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항아리 뚜껑 덮으려고 안하고 걱정 안 해.)

107063 @ 아, 옛날엔 무사 갱 장항 뚜껑. 비 와 가민 장항뚜껑 더끄레.(아, 옛날엔 왜 그렇게 장항아리 뚜껑. 비 와 가면 장항아리 뚜껑 덮으러.)

107063 # 이제 갱 험수게. 물론 사름덜. 거 아니 해본 사름은. 갱행 우린 경허민 종넨 행에 해보난 좋논디. 모른 사름은 시방도 경헤. 그자 부리만 험벅행 쌍 내비엇당 물 들영 걷엇다, 더꼈다.(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른 사람들. 그거 아니 해본 사름은. 그렇게 해서 우린 그러면 좋다고 해서 해보니까 좋은데. 모든 사름은 시방도 그렇게 해. 그저 부리만 형꼴해서 싸서 내버렸다가 물 들어서 걷엇다, 덮엇다.)

107063 @ 경헤도 흐뎡 저 브름도 흐뎡 들어가사.(그래도 조금 저 바람도 조금 들어가야.)

107063 # 브름 거 벧 감수게? 비니루로게.(바람 그거 별 가잖습니까? 비닐로.)

107063 @ 경해도 비니루로 허민 막 물 생깁니까?(그래도 비닐로 하면 막 물 생기잖습니까?)

107063 # 물 지랑지랑 안에 생겨도 아뭇치도 안혀.(물 ‘지랑지랑’ 안에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아.)

107063 @ 아뭇치도 안혀여?(아무렇지도 않아?)

107063 # 아뭇치도 안해. 원 담양 딱 부리 쌍 내불민 걱정 있어.(아무렇지도 않아. 원 담아서 딱 부리 싸서 내버리면 걱정 없어.)

## 떡류

107064 @ 게민 이번엔 떡예, 떡. 옛날엔 떡은 이 동네 떡은 무신 떡, 무신 떡 해놔수과?(그러면 이번엔 떡요, 떡. 옛날엔 떡은 이 동네 떡은 무슨 떡, 무슨 떡 했었습니까?)

107064 # 옛날 떡이나 어디 상동이나 하동이나 큰일밭디 떡허는 건 친떡은 모 인좁쌀 곁아근에 감제 농곡 해영 박박 밀영 저 쉬 낱 치는 거, 풋쉬도 농곡 콩쉬도 농곡 경행 떡허곡. 따시 또 제스 때나 영장 때 상에 싱그는 건 저 곤쫂이라도 곁앙 친떡 치는디 쉬 안 낱 혼 디도 싯곡 풋쉬도 낱 허는 디도 싯곡. 경.(옛날 떡이나 어디 상동이나 하동이나 큰일밭에 떡하는 건 시루떡은 메좁쌀 갈아서 고구마 놓고 해서 박박 밀어서 저 소 넣어서 찌는 거, 팔소도 놓고 콩소도 놓고 그렇게 해서 떡하고. 다시 또 제사 때나 상 때 상에 올리는 건 저 흰쌀이라도 갈아서 시루떡 찌는데 소 안 놔서 한 데도 있고 팔소 놔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107064 @ 건 친떡예.(그건 시루떡요.)

107064 # 겨곡 절벤 솔벤허는 디도 잇곡, 따시 요새엔 그 세미<sup>152)</sup>엔 허영 동글랑 동글랑흔 거도 싯곡, 다 이녁만씩 허구정헌 대로 험수게.(그리고 절편, 솔편하는 데도 있고, 다시 요새엔 그 ‘세미’라고 해서 동글동글한 거도 잇고, 다 자기만큼씩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107064 @ 새민 어떻헌 거파?(‘세미’는 어떻게 한 겁니까?)

107064 # 세미엔 현 건 우리 집인 저 솔펜, 솔펜허민 옛날엔 그디 친떡허곡 저 인절미<sup>153)</sup>, 솔펜, 절벤 우썩 안 해놔수과?(‘세미’라고 한 건 우리 집엔 저 솔편, 솔편하면 옛날엔 거기 시루떡하고 저 ‘인절미’, 솔편, 절편, 웃기 안 했었습니까?)

107064 @ 예,(예.)

107064 # 거 솔펜 대신 이 저 송편만 행 조개송편만 행 올리는 디도, 우리 집인 똑 세미 영 소랑소랑헌 거 술잔으로 툽툽 떠낱 줍앙 만두ㄱ치 줍앙 세미도 올리고. (그거 솔편 대신 이 저 송편만 해서 조개송편만 해서 올리는 데도, 우리 집엔 꼭 ‘세미’ 이렇게 가름가름한 거 술잔을 툽툽 떠 노서 접어서 만두처럼 접어서 ‘세미’도 올리고.)

152) ‘세미’는 ‘세미떡’을 말하는 것으로 쌀가루나 메밀가루로 반죽하여 조개송편 모양으로 만든 떡이다.

153) ‘인절미’는 메밀가루이나 쌀가루로 반죽하여 만든 정사각형 모양의 떡이다.



107064 @ 속에 무신거 놓니까?(속에 뭐 놓습니까?)

107064 # 거 게 아무거, 요새 콩덜, 요새허는 사름덜 만뒤콩덜 풀지 안험수과?  
퍼렁헌 콩. 그거 허는 사름, 이녁집이 신 사름은 께에 설탕도 낱 허곡.(그거 게 아무거, 요새 콩들, 요새하는 사람들 만두콩들 팔지 않습니까? 퍼런 콩. 그거 하는 사람, 자기집에 있는 사람은 께에도 설탕도 낱서 하고.)

107064 @ 옛날은?(옛날은?)

107064 # 옛날도 풋덜 시난 옛날도 경행 해나고. 옛날은 솔벤 절벤 해낫주, 경안 해낫수게.(옛날도 팔들 있으니까 옛날도 그렇게 해서 했었고. 옛날은 솔편, 절편 했었지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107064 @ 새민 안 해낫수과? 솔벤, 절벤허민?(‘세미’는 안 했었습니까? 솔편, 절편하면?)

107064 # 솔벤 절벤허민 것이, 절벤, 인절미. 옛날엔 떡이 멧 가지라? 저편허곡 그디 인절미 농곡 솔벤 농곡, 절벤 농곡. 우찍허고. 멧 가지파, 옛날에? 이젠 친떡헌 사름 솔벤, 인절민 이제 안험수게덜, 신식으로덜. 게난 이젠 절벤, 솔벤, 우찍베끼 안 험수게. 우찍은 젤 우이 거고.(솔편 절편하면 그것이, 절편, 인절미. 옛날엔 떡이 멧 가지야? 저편하고 거기 인절미 놓고 솔편 놓고, 절편 놓고. 웃기하고. 멧 가집니까, 옛날에? 이젠 시루떡한 사람 솔편, 인절미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신식으로 들. 그러니까 이젠 절편, 솔편, 웃기밖에 안 합니다. 웃기는 젤 위의 거고.)

107064 @ 우찍은 무신걸로 험니까?(웃기는 뭐로 합니까?)

107064 # 찰솔로 허는, 찰솔로 하영 험니께.(찰쌀로 하는, 찰쌀로 많이 합니다.)

107064 @ 지름떡인가?(기름떡인가?)

107064 # 응, 지름떡. 그것가.(응, 기름떡. 그것이.)

107064 @ 그것가 우찍?(그것이 웃기?)

107064 # 옛날엔 우찍이엔 해낫수게. 이젠 지름떡인디 옛날은 우찍. 열 종류 떡에 우찍ㄴ치 이젠.(옛날엔 웃기라고 했었습니다. 이젠 기름떡인데 옛날은 웃기. 열 종류 떡에 웃기처럼 이젠.)

107064 @ 예, 무신거라?(예, 무엇이라?)

107064 # 옛날 할망덜은 열 곳에 우찍이엔 헌 말. 우이 지중 올라가난 그거 지중 우이 올리주게, 지름떡을. 게난 우찍. 경혜부난 우찍. 우이 올려부난 우찍. 옛날에 다, 이제덜은 다 무대쁘라도. 옛날은 우찍, 우이 올려부난 우찍.(옛날 할머니들은 열 종류에 웃기라고 한 말. 위에 제일 올라가니까 그거 제일 위에 올리지, 기름떡을. 그러니까 웃기. 그렇게 해버리니까 웃기. 위에 올려 버리니까 웃기. 옛날에 다, 이제들은 다 무조건이라도. 옛날은 웃기, 위에 올려 버리니까 웃기.)

107064 @ 아까 저편은 무신거파?(아까 제편은 무엇입니까?)

107064 # 저편은게 곤솔행 친떡 친 거 저편 아니파?(제편은 흰쌀해서 시루떡 쥔 거 제편 아닙니까?)

107064 @ 아.(아.)

107064 # 옛날은 그거 문떡 저펜이엔 요만큼 놓명 반 해낫수게게.(옛날은 그거 모두 제편이라고 요만큼씩 놓으면서 반기 했었습니다.)

107065 @ 아까 친떡인디.(아까 시루떡인데.)

107065 # 친떡도 쉬 논 건 문친떡.(시루떡도 고물 놓은 건 ‘문친떡’.)

107065 @ 쉬 논 건.(고물 놓은 건.)

107065 # 쉬 논 건, 곤썰에도 풋썰 놓나 콩을 쉬 놓민 문친떡이고.(고물 놓은 건, 흰쌀에도 팔고물을 놓거나 콩을 고물 놓으면 ‘문친떡’이고.)

107065 @ 문친떡이고.(‘문친떡’이고.)

107065 # 그 안 논 건 백떡이난 저펜, 흰떡.(그 안 놓은 건 백떡이니까 저편, 흰떡.)

107065 @ 흰떡은 저펜.(흰떡은 제편.)

107065 # 응. 옛날은 저펜.(응. 옛날은 제편.)

107065 @ 저펜은 그냥 흰 거예?(제편은 그냥 흰 거요?)

107065 # 흰 거, 흰 것만 행 옛날은 대썰 놔근에 그거 해낫주게. 대썰 낱.(흰 거, 흰 것만 해서 옛날은 댓잎 놔서 그거 했었지. 댓잎 놔서.)

107065 @ 대썰은 아, 대썰.(댓잎은 아, 댓잎.)

107065 # 응, 대썰 놔근에 수리댓잎 행 툇앙 놔근에 떡 처낫주, 옛날은, 시리예.(응, 댓잎 놔서 수리댓잎 해서 뜯어서 놔서 떡 찼었지, 옛날은, 시루예.)

107065 @ 대썰은 언제 놓는 거마써? 맨 밑에?(댓잎은 언제 놓는 거예요? 맨 밑에?)

107065 # 밑에고, 여라 징 놓젠 허민 그 시리 하나에.(밑에고, 여러 ‘징’ 놓으려고 하면 그 시리 하나에.)

107065 @ 징 사이에?(‘징’ 사이에?)

107065 # 응, 스이 스이에 낱 해낫어.(응, 사이사이에 놔서 했었어.)

107065 @ 아, 그디 대썰을 놔.(아, 거기 댓잎을 놔.)

107065 # 응, 경행 저펜.(응, 그렇게 해서 제편.)

107065 @ 쉬 안 놓는 대신에.(소 안 놓는 대신에.)

107065 # 쉬 안 낱, 응, 쉬 안 낱. 그게 저펜.(소 안 놔서, 응, 소 안 놔서. 그게 제편.)

107065 @ 그게 저펜.(그게 제편.)

107065 # 게난 옛날엔 우리 두린 때 큰일 허젠 허민. 저펜딸이, 큰딸이 저펜헌텐 허주. 준떡보다 하영 든덴 저펜, 큰딸이 해영.(그러니까 옛날엔 우리 어린 때 큰일 하려고 하면. 제편딸이, 큰딸이 제편한다고 하지. 잔 떡보다 많이 든다고 제편, 큰딸이 해서.)

107065 @ 아, 이거 쫄 하영 드난.(아, 이거 쌀 많이 드니까.)

107065 # 큰딸이 저펜 허여.(큰딸이 제편해.)

107065 @ 큰딸이 저펜 허여. 응.(큰딸이 제편해. 응.)

107065 # 거 큰 음식으로 저편을 먼저 곶양, 저편. 이젠 그거 대신 그자 흰떡 천 올리지 안험수과? 것쉬힐 때.(그거 큰 음식으로 제편을 먼저 말해서, 제편. 이젠 그거 대신 그자 흰떡 찌서 올리지 않습니까? 고물할 때.)

107065 @ 예.(예.)

107065 # 집이도 쉬 낱 것쉬힙니까? 그냥 흰 걸로 힙니까?(집에도 소 놔서 고물 합니까? 그냥 흰 걸로 합니까?)

107065 @ 우린 쉬 논 걸로.(우린 소 놓은 걸로.)

107065 # 쉬 낱 힙니까?(소 놔서 합니까?)

107065 @ 예.(예.)

107065 # 집이 성이 무시거파?(집에 성이 뭘니까?)

107065 @ 김칩이.(김씨집.)

107065 # 무신 김칩이?(무슨 김칩?)

107065 @ 김해 김씨. 아니 친정은 쉬 안 논 거 하얀 거 해.(김해 김씨. 아니 친정은 소 안 놓은 거 하얀 거 해.)

107065 # 쉬 안 낱 힙니까?(소 안 놔서 하잖습니까?)

107065 @ 예. 제주시 시집가난 쉬 낱 힙니다.(예, 제주시 시집가니까 소 놔서 하던데요.)

107065 # 시에달이나 허주, 촌드렌 쉬 안 낱 허주. 이 쫓쉬가, 쫓쉬가 귀신을 다 올린덴 허주. 큰일 때덜 영장 나거나 무시거허민 쫓 뿌리지 아녀?(시에들이나 하지, 촌엔 소 안 놔서 하지. 이 팔소가, 팔소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큰일 때들 상 나거나 무엇하면 팔 뿌리지 않아?)

107065 @ 예, 예.(예, 예.)

107065 # 쫓을 안 헌덴 허주.(팔을 안 한다고 하지.)

107065 @ 아, 우리 친정엔 그냥 하얀 거.(아, 우리 친정엔 그냥 하얀 거.)

107065 # 헤연 거.(허연 거.)

107065 @ 예, 헤연 거.(예, 허연 거.)

107065 # 우리 집이도 헤영헌 거.(우리 집에도 하얀 거.)

107065 @ 아.(아.)

107065 # 쉬 안 놔. 이 동네도 쉬 안 놔. 쉬 안 낱 그자.(소 안 놔. 이 동네도 소 안 놔. 소 안 놔서 그저.)

107074 @ 솔벤, 절벤은 어떻행 허는 거마씨?(솔편, 절편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107074 # 솔벤은 저 소랑헌 거 영 네 귀, 저 귀 난 걸로 툭툭허민, 이 사발로도 행 동글랑 사발로 툭행 벌르민 툭 귀나지 안힙니까? 그추룩 허민 그거 솔벤 소랑헌 거. 절벤은 영 동글동글헌 거 해근에 두 개 혼디 부썬 거 절벤.(솔편 절편은 저 가름한 거 이렇게 네 귀, 저 귀 난 걸로 툭툭하면, 이 사발로도 해서 동그란 사발로 툭해서 쪼개면 꼭 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 솔편 가름한 거. 절편은 이

렇게 동글동글한 거 해서 두 개 함께 붙인 거 절편.)

107073 @ 절편은 영 찍는 것도 잊지예?(절편은 이렇게 찍는 것도 잊지요?)

107073 # 거 절편 누르뜨는 본이 잊주게.(그거 절편 누르는 본이 있지.)

107073 @ 누르뜨는 본예.(누르는 본요.)

107073 # 영영 얹어진 거.(이렇게 이렇게 얹어진 거.)

107073 @ 얹어진 거예, 절편은 거난 두 개 영 부쥔 거지예?(얹어진 거요, 절편은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붙인 거지요?)

107073 # 응, 거 절편. 솔벤은 영 반달이 솔벤.(응, 그거 절편. 솔편은 이렇게 반달이 솔편.)

107073 @ 반달이 솔벤. 그건 허젠 허민 떡 영 반죽헿 밀영.(반달이 솔편. 그건 하려고 하면 떡 이렇게 반죽해서 밀어서.)

107073 # 기계방에 가민 다 해주주게.(공장에 가면 다 해주지.)

107073 @ 아니, 기계방 엇일 때.(아니, 공장 없을 때.)

107073 # 엇인 땀 이녁냥으로 밀영, 본이, 솔벤 본이 잊주게. 반달 본이 잊주게. 그걸로 트는 거.(없을 땀 자기대로 밀어서, 본이, 솔편 본이 있지. 반달 본이 있지. 그걸로 뜨는 거.)

107073 @ 그걸로 영 터근에. 물 껴와근에.(그걸로 이렇게 떠서. 물 끓여서.)

107073 # 삶양. 삶아냥 허곡.(삶아서. 삶아놔서 하고.)

107073 @ 삶아난 다음 어떻 찬물에 담가?(삶은 다음 어떻게 찬물에 담가?)

107073 # 삶아근에 그냥 껴어근에 허는 거주게.(삶아서 그냥 반죽해서 하는 거지.)

107073 @ 다 밀영 그다음에 찍은 다음에.(다 밀어서 그다음에 찍은 다음에.)

107073 # 밀영 터.(밀어서 떠.)

107073 @ 밀영 터. 그다음에 삶아.(밀어서 떠. 그다음에 삶아.)

107073 # 아, 삶은 건 어떻 안 허주게. 삶아 냇 아썩 삶은 건. 옛날은 이 산뒤꼴로 헤여부난 케삭케삭허난 그 생가루로 헤영 떡, 영 돌레떡을 멩글양 크게 멩글양 솟디 놔근에 삶주. 흥쌀 삶으민 우이 건 삶아지고 소곱에 건 안 삶아지민 그젠 껴어근에 이젠 그 떡을 헤영 따시 그 솔벤본으로 텅 저 솔입 난 처낫주, 솔입 난.(아, 삶은 건 어떻게 안 하지. 삶아 놔서 살짝 삶은 건. 옛날은 이 밭벼쌀로 해버리니까 ‘케삭케삭’하니까 그 생가루로 해서 떡, 이렇게 도래떡을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솔에 놔서 삶지. 조금 삶으면 위의 건 삶아지고 속에 건 안 삶아지고 그젠 반죽해서 이젠 그 떡을 해서 다시 그 솔편본으로 떠서 저 솔잎 놔서 찢었지, 솔잎 놔서.)

107073 @ 아, 그거 다시 시리에 냇 칩니까?(아, 그거 다시 시루에 놔서 찢니까?)

107073 # 솟디 냇.(솔에 놔서.)

107073 @ 솟디 냇 처.(솔에 놔서 찢.)

107073 # 솔입 길명, 새에 새에 솔입 농명 솟디 놔근에 거 처근에 씻어, 경헿

지름 불라, 옛날에.(술잎 깔면서, 띠에 띠에 술잎 놓으면서 술에 놔서 그거 찌서 씻어, 그렇게 해서 기름 발라, 옛날에.)

107073 @ 친 다음에 씻어?(찢 다음에 씻어?)

107073 # 응, 씻어야주게, 물에 낵.(응, 씻어야지, 물에 놔서.)

107073 @ 찬물에 낵 씻어? 경현 다음 지름 불라?(찬물에 놔서 씻어? 그런 다음 기름 발라?)

107073 # 응. 경행 물 빠지민 지름 불량, 옛날에. 이젠 다 기계방에 간 다 해완주. 기계방이 다 해줘.(응. 그렇게 해서 물 빠지면 기름 발라서, 옛날에. 이젠 다 공장에 가서 다 해오고 있지. 공장이 다 해줘.)

107073 @ 기계방에 허는 건 필요 엇고 옛날에 해난 거 물어봐주마씨.(공장에 하는 건 필요 없고 옛날에 했던 거 물어보고 있지요.)

107073 # 옛날엔 술입 낵 다 처근에 저펜도 다 썩 강 허고.(옛날엔 술잎 놔서 다 찌서 제편도 다 쭈어서 가서 하고.)

107073 @ 게문 솟디 물 놓고 그다음 무신거 놔?(그러면 술에 물 놓고 그다음 뭘 놔?)

107073 # 무시거 삶을 때?(뭘 삶을 때?)

107073 @ 아까 술벤, 절벤 칠 때.(아까 술편, 절편 찢 때.)

107073 # 절벤은 삶아 놔근에 그자 다라에 낵 막 귀엥 그자 영 동글동글 멩글 앙 그자 절벤본으로 뜨민 뉘고 술벤은 따시 또 흠치 안 삶으면 행 흐쫄 삶아근에 귀어근에 따시 돔베에 낵 밀엥 술벤본으로 땡 따시 술입 놓곡 솟디 낵 그 술입 깔 아낵 즈근즈근즈근 안 부뜨게 술입 놔 낵 따시 그레 뱅뱅 놔낵 따시 술입허고, 혼 서너니 줄썩 놔근에 치주게. 처낵 그 술입 건젠 허민 술입 부뜨난 물에 놓멍 술입도 건어불곡 것도 씻곡 행 낵 물 빠지민 지름 불르고 옛날에.(절편은 삶아 놔서 그저 대야에 놔서 막 반죽해서 그저 이렇게 동글동글 만들어서 그저 절편본으로 뜨면 되고 술편은 다시 또 함께 안 삶으면 해서 조금 삶아서 반죽해서 다시 도마에 놔서 밀어서 술편본으로 떠서 다시 술잎 놓고 솟에 놔서 그 술잎 깔아놔서 차근차근차근 안 붙게 술잎 놔 놓고 다시 그리 뱅뱅 놔 놓고 다시 술잎하고, 한 서너 줄썩 놔서 찌지. 찌놓고 그 술잎 건으려고 하면 술잎 붙으니까 물에 놓으면서 술잎도 건어버리고 그것도 씻고해서 놔서 물 빠지면 기름 바르고 옛날에.)

107073 @ 응, 절벤은 또 안 치는 거마씨?(응, 절편은 또 안 찌는 거예요?)

107073 # 응, 절벤은 흠치 삶앙 그냥 허곡.(응, 절편은 함께 삶아서 그냥 하고.)

107073 @ 아, 흠치 삶앙.(아, 함께 삶아서.)

107073 # 절벤은 흠치 문짝 삶앙.(절편은 함께 푹 삶아서.)

107073 @ 아.(아.)

107073 # 삶앙 귀어근에.(삶아서 반죽해서.)

107073 @ 삶앙 귀엥 본 텅 그다음엔 지름 불라?(삶아서 반죽해서 본 떠서 그다음엔 기름 발라?)

107073 # 응, 아니 솔벤은 그냥, 절벤은 그냥 흠치행 헉나씩 헉나씩 영 동글동글 해낭 속속 혼디 부짱 누르뜨민 절벤본으로 누르땡.(응, 아니 솔편은 그냥, 절편은 그냥 한꺼번에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동글동글 해와서 속속 함께 붙여서 누르면 절편본으로 눌러서.)

107073 @ 거민 곳?(그러면 끝?)

107073 # 응. 경허민 곳. 우린 옛날에 산뒤솔 엇이곡 허난 피좁쌀이엔 현 조 님은 거 따끄민 피솔 님은 떡허민 산뒤솔 헉솔 농곡 허민 시집간 때 그걸 행 솟으면 저 도룻밧 강칩이 소문난 집이주. 그디 시집가난에, 이제 그 떡을 못 잘랑 허민 옛날엔 절벤떡 못 잘르민 친정에 정 간덴 허멍, 해변께난 그것도 못 잘람덴 그 떡을 다허젠 허민 땀이 찰찰 나. 이디서 웃드르 저디 시집가근에 곳인 방상에 시집가민 그 제사 때도 혼 말씩 떡을 허주게.(응. 그러면 끝. 우린 옛날에 밭벼쌀 없고 하니까 피좁쌀이라고 한 조 같은 거 장만하면 피쌀 같은 떡하면 밭벼쌀 조금 놓고 하면 시집간 때 그걸 해서 솟으면 저 ‘도룻밧’ 강칩이 소문난 집잇. 거기 시집가니까, 이제 그 떡을 못 잘라서 하면 옛날엔 절편떡 못 자르면 친정에 저서 간다고 하면서, 해변이니까 그것도 못 자른다고 그 떡을 다하려고 하면 땀이 뻘뻘 나. 여기서 중산간 저기 시집가서 갓춘 일가불이에 시집가면 그 제사 때도 한 말씩 떡을 하지.)

107073 @ 예.(예.)

107073 # 경허민 그 떡을 탕탕헌 떡을 솟앙 허젠 허민 기가 맥히게 달와났어.(그러면 그 떡을 탕탕한 떡을 삶아서 하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반죽했어.)

107073 @ 달루는 건 어떻허는 거마씨?(‘달루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7073 # 아까 막 동글동글 해는 걸 막 풀렁 절벤 동글동글 요추룩 멘들젠 허민 걸 막 누르땡 불와야주게.(아까 막 동글동글 해놓은 걸 막 풀어서 절편 동글동글 요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걸 막 눌러서 불려야지.)

107073 @ 예.(예.)

107073 # 경헌덴 허는 말이주. 방상이 참 도룻밧 강칩이 소문난 집이 시집가전 그 방상 뜨루젠 허난 잘도 해났어.(그런다고 하는 말이지. 일가불이가 참 ‘도룻밧’ 강칩이 소문난 집에 시집가게 되서 그 일가불이 따르려고 하니까 잘도 했었어.)

107073 @ 아까 할아버지네 집은 무신 집이라마씨?(아까 할아버지네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107073 # 강칩, 도룻밧 강칩.(강칩, ‘도룻밧’ 강씨 집.)

107073 @ 도룻밧 강칩?(‘도룻밧’ 강씨 집?)

107073 # 응, 강칩 우리 집이.(응, 강씨 집 우리 집이.)

107073 @ 도룻밧은 어디?(‘도룻밧’은 어디?)

107073 # 도룻밧은 어딘지 모르고 신천 강씨라.(‘도룻밧’은 어딘지 모르고 신천 강씨야.)

107073 @ 신천?(신천?)

107073 # 성 이름이 신천이주게.(성 이름이 신천이지.)

107073 @ 아, 신천 강씨.(아, 신천 강씨.)

107073 # 응, 소문난 강씨주. 저 법환이 강집 해주.(응, 소문난 강씨지. 저 법환에 강집 많지.)

107072 @ 아. 그민예 인절미, 인절민 어떻게 하는 거마씨?(아. 그러면요 인절미, 인절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7072 # 인절민 곤썰헤여근에 옛날엔 곤썰도 헤영 허곡 저 좁썰도 헤영 허는디 곤썰 헤여근에 밀영 네귀방장헌 거 인절미.(인절미는 흰쌀해서 옛날엔 흰쌀도 해서 하고 저 좁쌀도 해서 하는데 흰쌀 해서 밀어서 네모반듯한 거 인절미.)

107072 @ 아, 곤썰로 네귀방장허게, 모뭇썰로 안 해?(아, 흰쌀로 네모반듯하게, 메밀쌀로 안 해?)

107072 # 모뭇썰 잇이민 곤썰로도 헤여.(메밀쌀 없으면 흰쌀로도 해.)

107072 @ 아, 모뭇썰이 원래 허는 거?(아, 메밀쌀이 원래 하는 거?)

107072 # 모뭇썰도 원래 허는 거주.(메밀쌀도 원래 하는 거지.)

107072 @ 네모방장허게?(네모반듯하게?)

107072 # 네귀방장허게. 밀영 네귀방장허게. 경행 숭으민게.(네모반듯하게. 밀어서 네모반듯하게. 그렇게 해서 삶으면.)

107072 @ 계민 그건 ㄱ루로 헤근에 밀영.(그러면 그건 가루로 해서 밀어서.)

107072 # 밀영 그자 네귀방장허게 행 그자.(밀어서 그자 네모반듯하게 해서 그저.)

107072 @ 그다음 치는 거 그다음에?(그다음 찌는 거 그다음에?)

107072 # 삶으는 거.(삶는 거.)

107072 @ 응.(응.)

107072 # 저 모뭇썰론 허민 숭곡 따시 곤썰로 허민 치곡.(저 메밀쌀로는 하면 삶고 다시 흰쌀로 하면 찌고.)

107072 @ 아. 모뭇썰은 삶으고 곤썰은 치고.(아. 메밀쌀은 삶고 흰쌀은 찌고.)

107072 # 응.(응.)

107075 @ 우썩은 지금 기름떡허듯이 허는 건가, 영 본으로 딱딱 찍어근에?(웃기는 지금 기름떡하듯이 하는 건가, 이렇게 본으로 딱딱 찍어서.)

107075 # 응. 옛날도 그건 그거. 옛날은 정헌디 쪼끔만 헌 걸로 허영 벨롱벨롱허게 헤낫주. 이제 ㄱ치 기름떡 ㄱ치 크게 헤낫어?(응. 옛날도 그건 그거. 옛날은 그렇게 한테 조그마한 걸로 해서 ‘벨롱벨롱’하게 했었지.)

107075 @ 아, 이젠 막 크게 헌 거고.(아, 이젠 아주 크게 한 거고.)

107075 # 옛날은 정 안 헤난.(옛날은 그렇게 안 했었어.)

107066 @ 송편은?(송편은?)

107066 # 송편게 그거 반달 닮은 거 송편이주.(송편 그거 반달 같은 거 송편이지.)

107066 @ 송편도 옛날에도 헤낫수과?(송편도 옛날에도 했었습니까?)

107066 # 송편, 절편<sup>154</sup>), 술편<sup>155</sup>) 옛날부터 난 거.(송편, 절편, 술편 옛날부터 난 거.)

107066 @ 송편도?(송편도?)

107066 # 응, 거 옛날에 난 거. 이제사 영 동글동글한 떡 험주, 옛날엔 그거 안 해놔어.(응, 그거 옛날에 난 거. 이제야 이렇게 동글동글한 떡 하고 있지. 옛날엔 그거 안 했었어.)

107066 @ 송편 옛날엔 세미떡<sup>156</sup>추룩 반달? 조개추룩?(송편 옛날엔 ‘세미떡’처럼 반달? 조개처럼?)

107066 # 조개추룩 쯔쨌헨 거. 반들ㄴ치 영 큰 건 술편이고 시방 요추룩 동글동글 헨 건 그것ㄴ란 요셋사름덜 송편이엔 안험수과? 그거주게, 요새.(조개처럼 자잘한 거. 반달처럼 이렇게 큰 건 술편이고 시방 요렇게 동글동글한 건 그것보곤 요새 사람들 송편이라고 안합니까? 그거지, 요새.)

107066 @ 요새 송편인디 옛날 송편은?(요새 송편인데 옛날 송편은?)

107066 # 옛날엔 그거 엇어놔어.(옛날엔 그거 없었었어.)

107066 @ 아, 옛날은 그거 엇어놔수과?(아, 옛날은 그거 없었었습니까?)

107066 # 반들 닳은 거 허고 절편 술편허곡 인절미허곡 해놔주.(반달 같은 거 하고 절편 술편하고 인절미하고 했었지.)

107066 @ 송편은 안 해난예?(송편은 안 했었어요?)

107066 # 옛날은 안 해난. 그거 우리 옥은 후제.(옛날은 안 했었어. 그거 우리 큰 후에.)

107066 @ 아, 옥은 후제. 그 안에 쉬, 풋쉬 놔근에.(아, 큰 후에. 그 안에 소, 팔소 놔서.)

107066 # 응, 영 접는 거. 옛날은 안 엇어난.(응, 이렇게 접는 거. 옛날은 안, 없었었어.)

107066 @ 아, 옛날은 엇어나고예.(아, 옛날은 없었고요.)

107066 # 나 곤는 절편 술편이 옛날 떡.(나 말하는 절편 술편이 옛날 떡.)

107066 @ 이젠 침떡허고 송편만 허는디.(이젠 시루떡하고 송편만 하는데.)

107066 # 이젠 경험주게. 경험 두 가지만 허고. 우리 집인 세 가지. ‘세미’ㄴ장 세 개허영.(이젠 그렇게 하고 있지. 그렇게 해서 두 가지만 하고. 우리 집엔 세 가지. ‘세미’까지 세 개해서.)

107078 @ 세미ㄴ장 해. 세미영 송편이영 비슷한 거 아니?(‘세미’까지 해. ‘세미’랑 송편이랑 비슷한 거 아니?)

107078 # 송편은 영 동글동글헨 거 해도, 술잔으로 요만씩 요만씩 세미, 만뒤ㄴ치 쯔쨌헨 거 해영 올려, 시방도.(송편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해도, 술잔으로 요만큼씩 요만큼씩, 만두같이 자잘한 거 해서 올려, 시방도.)

154) ‘절편’은 둥근 떡살로 눌러 만든 흰떡으로 절편과 비슷하다.

155) ‘술편’은 반달 모양의 본으로 눌러 만든 흰떡이다. ‘반들떡’, ‘돌반착떡’이라고도 한다.

156) ‘세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를 반죽한 후에 안에 팔소 등을 넣어 반달모양으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107078 @ 시방도. 그믐 속에 쉼 송편이영.(시방도. 그러면 속에 소는 송편이랑.)  
 107078 # 아무거라도 놔. ㄴ치ㄴ치 놔.(아무거라도 놔. 같이 같이 놔.)  
 107078 @ ㄴ치ㄴ치 놔, 세미나 송편이나?(같이 같이 놔, ‘세미’나 송편이나?)  
 107078 # 응, 쉬 논 딴 놔도 경행 딱 올려. 우리 시방도 허민 그거 허곡 지름떡 허곡 그거허곡 허민.(응, 소 놓은 텐 놔도 그렇게 해서 딱 올려. 우리 시방도 하면 그거 하고 기름떡하고 그거하고 하면.)  
 107078 @ 네 가지.(네 가지.)  
 107078 # 네 가지 올려.(네 가지 올려.)  
 107078 @ 떡은 네 가지 올림구나예. 할머니 이젠예. 옛날 식게할 땐 멧 개나 올린 거파, 계란?(떡은 네 가지 올리는군요. 할머니 이젠요. 옛날 제사할 땐 멧 개나 올린 겁니까, 그러니까?)  
 107078 # 그거 착맞게<sup>157)</sup> 올림 열다섯 개. 술편 열다섯 개난 절벤도 것도 열다섯 개 올려야해. 짹맞게만, 짹그르게<sup>158)</sup>만.(그거 짹 맞게 올려서 열다섯 개. 술편 열다섯 개니까 절편도 그것도 열다섯 개 올려야 해. 짹 맞게만, 짹 그르게만.)  
 107078 @ 아, 짹그르게만 올리민 돼여.(아, 짹 그르게만 올리면 돼.)  
 107078 # 이 심방신디 가는 건 짹 맞게 허고 귀신은 짹글르게. 뭐라도 짹글르게. 이 절간도 세 고지 안 올리민 다섯 고지, 다섯 고지 아니민 일곱 고지 올려.(이 무당에게 가는 건 짹 맞게 하고 귀신은 짹 그르게. 뭐라도 짹 그르게. 이 절간도 세 꼬치 안 올리면 다섯 꼬치, 다섯 꼬치 아니민 일곱 꼬치 올려.)  
 107068 @ 이디도 상웨떡 해낫수과? 상웨떡은 어떤 거파?(여기도 상화떡 했었습니까? 상화떡은 어떤 겁니까?)  
 107068 # 상웨떡은 밀ㄴ루 해근에 몰아근에 영 폭 고아근에 북삭해영 몰앙 놔두민 크게 이만이 올라오주. 그거 옛날에 우리 상웨떡을 해여근에 돔베에 밀영 따시 또 송편허젠 허민 툫툫 터다근에 저 방안에 다 널영, 널영 놔두민 이만이 부꺼오민 그젠 청 상웨떡 해낫어.(상화떡은 밀가루 해서 반죽해서 이렇게 폭 고아서 북삭해서 말아서 놔두면 크게 이만큼 올라오지. 그거 옛날에 우리 상화떡을 해서 도마에 밀어서 다시 또 송편하려고 하면 툫툫 떠다가 저 방안에 다 널어서, 널어서 놔두면 이만큼 부풀어 오르면 그젠 찌서 상화떡 했었어.)  
 107068 @ 소곱에 뭐 안 놔?(속에 뭐 안 놔?)  
 107068 # 안 놔.(안 놔.)  
 107068 @ 밀ㄴ루로예?(밀가루로요?)  
 107068 # 밀ㄴ루. 경허민 그 옛날 떡이 이제도 영 사당 떡행 먹어보민 상웨떡 사온 것가 좋아, 친떡보다.(밀가루. 그러면 그 옛날 떡이 이제도 이렇게 사다가 떡해서 먹어보면 상화떡 사온 것이 좋아, 시루떡보다.)  
 107068 @ 그믐 상웨떡은 언제 행 먹는 거마씨? 이것도 식게 때 허는 거?(그믐

157) ‘착맞다’는 짹이 맞는 것으로 짹수가 됨을 말한다.

158) ‘착그르다’는 짹이 맞지 않는 것으로 흘수가 됨을 말한다.

상화떡은 언제 해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 때 하는 거?)

107068 # 제스 때. 팔월에 여름에 허주게, 상웨떡. 팔월 멧질에. 여름에 제스허는 사름덜, 이 오월 그든 때 제스허는 사름 상웨떡 허곡 저을엔 안 허곡.(제사 때. 팔월에 여름에 하지, 상화떡. 팔월 멧질에. 여름에 제사하는 사람들, 이 오월 같은 때 제사하는 사람 상화떡 하고 겨울엔 안 하고.)

107068 @ 저을엔 안 허고.(겨울엔 안 하고.)

107068 # 여름에만. 상웨떡.(여름에만. 상화떡.)

107069 @ 게민 아까 제사할 때는 친떡허고.(그러면 아까 제사할 때는 시루떡하고.)

107069 # 친떡 옛날에.(시루떡 옛날에.)

107069 @ 아, 저펜, 저펜허고.(아, 제편, 제편하고.)

107069 # 저펜허고.(제편하고.)

107069 @ 술벤허고.(술편하고.)

107069 # 저펜허곡, 인절미허고, 술벤허곡 절벤허곡 우찍허고 거 다섯 가지.(제편하고, 인절미하고, 술편하고 절편하고 웃기하고 그거 다섯 가지.)

107069 @ 아, 옛날에 다섯 개 헤낫구나예?(아, 옛날에 다섯 개 했었군요?)

107069 # 짹글르게 다섯 개.(짹 그르게 다섯 개.)

107069 @ 아, 이것도 짹글르게.(아, 이것도 짹 그르게.)

107069 # 게난 떡도 두 빗<sup>159)</sup> 다 행 올리는 디, 따시 또 올리는 디, 혼 빗이민 영 반 빗 올령 짹글르게 친떡도 올리주만은 이젠 친떡은 그자 두 빗 올려.(게난 떡도 두 ‘빗’ 다 해서 올리는 데, 다시 또 올리는 데, 한 ‘빗’이면 이렇게 반 ‘빗’ 올려서 짹 그르게 시루떡도 올리지만 이젠 시루떡은 그저 두 ‘빗’ 올려.)

107069 @ 아, 짹글르게 허젠 허난 반 빗만도 행 올련마씨?(아, 짹 그르게 하려고 하니까 반 ‘빗’만도 해서 올렸어요?)

107069 # 반 빗, 두 빗에 반 빗허민 두 빗 반.(반 ‘빗’, 두 ‘빗’에 반 ‘빗’하면 두 ‘빗’ 반.)

107069 @ 두 빗 반.(두 ‘빗’ 반.)

107069 # 응, 짹글르게 허젠 허민. 경헤신디 이젯사름덜은.(응, 짹 그르게 하려고 하면.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은.)

107069 @ 그냥 두 빗 올리는다.(그냥 두 ‘빗’ 올리는데.)

107069 # 두 빗 올려. 경허곡 다른 건 다 짹글르게 허곡. 송펜이나 절벤 그든 건 다 짹글르게. 다섯 개 딱딱 다섯 개. 적도 경허곡 묵도 다섯 개 꿰는디 요새엔 쉼레기적, 도새기고기적 허민 그건 다섯 점 안 돼지.(두 ‘빗’ 올려. 그리고 다른 건 다 짹 그르게 하고. 송편이나 절편 같은 건 다 짹 그르게. 다섯 개 딱딱 다섯 개. 적도 그렇게 하고 묵도 다섯 개 꿰는데 요새엔 소고기적, 돼지고기적 하면 그건 다섯 점 안 되지.)

---

159) ‘빗’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날개를 세는 말이다.

107069 @ 예. 게민 누게 영장 난 때도 떡 영 똑ㄴ치 합니까?(예. 그러면 누가 상 난 때도 떡 이렇게 똑같이 합니까?)

107069 # 응, 제스 다 지내영. 다ㄴ찌.(응, 제사 다 지내어서. 다같이.)

107070 @ 영장난 때 특별히 허는 떡은 엇수과?(상 났을 때 특별히 하는 떡은 없습니까?)

107070 # 엇어, 다 ㄴ찌 ㄴ찌.(없어, 다 같이 같이.)

107070 @ 다 ㄴ찌 ㄴ찌.(다 같이 같이.)

107070 # 제스 지냄은 다 매일반이주게. 게난 제스 땐 다 매일반으로 허여.(제사 지냄은 다 매일반이지. 그러니까 제사 땐 다 매일반으로 해.)

107070 @ 제스떡이나 영장떡이나 똑ㄴ뜨구나예.(제사떡이나 ‘영장떡’이나 똑같군요.)

107070 # 응, 매일반.(응, 매일반.)

107076 @ 그든 저 어디 당에 갈 때 떡은 어떤 떡 합니까?(그러면 저 어디 당에 갈 때 떡은 어떤 떡 합니까?)

107076 # 어디 간 때?(어디 간 때?)

107076 @ 어디 당에나.(어디 당에나.)

107076 # 당에 갈 땐 돌레떡.(당에 갈 땐 도래떡.)

107076 @ 아, 돌레떡. 돌레떡은 무신걸로?(아, 도래떡. 도래떡은 뭐로?)

107076 # 그건 곤 ㄴ루도 곶아다 낫당 돌레떡허고, 모물ㄴ루도 곶아당 돌레떡도 허곡 해. 그건 딱 짝 맞게.(그건 고운 가루도 곶아다 낫다가 도래떡하고, 메밀가루도 곶아다가 도래떡도 하고 해. 그건 다 짝 맞게.)

107076 @ 그건 짝 맞게.(그건 짝 맞게.)

107076 # 열여섯 개민 열여섯 개 열으답 개민 열으답 개 딱 짝 맞게.(열여섯 개면 열여섯 개, 열여덟 개면 열여덟 개 딱 짝 맞게.)

107076 @ 돌레떡은 어떻 멘드는 거마씨?(도래떡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107076 # 그건 모물ㄴ루 곶아다근에 낫다근에 물 꿩영 낱 영 툇앙 팍팍 누르땡 툇랑 그 손으로 영 동글동글 ㄴ나 따시 또 못 허는 사름은 요런 보시로 트나 행.(그건 메밀가루 곶아다가 낫다가 물 끓여서 놔서 이렇게 반죽해서 팍팍 눌러서 반죽해서 그 손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반죽하거나 다시 또 못 하는 사람은 요런 접시로 뜨나 해서.)

107076 @ 경헝 다시 처? 삶아?(그래서 다시 찌? 삶아?)

107076 # 게민 모물떡 삶아.(그러면 메밀떡 삶아.)

107076 @ 삶아, 모물은 삶아. 모물떡이난.(삶아, 메밀은 삶아. 메밀떡이니까.)

107076 # 경헝 떡은 산뒤도 삶아도 돼어.(그런 떡은 발벼도 삶아도 돼.)

107076 @ 아, 경헝 떡은 산뒤떡도 삶아도 돼는구나예.(아, 그런 떡은 발벼쌀떡도 삶아도 되는군요.)

107076 # 응. 삶아도 돼어.(응. 삶아도 돼.)

107076 @ 집에서 만약에 굿할 땐 또 다른 떡?(집에서 만약에 굿할 땐 또 다른 떡?)

107076 # 그런 떡. 동글랑헌 떡.(그런 떡. 동그란 떡.)

107076 @ 돌레떡?(도래떡?)

107076 # 응.(응.)

107076 @ 돌레떡 말고 다른 떡은 안 해?(도래떡 말고 다른 떡은 안 해?)

107076 # 요 손 저 조메떡<sup>160)</sup>이엔 헌 거 소름소름헌 거.(요 손 저 ‘조메떡’이라고 한 거 기름기름한 거.)

107076 @ 다대떡?(부조떡?)

107076 # 조메떡, 소름소름헌 거 허고 그 저 동글랑떡허고 친떡베끼 안허여. 굿할 땐 세 가지.(‘조메떡, 기름기름한 거 하고 그 저 동그란 떡하고 시루떡밖에 안 해. 굿할 땐 세 가지.)

107076 @ 조메떡허고 아까 돌레떡허고.(‘조메떡’하고 아까 도래떡하고.)

107076 # 돌레떡허고 친떡.(도래떡하고 시루떡.)

107076 @ 침떡허고 영 세 개 허는 거꽈?(시루떡하고 이렇게 세 개 하는 겁니까?)

107076 # 응, 세 개베끼 안 허여.(응, 세 개밖에 안 해.)

107076 @ 겐디 아까 조메떡은 어떤 건지 다시 알아줍서.(그런데 아까 ‘조메떡’은 어떤 건지 다시 말해주세요.)

107076 # 조메떡은 그 존존허게시리 영영 소름소름허게 영 췌영 쑥 누르땡, 조메<sup>161)</sup> 췌부난 조메떡.(‘조메떡’은 그 자잘하게끔 이렇게 기름기름하게 이렇게 쥐어서 쑥 눌러서, 주먹, ‘조메’ 쥐어버리니까 ‘조메떡’.)

107076 @ 조메 췌부난 조메떡?(‘조메’ 쥐어버리니까 ‘조메떡’?)

107076 # 응. 세 가지베끼 안 허지.(응, 세 가지밖에 안 하지.)

107076 @ 건 쫄로 허는 거 모뎀로 허는 거?(그건 쌀로 하는 거 메밀로 하는 거?)

107076 # 곤 거로 산뒤쫄로.(고운 거로 발벼쌀로.)

107076 @ 산뒤쫄로 조메떡은.(발벼쌀로 ‘조메떡’은.)

107076 # 문딱 산뒤쫄로 헤여.(모두 발벼쌀로 해.)

107076 @ 조메떡, 돌레떡, 침떡 다 산뒤쫄로 굿할 때는?(‘조메떡’, 도래떡, 시루떡 다 발벼쌀로 굿할 때는?)

107076 # 응. 산뒤쫄로. 다 흰 걸로 헤여.(응. 발벼쌀로. 다 흰 걸로 해서.)

107076 @ 혹시 다대는 뭐마씨? 그 말은 안 들어봤?(혹시 ‘다대’는 뭐예요? 그 말은 안 들어보셨어요?)

107076 # 다대가 어디 서? 모뎀허는 거 곤쫄 대신 모뎀쫄도 허고 그 조메떡은

160) ‘조메떡’은 흰쌀을 가루내어 반죽한 후 손으로 꼭꼭 쥐어서 만든 떡이다.

161) ‘조메’는 ‘조메조메’처럼 써서 젓먹이가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재롱을 부리는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주먹’ 정도의 의미이다.

허여.(‘다대’가 어디 있어? 메밀하는 거 흰쌀 대시 메밀쌀도 하고 그 ‘조메떡’은 해.)

107076 @ 조메떡은 안 봐놔져, 나.(‘조메떡’은 안 봤었어, 나.)

107076 # 그 소름소름 요몐씩 현 거, 요몐씩 쟈쟈현 거 이서. 돌레떡 말앙.(그 기름기름 요만큼씩 한 거, 요만큼씩 자잘한 거 있어. 도래떡 말고.)

107076 @ 돌레떡은 하영 봐놔신디 이제도 막 허는디.(도래떡은 많이 봤었는데 이제도 막 하는데.)

107076 # 시방도 굿할 땐 허주게. 아니 그거 영 마제<sup>162)</sup> 그땐 땐 안 허고 큰굿할 때나 굿할 때가 그거 허주. 영 요영 현 건 지전<sup>163)</sup> 우이 올리고 친떡은 굽에 허곡 돌레떡은 우이 올리고 그건 지전 우이 올려.(시방도 굿할 때 하지. 아니 그거 이렇게 ‘마제’ 같은 땐 안 하고 큰굿할 때나 굿할 때가 그거 하지. 이렇게 요렇게 한 건 지전 위에 올리고 시루떡은 아래에 하고 도래떡은 위에 올리고 그건 지전 위에 올려.)

107076 @ 젤 우이 올리는 거 조메떡?(젤 위에 올리는 게 조메떡?)

107076 # 응.(응.)

107076 @ 아까 마제는 뭐마씨?(아까 마제는 뭐예요?)

107076 # 마제? 마제엔 현 건, 이 큰굿할 때나 이 성주 낼 때나 허는 거 말앙, 마젠 이 애기 키우는 거.(마제? 마제라고 한 건, 이 큰굿할 때나 이 성주 낼 때나 하는 건 아니고, 마제 이 애기 키우는 거.)

107076 @ 애기 키울 때 집에서 허는 거?(애기 키울 때 집에서 하는 거?)

107076 # 애기 키우젠 허민 이 할망덜이나 누게나 행 이 애기 내와오젠 그 할망굿<sup>164)</sup> 마제 허주게. 할망굿으로. 애기도 할망 엇인 아니지. 삼성할망이 내우고 삼성할망이 키우는 거엔 그거 할망굿.(애기 키우려고 하면 이 할머니들이나 누구나 해서 이 애기 나오게 하려고 그 ‘할망굿’ 마제 하지. ‘할망굿’으로. 애기도 할머니 없이는 아니다. ‘삼성할망’이 나오게 하고 ‘삼성할망’이 키우는 거라고 그거 ‘할망굿’.)

107076 @ 그게 마제?(그게 마제?)

107076 # 응, 그게 마제. 큰굿할 때도 허고 이 성주할 때도 허는 사름은 해. 헤여야 해.(응, 그게 마제. 큰굿할 때도 하고 이 성주할 때도 하는 사름은 해. 해야 해.)

107076 @ 애기 우렁 허는 거예?(애기 위해서 하는 거요?)

107076 # 애기 안 나는 사름도 공들이젠 허민 거 마젤 해. 메누리 헤영 애기 엇으민 그 마제를 헤여줘야 허는 거.(애기 안 나는 사람도 공들이려고 하면 그거 ‘마제’를 해. 며느리 해서 애기 없으면 그 ‘마제’를 해줘야 하는 거.)

107076 @ 그건 그 저 무당신디 강 허는 건가?(그건 그 저 무당에게 가서 하는 건가?)

107076 # 심방 빌어당 집에서 헤여.(무당 빌어다가 집에서 해.)

162) ‘마제’는 큰굿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 등을 위해 작게 하는 굿을 말한다.

163) ‘지전’은 무속에서 백지나 창호지를 오려 엽전 모양으로 만들어 신의 노자로 바치는 돈이다.

164) ‘할망굿’은 아기를 잘 키워 달라는 의미에서 삼신할머니께 드리는 굿이다.

107076 @ 아, 집에서 심방 빌어당.(아, 집에서 무당 빌어다가.)

107076 # 응. 것도 배와야 혀. 애기 엇이민 아덜 풀앙 애기 엇이민 마제 해줘야 혀. 나민 허곡 안 나도. 애기 낭 췌껴도 어디 강 들으민 췌껌젠 허민 마젤 헤 줘야. 아니 허는 사름은 안 허곡 허는 사름은 허여.(응. 그것도 배워야 해. 아기 없으면 아들 팔아서 아기 없으면 ‘마제’ 해줘야 해. 낳으면 하고 안 나도. 아기 낳아서 쫓겨도 어디 가서 물으면 쫓긴다고 하면 ‘마제’를 해줘야.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은 해.)

### 소와 고물

107079 @ 아까 저 송편 같은 거 속에 놓는 것도 쉬<sup>165)</sup>, 그다음에 침떡혈 때 우에 놓는 것도 쉬?(아까 저 송편 같은 거 속에 놓는 것도 ‘쉬’, 그다음에 시루떡할 때 위에 놓는 것도 ‘쉬’?)

107079 # 것도 쉬주게.(그것도 ‘쉬’지.)

107079 @ 똑ㄴ타. 쉬?(똑같아, ‘쉬’?)

107079 # 응. 췌 다 ㄴ따. 풋쉬, 콩쉬. 췌 다 ㄴ따.(응. ‘쉬’는 다 같아. 팔‘쉬’, 콩‘쉬’. ‘쉬’는 다 같아.)

107079 @ 아, 췌 다 ㄴ따예. 그 쉬는 풋으로도 허고.(아, ‘쉬’는 다 같아요. 그 ‘쉬’는 팔으로도 하고.)

107079 # 풋으로도 쉬, 콩으로도 쉬.(팔으로도 ‘쉬’. 콩으로도 ‘쉬’.)

107079 @ 아까 췌ㄴ루도.(아까 췌가루도.)

107079 # 응, 췌 따시 또 송편허는디 소곱에 설탕 행 소곱에 담는 거.(응, 껌는 다시 또 송편하는데 속에 설탕 해서 속에 담는 거.)

107079 @ 그것도 쉬허고예.(그것도 ‘쉬’하고요.)

107079 # 응, 췌 다 ㄴ따.(응, ‘쉬’는 다 같아.)

107080 @ 다 똑ㄴ타. 그 저 친떡혈 때는 풋베끼 안합니까?(다 똑같아. 그 저 시루떡할 때는 팔밖에 안합니까?)

107080 # 콩도 헤영 기계방에 가민 콩ㄴ루도 해주곡 따시 또 콩 논 것도 해주고 여라 곳 해줘.(콩도 해서 공장에 가면 콩가루도 해주고 다시 또 콩 놓은 것도 해주고 여러 종류 해줘.)

107080 @ 아니, 옛날에.(아니, 옛날에.)

107080 # 옛날엔 풋베끼 엇어난. 풋허고 녹디.(옛날엔 팔밖에 없었어. 팔하고 녹두.)

107080 @ 아, 옛날은 풋허고 녹디베끼 안 해봤예.(아, 옛날은 팔하고 녹두밖에 안 해봤어요.)

107080 # 이젠 녹디 엇어도 옛날은 녹디 느랑 갈아놔주게.(이젠 녹두 없어도 옛날은 녹두 늘 갈았었지.)

---

165) ‘쉬’는 소와 고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07080 @ 예.(예.)

107080 # 이녁냥으로. 우리도 녹디 갈민 녹디 타레 느랑 타레 땡겨났어. 이녁냥으로 갈아.(자기대로. 우리도 녹두 갈면 녹두 따러 늘 따러 다녔었어. 자기대로 갈아.)

107081 @ 혹시 떡 칠 때 뭐 시리떡 칠 때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이수게?(혹시 떡 찔 때 뭐 시루떡 찔 때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있잖습니까?)

107081 # 이 시리떡, 시리 앓져 뒤근에 들러당 앓져땡 어디 가불민 떡 안 익곡. 시리해영 불 앓지는데 누게 정지 들어와비어도 떡 안 익곡, 옛날에. 옛날에 숭을 하영 봐났어.(이 시루떡, 시루 안쳐 두고 들어다 안쳐두고 어디 가버리면 떡 안 익고. 시루해서 불 안치는데 누가 부엌에 들어와 버려도 떡 안 익고, 옛날에. 옛날에 훙을 많이 봤었어.)

107081 @ 게민 시리떡 칠 땐 딱 그디 직행 앓아사는 거?(그러면 시루떡 찔 땐 딱 거기 지켜서 앓아야 하는 거?)

107081 # 응. 시리 들른 사름이 불을 숨아야.(응. 시루 드는 사람이 불을 때야.)

107081 @ ㄱ만이 앓앙 불 숨아근에 어디 가지 말앙.(가만히 앓아서 불 때서 어디 가지 말고.)

107081 # 떡 익도록 숨아야혀, 짐 올르도록, 짐 팡팡 올르도록. 게난 옛날은 떡 찜도 어루와났어.(떡 익도록 때야해, 짐 오르도록, 짐 팡팡 오르도록. 그러니까 옛날은 떡 찜도 어려웠었어.)

107081 @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81 # 이젠 아무상 엇이 해도 옛날은 경 안 해. 옛날 사는 사름 찜 기가 맥히게 살안, 아이고. 사름 삶이 요새사 삶이냐? 옛날은이 설멩질 돌아와가민 미녕헤여근에 미녕웃헤여근에 이녁냥으로 미녕웃행 입으민 시아방이 시나, 남편 행 입지곡 시아방 행 입지곡, 시할망ㄱ장 다 행 시어멍이영 해영케 풀허멍 소게저고리 다 허젠 허민 밤이 줌 안 자멍 해여. 아이고.(이젠 아무렇지 않게 해도 옛날은 그렇게 안 해. 옛날 사는 사람 찜 기가 막히게 살았어, 아이고. 사람 삶이 요새야 삶이냐? 옛날은 설멩질 돌아와가면 무멍해서 무멍웃 해서 자기대로 무멍웃해서 입으면 시아버지가 있거나, 남편 해서 입히고 시아버지 해서 입히고, 시할머니까지 다 해서 시어머니랑 하얏게 풀하면서 숨저고리 다 하려고 하면 밤에 잠 안 자면서 해. 아이고.)

107067 @ 게난예. 빙떡도 행 먹어났지예, 지금도 허주만은.(그러니까요. 빙떡도 해서 먹었었지요, 지금도 하지만은.)

107067 # 빙떡, 옛날엔 빙떡헤근에, 큰 제 아니민 정기<sup>166)</sup> 지정 하영 헤났주게.(빙떡, 옛날엔 빙떡해서, 큰 제 아니면 ‘정기’ 지져서 많이 했었지.)

107067 @ 아, 정기.(아, 정기.)

107067 # 응. 빙. 그거 지전 하영 헤났주게. 큰 제 아닐 땐.(응, ‘빙’. 그거 지져

166) ‘정기’는 빙떡의 다른 이름이다. 이 제보자는 ‘빙, 빙떡, 정기’ 등이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 많이 했었지. 큰 제 아닐 땐.)

107067 @ 큰 제 아닐 땐. 건 어떻 행 지지는 거파? 옛날 해난 걸로.(큰 제 아닐 땐. 그건 어떻게 해서 지지는 겁니까? 옛날 했던 것으로.)

107067 # 옛날 해난난. 모물궤루 곶아다근에 그거 행 카곡. 또시 늣뻘 행 썰어 놔근에 그디 마농해 농곡 행 그거 행 막 몰아근에. 이제나 그때나 혼 때. 거 빙 지지는 거.(옛날 했었으니ㄱ. 메밀가루 갈아다가 그거 해서 타고. 또 무 해서 썰어놔서 거기 마늘 놓고 해서 그거 해서 막 반죽해서. 이제나 그때나 같은 거. 그거 ‘빙’ 지지는 거.)

107067 @ 속에 무신거 답아?(속에 뭐 답아?)

107067 # 아, 늣뻘. 늣뻘 놓고 궤나 미치고 행 그거. 옛날이나 이제나 쥔 궤. (아, 무. 무 놓고 궤나 무치고 해서 그거. 옛날이나 이제나 ‘쉬’는 같아.)

107067 @ 아니, 궤 논텐 허는 사름도 이서라?(아니, 팔 놓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107067 # 예, 궤은 베랑 안헛주. 궤은 어디 성 경, 옛날은 엇이난 상제에 제물떡을 다 행 가젠 허민 감저도 썰어놔 이만큼 쥔 거 썰어놔 서너 개씩 담으민 정기가 이만큼 허주게. 궤도 해난디. 궤은 아니. 궤은 농젠 허민 어디 성 그거 다 놔?(예, 팔은 별로 안 헛지. 팔은 어디 있어서 그렇게. 옛날은 없으니까 상주에 제물떡을 다 해서 가려고 하면 고구마도 썰어놔서 이만큼씩 한 거 썰어놔서 서너 개씩 담으면 ‘정기’가 이만큼씩 하지. 그렇게도 했었는데. 팔은 아니. 팔은 놓으려고 하면 어디 있어서 그거 다 놔?)

107067 @ 빙 속에 감저도 놔?(‘빙’ 속에 고구마도 놔?)

107067 # 감저 쳐근에.(고구마 찌서.)

107067 @ 옛날에 감저도 놔났수과?(옛날에 고구마도 놔었습니까?)

107067 # 응, 감저 청 하영 놔났지. 늣뻘 엇은 사름.(응, 고구마 찌서 많이 놔었지. 무 없는 사람.)

107067 @ 빙이엔 험니까? 정기엔 험니까? 이 동넨.(‘빙’이라고 험니까? ‘정기’라고 험니까? 이 동넨.)

107067 # 옛날은 정기.(옛날은 ‘정기’.)

107067 @ 옛날엔 정기.(옛날엔 ‘정기’.)

107067 # 응, 정기 지정. 이제 빙이주, 옛날은 정기.(응, ‘정기’ 지져서. 이제 ‘빙’이지, 옛날은 ‘정기’.)

107067 @ 옛날은 정기.(옛날은 ‘정기’.)

107058 @ 아까 콩늣물 쥔 거 다시 혼 번만 곶아줍서. 콩늣물 허는 거.(아까 콩나물 한 거 다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콩나물 하는 거.)

107058 # 콩늣물 이젠 지름콩 엇영 다 곶렸주만은 옛날은 콩 갈민 다 지름콩이라났주게. 콩이 여라 곳 안 허난. 삭망이나 행 먹젠허민 콩 해근에 물에, 하영 허젠 허민 관웨, 수정 여라이 막 한 딴 관웨 혼나썩도 허주게.(콩나물 이젠 기름콩 없어



서 다 가렸지만 옛날은 콩 같면 다 기름콩이었었지. 콩이 여러 종류 안 하니까. 삭망이나 해서 먹으려고 하면 콩 해서 물에, 많이 하려고 하면 되. 숫자 여러 명 막 많은 텐 판되 하나씩도 하지.)

107058 @ 응.(응.)

107058 # 경허민 큰 시리 떡 치는 큰 시리 해여근에 그 콩을 졸라근에 막 콩 존존헌 거 졸랑 허민 그 건저근에 이제 물 빠지왕 그 시리 아래 검질 낄아근에 그 레 비와 놔근에 장태나 무시거 받청 방안에 낵 이불이나 무시거 폭 덮영 놔두민 그 콩이 보실보실 나주게. 나민 그엔 자꾸 물을 줘야 혀. 물 안 주민 발 듣지 안헤영 물을 잘 줘야 콩을 곱게 크주. 콩지름 못 키우는 사름 물을 안 줘 못 키와.(그러면 큰 시루 떡 찌는 큰 시루 해서 그 콩을 골라서 막 콩 잔잔한 거 골라서 하면 그 건저서 이제 물 빼서 그 시루 아래 김 깔아서 그리 부어 놔서 장태나 뭐 받쳐서 방안에 놔서 이불이나 뭐 폭 덮어서 놔두면 그 콩이 보실보실 나지. 나면 거기에 자꾸 물을 줘야 해. 물 안 주면 발 나오지 않아서 물을 잘 줘야 콩이 곱게 크지. 콩나물 못 키우는 사람 물을 안 줘서 못 키워.)

107058 @ 하루에 혼 번씩 주민?(하루에 한 번씩 주면?)

107058 # 하루에 서너 번씩 줘야.(하루에 서너 번씩 줘야.)

107058 @ 아, 서너 번씩.(아, 서너 번씩.)

107058 # 응, 자꾸 주지 안허민 정신엇이민 콩나물 못 키와. 경행 키왕 삭망도 행 먹고 멥질도 행 먹고.(응, 자꾸 주지 않으면 정신없으면 콩나물 못 키워. 그래서 키워서 삭망도 해서 먹고 멥질도 해서 먹고.)

107058 @ 콩나물 아니고 콩주름? 콩지름?(콩나물 아니고 ‘콩주르’? ‘콩지름’?)

107058 # 콩지름이주 옛날에.(‘콩지름’이지 옛날에.)

107058 @ 콩지름예.(‘콩지름’요.)

107058 # 아이고, 콩지름 놔사컬 행.(아이고, 콩나물 놔야할 걸 해서.)

107058 @ 콩지름 놔사컬 행. 밑에 장태가 낵?(콩나물 놔야할 걸 해서. 밑에 장태 놔서?)

107058 # 밑에 시리 행 놔근에 그레 해근에 옛날은 험벅이 어디 시파?(밑에 시루 해서 놔서 그리 해서 옛날은 형겅이 어디 있습니까?)

107058 @ 아, 거난 시리 밑에 무시거 이서야 웰 거 아니파?(아, 그러니까 시루 밑에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7058 # 검질 낄앙, 검질 낄앙. 새 헤영 영 ㅋ짱이 낄앙 콩 안 새을게. 경행 낵 그레 콩 비와 놔근에 경 자꾸, 비와 놓민 자꾸 그 시리만 들러당 물 주민 다시 고쳐 놓지 안헤도 콩주름 다 돼도록은 밑에 낵 건 안 허주게.(검불 깔아서, 검불 깎아서. 떠 해서 이렇게 가지런히 깔아서 콩 안 새게. 그렇게 해서 놔서 그리 콩 부어 놔서 그렇게 자꾸, 부어 놓으면 자꾸 그 시루만 들어다가 물 주면 다시 고쳐 놓지 않아도 콩나물 다 되도록은 밑에 낵 건 안 하지.)

107058 @ 밑에 물 빠지지 안헉니까?(밑에 물 빠지지 않습니까?)

107058 # 시리난 물 빠지주게. 장태 바쳐근에.(시루니까 물 빠지지. 장태 받쳐서.)

107058 @ 아, 밀에 장태 받쳐근에.(아, 밀에 장태 받쳐서.)

107058 # 경행 자꾸 물 치데경.(그래서 자꾸 물 끼었어서.)

107058 @ 경해근에예.(그렇게 해서요.)

107058 # 옛날에 경해도 초하루 보름허곡, 상식허멍 경허멍도 살아났어.(옛날에 그래도 초하루 보름하고, 상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살았었어.)

107058 @ 보름 사이에도 그게 다 먹을 만이 크는구나예.(보름 사이에도 그게 다 먹을 만큼 크는군요.)

107058 # 응, 커. 보름 돼민 커. 딱뚝헌 디 게난 구들 딱뚝헌 디 놔야.(응, 커. 보름되면 커. 딱뚝한 데 그러니까 구들 딱뚝한 데 놔야.)

107058 @ 딱뚝헌 디 놔야예.(딱뚝한 데 놔야요.)

## 별식

107082 @ 순대도 담가근에 잔칫날은 헤낫수게예?(순대도 담아서 잔칫날은 했었지요?)

107082 # 순대도 옛날에.(순대도 옛날에.)

107082 @ 옛날은 수웨?(옛날은 ‘수웨’?)

107082 # 수웨.(‘수웨’.)

107082 @ 옛날 수웨예, 건 어떻 담그는 거꽈?(옛날 ‘수웨’요, 그건 어떻게 담는 겁니까?)

107082 # 수웬 따시 또 그거 피, 도새기 잡으민 피 잇잖아. 피허고 따시 모뎀궙루나 따시 또 느쟁이. 느쟁이 놔근에. 이젠 순대에도 하간 거 낫저만은 옛날은 그 모뎀궙루 헤영 곶앙 담가근에 그거 헤영 솟디 낳 삶으민. 요멘씩 수웨 혼 점 놓곡 도새기 귀해근에 혼 점 놓곡, 해근에 오만 거 베설 혼 점 놓곡 허민 가문반<sup>167)</sup>이엔 허멍 고쟁이 끼멍 방상에 다 놔났어.(순대 다시 또 그거 피, 돼지 잡으면 피 잇잖아. 피하고 다시 메밀가루나 다시 또 나께. 나께 놔서. 이젠 순대에도 온갖 거 낫더라만은 옛날은 그 메밀가루 해서 갈아서 담아서 그거 해서 술에 놔서 삶으면. 요만 큼씩 순대 한 점 놓고, 돼지 귀 해서 한 점 놓고, 해서 오만 거 창자 한 점 놓고 하면 ‘가문반’이라고 하면서 꼬치에 끼면서 일가불이에 다 놔었어.)

107082 @ 가문반?(‘가문반’?)

107082 # 가문에 먹는 거난 가문반. 방상에 다 낳. 방상에 안 오는 늑신네 할망나신, 그거 초상날이나 잔칫날이나 그거 다 보내났어. 가문반.(가문에 먹는 거니까 ‘가문반’. 일가불이에 다 놔서. 일가불이에 안 오는 늑은 할머니 깃은, 그거 초상 날이나 잔칫날이나 그거 다 보냈었어. ‘가문반’.)

107082 @ 예. 게른 아까 저 모뎀궙이영 도새기 피영 놔근에.(예. 그러면 아까

167) ‘가문반’은 잔치 전날 친척들에게 나눠주는 반기다.

저 메밀쌀이랑 돼지 피랑 놔서.)

107082 # 막 정기 지지듯 막 카, 거.(막 ‘정기’ 지지듯 막 타, 그거.)

107082 @ 막 카, 물에 카. 경행.(막 타, 물에 타. 그래서.)

107082 # 경혜근에 영 담양.(그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

107082 @ 그디 담아.(거기 담아.)

107082 # 베설에.(창자에.)

107082 @ 베설에 담양 경혜근에.(창자에 담아서 그렇게 해서.)

107082 # 삶아.(삶아.)

107082 @ 삶아, 응.(삶아, 응.)

107082 # 거난 이젠 베설 안 담양 허민, 옛날은 ㄴ는ㄴ는헌 베설도 다 담아놔어. 어려우난. 이젠 큰 베설만 담양 안 담아도.(그러니까 이젠 창자 안 담아서 하면, 옛날은 가는가난 창자도 다 담았었어. 어려우니까. 이젠 큰창자만 담아서 안 담아도.)

107083 @ 두부도 집이서 행 먹어놔수게?(두부도 집에서 해서 먹었었지요?)

107083 # 응. 옛날 두부.(응. 옛날 두부.)

107083 @ 건 어떻 행?(그건 어떻게 해서?)

107083 # 콩 물에 컷다근에 기계방에 ㄴ레, 영 돌르는 ㄴ레 굴양, ㄴ렛도고리 낱 굴양, 그젠 그거에 저 베나 미녕이나 행 주멍이 멩글양 막 짜근에. 짜불민 그 주신 헤다근에 그 콩ㄴ루 곤 사름덜 그 두부 곤 사름덜은 혼 사발씩 주민 아정강 그 사름덜 국 끓려 먹곡.(콩 물에 잠갔다가 공장에 맷돌, 이렇게 돌리는 맷돌 갈아서, ‘ㄴ렛도고리’ 놔서 갈아서, 이젠 그거 제 삼베나 무명이나 해서 주머니 만들어서 막 짜서. 짜버리면 그 찌꺼기 헤다가 그 콩가루 간 사람들 그 두부 간 사람들 한 사발씩 주면 가져가서 그 사람들 국 끓여 먹고.)

107083 @ 건 무신거에 곶아?(그건 뭐라고 말해?)

107083 # ㄴ레에 곶양.(맷돌에 갈아서.)

107083 @ 거난 그 껍데기.(그러니까 그 껍데기.)

107083 # 껍덕을 주세기.(껍데기를 찌꺼기.)

107083 @ 주세기, 거 뭇엔 곶아?(찌꺼기, 그거 뭐라고 말해?)

107083 # 두부, 두부.(두부, 두부.)

107083 @ 거난 주시는 무신거엔 곶아?(그러니까 찌꺼기는 뭐라고 말해?)

107083 # 두부 주시.(두부 찌꺼기.)

107083 @ 그냥 두부 주시?(그냥 두부 찌꺼기.)

107083 # 응, 두부 주시엔 곶으민 그 곤 사름덜 아정강 국 끓려근에 그거 늬뻬 농곡 \*\*\* 농곡 행 폭 끌령 다 먹주게. 그거 행 허민 그 물 행 이제 솟디나 큰 솟디나 낱 삶당 부꺼가민 소금 흐끔 행 드불드불행 삶아지민 그젠 따시 또 저 베치메 ㄴ튼 거에 포 역불 행 놔두주게. 그레 비와 낱 돔베나 농곡 행 그거 영 심영 그레 비와낱 딱 지돌르민 두부 돼주. 경허민 잔치헤여근에 그걸 막 여라이 헤영 하영 허

주게. 콩 뒤 말썽.(응, 두부 찌꺼기라고 말하면 그 간 사람들 가지고 가서 국 끓여서 그거 무 넣고, \*\*\* 넣고 해서 푹 끓여서 다 먹지. 그거 해서 하면 그 물 해서 이제 술에나 큰 술에나 놔서 삶다가 끓어오르면 소금 조금 해서 ‘드불드불’해서 삶아지면 그젠 다시 또 저 베치마 같은 거 포 일부러 해서 놔두지. 그리 부어 놔서 도마나 놓고 해서 그거 이렇게 잡아서 그리 부어 놔서 딱 지지르면 두부 되지. 그러면 잔치해서 그걸 막 여러 명 해서 많이 하지. 콩 뒤 말썽.)

107083 @ 옛날에는 소금물도 바당에 가근에 행 왓젠 헛덴 헛게마는.(옛날에는 소금물도 바다에 가서 해서 왔다고 했다고 하던데마는.)

107083 # 소금물도 질어당 질어오는 사름 혼 허벅 질어당 허주게. 엇인 사름은 췌에 시경 두 허벅도 시경 오곡.(소금물도 길어다 길어오는 사람 한 허벅 길어다가 하지. 없는 사람은 소에 실어서 두 허벅도 실어서 오고.)

107083 @ 바당물이엔 곶아, 촌물 뭐?(바닷물이라고 말해, 짬물 뭐?)

107083 # 촌물.(짬물.)

107083 @ 촌물, 응. 바당에 강 질어당예.(짬물, 응. 바다에 가서 길어다가요.)

107083 # 응, 질어당. 경행 큰일 허젠 허민 췌 신 사름은 남저 잇곡 현 사름은 강 질어당 경허곡 이녁냥으로도 강 질어당도 허곡 경헤여. 경허민 그 잔치에 췌긴 요맨씩 놓고 두부헤영 혼 점씩 판에 다 놓주게.(응, 길어다가. 그렇게 해서 큰일 하려고 하면 소 있는 사람은 남자 있고 한 사람은 가서 길어다가 그렇게 하고 자기대로도 가서 길어다가도 하고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잔치에 고긴 요만큼씩 놓고 두부해서 한 점씩 판에 다 놓지.)

107083 @ 예, 예.(예, 예.)

107084 # 옛날 따시 독새기 헤여근에 계란 지정 영 동글동글 우썩꺾치 지정 놓는디 엇이민 모듈꺾루로 헤영 지정 그거 다 반에 하나씩 낱. 췌기가 요맨씩 요맨씩 현 거 행 뒤 점 놓곡, 두부 혼 점, 콩나물 삶앙 놓곡 헤영 허민 그 우이 더퍼. (옛날 다시 달걀 해서 계란 지저서 이렇게 동글동글 웃기같이 지저서 놓는데 없으면 메밀가루로 해서 지저서 그거 다 반에 하나씩 놔서. 고기가 요만큼씩 요만큼씩 한 거 해서 뒤 점 놓고, 두부 한 점, 콩나물 삶아서 놓고 해서 하면 그 위에 덮어.)

107084 @ 아, 하하하. 모듈로 전 지저근에?(아, 하하하. 메밀로 전 지저서?)

107084 # 응, 동글랑 동글랑허게 전 지저근에. 툭툭, 그거 막 아장.(응, 동글동글하게 전 지저서. 툭툭, 그거 막 얹아서.)

107084 @ 그건 뭐엔, 그냥 모듈전이엔 곶읍니까?(그건 뭐라고, 그냥 메밀전이라고 말합니까?)

107084 # 모듈전지주.(‘모듈전지’주.)

107084 @ 모듈전지?(‘모듈전지’?)

107084 # 전, 전.(전, 전.)

107084 @ 모듈전 그냥?(메밀전 그냥?)

107084 # 응, 전 지정.(응, 전 지저서.)

107084 @ 메밀은 묵도 썰 험니께?(메밀은 묵도 썰어서 하잖아요?)

107084 # 시방도 묵 썰주게.(지금도 묵 썰고 있지.)

107084 @ 묵은 어떻 썰니까?(묵은 어떻게 썰니까?)

107084 # 묵 경 안 썰봤어?(묵 그렇게 안 썰봤어?)

107084 @ 보기만 해놔수다.(보기만 했었습니다.)

107084 # 게난 큰메누리라, 작은메누리라?(그러니까 큰며느리야, 작은며느리야?)

107084 @ 큰메누리.(큰며느리.)

107084 # 게난 묵을 안 썰 무신걸로 해난?(그러니까 묵을 안 썰어서 무엇으로 했었어?)

107084 @ 사단 먹어. 식게헐 때 사당.(사다가 먹어. 제사할 때 사다가.)

107084 # 묵 사당, 두부 사당?(묵 사다가, 두부 사다가.)

107084 @ 묵도 사고, 두부도 사고.(묵도 사고, 두부도 사고.)

107084 # 우리 집이도 옛날엔 큰메누리 허단 둘째 아픔 시작허난 묵 못 썰 이제 두부 사당 적행.(우리 집도 옛날엔 큰며느리 하다가 둘째 아프기 시작하니까 묵 못 썰어서 이제 두부 사다가 적해서.)

107084 @ 묵은 어떻게 썰는 거파?(묵은 어떻게 해서 썰는 겁니까?)

107084 # 거 뭐 모믈ㄱ루 곶아다근에 모믈ㄱ루도 요새엔 저 육지 모믈ㄱ룬 안 돼지. 이디서 간 모믈ㄱ루라사 돼어, 토종이라사 돼어. 그거 해당 기계방에 강 곶아 당 이젠 다라에, 저 그 솟디 낱 밥통이나 무시거 놔근에 묵 썰 것에 놔근에 막 풀 황 저 빙 지지듯 카근에.(거 뭐 메밀가루 갈아다가 메밀가루도 요새엔 저 육지 메밀 가루는 안 되지. 여기서 간 메밀가루라야 돼. 토종이라야 돼. 그거 해다가 공장에 가서 갈아다가 이젠 대야에, 저 그 솥에 놔서 밥통이나 뭐 놔서 묵 썰 것에 놔서 막 풀어서 저 빙떡 지지듯 타서.)

107084 @ 예.(예.)

107084 # 경행 놔근에 젓영 영 죽은 것에라도 영 현 것에, 못 허민 영현 것에 낱 젓영 빙빙빙 막 젓어근에 허민 그거 막 익어가민 범벅 ㄱ뜨주게. 경행 따시 또 다라에 퍼낱 영 덴썩허게 놔두민 묵. 젓음만 잘 허민 돼어.(그래서 놔서 젓어서 이렇게 작은 것에라도 이렇게 한 것에, 못하면 이렇게 한 것에 놔서 젓어서 빙빙빙 따 저어서 하면 그거 막 익어가면 범벅 같지. 그래서 다시 또 대야에 떠놔서 매끈 하게 놔두면 묵. 젓기만 잘 하면 돼.)

107085 @ 청묵은?('청묵'은?)

107085 # 청묵은 모믈쫄 해근에 물에 컷당 짱.('청묵'은 메밀쌀 해서 물에 잠갔다가 짜서.)

107085 @ 아.(아.)

107085 # 물로 짜근에 문작문작헐 저 트박트박허게 으라 번 짜낱 그거 헐 썰어 근에 허민 청묵.(물로 짜서 '문작문작'해서 저 '트박트박'하게 여러 번 짜놔서 그거 해서 썰어서 하면 '청묵'.)

107085 @ 청묵이 더 힘들지예?('청묵'이 더 힘들지요?)

107085 # 아니, 힘들도 힘들주만은 거 저 하영 들어, 청묵은. 모뎀썰이.(아니, 힘들기도 힘들지만 그거 저 많이 들어, '청묵'은. 메밀쌀이.)

107085 @ 아, 모뎀썰이 하영 들어.(아, 메밀쌀이 많이 들어.)

107085 # 그거 주생이 짜뉘근에 허젠 허민 하영 들어. 경헌디 이 무신 적 영 못적<sup>168</sup>이엔 헌 건 영 소름소름헝 귀나게 헌 게 목적인디 경헌디 그 청묵은 못헤여. 그자 문착문착 썰영 청묵허주.(그거 찌꺼기 짜두고 하려고 하면 많이 들어. 그런데 이 무슨 적 이렇게 '못적'이라고 한 건 이렇게 기름기름해서 모나게 한 게 목적인데 그런데 그 '청묵'은 못해. 그저 '문착문착' 썰어서 '청묵'하지.)

107085 @ 목적은 어떻게근에 그 ㄱ루묵으로 헌 걸로?(목적은 어떻게 해서 그 가루묵으로 한 걸로?)

107085 # 응, 못적.(응, 못적.)

107085 @ 못적?(못적?)

107085 # 못적, 적도 두 가지게. 납작납작허게 허영 영헤영 요추룩헤영 문착문착 썰영 헌 건 납작허곡 따시 이거라도 영 썰영 흥썰 못 잇게 쪼질쪼질허게 썬 건 못적.(못적, 적도 두 가지지. 납작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문착문착' 썰어서한 건 납작하고 다시 이거라도 이렇게 썰어서 조금 모 있게 '쪼질쪼질'하게 썬 건 '못적'.)

107085 @ 아, 모뎀도 못적이 잇고.(아, 메밀도 '못적'이 잇고.)

107085 # 적이 두 가지가 있어. 아 못적은 두부 낱 아무거라도 놓곡 두 가지라.(적이 두 가지가 있어. 아 '못적'은 두부 낱 아무거라도 놓고 두 가지라.)

107085 @ 아, 못적은 두부로 헤도 뉘고.(아, '못적'은 두부로 헤도 뉘고.)

107085 # 아무거라도.(아무거라도.)

107085 @ 그다음에.(그다음에.)

107085 # 청묵은 못헤여.('청묵'은 못해.)

107085 @ 모뎀로 헤도 뉘고.(메밀로 헤도 뉘고.)

107085 # 응. 청묵은 못 헤. 못적. 켜질 못 헤영.(응. '청묵'은 못 헤. '못적'. 켜지 못 해서.)

107085 @ 켜질 못헝 다 헤싸져부난예. 어떤 디는 모뎀 ㄱ루를.(끼우지 못해서 다 부서져 버리니까요. 어떤 데는 메밀가루를.)

107085 # 모뎀 ㄱ루로 허는 디가 하주게.(메밀가루로 하는 데가 많지.)

107085 @ 아니, 모뎀 ㄱ루를 후라이판에 영 지정.(아니, 메밀가루를 프라이팬에 이렇게 지져서.)

107085 # 건 여름에나 허주, 저을엔 안 해.(건 여름에나 허주, 겨울엔 안 해.)

107085 @ 아, 그걸로 영 찰라가지고.(아, 그걸로 이렇게 찰라가지고.)

107085 # 저 빙 지지듯 건 지정 쫄랑 납작납작허게. 경헌디 삭망 때나 허주, 멍

168) '못적'은 메밀묵이나 두부 등을 정육면체 모양으로 모지게 잘라 썬 적을 말한다.

질 땀 그런 거 우리 집이덜은 안 해.(저 빙 지지듯 그건 지저서 잘라서 납작납작하게. 그런데 삭망 때나 하지, 명절 땀 그런 거 우리 집에 들은 안 해.)

107085 @ 그건 무신 적이엔 됩니까?(그건 무슨 적이라고 합니까?)

107085 # 건 납작베끼 못 허주게. 납작허게.(그건 납작밖에 못 하지. 납작하게.)

107085 @ 게난 못적이엔 현 건 흐뭇?(그러니까 ‘못적’이라고 한 건 조금?)

107085 # 응, 영 못지게 영.(응, 이렇게 모지게 이렇게.)

107085 @ 흐뭇 뚜꺼와?(조금 두꺼워?)

107085 # 응, 흐뭇 두답게 썰영. 게난 그 못적이엔 현 건 저 모지난 못적. 못지게 영.(응, 조금 두껍게 썰어서. 그러니까 그 ‘못적’이라고 한 건 저 모지니까 ‘못적’. 모지게 이렇게.)

107085 @ 게난 모뭇묵도 못적으로 영 꼬지에 끼왕예.(그러니까 메밀묵도 ‘못적’으로 이렇게 꼬치에 끼워서요.)

107085 # 응, 모뭇묵도 경허고 두부도 못적허는 사름.(응, 메밀묵도 그렇게 하고 두부도 ‘못적’하는 사람.)

107085 @ 두부도 못적으로 허곡.(두부도 ‘못적’으로 하고.)

107085 # 납작납작헌 건 나비적<sup>169</sup>. 납작납작 허난 나비적.(납작납작한 건 ‘나비적’. 납작납작허니까 ‘나비적’)

107085 @ 납작납작헌 건 나비적?(납작납작한 건 나비적?)

107085 # 응, 납작허난 나비적. 모지난 못적.(응, 납작하니까 나비적, 모지니까 ‘못적’.)

107085 @ 모지난 못적.(모지니까 ‘못적’.)

107085 # 납작납작헌 건 나비적.(납작납작한 건 ‘나비적’.)

107085 @ 나비적은 무신걸로 나비적합니까?(‘나비적’은 무엇으로 ‘나비적’합니까?)

107085 # 청묵허는 쭈영도 납작헌, 가문으로 가주게.(‘청묵’하는 쭈어서도 납작한, 가문으로 가지.)

107085 @ 아, 납작허게 허는 건 나비적.(아, 납작하게 하는 건 ‘나비적’.)

107085 # 납작헌 건 나비적. 영 모진 건 못적. 그 가문으로 가주, 다 안허는 거. 우리 방상에 김칩이나 강칩인 그 못적허주게. 건 이넉 가문만썩.(납작한 건 ‘나비적’. 이렇게 모진 건 ‘못적’. 그 가문으로 가지, 다 안하는 거. 우리 일가불이에 김칩이나 강칩은 그 못적하지. 그건 자기 가문만썩.)

107086 @ 혹시 개역도 행 먹어났지예?(혹시 미숫가루도 해서 먹었었지요?)

107086 # 개역, 보리 보깡.(미숫가루, 보리 볶아서.)

107086 @ 보리 보깡. 콩은 안 허고?(보리 볶아서. 콩은 안 하고?)

107086 # 콩은 안 허영. 콩 행 굴아당 그자 죽이나 썰 먹주, 콩은.(콩은 안 해서. 콩 해서 갈아다가 그저 죽이나 썰어서 먹지, 콩은.)

169) ‘나비적’은 메밀묵을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꼬치에 꿰 적을 말한다.

107086 @ 개역은 안 해여.(미숫가루는 안 해.)

107086 # 개역은 안 해여.(미숫가루는 안 해.)

107086 @ 보리로만.(보리로만.)

107086 # 보리로만 옛날은 솔오리도 갈앙 허민 솔오리도 갈앙 개역행 먹고 주넝이보리도 갈앙 개역행 먹고 허주. 저 거시긴 안 해. 콩은 기자 무시거헐 때나 쉬나 허고 죽이나 썰 먹젠, 콩 보깡 개역허젠 안 해.(보리로만 옛날은 쌀보리로 갈아서 하면 쌀보리도 갈아서 미숫가루해서 먹고 맥주보리도 갈아서 갈아서 미숫가루해서 먹고 하지 저 거시긴 안 해. 콩은 그저 무엇할 때나 소나 하고 죽이나 쭈어서 먹으려고, 콩 볶아서 미숫가루 하려고 안 해.)

107086 @ 개역은 어떻헌 때 먹는 거짜?(미숫가루는 어떤 때 먹는 겁니까?)

107086 # 아, 이녁 먹구정 허민 여름에.(아, 자기 먹고 싶으면 여름에.)

107086 @ 물에 캬? 주스추룩 영 카근에, 아니민 범벅추룩 행?(물에 타서? 주스처럼 이렇게 타서, 아니면 범벅처럼 해서?)

107086 # 이녁 먹구정헌 대로 행 먹어 건 영 몰앙 사락사락허게 행 먹구정허민 사락사락허게 먹곡 물ㄴ찌 캬 먹구정허민 물ㄴ찌 캬 드리쌈도 허곡 건 믹음대로 먹어. 사당도 먹엄시네게.(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해서 먹어 그건 이렇게 말아서 ‘사락사락’하게 해서 먹고 싶으면 ‘사락사락’하게 먹고 물같이 타서 먹고 싶으면 물같이 타서 들이키기도 하고 그건 마음대로 먹어. 사다가도 먹고 있잖아.)

107086 @ 예. 이제는 사당 먹주만은 옛날은 집이서.(예, 이제는 사다가 먹고 있지만 옛날은 집에서.)

107086 # 옛날엔 보깡 먹어낫주.(옛날엔 볶아서 먹었었지.)

107086 @ 다 보까근에.(다 볶아서.)

107086 # 보깡 ㄴ레에 곶아근에.(볶아서 맷돌에 갈아서.)

107087 @ 응. 지짐이는?(응. 지짐이는?)

107087 # 지지민 무시거 지지는 거 지짐이주.(지지면 뭐 지지는 거 지짐이주.)

107087 @ 아까 거난 그 저 모물전 같은 거가 지짐인가?(아까 그러니까 그 저 메밀전 같은 것이 지짐인가?)

107087 # 모물전도 낱 지지고 밀전도 낱 지지민게 이 큰일 때에 호박도 낱 지지고 따시 또 오징에도 낱 지짐 안 지져? 그거 지짐이주 무시거라게.(메밀전도 놔서 지지고 밀전도 놔서지지면 이 큰일 때에 호박도 놔서 지지고 다시 또 오징어도 놔서 지짐이 안 지져?)

107087 @ 옛날도 그런 거 잇어낫수과?(옛날도 그런 거 있었습니까?)

107087 # 옛날 엇어낫어. 옛날은 도새기 꿩기도 요멘씩 꿩 허고 쉼꿩기도 허민 요멘씩 꿩허고 꿩이나 하나 꿩 허고. 이 가문도 꿩 올리는 갯꿩꿩기도 두 개 올리는 집, 세 개 올리는 집, ㅎ나 허는 집, 꺾도 가문으로. 우리 집인 세 개 올려. 꺾가문으로 가주, 꺾도 다 ㅎ 가지 아니.(옛날 없었었어. 옛날은 돼지고기 요만큼씩 꿩서 하고 소고기도 하면 요만큼씩 꿩서 고기나 하나 구워서 하고. 이 가문도 고기



올리는 바닷고기도 두 개 올리는 집, 세 개 올리는 집, 하나 하는 집. 그것도 가문으로. 우리 집은 세 개 올려. 그래서 가문으로 가지, 그것도 다 한 가지 아니.)

107088 @ 옛날에 술도 다 집이서 담가놔지예?(옛날에 술도 다 집에서 담갔었지요?)

107088 # 응, 술 담강 빠.(응, 술 담가서 빠.)

107088 @ 술은 어떻게 허는 거파?(술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88 # 나도 술도 빠나고 오만 거 다 헤나신디 옛날은 술도 오메기떡도 행 꺾어와근에 그디 헤여낭 누룩 서꺼근에 놔다근에 저 시리, 고소리에 와근에 솟디 와근에 트게 곱명 팍 영 팽해영 콧 질영 와두민 하영 좋은 땀 진허게 허민 비루팽으로 하나 나곡, 어떤 날 하나 안 난 때도 있고.(나도 술 뺐었고 온갖 거 다 했었는데 옛날은 술도 오메기떡도 해서 반죽해서 거기 해놔서 누룩 섞어서 뺐다가 저 시루, 소줏고리에 와서 술에 와서 뜨게 갈면서 팍 이렇게 병해서 꼭 길어 와두면 많이 좋을 땀 진하게 하면 ‘비루팽’으로 하나 나고, 어떤 날 하나 안 날 때도 있고.)

107088 @ 아까 무슨 비루팽?(아까 무슨 ‘비루팽’?)

107088 # 팽게, 옛날엔 영 막게 팽이엔 팽 엇어났어?(병, 옛날엔 이렇게 막게 병 없었어?)

107088 @ 그게 비루팽이파?(그게 ‘비루팽’입니까?)

107088 # 옛날에 그거 막게 팽 옛날엔 등덜팽<sup>170)</sup> 그거.(옛날 그거 막게 병 옛날에 ‘등덜팽’ 그거.)

107088 @ 등덜팽 거난.(‘등덜팽’ 그러니까.)

107088 # 등덜팽은 이디서 멩근 거. 건 요영 부리 행.(‘등덜팽’은 여기서 만든 거. 그건 요렇게 부리 해서.)

107088 @ 아, 건 이디서 멩근 거고.(아, 그건 여기서 만든 거고.)

107088 # 거 이디서 대정<sup>171)</sup>서 멩근 거.(그거 여기서 대정서 만든 거.)

107088 @ 아. 그다음에 아까.(아, 그다음에 아까.)

107088 # 헨 건 유리팽게.(한 건 유리병.)

107088 @ 유리팽.(유리병.)

107088 # 유리팽 옛날에 막게 팽 영 사홉들이로 두 개 드는 거 서놔주게.(유리병 옛날에 막게 병 이렇게 사홉들이로 두 개 드는 거 있었지.)

107088 @ 예, 소주 담는, 소주병?(예, 소주 담는, 소주병?)

107088 # 응, 소주팽. 이젠 옛날엔 그 큰 관으로 하나 드는 소주팽 큰 것도 서나고.(응, 소주병. 이젠 옛날엔 그 큰 관으로 하나 드는 소주병 큰 것도 있었고.)

107088 @ 예, 이서놔주마씨, 옛날에.(예, 있었었지요, 옛날에.)

107088 # 이젠 중간엔 그 이제사.(이젠 중간엔 그 이제야.)

107088 @ 게른 아까 처음에 모듈쫄로 이것도?(그러면 아까 처음에 메밀쌀로 이

170) ‘등덜팽’은 진흙으로 만든 두 되들이로 소줏고리에서 술을 받는 병으로 ‘드들팽, 등들팽’이라고도 한다.

171) ‘대정’은 지명을 서귀포시 대정읍을 말한다.

것도?)

107088 # 줍쌀로.(줍쌀로.)

107088 @ 아, 줍쌀로.(아, 줍쌀로.)

107088 # 희린줍쌀로.(차조로.)

107088 @ 희린줍쌀로 오메기떡을 멘들아.(차조로 오메기떡을 만들어.)

107088 # 멩글앙 숲앙, 거 꺾어근에 영행 따시 또 황에 누룩 서경 놔두민 바글 바글 케민 그젠 따시 빠. 고소리에 놔근에.(만들어서 삶아서, 그거 반죽해서 이렇게 다시 또 항아리에 누룩 섞어서 놔두면 바글바글 괴면 그땐 다시 빠. 소줏고리에 놔서.)

107088 @ 고소리에 놔 밑에 물.(소줏고리에 놔서 밑에 물.)

107088 # 아니, 물 놓고 고소리에 그거 비와 놓고 행 물 놔근에, 물을 혼 여남은 불씩 솥뚜껑이 마개, 시리 막듯 딱 막아놔 김 안 나게.(아니, 물 놓고 소줏고리에 그거 부어 놓고 해서 물 놔서, 물 한 여남은 벌씩 솥뚜껑 마개, 시루 막듯 딱 막아놔서 김 안 나게.)

107088 @ 시리 영 뭇로 막아?(시루 이렇게 뭇로 막아?)

107088 # 아무 ㄱ루행 밀ㄱ루나 아무거로나 몰아근에 뱅뱅 막아근에 경허민 그 옷두께 솥뚜껑이 툇허게 옛날에 조선 솥뚜껑이 시민 것에 물 흐룻밤 놔 굴민 그 물 파삭파삭, 싹싹 물 꿰주게. 김 팡팡 나명.(아무 가루해서 밀가루나 아무거로나 반죽해서 뱅뱅 막아서 그렇게 하면 그 옷두께 솥뚜껑 툇허게 옛날에 조선 솥뚜껑 있으면 그것에 물 하룻밤 놔서 갈면 그 물 ‘파삭파삭’, ‘싹싹’ 물 끓지. 김 팡팡 나면서.)

107088 @ 예.(예.)

107088 # 경허민 브뜨민 그거 끓어똥 또 놔 굴곡 또 놔 굴곡 혼 열두 번은 굴아근에 허민 그 술이 행 툇허게 나는 술도 있고 약허게 나는 술도 있고. 우리 술 다까났어. 나 안 해본 거 었어.(그러면 받으면 그거 끓어두고 또 놔서 같고 또 놔서 같고 한 열두번은 갈아서 하면 그 술이 해서 툇허게 나는 술도 있고 약허게 나는 술도 있고. 우리 술 고았었어. 나 안 해본 거 었어.)

107088 @ 고소리에 다까.(소줏고리에 고아.)

107088 # 경허민 그 주생인 도새기나 주고.(그러면 그 찌꺼긴 돼지나 주고.)

107088 @ 주생인 도새기나 주고.(찌꺼긴 돼지나 주고.)

107088 # 경행 품도 허고.(그렇게 해서 팔기도 하고.)

107088 @ 품도 허고?(팔기도 하고?)

107088 # 응, 먹으려 오민 품도 허고 옛날에.(응, 먹으러 오면 팔기도 하고 옛날에.)

107090 @ 그믐 아까 그 오메기떡 행 허는 누룩 서끄는 거 누룩도 집이서 멘들어 낫수과?(그럼 아까 오메기떡 해서 하는 누룩 섞는 거 누룩도 집에서 만들었었습니까?)

107090 # 누룩행 보릿ㄱ루행 멩글아.(누룩해서 보릿가루해서 만들어.)

107090 @ 건 어떻 멘드는 거파?(그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7090 # 보릿ㄴ루 해근에 보리 곶아나민 ㄴ레헝 손ㄴ레헝 곶아나민 ㄴ루가 곶인 ㄴ루 나민 그 ㄴ루 해근에 다라에 ㄴ근에 물 ㄴ앙 떡ㄴ치 멩글앙 그거 헝 ㄴ앙 톱와 근에. 톱왕 ㄴ아근에.(보릿가루 해서 보리 갈아나면 멧돌해서 손멧돌해서 갈아나면 가루가 곶은 가루 나면 그 가루 해다가 대야에 ㄴ아서 물 ㄴ아서 떡처럼 만들어서 그거 해서 ㄴ아서 톱워서.)

107090 @ 아.(아.)

107090 # 경헝 술허주게.(그렇게 해서 술하지.)

107090 @ 아까 그믐 보리.(아까 그러면 보리.)

107090 # 보릿ㄴ루에.(보릿가루에.)

107090 @ 보릿ㄴ루에.(보릿가루에.)

107090 # 경헝 그거 헝 ㄴ앙 떡ㄴ찌 오메기떡ㄴ찌 동글동글허게 헝 딱딱 누르 뜨멍 딱허게 담앙 ㄴ두민 차반지나 무시것에 아무것에라도 딱 헝 ㄴ두민 헤영케 곱 쟁이 꺾영 트주게. 트민 그젠 ㄴ렁 그거 ㄴ아근에.(그렇게 해서 그거 해서 말아서 떡처럼 오메기떡처럼 동글동글하게 해서 딱딱 눌러서 딱하게 담아서 ㄴ두면 채반이나 무엇에 아무것에라도 딱해서 ㄴ두면 하얗게 곱팡이 꺾어서 뜨지. 뜨면 그젠 말려서 그거 ㄴ앙아서.)

107090 @ 아, 그게 누룩?(아, 그게 누룩?)

107090 # 응, 그게 누룩이라. 경헝 잘 트민 경헝 저 흐린좁쌀도 허고 따시 그자 좁쌀 ㄴ앙 밥도 헤영근에 허곡, 밥헝도 서경 ㄴ당도 허고.(응, 그게 누룩이야. 그렇게 해서 잘 뜨면 그렇게 해서저 차좁쌀도 하고 다시 그저 좁쌀 ㄴ아서 밥도 해서 하고, 밥해서 섞어서 ㄴ다가도 하고.)

107090 @ 응.(응.)

107090 # 다시 우리 옛날엔 감저도 쳐 ㄴ앙, 감저도 해근에 청 문작문작 꺾영 그 좁쌀에 흐디 서꺼근에 술허민 것도 돼고.(다시 우리 옛날엔 고구마도 찌서 ㄴ아서, 감자도 해서 찌서 ‘문작문작’ 반죽해서 그 좁쌀에 함께 섞어서 술하면 그것도 되고.)

107090 @ 아. 좁쌀로만 허는 게 아니구나예?(아. 좁쌀로만 하는 게 아니군요.)

107090 # 좁쌀로만 안 혀. 경헝 막 꺾어근에 항에 헝 담앙 딱 봉헝 ㄴ두민 바글 바글 꺾민 그젠 다까.(좁쌀로만 안 해. 그렇게 해서 막 반죽해서 항아리에 해서 담아서 딱 봉해서 ㄴ두면 바글바글 꺾면 그젠 고아.)

107090 @ 다끄는 건 아까 고소리에 허는 거?(고는 건 아까 소줏고리에 하는 거?)

107090 # 고소리에 ㄴ근에 경헝 솟디 ㄴ앙 습아가민 ㅽ 바트민 ㅽ에 졸졸졸허민 지름 ㅽ 나오듯 나와. 조룩조룩허게 나와가. 경헝낫주.(소줏고리에 ㄴ아서 그렇게 해서 술에 ㄴ아서 때가면 병 받치면 병에 졸졸졸하면 지금 ㅽ 나오듯 나와. ‘조룩조룩’ 하게 나와가. 그랬었지.)

107089 @ 원다리는?(‘원다리’는?)

107089 # 쉼다린 따시 또 밥 쉬민 그 누룩 그거 멩근 거. 그거 허꺼근에 낱벼두민 바글바글 췌지.('쉼다리'는 다시 또 밥 쉬면 그 누룩 그거 만든 거. 그거 섞어서 놔두면 바글바글 췌지.)

107089 @ 예.(예.)

107089 # 경허민 삶으민 쉼다리.(그러면 삶으면 '쉼다리'.)

107089 @ 경행 삶으민 쉼다리. 물도 놔?(그렇게 해서 삶으면 '쉼다리'. 물도 놔?)

107089 # 물, 밥에 물 놔야허지. 밥에 물 안 낱 것만 놔지느냐? 물 낱 죽궤찌 행 놔두민 경행 박삭 췌주게.(물, 밥에 물 놔야하지. 밥에 물 안 놔서 그것만 놀 수 있니? 물 놔서 죽같이 해서 놔두면 그렇게 해서 박삭 췌지.)

107089 @ 그냥 누룩만 놓민 뵤는 거꽈?(그냥 누룩만 놓으면 되는 겁니까?)

107089 # 아니 그 밥에, 밥 쉬민 밥에 그 누룩에 버물영, 물 낱 버물영 죽궤찌 헤근에 낱폰에나 무시거에 놓민 박삭이 부끄주게.(아니 그 밥에, 밥 쉬면 밥에 그 누룩에 버물영, 물 놔서 버물영 죽처럼 해서 양폰에나 무엇에 놓으면 박삭 부풀지.)

107089 @ 예.(예.)

107089 # 거 낱 삶으민 쉼다리.(그거 놔서 삶으면 '쉼다리'.)

107091 @ 아. 옛도 만들어놔수꽈?(아, 옛도 만들었었습니까?)

107091 # 응.(응.)

107091 @ 무신 옛헉니까?(무슨 옛헉니까?)

107091 # 옛은 희린좁줄도 허고 밀 헤근에 골 놔근에 놔두민 뽕질뽕질, 물 컷당 건저근에 무시거에 다라에나 무시거 행 놔두민 꼬작꼬작.(옛은 차좁쌀도 하고 밀 해서 옛기름 놔서 놔두면 '뽕질뽕질', 물 잠갔다가 건져서 무엇에 대야에나 무엇 해서 놔두면 '꼬작꼬작'.)

107091 @ 보리?(보리?)

107091 # 밀.(밀.)

107091 @ 아, 밀.(아, 밀.)

107091 # 밀 헤근에 옛날에 밀옛. 경허민 그디 뽕족뽕족허게 문딱 나오주게. 시엿 박삭이 나곡 허민 그젠 그거 풀링 널영 물리왕. 거 궤에 낱 골아근에 희린좁줄 놔근에 희린좁줄 죽 췌근에 팍팍 뵤게 행 죽 췌근에 그거 행 빙빙허게 서껍 닳다근에 헤낫주.(밀 해서 옛날 밀옛. 그러면 거기 '뽕족뽕족'하게 모두 나오지. 수엿 박삭 나고 하면 그젠 그거 풀어서 널어서 말려서. 그거 맷돌에 놔서 갈아서 차좁쌀 놔서 차좁쌀 죽 췌어서 팍팍 뵤게 해서 죽 췌서 그거 해서 빙빙하게 섞어 닳다가 했었지.)

107091 @ 응. 서꺼근에 그다음엔 어떻게?(응. 섞어서 그다음엔 어떻게 해?)

107091 # 경행 막췌텐 저 밀, 청주 무시거 그거 행 다깁 것도 행 허민 골라앗아 근에 허민 걸르민 건 안 삶아. 청주 생 거.(그렇게 해서 마지막엔 저 밀, 청주 무엇

그거 해서 고아서 그것도 해서 하면 가라앉아서 하면 거르면 그건 안 삶아. 청주 생 거.)

107091 @ 아니, 옛, 옛.(아니, 옛, 옛.)

107091 # 옛, 옛도 경행 해난. 경해근에 따시 또 희린좁쌀 낱 밥해근에 골 놔근 에 서경 놔두민 따시 것도 퀘여. 퀘민 그젠 막 짜주게. 퀘지 안허민 짜지 못허주. 문작문작해영 막 그 주멩기 접아낱 꾸멍 물 멧 번 놓멍 꾸어근에 그거 놔근에 솟디 낱 막 팔러가민 옛뉘주게. 우리 옛도 해난.(옛, 옛도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차좁쌀 놔서 밥해서 옛기름 놔서 섞어서 놔두면 다시 그것도 괴어. 괴면 그 땐 막 짜지. 괴지 않으면 짜지 못하지. ‘문작문작’해서. 막 그 주머니 집어놔서 반죽 하면서 물 몇 번 놓으면서 반죽해서 그거 놔서 솥에 놔서 막 달여 가면 옛 되지. 우리 옛도 했었어.)

107091 @ 꿩옛 이런 거 잊수게.(꿩옛 이런 거 잊잖습니까.)

107091 # 응, 그거 행 낱 팔리당 따시 꿩은 삶앙 박박 찢어낱 것에 낱 팔리민 꿩옛.(응, 그거 해서 놔서 달이다가 다시 꿩은 삶아사 박박 찢어놔서 그것에 놔서 달이면 꿩옛.)

107091 @ 아, 그레 놓민 꿩옛. 꿩옛 말고 다른 옛도 해낫수과?(아, 그리 놓으면 꿩옛, 꿩옛 말고 다른 옛도 했었습니까?)

107091 # 딱른 옛 그거주게. 그 옛이.(다른 옛 그거지. 그 옛이.)

107091 @ 꿩 말고 득도 놔?(꿩 말고 닭도 놔?)

107091 # 득도 놔도 돼여.(닭도 놔도 돼.)

107091 @ 뭐 뭐 놓니까? 꿩도 놓을 수 있고 득도 놓을 수 있고.(뭐 뭐 놓니까? 꿩도 놓을 수 있고 닭도 놓을 수 있고.)

107091 # 경헌디 큰일 땐 그거 안 허주. 보기로나 그거 허주. 큰일 땐 안 해낫 저게. 그냥 옛만 해여근에 이제 세배 온 사름덜 행 떡행 낱 떡 찢어 먹으렌 거 줘 낫저. 종지에 놔근에. 상에도 올리고.(그런데 큰일 땐 그거 안 하지. 보기로나 그거 하지. 큰일 땐 안 했었어. 그냥 옛만 해서 이제 세배 온 사람들 해서 떡해서 놔서 떡 찢어 먹으라고 그거 줘었지.)

107091 @ 아.(아.)

107091 # 멩질에 옛날에 상에 다 올려나놔어.(멩질에 옛날에 상에 다 올렸었어.)

107091 @ 옛을?(옛을?)

107091 # 응, 떡 찢어 먹읍센.(응, 떡 찢어 먹으라고.)

107091 @ 떡 찢어 먹읍센. 무신 꿀이라?(떡 찢어 먹으라고. 무슨 꿀이야?)

107091 # 꿀ㄴ찌 찍주게. 영영 꿀ㄴ찌 줍어먹어.(꿀같이 찍지. 이렇게 꿀같이 집어먹어.)

107091 @ 꿀 찢어 먹으는 거영 똑ㄴ쁜 거라?(꿀 찢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107091 # 응, 똑ㄴ따. 옛을 허민 풀풀허게 똑ㄴ따. 경행 낫당 여름엔 따시 또 그 겉로 골 해근에 감주도 카근에 삭망 때 감주도 허곡. 단지에 담앙 놔둬서.(응, 똑같

아. 엿을 하면 폴폴하게 똑같아. 그렇게 해서 왔다가 여름에 다시 또 그걸로 엿기름 해서 감도 타서 삭망 때 감주도 하고. 단지에 담아서 놔두면서.)

107091 @ 예.(예.)

107091 # 게난 나 안 해본 거 신 중 알멘? 옛날에.(그러니까 나 안 해본 거 있는줄 아니? 옛날에.)

107092 @ 할머니, 만뒤<sup>172)</sup>도 해놔수과?(할머니, ‘만뒤’도 했었습니까?)

107092 # 게 만뒤는 따시 또.(게 ‘만뒤’는 다시 또.)

107092 @ 만뒤 또 어떻 허는 거와?(‘만뒤’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92 # 모듈<sup>ㄱ</sup>루 해근에 몰아.(메밀가루 해서 반죽해.)

107092 @ 아까 세미떡이영 트나?(아까 ‘세미떡’이랑 달라?)

107092 # ㄱ뜨주게. 게난 몰아근에 저 거시기 사발로 사발 툽툽 텅 그디 쉬, 쉼 아무 쉬라도 담양 늪빠나 아무거라도 담양 그레 꼭꼭 줍양 삶아. 삶양 따시 또 우이 미치는 건 쫄이나 콩이나 콩 보꾼 거나 미치민 만뒤.(같지. 그러니까 반죽해서 저 거시기 사발로 사발 툽툽 떠서 거기 소, 소는 아무 소라도 담아서 무나 아무거라도 담아서 그리 꼭꼭 접어서 삶아. 삶아서 다시 또 위에 무치는 건 팔이나 콩이나 콩 볶은 거나 무치면 ‘만뒤’.)

107092 @ 아, 우에 그거를 또 무쳐.(아, 위에 그거를 또 무쳐.)

107092 # 경허민 만뒤.(그러면 ‘만뒤’.)

107092 @ 경허민 만뒤. 만된 언제 먹는 거와?(그러면 ‘만뒤’. ‘만뒤’는 언제 먹는 겁니까?)

107092 # 만뒤 아무 때도. 이 어디 제물떡. 옛날은 제물떡 해 갈 때 만뒤해가곡 옛날은 따시 영장 난 때도 상제들 그 떡 해영 마트민 돌레떡 안허는 딴 만뒤해여근에 이만씩 만뒤해근에 사발로 터넣 막 크게 행. 혼 사름이 상된 네 개, 여청은 세 개. 영장밧되 강.(‘만뒤’ 아무 때라도. 이 어디 부조떡 해 갈 때 ‘만뒤’해가고 옛날은 다시 상 난 때도 상주들 그 떡 해서 말으면 도래떡 안 하는 덴 ‘만뒤’해서 이만큼씩 ‘만뒤’해서 사발로 떠와서 막 크게 해서. 한 사람이 상여꾼은 네 개, 여편네는 세 개. 장지에 가서.)

107092 @ 영장밧되 갈 때 만뒤를?(장지에 갈 때 ‘만뒤’를?)

107092 # 응.(응.)

107092 @ 여청은 세 개.(여편네는 세 개.)

107092 # 응, 남전 네 개.(응, 남자는 네 개.)

107092 @ 남전 네 개씩 줘?(남자는 네 개씩 줘?)

107092 # 응. 경허민 여라이 간 딴 만뒤가 막 한한허주게. 정행 주민게.(응. 그러면 여러 명 간 덴 ‘만뒤’가 아주 많지. 그렇게 해서 주면.)

107092 @ 예.(예.)

---

172) ‘만뒤’는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팔소를 넣고 가운데로 접어서 만들어 삶거나 찌낸 후 팔고물을 묻힌 떡이다.

107092 # 풋쉬 미쳐근에.(팔고물 무쳐서.)

107092 @ 풋쉬 무쳐근에. 건 거든 영장 때만 허는 거파?(팔고물 무쳐서. 그건 그러면 상 때만 하는 겁니까?)

107092 # 아, 영장 때도 허곡 이 저 거시기 어디 제물떡도 허곡게.(아, 상 때도 하고 이 저 거시기 어디 부조떡도 하고.)

107092 @ 제물떡? 식게 때?(부조떡? 제사 때?)

107092 # 대소상혈 때.(대소상할 때.)

107092 @ 아, 대소상혈 때.(아, 대소상할 때.)

107092 # 제물떡도 경행 해가고.(부조떡도 그렇게 해서 해가고.)

107092 @ 아. 만뒤로 제물떡을 허는 거파?(아. 만뒤로 부조떡을 하는 겁니까?)

107092 # 응, 제물떡도 해 가고. 따시 이녀 부모 제사라도 그거 만뒤 줍양 제물떡 해가고. 빵허는 사람은 빵허곡 그거 정성허는 사람은 그거 허곡. 흐랑흐랑허게시리. 밀도 행 허고, 밀ㄴ루도.(응, 부조떡도 해 가고. 다시 자기 부모 제사라도 그거 만뒤 접어서 부조떡 해가고. 빵하는 사람은 빵하고 그거 정성하는 사람은 그거 하고. ‘흐랑흐랑’하게끔.)

107092 @ 밀ㄴ루로?(밀가루로?)

107092 # 응.(응.)

107092 @ 떡이 부서전예. 부서지민 부스러기 막 이십니께, 그 부스러긴 뭐엔 글야?(떡이 부서졌어요. 부서지면 부스러기 막 있잖아요, 그 부스러긴 뭐라고 말해?)

107092 # 브스레기.(‘브스레기’.)

107092 @ 브스레기.(‘브스레기’.)

107092 # 떡 브스레기.(떡 ‘브스레기’.)

107092 @ 떡 브스레기. 그다음에 반죽할 때 물 하영 놓면.(떡 ‘브스레기’. 그다음에 반죽할 때 물 많이 놓으면.)

107092 # 익어, 익영 못허키여.(익어, 익어서 못하겠다.)

107092 @ 아니 반죽할 때.(아니 반죽할 때.)

107092 # 반죽할 때 물 하영 놔불민 익영 못 헤여.(반죽할 때 물 많이 놔버리면 익어서 못 해.)

107092 @ 거난 물 하영 낫덴 험 말을.(그러니까 물 많이 냈다고 한 말을.)

107092 # 물 하영 놔부난 익어부난 못허켜. 따시 ㄴ루 더 놓라.(물 많이 놔버리니까 익어버리니까 못하겠다. 다시 가루 더 놓아라.)

107092 @ ㄴ루 더 놓라 험 때 익엇텐 험니까?(가루 더 놓아라 할 때 익었다고 합니까?)

107092 # 응, 익엇젠. 익언 ㄴ루 더 놓라.(응, 익었다고. 익언 가루 더 놓아라.)

107092 @ 물 하영 안 논 건?(물 많이 안 놓은 건?)

107092 # 안 낱 물 맞이민 그냥 허주게.(안 놔서 물 맞으면 그냥 하지.)

107092 @ 아니, 물이 너무 죽아.(아니, 물이 너무 적어.)

107092 # 물 죽은 건 따시 또 물 더 놓라.(물 적은 건 다시 또 물 더 놓아라.)

107092 @ 아이고, 뒤텔저 이런 말 안 써?(아이고, 뒤텔. 이런 말 안 써?)

107092 # 아니 물 맞이민 이레 물 아정 오랑 놓젠 허민 물 그만 놓민 뒤텔저 아정 가불라.(아니 물 맞으면 이리 물 가져서 와서 놓으려고 하면 물 그만 놓으면 됐다 가져가버려라.)

107092 @ 물이 죽으면 이젯말로 뒤텔 영허는디.(물이 적으면 이젯말로 되다 이렇게 하는데.)

107092 # 물 죽영 낱 그루 므르민 물 더 아져오라 물 더 놓게 그거주게.(물 적게 놔서 가루 마르면 물 더 가져와라 물 더 놓게 그거지.)

107092 @ 그민 과줄도 이디 해낫수과?(그러면 과줄도 여기 했었습니까?)

107092 # 응. 과줄도 해난.(응. 과줄도 했었어.)

107092 @ 아, 과줄도 이디 해난마씨? 옛날도.(아, 과줄도 여기 했었어요? 옛날도.)

107092 # 응, 옛날 과줄. 아이고 옛날 대소상허젠 허민 과줄, 아이고.(응, 옛날 과줄. 아이고 옛날 대소상하려고 하면 과줄, 아이고.)

107092 @ 아, 이거, 대소상할 때 허는 거꽈?(아, 이거 대소상할 때 하는 겁니까?)

107092 # 대소상할 때민양 과줄쫄 해영 모뎀쫄이나 나룩쫄, 저 산뒤쫄이나 다 테왕 솟두껍이에 낱, 솟디 낱 다 보깡 찌민 팍팍 해영케 올라오주.(대소상할 때면 과줄쫄 해서 메밀쫄이나 쫄, 저 밭벼쫄이나 다 튀겨서 솟두껍에 놔서, 솥에 놔서 다 볶아서 찌면 팍팍 하얗게 올라오지.)

107092 @ 응.(응.)

107092 # 경허민 과줄허젠 방상사름덜 다 메와정 혼디 낱 그걸 다 좇어. 큰일 밧디 허젠 허민. 그 쫄을 다 좇영 따시 밀궤루 이젠 그레 앓정 방상사름덜 땃이 들어앓앙 그레 세 개씩 논 거 다 곱아. 밀을.(그러면 과줄하려고 일가불이 사람들 다 모여서 함께 놔서 그걸 다 주어. 큰일 밧에 하려고 하면. 그 쫄을 다 주워서 다시 밀가루 이젠 땃돌 놔서 일가불이 사람들 땃이 들어앓아서 땃돌 세 개씩 놓은 거 다 곱아. 밀을.)

107092 @ 예.(예.)

107092 # 다 곱앙 치멍, 막 치멍 고운 그룬 해영근에 허고 따시 갈른 건 해영근에 따시 또 해영근에 갈라 먹고, 밀궤루로. 과줄허젠 허민 밀 혼 여남은 말씩 곱젠 허민 방상 으라이 우리 방상에 그레 서너네 개씩 놓멍 서이씩 곱아.(다 갈아서 치면서, 막 치면서 고운 가루 해서 하고 다시 가루 건 해서 다시 또 해서 갈라서 먹고, 밀가루로. 과줄하려고 하면 밀 한 여남은 말씩 갈려고 하면 일가불이 여러 명 우리 일가불이에 땃돌 서너 개씩 놓으면서 세 명씩 곱아.)

107092 @ 밀을?(밀을?)

107092 # 밀을. 밀궤루 곱아.(밀을. 밀가루 곱아.)



107092 @ 경행 갈아근에?(그렇게 갈아서?)

107092 # 골아근에 그 ㄱ레로 과줄행. 과줄해근에 몰앙 허민 따시 지름 해다근에 집이서 다 튀기주게. 그거 과줄도.(갈아서 그 맏돌로 과줄해서. 과줄해서 반죽해서 하면 다시 기름 해다가 집에서 다 튀기지. 그거 과줄도.)

107092 @ 어뎡행 허는 거마씨?(어떻게 해서 하는 거요?)

107092 # 밀엿, 밀엿.(밀어서, 밀어서.)

107092 @ 밀엿 그다음에.(밀어서 그다음에.)

107092 # 밀어근에 영 소랑소랑허게 영 베어. 경행 지름 낱 다 튀겨.(밀어서 이렇게 기름기름하게 이렇게 잘라. 그렇게 해서 기름 놔서 다 튀겨.)

107092 @ 튀경, 경행?(튀겨서, 그래서?)

107092 # 경행 따시 과줄썰, 옛허곡. 옛도 허여사, 이녁냥으로 해영. 따시 또 그 옛 미치고 과줄썰 미치고.(그래서 다시 과줄썰, 옛하고. 옛도 해야, 자기대로 해서. 다시 또 그 옛 무치고 과줄썰 무치고.)

107092 @ 아, 옛 무청, 썰 튀긴 거 위에 무치는 거. 이제 먹는 과줄이영 똑같네.(아, 옛 무쳐서. 썰 튀긴 거 위에 무치는 거. 이제 먹는 과줄이랑 똑같네.)

107092 # 거 똑ㄱ뜨주게. 공만 하영 들엇주게. 옛날에, 밀ㄱ루 엿이난. 얼먹음만 했주 이제나 똑ㄱ뜬디.(그거 똑같지. 공만 많이 들엇지. 옛날에, 밀가루 없으니까. 고생만 했지 이제나 똑같은데.)

107092 @ 감주도 해낫주예?(감주도 했었지요?)

107092 # 응, 감주도 그 골 낱 티와근에 희린좁썰 낱 밥행 휘휘 젓엿 낫다근에 접지라근에 솟앙.(응, 감주도 그 옛기름 놔서 띄워서 차좁쌀 놔서 밥해서 휘휘 저어서 낫다가 짜서 삶아서.)

107092 @ 응. 막걸리도 집이서 만들어낫수과?(응. 막걸리도 집에서 만들었었습니까?)

107092 # 막걸리도 집이서 해난. 희린좁썰 행 누룩 낱.(막걸리도 집에서 했었어. 차좁쌀 해서 누룩 놔서.)

## 8. 주생활

### 구조

108001 @ 옛날에 집 직접 지어난마씨?(옛날에 집 직접 지었었어요?)

108001 # 우리?(우리?)

108001 @ 응.(응.)

108001 # 응.(응.)

108001 @ 할머니네 집도 할머니네가 지어난? 할아버지영 ㄱ치?(할머니네 집도 할머니네가 지었었어? 할아버지랑 같이?)

108001 # 옛날에 우리 저 나가 이디 저 우이 살단에 이디 열흔 살에 느려완 살 단 상동 시집가난에 이젠 하르방은 집 지스레 땡겨도 이디 오란 집을 짓젠 허난 이제 안거리, 밧거리, 영 안팍거리 행 저딘 밧거리 이딘 안거리 지서낫주게.(옛날에 우리 저 내가 여기 저 위에 살다가 여기 열한 살에 내려와서 살다가 상동 시집가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집 지으러 다녀도 여기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안채, 바깥채, 이렇게 안팍채 해서 저기는 바깥채 여긴 안채 지었었지.)

108002 @ 집 종류는 무슨 집 무슨 집 이서마씨?(집 종류는 무슨 집 무슨 집 있어요?)

108002 # 삼간집 잇고 따시 밧거리 잇고 모커리도 잇고 경해낫주, 옛날에.(삼간집 잇고 다시 바깥채 잇고 곁채도 잇고 그랬었지, 옛날에.)

108002 @ 초가집, 기와집.(초가집, 기와집.)

108002 # 옛날은 다 초집.(옛날은 다 초가집.)

108002 @ 옛날은 다 초집.(옛날은 다 초가집.)

108002 # 이디 초집 지서낫주게.(여기 초가집 지었었지.)

108004 @ 삼간집은 어떤 험 게 삼간집?(삼간집은 어떤 게 삼간집?)

108004 # 삼간집은 큰 집이 삼간집.(삼간집은 큰 집이 삼간집.)

108004 @ 아, 큰 집이 삼간집. 삼간집은 짓젠 허민 다른 거보다 헝뎸 힘들어?(아, 큰 집이 삼간집. 삼간집은 지으려고 하면 다른 거보다 조금 힘들어?)

108004 # 크주게, 삼간집이. 크난 이추록 구들도 두 개 허는 디 싯곡 이 공싯간<sup>173)</sup> 트로 해불민 이디 구들도 싯곡 이디 양팡은 서불민 경 안헌디 이디 구들이 네 개 뉘고. 저 공싯간 트로해근에.(크지, 삼간집이. 크니까 이렇게 방도 두 개 하는데 있고 이 부엌채 따로 해버리면 여기 방도 있고 여기 고방이 있어버리면 그렇게 안하는데 여기 방이 네 개 되고. 저 부엌채 따로 해서.)

108003 @ 무시거 트로?(무엇 따로?)

108003 # 공싯간이엔 험 거.(부엌채라고 한 거.)

108003 @ 공싯간이 뭐?('공싯간'이 뭐?)

108003 # 부엌, 부엌.(부엌, 부엌.)

108003 @ 아, 공싯간이 부엌?(아, '공싯간'이 부엌?)

108003 # 응, 공싯간에 바꿔디 짓영 저레 정지혜여불곡 그디 고평해불민 이디가 구들이 네 개 뉘불주게.(응, 부엌채에 밖에 지어서 저리 부엌해버리고 거기 고평해버리면 여기가 방이 네 개 되어버리지.)

108003 @ 봉싯간?('봉싯간'?)

108003 # 공싯간. 공싯간이엔 험 건 옛날엔 정지 영 안팍거리 험 거 공싯간.('공싯간'. '공싯간'이라고 한 건 옛날엔 부엌 이렇게 안팍채 한 거 '공싯간'.)

108003 @ 정지가 밧거리에 이서?(부엌이 바깥채가 있어?)

108003 # 응.(응.)

173) '공싯간'은 부엌과 고평만 본채에서 분리하여 따로 구성되어 있는 집채를 말한다.

108003 @ 아, 정도 허는구나예.(아, 그렇게도 하는군요.)

108003 # 응, 밥해 먹는 디 트로게.(응, 밥해 먹는 데 따로.)

108003 @ 밥해 먹는 디 트로.(밥해 먹는 데 따로.)

108003 # 응, 부젓칩인 트로 해낫어, 옛날에.(응, 부젓집은 따로 했었어, 옛날에.)

108003 @ 아, 게민 방은 어떻 때? 굴묵으로?(아, 그러면 방은 어떻게 때? ‘굴묵’으로?)

108003 # 이딘 굴묵으로 허민 이디도 절로 허민 굴묵이고 이디 굴묵이고 저디도 허민 영 굴묵 네 개 다 때지주게. 군데로 영 검질 행 몬지락 담양.(여긴 ‘굴묵’으로 하면 여기도 저리로 하면 ‘굴묵’이고 여기 ‘굴묵’이고 저기도 하면 이렇게 ‘굴묵’ 네 개 다 때지. 고무래로 이렇게 검불 해서 먼지 담아서.)

108003 @ 뭐 담양?(뭐 담아서?)

108003 # 몬지락 담양.(‘몬지락’ 담아서.)

108003 @ 몬지락은 뭐?(‘몬지락’은 뭐?)

108003 # 검질 부서진 몬지락.(검불 부서진 먼지.)

108003 @ 아.(아.)

108003 # 옛날은 검질로 몬 게난 출혈 때 그거 부서정 쉼머리엿 것도 쉼출 쥐나민 그 머리말에 것도 해당 솔고 경허명 살아난. 허당 버치민 따시 엿이민 출도 빠당 진곡. 단차 출해당 진으멍, 남도 때곡.(옛날은 검불로 모두 그러니까 풀할 때 그거 부서져서 ‘쉼머리’의 것도 소풀 주고 나면 그 머리말에 것도 해다가 때고 그렇게 살았었어. 하다가 힘들면 다시 없으면 풀도 빠다가 때고. 단째 풀해다가 때면서, 나무도 때고.)

108005 @ 이 저 기둥 뭐 보 주춧돌허는 말 잇수게?(이 저 기둥 뭐 보 주춧돌하는 말 있잖아요?)

108005 # 주춧돌은 지둥굽이 주춧돌.(주춧돌은 기둥뿌리가 주춧돌.)

108005 @ 먼저 집을 짓젠 허민 어떻헉니까?(먼저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8005 # 네 귀에 거.(네 모서리의 거.)

108005 @ 네 귀에 지붕굽을, 아, 지둥굽을 봐.(네 모서리에 기둥뿌리를, 아 기둥뿌리를 봐.)

108005 # 네 귀에 이제 그 집을 해근에 그, 날을 뺑 그날에 집을 못허민 따시 샅 아져당 네 꺾 파.(네 모서리에 이제 그 집을 해서 그, 날을 봐서 그날에 집을 못하면 다시 샅 가져다가 네 모서리를 파.)

108005 @ 예.(예.)

108005 # 그날에 네 꺾 짹짹 팡 나두민 그거 집 짓는 생이 돼는 거라. 경행 낫당 그젠 그 주춧돌이엔 현 건 지둥각 갖다근에 네 귀에 딱딱 박아놔근에.(그날에 네 모서리를 파파 파서 놔두면 그거 집 짓는 모양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놔다가

그제는 그 주춧돌이라고 한 건 ‘지둥깍’ 갖다가 네 모서리에 딱딱 박아놔서.)

108005 @ 지둥굽을? 돌맹이로?(기둥뿌리를? 돌맹이로?)

108005 # 돌로. 해당 네 귀에 박으면 해당 시작을 해여.(돌로. 해다가 네 모서리에 박으면 해서 시작을 해.)

108005 @ 경행 기둥을 세와, 그다음엔?(그래서 기둥을 세워, 그다음엔?)

108005 # 경해민 따시 또 그디 세와 허민, 네 귀에 해낭 따시 또 집해근에 문딱 네 귀에 남 걸쳐근에 큰 상마루 걸쳐, 네 귀에 걸쳐근에. 이젠 따시 또 그레 이젠 허젠 허당 상마루 막곳에 행 올리민 지둥 막곳에 올리민 거 상마루 올리는 거엔 해근에, 그때민 광목이나 혼 톨 해당 이제 지붕 우이 걸쳐곡 독 해당 올리곡 다 해근에 제물 다 해당 제지내곡 허주게.(그러면 다시 또 거기 세워서 하면, 네 모서리에 해놔서 다시 또 그리 이젠 하려고 하다가 용마루 마지막에 해서 올리면 기둥 마지막에 올리면 그거 용마루 올리는 거라고 해서, 그때면 광목이나 한 톨 해다가 이제 지붕 위에 걸치고 닻 해다가 올리고 다 해서 제물 다 해다가 제지내고 하지.)

108006 @ 응. 그믐 흘질허는 거 곁아줍서.(응. 그러면 흘질하는 거 말해주세요.)

108006 # 흘질허는 건 정해근에 문 해놓민 따시 준 남해근에 요멘씩 요멘씩 헌 거 진진헌 거 해당 상마루에 닻 닻 양편 돌아가면 저영해영 다 걸쳐곡 해여 낭 그디 대 해여근에 따시 서슬<sup>174)</sup>이엔 허는 건 대해영 줄 놔놔나근에 그레 서슬대 꼭꼭 짚려근에 영 이 지붕 우이 다 올리주게.(흘질하는 건 그렇게 해다가 모두 해놓으면 다시 잔 나무해서 요만큼씩 요만큼씩 한 거 긴 거 해다가 용마루에 닻 닻 이렇게 이렇게 양편 돌아가면서 저렇게 해서 다 걸쳐고 해 놔서 거기 대 해다가 다시 ‘서슬’이라고 하는 건 대해서 줄 놓고나서 그리 ‘서슬대’ 꼭꼭 짚려서 이렇게 이 지붕 위에 다 올리지.)

108006 @ 예.(예.)

108006 # 네 귀에 올려낭 이젠 그거 해근에 따시 그디 혹 올리젠 허민 혹 뛰어근에 그레 지붕 우터레 다 올령 더퍼 낭 경해낭 이젠 따시 또.(네 모서리에 올려놓고 이젠 그거 해서 다시 거기 혹 올리려고 하면 혹 반죽해서 그리 지붕 위에 다 올려서 덮어 놓고 이젠 다시 또.)

108006 @ 아까 혹 뛰는 거 다시.(아까 혹 반죽하는 거 다시.)

108006 # 혹 뛰는 거 흘질.(혹 반죽하는 거 흘질.)

108006 @ 흘질 어떻게해여? 흘질.(흘질 어떻게 해? 흘질.)

108006 # 혹 해근에 허민 이 마당 지픈 딴 마당에 거 파근에 막 갈앙 막 파낭 그젠 이젠 무룩이 소파놓민 그디 이제 놉 빌어근에 물 길어다근에 비우고. 비와가 명 따시 산뒤짚이나 보리짚이나 그디 만딱 허끄명 블라낭.(혹 해서 하면 이 마당 깊은 텨 마당의 거 파서 막 갈아서 막 파놔서 그땐 이젠 수북이 축아놓으면 거기 이제 놉 빌어서 물 길어다가 붓고. 부어 가면서 다시 밭뽕짚이나 보릿짚이나 거기 모두 섞으면서 밟아놔서.)

174) ‘서슬’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다.

108006 @ 예, 사름이 불라?(예, 사람이 밍아?)

108006 # 믱쉬가, 믱쉬 밍영.(마소가, 마소 밍어서.)

108006 @ 아, 믱쉬 밍영.(아, 마소 밍어서.)

108006 # 쉼 밍영 불려. 갱 불려낭 이젠 따시 또 그걸 또 이젠 삼, 갈래죽으로 이젠 쉼스렁으로 몬 데쓰주. 다 데싸 낭 또 이젠 따시 그디 수세<sup>175)</sup> 답아놓멍 또 불려.(소 밍어서 밍아. 그래서 밍아 와서 이제 다시 또 그걸 또 이젠 삼, ‘갈래죽’으로 이젠 쇠스랑으로 모두 뒤집지. 다 뒤집어 놓고 또 이젠 다시 거기 ‘수세’ 답아놓으면서 또 밍아.)

108006 @ 예.(예.)

108006 # 또 불려낭 그젠 이젠 이디 허젠 허민 산테<sup>176)</sup> 헤영 와근에 그레 흑 델멍 들르멍덜 착착 부지데경 영영영 불라가주게.(또 밍아와서 그땐 이젠 여기 하려고 하면 ‘산테’ 해서 와서 그리 흑 델면서 들면서 착착 내리갈겨서 이렇게 이렇게 밍아가지.)

108006 @ 아까 흑질헐 때 무신거?(아까 흑질할 때 뭐?)

108006 # 흑질허젠 허민.(흑질하려고 하면.)

108006 @ 사람덜이 막 가정온덴 허멍.(사람들이 막 가져온다고 하면서.)

108006 # 물 헤다근에 물 밍영, 먼 딴 물 밍어당 허벅덜로 다 물 질어다 비우젠 허민 그 사름덜 스물이나 열이나 정심헐, 다 정심헐근에 그땐 보리쌀에 좁쌀에 헤근에 밥헐 맥이고. 따시 상뒤<sup>177)</sup>허는 사름덜은 상뒤밥<sup>178)</sup>은 이제 잘허는 사름덜은 신경 다 쓴덴. 난 저 친정에서도 물밥<sup>179)</sup>은, 물꾼밥이엔 허는 건 여청 물지는 사름.(물 헤다가 물 밍어서, 먼 데는 물 밍어다가 동이들로 다 물 질어다가 비우려고 하면 그 사람들 스물이나 열이나 점심해서, 다 점심해서 그땐 보리쌀에 좁쌀에 해서 밥해서 먹이고. 다시 ‘상뒤’하는 사람들은 ‘상뒤밥’은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신경 다 쓴다고. 난 저 친정에서도 ‘물밥’은, ‘물꾼밥’이라고 하는 건 여편네 물 지는 사람.)

108006 @ 예.(예.)

108006 # 상뒤밥이엔 상뒤허는 사름덜 흑질허는 사름덜 상뒤밥을 그건 따시 곤 쫄이나 놓고 헐 밥헐 맥이고.(‘상뒤밥’이라고 ‘상뒤’하는 사람들 흑질하는 사람들 ‘상뒤밥’을 그건 다시 흰쌀이나 놓고 해서 밥해서 먹이고.)

108006 @ 응.(응.)

108006 # 경허는 거. 바로 영장허는 사름덜이영 혼 가지라.(그러는 거. 바로 영장하는 사람들이랑 한 가지야.)

108006 @ 아.(아.)

175) ‘수세’는 흙을 이길 때 쉬는 벗짚이나 띠 등을 말한다. 이것을 쉬어야 벽이나 지붕에 바른 흙이 떨어지지 않는다.

176) ‘산테’는 긴 두 나무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가마처럼 앞뒤로 들게 한 들것이다.

177) ‘상뒤’는 ‘상두’로 상여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흑질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178) ‘상뒤밥’은 흑질하는 사람들이 먹을 밥이다.

179) ‘물밥’은 뒤에 나오는 ‘물꾼밥’과 같은 뜻으로 물을 질어다 주는 사람들이 먹을 밥이다.

108006 # 경허명 우리 이디 집을 짓었어.(그러면서 우리 여기 집을 지었어.)

108006 @ 흑질은 경행 그거 흑 꾸엉 올리고.(흑질은 그렇게 해서 그거 흑 반죽 해서 올리고.)

108006 # 올리고 다 이디 불르는 사름 저디 올리는 사름 행 여라이 혼, 우린 저 목시일 하간 목시일 허레 덩기곡, 목시일 행 쿼 아니 받고 허난 집을 짓어도 남, 소남 다 행 비어다주고 시꺼다주곡 허명 돈 안 들연 짓었주게.(올리고 다 여기 밍는 사름 저기 올리는 사름 해서 여러 명 한, 우린 저 목수일 온갖 목수일 하러 다니고, 목수일 해서 품 안 받고 하니까 집을 지어도 나무, 소나무 다 해서 베어다주고 실어다주고 하면서 돈 안 들여서 지었지.)

108006 @ 응.(응.)

108006 # 이거 땅만 헨 허난. 경허난 그 흑질허는 사름덜 동네 사름, 저 상동 켜당허고, 켜당덜이 몬 모여들언 다 해쥬, 옛날은.(이거 땅만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흑질하는 사름들 동네 사름, 저 상동 켜당하고, 켜당들이 모두 모여들어서 다 해쥬어, 옛날은.)

108006 @ 예.(예.)

108006 # 경허난 거 밥행 막 맥이민 담배 사주켄 허민 다 해쥬.(그러니까 그거 밥해서 막 먹이면 담배 사주쥬다고 하면 다 해쥬어.)

108006 @ 하하하, 담배 사주켄.(하하하. 담배 사주쥬다고.)

108006 # 다 해쥬. 경헨 집을 지서나고. 저 우이도 경헨에 그땐 부로끄<sup>180)</sup>로 헨 허난 하르방은 부로끄, 나 세멘 서끄고 부로끄 날라다 놓곡 행 하르방은 부로끄 싸고 난 세멘 해당 날르고, 부로끄 날르곡 허명 저 우이도 집, 삼간집 허난 경허명 짓었주게.(다 해쥬.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었고. 저 위에도 그렇게 해서 그땐 블록으로 해서 하니까 할아버지는 블록, 나 시멘트 섞고 블록 날라다 놓고 해서 할아버지는 블록 쌓고 난 시멘트 해다 나르고, 블록 나르고 하면서 저 위에도 집, 삼간집 해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었지.)

108007 @ 게문 방은 보통은 두 개 험니까?(그러면 방은 보통은 두 개 합니까?)

108007 # 방, 게난 세 개 허는 디도 싯곡 두 개 허는 디도 싯곡.(방, 그러니까 세 개 하는 데도 있고 두 개 하는 데도 있고.)

108007 @ 그문 하난 큰방, 작은방 영 곱아? 아니민 어떻 뭇엔 곱읍니까?(그러면 하나는 큰방, 작은방 이렇게 말해? 아니면 어떻게 뭇라고 말합니까?)

108007 # 이 안넛 건 작은방, 이건 영 허난 맞방.(이 안에 건 작은방, 이건 이렇게 하니까 건넌방.)

108007 @ 맞구들이엔.(건넌방이라고.)

108007 # 맞구들.(건넌방.)

108007 @ 맞구들예.(건넌방요.)

---

180) ‘부로끄’는 블록(block)의 일본어인 ‘ブロック’로 건축 재료의 하나다. 시멘트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벽면 따위를 쌓아 올리는 데 쓴다.

108007 # 요건 영허민 죽은방, 안넛방.(요건 이렇게 하면 작은방, ‘안넛방’.)

108007 @ 안넛방. 응. 그든 아까 시렁이영.(‘안넛방’. 응. 그러면 아까 벽장이랑.)

108007 # 시렁은 영 방안에 영 해낭 요 퀘 올려놓는 건 시렁. 굴목 때곡 허는 더랜 시렁. 따시 또 이건 퀘.(벽장은 이렇게 방안에 이렇게 해놔서 요 퀘 올려놓는 건 벽장. ‘굴목’ 때고 하는 데는 벽장. 다시 또 이건 퀘.)

108007 @ 응. 그든 따뜻헌 딴 아까.(응. 그러면 따듯한 덴 아까.)

108007 # 안자리.(아랫목.)

108007 @ 안자리에, 따뜻헌 디.(아랫목요, 따듯한 데.)

108007 # 굴목 절로 굴목 짚어오난 절로 안자리난 그레 따듯허고 이 밧자리 따듯 안 허고.(‘굴목’ 저리로 ‘굴목’ 때오니까 저리로 아랫목이니까 그리 따듯하고 이 윗목은 따듯 안 하고.)

108007 @ 그든 보통 추운 디 갓다오민 이 안자리, 이레 오라 영헤?(그럼 보통 추운 데 갓다오면 이 아랫목, 이리 오라 이렇게 해?)

108007 # 경허난 어른덜은 안자리에 눅곡 아이덜은 밧자리에 눅곡, 경헤낫어.(그러니까 어른들은 아랫목에 눅고 아이들은 윗목에 눅고, 그렇게 했었어.)

108007 @ 예.(예.)

108007 # 게난, 초석, 옛날엔 초석 짱 저 무시거 헤여근에 초석 째이 잇주게. 행글로 짜근에 그거 사당 안자리엔 헌 건 영 넓작허게 이만인 허고 밧자리엔 헌 건 족으민 방 큰 건 그 초석, 큰 초석 두 개 깔곡, 죽은 딴 큰 거 허나 죽은 거 허나베끼 못 깔아.(그러니까, 초석, 옛날엔 초석 짜서 저 무엇 해서 초석 째이 있지. 해서 그걸로 짜서 그거 사다가 아랫목이라고 한 건 이렇게 넓게 이만큼 하고 윗목이라고 한 건 족으면 방 큰 건 그 초석, 큰 초석 두 개 깔고, 작은 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밖에 못 깔아.)

108007 @ 이제 식게헐 때 쓰는 초석?(이제 제사할 때 쓰는 초석?)

108007 # 응, 이녁냥으로 다 짜고 촛에 사름덜게.(응, 자기대로 다 짜고 촛의 사름들.)

108007 @ 아, 자기대로 짱예.(아, 자기대로 짜서요.)

108007 # 우린 안 해봐도 초석 짜는 사름은 초석 짜주게.(우린 안 해봐도 초석 짜는 사름은 초석 짜지.)

108008 @ 응. 이런 거 마리, 마루는?(응. 이런 거 마루, 마루는?)

108008 # 마리는 그냥 영 마리 놔근에.(마루는 그냥 이렇게 마루 놔서.)

108008 @ 처음에는?(처음에는?)

108008 # 채암은 이디 아래 돌 꺾을 이영 바탕, 돌 놔근에.(처음은 여기 아래 돌 꺾을 이어서 받쳐서, 돌 놔서.)

108008 @ 예.(예.)

108008 # 이 아래 만딱 돌 낱 따시 영영 낱 귀틀 놔근에 그레 마리 뒤희주게.(이 아래 모두 돌 놔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나무 귀틀 놔서 그리 마루 되지.)

108008 @ 널예, 마룻널.(널요, 마룻널.)

108008 # 널. 뜯어본 거. 이견 이거 틀른 거 아니라. 계난 널은 이추룩 두더운 거. 영 막 두더운 거.(널. 뜯어버린 거. 이견 이거 바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널은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아주 두꺼운 거.)

108008 @ 건 무신 나무로 험니까?(그건 무슨 나무로 합니까?)

108008 # 그자 남 저 어디 고지, 마룻널이 잇주게, 트로.(그저 나무 저 어디 숲, 마룻널이 있지, 따로.)

108008 @ 아, 트로. 마리는 보통 영허민 아까 저기 이디 화리 붙인 화리 부섭<sup>181)</sup>?(아, 따로. 마루는 보통 이렇게 하면 아까 저기 여기 화로 붙인 화로 ‘부섭’?)

108008 # 응, 영헌 디 영 안자리에 영 혼 더레 화리 놔근에 부섭 낳.(응, 이런 데 이렇게 아랫목에 이렇게 한 데 화로 놔서 ‘부섭’ 놔서.)

108008 @ 부섭 낳.(‘부섭’ 놔서.)

108008 # 우린 부섭 안 놔놔저만은 부섭 놓는 사름은 영 놔. 우린 안 놔 봤.(우린 ‘부섭’ 안 놔놔다만은 ‘부섭’ 놓는 사름은 이렇게 놔. 우린 안 놔 봤어.)

108008 @ 아.(아.)

108008 @ 문은 이디 대문 잇고, 이 마리 뒤에도 문 잇수과?(문은 여기 대문 잇고, 이 마루 뒤에도 문 있습니까?)

108008 # 이 안뒷문. 상방 안뒷문.(이 안뒤곁문. 마루 안뒤곁문.)

108008 @ 상방 안뒷문?(마루 안뒤곁문?)

108008 # 응. 안뒷문 잇주게.(응. 안뒤곁문 있지.)

108008 @ 안뒷문도 널로 허여?(안뒤곁문도 널로 해?)

108008 # 응, 것도 널로 짜근에 허곡. 옛날은 다 널문이주.(응, 그것도 널로 짜서 하고. 옛날은 다 널문이지.)

108008 @ 그다음 요기.(그다음 요기.)

108008 # 이견 방이고 요것도 방이고.(이견 방이고 요것도 방이고.)

108009 @ 아까 저 고팡은? 고팡 만약에 집에 놓젠 허민?(아까 저 고팡은? 고팡 만약에 집에 놓으려고 하면?)

108009 # 고팡은 계난 혼 거리 현 사름은 안에 구들 여라 개 허민 고팡 아이나.(고팡은 그러니까 한 채 한 사름은 안에 방 여러 개 하면 고팡 안 나.)

108009 @ 아, 엇이민.(아, 없으면.)

108009 # 엇이민. 엇은 사름은 구들 하나베끼 못허주게. 집 혼 거리 현 사름은 삼간집 해도 정지 헤여불고 고팡 헤불고 허민 구들 두 개베끼 엇어.(없으면. 없는 사름은 방 하나밖에 못하지. 집 한 채 한 사름은 삼간집해도 부엌 해버리고 고팡 해버리고 하면 방 두 개밖에 없어.)

108009 @ 계민 고팡은 고팡에 뭉뭉 놔두는 거마씨?(그러면 고팡은 고팡에 뭉뭉 놔두는 거예요?)

181) ‘부섭’은 초가 마루 뒤편에 마루청 밑으로 묻어 불을 때는 화로다.



108009 # 그딘 쏘덜 간직허는 거. 곡식 간직허는 거.(거긴 쌀들 간직하는 거. 곡식 간직하는 거.)

108009 @ 응.(응.)

108009 # 곡식덜 다 해다놔 들어놔.(곡식들 다 해다놔서 들어놔서.)

108009 @ 아, 혹시 거기에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그디 댜.(아, 혹시 거기에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거기 댜.)

108009 # 우린 안 해. 게난 허는 사름 허는디 우린 안 해, 우린 안 해. 우린 딱 이녁 초상님 초상 나시베끼만 행 제 음식베끼 영 헌 딴 안 해여.(우린 안 해. 그러니까 하는 사람 하는데 우린 안 해, 우린 안 해. 우린 딱 자기 조상님 조상 뭇만 해서 제 음식밖에 이렇게 한 데는 안 해.)

108009 @ 고팡엔 안 허여예?(고방엔 안 해요?)

108009 # 안 해여. 건 내움으로 가주.(안 해. 그건 ‘내움’으로 가지.)

108009 @ 고팡에는 바람 흥끔 통허렌 영 어떻 구멍?(고방에 바람 조금 통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구멍?)

108009 # 창곰<sup>182</sup>.(‘창곰’.)

108009 @ 창곰 똥라?(‘창곰’ 똥어?)

108009 # 옛날엔 영 이젠 문 돌아도 옛날엔 창곰 영 비루허게 영 창곰 들앙 허주게.(옛날엔 이렇게 이젠 문 돌아도 옛날엔 ‘창곰’ 이렇게 비루하게 이렇게 ‘창곰’ 달아서 하지.)

108009 @ 거문 글로 고녕이라도 들어오지 안허여?(그러면 거기로 고양이라도 들어오지 않아?)

108009 # 들어오라.(들어와.)

108009 @ 들어오라.(들어와.)

108009 # 옛날에.(옛날에.)

108009 @ 못 들어오게 어떻 막아사 헤?(못 들어오게 어떻게 막아야 해?)

108009 # 창곰 막아.(‘창곰’ 막아.)

108009 @ 뭇로 막아?(뭇로 막아?)

108009 # 무신 출 닳은 겘로 막는 사름 잇고.(무슨 꼴 같은 겘로 막는 사람 있고.)

108009 @ 뭇로?(뭇로?)

108009 # 검질로도 몽크령 막곡 경 크게 안 허주게. 요멘이 허민 검질 몽크령 막곡.(검질로도 몽쳐서 막고 그렇게 크게 안 하지. 요만큼 하면 검질 몽쳐서 막고.)

108009 @ 예.(예.)

108009 # 경허주 경 문 안 돌아났어, 옛날에.(그렇게 하지. 그렇게 문 안 달았어, 옛날에.)

---

182) ‘창곰’은 ‘창굼, 창꿈, 창꿈’이라고도 하며 고팡 등에 바람을 통하게 하려고 벽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은 것이다.

108010 @ 게민 정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서, 정지.(그러면 부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엌.)

108010 # 정지에 무시거 행 그디.(부엌에 무엇 해서 거기.)

108010 @ 뭐 뭐 잇수과 정지에?(뭐 뭐 있습니까, 부엌에?)

108010 # 살레 잇고.(찬장 잇고.)

108010 @ 살레도 잇고. 또.(찬장도 잇고. 또.)

108010 # 살레베끼 더 잇어게? 숯 맞지고 살레.(찬장밖에 더 있어? 숯 얹히고 ‘살레’.)

108010 @ 숯덕이영.(붓돌이랑.)

108010 # 물항 잇고게 숯 맞진 건 숯덕이고 갱 따시 살레 그디 허나 농곡 따시 또 물항허곡 허민 메기<sup>183</sup>주게.(물독 잇고 숯 얹힌 건 붓돌이고 그래서 다시 찬장 거기 하나 놓고 다시 또 물독하고 하면 ‘메기’지.)

108010 @ 숯은 보통 몇 개 맞집니까?(숯은 보통 몇 개 얹습니까?)

108010 # 세 개도 맞지곡 쪼그만헌 거 허민 네 개도 맞지곡.(세 개 얹히고 쪼그만 거 하면 네 개도 얹히고.)

108010 @ 아까 숯 종류 여러 개 잇텐 헐게만은.(아까 숯 종류 여러 개 있다고 하던데만은.)

108010 # 두말떼기<sup>184</sup> 큰 거 허영 허곡.(‘두말떼기’큰 거 해서 하고.)

108010 @ 두말떼기.(‘두말떼기’.)

108010 # 웨말친<sup>185</sup> 따씨 죽은 거 그자 밥헐 먹는 거 두어 개 맞지곡.(‘웨말치’는 다시 작은 거 그저 밥해서 먹는 거 두어 개 얹히고.)

108010 @ 응.(응.)

108010 # 따시 쪼끄만 거 허나, 동숯 허나 맞지곡.(다시 쪼그마한 거 하나, 웅달 숯 하나 얹히고.)

108010 @ 응.(응.)

108010 # 경헤영 맞지곡. 경허민 그 정지 행 김치도 해 농곡 따시 물항도 농곡 행 허주게.(그렇게 해서 얹히고. 그러면 그 부엌 해서 김치도 해 놓고 다시 물독도 놓고 해서 하지.)

108010 @ 살레는 어떻 행 짹니까?(찬장은 어떻게 해서 만듭니까?)

108010 # 이젠, 옛날은 시방은 찬장이엔 허주만은 옛날은 살레, 영 귀틀만 네 개 세와낭 영 귀틀 해근에 옆인 대 헤영 헤낫주게.(이젠, 옛날은 시방은 찬장이라고 하지만 옛날은 ‘살레’, 이렇게 귀틀만 네 개 세워놔서 이렇게 귀틀 해서 옆엔 대 해서 했었지.)

108010 @ 아, 옆인 대나무로.(아, 옆엔 대나무로.)

108010 # 대나무로. 경허난 문도 엮주게.(대나무로. 그러니까 문도 없지.)

183) ‘메기’는 재료나 물품이 없음을 힘주어 나타내는 말로 ‘메기독닥’으로도 쓴다.

184) ‘두말떼기’는 숯 중에서 두 말이 드는 것으로 보통 큰일이 있을 때 사용한다.

185) ‘웨말치’는 숯 중에서 한 말이 드는 것으로 보통 밥을 해 먹는다.

108010 @ 아, 문도 엇이.(아, 문도 없이.)

108010 # 대나무로.(대나무로.)

108010 @ 그딤 그릇 어평 놓는 디?(거긴 그릇 얹어서 놓는 데?)

108010 # 응. 사발 어프는 거.(응. 사발 얹는 거.)

108010 @ 응. 게민 반찬이라도 먹당 남은 건 어디 놔둬니까?(응. 그러면 반찬이라도 먹다가 남은 건 어디 놔둬니까?)

108010 # 엇주게. 옛날에 반찬 먹단 그게 솥 안네나 놓주게.(없지. 옛날에 반찬 먹다가 그게 솥 안에나 놓지.)

108010 @ 솥 안네나 놓주예. 응.(솥 안에나 놓지요. 응.)

108010 # 이제ㄴ찌 경 호강시리 살았어게?(이제같이 그렇게 호강스럽게 살았어?)

108010 @ 게민 아까 재, 재. 불치.(그러면 아까 재, 재. 재.)

108010 # 불친 영 이거 영행 요거 요추룩 행 요디 솥 앓지민 이레 불경 쑥쑥, 돌 세 개 앓저근에 돌 세 개 낵 솥덕 앓지민 요 뒤에 앓지민 요 트멍으로 불 숨아가민 불경을 내치주. 불경 문 내치민 그거 다 저 올레에 불칫막 쪼그만허게 짓엉 그레 불경 담아다근에. 낵당 그거 퍼당 따시 보리도 갈곡 무시거 허주.(재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서 요거 요렇게 해서 요기 솥 없히면 이리 재 쑥쑥, 돌 세 개 없혀서 돌 세 개 놔서 붓돌 없히면 요 뒤에 없히면 요 틈을 불 때가면 재를 내치지. 재 모두 내치면 그거 다 저 ‘올레’에 ‘불칫막’ 쪼그맣게 지어서 그리 재 담았다가. 났다가 그거 퍼다가 다시 보리도 갈고 무엇 하지.)

108010 @ 걸름으로?(거름으로?)

108010 # 걸름으로, 그게 걸름이주. 비료가 서시카?(거름으로, 그게 거름이지. 비료가 있었나?)

108010 @ 게난예. 찻방은 뭐허는 거?(그러니까요. ‘찻방’은 뭐하는 거?)

108010 # 응?(응?)

108010 @ 찻방<sup>186)</sup>은?(‘찻방’은?)

108010 # 찻방?(‘찻방’?)

108010 @ 작은 상방.(작은 마루.)

108010 # 작은 상방은게 요영 혜영 상방 요추룩 행 크민 영 지레 질민 톱 갈랑 요거 허민 요거 작은 상방. 요건 큰 상방.(작은 마루는 요렇게 해서 마루 요렇게 해서 크면 길이 길면 톱 갈라서 요거 하면 요거 작은 마루. 요건 큰 마루.)

108010 @ 아.(아.)

108010 # 이거 크민 이거 영 한가운덜로 갈랑.(이거 크면 이거 이렇게 한가운덜로 갈라서.)

108010 @ 갈랑 문 돌아?(갈라서 문 달아?)

108010 # 문 드는 사름 들곡 안 드는 사름 안 들곡. 안뵈문만 들앙 안 드는 사

186) ‘찻방’은 마루와 부엌 사이의 작은 마루다.

름은 안 돌아. 이디 문 드는 사람은 들꼭 안 허는 사람은.(문 다는 사람 달고 안 다는 사람 안 달고. 안뒤꼐문만 달아서 안 다는 사람은 안 달아. 여기 문 다는 사람은 달고 안 하는 사람은.)

108010 @ 우리 옛날 할머니네 집은 이디 안방이민 저디가 정지. 그른 안방 뒤에 이디 요디가 상방이라나신디.(우리 옛날 할머니네 집은 여기 안방이면 저기가 부엌. 그러면 안방 뒤에 여기 요기가 마루였었는데.)

108010 # 요건 저 허난에 요딘 고팡 헤나고 요건 방 헤나고 요거 방, 요디 방 헤나고. (요건 저 하니까 요기는 고팡 했었고 요건 방 했었고 요거 방, 요기 방 했었고.)

108010 @ 계난 정지가 저쪽편이 이서. 요 뒤에가 상방이엔 곺아나신디 그거 아니?(그러니까 부엌이 저쪽편에 있어. 요 뒤에가 마루라고 말했었는데 그거 아니?)

108010 # 그거 작은 상방. 영 저 작은 상방 잇주게.(그거 작은 마루. 이렇게 저 작은 마루 있지.)

108010 @ 마리에 영 이어진디. 밥도 그디서 먹고 막 헤나신디.(마루에 이렇게 이어졌는데. 밥도 거기서 먹고 막 했었는데.)

108010 # 밥은 기영. 경 허고 우린 너미 허민, 우린 요디 강 집 짓을 땐 일착은 방 두 개 헤나고 고팡 안 허난 이딘 작은 상방허고 저편드렌 부엌 가지 둘안 부엌 헤나고 했주.(밥은 그렇게. 그렇게 하고 우린 너무 하면, 우린 요기 가서 집 지을 땐 우선은 방 두 개 했었고 고팡 안 하니까 여긴 작은 마루하고 저편으론 부엌 처마 달아서 부엌 했었고 했지.)

108011 @ 응. 그러면 이번에는 문예, 아까 얘기했었는데 문 밑에 흠베기도 있고, 문,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서.(응. 그러면 이번에는 문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문 밑에 흠도 있고, 문,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108011 # 아, 이거 지팡이주게.(아, 이거 지방이지.)

108011 @ 어느 게, 그게? 어느 거 지팡?(어느 게, 그게? 어느 거 지방?)

108011 # 이거.(이거.)

108011 @ 그거 지팡. 그다음.(그거 지방. 그다음.)

108011 # 우에 거도 지팡.(위에 것도 지방.)

108011 @ 우에 것도 지팡. 옆인 건?(위의 것도 지방. 옆의 건?)

108011 # 이건 문 백선.(이건 문 벽선.)

108011 @ 무신거?(무엇?)

108011 # 문 백선.(문 벽선.)

108011 @ 백선?(벽선?)

108011 # 응, 이거 백이난 백선.(응, 이거 벽이니까 벽선.)

108011 @ 아, 그건 백이난 백선.(아, 그건 벽이니까 벽선.)

108011 # 응. 방마다 다 백은 백선. 지팡은 지팡.(응. 방마다 다 벽은 벽선. 지방은 지방.)

108011 @ 그다음에. 저 문 여단이 문은 밑에 흠베기도 있고.(그다음에 저 문 여단이 문은 밑에 흠도 있고.)

108011 # 흠베기 이거 싯잖아, 이거.(흠도 이거 있잖아, 이거.)

108011 @ 아, 그디 이수과? 흠베기. 응, 그다음 옆에 돌쩌귀도.(아, 거기 있습니까? 흠. 응, 그다음에 옆에 돌쩌귀도.)

108011 # 도저귀, 이진 도저귀 었은.(돌쩌귀, 이진 돌쩌귀 없는.)

108011 @ 그거 도절귀 아니?(그거 돌쩌귀 아니?)

108011 # 요거 아니라. 요거.(요거 아니야. 요거.)

108011 @ 거난 그거예 도절귀.(그러니까 그거요 돌쩌귀.)

108011 # 이젠 도절귀고 옛날은 영 쌀문 허는 거난 도절귀 영 꼬장헌 거 해근에 영 헌 것드레 꼭 찢렁 돌아났주. 저 쌀문헐 때.(이젠 돌쩌귀고 옛날은 이렇게 살문 하는 거니까 돌쩌귀 이렇게 곧은 거 해서 이렇게 한 것에 꼭 찢려서 달았었지. 저 살문할 때.)

108011 @ 쌀문헐 땐예.(살문할 땐요.)

108011 # 응.(응.)

108012 @ 문 달젠 허민 어떻게낫수과? 옛날에.(문 달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옛날에.)

108012 # 문 들민 이거 영행 돌아났주. 맞창 짱 영행 들주.(문 달면 이거 이렇게 달았었지. 맞춰서 짜서 이렇게 해서 달지.)

108012 @ 집 지서 낭 나중에 문 다는 거주예?(집 지어 놓고 나중에 문 다는 거지요?)

108012 # 응, 낭중에 문 짜근에 이녁냥으로 거 다 짜멍 들주. 쌀문 짱.(응, 나중에 문 짜서 자기대로 그거 다 짜면서 달지. 살문 짜서.)

108012 @ 문도 게난 어떤 종류, 어떤 종류 문 이서낫수과? 쌀문이영.(문도 그러니까 어떤 종류, 어떤 종류 문 있었습니까? 살문이랑.)

108012 # 영헌 딴 쌀문 이디도 허민, 영 쌀문 행 허고. 이디 영허민 문 웨단이. 저디 밀력등격 허민 웨단이고, 저딘 쌀문행 허민 영 도저귀 들앙 들곡.(이런 덴 살문 여기도 하면, 이렇게 살문 해서 하고. 여기 이렇게 하면 문 외단이. 저기 밀고 당기고 하면 외단이고, 저긴 살문해서 하면 이렇게 돌쩌귀 달아서 달고.)

108012 @ 아까 이디 마릿문은, 대문은?(아까 여기 마루문은, 대문은?)

108012 # 마릿문은 널문 해근에 영 달곡. 이젠 다 풍체도 해나고.(마루문은 널문 해서 이렇게 달고. 이젠 다 차양도 했었고.)

108015 @ 풍체도 해나고예.(차양도 했었고요.)

108015 # 옛날에. 이거 다 새로 짓어부난 거주. 풍체도 해나고, 나가 경 풍체 해나난, 나도 아방<sup>187)</sup>이영 살멍 허단 육지 간 살아부난 십 년 나 훌어명으로 살아나난 다 알아. 게난 풍체 이녁냥으로 다 여경 들곡.(옛날에. 이거 다 새로 지어버리니

187) '아방'은 아버지를 뜻하는 제주어이지만 여기서는 남편을 지칭한다.

까 그거지. 차양도 했었고, 내가 그렇게 차양 했었으니까, 나도 아버지랑 살면서 하다가 육지 가서 살아버리니까 십 년 나 홀어머니로 살았으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차양 자기대로 다 엮어서 달고.)

108015 @ 풍채 달려있는 것도 잇고 따로 영 갓당 부찌는 것도 이수과?(차양 달려있는 것도 있고 따로 이렇게 갓다가 붙이는 것도 있습니까?)

108015 # 갓당 부찌 다 풍첸게. 풍첸 아무 디도 다 트로 행 부찌.(갓다가 붙여서 다 차양은. 차양은 아무 데도 다 따로 해서 붙여.)

@ 풍채 그건 어떻 아까 어떻 만든덴 헛수과?(차양 그건 어떻게 아까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108015 # 풍채 영 귀틀헤근에 남헤영 귀틀헤근에 진진허게 해낭 따시 또 영 두 개 줄주게. 삼간집이고 크민, 따시 또 영영영영 이레 준 남, 요추룩 현 남 툽툽 박아낭 경행 박아놓민 따시 그레 이젠 대헤여근에 영 대 영 놓아근에 그디 놓곡 새헤영 접아놓곡 행 영영영 노 꼬양 다 여피멍 여평 허여. 영 알로 여피고 새도 여피. 여평 알 영 꺾짱허민 이 아랜 다 새 집 다투주게.(차양 이렇게 귀틀해서 나무해서 귀틀해서 길레 해놔서 다시 또 두 개 겹지. 삼간집이고 크면,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리 잔 나무, 요렇게 한 나무 툽툽 박아놔서 그렇게 해서 박아 놓으면 다시 그리 이젠 대 해서 이렇게 대 이렇게 놔서 거기 놓고 떠 해서 집어놓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노 꼬아서 다 엮어서 엮어서 해. 이렇게 아래로 엮고 떠도 엮어. 엮어서 아래 이렇게 가지런히 하면 이 아랜 다 떠 집 같지.)

108015 @ 무신거 다투아?(무엇 같아?)

108015 # 새로 다 행 여평 행 우이도 지들르곡 아래도 지들르곡 헤근에 행 들민 가지에 영 꺾짱이 다 그창 꺾짱이 그차근에 경행 돌아난. 나가 그거 해놔어.(떠로 다 해서 엮어서 해서 위에도 지지르고 아래도 지지르고 해서 해서 달면 처마에 이렇게 가지런히 다 잘라서 가지런히 잘라서 그렇게 해서 달았었어. 내가 그거 했었어.)

108014 @ 계민 굴목은 어떻?(그러면 ‘굴목’은 어떻게?)

108014 # 굴목은 저 베끗덜로 행 어귀 낭 구들 놓민 돌 헤여근에 영 돌 행 이추룩 아래 돌 놓곡 우이 납작납작헌 돌 행 걸쳐 놓민. 절로 어귀헤영 내민 굴로 근대헤여근에 굴목 영 불경도 파내곡 따시 문지락도 꼭행 찢렁 담곡 허주게.(‘굴목’은 저 밖으로 해서 어귀 놔서 구들 놓으면 돌 해서 이렇게 돌 해서 이렇게 아래 돌 놓고 위에 납작납작한한 돌 해서 걸쳐 놓으면. 저리로 어귀해서 내면 그리로 고무래 해서 ‘굴목’ 이렇게 재도 파내고 다시 ‘문지락’도 꼭해서 찢러서 담고 하지.)

108014 @ 보통 굴목 뭇 땀 무신걸로 땀니까?(보통 ‘굴목’ 뭇 땀 무엇으로 땀니까?)

108014 # 그거 문지락, 검질덜 하영 행 뿌서지민 그거 문지락도 허곡 따시 또 쉼 머력<sup>188)</sup> 것도 행 허고 출도 엇이민 출도 행. 옛날은 따시 솔입 드르에 강 솔입

188) ‘쉐머력’은 ‘쉐’+‘머력’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표준어로 ‘소+머리’라는 뜻으로 소가 먹다 남긴 꼴 등을 말한

도 걷어당 때고 경해낫주.(그거 ‘문지락’, 검불들 많이 해서 부서지면 그거 ‘문지락’도 하고 다시 또 ‘쉐머력’ 것도 해서 하고 꼴도 없으면 꼴도 해서. 옛날은 다시 술 옆 들에 가서 술가리도 걷어다 때고 그랬었지.)

108014 @ 쉼통도 좇어당 해낫덴 허멍.(쇠통도 주워다가 했었다고 하면서.)

108014 # 뭇통 허젠 허민.(말뚱 하려고 하면.)

108014 @ 뭇통?(말뚱?)

108014 # 이딘 뭇통.(여긴 말뚱.)

108014 @ 뭇통 좇어당 해난?(말뚱 주워다가 했었어?)

108014 # 응, 경헌디 해벤이난 뭇통은 엇주게. 저 웃드르덜은 하도.(응, 그런데 해변이니까 말뚱은 없지. 저 중산간들은 많아도.)

108014 @ 아, 게민 주로 문지락으로.(아, 그러면 주로 먼지로.)

108014 # 응, 문지락으로. 술입 걷어당 때고.(응, 먼지로. 술가리 걷어다가 때고.)

108014 @ 술입 걷어당 때고, 아.(술가리 걷어다가 때고, 아.)

108016 @ 물 질레 가는 건 어떻게 해낫수과?(물 길러 가는 건 어떻게 해서 했었습니까?)

108016 # 물은 따시 또 이딘 오난에, 저 우이선 질어당 먹엇지만 이디 올레에 샘이, 저 세멘통 시난 두러박으로 들러근에 막 허벅에 질어당 황에 비와 낱 먹고.(물은 다시 또 여기 오니까. 저 위에선 길어다가 먹엇지만 여기 ‘올레’에 샘이, 저 시멘트통 있으니까 두레박으로 들어서 막 동이에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어 놔서 먹고.)

108016 @ 무신거 시난? 세멘통?(무엇 있으니까? 시멘트통?)

108016 # 이디 올레에 물통 서낫주게.(여기 ‘올레’에 물통 있었지.)

108016 @ 이름이 세멘통?(이름이 시멘트통?)

108016 # 응, 큰 거 마을에서 다 먹는 통, 물통 서낫어.(응, 큰 거 마을에서 다 먹는 통, 물통 있었었어.)

108016 @ 아, 게민 물허벅허고.(아, 그러면 물동이하고.)

108016 # 물구덕<sup>189</sup>게.(‘물구덕’.)

108016 @ 물구덕이.(‘물구덕’이.)

108016 # 베허곡게.(바하고.)

108016 @ 베허고 행 어떻 행 지는 거과?(바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 지는 겁니까?)

108016 # 에, 물구덕더레, 물구덕 해 낱 물팡 그레 낱근에, 물, 허벅에 담아당 그레 들러낱 베 해영 저당 비우주게.(에, ‘물구덕’에, ‘물구덕’ 해 놔서 ‘물팡’ 그리 놔서, 물, 동이에 담아다가 그리 들어놔서 바 해서 저다가 비우지.)

---

다. ‘쉐데취’라고도 한다.

189) ‘물구덕’은 물을 길기 위한 물동이를 놓는 바구니를 말한다.

108016 @ 계난. 구덕이 잇고. 구덕드레 허벅을 집어놔.(그러니까. 바구니가 있고. 바구니에 동이를 집어놔.)

108016 # 응.(응.)

108016 @ 밑에 뭐 안 바쳐도 돼여?(밑에 뭐 안 받쳐도 돼?)

108016 # 안 바쳐도 돼주게, 안네만 미시거 검질이나 무시거 구덕 안네나 바되 근에.(안 받쳐도 되지. 안네만 무엇 검불이나 무엇 바구니 안네나 받쳐서.)

108016 @ 구덕 안네나 받쳐, 그다음에?(바구니 안네나 받쳐서, 그다음에?)

108016 # 베 헤영 정.(바 해서 저서.)

108016 @ 베 헤영 정.(바 해서 저서.)

108016 # 저당 따시 물 영 허민 영행 이거 베 등겨근에 황더레 비우민 영 비우민 찰찰 비와지주게.(저다가 다시 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바 당겨서 항아리에 비우면 이렇게 비우면 ‘찰찰’ 비우지.)

108016 @ 아, 집이 가정와근에.(아, 집에 가져와서.)

108016 # 응.(응.)

108016 @ 그 저 물허벅 애기덜이 허는 흥꿈 죽은.(그 저 물동이 아기들이 하는 조금 작은.)

108016 # 그 대바지.(그 ‘대바지’.)

108016 @ 건 대바지.(그건 ‘대바지’.)

108016 # 나가 으섯 술에 할망광 어멍 우리 어머니네 이거 따시 다른 말 곶아 점저마는 우리 할마니가 아덜 다섯 성제, 딸 하나, 으섯 오누이 난디 우리 아버지가 큰아덜이라. 큰아덜이난 이제 애기 낳고 결혼허난에 우리 할머니가 집 쥐뿔에 트로 나간 살아부난 우리 아버진 노름사 헤신디 엇어부난에 우리 우이 오라방 난 죽어볼 곡 우리 어무니가 애길 세 개 나난 허난 죽어부난 나가 우이고 나 밑에 두 술 밑에 아덜 하나 셔났어.(내가 여섯 살에 할머니와 어머니 우리 어머니네 이거 다시 다른 말 말한다마는 우리 할머니가 아들 다섯 형제, 딸 하나, 여섯 오누이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야. 큰아들이니까 이제 애기 낳고 결혼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집 쥐뿔고 따로 나가서 살아버리니까 우리 아버진 노름이야 했는지 없어버리니까 우리 위에 오라버니 낳아서 죽어버리고 우리 어머니가 애길 세 개 낳으니까 하난 죽어버리니까 내가 위고 내 밑에 두 살 밑에 아들 하나 있었어.)

108016 @ 응.(응.)

108016 # 시난, 경허난에 난 으섯 술, 저 동싱은 네 술 헨에 집도 헨 주난에 우리 아버지가 아메도 노름헨 폴아분 모양이라. 아버진 얼굴 몰라. 계난 할마니네 집 이 간 사난디 우리 할아버지가 죽고 허난, 시아방 죽고, 집도 엇고 허난 우리 어무니가 기냥 나간, 애기 할망네 집이 우리 오누이 멧겨된 일본 가비엇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여섯 살, 저 동생은 네 살 해서 집도 해서 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노름해서 팔아버린 모양이야. 아버진 얼굴 몰라. 그러니까 할머니네 집에 가서 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죽고 하니까, 시아버지 죽고, 집도 없고 하니까 우리 어머



니가 그냥 나가서, 아기 할머니네 집에 우리 오누이 맡겨두고 일본 가버렸어.)

108016 @ 아.(아.)

108016 # 일본 가난 으쓱 술에 할망이영 살안에 시집가도록 할망이영 안팓거리  
행 할망이영 살았어, 나가.(일본 가니까 여섯 살에 할머니랑 살아서 시집가도록 할  
머니랑 안팓채 해서 할머니랑 살았어, 내가.)

108016 @ 예.(예.)

108016 # 경허난 사난 어명은 일본 가난에 혼 육 년을 사난에 돈 버슬언에 밧  
혼 이천오백 켤 사고.(그러니까 사니까 어머니는 일본 가니까 한 육년을 사니까 돈  
벌어서 밧 한 이천오백 켤 사고.)

108016 @ 아이고.(아이고.)

108016 # 저 상동 살단에. 난 늙으 집만 삼 년을 살았어.(저 상동 살다가. 난 남  
의집만 삼 년을 살았어.)

108016 @ 응.(응.)

108016 # 늙으 집만 삼 년 살안 오란, 이젠 열흔 술에 이디 오란에 이젠 허난에  
어명 오란 돈 버슬언 저디 오란 땅 사고 집을 따시 초집을 안팓거릴 짓언. 짓어된  
경허단 보난 일본서 오단 보난 고리짝에 큰 고리짝, 대고리짝에 헨에 옷이영 무시  
거영 문 행장 담안 오단 보난 부두에 오란 보난 부두에 오란 배 타명 그걸 안 시꺼  
부난 그디 밧문세영 무시거 담아와 부난 혼 천 켤을 그만 오꼳<sup>190)</sup> 밧은 일러분 거  
아니?(남의 집만 삼 년 살아서 와서, 이젠 열한 살에 여기 와서 이젠 하니까 어머니  
와서 돈 벌어서 저기 와서 땅 사고 집을 다시 초가집을 안팓채를 지었어. 지어두고  
그렇게 하다보니 일본서 오다 보니 고리짝에 큰 고리짝, 대고리짝에 해서 옷이랑  
무엇이랑 모두 행장 담아서 오다 보니 부두에 와 보니 부두에 와서 배 타면서 그걸  
안 실어버리니까 거기 밧문서랑 무엇 담아와 버리니까 한 천 켤을 그만 ‘오꼳’ 밧은  
잃어버린 거 아니?)

108016 @ 아이고 어땡 허여.(아이고, 어떻게 해.)

108016 # 경허난 일러부난 따시 우리 어머니 또 일본을 간 거라. 집 짓으난 우  
리 너 오누이 새끼 이디 돌아다 놔된 가부난. 일본을 가난 그젠 가난 삼 년 살안  
돈은 못 버슬언 온디. 이젠 죽은, 나 밑에 두 술 밑에 삼촌이 잇고 따시 또 저 동싱  
나 밑에 두 술 잇고. 우이 삼촌 아랜 따시 허난, 계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마니  
가 손지웬만 아덜 손지웬만 드난.(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다시 우리 어머니 또 일본  
을 간 거야. 집 지으니까 우리 네 오누이 새끼 여기 데려다 놔두고 가버리니까. 일  
본을 가니까 그젠 가니까 삼 년 살아서 돈을 못 벌어서 왔는데. 이젠 작은, 나 밑에  
두 살 밑에 삼촌이 잇고 다시 또 저 동생 나 밑에 두 살 잇고. 위 삼촌 아랜 다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손자 편만 아들 손자 편만 드니  
까.)

108016 @ 하하하.(하하하.)

190) ‘오꼳’은 제주어로 ‘그만’이라는 뜻으로 표준어와 제주어를 동시에 사용함으로 강조하고 있다.

108016 # 계난 저 웃카름에 우이 살단 일고으답 살에 출허레 간, 출 엠에 강, 출밭디 강 앓앙 올당보민 돌아오고 헤여. 기가 맥혀.(그러니까 저 윗동네에 위에 살다가 일고여덟 살에 꼴하러 가서, 꼴 옆에 가서, 꼴밭에 가서 앉아서 올다보면 데려오고 해. 기가 막혀.)

108016 @ 하하하.(하하하.)

108016 # 경허멍 헨 돈 버슬언에 이젠 따시 또 밧을 허난 닷말지기 우리 어머니가 이젠 고생허멍 이거 하나 주켄 허난 우리 동승이, 나보다 두 살 밑에 동승이 그 밧을 먼저 팔아먹어 비언 안 쥘. 계난 고생은 실컷 헛자 밧은, 참 집광 집터 사고 밧은 혼 이천 쩡, 이천오백 쩡 헤여먹고. 나 단돈 십 원도 안 쥘. 웨뜰이라도.(그렇게 하면서 해서 돈 벌어서 이젠 다시 또 밧을 하니까 닷말지기 우리 어머니가 이젠 고생하면서 이거 하나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동생이, 나보다 두 살 밑에 동생이 그 밧을 먼저 팔아먹어 버려서 안 쥘어. 그러니까 고생은 실컷 해도 밧은, 참 집과 집터 사고 밧은 한 이천 쩡, 이천오백 쩡 헤먹고. 난 단돈 십 원도 안 쥘어. 외동딸이라도.)

108016 @ 아이고, 어떻게 해.(아이고, 어떻게 해.)

108016 # 아이고. 나가 기맥힌 사름이라. 정헨 살았어. 정헨 동승도 죽어버렸어.(아이고. 내가 기가 막힌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살았어. 그렇게 해서 동생도 죽어버렸어.)

108016 @ 예.(예.)

108016 # 참 나가 살아난 역산 기가 맥힌 사름이주. 정허난 공부도 못허고 아무것도 못헨 시상 살안, 고생만 실컷 허멍 살았주게.(참 내가 살았던 역사는 기가 막힌 사람이지.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세상 살았어, 고생만 실컷 하면서 살았지.)

108017 @ 집 얘기 조금만 더 하께예. 할머니, 아까 올레.(집 얘기 조금만 더 할께요. 할머니, 아까 ‘올레’.)

108017 # 올렌게 올레.(‘올레’는 ‘올레’.)

108017 @ 올레도 진 집이 잇고, 쫄른 집이.(‘올레’도 긴 집이 잇고, 짧은 집이.)

108017 # 이거 우리 집 올레 질지 안허냐?(이거 우리 집 ‘올레’ 질지 않니?)

108017 @ 혼 올레에 집도 여러 개 이신 디도 이수게예?(한 ‘올레’에 집도 여러 개 있는 데도 있잖아요?)

108017 # 응.(응.)

108017 @ 경헌 딴 뭇엔 곶아?(그런 뭇 뭇라고 말해?)

108017 # 올레, 혼 올레 안에 살암저.(‘올레’, 혼 올레 안에 살고 있다.)

108017 @ 아, 그냥 혼 올레 안에 살암저.(아, 그냥 한 ‘올레’ 안에 살고 있다.)

108017 # 그 사름 혼 올레 안에 살안, 영허영.(그 사람 한 올레 안에 살았어, 이렇게 해서.)

108017 @ 계문 올레는 보통 무사 영 질게 현 집이 좋은 거? 올레 진 집이 좋은

거?(그러면 ‘올레’는 보통 왜 이렇게 길게 한 집이 좋은 거? ‘올레’ 긴 집이 좋은 거?)

108017 # 옛날은 올레 긴 집이 동녕바치 안 들어온텐 허주게.(옛날은 ‘올레’ 긴 집에 거지 안 들어온다고 하지.)

108017 @ 아.(아.)

108017 # 올레 긴 집이 옛날은 올레 긴 집이 섰텐 허주만은 이젠 그거 아니.(‘올레’ 긴 집에 옛날은 ‘올레’ 긴 집을 섰 다고 하지만 이젠 그거 아니.)

108017 @ 거난 옛날은 올레 긴 집이 부젓칩이엔 해난 거 다했디?(그러니까 옛날은 ‘올레’ 긴 집이 부젓집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108017 # 응.(응.)

108017 @ 기지예?(그렇지요?)

108017 # 올레 긴 집, 올레 긴 집이 부젓칩이고 동녕바치 안 들어가곡 헌텐 헌디, 요샌 올레 긴 집 알아주지 아녀.(‘올레’ 긴 집, 올레 긴 집이 부젓집이고 거지 안 들어가고 한다고 하는데, 요샌 올레 긴 집 알아주지 않아.)

108017 @ 하하하. 이젠 질 옆이가 알아주는.(하하하. 이젠 길 옆에가 알아주는.)

108017 # 밧도 질 난 밧이, 질 옆이 밧이 깎 하영 가고.(밭도 길 난 밧이, 길 옆에 밧이 깎 많이 가고.)

108017 @ 요샌 깎 하영 가젠 허민 질 옆이라야 돼어.(요샌 깎 많이 가려고 하면 길 옆이라야 돼.)

108017 # 게난 일로 우터레 영헌 집들 질밧디 밧덜은 시방 췌당 백만 원짜리도 싯곡 이 우터레 올라간 디도 오십만 원짜리도 시네게, 밧덜.(그러니까 이리로 위에 이렇게 한 집들 길 밧의 밧들은 시방 췌당 백만 원짜리도 있고 이 위로 올라간 데도 오십만 원짜리도 있어, 밧들.)

108018 @ 응, 맞아. 게민 아까 저 문간채, 이문간.(응, 맞아. 그러면 아까 저 문간채, 이문간.)

108018 # 이문간 올레에 영 들어오는 디 집 짓은 거 이문간.(문간채 ‘올레’에 이렇게 들어오는 데 집 짓은 거 문간채.)

108018 @ 그건 무사 짓는 거?(그건 왜 짓는 거?)

108018 # 글로 이문간 행 허민 그디 그 이문 종가불민 이레 사름 못 들어오는 거 아니라게, 거난 이문간.(그리로 문간채 해서 하면 거기 그 대문 잠가버리면 이리 사람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간채.)

108018 @ 그디 막 뭘 낫두고 헨게만은 이문간에.(거기 막 뭘 놔두고 하던데만은 문간채에.)

108018 # 응, 이문간 옛날은 하간 거 초집 크게 짓영 하간 거 놔놔주게.(응, 문간채 옛날은 온갖 거 초가집 크게 지어서 온갖 거 놔졌지.)

108018 @ 기지예.(그렇지요.)

108018 # 이제사 정 험서게? 이녁 이문만 그자 올레 문만 드는 딴 돌암주.(이제

야 그렇게 하고 있니? 자기 대문만 그저 ‘올레’ 문만 다는 덴 달고 있지.)

108018 @ 응, 옛날엔.(응, 옛날엔.)

108018 # 옛날엔 셔낫주게.(옛날엔 있었지.)

108018 @ 셔낫주예.(있었지요.)

108018 # 올레 크게 짓어근에 혼펜이 쉼출도 데미고 해낫주.(‘올레’ 크게 지어서 한편에 소꼴도 쌓고 했었지.)

108019 @ 아까 출 누는 건 어떻 허는 거꽈?(아까 풀 가리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8019 # 출 누는 건. 보리짚은 보리짚행 보리짚 놀영 놀 놀고 동글랑허게. 이제 따시 또 조칩도 경 동글랑허게 놀곡 저 드르에 강 출 놀영 쉼 질루는 집인 막 크게 장막눌 크게 놀주게. 수랑허게, 건 장막눌<sup>191)</sup>. 도리눌<sup>192)</sup>. 동글랑허게 누는 건 도리눌.(풀 가리는 건. 보릿짚은 보릿짚해서 보릿짚 가려서 가리 가리고 동그랑게. 이제 다시 또 조짚도 그렇게 동그랑게 가리고 저 들에 가서 풀 가려서 소 기르는 집은 막 크게 ‘장막눌’ 크게 가리지. 길쭉하게, 그건 ‘장막눌’. ‘도리눌’. 동그랑게 가리는 건 ‘도리눌’.)

108019 @ 응.(응.)

108019 # 수랑허게 눈 건 장막눌.(길쭉하게 가린 건 ‘장막눌’.)

108019 @ 보리눌 누는 게 힘들어?(보릿가리는 가리는 게 힘들어?)

108019 # 아니 보리짚도 혼엇이 놀지 안행 동글랑허게 보리짚은 하지 안허난 동글랑허게 놀영 느람지 더끄곡.(아니 보릿짚도 한없이 가리지 않고 동그랑게 보릿짚은 많지 않으니까 동글게 가려서 이영 텅고.)

108019 @ 무신 놀이 쉼 하영 됩니까?(무슨 가리가 제일 많이 가릅니까?)

108019 # 출, 드르에 출.(풀, 들에 풀.)

108019 @ 출눌.(풀가리.)

108019 # 쉼 질룬 사름 그 출을 하영 놀주. 혼 백 바리씩 해영. 우리도 경해나고.(소 기르는 사람 그 풀을 많이 가리지. 한 백 바리씩 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었고.)

108019 @ 쉼 질루젠 허민예.(소 기르려고 하면요.)

108019 # 쉼장시질 해나부난.(소장수질 했었기 때문에.)

108019 @ 뭐 무신 놀 트명에 무신거 곱지곡도 됩니까?(뭐 무슨 가리 틈에 무엇 숨기기도 됩니까?)

108019 # 놀 트명에 우린 곱져보진 아년. 옛날에 제국시대에 놀 트명에 무신 쓸도 곱졌저 무시거 해낫주. 우린 경은 안해반. 그 제국시대엔 우린 살림 안 사난.(가리 틈에 우린 숨겨보지 않았어. 옛날에 제국시대에 가리 틈에 무슨 쌀도 숨겼다 무엇 했었지. 우린 그렇게는 안 해봤어. 그 제국시대엔 우린 살림 안 사니까.)

191) ‘장막눌’은 크고 길쭉하게 가리는 가리를 말한다.

192) ‘도리눌’은 동그랑게 가리는 가리를 말한다.

108019 @ 예, 예. 게문 높은 놀도 놀젠 허민 어떻 우영이 넓어사켜예.(예, 예. 그러면 가리는 가리도 가리려고 하면 어떻게 텃밭이 넓어야겠네요.)

108019 # 놀 못 누는 사름 저 놀, 빌어사 놀어.(가리 못 가리는 사름 저 가리, 빌려야 가려.)

108019 @ 아, 놀도 기술이구나예.(아, 가리도 기술이군요.)

108019 # 이 출놀이냐 크게 놀민 거 빌어사 놀주, 못 놀어, 이녁냥으로.(이 풀가리냐 크게 가리면 그거 빌어야 가리주, 못 가려, 자기대로.)

108019 @ 잘못 놀민 다 헤싸져불지예?(잘못 가리면 다 무너져버리지요?)

108019 # 잘못 놀민 한가운딜로 물 들어.(잘못 가리면 한가운데로 물 들어가.)

108019 @ 아.(아.)

108019 # 꼭지로 물 들엉 썩어비어.(꼭지로 물 들어가서 썩어버려.)

108019 @ 우에 무신거 행 해도?(위에 무엇 해서 해도?)

108019 # 대어도 물 들어.(대어도 물 들어가.)

108019 @ 아까 느람지영 무신거?(아까 이영이랑 뭐?)

108019 # 느람진 아니, 출놀 큰 높은 놀민 느람지 안 더끄주, 새로 더평.(이영은 아니, 풀가리 큰 가리는 가리면 이영 안 덮지, 따로 덮어서.)

108019 @ 아, 새로 더꺼.(아, 따로 덮어.)

108019 # 응, 경허난 물 들어.(응, 그러니까 물 들어가.)

108019 @ 응.(응.)

108019 # 이 느람지 더끄는 건 꼭지, 주쟁이 더끄꼭 허민 안 드는디. 큰 출놀은 물 들어. 경헌 때문에 놀 누는 거 하영 잘못 놀민 옆으로 문디싸정 빠져불고.(이 이영 덮는 건 꼭지, 주저리 덮고 하면 안 드는데. 큰 풀가리는 물 들어가. 그런 때문에 가리 가리는 거 많이 잘못 가리면 옆으로 무너져서 빠져버리고.)

108019 @ 뭐 해근에 빠져?(뭐 해서 빠져?)

108019 # 옆으로 빠져비어. 출단이 무너냥, 잘못 놀민.(옆으로 빠져버려. 풀단 무너져서, 잘못 가리면.)

108019 @ 게난 흥나씩 빠근에, 빠다근에 출 쥐살 거 아니파?(그러니까 하나씩 빼서, 빼서 풀 쥐야할 거 아닙니까?)

108019 # 경허민 영 흥 펜으로 막 크게 지게놀은 흥 펜으로 영 놀 빠는 디가 잇주. 영 옆으로 가. 흥 밧디로 빠주게.(그러면 이렇게 한 편으로 아주 크게 ‘지게놀<sup>193)</sup>’은 한 편으로 이렇게 가리 빠는 데가 있지. 양 옆으로 가. 한 군데로 빠지.)

108020 @ 응, 아까 통시.(응, 아까 돼지우리.)

108020 # 통신게 어떻. 통시 다 곶아신디.(돼지우리는 어떻게. 돼지우리 다 말했는데.)

108021 @ 다 곶아신디 다시 통시 가근에 똥 싸꼭 저 도새기 똥 털꼭 허는 거 다시 곶아줍서.(다 말했는데 다시 돼지우리 가서 똥 싸고 저 돼지 똥 털고 하는 거

193) ‘지게놀’은 아주 크게 가린 가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주세요.)

108021 # 통시혜영 동글랑허게 통시 해놓민 그디 저 돌혜영 디딜팡해근에 요영 양편으로 발 디딜 디 허고 요만인 고망 내우주게. 옛날은 도새기 질봐나지 안헤서?(돼지우리해서 동그랑게 돼지우리 해놓으면 거기 저 돌 해서 부춘돌해서 요 이렇게 양편으로 발 디딜 데 하고 요만큼 구멍 내지. 옛날은 돼지 길렀지 않았어?)

108021 @ 예.(예.)

108021 # 도새기 질루민 요영행 그 돌 양편이 허민 요영헌 돌에 도새기 대멍이 찢러근에 똥, 그 똥이나 싸가민 그 똥 할라먹당 대갈 탁탁탁탁 털어.(돼지 기르면 요렇게 해서 그 돌 양편에 하면 요렇게 한 돌에 돼지 머리 찢러서 똥, 그 똥이나 싸가면 그 똥 훑아먹다가 대가리 탁탁탁탁 털어.)

108021 @ 게민 우에 이신 똥 싹 사람 어떻 허여?(그러면 위에 있는 똥 싹 사람 어떻게 해?)

108021 # 영허민 똥 싸는 거 돌 서부난 아니 오주게. 막아정.(이렇게 하면 똥 싸는 거 돌 있어버리니까 안 오지. 막혀서.)

108021 @ 게도 막대기로 막 찢르멍 저레 가라, 저레 가라.(그래도 막대기로 막 찢르면서 저리 가라, 저리 가라.)

108021 # 또꼬망 똥 두루 쌍, 족영 싸가민 또꼬망으로. 게민 막댕이 아정강 다 올려똥 싸고.(똥구멍 똥 덜 싸서, 적게 싸가면 똥구멍으로. 그러면 막대기 가져가서 쫓아 두고 싸고.)

108021 @ 게난 막댕이로예.(그러니까 막대기로요.)

108021 # 막댕이 해근에 세왓당 그디 똥 싸젠 허민 막댕이 행 딱리멍 싸낫주게.(막대기 해서 세웠다가 거기 똥 싸려고 하면 막대기 해서 때리면서 쫓았지.)

108020 @ 도새기 짓은?(돼지 먹이는?)

108020 # 짓은 따시 또 영헌 딜로 행 담 터근에 그디 도구리 놓민 그걸로 행 키우주레.(먹이는 다시 또 이렇게 한 데로 해서 담 터서 거기 함지박 놓으면 그걸로 해서 키우지.)

108020 @ 뭐 줍니까?(뭐 줍니까?)

108020 # 채, 옛날은 보리 골아나고 조 불리곡 허민 조채도 행 주고 보리채도 행 주고, 황에 행 컷당 허고. 전인 정부미난 정부미 주시 해당 채에 서꺼근에 황에 담아놔 주곡.(겨, 옛날은 보리 갈아나고 조 밟고 하면 조겨도 해서 주고 보릿겨도 해서 주고, 향아리에 해서 담갔다가 하고. 전엔 정부미니까 정부미 찢꺼기 해다가 겨에 섞어서 향아리에 담아놔서 주고.)

108020 @ 도새기도 영 비 맞지 말렌 집 짓어줍니께?(돼지도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집 지어주잖아요?)

108020 # 집 짓어. 쪼끄만헌 거 집 짓어주주게. 거름허젠 허민 쉼걸름, 경행 그디 쉼걸름도 담양 켜영 돛고레<sup>194)</sup>도 멘들곡. 따시또 듬복도 고지기<sup>195)</sup>도 즈물아놔

194) ‘돛고레’는 ‘돛걸름’과 같은 말로 돼지거름을 뜻하는 제주어다.

보리짚 농곡 고지기 농곡 행 썩영 보리 갈곡.(집 지어. 조그마한 거 집 짓어주지. 거름하려고 하면 소두엄, 그렇게 해서 거기 소두엄도 담아서 썩혀서 돼지거름도 만 들고. 다시 또 듬복도 고지기도 채취해서 보릿짚 놓고 고지기 놓고 해서 썩혀서 보 리 갈고.)

108020 @ 것도 무사 통시에 답습니까?(그것도 왜 돼지우리에 답습니까?)

108020 # 썩으렌.(썩으라고.)

108020 @ 아, 썩으렌.(아, 썩으라고.)

108020 # 돛고래 뒤편.(돼지거름 되라고.)

108020 @ 뒤편 뒤편?(뒤편 되라고?)

108020 # 돛걸름.(돼지거름.)

108020 @ 돛걸름 뒤편.(돼지거름 되라고.)

108020 # 응. 듬복도 칠월 나민 고지기 행 즈물아다근에 그 막 보리짚 흔 직 놓고 그 듬복 흔 직 농곡 해근에 통시가 ㄹ득행 낫당 보리 갈주게.(응, 듬복도 칠월 나민 고지기 해서 채취해다가 그 막 보릿짚 한 줌 놓고 그 듬복 한 줌 놓고 해서 돼지우리가 가득해서 낫다가 보리 갈지.)

108020 @ 아, 보리 갈젠 허민.(아, 보리 갈려고 하면.)

108020 # 경허민 옛날엔 듬복 행 못 즈무는 사름 노 밭영 즈물아. 이녁냥으로 즈물아도 노 밭영 즈물아.(그러면 옛날엔 듬복 해서 못 채취하는 사름 노 밭에서 채 취해. 자기대로 채취해도 노 밭에서 채취해.)

108020 @ 경해근에 걸름 만들어.(그렇게 해서 거름 만들어.)

108020 # 보리 갈젠 허민. 걸름 멘들젠 허민.(보리 갈려고 하면. 거름 만들려고 하면.)

108020 @ 걸름 내젠 허민 어떻 험니까?(거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험니까?)

108020 # 응?(응?)

108020 @ 걸름도 내살 거 아니?(거름도 내야할 거 아니?)

108020 # 내고 걸름 내 낱 따시 또 씨 빼명 불리고.(내고 거름 내 놓고 다시 또 씨 뿌리면서 밟고.)

108022 @ 보리 허는 건 나중예예. 그른 저 헛간, 헛간 아까 무신 창고?(보리 하 는 건 나중예요. 그러면 저 헛간, 헛간 아까 무슨 창고?)

108022 # 헛간게, 창고 짓영 저영행 쉼 질루는 디 혼착허고 혼착은 쉼 질루곡 한가운딘 따시 또 그디 헛간으로 남, 문만 돌아근에 그디 따시 또 곡식도 농곡, 유 채, 옛날은 유채 하영 허난 유채도 농곡, 뺏데기도 해당 농곡 허주게.(헛간, 창고 지 어서 저렇게 해서 소 기르는 데 한쪽하고 한쪽은 소 기르고 한가운텐 다시 또 거기 헛간으로 나문, 문만 달아서 거기 다시 또 곡식도 놓고, 유채, 옛날은 유채 많이 하 니까 유채도 놓고, 절간고구마도 해다가 놓고 하지.)

108022 @ 그른 이 앞이 아까 무신거 밧거리예, 밧거리예 한착은 쉼막허고 한착

---

195) '고지기'는 바닷물 속에서 자라는 거름용 바다풀이다.

은.(그러면 이 앞에 아까 무슨 바깥채에, 바깥채에 한쪽은 외양간하고 한쪽은.)

108022 # 우리 밭거리 헌 땀 흔착은 쉼 메곡, 칸 해근에 세 칸 허민, 요 흔 칸은 하간 보리영 무시거 데미고, 요 흔 펜 칸인 정지행 해먹곡.(우리 바깥채 할 땀 한쪽은 소 매고, 칸 해서 세 칸 하면, 요 한 칸은 온갖 보리랑 무엇 쌓고, 요 한 편 칸엔 부엌해서 해먹고.)

108022 @ 아, 정지행 해먹고.(아, 부엌해서 해먹고.)

108022 # 것도 크게 짓영, 세 칸에 갈라놔.(그것도 크게 지어서, 세 칸에 갈라놔서.)

108022 @ 세 칸이나 갈라놔.(세 칸이나 갈라놔서.)

108022 # 응.(응.)

108022 @ 할머니네처럼 경 안 헌 집은 어떻허여?(할머니네처럼 그렇게 안 한 집은 어떻게 해?)

108022 # 안 헌 집은 경허곡 쉼 안 질루는 사름은 엇주게. 하나만 행 사는 사름도 해주게, 홀어멍덜은. 집 하나만 행.(안 한 집은 그렇게 하고 소 안 기르는 사름은 없지. 하나만 해서 사는 사름도 많지, 홀어머니들은. 집 하나만 해서.)

108022 @ 집 하나만 이신 딴 어떻, 그런 거 어디 놔뒀?(집 하나만 있는 텐 어떻게, 그런 거 어디 놔뒀?)

108022 # 경행 사는 사름덜은 이 방을 하나 허곡, 또 두 개 허곡, 그 안에 다 담주게. 흔쫄 사는 사름이 집 두 거리행 살주, 경 안 헌 사름은 안 허주게.(그렇게 해서 사는 사름들은 이 방을 하나 하고, 또 두 개 하고, 그 안에 다 담지. 조금 사는 사름이 집 두 채해서 살지, 그렇게 안 한 사름은 안 하지.)

108022 @ 게난예, 게민 보통은 밭거리 행 그디 쉼막으로 해근에 그디 창고도 쓰고.(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통은 바깥채 해서 거기 외양간으로 해서 거기 창고도 쓰고.)

108022 # 응, 따시 부엌도 허고.(응, 다시 부엌도 하고.)

108022 @ 부엌도 하고.(부엌도 하고.)

108024 @ 그다음에 장독대.(그다음에 장독대.)

108024 # 장독은 저 안뒤더래 그디 안뒤에 해근에 아래 돌 해영 꿀곡 납작납작 허게 돌 꿀곡 또 영 담 다놔 그디 장독 해근에.(장독은 저 안뒤곁에 거기 안뒤곁에 해서 아래 돌 해서 깔고 납작납작하게 돌 깔고 또 이렇게 담 쌓아놔서 거기 장독 해서.)

108024 @ 장독은 몇 개나 그디 놓니까?(장독은 몇 개나 거기 놓니까?)

108024 # 아, 장항 세 개도 놓곡, 네 개도 놓곡 허주게. 흔엇이 하영 놔?(아, 장항아리 세 개 놓고, 네 개 놓고 하지. 한없이 많이 놔?)

108024 @ 흔엇이 하영 안 놔?(한없이 많이 안 놔.)

108024 # 하영 안 놓주, 수정도 하지 안허민.(많이 안 놓지, 숫자도 많지 않으면.)



108024 @ 잘 따까줘야 돼 그것도?(잘 닭아줘야 돼, 그것도?)

108024 # 응?(응?)

108024 @ 잘 따까줘야 돼?(잘 닭아줘야 돼?)

108024 # 아이, 다끄민 무시거게. 아래 돌 깔민게 그거주게.(아이, 닭으면 뭐. 아래 돌 깔면 그거지.)

108024 @ 돌은 무사 깎는 거?(돌은 왜 까는 거?)

108024 # 그 항 바트는 거. 항 영 우트레 확 올려 놓젠, 땅에 놓젠 안행 올려놓젠.(그 항아리 받치는 거. 항아리 이렇게 위에 확 올려 놓으려고, 땅에 놓으려고 안하고 올려 놓으려고.)

108024 @ 막 냅작냅작헌 돌 주서당 해야 돼커예?(막 냅작냅작한 돌 주워다가 해야 되겠네요?)

108024 # 응, 경 안 허민 황에 안 놓민 황드레 흑 올르지 안허나게? 경허난 영 황 바트지.(응, 그렇게 안 하면 항아리에 안 놓으면 항아리에 흑 오르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항아리 받치지.)

108024 @ 아, 비 오민.(아, 비 오면.)

108024 # 응, 비 오민. 경행 바트는 거주.(응, 비 오면. 그렇게 해서 받치는 거지.)

108025 @ 그다음에 아까 춤, 춤향.(그다음에 아까 ‘춤’, ‘춤향’.)

108025 # 춤, 우린 아이 매낫저만은 이 남 이런 디 영행, 신 사름은, 큰 낭 신 사름은 그디 새헤여근에 느람지ㄱ찌 여퍼근에 톡허게 남 무꺼근에 매영 행 강 황드레 톡 빠찌민 그레 그 물 남에 거 느리는 물 받앙 혼 황씩, 멧 개, 여라이 받는 딴 혼 서너니 개, 멧 개씩 낱 받주.(‘춤’, 우린 안 땀었다만은 이 나무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있는 사름은, 큰 나무 있는 사름은 거기 떠해서 이영같이 엮어서 톡하게 나무 묶어서 매어서 해서 가서 항아리에 톡 빠뜨리면 그리 그 물 나무의 거 내리는 물 받아서 한 항아리씩, 멧 개, 여러 개 받는 덴 한 서너 개, 멧 개씩 놔서 받지.)

108025 @ 거 뭐허는 거라?(그거 뭐하는 거야?)

108025 # 그걸로 물 엇인 땀 먹어.(그걸로 물 없을 땀 먹어.)

108025 @ 아, 물 먹는 거.(아, 물 먹는 거.)

108025 # 헤 낱 밥도 행 먹고, 그 물 헤당.(헤 놔서 밥도 먹고, 그 물 해다가.)

108025 @ 아, 물 엇인 디 물 질레.(아, 물 없는 데 물 길러.)

108025 # 안 가근에.(안 가서.)

108025 @ 안 가근에.(안 가서.)

108025 # 응. 경행 비 오라나민 두께 톡 더경 낱당 그 물 질어당 먹어. 행 먹는 사름이 헤 먹주. 웃드르 사름덜은 경허주.(응. 그렇게 해서 비 오고나면 두께 톡 덜어 놔다가 그 물 길어다가 먹어. 해서 먹는 사름이 해서 먹지. 중산간 사름들은 그렇게 하지.)

108025 @ 웃드르 사름덜은?(중산간 사름들은?)

108025 # 응.(응.)

### 초가지붕 이기

108026 @ 그다음에는 초집 지붕 새 이는 거.(그다음에는 초가지집 지붕 띠 이는 거.)

108026 # 초집 지붕, 초집 행 우리도 초집 짓언 살아나난 초집 행 새로 더평 매 해에 혼 해에 혼 번 일어사주.(초가지집 지붕, 초가지집 해서 우리도 초가지집 지어서 살아서 초가지집 해서 띠로 덮어서 매해에 한 해에 한 번 일어사지.)

108026 @ 혼 해에 혼 번?(한 해에 한 번?)

108026 # 응, 혼 해에 혼 번 해사여.(응, 한 해에 한 번 해야해.)

108026 @ 아, 두 해 아니고 혼 해에 혼 번.(아, 두 해 아니고 한 해에 한 번.)

108026 # 혼 해에 혼 번 해사주.(한 해에 한 번 해야지.)

108026 @ 아이고, 허젠 허민 거 막 일이켜예?(아이고, 하려고 하면 그거 막 일 이겠네요?)

108026 # 경허난 저 우이 강 새 강 엇이민 사오곡 경 안허민 어디 따시 새왓 상도 비곡. 경 안허민 우린 새 뽑으레도 늪의 새 해난 디 뽑으레도 텅기고 경해낫 주. 강 지아정 여남은 단씩, 열 단씩 행 저 우이 성읍리까장 가주게. 그거 뽑으레. (그러니까 저 위에 가서 띠 가서 없으면 사오고 그렇게 안하면 어디 다시 띠발 사 서도 베고. 그렇게 안하면 우린 띠 뽑으러도 남의 띠 했던 데 뽑으러도 다니고 그 랐었지. 가서 저서 여남은 단씩, 열 단씩 해서 저 위에 성읍리까지 가지. 그거 뽑으 러.)

108026 @ 새, 새허레?(띠, 띠하러?)

108026 # 새허레.(띠하러.)

108027 @ 새도 진 거 잇고 졸른 거 이수게?(띠도 진 거 잇고 짧은 거 있잖습니 까?)

108027 # 졸른 건 각단, 진 건 집 일곡 졸른 건 요멘씩 현 건 줄.(짧은 건 각단, 긴 건 집 이고 짧은 건 요만큼씩 한 건 줄.)

108027 @ 아, 요멘씩 현 걸로 줄 놓는 거.(아, 요만큼씩 한 걸로 줄 놓는 거.)

108027 # 응.(응.)

108028 @ 줄은 어떻 행 놓는 거파?(줄은 어떻게 해서 놓는 겁니까?)

108028 # 줄은 요멘씩 현 거 행 비우민 영 과작 상 조물민 그거 행 앞으론 영 영영영 비어 혼 놔는 비곡 조름에선 영영 맥이고.(줄은 요만큼씩 한 거 해서 꼬면 이렇게 끈게 서서 계속하면 그거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꼬 아, 한 놔는 꼬고 뒤에선 이렇게 이렇게 먹이고.)

108028 @ 처음엔 이렇게 이렇게 꼬아.(처음엔 이렇게 이렇게 꼬아.)

108028 # 아니 영 비주게, 영영영영 호랭이로.(아니, 이렇게 꼬지, 이렇게 이렇 게 이렇게 이렇게 ‘호랭이’로.)

108028 @ 영 비어, 호랭이 비어. 그레 뭐 놔줘살 거 아니?(이렇게 꼬아, ‘호랭이’ 꼬아. 그리 뭐 놔줘야할 거 아니?)

108028 # 호랭이로 비민 따시 또 아이덜은 비민 난 조름에서 영영영영 맥여지민 아이덜은 쪽쪽 잡아 탕기멍 영 비어가민 나가주게.(‘호랭이’로 꼬면 다시 또 아이들은 꼬면 나는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여지면 아이들은 쪽쪽 잡아 다니면서 이렇게 꼬아가면 나가지.)

108028 @ 아이덜은 영 돌리고 할머니는?(아이들은 이렇게 돌리고 할머니는?)

108028 # 난 영 맥여주고.(난 이렇게 먹여주고.)

108028 @ 맥여? 영 하나씩 담으는 거라?(먹여? 이렇게 하나씩 담는 거야?)

108028 # 영영영영 맥이고, 경행 맥여.(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이고, 그렇게 해서 먹여.)

108028 @ 경행 호랭이로 다 현 다음에 뒤치는<sup>196)</sup> 호랭이로.(그렇게 해서 ‘호랭이’로 다 한 다음에 ‘뒤치는’ ‘호랭이’로.)

108028 # 경행 따시 또 해낭 둘리 허민 두 사람을 빌어사여. 앞이도 호랭이질허는 사람 둘이 비곡 영행 영 맥이는 사람은 뒤치곡 행 네이 들어사야여.(그래서 다시 또 해놔서 둘이 하면 두 사람을 빌어야 해. 앞에도 ‘호랭이’질하는 사람 둘이 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이는 사람은 ‘뒤치고’ 해서 넷이 들어서야 해.)

108028 @ 네이가 이서야여.(네 명이 있어야 해.)

108028 # 네이 이서야.(네 명이 있어야.)

108028 @ 게민 집줄<sup>197)</sup>은 쫄른 것도 필요하고 진 것도 필요합니까?(그러면 ‘집줄’은 짧은 것도 필요하고 긴 것도 필요합니까?)

108028 # 응, 영 허는 건 쫄른 줄, 영 허는 건 진 줄.(응, 이렇게 하는 건 짧은 줄, 이렇게 하는 건 긴 줄.)

108028 @ 아, 그 집줄 행 허젠 허민 어떻 던져?(아, 그 ‘집줄’ 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던져?)

108028 # 집줄 허젠 허민 따시 또 놉 빌어사.(‘집줄’ 하려고 하면 다시 또 놉 빌어야.)

108028 @ 응.(응.)

108028 # 집 것도 아무나 집 새해영 밑에서 새 올리는 사람, 지방 이는 사람 경 허민 그거 허영 줄 해여근에 상므르로 문딱 그창 탁탁 갖혀불민 옆으론 따시 또 줄, 새 올리는 사람이 옆이서 호룽이로 문딱 그창 느리와불곡, 따시 또 올려근에 그 새 더퍼낭 새 줄로 올령 따시 또 손으로 막 잡아근에 이디 사는 사람, 이디 사는 사람 해근에 줄을 다 매주게, 경행 메여근에.(집 그것도 아무나 집 띠해서 밑에서 띠 올리는 사람, 지방 이는 사람 그렇게 하면 그거 해서 줄 해서 용마루로 모두 잘라서 탁탁 갖혀버리면 옆으론 다시 또 줄, 띠 올리는 사람이 옆에서 ‘호룽이’로 모

196) ‘뒤치다’는 초가지붕을 이기 위한 집줄을 단단하게 꼬는 것을 말한다.

197) ‘집줄’은 초가지붕을 정(井)자 모양으로 이는 데 쓰는, 짚을 꼬아 만든 줄이다.

두 자라서 내려 버리고, 다시 또 올려서 그 띠 덮어 놓고 새 줄로 올려서 다시 또 손으로 막 잡아서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해서 줄을 다 매지, 그렇게 해서 매어서.)

108028 @ 아까 거왕대<sup>198)</sup>에다가 매영예.(아까 평고대에다가 매어서요.)

108028 # 응, 매영. 경허민 그 줄 일젠 허민 놉을 혼, 아, 집이 사름 엇은 사름은 대여섯 사름 빌어사 해여. 빌영 허민 그 사름 빌어당 허민 밥허여 주고 담배 사주고 술 받아주고.(응, 매어서. 그러면 그 줄 이려고 하면 놉을 한, 아, 집에 사람 없는 사람은 대여섯 사람 빌어야 해. 빌어서 하면 그 사람 빌어다가 하면 밥해서 주고 담배 사주고 술 받아주고.)

108028 @ 아, 그게 일당이구나.(아, 그게 일당이구나.)

108028 # 응, 집 이는 사름 거 일당.(응, 집 이는 사람 그거 일당.)

108031 @ 거문 집줄은 영 매민 처음에 그냥 훌쩍허게 뗏당 나중예.(그러면 ‘집 줄’은 이렇게 매면 처음에 그냥 헐렁하게 뗏다가 나중예.)

108031 # 아니, 뽕뽕뽕 뭉경 따시 낭중엔 이제 이녁냥으로 그 줄을 등경 따시 잘 매어. 매어사여.(아니, 바짝바짝 묶어서 다시 나중엔 이제 자기대로 그 줄을 당겨 다시 잘 매어. 매어야 해.)

108031 @ 처음에 무꺼신디 나중예 혼 번 더.(처음에 묶었는데 나중예 한 번 더.)

108031 # 체암은 영영해영 가사더레, 그 거왕더레 똑꼭 찢렁 내불지 안 해영.(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사’에, 그 평고대에 똑꼭 찢려서 내버리지 안 해서.)

108031 @ 예.(예.)

108031 # 경허민 이녁냥으로 나냥으로 해영 혼착씩 혼착씩 허명 행 다 해영 브뜨곡 다 ㄴ짱이 행, 줄 ㄴ짱이 다 그치고.(그러면 자기대로 나대로 해서 한쪽씩 한쪽씩 하명 다 해서 바짝하게 하고 다 가지런히 해서, 줄 가지런히 다 자르고.)

108032 @ 갱 그창예, 그 그창 남은 건.(그래서 잘라서요, 그 잘라서 남은 건.)

108032 # 건 다 불 솜곡.(그건 다 불 때고.)

108032 @ 아, 건 불 솜아불곡.(아, 그건 불 때버리고.)

108032 # 응. 불 솜주게, 솟강알예.(응. 불 때지, 아궁이에.)

108030 @ 평고대, 대나무로 허는. 아까 평고대는 뭐?(평고대, 대나무로 하는. 아까 평고대는 뭐?)

108030 # 고대<sup>199)</sup>엔 현 거 이 지붕 우이 올린 건 고대.(‘고대’라고 한 거 이 지붕 위에 올린 건 ‘고대’.)

108030 @ 아, 그건 어떻 허는 거파?(아,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8030 # 나 먼저 안 알아냐? 대 해여근에 줄, 것도 줄 비어근에 대, 수리대 막

198) ‘거왕’은 처마 끝에 서까래 아래이영을 누르는 줄을 묶기 위한 장대. 보통 왕대를 이용해서 만든다. 표준어로 ‘평고대’이다.

199) ‘고대’는 지붕 서까래 위에 흙을 받쳐 기와를 이기 위하여 가는 나무오리나 싸리나무 따위로 엮은 것으로 표준어는 ‘산자’다. 제보자는 평고대를 묻는 질문에 고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다냥 그 줄 트멍드레 영영.(나 먼저 안 말하더냐? 대 해서 줄, 그것도 줄 꼬아서 대, 수리대 막 해다 놔서 그 줄 틈에 이렇게 이렇게.)

108030 @ 아.(아.)

108030 # 쪽쪽 질르민 이 옆이 허는 거 흥나허곡 이디 허는 거 네 겔 해영 탁 탁 지붕 우터레 멍석 몰듯 몰아당 올렁 탁탁 패우주, 알러레.(쪽쪽 찌르면 이 옆에 하는 거 하나하고 여기 하는 거 네 개를 해서 탁탁 지붕 위에 멍석 말듯 말아다가 올려서 탁탁 퍼지, 아래로.)

108030 @ 풍채허듯이?(차양하듯이?)

108030 # 응. 폐와 놓민 그 우이 흑해근에 흑질해근에 그 우터레 흑 행 막 치대 기민 걸로 착착 부지데경<sup>200)</sup> 허민 이제 따시 또 안터렌 상방 안터렌 이 천장 마리 안 들이민 막 흑이 지랑지랑허주게.(응. 퍼 놓으면 그 위에 흠해서 흠질해서 그 위에 흠 해서 막 문대면 그걸로 착착 ‘부지데경’ 하면 이제 다시 또 안엔 마루 안으로 는 이 천장 마루 안 들이면 막 흠이 치렁치렁하지.)

108030 @ 응.(응.)

108030 # 경혜여. 경혜영 고대허는 사름은 따시 안네 허는 사름은 트로 놓 빌어 사 허민, 그 안네 허는 사름 역불 빌영 허민 거 고대 혜여근에 안네 불르는 사름 고대허는 사름.(그렇게 해. 그래서 산자하는 사람은 다시 안에 하는 사람은 따로 놓 빌어야 하면, 그 안에 하는 사람 일부러 빌어서 하면 그거 산자 해서 안에 바르는 사람 산자 하는 사람.)

## 연장

108033 @ 응. 집 짓을 때든 무신거 무신거 필요헐니까?(응. 집 지을 때면 무엇 무엇 필요헐니까?)

108033 # 목시덜 빌어사주게.(목수들 빌어야지.)

108034 @ 목시덜 쓰는 게 아까 뭇뭇 잇수과? 톱.(목수들 쓰는 게 아까 뭇뭇 잇 습니까?)

108034 # 톱행, 끌, 타는 끌. 대패, 큰 끌, 작은 끌, 홈베기 허는 끌. 대패, 대패 도 두 개. 큰 거, 작은 거.(톱해서, 끌, 타는 끌. 대패, 큰 끌, 작은 끌, 홈 하는 끌. 대패, 대패도 두 개. 큰 거, 작은 거.)

108034 @ 응. 도치, 자귀.(응. 도끼, 자귀.)

108034 # 도친 영행 낭 가끄는 거고 자귀 영영허는 거고.(도끼는 이렇게 해서 나무 깎는 거고 자귀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108034 @ 아까 말해나신디 혼 번 더 곱아줍서예. 톱은 어떤 거 어떤 거 이수 과?(아까 말했었는데 한 번 더 말해주세요. 톱은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108034 # 톱은 옛날엔 큰 낭 그치는 딴 개판이나 무시거 영 이만인 현 거 해근 에 이디 앓앙 마주 앓앙 실실허곡. 그자 목시덜은 저 요멘씩헌 톱행 줌진 거 혼착

200) ‘부지데기다’는 흑 같은 것을 던져서 벽에 붙인다는 의미다.

은 줌질고.(툽은 옛날엔 큰 나무 자르는 덴 횡대나 무엇 이렇게 이만큼 한 거 해서  
여기 앉아서 마주 앉아서 ‘실실’하고. 그저 목수들은 저 요만큼씩 한 톱해서 자잘한  
거 한쪽은 자잘하고.)

108034 @ 이름이 무신거라? 거두?(이름이 뭐야? 큰툽?)

108034 # 거뒤.(큰툽.)

108034 @ 거 거뒤. 응.(그거 큰툽. 응.)

108034 # 갱 톱행 그거 톱이주. 갱 양작에 행 헨 거민 혼작은 엉긴 거 싸는 거,  
혼작은 따시 또 줌진 거 싸는 거. 줌진 살, 훑은 살 행 영영영영 행 건 혼작은 이디  
요만인 헨 건 쉼로 헨 거고 요건 조록 허민 쪽쪽하게 싸고.(그래서 톱해서 그거 톱  
이지. 그래서 양쪽에 해서 한 거면 한쪽은 엉근 거 자르는 거. 한쪽은 다시 또 자잘  
한 거 자르는 거. 자잘한 살, 굵은 살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건  
한쪽은 여기 요만큼 한 건 쇠로 한 거고 요건 자루 하면 쪽쪽하게 자르고.)

108034 @ 건 혼자 허는 거?(그건 혼자 하는 거?)

108034 # 응, 혼자 허는 거.(응, 혼자 하는 거.)

108034 @ 둘리 허는 건 아까 이름 뭐라?(둘이 하는 건 아까 이름 뭐야?)

108034 # 건 대툽.(그건 대툽.)

108034 @ 대툽. 응.(대툽. 응.)

108034 # 따시 또 그자 행 허는 거 조그만 헨 거뒤엔 헨 건 그자 영헌 낭 그치  
는 건 거뒤.(다시 또 그저 해서 하는 거 조그마한 큰툽이라고 한 건 그저 이렇게 한  
나무 자르는 건 큰툽.)

108035 @ 응. 그다음 아까 못빼기.(응. 그다음 아까 못빼기.)

108035 # 못빼긴 영행 못질해근에 영영영영 남 고망 딸르는 거.(못빼기는 이러  
게 해서 못질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무 구멍 뚫는 거.)

108035 @ 못 빠는 거 아니고?(못 빼는 거 아니고?)

108035 # 고망. 못빼긴 못 빠는 거고. 송곳은 이 무시거 행 남 박젠 허민 고망  
딸르는 거.(구멍. 못빼기는 못 빠는 거고. 송곳은 이 무엇 해서 나무 박으려고 하면  
구멍 뚫는 거.)

108035 @ 아, 그건 송곳.(아, 그건 송곳.)

108035 # 끌, 끌.(끌, 끌.)

108035 @ 끌, 끌. 아니 못빼기는.(끌, 끌. 아니 못빼기는.)

108035 # 못빼기는 못 빠는 것가 못빼기고.(못빼기는 못 빠는 것이 못빼기고.)

108035 @ 못 빠는 것가 못빼기고. 대패도 아까 두 개가 이서났수게?(못 빠는  
것이 못빼기고. 대패도 아까 두 개 있었잖습니까?)

108036 # 대패 따시 또 큰 거, 작은 거, 대패. 이만인 헨 것도 쉴고 요맨인 헨  
것도 쉴고.(대패는 다시 또 큰 거, 작은 거, 대패. 이만큼 한 것도 있고 요만큼 한  
것도 있고.)

108036 @ 응, 작은 건 아까 뭐허는 거엔?(응, 작은 건 아까 뭐하는 거라고?)

108036 # 작은 건 조그마헌 낭 훔쓸 작은 거 까끄곡 큰 건 켈 이덜로 절로 까  
까가주.(작은 건 자그마한 나무 조금 작은 거 깎고 큰 건 켈 여기서 저기로 깎아가  
지.)

108036 @ 아까 뭘 홈베기대패?(아까 뭘 홈대패?)

108036 # 홈베기대패 따시 요영 허영 홈 이영.(홈대패는 다시 요렇게 해서 홈  
이렇게.)

108036 @ 아, 대패 세 종류파?(아, 대패는 세 종류입니까?)

108036 # 응, 세 개.(응, 세 개.)

108036 @ 홈베기대패 아까 뭘 할 때 쓰는 거라마씨?(홈대패는 아까 뭘 할 때 쓰  
는 거라고요?)

108036 # 영헌 홈 영헌 디 허는 거.(이런 홈 이런 데 하는 거.)

108036 @ 아, 그런 디 거 영 미는 거?(아, 그런 데 그거 이렇게 미는 거?)

108036 # 응, 경행 홈파는 거.(응, 그렇게 해서 홈파는 거.)

108036 @ 홈파는 거. 응.(홈파는 거. 응.)

108037 @ 자는?(자는?)

108037 # 잔 곱은자.(자는 곱은자.)

108037 @ 곱은자허고 자 그거 하나베끼 엇인가?(곱은자하고 자 그거 하나밖에  
없나?)

108037 # 곱은자허고 따시 줄자베끼, 줄잔 큰 거 허곡. 대게 목시들은 곱은자  
쓰주게 영행 영헌 거, 곱은자.(곱자하고 다시 줄자밖에, 줄자는 큰 거 하고. 대게 목  
수들은 곱자 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 곱자.)

108037 @ 대나무로 만들어진 거?(대나무로 만들어진 거?)

108037 # 아니, 쉼로 멩글아.(아니, 쇠로 만들어.)

108037 @ 쉼로 멩글아진 거.(쇠로 만들어진 거.)

108037 # 곱은자도양 크게 허는 건 이만인 허게 크고, 작은 건 요멘인 허곡 곱  
은자도 두 개라.(곱자도 크게 하는 건 이만큼 하게 크고, 작은 건 요만큼 하고 곱자  
도 두 개야.)

108037 @ 곱은잔 무사 곱은자로 썸신고?(곱자는 왜 곱자로 쓰는가?)

108037 # 영 고비 지난 영행 고비 허민 이것도 고비, 이것도 고비 허난 곱은자  
아니라게?(이렇게 곱이 지니까 이렇게 곱이 하면 이것도 곱이, 이것도 곱이 하니까  
곱자 아니냐?)

108037 @ 응, 이런 거 할 때, 영할 땐 곱은자가 좋습니까?(응,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할 땐 곱자가 좋습니까?)

108037 # 우린 안 허고 영 안에 영 무시거 켈 때 곱은자로 영허는 거주게. 우인  
안 해여.(우린 안 하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무엇 켈 때 곱자로 이렇게 하는 거지.  
위에는 안 해.)

108038 @ 먹통하고 먹술 사용하는 방법?(먹통하고 먹줄 사용하는 방법?)

108038 # 먹통은 따시 또 줄헤영 영헤 나민 그거 폐와근에 곧작허민 싸젠 허민 곧작 싸젠 허민 먹술 띄우는 거.(먹통은 다시 또 줄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거 퍼서 곧으면 자르려고 하면 곧게 자르려고 하면 먹줄 튕기는 거.)

108038 @ 어떻 헤영 험니까?(어떻게 해서 합니까?)

108038 # 실 헤여근에 저 헤여근에 먹통더레 먹통에 빠진 거 잊주게. 영행 통더레 놔근에 목시나 무시거 돌아근에 짹하게 꺾쟁이 잡아당 영허민 이레 나오랑 영썩 술 띄와지지게. 술 띄와진 거 먹통.(실 해서 저 해서 먹통에 먹통에 빠진 거 있지. 이렇게 해서 통에 놔서 목수나 무엇 달아서 짹하게 꼬트머리 잡아다가 이렇게 하면 이리 나와서 이렇게 썩 줄 튕겨지지. 줄 튕겨진 거 먹통.)

108038 @ 영 튕겨야 돼여?(이렇게 튕겨야 돼?)

108038 # 영행 영허민 이디 영 술 띄와져. 거멍헌 거 무시거 탁허민 이디 곧작허게 거멍허주게. 술 띄와져, 툽질힐 거.(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줄 튕겨져. 거먼 거 무엇 탁하면 여기 곧게 거멍지. 줄 튕겨져서, 툽질할 거.)

108038 @ 예, 예.(예,예.)

108038 # 그거주, 먹통. 그게 먹통이라.(그거지, 먹통. 그게 먹통이야.)

108038 @ 먹통, 먹통 속에 실 영 빠근에 영 잡아?(먹통, 먹통 속에 실 이렇게 빼서 이렇게 잡아?)

108038 # 응, 이디서 잡고 영 쪽허영 허민 일로 저만이 행 그디서 잡아 허민 영탁탁 튕기민 곧작허게 먹으로 금이 나질 거 아니? 경허민 툽질헤여.(응, 여기서 잡고 이렇게 쪽해서 하면 이리로 저만큼 해서 거기서 잡아서 하면 이렇게 탁탁 튕기면 곧게 먹으로 금이 날 거 아니? 그러면 툽질해.)

108038 @ 그민 아까 먹칼은 뭐허는 거라낫수과?(그러면 아까 먹칼은 뭐하는 거였습니까?)

108038 # 먹칼은 그거게, 그디 영영헤영 그디 제우젠 허민 술 영영 사리민 그거 툽툽 잡아사난 먹칼. 누르뜨는 것가.(먹칼은 그거, 거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기 조이려고 하면 줄 이렇게 이렇게 사리면 그거 툽툽 잡아야하니까 먹칼. 누르는 것이.)

108038 @ 그민 먹은 어디 강은에 가정와?(그러면 먹은 어디 가서 가져와?)

108038 # 먹 이녁냥으로 굴아근에.(먹 자기대로 갈아서.)

108038 @ 그레 답아?(그리 답아?)

108038 # 굴아근에게 굴아당 답아.(갈아서 갈아다가 답아.)

108038 @ 먹 갈앙 그레 답아, 비와, 먹물을?(먹 갈아서 그리 답아, 부어, 먹물을?)

108038 # 응.(응.)

108038 @ 아. 하나만 더예, 흑손하고 흑받이.(아, 하나만 더요, 흑손하고 흑받기.)

108039 # 흑손허고 흑받인.(흑손하고 흑받기는.)



108039 @ 아까 쉼손하고.(아까 쇠손하고.)

108039 # 쉼손 허민 영 바트랭이 남해여근에 영헌 거 헤영 넘적헌 거 헤영 네 귀 나게 헤근에 영행 안네 꼭허게 못 박앙 심는 거 허주게. 요영 놔근에 세멘도 거려놓민 영 우이서 영 허곡. 흑도 이디 거려놓민 영행 허곡 거 영 받으면 쉼손이주게.(쇠손 하면 이렇게 받침 나무 해서 이렇게 한 거 해서 넓적한 거 해서 네 모서리 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에 꼭하게 못 박아서 잡는 거 하지. 요렇게 놔서 시멘트도 떠놓으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고. 흑도 여기 떠놓으면 이렇게 해서 하고 그거 이렇게 받으면 쇠손이지.)

108039 @ 아, 게든 영 바트랭이에.(아, 그러면 이렇게 받침에.)

108039 # 응, 바트랭이에 거려놓민.(응, 받침에 떠놓으면.)

108039 @ 흑 영 떠근에 백드레 영 ब्ल르는 거라?(흑 이렇게 떠서 벽에 이렇게 바르는 거야?)

108039 # 응, 영 심어두서 혼착 손은 심고 혼착 손은 백드레 영영 ब्ल르곡.(응, 이렇게 잡아서 한쪽 손은 잡고 한쪽 손은 벽에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108039 @ 이거 엇일 땐 손으로도 영 헤낫수과? 흑질힐 때.(이거 없을 땐 손으로도 이렇게 했었습니까? 흑질할 때.)

108039 # 흑질허는 사름.(흑질하는 사름.)

108039 @ 게난 흑질힐 때.(그러니까 흑질할 때.)

108039 # 응, 흑질허는 사름들은 그 체암 집 짓을 때 흑질허는 사름 손으로 블라낫주.(응, 흑질하는 사름들은 그 처음 집 지을 때 흑질하는 사름 손으로 발랐었지.)

108039 @ 아, 손으로 블라난?(아, 손으로 발랐었어?)

108039 # 응, 우이 시야기허젠 허민 그런 거 허는 거. 경허곡 세멘허는 사름 그거로 허주, 저 그잔 경 안 허여.(응, 위에 ‘시야기’하려고 하면 그런 거 하는 거. 그리고 시멘트하는 사름 그거로 하지, 저 그저는 그렇게 안 해.)

108039 @ 흑질힐 땐 그거 안 써난?(흑질할 땐 그거 안 썼어?)

108039 # 흑질힐 때 엇어. 그냥 요만씩 착착 부지데기민 영영 ब्ल르고.(흑질할 때 없어. 그냥 요만큼씩 착착 ‘부지데기민’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108039 @ 손으로?(손으로?)

108039 # 응.(응.)

108039 @ 손 엇이, 쉼손 엇이?(손 없이, 쇠손 없이?)

108039 # 쉼손 엇이 블라.(쇠손 없이 발라?)

108039 @ 응, 손으로들 헤낫구나예.(응, 손으로들 했었군요.)

108039 # 멘작 손으로 ब्ल르곡 돌 영헌 딴 돌담 단 딴 영 돌 트멍마다 착착착착 부지데기민 돌 트멍마다 꼭꼭꼭꼭 찢러근에 흑 그 고망을 막주, 흑으로. 경행 막앙 헤낫어.(매끈하게 손으로 바르고 돌 이렇게 한 덴 돌담 쌓은 덴 이렇게 돌 틈마다 착착착착 ‘부지데기민’ 돌 틈마다 꼭꼭꼭꼭 찢러서 흑 그 구멍을 막지, 흑으로. 그래

서 막아서 했었어.)

108039 @ 것도 다 손으로?(그것도 다 손으로?)

108039 # 손으로 허주. 세멘이나베끼 그거 저 바드랭이 안헤여.(손으로 하지. 시멘트나밖에 그거 저 받침 안해.)

108040 @ 집 지을 때 젤 힘든 건 뭐마씨?(집 지을 때 젤 힘든 건 뭐예요?)

108040 # 힘든 건 무시거게. 집 짓으는 거 매일반 혼 가지주.(힘든 건 무엇, 집 짓는 거 매일반 한 가지지.)

108040 @ 그중에서도 뭐 흠질허는 게 젤 힘들어? 지붕 올리는 게 젤 힘들어?(그중에서도 뭐 흠질하는 게 제일 힘들어?)

108040 # 흠질허는 게 여라이 드난 힘든 거주게.(흠질하는 게 여러 명 들어가니까 힘든 거지.)

108040 @ 응.(응.)

108040 # 서슬<sup>201)</sup>. 이 집 헤여근에 허민 에이고 옛날은 초불 일고 세불. 집 짓으민 세불 일어사 비 안 새을아. 세불을 일어사.(산자. 이 집 해서 하면 아이고 옛날은 초벌 이고 세벌. 집 지으면 세벌 이어야 비 안 새. 세벌을 이어야.)

108040 @ 아, 위로 그거를 새를 세 번 덮어?(아, 위로 그거를 띠를 세 번 덮어?)

108040 # 응, 젤 처음은 어디 어욱이나 시민 해당 더퍼방 그 우이 또 새 더평 또 새로 행 멘짝허게 잘 더퍼사 비 안 새주. 경 안허민 혼 번, 두 번 허민 비 새을 앙 못 살아. 경허곡 집도 잘 일어사 허주, 못 일민 비 새을아.(응, 제일 처음은 어디 억새나 있으면 해다가 덮어놔서 그 위에 또 띠 덮어서 또 띠로 해서 매끈하게 잘 덮어야 비 안 새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하면 비 새서 못 살아. 그리고 집도 잘 이어야 하지, 못 이면 비 새.)

108040 @ 계난예.(그러니까요.)

108040 # 비 새을아. 경허난 잘 이는 사름 허곡. 집도 안 일어가민 지붕 우이도 영 흠 파경 다 굼벵이가 바글바글 일어. 썩어.(비 새. 그러니까 잘 이는 사람 하고. 집도 안 이면 지붕 위에도 이렇게 흠 파져서 다 굼벵이가 바글바글 일어. 썩어.)

108040 @ 아이고.(아이고.)

108040 # 매해 안 허민.(매 해 안 하면.)

108040 @ 아, 매해 안 허민.(아, 매해 안 하면.)

108007 @ 할머니 구들 바닥은 어떻 행 허는 거파?(할머니 구들 바닥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8007 # 바닥은 따시 또 바닥허는 디도 돌 해당 요추룩 받쳐근에 녁작녀작헌 돌 해당근에, 녁작녀작헌 요멘씩 헌 돌 해당 구들에 영 툅툅허게 귀나게 걸쳐근에 영 받앙 이 아래 고망나게. 경 헤방 그 우이 따시 흑헤근에 고망 송송, 안트레 흑

201) '서슬'은 지붕 서까래 위나 고미 위에 흙을 받쳐 기와를 이기 위하여 가는 나무오리나 싸리나무 따위로 엮은 것을 말한다. 표준어로는 '산자'다.

안트레 고망 나게 해낭 그레 흑 담아낭 멘짜허게 해낭 따시 또 흑 끼어근에 영 멘  
짜 불르주게, 옛날엔.(바닥은 다시 또 바닥하는 데도 돌 해다가 요렇게 받쳐서 넓적  
넓적한 돌 해다가, 납작납작한 요만씩 한 돌 해다가 구들에 이렇게 툭툭하게 모서  
리나게 걸쳐서 이렇게 받아서 이 아래 구멍나게. 그렇게 해놔서 그 위에 다시 흠해  
서 구멍 승승, 안으로 흠 안으로 구멍 나게 해놔서 그리 흠 담아놔서 매끈하게 해  
놔서 다시 또 흠 반죽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바르지, 옛날엔.)

108007 @ 그다음에 종이 불르는 거는?(그다음에 종이 바르는 거는?)

108007 # 경행 종이 불라.(그렇게 해서 종이 발라.)

108007 @ 종인 어떻 불릅니까?(종이는 어떻게 바릅니까?)

108007 # 어떻 행 불라? 바닥에 영행 부찌주게.(어떻게 해서 발라? 바닥에 이렇  
게 해서 붙이지.)

108007 @ 뭐 칠해근에 불라?(뭐 칠해서 발라?)

108007 # 풀, 풀. 치커리풀 행.(풀, 풀. 치커리풀 해서.)

108007 @ 무신 풀?(무슨 풀?)

108007 # 갯굿이 강 갯구들<sup>202)</sup>이 메당 발레영 솟디 낭 쭈어.(갯가에 가서 ‘갯구  
들’ 메다가 바래어서 솔에 놔서 쭈어.)

108007 @ 무신거를?(무엇을?)

108007 # 갯굿이 풀 이서. 매는 것가.(갯가에 풀 있어. 매는 것이.)

108007 @ 무신 풀, 이름이 뭐라?(무슨 풀, 이름이 뭐야?)

108007 # 갯구들이엔 현 구들이가 있어. 풀 쭈는 것가.(‘갯구들’이라고 한 ‘구들’  
이 있어. 풀 쭈는 것이.)

108007 @ 아. 갯구들?(아. ‘갯구들’?)

108007 # 응, 갯구들이엔, 구들이엔 현 거 넘적넘적현 것도 있고, 동글동글현 것  
도 있고. 막 이 방 벌이젠 허민 그거 해당덜 봄 나민 혼 뒤 구덕씩 해당근에 막 발  
레주기.(응, ‘갯구들’이라고, ‘구들’이라고 한 거 넘적넘적한 것도 있고,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막 이 방 벌이려고 하면 그거 해다가 봄 나면 한 뒤 구덕씩 해다가 막  
바래지.)

108007 @ 예.(예.)

108007 # 행 낫당 걸로 솟디 낭 풀 쭈어근에.(해 낫다가 그걸로 솔에 놔서 풀  
쭈어서.)

108007 @ 경허민 풀 돼어.(그러면 풀 돼.)

108007 # 응.(응.)

108007 @ 경행 종이에 풀 불라근에 부찌.(그렇게 해서 종이에 풀 발라서 붙여.)

108007 # 혼 솟 쭈어낭 장태나 거려낭 바닥에 종이 낭 밋밋 불르곡 바닥더레  
풀칠허고 경행 부찌주게.(한 솔 쭈어놔서 장태나 떠놔서 바닥에 종이 놔서 ‘밋밋’

---

202) ‘갯구들’은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로 끈적한 점액질이 있어서 말렸다가 방바닥을 바르거나 창을 바를 때 끓여서 풀 대용으로 쓴다.

바르고 바닥에 풀칠하고 그렇게 해서 붙이지.)

108007 @ 색깔 노랑허게 어떻 허는 거꽈?(색깔 노랑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8007 # 응?(응?)

108007 @ 색깔 노랑허게 허는 거.(색깔 노랑게 하는 거.)

108007 # 색깔 노랑허게 허는 거 어떤 딴 영 저 절좌진 거. 절좌진 건 노랑허고 이녁냥으로도 헤영 꿀아냥 그디 지름, 유행 빠져근에 장판 들이젠 허민 유에 쿵에 행 빠져근에 저 거시기 불르민, 짜멍 거 불르민 절루와져.(색깔 노랑게 하는 거 어떤 덴 이렇게 저 절여진 거. 절여진 건 노랑고 자기대로 해서 깔아놔서 거기 기름, 들깨 해서 빠져서 장판 들이려고 하면 들깨에 쿵에 해서 빠져서 저 거시기 바르면, 짜면서 그거 바르면 절여져.)

108007 @ 아. 절좌지는 게 어떤 거? 색깔이 노랑허게 되는 거?(아. 절여지는 게 어떤 거? 색깔이 노랑게 되는 거?)

108007 # 노랑허게, 노랑헤여. 유에 쿵에 해근에 유치름.(노랑게, 노래. 들깨에 쿵에 해서 들깨기름.)

108007 @ 지름?(기름?)

108007 # 응, 쿵에 서깁 허고 따시 또 그자 유치름만 해근에 붓에 적셔근에 손에 적셔근에 속속속속 문탁 불르민 따시 노랑허곡. 침 옛날엔 유행 갈앙 유치름 빠근에.(응, 쿵에 섞어서 하고 다시 또 그저 들깨기름만 해서 붓에 적셔서 손에 적셔서 속속속속 모두 바르면 다시 노랑고. 참 옛날엔 들깨해서 갈아서 들깨기름 빼서.)

108007 @ 예, 먹는 게 아니고?(예, 먹는 게 아니고?)

108007 # 먹는 거. 먹는 지름 졸르지 안행 생차. 먹는 유 잇주게, 드룻웨.(먹는 거. 먹는 기름 ‘졸르지’ 앓고 생짜로. 먹는 들깨 있지, 들깨.)

108007 @ 게난 드룻웨.(그러니까 들깨.)

108007 # 그거 헤영, 그거 헤영 빠다근에 졸르지 안행 생채 행 방 절름은 생차. (그거 해서, 그거 해서 빠다가 ‘졸르지’ 안 해서 날것 그대로 해서 방 ‘절름’은 생차로.)

108007 @ 아, 방 절루는 건 생차로.(아, 방 절이는 건 생짜로.)

108007 # 응, 경행 불르주.(응, 그렇게 해서 바르지.)

108012 @ 그 창호지 불르는 건.(그 창호지 바르는 건.)

108012 # 창호진 따시 또 그저 그 깃헤근에 그 풀로 행 그저 불르고.(창호지는 다시 또 그저 그 ‘깃’해서 그 풀로 그저 바르고.)

108012 @ 깃은 뭐?(‘깃’은 뭐?)

108012 # 그 풀게, 쭈어당 허고. 요샌 밀가루 풀도 쭈곡 허는디 밀가루 풀은 느랑 해가민 좀먹어. 경헌디 갯곳이에 가근에 풀허는 풀이.(그 풀, 쭈어다가 하고. 요샌 밀가루 풀도 쭈고 하는데 밀가루 풀은 늘 해가면 좀먹어. 그런데 갯가에 가서 풀하는 풀이.)

108012 @ 아까 얘기헌 거 갯구들?(아까 얘기한 거 ‘갯구들’?)

108012 # 응, 갯구들이가 이서. 그거 해다근에 발레영 쑤어근에 해영 허민 건 줌도 안 먹곡 좋고.(응, ‘갯구들’이 있어. 그거 해다가 바래서 쑤어서 해서 하면 그 건 줌도 안 먹고 좋고.)

108012 @ 창호지.(창호지.)

108012 # 창호지레 영 바닥에 낳 창호지레 삭삭삭 블라근에 영행 ब्ल르주게.(창호지에 이렇게 바닥에 놔서 창호지에 삭삭삭 발라서 이렇게 해서 바르지.)

108012 @ 쌀문예?(쌀문예?)

108012 # 응, 쌀문예.(응, 쌀문예.)

108012 @ 응.(응.)

108012 # 게민 쌀문도 혼 해에 혼 번은 블라야 해여.(그러면 쌀문도 한 해에 한 번은 발라야 해.)

108012 @ 게난예. 아니 바람 불곡, 막 비 오고 허는 디 찢어지지 안해?(그러니까요. 아니 바람 불고, 막 비 오고 하는 데 찢어지지 않아?)

108012 # 잘 ब्ल르민 안 떼져.(잘 바르면 안 떼져.)

108012 @ 어떻 해야 잘 ब्ल르는 거파?(어떻게 해야 잘 바르는 겁니까?)

108012 # 아니, 경헌디 어디 저 영 이 앞인 풍채 해블민 새 엇이난 비 안 발르주. 풍채 엇은 딴 비 발라도 풍채 신 딴 비 안 발르주.(아니, 그런데 어디 저 이렇게 저 이렇게 이 앞엔 차양 해버리면 떠 없으니까 비 안 들어오지. 차양 없는 덴 비 들어와도 차양 있는 덴 비 안 들어오지.)

108012 @ 아이들은 고망도 딸라불곡 허지 안해?(아이들은 구멍 뚫어버리고 하지 않아?)

108012 # 고망도 딸르곡 허민 브름 들영 ब्ल르주. 혼 해 혼 번은 ब्ल르주. 아이들 시민 기랑기랑해여.(구멍도 뚫고 하면 바람 들어서 바르지. 한 해 한 번은 바르지. 아이들 있으면 ‘기랑기랑’해.)

108012 @ 게난예.(그러니까요.)

108012 # 혼 해에 혼 번 블라야.(한 해에 한 번 발라야.)

108012 @ 혼 해에 혼 번은 블라야예.(한 해에 한 번은 발라야요.)

108012 # 응.(응.)

## 9. 신앙

109001 @ 집에 옛날에 신덜이 잇텐 조왕에도 신 잇고, 고팡에도 신 잇곡 영헌 덴 글아낫주예?(집에 옛날에 신들이 있다고 조왕에도 신 있고, 고팡에도 신 있고 이렇게 한다고 말했지요?)

109001 # 응, 고팡엔 조왕에 허곡 이 안네<sup>203)</sup> 모시는 사름 칠성.(응, 고팡엔 조

203) 안네’는 고팡에 모시는 칠성신으로 ‘안칠성’, 또는 ‘고팡할망’이라고도 한다. 이 신들을 위한 제는 풍농과 고

왕에 하고 이 ‘안네’ 모시는 사람 칠성.)

109001 @ 안넨 칠성.(‘안네’는 칠성.)

109001 # 응.(응.)

109001 @ 뭐, 어디 통시에도 통시 신.(뭐, 어디 돼지우리에도 돼지우리 신.)

109001 # 통시엔게 통시엔 통시 동티.(돼지우리엔 돼지우리엔 돼지우리 동티.)

109001 @ 동티?(‘동티’?)

109001 # 응, 조왕에도 조왕 동티 잇곡.(응, 조왕에도 조왕 동티 있고.)

109001 @ 응.(응.)

109001 # 통시에도 동티, 통시 동티가 옛날은 세낫주게.(돼지우리에도 동티, 돼지우리 동티가 옛날은 많았었지.)

109001 @ 거 어떻게 하는 거파?(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9001 # 거 통시에 혜영 허민 미시거 통시 답이라도 잘못해근에 혜영 답이나 터정 혜영 다민 그 애꿎은 사람 저 통시 동티 걸려. 경허고 통시혜근에 잘못혜영 통시로 잘못헛당 동티나고.(그거 돼지우리에 해서 하면 무엇 돼지우리 답이라도 잘못해서 해서 답이나 터져서 해서 쌓으면 그 애꿎은 사람 저 돼지우리 동티 걸려. 그리고 돼지우리해서 잘못해서 통시로 잘못했다가 동티 나고.)

109001 @ 이 집이도 신이 잇텐 생각해낫수과?(이 집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까?)

109001 # 집이도 저 집 짓젠 허민 시방도 그거주. 이디 제, 토신제 지내영 허고 토신제 안 지내민 따시 또 집 짓어나근에 이젠 저 시에렌 성주 안 내령 살아도 집을 짓이민 성주 누리운텐 허주게.(집도 저 집 지으려고 하면 시방도 그거지. 여기 제, 토신제 지내어서 하고 토신제 안 지내면 다시 또 집 짓고 나면 이젠 저 시에는 성주 안 내려서 살아도 집을 지으면 성주 내린다고 하지.)

109002 @ 건 어떻 허는 거파?(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9002 # 성주, 심방 돌아당.(성주, 무당 데려다가.)

109002 @ 심방 돌아당?(무당 데려다가?)

109002 # 응, 심방 돌아다근에 그 쟁이영 북이영 다 두드령 성주 내곡, 이 남 베영 덩굴낭 휘초리행 도치 행 땡 낭 다 두드령 성주 내나신디 이췌 사람덜은 성주 안 내영 사는 사람도 핫주만은 경해도 성주 내어. 경헌디 그 성줄 내나민 집 짓어근에 살단 누게 죽으면 그 성주 안 낸 딴 귀양도 못 내어.(응, 무당 데려다가 그 쟁이랑 북이랑 다 두드려서 성주 내고, 이 나무 베어서 덩굴 나무 회초리 해서 도끼 해서 매어서 나무 다 두드려서 성주 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성주 안 내어서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성주 내. 그런데 그 성주를 내고나면 집 지어서 살다가 누구 죽으면 그 성주 안 낸 텐 귀양도 못 내.)

109002 @ 아, 성주 안 내리민.(아, 성주 안 내리면.)

---

방 안의 곡식을 잘 지켜 부를 이루게 해달라는 의미이다. 명절이나 제사 때 주부가 메·채소 등을 차린 제물을 안칠성의 거처인 고방의 쌀독 뚜껑 위에 차려 놓는다.

109002 # 귀양 못 내어.(귀양 못 내어.)

109002 @ 귀양을 못헤여.(귀양을 못 해.)

109002 # 못 헤여. 성줄 내, 성주 느리와야 그 성주 저 집 짓은, 집 짓엉 성줄 느리와야여. 경 안허민 그디 사름 죽으민 귀양을 못 내어. 내어사 귀양 내어.(못 해. 성주를 내, 성주 내려와야 그 성주 저 집 지은, 집 지어서 성주를 내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거기 사람 죽으면 귀양을 못 내. 내어야 귀양 내.)

109002 @ 성주 내리는 건 어떻 행 허는 거봐?(성주 내리는 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9002 # 심방 허민게 심방이 다 곁아주주게.(무당 하면 무당이 다 말해주지.)

109002 @ 심방이 곁아줘.(무당이 말해줘.)

109002 # 문딱 곁아줘. 심방, 요새 심방 내민 심방이 돈만 주민 다 헤영 오랑 헤어주고. 이 사름 죽은 귀양도 문딱 재물이영 문 행 헤도렌 돈 주민 그대로 문딱 출령 오랑 헤주고.(모두 말해줘. 무당, 요새 무당 내면 무당이 돈만 주면 다 해서 와서 헤주고. 이 사람 죽은 귀양도 모두 재물이랑 모두 해서 헤달라고 돈 주면 그대로 모두 차려서 와서 헤주고.)

109003 @ 응. 문전은마씨?(응. 문전은요?)

109003 # 문전은, 이젠 문전허는 사름 베랑 엇어. 옛날은 문전코시엔 행 문전에, 문전에 헤영 곡식이나 무시거 잘 돼줍센 문전에 허주게.(문전은, 이젠 문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옛날은 ‘문전코시’라고 해서 문전에, 문전에 해서 곡식이나 뭐 잘 돼달라고 문전에 하지.)

109003 @ 언제 허여?(언제 해?)

109003 # 제지내영. 거 것도 성주 안 낸 집 ㄴ뜨민 못허여.(제지내서. 그거 그것도 성주 안 낸 집 같으면 못해.)

109003 @ 아, 건 언제 허는 거봐? 게민.(아, 그건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러면.)

109003 # 그건 아무 때라도 헤여, 날 봐근에.(그건 아무 때라도 해, 날 봐서.)

109003 @ 날 봐근에.(날 봐서.)

109003 # 집인 게난 아파트로 살암사? 어디라 아파트?(집은 그러니까 아파트로 살고 있니? 어디야 아파트?)

109003 @ 아파트 아니고 그저 집.(아파트 아니고 그저 집.)

109003 # 개인주택? 어디라?(개인주택? 어디야?)

109003 @ 응, 사라봉, 화북 옆이.(응, 사라봉, 화북 옆에.)

109003 # 거난 개인주택은 자기네 살젠 허민 성주 내야. 어떻 시어멍네 엇어? (그러니까 개인주택은 자기네 살려고 하면 성주 내야. 어머니 시어머니네 없어?)

109003 @ 이서마씨.(있어요.)

109003 # 시어멍네 ㄴ라 들어봐, 어떻헉니겐.(시어머니네보고 물어봐, 어떻게 하느냐고.)

109003 @ 할머니 헤난 거 들어보젠 왓주, 무신.(할머니네 했던 거 물어보려고

왔지, 무슨.)

109003 # 그거주게 난. 그거.(그거지 난. 그거.)

109004 @ 그믐 조왕, 조왕이 안네?(그러면 조왕, 조왕이 ‘안네’?)

109004 # 조왕은 조왕 동티엔 허는 건 이 조왕에 무시거 헤여근에 집 짓엉 오래민, 오래민 조왕에 무시거 잘못헤영 솟덕이나 무시거 헤영 고쳐불민 조왕 동티낭, 게민 조왕에 불을 싸사 허곡.(조왕은 조왕 동티라고 하는 건 이 조왕에 무엇 해서 집 지어서 오래면, 오래면 조왕에 무엇 잘못해서 붓돌이나 뭐 해서 고쳐버리면 조왕 동티 나서, 그러면 조왕에 불을 켜야 하고.)

109004 @ 불은 어떻 싸는 거파?(불은 어떻게 켜는 겁니까?)

109004 # 건 따시 또 그 불 싸는 사름이 딱로 잇주게. 해주는 사름이 이서, 빌어당.(그건 다시 또 그 불 켜는 사람이 또 있지. 해주는 사람이 있어, 빌어다가.)

109004 @ 빌어당.(빌어다가.)

109004 # 응, 빌어당. 어디 강 들으민 조왕 동티엔 허민 그거 다스려사.(응, 빌어다가. 어디 가서 물으면 조왕 동티라고 하면 그거 다스려야.)

109004 @ 응.(응.)

109004 # 이 따시 또 집에 우묵은 집행 무시거 거짜 나민 동티가 나는 거라. 거짱 사름이 아프나 무시거허민 어디 강 들으민 동티 낫젠 허민 그 동틸 다시려사, 다시려사 좋은 거, 거.(이 다시 또 집에 ‘우묵은’ 집해서 무엇 건드리고 나면 동티가 나는 거야. 건드려서 사람이 아프거나 무엇하면 어디 가서 물으면 동티 낫다고 하면 그 동티를 다스려야, 다스려야 낫는 거, 그거.)

109004 @ 응.(응.)

109004 # 요새엔 다 미신 안 믿엉 어디 가근에 병원에 강, 병원에 강 해도, 병원에 강 병 일름 엇이민 다시려사 좋주. 안 좋아.(요새는 다 미신 안 믿어서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해도, 병원에 가서 병 이름 없으면 다스려야 좋지. 안 좋아.)

109004 @ 맞아.(맞아.)

109004 # 그거주게, 다.(그거지, 다.)

109005 @ 칠성은마씨?(칠성은요?)

109005 # 칠성은 고팡이 밥 거려놓는 거, 제스 때 밥 거려놓는 거 칠성.(칠성은 고팡에 밥 떠놓는 거, 제사 때 밥 떠놓는 거 칠성.)

109005 @ 응.(응.)

109005 # 그 칠성도 엇은 집인 엇어. 잇는 집인 잇고.(그 칠성도 없는 집은 없어. 잇는 집은 있고.)

109005 @ 아, 잇는 집인 잇고.(아, 잇는 집은 있고.)

109005 # 칠성도 엇어 가. 옛날은 곡식 잘 돼렌 그 고팡에 밥 거려놔 칠성. 시집이부터 시민 메뉴리덜토 해야여. 메뉴리 시어명부떠 안 해나민 안 허고.(칠성도 없어 가. 옛날은 곡식 잘 되라고 그 고팡에 밥 떠놔서 칠성. 시집부터 있으면 며느



리들도 해야 해. 며느리 시어머니부터 안 하고나면 안 하고.)

109005 @ 아, 칠성은. 이디 어디 영 저 뒤결에도 우영에도.(아, 칠성은. 여기 어디 이렇게 뒤결에도 텃밭에도.)

109005 # 구신 우리근에 옛날 어른덜 주지 창 그디 더꺼근에 이 제스 때나 무시거 때랑 그디 강 밥 거려놓는 사름덜 이서. 경허는 사름 신디 우리 동넨 그것도 엇고 우린 뭐 안 해여. 아무것도 안 해여.(귀신 위해서 옛날 어른들 주저리 짜서 거기 덮어서 이제야 때나 무슨 때랑 거기 가서 밥 떠놓는 사람들 있어. 그러는 사람 있는데 우리 동넨 그것도 없고 우린 뭐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109005 @ 아, 아무것도 안 해여.(아, 아무것도 안 해.)

109005 # 계난 옛날 우리 동세덜은 저 조케덜이엔 현 거 시집이 가민 안네헤근에 밥 거리곡 거려놓곡 해도 난 따시 또 나 살명 그걸 흙 시작을 안 허난 우리 메누리덜은 경헨 물러쫓주. 그자 영혼덜 나시만 밥 거려놓고 문전 나시만 거령 다른 건 하나토 안 해. 건 시부모덜 나옴에 메여.(그러니까 옛날 우리 동서들은 저 조카들이라고 한 거 시집에 가면 ‘안네’해서 밥 떠놓고 떠놓고 해도 난 다시 또 나 살면서 그거 하기 시작을 안 하니까 우리 며느리들은 그렇게 해서 물러쫓지. 그저 영혼들 뭇만 밥 떠놓고 문전 뭇만 떠서 다른 건 하나토 안 해. 그건 시부모들 나오기에 따라.)

109005 @ 예.(예.)

109005 # 난 안 해여. 우리 메누리덜 깨끗하게 나 물러쫓주. 어지럽게 안 물러쫓어.(난 안 해. 우리 며느리들 깨끗하게 나 물러쫓지. 어지럽게 안 물러쫓어.)

109005 @ 예.(예.)

109005 # 그자 영혼덜 나시만 밥 거려놓주. 문제허곡 것베끼 안 해여.(그저 영혼들 뭇만 밥 떠놓지. 문제도 하고 그것밖에 안 해.)

109005 @ 이 동네서도 할머니 저 어디 당에 가곡 허지예?(이 동네에서도 할머니 저 어디 당에 가고 하지요?)

109005 # 저 웃드르 본향 큰 던 가.(저 중산간 본향 큰 텐 가.)

109005 @ 할머니도 땡겨낫수과?(할머니도 다녔었습니까?)

109005 # 나도 젊은 땡 땡겨낫저만은 이젠 애기덜 젊은 사름덜 치세로 땡기는 거난 늙으난 안 땡기주게. 아기덜 우렁 땡겨낫주게.(나도 젊은 땡 다녔었지만 이젠 아기들 젊은 사람들 ‘치세’로 다니는 거니까 늙으니까 안 당기지. 아기들 위해서 다녔었지.)

109005 @ 애기들 우렁예.(아기들 위해서요.)

109005 # 정월 초이튿날도 가고, 이월 열사흘도 가곡, 칠월 열사흘에도 가곡 해 낫주만은 이젠 하나토 애기덜 가지 매부난 하나토 안 땡겨. 아기덜 지대로 지네 정성헨 땡기주. 경허고 나 하민 늙은 할망 정성도 엇고게.(정월 초이튿날도 가고, 이월 열사흘도 가고, 칠월 열사흘에도 가고 했었지만 이젠 하나도 아기들 가지 매어 버리니까 하나도 안 다녀. 아기들 자기대로 자기네 정성해서 다니지. 그리고 나 하

면 늙은 할머니 정성도 없고.)

109005 @ 하하하.(하하하.)

109005 # 이녁대로 탕겨사주, 절간에.(자기대로 다녀야지, 절에.)

109005 @ 절간에도 감수과?(절에도 가고 있습니까?)

109005 # 절간에도 나 열심이 믿어나도 이젠 절간에도 안 탕기주.(절에도 나 열심히 믿었어도 이젠 절에도 안 다니지.)

109005 @ 옛날엔 열심이 믿어난?(옛날엔 열심히 믿었었어?)

109005 # 열심이. 절간도 요디 박성사엔 헌 절 그 우리가 다 헨 밤이 직허멍 절 짓언 내놔주만은, 허단 그로후제 멧 번 짓엇주만은 안 탕겨, 안 탕기주. 나도 잘도 탕겨놔어.(열심히. 절도 요기 박성사라고 한 절 그 우리가 다 해서 밤에 지키면서 절 지어서 내놔지만은, 하다가 그후 몇 번 지엇지만 안 다녀, 안 다니지. 나도 잘도 다녔었어.)

109005 @ 절간에 가고 당에 가고예. 경해낫구나예.(절에 가고 당에 가고요. 그랬었군요.)

## 10. 세시풍속

### 정월

110001 @ 철마다 정월에는 무신거허고 이월에는 무신거허고.(철마다 정월에는 무엇하고 이월에는 무엇하고.)

110001 # 정월에는 아무것도 안 허여.(정월에는 아무것도 안 해.)

110001 @ 정월 멧질해사주게.(정월 명절해야지.)

110001 # 그 멧질사 허주게. 멧질, 정월 멧질, 설 멧질. 건 설 멧질.(그 명절이야 하지. 명절, 정월 명절, 설 명절. 그건 설 명절.)

110001 @ 정월 멧질은 어떻 허는 거짜?(정월 명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0001 # 거 다 매일반 혼 가지주. 저을 설 멧질 때엔 옛날에 떡국해난 사름은, 떡국 시방도 설러분 딴 설러불곡 우리 집인 안 설렁 허여.(그거 다 매일반 한 가지지. 겨울 설 명절 때엔 옛날에 떡국했던 사름은, 떡국 시방도 그만둔 텐 그만두고 우리 집은 안 그만두고 해.)

110001 @ 떡국 멧질을 허여?(떡국 명절을 해?)

110001 # 응.(응.)

110001 @ 건 어떻허여?(그건 어떻게 해?)

110001 # 옛날에덜은 떡국을 멧질을 허민 그 세배라고 떡국만 해영 상에 올려 근에 이 문딱 돌아가멍 떡국 먹곡 다 세배해영, 저 영혼덜 나시, 방상 어른들이 문 세배 해낭 따시 그 떡국행 혼 번 돌아앗이민 떡국 설러뵈 따신 밥해근에 떡이영 문 딱 랍시<sup>204)</sup>해영 올리고 밥 멧질해영 따시 또 허곡 현디, 이젠 경은 안 허곡 그자

떡국해근에 상에만 올려.(옛날에들은 떡국을 명절을 하면 그 세배락 떡국만 해서 상에 올려서 이 모두 돌아가면서 떡국 먹고 다 세배해서, 저 영혼들 뭇, 일가붙이 어른들이 모두 세배 해놔서 다시 그 떡국해서 한 번 돌아왔으면 떡국 그만두고 다시는 밥해서 떡이랑 모두 ‘웹시’해서 올리고 밥 명절해서 다시 또 하고 하는데, 이젠 그렇게는 안 하고 그저 떡국해서 상에만 올려.)

110001 @ 아, 그른 밥이영 떡이영은 안 올려?(아, 그러면 밥이랑 떡이랑은 안 올려?)

110001 # 밥, 떡은 그 떡국 해낭.(밥, 떡은 그 떡국 하고나서.)

110001 @ 떡국 해낭.(떡국 하고나서.)

110001 # 떡국은 행 올리민 즈손들은 문딱 세배만 해나민 승냥행 느려아정 따시 밥해영 올령 떡, 적해영 문딱 웹시 문 해영 올령 제지내주.(떡국은 해서 올리면 자손들은 모두 세배만 하고나면 승냥해서 내려서 다시 밥해서 올려서 떡, 적해서 모두 ‘웹시’ 모두 해서 올려서 제지내지.)

110001 @ 아, 두 번 허는구나예.(아, 두 번 하는군요.)

110001 # 응, 경허단 이젠 흠치 해여.(응, 그러다가 이젠 한꺼번에 해.)

110001 @ 이젠 흠치 해도 옛날엔 떡국명절 먼저 하고 그다음 밥 다 올려근에 하고.(이젠 함께 해도 옛날엔 떡국 명절 먼저 하고 그다음 밥 다 올려서 하고.)

110001 # 경허단 이젠 명절 먹으려 가민 떡국만 그자 행 올령 그자 행 허민 그자 이녁 집이 아기덜이나 해영 세배해여근에. 이제도 세배덜은 해놔근에 거 다 느리와똥 웹시행 거 문딱 올리고 메행 올리고 다 행 올령 그젠 제지내고.(그러다가 이젠 명절 먹으려 가면 떡국만 그저 해서 올려서 그저 해서 하면 그저 자기 집에 아기들이나 해서 세배해서. 이제도 세배들은 해놔서 그거 다 내려두고 ‘웹시’해서 그거 모두 올리고 메해서 올리고 다 해서 올려서 그땐 제 제지내고.)

110001 @ 아.(아.)

110001 # 거 방상마다 가주, 거. 안 허는 딴.(그거 일가붙이마다 가지, 그거. 안 하는 댄.)

110001 @ 예, 우린 경 안 해여.(예, 우린 그렇게 안 해.)

110001 # 집인 안 허주이?(집에는 안 하지?)

110001 @ 예, 밥만 올려.(예, 밥만 올려.)

110001 # 밥만. 안 허는 집인 안 허여. 거 다 이녁 가문만씩.(밥만. 안 하는 집은 안 해. 그거 다 자기 가문만큼씩.)

110001 @ 아, 떡국을 먼저 행. (아, 떡국을 먼저 해서.)

110001 # 떡국 명절 먼저 해. 이 동네도 안 해.(떡국 명절 먼저 해. 이 동네도 안 해.)

110001 @ 옛날은 경 해나신디?(옛날은 그렇게 했었는데?)

110001 # 설러분 사름덜은. 우리 강침인 안 설러주, 시방도.(그만둔 사람들도.

---

204) ‘웹시’는 제사상에 제물을 격식에 따라 그릇에 잘 올리다는 것으로 ‘웹시하다, 웹시 올리다’처럼 쓰인다.

우리 강씨 집은 그만두지 않았지, 시방도.)

110001 @ 아, 시방도?(아, 시방도?)

110001 # 응. 시방도 해.(응. 시방도 해.)

110001 @ 아, 그믐 멧질도 여러 밧디 강, 여러 밧디서 먹주예?(아, 그러면 멧절도 여러 군데 가서, 여러 군데서 먹지요?)

110001 # 응, 멧질에 방상이 여라이 사름덜 하영 죽영 젊은 사름덜 안 죽을 사름덜 다 죽으면 그거 다 멧질 다 허민 그 멧질을 다 돌아가명 우리 방상에 다 돌아가명 먹어. 이 알동네 짐집이덜은 문딱 이녁만씩 먹는다, 우리 집인 멧질 다섯 밧이라.(응, 멧질에 일가불이 여러 사람들 해서 죽어서 젊은 사람들 안 죽을 사람들 다 죽으면 그거 다 멧절 다 하면 그 멧절을 다 돌아가면서 우리 일가불이에 다 돌아가면서 먹어. 이 아랫동네 김씨 집들은 모두 자기만큼씩 먹는데, 우리 집은 멧절 다섯 군데야.)

110001 @ 아.(아.)

110001 # 다섯 밧을 다 먹어. 경허민 먹는 디 강 제만 지내고 그디서 그자 차나 혼 잔허고 그자 과일 ㄱ쁜 거 먹는 집인 먹고, 안 먹는 집인 안 먹고 경허민 조반 먹는 집이 따시 또 조반 대신 조반 떡국 다섯 밧에서 두 밧디서베끼 안 먹어. 딱 정해놔근예.(다섯 군데 다 먹어. 그러면 먹는 데 가서 제만 지내고 거기서 그자 차나 한 잔 하고 그자 과일 같은 거 먹는 집은 먹고, 안 먹는 집은 안 먹고 그러면 조반 먹는 집에 다시 또 조반 대신 조반 떡국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밖에 안 먹어. 딱 정해놔서.)

110001 @ 응, 이젠예.(응, 이젠요.)

110001 # 정허영 정허민.(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110001 @ 옛날은.(옛날은.)

110001 # 옛날은 그자 혼디 해영 허민 그자 출려눔은 해도 먹진 안 해도 출려났주만은 이젠 새 식으로 경 안 허주게.(옛날은 그자 함께 해서 하면 그자 차려눔은 해도 먹지는 안 해도 차려났지만 이젠 새 식으로 그렇게 안 하지.)

110001 @ 다섯 밧디 다 떡국멧질을 허여?(다섯 군데 다 떡국 멧절을 해?)

110001 # 그 이녁 상에만.(그 자기 상에만.)

110001 @ 아.(아.)

110001 # 이녁 상에만.(자기 상에만.)

110001 @ 응.(응.)

110001 # 경 다 먹진 안허주게. 상에만 허민. 떡국행 올리민 따시 또 설 멧질이엔 강 떡국만 먹는 집인 떡국만 떡국. 따시 또 밥 멧질 먹는 덴, 큰집인 강 밥 멧질 먹고.(그렇게 다 먹진 않지. 상에만 하면. 떡국해서 올리면 다시 또 설 멧절이라고 가서 떡국만 먹는 집은 떡국만 먹고. 다시 또 밥 멧절 먹는 덴, 큰집은 가서 밥 멧절 먹고.)

110001 @ 아. 과세도 허레 텅겨났주예?(아, 세배도 하러 다녔었지요?)

110001 # 응. 과줄허레 땡겨낫어. 할망덜 허레 땡기민 혼디 땡겨낫주, 두린 때.  
(응. 과줄하러 다녔었어. 할머니들 하러 다니면 함께 다녔었지, 어릴 때.)

110001 @ 두린 때?(어린 때?)

110001 # 과줄허는 거 보민이 이젠 밀꺾루.(과줄하는 거 보면 이젠 밀가루.)

110001 @ 아니, 과줄 말고 과세, 세배 드리레 땡기는 거.(아니, 과줄 말고 과세, 세배 드리러 다니는 거.)

110001 # 거 세배게.(그거 세배.)

110001 @ 건 세배. 과세엔 안허고 세배?(그건 세배. 과세라고 안하고 세배?)

110001 # 세배.(세배.)

110001 @ 세배. 늬의 집이게 할망덜 이신 디나.(세배. 남의 집에 할머니들 있는 데나.)

110001 # 노인덜신디 세배 땡겨낫주만은 이젠 안 땡겨.(노인들에게 세배 다녔었지만 이젠 안 다녀.)

110001 @ 옛날에.(옛날에.)

110001 # 옛날엔 땡겨낫주.(옛날엔 다녔었지.)

110001 @ 땡겨낫주예? 가민 무신거 맞춘 거 줘?(다녔었지요? 가면 뭐 맛있는 거 줘?)

110001 # 가민, 옛날엔 저 옛헤근에.(가면, 옛날엔 저 옛해서.)

110001 @ 아, 옛.(아, 옛.)

110001 # 옛, 이녁네 집이서 헤영 옛 저 종지에 놓곡 떡허곡 행 먹으렌 줘낫누게. 스몓 옛날.(옛, 자기네 집에서 해서 옛 저 종지에 놓고 떡하고 해서 먹으라고 줬었어. 사몓 옛날.)

110001 @ 스몓 옛날엔예.(사몓 옛날에는요.)

110001 # 종지에 톡허게 놔근에.(종지에 톡하게 놔서.)

110001 @ 우리도 막 옛날엔 어렸을 땐 막 여기저기 세배허레 땡긴, 세뱃돈 받음으로예, 재미로. 막 이디저디 땡겨나신디.(우리도 아주 옛날엔 어렸을 땐 막 여기저기 세배하러 다닌, 세뱃돈 받음으로요, 재미로. 막 여기저기 다녔었는데.)

110001 # 겐디 스몓 옛날은 헤도, 이 세뱃돈 나건디 얼마 안허난 우리 방상엔 그 아이덜 막 하민 문딱 멩질행 세백 멩질 다 헤나근에 밥 멩질 다헤나민 큰집이 가민 혼 집이가 습박 앓앙 어른덜은 어른덜, 아이덜 쪽허게 앓져낱 거 세배덜 혼 집이서만 종손집이서만 세배허영 아이덜 세뱃돈 주주게.(그런데 사몓 옛날은 헤도, 이 세뱃돈 나건지 얼마 안하니까 우리 일가붙이엔 그 아이들 아주 많으면 모두 명절해서 새벽 명절 다 하고나면 밥 명절 다 하고나면 큰집에 가면 한 집에 ‘습박’ 앓아서 어른들은 어른들, 아이들 쪽하게 앓혀와서 그거 세배들 한 집에서만 종손집에서만 세배해서 아이들 세뱃돈 주지.)

110001 @ 옛날에 돈 엇이민 아이덜 어떻 행 뵈 줬수과?(옛날에 돈 없으면 아이들 어떻게 해서 뵈 줬습니까?)

110001 # 옛날덜은 십 원도 주곡, 저 백 원도 주곡 옛날덜은 헤나고, 갹 안헌 땐, 천 원덜 날 때, 천 원짜리 날 때 세배했주. 그전이사 세배돈 헤낫어?(옛날들은 십 원도 주고, 저 백 원도 주고 옛날들은 했었고, 그렇게 안헌 땐, 천 원들 날 때, 천 원짜리 날 때 세배했지. 그전에야 세배돈 했었어?)

110001 @ 그전인 그믐 세배돈 안 주믐 무신거?(그전엔 그러면 세배돈 안 주면 무엇?)

110001 # 아무것도 안 줬주, 돈 엇인디 세배돈 줘지느냐?(아무것도 안 줬지, 돈 없으면 세배돈 줄 수 있니?)

110001 @ 하하하.(하하하.)

110001 # 안 주주게. 우리도 아이덜 클 때 하르방은 헤영 오백 원 주곡 난 천 원 주곡 허단 하르방 천 원 쥐가난에 오천 원짜리도 나고. 난 이녁냥으로 헤영 밧디 저 거시기 늬의 밧디 일헤도렌 허민 일허레 땡기민 이녁냥으로 버스난에 경 아이덜 하르방은 오백 원 줘도 난 천 원 줘낫주게, 느랑.(안 주지. 우리도 아이들 클 때 할아버지는 해서 오백 원 주고 난 천 원 주고 하다가 할아버지 천 원 쥐가니까 오천 원짜리도 나고. 난 자기대로 해서 밧에 저 거시기 남의 밧에 일헤 달라고 하면 일하러 다니니까 자기대로 버니까 그렇게 아이들 할아버지는 오백 원 줘도 난 천 원 줬었어, 늘.)

110001 @ 할머니가 통이 크네.(할머니가 통이 크네.)

110001 # 나가 통이 크주. 경허민 하르방 오천 원 허민 난 만 원. 이젠 전부다 만 원.(내가 통이 크지. 그러면 할아버지 오천 원 하면 난 만 원. 이젠 전부다 만 원.)

110001 @ 이젠 다 만 원예.(이젠 다 만 원요.)

110001 # 다 만 원. 원 곧 난 아이고 아무거고 오민 만 원. 오천 원허단, 천 원 허단 오천 원허단 만 원. 죽영 쥐보진 안헨. 나가 통이 크주.(다 만 원. 원 곧 낳은 아이고 아무것이고 오면 만 원. 오천 원하다가, 천 원하다가 오천 원하다가 만 원. 적게 쥐보지는 았았어. 내가 통이 크지.)

110001 @ 게난.(그러니까.)

110001 # 저 혼 삼 년 전이도 무신 할망덜 무신 손지덜 천 원짜리 줬저, 이 천 원이여, 삼 천원이여 헤도 난 경은 안 헨. 이녁냥으로 밧디 땡기멍 일허레 땡기멍 버스난.(저 한 삼 년 전에도 무슨 할머니들 무슨 손주들 천 원짜리 줬다, 이천 원이다, 삼천 원이다 해도 난 그렇게는 안 했어. 자기대로 밧에 다니면서 일하러 다니면서 버니까.)

110001 @ 응.(응.)

110001 # 게난 하르방이영 살림살이 미깡허민, 살림살이 하르방 용돈 쓰곡 집안에 허곡 그냥 나냥으로 헤영 버슬영 방상이 육촌 동세가 아홉이난 그 조름을 다 헤봐. 조그만이 허나?(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살림살이 굴하면, 살림살이 할아버지 용돈 쓰고 집안에 하고 그냥 나대로 해서 벌어서 일가붙이 육촌 동서가 아홉이니까 그

뒤를 다 해봐. 조금만 하나?)

110001 @ 응.(응.)

110001 # 집이 든 날은 그 당근행 파레도 다 텅기고. 무시거 허고, 경허멍 버슬 영 허민게 손지덜 세뱃돈도 주곡 흑교에도 가젠 허민 하르방은 안 줘도 줍아 주곡. (집에 든 날은 그 당근해서 파레도 다 다니고. 무엇 하고, 그러면 벌어서 하면 손주 들 세뱃돈도 주고 학교에도 가려고 하면 할아버지는 안 줘도 집어 주고.)

110001 @ 응. 정월 명절 때 음식허젠 허민 막 힘들주예?(응. 정월 명절 때 음식 하려고 하면 막 힘들지요?)

110001 # 옛날은 허단 이젠 그 다 기계허는 거난. 사단 허난.(옛날은 하다가 이젠 그 다 기계하는 거니까. 사다가 하니까.)

110001 @ 아, 옛날 말이주게.(아, 옛날 말이지.)

110001 # 옛날은 해도 그 명절 초가집 명절 행 먹젠 허민 큰집이 가근에 그 멧 절떡 다 해뒀 오랑 이녁 집이 오랑, 옛날은 모몰덜 같고 허난 빙 지정 허는 디가 해주게. 그 막 종손칩이덜이나 큰 멧절덜이나 떡을 허주, 경. 큰집이 강 떡허고 어느 때민 이녁집이 멧절할 떡을 할 저르, 빙 지정 허는 때가 해주. 빙 지정.(옛날은 해도 그 명절 초가집 명절 해서 먹으려고 하면 큰집에 가서 그 멧절떡 다 해두고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옛날은 메밀들 같고 하니까 빙떡 지저서 하는 데가 많지. 그 막 종손집에들이나 큰 멧절들이나 떡을 하지, 그렇게. 큰집에 가서 떡하고 어느 때면 자기 집에 멧절할 떡을 할 겨를, 빙떡 지저서 하는 때가 많지. 빙떡 지저서.)

110001 @ 응, 빙 지정.(응, 빙떡 지저서.)

110001 # 이젠 빙 지저사. 빙덜 잘 먹어.(이젠 빙떡 지저야. 빙떡들 잘 먹어.)

110001 @ 이젠 별미로게예.(이젠 별미로.)

110001 # 응, 별미로.(응, 별미로.)

110001 @ 주로 그믐 밥허고 국허고.(주로 그러면 밥하고 국하고.)

110001 # 요 중간에덜토 잘 출린 집인 빙 지정 주민 잘 먹엄주만은 이젠 어디 식당에 강 떡허난 떡덜 먹엄시냐? 건 안 먹어.(요 중간에들도 잘 차린 집엔 빙떡 지저서 주면 잘 먹고 있지만 이젠 어디 식당에 가서 떡하니까 떡들 먹고 있니? 그건 안 먹어.)

110001 @ 그믐 정월 멧절엔 주로 밥허고 국허고 그다음 뭐 올려?(그러면 정월 멧절엔 주로 밥하고 국하고 그다음 뭐 올려?)

110001 # 그냥 다 보통으로 멧절허듯 혼 가지로 허주게.(그냥 다 보통을 멧절하듯 한 가지로 하지.)

110001 @ 젓갈허고, 채소허고.(적하고, 채소하고.)

110001 # 문딱 ㄴ찌 멧절허는 거나, 저 팔월 멧절허는 거, 제스허는 거 다 ㄴ찌 ㄴ찌 허주게.(모두 같이 멧절하는 거나, 저 팔월 멧절하는 거, 제사하는 거 다 같이 하지.)

110001 @ 다 ㄴ찌. 근디 떡국 멧절만 흥뽀 트나구나예?(다 같이. 근데 떡국 멧

절만 조금 다르군요?)

110001 # 응, 떡국 멧질만 헛나 더 잇는 거주, 다 ㄴ찌.(응, 떡국 멧질만 하나 더 잇는 거지, 다 같이.)

110001 @ 아, 음식은 다 ㄴ치.(아, 음식은 다 같이.)

110001 # 거난 우리 삼달린 설 멧질에 도새긴 안 잡아.(그러니까 우리 삼달린 설 멧질에 돼지는 안 잡아.)

110001 @ 예?(예?)

110001 # 설 멧질에 도새긴 안 잡아.(설 멧질에 돼지 안 잡아.)

110001 @ 계민?(그러면?)

110001 # 초상이, 저디 초상 거, 초이틀에 뎡기는 초상이 도새기 꿩기 부정허난 도새긴 안 잡아, 췌베피. 췌 추렴베피 안 허여.(조상이, 저기 조상 그거, 초이틀에 다니는 조상이 돼지 고기 부정하니까 돼지는 안 잡아, 소뻬에. 소 추렴뻬에 안 해.)

110001 @ 계민 도새기 고기 안 올려?(그러면 돼지고기 안 올려?)

110001 # ㄴ슬 안 가는 사름도 어디 강 사당이라도 ㄴ을에선 도새기 안 잡아. 못 잡아. 풍습이 경해노난.(마을 안 가는 사람도 어디 가서 사다가라도 마을에선 돼지 안 잡아. 못 잡아. 풍습이 그래서.)

110001 @ 응. 그믄 어디 다른 디 강은에 사당이라도.(응. 그러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사다가라도.)

110001 # 다른 디 강 사당 허는 사름은 지네 그디 안 가는 사름덜이난. 그 본향에 안 가는 사름이나 허주, 경 안헌 사름은.(다른 데 가서 사다가 하는 사람은 자기네 거기 안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본향에 안 가는 사람이나 하지, 그렇게 안한 사름은.)

110001 @ 아, 본향에 안 가는 사름이난.(아, 본향에 안 가는 사람이니까.)

110001 # 경헌 디 가는 사름은 안 해여. 딱 안 해여. 계난 설 멧질에만 도새기 안 잡아. 그다음 건 도새기 적헛자 설 멧질엔 안 해. 트른 거 다른 걸로 해.(그런 데 가는 사름은 안 해. 딱 안 해. 그러니까 설 멧질에만 돼지 안 잡아. 그다음 것은 돼지 적해도 설 멧질엔 안 해. 다른 건 다른 걸로 해.)

110001 @ 국은 무신 국 끌렁 헉니까?(국은 무슨 국 끓여서 합니까?)

110001 # 국은 다 요새 솔래기국덜 다 끌리주 무시거?(국은 다 요새 옥돔국들 다 끓이지 무엇?)

110001 @ 솔래기국? 메역 땡 아니민 무수 땡?(옥돔국? 미역 뉘서 아니면 무 뉘서?)

110001 # 메역 땡.(미역 뉘서.)

110001 @ 메역 땡.(미역 뉘서.)

110001 # 응, 솔래기국은 다 그거.(응, 옥돔국은 다 그거.)

110002 @ 정월대보름엔 뉘 허는 거 이수과?(정월대보름엔 뉘 하는 거 있습니까?)



110002 # 정월대보름엔 무시걸 허여? 아무것도 안 허여.(정월대보름엔 무엇 해? 아무것도 안 해.)

110002 @ 이젠 무신거 뭐 깨엿 먹어야 부럼 깨 먹어야 웬다, 무신거.(이젠 무엇 뭐 깨어서 먹어야 부럼 깨 먹어야 된다, 무엇.)

110002 # 옛날엔 보름떡<sup>205)</sup> 처냇주게. 정월보름엔 열나흘날 처냇이 보름떡 치민 떡이 익으면 허고 떡 설민 굿텐 허난 떡 설업텐 허곡, 이녁 이름 쫄 혼 줍씩, 혼 줍씩 놔근에 허민 일름 써낭 허민 그 떡 안 웬 사름은 재수 엇텐 허주.(옛날엔 ‘보름떡’ 찢었지. 정월보름엔 열나흘날 저녁에 ‘보름떡’ 찢면 떡이 익으면 하고 떡 설면 나쁘다고 하니까 떡 선다고 하고, 자기 이름 쌀 한 줍씩, 한줌씩 놔서 하면 이름 써 놔서 하면 그 떡 안 된 사람은 재수 없다고 하지.)

110002 @ 아, 혼 해 재수 엇텐?(아, 한 해 재수 없다고?)

110002 # 응.(응.)

110002 @ 그 뭐 침떡을?(그 뭐 시루떡을?)

110002 # 응, 친떡을 시리에 낵 치주.(응, 시루떡을 시루에 놔서 찢지.)

110002 @ 시리에 낵. 쫄ㄴ루로?(시루에 놔서. 쌀가루로?)

110002 # 응, 쫄도 굴아다근에.(응, 쌀도 갈아다가.)

110002 @ 하얏허게 그냥? 제펜?(하얏게 그냥? 시루떡?)

110002 # 아니, 옛날에 회린좁쌀 해난, 회린좁쌀 치민, 회린좁쌀은 잘 익잖아. 경 안허나?(아니, 옛날에 차좁쌀 하니까, 차좁쌀 찢면, 차좁쌀은 잘 익잖아. 그렇게 안하니?)

110002 @ 응, 흐린좁쌀로. 보름떡.(응, 차좁쌀로. ‘보름떡’.)

110002 # 경허고 그루후젠 또 산뒤쫄 행 떡 치고 허멍 해나신디. 이제 보름떡 설르곤 디 혼 열댓 해 뉘는디.(그리고 그후엔 또 밭벼쌀 해서 떡 찢고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보름떡’ 그만둔 지 한 열댓 해 되는데.)

110002 @ 응, 옛날 보름떡 해낫구나예?(응, 옛날 ‘보름떡’ 했었군요?)

110002 # 옛날 해난. 게난 이제 육지 사름덜은 보름에 무신 잡곡밥해 먹나 무시 거 현다 허는디, 이디 촌에 사름덜은 경 안해.(옛날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육지 사람들은 보름에 무슨 잡곡밥해서 먹거나 무엇 한다 하는데, 여기 촌에 사름들은 그렇게 안 해.)

110003 @ 응, 뭐 정월에 뭐 액막이허는 거 잇수과?(응, 뭐 정월에 뭐 액막이하는 거 있습니까?)

110003 # 정월보름에 액뎡이허는 사름 액뎡이.(정월보름에 액막이하는 사람 액막이.)

110003 @ 건 어떻 행 허는 거파?(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10003 # 거 절간에서 다 햐주.(그거 절에서 다 하고 있지.)

110003 @ 아, 절간에서.(아, 절에서.)

205) ‘보름떡’은 정월 대보름에 한해 운수를 점치기 위해 찢는 시루떡을 말한다.

110003 # 응, 삼재 든 사름덜.(응, 삼재 든 사람들.)

110003 @ 삼재 든 사름덜.(삼재 든 사람들.)

110003 # 응, 절간에서. 절간 안 텡겨?(응, 절에서. 절 안 다녀?)

110003 @ 절간 텡겨마씨. 어머니, 시어머니 텡겨.(절 다녀요. 어머니, 시어머니 다녀.)

110003 # 게난 젊은 사름덜 젊은 사름이 텡겨야주, 시어멍 텡기민.(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이 다녀야지, 시어머니 다니면.)

110003 @ 하하하. 난 바빠에.(하하하. 난 바빠서.)

110003 # 바빠도 정월보름엔 텡겨야지.(바빠도 정월보름엔 다녀야지.)

110003 @ 아, 정월보름엔 가사는 거라?(아, 정월보름엔 가야하는 거야?)

110003 # 응. 정월보름에 가민 절간에 정월보름 안행 정월 초일렛날이 저 거시기 칠성날 아니라게.(응. 정월보름에 가면 절에 정월보름 안하고 정월 초이레날이 저 거시기 칠성날 아니냐.)

110003 @ 예.(예.)

110003 # 그때 가민 그거 허곡, 따시 또 경 안허민 정월 나민 따시도 그 절간에 세배 가민 운수 보민 그 사름이 그해에 굿는 거, 안 굿는 거 다 알앙 삼젠 삼재다 아니민 아니다 허민, 삼젠 액막일 해야지.(그때 가면 그거 하고, 다시 또 그렇게 안 하면 정월 나면 다시도 그 절에 세 배 가면 운수 보면 그 사람이 그해에 굿은 거, 안 굿은 거 다 알아서 삼재는 삼재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삼재는 액막일 해야지.)

110003 @ 액막인 절에서 불공 들이는 거짜?(액막인 절에서 불공 들이는 겁니까?)

110003 # 응, 트로 헤여.(응, 따로 해.)

110003 @ 아, 트로.(아, 따로.)

110003 # 그 절간에 보름날에 액맥이 불공을 트로 허주게.(그 절에 보름날에 액맥이 불공을 따로 하지.)

110003 @ 아.(아.)

110003 # 게난 거 다허는 건 아니고 그 헤치에 딱랑.(그러니까 그거 다하는 건 아니고 그 띠에 따라서.)

110003 @ 헤치에 딱랑예. 응.(띠에 따르셔요. 응.)

110003 # 응, 헤치 딱라. 게난 세 사름 신 때도 셋곡 두 사름 든 때, 혼 사름 든 때도 잇고 헤치에 딱랑 가, 그 삼재.(응, 띠 따라. 그러니까 세 사람 있을 때도 있고 두 사람 든 때, 한 사람 든 때도 있고 띠에 따라서 가, 그 삼재.)

110003 @ 우리 집 올해 세 명이 삼재. 양띠, 도새기띠, 그다음 무신 띠, 토끼띠.(우리 집 올해 세 명에 삼재. 양띠, 돼지띠, 그다음 무슨 띠, 토끼띠.)

110003 # 게난 액맥이 안 헨 넘어간?(그러니까 액막이 안하고 넘어갔어?)

110003 @ 아니, 헨, 헨.(아니, 했어, 했어.)

110003 # 헤여야여, 거.(해야 해, 그거.)

110003 @ 난 안 가고 우리 어머니한테 돈 드리난 그냥.(난 안 가고 우리 어머니에게 돈 드리니까 그냥.)

110003 # 돈 안네민.(돈 드리면.)

110003 @ 예, 돈 안네난 그걸로 강 헛텐 허난.(예, 돈 드리면 그걸로 가서 헛던 거니까.)

110003 # 경헌디 이제 살림을 살아가고 아기덜이 옥아가민 이녁냥으로 해야지.(그런데 이제 살림을 사아가고 아기들 커가면 자기대로 해야지.)

110003 @ 응.(응.)

110003 # 이녁 절간에 이녁냥으로 텅겨. 시에 사난 시에 텅경.(자기 절에 자기대로 다녀. 시에 사니까 시에 다녀서.)

110003 @ 예.(예.)

110003 # 아니, 따시 어디 고향에 살아도 본향이라도 시어멍 사는 디 강. 조천리엔 허멍 시어멍네. 브디난게 그디 강 흐디 강 이녁냥으로 해사주. 이제 시어멍을 믿지 말고 이녁냥으로 해야 정성이 받아.(아니, 다시 어디 고향에 살아도 본향이라도 시어머니 사는 데 가서. 조천리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네.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함께 가서 자기대로 해야지. 이제 시어머니를 믿지 말고 자기대로 해야 정성이 받아.)

110003 @ 예. 메뉴리덜도 텅집니까?(예. 며느리들도 다닙니까?)

110003 # 우리 메뉴리네 다 텅점주. 정월보름엔 똑 오라. 게난 나 곶은 말이 그른 말이엔 허지 말고 애기덜 옥아가민 이제 고등학교 가곡, 중학교 가곡 허민 애기덜 대학 가곡 허젠 허민 이녁이 성심을 해야 그 아기덜이 어디 강 시험도 잘 보곡 허주. 이녁 시어멍이랑 당추 믿지 말아. 이녁대로 허여.(우리 며느리네 다 다니고 있지. 정월보름엔 꼭 와. 그러니까 나 말하는 말이 그른 말이라고 하지 말고 아기들 커가면 이제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하면 아기들 대학 가고 하려고 하면 자기가 성심을 해야 그 아기들이 어디 가서 시험도 잘 보고 하지. 이녁 시어머니랑 당추 믿지 말아. 자기대로 해.)

110003 @ 하하하. 예, 알았수다.(하하하. 예, 알았습니다.)

110003 # 강 그 삼재든 땀 액맥이도 잘 허곡. 절간에도 열심히 텅기곡.(가서 그 삼재든 땀 액막이도 잘 하고.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110004 @ 예, 정월엔 포제도 허주예?(예, 정월엔 포제도 하지요?)

110004 # 우리 집인 저 초승에 헤여. 초이튿날 웃가름에 텅기민 초사흘날 헐 때도 있고 초나흘날 헐 때도 있고. 그 존 날 봐 허는 거난.(우리 집은 저 초승에 해. 초이튿날 윗동네에 다니면 초사흘날 할 때도 있고 초나흘날 할 때도 있고. 그 좋은 날 봐 하는 거니까.)

110004 @ 건 어떻게 허는 거파?(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10004 # 건 므을에서 허주.(그건 마을에서 하지.)

110004 @ 므을에서 남저들이예?(마을에서 남자들이요?)

110004 # 정성혜근에.(정성해서.)

110004 @ 정성혜근에.(정성해서.)

110004 # 건 마을에서 허는 거.(그건 마을에서 하는 거.)

110004 @ 무신거 어디 오지도 못허게 무신거 줄도 영 달고.(무엇 어디 오지도 못하게 무엇 줄도 이렇게 달고.)

110004 # 응, 그때 부정헌 사름 그 마을에 제 막으민, 제 막은 집이 트로 잇주 게.(응, 그때 부정헌 사람 그 마을에 제 막으면, 제 막은 집에 따로 있지.)

110004 @ 예.(예.)

110004 # 그 제관들 메우는 집이 성 허민 부정헌 사름 못 가게 해.(그 제관들 모이는 집이 있어서 하면 부정헌 사람 못 가게 해.)

110004 @ 아.(아.)

110004 # 부정헌 사름 오지 말렌 솟 메는 거주게.(부정헌 사람 오지 말라고 새 끼 매는 거지.)

110004 @ 아, 솟 매는 거.(아, 새끼 매는 거.)

110004 # 부정헌 사름 탕기카부텐.(부정헌 사람 다닐까봐.)

110004 @ 아, 여자도 가민 안 돼여?(아, 여자도 가면 안 돼?)

110004 # 여저도 그 무사 가도 이녁이 여저덜이 이녁이 제 막으민 그 남저덜 이젠 어떻사 험신디 옛날은 우리도 제 막앙 해보민 옛날은 피 질를 때난 묵술 혼 댓 돼 행 큰 상제가 흐나 농곡 그디 담배 혼 보루 사놓고 술 혼 돼 받아놓고 행 제 막으민 텅겨났어.(여자도 그 왜 가도 자기가 여자들이 자기 제 막으면 그 남자들 이젠 어떻게야 하는지 옛날은 우리도 제 막아서 해보면 옛날은 피 기를 때니까 ‘묵술’ 한 댓 되 해서 큰 상주가 하나 놓고 거기 담배 한 보루 사놓고 술 한 되 받아놓고 해서 제 막으면 다녔었어.)

110004 @ 제 막음?(제 막음?)

110004 # 제관, 제관으로 들민, 그디 포제 제관으로 들민, 경허민 경행 텅겨. 아 덜도 험 텅겨나고 아방도 해나고, 따시 아방이 큰 제관허난 혼 삼일 정성행 그디 간 그 포제 제물도 다 해나고.(제관, 제관으로 들면, 거기 포제 제관을 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녀. 아들도 해서 다녔었고 아버지도 했었고, 다시 아버지가 큰 제관 하니까 한 삼일 정성해서 거기 가서 그 포제 제물도 다 했었고.)

110004 @ 포제할 땐 무신거, 무신거 올립니까?(포제할 땐 무엇, 무엇 올립니까?)

110004 # 포제 제물 포제 경 다 행 올려. 감지, 생감지. 생메. 메도 세 그릇, 좁쌀 메, 곤쌀 메, 피쌀 메.(포제 제물 포제 그렇게 다 해서 올려. ‘감지’, ‘생감지’. ‘생메’. 메도 세 그릇, 좁쌀 메, 흰쌀 메, 피쌀 메.)

110004 @ 응.(응.)

110004 # 모인좁쌀메 네 그릇을 다 산메로 쳐.(메좁쌀 메 네 그릇을 다 ‘산메’로 쳐.)

110004 @ 아. 네 그릇이 산메?(아. 네 그릇이 ‘산메’?)

110004 # 산메, 그 사발에 놔근에 거리지 안행 사발에 낳 솟디 낳 쳐.(‘산메’, 그 사발에 놔서 뜨지 않아서 사발에 놔서 찌.)

110004 @ 아, 솟디 낳 쳐.(아, 술에 놔서 찌.)

110004 # 응, 계난 청주엔 헛 거, 생 거로 술해근에 그 탁배기 ㄴ치 헛 거 청주 행 허고 따시 생감쥐허고.(응, 그러니까 청주라고 한 거, 생 거로 술해서 그 탁배기 같이 한 거 청주해서 하고 다시 생감주하고.)

110004 @ 생감쥐가 뭐?(생감주가 뭐?)

110004 # 골해영 감지해영 생차.(골해서 감주해서 생짜.)

110004 @ 아, 감주.(아, 감주.)

110004 # 응, 감쥐 생차, 다.(응, 감주 생짜.)

110004 @ 아.(아.)

110004 # 계난 우리 집 하르방이 큰 제관 말을 때난 나가 경헛 제물 다 해낫젠 허난.(그러니까 우리 집 할아버지 큰 제관 말을 때니깐 내가 그렇게 해서 제물 다 했었다고 하니까.)

110004 @ 제숙은 뭐합니까?(제육은 뭐합니까?)

110004 # 제숙은 그디서 몰라, 무시거 생 걸로 다.(제육은 거기서 몰라, 무엇 생 걸로 다.)

110004 @ 아, 생 걸로.(아, 생 걸로.)

110004 # 응, 도새기도 잡아도 생차허주, 삶지 아녀. 다 생 걸로, 산신.(응, 돼지 잡아도 생짜하지, 삶지 않아. 다 생 걸로, 산신.)

110004 @ 바닷에 꿩 안 허여?(바다에 고기 안 해?)

110004 # 바다에 꿩 허주게.(바다에 고기 하지.)

110004 @ 응.(응.)

110004 # 세 개가 허곡. 생복도 들곡.(세 개 하고. 전복도 들어가고.)

110004 @ 아, 생복도 올리곡?(아, 전복도 올리고?)

110004 # 젓상엔 오분작도 들곡. 꿩도 문딱 생 걸로. 도새기꿩도 생 거, 꿩 꿩도 생 거 문딱 생 거.(젓상엔 떡조개도 들고. 고기도 모두 생 걸로. 돼지고기도 생 거, 쇠고기도 생 거 모두 생 거.)

110004 @ 아, 생차로.(아, 생짜로.)

110004 # 도새기꿩 각 안 텅 전차. 우리 ㅁ을엔 전차. 두 개 잡앙 콘테나에 과작 세왕 각 안 블라.(돼지고기 다리 안 떠서 전체. 우리 마을엔 전체. 두 개 잡아서 콘테이너에 곧게 세워서 다리 안 발라.)

110004 @ 아.(아.)

110004 # 그자 잡앙 그자 창지 때곡 그추룩 행 해영케 그자 콘테나 과작 세왕 거 생차 안허민 안 돼.(그저 잡아서 그저 창자 떼고 그렇게 해서 하얗게 그저 콘테이너 곧게 세워서 그거 생짜 안하면 안 돼.)

110004 @ 아, 생채로 다 하는구나예.(아, 생짜로 다 하는군요.)

110004 # 계난 부정해도 못 허고, 막을에 영장 나도 못 헤여.(그러니까 부정해도 못 하고, 마을에 상 나도 못 해.)

110004 @ 응.(응.)

110004 # 포제.(포제.)

110004 @ 포제할 때 혹시 벌정헌 흑도 뿌립니까?(포제할 때 혹시 벌건 흙도 뿌립니까?)

110004 # 몰라, 우린. 흑은 안 뿌리주, 무신.(몰라, 우린. 흙은 안 뿌리고, 무슨.)

110004 @ 이딘 포제 말고 이디 바당제도 지넵니까?(여긴 포제 말고 여기 바다제도 지넵니까?)

110004 # 바당제 옛날엔 저 요왕굿 헤낫저만은 이젠 안허여.(바다제 옛날엔 저 용왕굿 했었지만 이젠 안 해.)

110005 @ 그다음엔 안택<sup>206</sup>?(그다음엔 안택?)

110005 # 안태? 안태가 무시거라?(안태? 안태가 뭐야?)

110005 @ 안택.(‘안택’.)

110005 # 안택이, 안택이.(‘안택’이, ‘안택’이.)

110005 @ 칠성허는 건가?(‘칠성’하는 건가?)

110005 # 칠성이민 안네허는 거 안택이엔 허는 걸 거여.(‘칠성’이면 ‘안네’하는 거 ‘안택’이라고 하는 걸 거야.)

110005 @ 정월에 안 험니까?(정월에 안 합니까?)

110005 # 정월에 안 헤여.(정월에 안 해.)

110006 @ 응, 그민 정월에 보리밭도 불르주예?(응, 그러면 정월에 보리밭도 밝지요?)

110006 # 보리밭 아니, 이월 나사.(보리밭 아니, 이월 나야.)

110006 @ 아, 건 정월이 아니고 이월 나사.(아, 그건 정월이 아니고 이월 나야.)

110006 # 정월에 아무것도 안 허여. 정월 혼 들은.(정월에 아무것도 안 해. 정월 한 달은.)

110007 @ 걸궁도 헤낫수과?(걸궁도 했었습니까?)

110007 # 옛날에 헤나실 거라. 이 동네 안 헤나도 저 웃삼달리렌 걸궁헤낫어.(옛날에 했었을 거야. 이 동네 안 했어도 저 윗삼달리라고 걸궁했었어.)

110007 @ 아, 걸궁은 무사 허는 거마씨?(아, 걸궁은 왜 하는 거예요?)

110007 # 거 지네 뭐 장난으로 허는 거주 무신. 무사허곡 허여?(그거 자기네 뭐 장난으로 하는 거지 무슨. 왜하고 해?)

110007 @ 하하하. 장난으로.(하하하. 장난으로.)

110007 # 장난으로 허는 거주.(장난으로 하는 거지.)

110007 @ 심심허난?(심심하니까?)

206) ‘안택’은 집안에 탈이 없도록 무당을 불러 집을 지켜 주는 신들을 위로하는 일이다.

110007 # 심심허난 허는 거주, 백여논 건 아니주게.(심심하니까 하는 거지, 박아 놓은 건 아니지.)

110008 @ 응. 혹시 입춘에는 뭐허는 거 이수과?(응. 혹시 입춘에는 뭐하는 거 있습니까?)

110008 # 새철, 입춘은 새철 아니가?('새철', 입춘은 '새철' 아니냐?)

110008 @ 입춘이 새철예. 새철예, 새철 드는 날은.(입춘이 '새철'요. '새철'에, '새철 드는 날'은.)

110008 # 새철 드는 날은 여청들은 늬이 집이 안 가.(새철 드는 날'은 여편네들은 남의 집에 안 가.)

110008 @ 아, 늬이 집이 안 가. 무사?(아, 남의 집에 안 가. 왜?)

110008 # 재수 엇어.(재수 없어.)

110008 @ 여청들 가민 재수 엇어?(여편네들 가면 재수 없어?)

110008 # 응, 여청덜 정월, 저 새철 낭 어디 가민 옥허여. 그 집이 곳인 일 나민 막 옥허여.(응, 여편네들 정월, 저 '새철' 나서 어디 가면 옥해. 그 집에 곳은 일 나면 막 옥해.)

110008 @ 응.(응.)

110008 # 안 텡겨.(안 다녀.)

110008 @ 아, 거니까 안 텡기는 거구나예.(아, 그러니까 안 다니는 거군요.)

110008 # 남저덜은 해도 여청덜은 안 텡겨. 경 강 그 집이 일이나 나민 막 옥허여. 곳인 일 나민.(남자들은 해도 여편네들은 안 다녀. 그렇게 가서 그 집에 일이나 나면 막 옥해서. 곳은 일 나면.)

110008 @ 당에 제지내는 것도 정월에 허는 거짜? 본향에.(당에 제지내는 것도 정월에 하는 겁니까? 본향에.)

110008 # 본향이주게, 그거게. 정월 우리 본향엔 삼달리 본향은 정월 초이튿날 허고.(본향이지, 그거. 정월 우리 본향엔 삼달리 본향은 정월 초이튿날 하고.)

110008 @ 그때 막 큰 곳허여?(그때 막 큰 곳해?)

110008 # 응, 곳헤영 정 두드리곡 헝 허여.(응, 곳해서 정 두드리고 해서 해.)

110008 @ 응.(응.)

110008 # 다시 또 이월 열사흘날도 허곡 칠월 열사흘날 허고 혼 해에 세 번.(다시 또 이월 열사흘날도 하고 칠월 열사흘날 하고 한 해에 세 번.)

110008 @ 혼 해에 세 번.(한 해에 세 번.)

110008 # 응, 계난 세 번 다 좇아가는 사름은 다 좇아가곡 혼 번 가오랑 마는 사름은 말곡 경헤여.(응, 그러니까 세 번 다 좇아가는 사름은 다 좇아가고 한 번 가고와서 마는 사름은 말고 그렇게 해.)

## 2월

110009 @ 그믐 이월 돼민 영등, 영등허는 건 어떻 허는 거짜?(그러면 이월 되

면 영등, 영등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0009 # 영등에도 그 본향에 가민 허곡 이 아래 오랑 저 시엔 영등곳이엔 현 거 삼월 낭 허지 안허여?(영등에도 그 본향에 가면 하고 이 아래 와서 저 시에 영등곳이라고 한 거 삼월 나서 하지 않아?)

110009 @ 예, 이딘 안 허여?(예, 여긴 안 해?)

110009 # 이딘 안 해.(여긴 안 해.)

110009 @ 이디 바당 이신디 안 험니까?(여기 바다 있는데 안 합니까?)

110009 # 안 허여, 안 허여. 이녁냥으로 지드림<sup>207)</sup>현 사름만 지드리주, 안 허여. 줌수덜은 강 지드리주.(안 해, 안 해. 자기대로 ‘지드림’한 사람만 ‘지드리지’, 안 해. 잠수들은 가서 ‘지드리주’.)

110009 @ 지대로 그냥?(자기대로 그냥?)

110009 # 응, 이녁냥으로 메 해영 강 종이 영 쌍 강은에 혹 데껴. 지드리주, 개인마다 허지 안허여. 줌수덜.(응, 자기대로 메 해서 가서 종이 이렇게 싸서 가서 혹 던져. ‘지드리지’, 개인마다 하지 않아. 잠수들.)

110009 @ 줌수덜.(잠수들.)

110009 # 경허곡 애기덜이나 어디 객지에 간 사름덜 허곡. 이녁대로.(그리고 아기들이나 어디 객지에 간 사람들 하고. 자기대로.)

110009 @ 영등 들민 무시거 허민 안 웬다 허는 거 잇주예?(영등 들면 무엇 하면 안된다 하는 거 있지요?)

110009 # 영등에, 영등.(영등에, 영등.)

110009 @ 빨래도 널지 말렌 허고.(빨래도 널지 말라고 하고.)

110009 # 아니, 빨래 널지 말렌은 안 허고 영등들엔 공 거난 이 어디 곳 7튼 거 영등에 아니고 영등엔 대강 흐질 안허주게.(아니, 빨래 널지 말라고는 안 하고 영등달엔 공 거니까 이 어디 곳 같은 거 영등에 아니고 영등엔 대강 하지를 않지.)

110009 @ 아.(아.)

110009 # 갹 영등할망 나감 전인 무시거 바당에도 영등 나가젠 허민 무시거헌 덴 허고 정월 열사흘날 허민 우리 마을은 허민 열사흘날, 열나흘날 허민 열엿새날은 비 흐 살을 해도 꼭 오라.(그래서 영등할망 나가기 전에 뭐 바다에도 영등 나가려고 하면 무엇한다고 하고 정월 열사흘날 하면 우리 마을은 하면 열사흘날, 열나흘날 하면 열엿새날은 비 한 줄기를 해도 꼭 와.)

110009 @ 앵, 비가 흐끔 와?(앵, 비가 조금 와?)

110009 # 응. 비가 그 영등 나가분 영등게 시섬젠 허멍 비오라.(응. 비가 그 ‘영등게’ 나가버린 영등 씻는다고 해서 비와.)

110009 @ 영등게 시섬젠.(‘영등게’ 씻는다고.)

110009 # 영등 나가불민 그 게엔 현 건 지 쥔 때 바당에 깨끗허게 나가부는 거,

---

207) ‘지드림’은 ‘지아림’이라고도 하며 영등곳에서 용왕이나 바다에서 죽은 영혼을 대접하기 위해 백지에 제물을 싸서 바다에 던지는 일이다.



그거, 부트나 무신거.(영등 나가버리면 그 게라고 한 건 자기 깔 때 바다에 깨끗하게 나가버리는 거, 그거, 불거나 무엇.)

110009 @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영등하르방?(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영등 하르방’?)

110009 # 영등 할망이엔도 하고 이제 영등 하르방이엔도 하고 혼이 없어.(‘영등 할망’이라고도 하고 이제 ‘영등 하르방’이라고도 하고 한이 없어.)

110009 @ 옛날은 뭐엔 골아놔수과?(옛날은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10009 # 옛날 영등 하르방이엔 해나신디.(옛날 ‘영등 하르방’이라고 했었는데.)

110009 @ 아, 옛날엔 영등 하르방이엔 해놔수과?(아, 옛날엔 ‘영등 하르방’이라고 했었습니까?)

110009 # 응, 영등 할망이엔도 하고 ‘영등 하르방’이엔도 하고 믱을마다 뜬나.(응, ‘영등 할망’이라고도 하고 ‘영등 하르방’이라곤 학 마을마다 달라.)

110009 @ 게난 이 마을, 삼달린?(그러니까 이 마을, 삼달리는?)

110009 # 삼달리도게 영등하르방이엔 하고 영등 할망이엔도 하고. 영등 하르방이주게.(삼달리도 ‘영등 하르방’이라고 하고 ‘영등 할망’이라고도 하고. ‘영등 하르방’이지.)

110009 @ 언제, 며칠날 들어오는 거파? 영등은.(언제, 며칠날 들어오는 겁니까? 영등은.)

110009 # 이월, 정월 보름 돼민.(이월, 정월 보름 되면.)

110009 @ 정월 보름 돼민.(정월 보름 되면.)

110009 # 들어오랑 이월 보름 돼민 나가주게.(들어와서 이월 보름 되면 나가지.)

110009 @ 아.(아.)

110009 # 혼 들.(한 달.)

110009 @ 혼 들. 게민 어디로 들어와근에 어디로 나가?(한 달. 그러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

110009 # 바당이서, 바당이서 게난 바당으로 옛날에 오란 그 영등이엔 혼 하르방이 들어오란 죽어부난 그걸 건지는 거주, 어디서 들어오는 게 싯과? 옛날 역스.(바다에서,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로 옛날에 와서 그 영등이라고 한 할아버지 들어와서 죽어버리니까 그걸 건지는 거지, 어디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옛날 역사.)

110009 @ 아니, 뭐 소섬으로 들어왕 어디로 나간텐.(아니, 뭐 우도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간다고.)

110009 # 소섬으로 나간텐 허주.(우도로 나간다고 하지.)

110009 @ 거난예.(그러니까요.)

110009 # 응, 어디로사 들어왓신디사 소섬으로 나간텐.(응, 어디로야 들어오는지야 우도로 나간다고.)

110009 @ 아, 소섬으로 나간텐 골아?(아, 우도로 나간다고 말해?)

110009 # 응, 거 옛날 역스주, 옛날에 해난.(응, 그거 옛날 역사지, 옛날에 했었

어.)

110009 @ 계난 그거.(그러니까 그거.)

110009 # 옛날에 거, 하르방이 행 들어오랑 우장 썩 오민 혼 들 내낭 비만 오고.(옛날에 것, 할아버지가 해서 들어와서 우장 썩서 오면 한 달 내내 비만 오고.)

110009 @ 예.(예.)

110009 # 따시 또 아무것도 안 행 영등 안 행 온 거 열게, 허파리 출령 오민 열고.(다시 또 아무것도 안 해서 영등 안 해서 온 거 춥게, ‘허파리’ 차려서 오면 춥고.)

110009 @ 아, 열게 출령 오민 열어?(아, 춥게 차려서 오면 추워?)

110009 # 열게 출령 오민 듯으고.(춥게 차려서 오면 따뜻하고.)

110009 @ 열게 출령.(춥게 차려서.)

110009 # 영등 열영 들어오민 옷을 하영 입영 올 거 아니라? 우리라도 어디 가민 옷 버칭 다 벗지 안허여.(영등 추워서 들어오면 옷을 많이 입어서 올 거 아니냐? 우리라도 어디 가면 옷 부쳐서 다 벗지 않아.)

110009 @ 예.(예.)

110009 # 경허난 그 녀시<sup>208</sup>로 하영 입영 오민 오랑 따시 듯으게 입영 오민 영등 하르방 듯으게. 이디가 따시 덤주게. 옷 거체 못허영 덤곡.(그러니까 그 ‘녀시’로 많이 입어서 오면 와서 다시 따뜻하게 입어서 오면 ‘영등 하르방’ 따뜻하게. 여기가 다시 덤지. 옷 주체 못해서 덤고.)

110009 @ 응.(응.)

110009 # 따시 우장 썩 비 온 때에 하르방이 들어오민 우장 버치렐 따시 또 비만 오곡. 경헌텐 허주게.(다시 우장 썩서 비 온 때에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우장 부치다고 다시 또 비만 오고. 그런다고 하지.)

110009 @ 응, 옷 하영 입영 오민.(응, 옷 많이 입어서 오면.)

110009 # 듯으고.(따뜻하고.)

110009 @ 듯으곡. 옷 족영 입영 오민.(따뜻하고. 옷 적게 입어서 오면.)

110009 # 열곡.(춥고.)

110009 @ 아.(아.)

110009 # 조끔허민 영등 할망 열게, 하르방 열게 출령 와신ㄱ라 열다 영. 엄만 허곡.(조금하면 ‘영등 할망’ 춥게, 할아버지 춥게 차려서 왔는지 춥다 이렇게. 춥기만 하고.)

110009 @ 아.(아.)

110009 # 경헌텐 허는 거주.(그런다고 하는 거지.)

110009 @ 하르방이 딱뚫헌 옷 입영 오민 날씨도, 옷을.(할아버지가 따뜻한 옷 입어서 오면 날씨도, 옷을.)

110009 # 따시 비 헤영 허민 듯을 때 비옷 썩 우장 썩 들어오민 따시 우장 버

208) ‘녀시’는 ‘-은/는’과 같은 조사의 뒤에 쓰여서 ‘모양, 것, 격’의 뜻을 나타낸다.

치랭 저 비 아니오랑 벧만 나곡.(다시 비 해서 하면 따뜻할 때 비옷 입어서 우장 써서 들어오면 다시 우장 부치라고 저 비 안 와서 별만 나고.)

110009 @ 예?(예?)

110009 # 우장 하르방이 영등 하르방이 우장 썩 들어오민 그 우장 옷 우비 버치덴 비만, 비 안 오랑은에 더웁만 허고 따시 경헌덴 허주. 그 우비 버청, 우비 버치덴 날 더웁 비만 오곡.(우장 할아버지 ‘영등 할아버지’가 우장 써서 들어오면 그 우장 옷 우비 부치다고 비만, 비 안 와서는 덤기만 하고 다시 그런다고 하지. 그 우비 부쳐서, 우비 부치다고 날 더워서 비만 오고.)

110009 @ 계난 하르방이 우장 썩 오민 비가 읍니까, 안 읍니까?(그러니까 할아버지 우장 써서 오면 비가 읍니까, 안 읍니까?)

110009 # 아니 오랑. 거 버청.(아니 와서, 그거 부쳐서.)

110009 @ 아, 우장 썩 오민 비가 안 오고.(아, 우장 써서 오면 비가 안 오고.)

110009 # 다시 또 썩 오민 비가 안 오고, 안 썩 오민 비만 오라.(다시 또 써서 오면 비가 안 오고, 안 써서 오면 비만 와.)

110009 @ 우장 안 썩 오민 비 오고?(우장 안 써서 오면 비 오고?)

110009 # 응.(응.)

110009 @ 안 쓰면 비 오고.(안 쓰면 비 오고.)

110009 # 우비 버치덴.(우비 부치다고.)

110009 @ 우비 버치덴.(우비 부치다고.)

110009 # 응, 거체 못허렌 들렁 덩기젠 허민 경허민 정 비만 허곡. 비 오민, 비 안 오랑 허민 벧만 나민 그거 게 아정 덩기젠 허민 버치지 안허여?(응, 주체 못하라고 들어서 다니려고 하면 그러면 저렇게 비만 하고. 비 오면, 비 안 와서 하면 별만 나면 그거 게 가지고 다니려고 하면 부치지 않아?)

110009 @ 예.(예.)

110009 # 따시 더우민 옷도 더워불민 벧젠 허민 아정 덩기젠 허민 골치 아니라? 경허는 녀시라.(다시 더우면 옷도 더워버리면 벗으려고 하면 가지고 다니려고 하면 골치 아니냐? 그러는 ‘녀시’야.)

110009 @ 응. 아 할머니 자꾸 왔다갔다, 다시 한 번만예. 하르방, 영등 하르방이 우장 썩 왔저 허민 비가 와, 안 와?(응. 아, 할머니 자꾸 왔다갔다, 다시 한 번만요. 할아버지, ‘영등 하르방’이 우장 써서 왔다 하면 비가 와, 안 와?)

110009 # 아니 오라.(안 와.)

110009 @ 아니 와, 응. 그다음에 영등 하르방이 열게 출렁 왔어.(안 와, 응. 그다음에 ‘영등 하르방’이 춥게 차려서 왔어.)

110009 # 열게 출렁오민.(춥게 차려서 오면.)

110009 @ 날씨가 어떻?(날씨가 어떻게?)

110009 # 다시 또 열게 출렁 오민 열곡.(다시 또 춥게 차려서 오면 춥고.)

110009 @ 날씨가 춥곡, 춥고.(날씨가 춥고, 춥고.)

110009 # 듯으게 출렁오민 따시 또 얼곡. 바빠져.(따뜻하게 차려서 오면 다시 또 춥고, 바뀌어.)

110009 @ 할머니 똑ㄱ치 굴아신디, 다시.(할머니 똑같이 말했는데, 다시.)

110009 # 게난 얼게 출렁 오민 따시 또게 얼게 출렁 오민 따시 우비 버치랑 벅냥 듯으고.(그러니까 춥게 차려서 오면 다시 또 춥게 차려서 오면 우비 부쳐서 별나서 따뜻하고.)

110009 @ 아, 옷을 흐뎡만 입영 오민.(아, 옷을 조금만 입어서 오면.)

110009 # 얼곡, 얼어.(춥고, 추워.)

110009 @ 꺼꾸로 다시. 옷을 흐나만 입영 왔어, 거른 얼어?(거꾸로 다시. 옷을 하나만 입고 왔어. 그러면 추워?)

110009 # 응.(응.)

110009 @ 거른 얼어?(그러면 추워?)

110009 # 얼어.(추워.)

110009 @ 얼어. 옷을 다섯 개 입영 왔어.(추워. 옷을 다섯 개 입고 왔어.)

110009 # 경허든 듯앙 더워.(그러면 더워서 더워.)

110009 @ 그든 더워.(그러면 더워.)

110009 # 응.(응.)

110009 @ 우장 썩, 우장 쓴 영등 하르방 오민?(우장 써서, 우장 쓴 ‘영등 하르방’ 오면?)

110009 # 우장 썩 오민 따시 날 좋곡.(우장 써서 오면 다시 날 좋고.)

110009 @ 날 좋고. 어떻 허민 비 와?(날 좋고. 어떻게 하면 비 와?)

110009 # 우비 안 아정 오민 비만 오곡.(우비 안 가져 오면 비만 오고.)

110009 @ 우비 안 가정 왓저 영 허민.(우비 안 가져 왔다 이렇게 하면.)

110009 # 비만 오고.(비만 오고.)

110009 @ 비 오고.(비 오고.)

110009 # 반대로, 반대로 다.(반대로, 반대로.)

110009 @ 아, 반대로, 반대로?(아, 반대로, 반대로?)

110009 # 응, 반대로.(응, 반대로.)

### 3월

110011 @ 게민 이제 삼월 뻬어예, 삼월. 삼월 뻬민 뉬 허는 거 잇수과? 음력 삼월.(그러면 이제 삼월 뻬어요, 삼월. 삼월 뻬면 뉬 하는 거 있습니까? 음력 삼월.)

110011 # 삼월 뻬민 옛날에 삼월에 저 무시거 헤낫주게. 청명에 한식 헤낫주. 옛날에.(삼월 뻬면 옛날에 삼월에 저 무엇 했었지. 청명에 한식 했었지.)

110011 @ 옛날에 한식 헤낫어예?(옛날에 한식 했었어요?)

110011 # 응.(응.)

110011 @ 한식은 어떻 허는 거파?(한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0011 # 한식도 그거 매일만 혼 가지주게.(한식도 그거 매일만 한 가지지.)

110011 @ 아, 멩질허듯이 그냥?(아, 명절하듯이 그냥?)

110011 # 응, 매일 혼 가지.(응, 매일 한 가지.)

110011 @ 똑ㄴ치.(똑같이.)

110011 # 제지내는 건 다 ㄴ뜨주게.(제지내는 건 다 같지.)

110011 @ 한식 멩질 해난 거주예?(한식 명절 했던 거지요?)

110011 # 응, 멩질. 한식.(응, 명절. 한식.)

110011 @ 한식 멩질예. 한식 멩질은 멩월에 허는 메칠날 허는 거파?(한식 명절 요. 한식 명절은 멩월에 하는 며칠날 하는 겁니까?)

110011 # 한식은 췡멩예.(한식은 청명예.)

110012@ 청멩예. 췡멩이 메칠?(청명예. 청명에 며칠?)

110012 # 췡멩 뒷날, 아싯날 췡멩 뒷날 한식 초닷새날일 거라. 오월 멩질이 초닷새고 한식은 보름인가. 거 췡멩 뜨랑 허여.(청명 뒷날, 전날 청명 뒷날 한식 초닷새날일 거야. 오월 명절이 초닷새고 한식은 보름인가? 그거 청명 따라서 해.)

110012 @ 응.(응.)

110012 # 딱 백여놓지 안허고 췡멩에만 췡멩에만 한식을 허주게. 옛날은 오월 단오도 해낫주기.(딱 박아놓지 않고 청명에만 청명에만 한식을 하지. 옛날은 오월 단오도 했었지.)

110012 @ 흐쵸만 이십서예. 췡멩 해나걸랑예, 오월 가민 다시 또예. 게민 이때 뭐 무신 뵈도 허여?(조금만 계세요. 청명 하고 나면요, 오월 가면 다시 또요. 그러면 이때 뭐 무슨 뵈도 해?)

110012 # 췡멩 돼민 췡멩에 하간 거 허영 산에도 강 텅기고.(청명 되면 청명에 온갖 거 해서 산소에도 가서 다니고.)

110012 @ 산에 강 뵈허여?(산소에 가서 뵈해?)

110012 # 아니 산에 가민 풀도 캐불곡 헐 거 허주게. 따시 또 산에 무신거 저 곳인 거 허젠 허민 췡멩 돼민 산에 테 안 입은 거 췡멩날은 테도 입지곡게.(아니 산소에 가면 풀도 캐버리고 할 거지. 다시 또 산소에 무엇 저 곳은 거 하려고 하면 청명 되면 산소에 잔디 안 입은 거 청명날은 잔디도 입히고.)

110012 @ 응.(응.)

110012 # 옛날은 양웻 지슬 다 행 올리민 췡멩예, 췡멩 아닌 날, 날 아니 보민 무시거허난 췡멩엔 따시 그것도 허고 이 조왕에도 무시거허젠 허민 췡멩예 허고.(옛날은 양하 처마 밑에 다 해서 올리면 청명예, 청명 아닌 날, 날 안 보면 뵈하니까 청명엔 다시 그것도 하고 이 조왕에도 무엇하려고 하면 청명예 하고.)

110012 @ 응. 아 췡멩예 허고. 이젠 막 봄 벌초도 허는디.(응. 아, 청명예 하고 이젠 막 봄 벌초도 하는데.)

110012 # 봄벌초 그건 오월 단오 돼민.(봄벌초 그건 오월 단오 되면.)

110012 @ 아, 건 오월 단오 돼민? 이 청명예 허는 게 아니고?(아, 그건 오월 단

오 되면? 이 청명에 하는 게 아니고?)

110012 # 아니, 건 오월 낭 단오 돼사.(아니, 그건 오월 나서 단오 돼야.)

110012 @ 아. 한식 멧질은 게민 언제까지 해낫수과? 언제 설러불언?(아. 한식 멧질은 그러면 언제까지 했었습니까? 언제 그만뒀버렸어?)

110012 # 한식 멧질 해나곤 디 혼 삼십 년도 넘어실 거여. 오랫동안.(한식 멧질 했었던 지 한 삼십 년도 넘었을 거야. 오래 되었지.)

110012 @ 오래웬예?(오래 왔어요?)

110012 # 응, 오월 멧질 해나곤 디, 혼곤 딴 혼 이십 년 돼나고.(응, 오월 멧질 한 지, 한 지 한 이십 년 됐었고.)

#### 4월

110013 @ 게민 이제 사월달 돼서예. 사월달 돼민 사월 초파일날.(그러면 이제 사월달 됐어요. 사월달 되면 사월 초파일날.)

110013 # 응. 스월 초파일날은.(응. 사월 초파일날.)

110013 @ 절에 가는 거예.(절에 가는 거요.)

110013 # 절간에 간 사름덜, 아무것도 안 해.(절에 간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

110013 @ 절간에만 가고 아무것도 안 해?(절에만 가고 아무것도 안 해.)

110013 # 응. 건 절기가 아니주.(응. 그건 절기가 아니지.)

110013 @ 절기가 아니. 이때 스월에 허는 건 엇고?(절기가 아니. 이때 사월에 하는 건 엇고?)

110013 # 응, 스월에 허는 건.(응, 사월에 하는 건.)

110013 @ 언제 게민 씨 뿌리고 됩니까?(언제 그러면 씨 뿌리고 됩니까?)

110013 # 오월 나사.(오월 나야.)

110013 @ 오월 나사, 아.(오월 나야, 아.)

110013 # 스월 초파일 넘어근에 허민 꿔덜은 갈아.(사월 초파일 넘어서 하면 깨들은 갈아.)

110013 @ 아, 꿔는 이때 갈아. 사월에.(아, 깨는 이때 갈아. 사월에.)

110013 # 스월 안직은 멀지 안헛어. 스월 초파일은 돼민, 초파일 넘으면 꿔덜은 갈아.(사월 아직은 멀지 않앗어. 사월 초파일은 되면, 초파일 넘으면 깨들은 갈아.)

110013 @ 초파일 넘으면 꿔덜은 갈아.(초파일 넘으면 깨들은 갈아.)

110013 # 응.(응.)

110013 @ 삼월엔 뭐 씨 빼고 허는 거 엇어?(삼월엔 뭐 씨 뿌리고 하는 건 없어?)

110013 # 엇어.(없어.)

110013 @ 응.(응.)

110013 # 이월엔 감저 놓는 사름덜 감저꿀 놓고.(이월엔 감자 놓는 사람들 고구마 덩굴 놓고.)

110013 @ 아, 감저 놓고. 감저꿀?(아, 고구마 놓고. 고구마 덩굴?)

110013 # 응, 감저 모종, 그 감저 땅에 꺾양 모종 놓는 거.(응, 고구마 모종, 그 고구마 땅에 꺾아서 모종 놓는 거.)

110013 @ 예.(예.)

110013 # 이월엔 그거.(이월엔 그거.)

## 5월

110015 @ 게민 오월 이제 단오예, 오월 단오 돼민.(그러면 오월 이제 단오요. 오월 단오 되면.)

110015 # 오월 단오 돼민 산에 강 저 산에 벌초들이나 허곡 따시 공일날 뽕 허는 때문에 옛날은 똑 단오날 헛주만은 이제 경 못 해여.(오월 단오 되면 산소에 가서 저 산에 벌초들이나 하고 다시 공일날 보서 하는 때문에 옛날은 꼭 단오날 헛지만 이제 그렇게 못 해.)

110015 @ 옛날 단오 멧질도 해낫잖아예?(옛날 단오 멧질도 했었잖아요?)

110015 # 응, 단오 멧질도 해낫주. 게난 똑 단오에 못허민 따시 또 공휴일날이나 허젠 허민 단오 전이도 허곡 단오 넘영도 허곡. 단오 전이덜 다 허여, 봄벌초는.(응, 단오 멧질도 했었지. 그러니까 꼭 단오에 못하면 다시 또 공휴일에나 하려고 하면 단오 전에도 하고 단오 넘어서도 하고, 단오 전에들 다 해, 봄벌초는.)

110016 @ 오월, 음력 오월에 뭐 허는 거 엇수과? 하지, 뭐 망종 영허는.(오월, 음력 오월에 뭐 하는 거 없습니까? 하지, 뭐 망종 이렇게 하는.)

110016 # 엇어, 오월엔 엇어.(없어, 오월엔 없어.)

110016 @ 오월엔 엇어.(오월엔 없어.)

110016 # 오월, 스월 구물어 가민 오월에 다 망종 잇주, 망종.(오월, 사월 저물 어가면 오월에 다 망종 있지, 망종.)

110016 @ 이때 뭐 씨 빼는 거라?(이때 뭐 씨 뿌리는 거야?)

110016 # 망종 돼민 보리 비주게.(망종 되면 보리 베지.)

110016 @ 아, 이뻐 보리 비어.(아, 이뻐 보리 베어.)

110016 # 응, 망종 돼민 보리 비곡 망종 넘어나민 산뒤도 갈곡.(응, 망종 되면 보리 베고 망종 넘으면 밭벼도 갈고.)

110016 @ 망종 넘어나민 산뒤도 갈곡, 응.(망종 넘으면 밭벼도 갈고, 응.)

## 6월

110019 @ 유월 돼민?(유월 되면?)

110019 # 유월 나민 따시 오월 낭 계속행 허민 망종 넘영 오월 나민 무신 절기가 잇주게. 유월절 든 땐, 윤달 들어분 땐 오월 전이도 다 절기 들어. 양력으로 허는 때문에.(유월 나면 다시 오월 나서 계속해서 하면 망종 넘어서 오월 나면 무슨 절기가 있지. 유월절 든 때는, 윤달 들어버린 때 오월 전에도 다 절기 들어. 양력으

로 하는 때문에.)

110019 @ 유월절은 메칠이파?(유월절은 며칠입니까?)

110019 # 응?(응?)

110019 @ 유월절 허민 메칠?(유월절 하면 며칠?)

110019 # 유월절도 거 들엉 나 허주, 혼 들 백여놓진 안허여. 앞이 들 때도 싯곡, 윤달 들어부난 그거 시늉을 못허여. 앞이도 들곡 조름에도 들곡. 윤달 들어 불민. 이 절기 양력으로 세어부난.(유월절도 그거 들어서 나 하지, 한 달 박아놓진 았아. 앞에 들 때도 있고, 윤달 들어버리니까 그거 시늉을 못 해. 앞에도 들고 뒤에도 들고. 윤달 들어 버리면. 이 절기 양력을 세어버리니까.)

110019 @ 응.(응.)

110019 # 그 절기도 몬 양력으로 가부난 몰라.(그 절기도 모두 양력을 가버리니까 몰라.)

110019 @ 옛날에 옛날 음력으로 할 때는?(옛날에 옛날 음력으로 할 때는?)

110019 # 유월절게, 절기 허민 유월 절기에, 유월 나민, 어디 절기가 똑 백여논 거 아니난게.(유월절, 절기 하면 유월 절기에, 유월 나면, 어디 절기가 꼭 박아놓은 게 아니니까.)

110019 @ 아.(아.)

110019 # 거 무신 들에 딱랑 안행 메틀날 똑 백여논 거 아니라.(그거 무슨 달에 따라서 안하고 며칠날 꼭 박아놓은 건 아니야.)

110019 @ 응. 유월절에는 유월절 들민 무시거 안헌다, 영허는.(응. 유월절에는 유월절 들면 뭐 안 한다, 이렇게 하는.)

110019 # 유월절 들 전이 무시거 망종 념영 따시 또 저 무시거 망종 념영 무신 절기 또 하나 실 거라.(유월절 들기 전에 무엇 망종 넘어서 다시 또 저 무엇 망종 넘어서 무슨 절기 또 하나 있을 거야.)

110019 @ 하지?(하지?)

110019 # 하지. 하지 뉘가민 웃드르 옛날은 웃드르 조팻, 굿은 밧디 조, 조 불리고.(하지. 하지 되어가면 중산간 옛날은 중산간 조밭, 굿은 밧에 조, 조 재배하고.)

110019 @ 아, 조 불리고.(아, 조 재배하고.)

110019 # 산뒤도 같고 혼 해 가곡 다시 또 유월절 전이 감저도 다 밧디 낫당 감저도 그차당 다 놓고.(밭벼도 같고 한 해 가고 다시 또 유월절 전에 고구마도 다 밧에 왔다가 감자도 잘라다가 다 놓고.)

110019 @ 응, 감저 밧디 강.(응, 고구마 밧에 가서.)

110019 # 응, 유월절 전이 감저 그 미시거 넘으민 다 놓주, 하지 넘으민.(응, 유월절 전에 고구마 그 무엇 넘으면 다 놓지, 하지 넘으면.)

110017 @ 응, 게민 유월들에 옛날에 득 잡아먹는 날도 해났수과?(응, 그러면 유월달에 옛날에 닭 잡아먹는 날도 했었습니까?)

110017 # 거, 유월 스무날.(그거, 유월 스무날.)



110017 @ 유월 스무날 그건 어땠던 거파?(유월 스무날 그건 어떤 겁니까?)

110017 # 것도 유월 스무날 득 잡아먹구정 허민 잡아먹고 실프민 마는 거.(그것도 유월 스무날 닭 잡아 먹고 싶으면 잡아먹고 하기 싫으면 마는 거.)

110017 @ 하하하.(하하하.)

110017 # 이녀 허구정헌 대로 허여, 요새 백여논 건 아니라.(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요새 박아놓은 건 아니야.)

110017 @ 무사 닭 잡아먹는 거파?(왜 닭 잡아먹는 겁니까?)

110017 # 거 몰라. 유월 스무날 득 잡아먹는 날.(그거 몰라.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는 날.)

110017 @ 게난 유월 스무날 득 잡아먹는 날이엔.(그러니까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는 날이라고.)

110017 # 요새 초복도 득 먹는 사름 잇고 말복에도 먹는 사름, 절기마다 먹으난 거 미신 혼 신 거라?(요새 초복도 닭 먹는 사람 잇고 말복에도 먹는 사람, 절기마다 먹으니까 그거 무슨 한 있는 거야?)

110017 @ 게, 옛날에는?(그러게, 옛날에는?)

110017 # 옛날은, 이제 굴아낫주, 유월 스무날 득 잡앙, 똑 해낫이 득 잡앙 해 받으멍 먹으렌 옛날에 굴아낫주.(옛날은, 이제 말했었지, 유월 스무날 닭 잡아서, 꼭 대낫에 닭 잡아서 해 받으면서 먹으라고 옛날에 말했었지.)

110017 @ 해 받으멍 먹으렌?(해 받으면서 먹으라고?)

110017 # 응, 해낫이 해 받으멍.(응, 대낫에 해 받으면서.)

110017 @ 아, 경혜야 뭐.(아, 그렇게 해야 뭐.)

110017 # 경혜사 아메도 방서가 신ㄴ라 옛날에 경 굴아낫저만은 이젠 그거 아니주게.(그래야 아무래도 방사가 있는지 옛날에 그렇게 말했었지만 이젠 그거 아니지.)

110017 @ 응.(응.)

110017 # 어느 한글허게 유월 경 해낫이, 이제 사름덜 먹젠 허문 먹주게.(어느 한가하게 유월 그렇게 대낫에, 이제 사람들 먹으려고 하면 먹지.)

110017 @ 예, 이젠 뭐 식당에 강 먹으민 돼는디 뭐.(예, 이젠 무 식당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뭐.)

110017 # 겐디 이제 사름덜 경 아무 때라도 무신. 건 백여논 거 아니.(그런데 이제 사람들 그렇게 아무 때라도 무슨. 그건 박아놓은 건 아니.)

110017 @ 백여논 건 아니.(박아놓은 건 아니.)

110017 # 백여논 거 아니.(박아놓은 건 아니.)

110019 @ 응, 유월에 게민 소서, 대서 이런 건.(응, 유월에 그러면 소서, 대서 이런 건.)

110019 # 소설, 대설은 저 ㄴ슬 들엉 허주, 거시기 유월엔 엇일 거라.(소설, 대설은 저 가을 들어서 하지, 거시기 유월엔 없을 거야.)

110019 @ 아니 소서, 대서.(아니 소서, 대서.)  
 110019 # 그거 유월에 저 유월절, 다시 또 초복.(그거 유월에 저 유월절, 다시 또 초복.)  
 110018 @ 예, 초복.(예, 초복.)  
 110018 # 중복.(중복.)  
 110018 @ 예.(예.)  
 110018 # 중복 넘어상 허민 다시 또 말복 그거주게.(중복 넘어서서 하면 다시 또 말복 그거지.)  
 110018 @ 이때 뭐 복날 무신거 허는 건 엇수과?(이때 뭐 복날 무엇 하는 건 없습니까?)  
 110018 # 엇어, 복날 무신거 허는 건 엇어. 유월 나민, 유월 나민 반 해 넘지 안 해서? 케난 아무것도 엇주게. 경허민 다시 또 칠월 나민 칠월 절기. 팔월절, 구월절.(엇어, 복날 무엇 하는 건 업성. 유월 나면, 유월 나면 반 해 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다시 또 칠월 나면 칠월 절기, 팔월절, 구월절.)

## 7월

110020 @ 칠월달에 할머니, 칠석날.(칠월에 할머니, 칠석날.)  
 110020 # 칠석날게, 절기.(칠석날, 절기.)  
 110020 @ 칠석날은 무신거?(칠석날은 무엇?)  
 110020 # 칠석날은 거시기 본향에도 가고 다시 옛날에 칠석 돼가민 칠월 칠석, 칠월 보름 돼가민 백중도 허곡.(칠석날은 거시기 본향에도 가고 다시 옛날에 칠석 되어가면 칠월 칠석, 칠월 보름 되어가면 백중도 하고.)  
 110020 @ 하나씩. 칠석날은 어디 절에 간다고, 본향에 간다고?(하나씩. 칠석날은 어디 절에 간다고, 본향에 간다고?)  
 110020 # 아니, 칠월 열사흘날 가민 칠월 보름날은 절간에 오는 날이주.(아니, 칠월 열사흘날 가면 칠월 보름날은 절에 오는 날이지.)  
 110020 @ 아니, 칠월 칠석.(아니, 칠월 칠석.)  
 110020 # 칠석에도 가주게.(칠석에도 가지.)  
 110020 @ 칠석에도 절간에 가?(칠석에도 절에 가?)  
 110020 # 칠월 초일렛날 절간에 땡기주게.(칠월 초이렛날 절에 다니지.)  
 110020 @ 아, 초일렛날예.(아, 초이렛날요.)  
 110020 # 응.(응.)  
 110020 @ 초일렛날 절간에 가는 거베끼 엇수과?(초이렛날 절에 가는 거밖에 없습니까?)  
 110020 # 응, 칠석, 칠석은 백여논 거 아니라. 칠월 칠석 절간에, 칠일날 절간에 가는 거주.(응, 칠석, 칠석은 박아놓은 거 아니야. 칠월 칠석 절에, 칠일 절에 가는 거지.)

110021 @ 응, 그 큰 백중날은?(응, 그러면 백중날은?)

110021 # 칠월 열나흘날.(칠월 열나흘날.)

110021 @ 그땐 무신거릅니까?(그땐 무엇합니까?)

110021 # 거 산에 쉼 질루는 사름덜 제지내래.(그거 산에 소 기르는 사람들 제지내러.)

110021 @ 아, 건 어떻 지내는 거파?(아, 그건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110021 # 어떻 지내, 그디 강 떡해 농곡, 메해 농곡, 꿩기도 허고, 소주 받아 농곡 행 가근에 저 드르에 므쉬허는 드르에, 벵디에, 곧 디 가근에 제, 저 므쉬도 들 양 강 제지내는 거주. 산신제 지내어.(어떻게 지내, 거기 가서 떡해 놓고, 메해 놓고, 고기도 하고, 소주 받아 놓고 해서 가서 저 들에 마소하는 들에, 벌판에, 고운 데 가서 제, 저 마소도 데리고 가서 제지내는 거지. 산신제 지내.)

110021 @ 산신제? 이때는 저 뭐 놀차로 가져가는 건 아니?(산신제? 이때는 저 무 날 것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

110021 # 그딘 놀차 아니.(거긴 날 것으로 아니.)

110021 @ 놀차 안 가정가. 이진 마을 사름.(날 것으로 안 가져가. 이진 마을 사름.)

110021 # 아, 그딘 저 꿩도 ㄴ든 건 생꿩기 아정 가.(아, 거긴 저 고기 같은 건 생고기 가져 가.)

110021 @ 아, 무신 생꿩기?(아, 무슨 생고기?)

110021 # 갯꿩기 제숙 허나 아정가주게.(바닷고기 제육 하나 가져가지.)

110021 @ 아, 제숙은 생 걸로.(아, 제육은 날 걸로.)

110021 # 응. 계난 이젠 다 구워 강 그디 강 그자 제지내민 그디서 밥도 먹곡 떡도 먹고 해. 거 다 허지 안허여, 아무나. 질루는, 쉼 질루는 사름덜베끼 안 허여. (응. 그러니까 이젠 다 구워서 가서 거기 가서 그제 제지내면 거기서 밥도 먹고 떡도 먹고 해. 그거 다 하지 않아, 아무나. 기르는, 소 기르는 사람들밖에 안 해.)

110021 @ 아, 쉼 질루는 사름덜베끼. 할머니네 쉼 질러놔수게?(아, 소 기르는 사람들밖에. 할머니네 소 길렀었잖습니까?)

110021 # 그 옛날에 해놔주. 이젠 안 허여.(그 옛날에 했었지. 이젠 안 해.)

110021 @ 거난 옛날에.(그러니까 옛날에.)

110021 # 쉼 안 질루는 걸 허여? 옛날엔 우리도 해놔어.(소 안 기르는 걸 해? 옛날엔 우리도 했었어.)

110021 @ 백중제 지내래 어디 산에 가근에 허여?(백중제 지내러 어디 산에 가서 해?)

110021 # 므쉬덜 여라 사름이 해영 질황 혼 댓이나 여남은이나 동원허영 가민 여남은이 다 혼디 가주게.(마소들 여러 사름이 해서 길러서 한 댓이나 여남은 이나 동원해서 가면 여남은 이 다 함께 가지.)

110021 @ 아.(아.)

110021 # 흐디 강 허민 떡도 하영 해영 가민 흐나씩 흐나씩 해영 그디 간 사름 주당 보민 하영 행 감을 남으민 남은 대로 주곡 엇인 사름 부작허민 번주룽헌 빈 차 해 아정오고. 이녁 말은 것만.(함께 가서 하면 떡도 많이 해서 가면 하나씩 하나씩 해서 거기 간 사람 주다 보면 많이 해서 가도 남으면 남는 대로 주고 없는 사람 부족하면 ‘번주룽헌’ 빈 채 해 가져오고. 자기 말은 것만.)

110021 @ 그믐 이녁이 말은 거 저, 난 떡허고, 넌 제숙허고 영행 가는 거파? 아니민 나가 다 흠치 출령 다 뜨나게.(그러면 자기 말은 거 저, 난 떡하고, 넌 제육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다 한꺼번에 차려서 다 다르게.)

110021 # 이녁만씩, 이녁만씩.(자기만큼씩, 자기만큼씩.)

110021 @ 이녁만씩 다 출령 가는 거?(자기만큼씩 다 차려서 가는 거?)

110021 # 응, 이녁만씩.(응, 자기만큼씩.)

110021 @ ㄴ치 감뿐?(같이 가는 것뿐.)

110021 # 응, 흐디 그거 아정 다 흐디 가주게. 흐디 강 흐디 다 벌여놔 제지내어.(응, 함께 그거 가져서 다 함께 가주. 함께 가서 함께 다 벌여놔서 제지내.)

110021 @ 건디 우리 건 우리대로 따로 영 제 벌여?(그런데 우리 것은 우리대로 따로 이렇게 제 벌여?)

110021 # 응, 이녁대로, 이녁대로 제지내.(응, 자기대로, 자기대로 제지내.)

110021 @ 아, 이녁대로.(아, 자기대로.)

110021 # 응, 이녁대로. 아정 강 영 정중허게 낫당 이녁대로 다 케우려.(응, 자기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낫다가 자기대로 다 고수레해.)

110021 @ 케우려. 밤이 가? 아니민?(고수레해. 밤에 가? 아니면?)

110021 # 밤이.(밤에.)

110021 @ 뗏 시?(뗏 시?)

110021 # 흐 으답 시만 돼민 허주게.(한 여덟 시만 되면 하지.)

110021 @ 아, 요답 시만 돼민 강 제지내는 거파?(아, 여덟 시만 되면 가서 제지내는 겁니까?)

110021 # 어르스름에 갓다근에 흐 으답 시 돼 가민 허곡 다시 또 비 오람직해 가민 따시 일곱 시에도 허곡.(어스름에 갔다가 한 여덟 시 되어 가면 하고 다시 또 비 올 것 같으면 다시 일곱 시에도 하고.)

110021 @ 밤이 강예?(밤에 가서요?)

110021 # 응, 밤이. 어두움에 강.(응, 밤에. 어두울 때 가서.)

110021 @ 어두워 가민.(어두워 가면.)

110021 # 어두워 가민 해여.(어두워 가면 해.)

110021 @ 백중젠 무사 지내는 거파?(백중제 왜 지내는 겁니까?)

110021 # 거 ㅁ쉬 허민게, ㅁ쉬 드르에 가민, 그 ㅁ쉬덜 어디 강 곡석, 늬의 곡석밭디도 들어 불곡 혈어정 돌아도 나불곡 해가난 제지내는 거. 옛날에 ㅁ쉬 질루는 사름덜은.(그거 말 하면, 말 들에 가면, 그 마소들 어디 가서 곡식, 남의 곡식밭

에도 들어가 버리고 무너져서 달아나 버리고 해가니까 제지내는 거. 옛날에 마소 기르는 사람들은.)

110021 @ 므쉬 질루는 사름덜은.(마소 기르는 사람들은.)

110021 # 옛날은 므쉬 산에 올령 좇지 못헿, 쉼라도 올령 좇지 못허민 그거 집에서 헿 메허곡 다시 또 제숙헿 옷곡 헿 가근에 케우리민 것이 쉼덜 좇아져. 그잔 못허곡.(옛날은 마소 산에 올려서 좇지 못해서, 소라도 올려서 좇지 못하면 그거 집에서 해서 메하고 다시 또 제숙해서 가지고 해서 가서 고수레하면 그것이 소들 찾을 수 있어. 그저는 못하고.)

110021 @ 하하하.(하하하.)

110021 # 그자 암만 텡겨봐도 못헤영 허당 버치민 그거 헿 가민 좇아.(그저 아무리 다녀봐도 못 해서 하다가 부치면 그거 해서 가면 좇아.)

110021 @ 아. 혹시 마불림제<sup>209</sup>는 무신거마썬?(아. 혹시 ‘마불림제’는 뭐예요?)

110021 # 마불림? 마폴림.(‘마불림’? ‘마폴림’.)

110021 @ 응.(응.)

110021 # 마폴림은게 저 거시기 칠월 보름에 열사흘에 저 절간에 가는, 절간이 아니라 저 본향에 가는 거 마폴림. 거 마폴림이엔 허난 칠월에 나민 그 이녁 개인도 그디 마 췌우지 안허여? 문 열앙 하간 거 췌우지 안허여?(‘마폴림’은 저 거시기 칠월 보름에 열사흘에 저 절에 가는, 절이 아니라 저 본향에 가는 거 ‘마폴림’. 그거 ‘마폴림’이라고 하니까 칠월이 나면 그 자기 개인도 거기 마 쏘이지 않아? 문 열어서 온갖 거 쏘이지 않아?)

110021 @ 예, 예.(예, 예.)

110021 # 그거가 마폴림. 칠월 열사흘날.(그것이 ‘마폴림’. 칠월 열사흘날.)

110021 @ 아, 칠월 열사흘날.(아, 칠월 열사흘날.)

110021 # 응, 본향에 가는 날이라.(응, 본향에 가는 날이야.)

110021 @ 본향에 강은에 거기서.(본향에 가서 거기서.)

110021 # 응, 경헿 본향에 문 열앙게 그디 강 제지내곡 굿허곡게 경허는 날이 주, 마폴림은.(응, 그래서 본향에 문 열어서 거기 가서 제지내고 굿하고 그렇게 하는 날이지, ‘마폴림’은.)

110021 @ 응.(응.)

110021 # 거 므을마다 안 헸실 거여.(그거 마을마다 안 하고 있을 거야.)

110021 @ 아, 므을마다 허는 건 아니고.(아, 마을마다 하는 건 아니고.)

110021 # 응, 몰라. 우리 저 본향엔 칠월 열사흘날 허는디. 겐디 이 집 짓어와근에 본향허는디 이 제, 저 우리 삼달리베끼 엇어. 다른 디 보민 다 어디 훑은 남에덜 강 제지내는 거 보민 굿허는 거 보민 지랑지랑 돌아매근에.(응, 몰라. 우리 저 본향엔 칠월 열사흘날 하는데. 그런데 이 집 지어와서 본향하는데 이 제, 저 우리 삼달

209) ‘마불림제’는 장마가 끝난 후 신당을 청소하여 바람에 불려 말린다는 뜻에서 유래된 제의다. 제보자는 ‘마폴림’이라고도 했다.

리밖에 없어. 다른 데 보면 다 어디 굶은 나무에들 가서 제지내는 거 보면 곱하는 거 보면 치렁치렁 달아매서.)

110021 @ 응.(응.)

110021 # 경허주만은 이딴 집 짓어놔 판씩 침 전기 다 걸어놓곡 다헐에 그 어디 국가에서 그거 다 알아근에 해줬일 거여.(그렇지만 여긴 집 지어놔서 깨끗하게 참 전기 다 걸어놓고 다해서 그 어디 국가에서 그거 다 알아서 해줬을 거야.)

110021 @ 예. 보통 저 장마는 언제 드는 거봐?(예. 보통 저 장마는 언제 드는 겁니까?)

110021 # 유월.(유월.)

110021 @ 유월말에?(유월말에?)

110021 # 유월 나민.(유월 나면.)

110021 @ 유월 나민 마 들었예.(유월 나면 장마 들어서요.)

110021 # 응, 경헌디 오월 구물어가도 장마, 오월에도 지고, 유월에도 지곡 장마도 흔 엇어, 이제.(응, 그런데 오월 저물어가도 장마, 오월에도 지고, 유월에도 지고 장마도 한 없어, 이제.)

110021 @ 응, 옛날에게.(응, 옛날에.)

110021 # 옛날에 게 유월 나민 유월 장마.(옛날에 그렇게 유월 나면 유월 장마.)

110021 @ 유월 장마예?(유월 장마요?)

110021 # 응, 장마엔 허곡 겐디 이젠 흔이 엇어.(응, 장마엔 하고 그런데 이젠 한이 없어.)

110021 @ 장마 전이 무신거 해사되는 거 엇어.(장마 전에 무엇 해야되는 거 없어?)

110021 # 장마 전이 무신거허는 게 엇주게. 계난 유월 나가민 헐 게 베랑 무시거 엇주게, 용스베피.(장마 전에 무엇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유월 나면 할 게 별로 무엇 없지, 농사밖에.)

110021 @ 응.(응.)

110021 # 계난 이제 유월 장마 전이 그냥 무시거 감저도 놓젠 허민 옛날은 비도 찰찰 오곡 허민, 장마 지민. 감저 장마에덜, 감저 놓주게.(그러니까 이제 유월 장마 전에 그냥 무엇 고구마도 놓으려고 하면 옛날은 비도 찰찰 오고 하면, 장마 지면. 고구마 장마에들, 고구마 놓지.)

110021 @ 아, 장마에, 비 오민 감저 놓는 거봐?(아, 장마에, 비 오면 고구마 놓는 겁니까?)

110021 # 응, 감저 놔야 그 벧 나불민 못 놓난에.(응, 고구마 놔야 그 벧 나버리면 못 놓으니까.)

110021 @ 응.(응.)

110021 # 장마에 감저 놓는 거. 마 팡팡헌, 옛날은 안개 팡팡 지민 감저 놓고. 다시 유월절 넘어근에 유월절 넘어영 감저 놓젠 허민, 벧 나민, 밧 갈민, 밧이 더운

짐이 팡팡 나.(장마에 고구마 놓는 거. 마 팡팡한, 옛날은 안개 팡팡 지면 고구마 놓고. 다시 유월절 넘어가서 유월절 넘어서 고구마 놓으려고 하면, 벌 나면, 밭 갈면, 밭이 더운 김이 팡팡 나.)

110021 @ 응.(응.)

110021 # 게난 유월절 넘으면 감저 놓민 감저가 다 죽어.(그러니까 유월절 넘으면 고구마 놓으면 고구마가 다 죽어.)

110021 @ 아.(아.)

110021 # 감저꼴이 다 물, 배설<sup>210</sup>, 땅에 묻어도 배설 ㄱ령 다 죽어, 더워불민. (고구마 덩굴이 다 물, ‘배설’, 땅에 묻어도 ‘배설’ 고려서 다 죽어, 더워 버리면.)

110021 @ 더워 불민.(더워 버리면.)

110021 # 응, 경헌디 이제덜은 경 안 험주게.(응, 그런데 이제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

110021 @ 게민 옛날에 저 조는 언제 빼앗수과?(그러면 옛날에 저 조는 언제 뿌렸습니까?)

110021 # 존 시월 나민.(조는 시월 나면.)

110021 @ 시월 나민?(시월 나면?)

110021 # 응. 음력으로 시월 나민. 시월 나민 조 헛주.(응. 음력으로 시월 나면. 시월 나면 조 헛지.)

110021 @ 칠월, 칠월달에 마 전이 뭐 허는 건 엇어, 게난?(칠월, 칠월에 장마 전에 뭐 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110021 # 마 전인 거 허는 거 엇주게. 보리 ㄱ슬이나 마 전이 허민 보리 ㄱ슬힐 때 마 치어 불곡.(장마 전에 그거 하는 거 없지. 보리 수확이나 장마 전에 하면 보리 수확할 때 장마 저 버리고.

110021 @ 비 와불민 어떻게?(비 와버리면 어떻게요?)

110021 # 비 오라불민 보리 비민 썩어불지 안허나?(비 와버리면 보리 베면 썩어 버리지 않아?)

110021 @ 게난.(그러니까.)

110021 # 마 전이 보리도 비곡 정허곡, 보리도 마 처근에 비 자꾸 오라불민 보리가 다 꺼꺼져 불영 땅에 다 고고리가 부떠비영.(장마 전에 보리도 베고 그렇게 하고, 보리도 장마 저서 비 자꾸 와버리면 보리가 다 꺾어져 버려서 땅에 다 이삭이 불어버려.)

110021 @ 맞아.(맞아.)

110021 # 경허민 다 비젠 허민 어렵곡.(그러면 다 베려고 하면 어렵고.)

110021 @ 그 장마 들기 전이 확 가근에 보리도 비어야고예.(그 장마 들기 전에 확 가서 보리도 베어야하고요.)

110021 # 비어야고. 장마 오라가민 아무것도 못 허주. 인칙 장마 저불민 오월

210) ‘배설’은 제주어로 ‘창자’라는 뜻인데 고구마 덩굴의 속을 ‘창자’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구물어 가민 장마 저불민 보리 비민 보리가 다 비어논 거 나. 벧 안 나불민.(베어야 하고. 장마 와가면 아무것도 못 하지. 일찍 장마 저버리면 오월 저물어 가면 장마 저버리면 보리 베면 보리가 다 베어놓은 거 나. 벧 안 나버리면.)

110021 @ 하하하. 싹 나불어?(하하하. 싹 나버려?)

110021 # 응, 고고리차 땅에서 뭉 나.(응, 이삭째 땅에서 모두 나.)

110021 @ 아이고.(아이고.)

110021 # 고질고질허게 나. 경허민 거 다 뒤흥 물리곡 해난, 옛날에.(‘고질고질’ 하게 나. 그러면 그거 다 뒤집어서 말리고 했었어, 옛날에.)

110021 @ 응.(응.)

110021 # 오월장마, 오월 구물어가민 장마 질 때도 싯곡 유월 나민 장마도, 혼 이 엇어불주게, 똑 그거 백여논 건 아니주게.(오월장마, 오월 저물어가면 장마 질 때도 있고, 유월 나면 장마도, 한이 없어버리지, 꼭 박아놓은 건 아니지.)

110022 @ 예. 이디서도 저 모래찜질허고 해낫수과?(예. 여기서도 저 모래찜질하고 했었습니까?)

110022 # 아니, 이딘 몰래 엇어.(아니, 여긴 모래 없어.)

110022 @ 이딘 몰래 엇어?(여긴 모래 없어?)

110022 # 응. 몰래찜도 저 어디 가사.(응. 모래찜도 저 어디 가야.)

110023 @ 물 맞이레도 가?(물 맞으러도 가?)

110023 # 우린 것도 안 해봐신디 물 맞이렌 저 산에.(우린 그것도 안 해봤는데 물 맞으려는 저 산에.)

110023 @ 산에?(산에?)

110023 # 응.(응.)

110023 @ 어디?(어디?)

110023 # 어디 도내코여 어디 현 디, 물 맞이레 탱기는 사름덜 탱겨낫어.(어디 돈내코다 어디 한 데, 물 맞으러 다니는 사람들 다녔었어.)

110023 @예, 무사 물 맞는 거마씨?(예, 왜 물 맞는 거예요?)

110023 # 거 어디 이젠 병원이민 하도 탱겨부난 옛날엔 종에 아픈 사름덜 무슨 물 맞이민 종넌 탱겨낫주게. 우린 그런 것도 안 해봤어.(그거 어디 이젠 병원이면 하도 다녀버리니까 옛날엔 종아리 아픈 사람들 무슨 물 맞으면 좋다고 다녔었지. 우린 그런 것도 안 해봤어.)

110024 @ 응. 입추.(응. 입추.)

110024 # 입춘<sup>211)</sup>이 그거.(입춘이 그거.)

110024 @ 입추, 가을 드는 거.(입추, 가을 드는 거.)

110024 # ㄱ을 든 거 ㄱ을에게. ㄱ을에 입춘이 잇주게.(가을 든 거 가을에. 가을에 입춘이 있지.)

110024 @ 예, 처서.(예. 처서.)

---

211) ‘입춘’은 ‘입추’를 제보자가 ‘입춘’이라고 발음하고 있어서 그대로 쓴 것이다.



110024 # 처서엔 여름이고, 칠월이고.(처서엔 여름이고, 칠월이고.)

110024 @ 예.(예.)

110024 # 입추는 ㄱ슬 혼 시월썸에 입춘 들어, 구월썸에 들엄실 테주. 입춘이 상강일이주게.(입추는 가을 한 시월썸에 입춘 들어, 구월썸에 들고 있겠지. 입춘이 상강일이지.)

110024 @ 아.(아.)

110024 # 입춘이 상강일이라.(입춘이 상강일이야.)

110024 @ 예.(예.)

110024 # 그거 시월 낭 들 때도 싯곡, 시월 초순에 들 때도 싯곡, 혼 보름 넘영 들 때도 싯곡, 갓도 혼이 엇어. 구월에 들 때도 싯곡.(그거 시월 나서 들 때도 있고, 시월 초순에 들 때도 있고, 한 보름 넘어서 들 때도 있고, 그것도 한이 없어. 구월에 들 때도 있고.)

110024 @ 예.(예.)

110024 # 절기난. 요새 양력으로 해부난 혼이 엇어.(절기니까. 요새 양력으로 해버리니까 한이 없어.)

110024 @ 예.(예.)

## 8월

110025 @ 팔월 들민 뭐합니까?(팔월 들면 뭐합니까?)

110025 # 팔월 들민 팔월 전이도, 칠월에도 팔월절이엔 헛 거 팔월절도 싯고.(팔월 들면 팔월 전에도, 칠월에도 팔월절이라고 한 거 팔월절도 있고.)

110025 @ 예.(예.)

110025 # 따시 또.(다시 또.)

110025 @ 별초도 해사주예? 팔월 초하루날.(별초도 해야지요? 팔월 초하룻날.)

110025 # 구월절 들민.(구월절 들면.)

110025 @ 응.(응.)

110025 # 구월절 들영 첫주일에 우리 집인 별초허여.(구월절 들어서 첫 주일에 우리 집은 별초 해.)

110025 @ 아, 모듬별초예?(아, 모듬별초요?)

110025 # 응, 저을 별초, 봄 별초, 침 ㄱ을 별초.(응, 겨울 별초, 봄 별초, 참 가을 별초.)

110025 @ ㄱ슬 별초, 응.(가을 별초, 응.)

110025 # 산에.(산소에.)

110025 @ 산에예. 다 동네 방상들 다 모영 강?(산소예요. 다 동네 일가붙이들 다 모여서 가서?)

110025 # 응.(응.)

110025 @ 남저들만 가?(남자들만 가?)

110025 # 남저, 여청 가는 디 싯곡 우리 방상엔 여청덜 안 가. 남저들만 간디, 그 우리 방상에덜 문딱 공무원이라 부난에 그 구월절 들어근에 첫 주일에 벌초허주게.(남자, 여편네 가는 데 있고 우리 일가붙이엔 여자들 안 가. 남자들만 갔는데, 그 우리 일가붙이들 모두 공무원이라 버리니까 그 구월절 들어서 첫 주일에 벌초하지.)

110025 @ 토요일, 일요일날?(토요일, 일요일?)

110025 # 응, 일요일날.(응, 일요일.)

110025 @ 응.(응.)

110025 # 똑 백여낭 그건.(꼭 박아놔서 그건.)

110025 @ 백여놔근에.(박아놔서.)

110025 # 경허민 칠월에, 칠월 그물영 구월절 들어도 그때 해야. 따시 또 그때 똑 백여낭 무시걸 못허난. 저 공무원덜이라 부난.(그러면 칠월에, 칠월 저물어서 구월절 들어도 그때 해야. 다시 또 그때 꼭 박아놔서 무엇을 못하니까. 저 공무원들이라 버리니까.)

110025 @ 응, 그냥 구월 첫째주 일요일날.(응, 그냥 구월 첫째주 일요일.)

110025 # 응, 첫 구월 행 허고.(응, 첫 구월 해서 하고.)

110025 @ 옛날엔 어떻 헤낫수과?(옛날엔 어떻게 했었습니까?)

110025 # 옛날은 헌디, 이 우리 살 때난 경 똑 백여낭, 백여낭.(옛날은 했는데, 이 우리 살 때니까 그렇게 꼭 박아놔사, 박아놔서.)

110025 @ 응. 옛날은 경 안 헤실 거 아니예?(응. 옛날은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110025 # 옛날덜은 공무원 안행 허민 그자 아무 날이라도 행 거 구월절만 들영 팔월절 들곡 구월절 들민 벌초헤낫주만은 이젠 구월절 들영 허젠 허민 바로 팔월명절에 막 퍼렇게 나지 안햐서. 인척 헤볼민.(옛날들은 공무원 안 해서 하면 그자 아무 날이라도 해서 그거 구월절만 들어서 팔월절 들고 구월절 들면 벌초했었지만 이젠 구월절 들어서 하려고 하면 바로 팔월명절에 아주 과랑게 나지 않아? 일찍 해버리면.)

110026 @ 게난예. 그믐 팔월 명절.(그러니까요. 그러면 팔월 명절.)

110026 # 팔월 명절 팔월 보름날게.(팔월 명절 팔월 보름날.)

110026 @ 팔월 명절날은 무신거 특별히 허는 거 잇수과?(팔월 명절날은 뭐 특별히 하는 거 있습니까?)

110026 # 무신거 허여? 제 지냄 다 ㄴ뜨주.(뭐 해? 제지내는 것 다 같지.)

110026 @ 다 ㄴ따?(다 같아?)

110026 # 응, 제 지냄은 명절에나 팔월 명절에, 설 명절에 떡국 하나 허는 사람 우리 집이 더 들주, 그 남은 건 어느 것사 다 ㄴ찌 ㄴ찌 행 매일반이주게. 이녁 가문 가지난게 다.(응, 제지내는 것은 명절엔 팔월 명절에, 설 명절에 떡국 하나 하는 사람 우리 집에 더 들지, 그 남은 건 어느 것이야 다 같이 같이 해서 매일반이지. 자기 가문에 따른 거니까 다.)

110026 @ 응, 이때 뭐 특별하게 팔월 명절에 특별하게 하는 건 엇고?(응, 이때 뭐 특별하게 팔월 명절에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110026 # 엇어, 아무것도.(없어, 아무것도.)

110026 @ 떡도 특별하게 허는 거 엇고?(떡도 특별하게 하는 거 없고?)

110026 # 엇고. 다 ㄴ찌 ㄴ찌.(없고. 다 같이 같이.)

110026 @ 다 ㄴ찌 ㄴ찌.(다 같이 같이.)

110026 # 제사나 명절에나 똑ㄴ찌 허주.(제사나 명절에나 똑같이 하지.)

110026 @ 옛날에도 다 ㄴ찌 ㄴ찌?(옛날에도 다 같이 같이?)

110026 # 응, 옛날에 다.(응, 옛날에 다.)

110026 @ 응.(응.)

## 9월

110028 @ 백로? 추분?(백로? 추분.)

110028 # 백로 건 팔월 아니라?(백로 그건 팔월 아니야?)

110028 @ 예. 이뎨 뭐 허는 거 엇어마씨?(예. 이뎨 뭐 하는 거 없어요?)

110028 # 엇어.(없어.)

110028 @ 그다음 구월절 들민, 백로, 상강 이때 허는 거 뭐 잇수과?(그다음 구월절 들민, 백로, 상강 이때 하는 거 뭐 있습니까?)

110028 # 응, 그 상강일 지민, 돼가민 감저 이레 감저 허썩 논 사름덜 감저도 파곡. 그자 미신 상강일 돼영 헐 거 배랑, 용서 안 허난 무신거 헐 게 서?(응, 그 상강일 되면, 되어가면 고구마 이리 고구마 ‘허썩’ 놓은 사람들 고구마도 파고. 그저 무슨 상강일 되어서 할 거 별로, 농사 안 하니까 뭐 할 게 있어?)

110028 @ 응.(응.)

110028 # 콩덜 헐 사름덜은 콩덜이나 꺼끄주. 이 해벤엔 용서허는 사름 엇이난 그런 거 저런 거 안 해여.(콩들 한 사람들은 콩들이나 꺾지. 이 해변엔 농사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안 해.)

110028 @ 응.(응.)

## 10월

110029 @ 시월달 돼민?(시월 되면?)

110029 # 시월들 들어도 무신, 미깡이나 타민 베끼 헐 게 서게?(시월 들어도 무슨, 굴이나 따면 밖에 할 게 있어?)

110029 @ 이제. 옛날게, 지금, 이제 말고 옛날에.(이제. 옛날, 지금, 이제 말고 옛날에.)

110029 # 옛날도게 그거 옛날덜은 시월절 들민 옛날은 시월절 들민 보리도 갈곡 그 용서헛주만, 이젠.(옛날도 그거 옛날들은 시월 들면 옛날은 시월 들면 보리도 갈고 그 농사헛지만, 이젠.)

110029 @ 아, 시월절 들민 보리 갈곡?(아, 시월 들면 보리 갈고?)

110029 # 이젠 보리도 안 갈곡 아무것도 안 허난 헐 게 엇주게.(이젠 보리도 안 갈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할 게 없지.)

110029 @ 헐 게 엇어?(할 게 없어?)

110029 # 응. 원 아무것도 헐 게 엇어.(응. 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110029 @ 구월, 시월 돼가민 저 뭐 산뒤도.(구월, 시월 되어가면 저 뭐 밭벼도.)

110029 # 그거 옛날이나 험이주, 이제 사름덜.(그거 옛날이나 함이지, 이제 사람들.)

110029 @ 거난 옛날에 산뒤도.(그러니까 옛날에 밭벼도.)

110029 # 옛날에 시월 나민 산뒤도 비곡, 조도 비곡 해낫주만은.(옛날에 시월 나면 밭벼도 베고, 조도 베고 했었지만.)

110029 @ 게난 조도 비곡, 산뒤도 비곡예?(그러니까 조도 베고, 밭벼도 베고 요.)

110029 # 응. 이젠 아무것도 엇잖아.(응. 이젠 아무것도 없잖아.)

110029 @ 응, 옛날 옛날 말이주게 할머니, 옛날 해난 거 골아주렌 허는 말이 주.(응, 옛날 옛날 말이지 할머니, 옛날 했던 거 말해주라고 하는 말이지.)

110029 # 옛날은 그거 다 먼저 돌아가신디.(옛날은 그거 다 먼저 달아갔는데.)

110029 @ 예, 거난 그제 구월달, 시월달 돼민 허는 거?(예, 그러니까 그제 구월, 시월 되면 하는 거?)

110029 # 응, 시월들 돼민 다 조도 비곡 산뒤도 비곡 시월들 나민 옛날은 바빠.(응, 시월 되면 다 조도 베고 밭벼도 베고 시월 나면 옛날은 바빠.)

110029 @ 농서허젠 허민예 그제 장만허젠 허민예?(농사하려고 하면요 그제 장만하려고 하면요?)

110029 # 응, 그제 다 해뒀 따시 보리도 갈곡 허젠 허민 바쁘주, 감저도 파곡.(응, 그제 다 해두고 다시 보리도 갈고 하려고 하면 바쁘지, 고구마도 파고.)

110029 @ 감저도 파곡.(고구마도 파고.)

110029 # 헐 게 막 옛날은 하낫주게.(할 게 아주 옛날은 많았었지.)

110029 @ 시월달 돼민 막 바쁜 거구나예?(시월 되면 아주 바쁜 거군요?)

110029 # 응, 바쁘주. 동짓달 초순ㄱ장 막 해가주.(응, 바쁘지. 동짓달 초순까지 막 해가지.)

## 11월

110030 @ 동짓달 돼민?(동짓달 되면?)

110030 # 동짓달 돼민 초순ㄱ장 그제 다, 보리왔도 시월에 못허민 동짓달 초순 돼민 보리도 갈곡게 혼이 섰어? 혼이 었주.(동짓달 되면 초순까지 그제 다, 보리밭도 시월에 못하면 동짓달 초순 되면 보리도 갈고 한이 있었어? 한이 없지.)

110030 @ 응.(응.)

110030 # 못허민 동짓달 초순도 낭 허고 보리 값은.(못하면 동짓달 초순도 나서 하고 보리 가는 것은.)

110030 @ 동지 땀 뭘 죽 썰 먹읍니까, 풋죽?(동지 땀 뭘 죽 쭈어서 먹읍니까, 팔죽?)

110030 # 동지죽.(동지죽.)

110030 @ 동지죽.(동지죽.)

110030 # 동짓날.(동짓날.)

110030 @ 동짓날 어떻게 죽 썰 먹어?(동짓날 어떻게 해서 죽 쭈어서 먹어?)

110030 # 그 절간에 가난 풋죽 썰 먹엄주, 동짓날.(그 절에 가니까 팔죽 쭈어서 먹고 있지, 동짓날.)

110030 @ 아, 건 절간에서 허는 거파?(아, 그건 절에서 하는 겁니까?)

110030 # 절간에 안 허고 개인도 쭈는 사람은 쭈는디 개인도 거 풋죽을 썰나민 계속, 안 쏘드렌 쭈지 말아야주.(절에 안 하고 개인도 쭈는 사람은 쭈는데 개인도 그거 팔죽을 쭈고 나면 계속, 안 쏘 땀 쭈지 말아야지.)

110030 @ 아, 헐 거민 계속 해야 돼여?(아, 할 거면 계속 해야 돼?)

110030 # 응.(응.)

110030 @ 이거 무사 허는 거마씨?(이거 왜 하는 거예요?)

110030 # 거 방세.(그거 방사.)

110030 @ 아, 이건 방세?(아, 이건 방사?)

110030 # 방세.(방사.)

110030 @ 뭘 나쁜 거 오지 말렌?(뭘 나쁜 거 오지 말라고?)

110030 # 응, 거 다 방세주, 거 백여논 건 아니주. 이녀 허구정 허민 허고 실프민 마는 거.(응, 그거 다 방사지, 그거 박아놓은 건 아니지.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마는 거.)

110030 @ 이 동지도.(이 동지도.)

110030 # 애기동지.(아기동지.)

110030 @ 응.(응.)

110030 # 따시 또 동지, 아기동지엔 죽 안 쏘덴 허곡, 따시 아기동지 아니랑 어른동지<sup>212)</sup>엔 무신 밥, 저 죽 쭈곡 헌덴 허주, 옛날에.(다시 또 동지, 아기동지라고 죽 안 쏘다고 하고, 다시 아기동지 아니라서 ‘어른동지’엔 무슨 밥, 저 죽 쭈고 한다고 하지, 옛날에.)

110030 @ 아, 어른동지엔 죽 쭈고?(아, ‘어른동지’엔 죽 쭈고?)

110030 # 애기동지엔 죽 안 쏘덴 허주.(아기동지엔 죽 안 쏘다고 하지.)

110030 @ 아기동지헐 땀 죽 안 쭈고. 애기동진 어떻게 게 애기동지파?(아기동지할 땀 죽 안 쭈고. 아기동진 어떤 게 아기동지입니까?)

212) ‘어른동지’는 11월 10일 전에 동지가 드는 것을 ‘아기동지’라고 하는 것에 빗대어 10일 이후에 동지가 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110030 # 몰르주, 경헌텐 허난 우린 무신 아는 거라?(모르지, 그런다고 하니까 우린 무슨 아는 거야?)

110030 @ 아니 뭐 초순에 들민 애기동지엔 허는 거 닥안게 경허는 거 아니?(아니 뭐 초순에 들면 아기동지라고 하는 거 같던데 그러는 거 아니?)

110030 # 응, 초순에 들민 아기동지고 혼 동지들도 혼 스무날 넘어가민 그 아기동지가 아니고.(응, 초순에 들면 아기동지고 한 동짓달도 한 스무날 넘어가면 그 아기동지 아니고.)

110030 @ 어른동지고.(‘어른동지’고.)

110030 # 혼 초열흘 안에 들어가민 아기동지고.(한 초열흘 안에 들어가면 아기동지고.)

110030 @ 거난예.(그러니까요.)

110030 # 응, 그거주게.(응, 그거지.)

110030 @ 응.(응.)

110030 # 이젠 유월절, 저 거시기 양력만 세 가난 그거 저거가 절기가 혼이 엇어.(이젠 유월절, 저 거시기 양력만 세어 가니까 그것 저것이 절기가 한이 없어.)

110030 @ 옛날 해난 말 곱아줍센 허는 거주게.(옛날 했던 말 말해달라고 하는 거지.)

110030 # 옛날이 그거지, 옛날에도 그거라. 옛날에.(옛날이 그거지, 옛날에도 그거야.)

## 12월

110033 @ 계민 유월 아까 저 동지허고 그다음에는 십이월달 웨민예 친구간.(그러면 유월 아까 저 동지하고 그다음에 십이월 되면요 친구간.)

110033 # 친구간 섯들 구물어가민 들곡.(친구간 섯달 저물어가면 들고.)

110033 @ 섯들 그물어가민 친구간헐 땐 무신거 허는 거파?(섯달 저물어가면 친구간할 땐 뭐 하는 겁니까?)

110033 # 친구간 들민 이디 저 거시기 산에 강 천리허구정헌 사름은 천리도 허고.(친구간 들면 여기 저 거시기 산소에 가서 면례하고 싶은 사름은 면례도 하고.)

110033 @ 천리도 허고.(면례도 하고.)

110033 # 따시 또 집이 따시 손불 사름은 집도 손보고.(다시 또 집에 다시 손불 사름은 집도 손보고.)

110033 @ 집도 손보고.(집도 손보고.)

110033 # 응. 경허주. 하간 거. 방세도 그땐 공들이난 그게 아무것도 엇인 공들이난 거 허는 거라.(응. 그렇지. 온갖 거. 방사도 그땐 공들이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공달이니까 그거 하는 거야.)

110033 @ 뭐가 아무것도 엇어?(뭐가 아무것도 없어?)

110033 # 공들이, 그 구신덜이 엇엉.(공달이, 그 귀신들이 없어서.)

110033 @ 어디 가불었어?(어디 가버렸어?)

110033 # 어디사 가신디 그땐 저 거시기 들어불민 친구간 들어불민 엇주게. 경허난 하간 거 허는 거.(어디야 갔는지 그땐 저 거시기 들어버리면 친구간 들어버리면 없지. 그러니까 온갖 거 하는 거.)

110033 @ 응. 친구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마씨?(응. 친구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10033 # 친구간도양 유월 혼 시월, 저 선들 혼 스무날 돼영 강 멧질 전이 친구간 들영 설러불 때도 있고. 어떤 땐 멧질 때도 친구간 든 때도 있고.(친구간도요 유월 한 시월, 저 선달 한 스무날 되어서 가서 멧질 전에 친구간 들어서 그만들 때도 있고. 어떤 땐 멧질 때도 친구간 든 때도 있고.)

110033 @ 아, 멧질 때도 친구간 든 때도 셔?(아, 멧질 때도 친구간 든 때도 있어?)

110033 # 응, 혼이 엇어, 거.(응, 한이 없어, 그거.)

110033 @ 혼이 엇어?(한이 없어?)

110033 # 것도 혼이 엇어.(그것도 한이 없어.)

110033 @ 언제 딱 정해진 게 엇인 거꽈?(언제 딱 정해진 게 없는 겁니까?)

110033 # 정헌 날이 엇어, 것도. 정헌 날이 엇어.(정헌 날이 없어, 그것도. 정헌 날이 없어.)

110033 @ 이젠 저 이사갈 때 친구간에, 친구간에 이사 갑니께?(이젠 저 이사갈 때 친구간에, 친구간에 이사 가잖아요?)

110033 # 응, 친구간에 이스 가주.(응, 친구간에 이사 가지.)

110033 @ 옛날도 친구간에 이사 가낫수꽈?(옛날도 친구간에 이사 갔었습니까?)

110033 # 옛날에 친구간에 이사 가낫주.(옛날에 친구간에 이사 갔었지.)

110033 @ 아, 이사 가젠 허민 친구간에.(아, 이사 가려고 하면 친구간에.)

110033 # 이젠 당히는 냥 가도 옛날엔 친구간 돼사.(이젠 당하는 대로 가도 옛날엔 친구간 돼야.)

110033 @ 딱 친구간 돼민예.(딱 친구간 되면요.)

110033 # 응, 친구간 돼사. 막아부난, 해가 어디 이 남방 막은 사름, 어디 북방 막은 사름, 막은 방은 안 간덴 허주게.(응, 친구간 돼야. 막아버리니까, 해가 어디 이 남방 막은 사름, 어디 북방 막은 사름, 막은 방은 안 간다고 하지.)

110033 @ 예.(예.)

110033 # 그땐 막은 방이 엇주게, 친구간 돼민.(그땐 막은 방이 없지, 친구간 되면.)

110033 @ 아, 친구간 땐 막은 방이 엇수꽈?(아, 친구간 땐 막은 방이 없습니까?)

110033 # 응, 막은 방이 엇어부난 이사 가는 거.(응, 막은 방이 없어버리니까 이사 가는 거.)

110034 @ 응. 이사 가젠 허민 집은 어떻 구해?(응. 이사 가려고 하면 집은 어떻게 구해?)

110034 # 집은 옛날은 그냥 집행 빌영 초집 ㄱ쁜 거 사름 안 사는 집은 빌영 가주. 옛날은 집세도 엇어낫주게. 그자 빈 집 빌영 강.(집은 옛날은 그냥 집해서 빌어서 초가집 같은 거 사름 안 사는 집은 빌어서 가지. 옛날은 집세도 없었었지. 그 저 빈 집 빌어서 가서.)

110034 @ 돈 안녕?(돈 안내서?)

110034 # 안 내어. 그 우리 시절엔 이제 나 그땐 집이 그자 공짜로 비영 내불민 집 빌리렌 허민 강 살주게. 이젠 다 집세 내도. 그땐 엇어낫어.(안 내. 그 우리 시절엔 이제 나 그땐 집에 그저 공짜로 베어서 내버리면 집 빌리려고 하면 가서 살지. 이젠 다 집세 내도. 그땐 없었었어.)

110034 @ 그땐 엇어낫어.(그땐 없었었어.)

110034 # 빈 집 빌리렌 허민. 아이덜 수정이나 엇어근에 겔혼이나 행 다시 또 못헌 사름 영 맞거리, 솿 앓지고, 영 맞구들이나 성 혼자 사는 딴 요 방 하나도 빌영 가고, 옛날은.(빈 집 빌리려고 하면. 아이들 솿자나 없어서 겔혼이나 해서 다시 또 못한 사람 이렇게 바깥채, 솔 안치고, 이렇게 맞구들이나 있어서 혼자 사는 텐 요 방 하나도 빌려서 가고, 옛날은.)

110035 @ 이사 갈 때는 무신거부터 가정 가야 웬텐 허는 거 이서마썸?(이사 갈 때는 무엇부터 가져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있어요?)

110035 # 이녀 살림살이 아정 가주, 무신걸 아정 가?(자기 살림살이 가져 가지, 무얼 가져서 가?)

110035 @ 아니 뭐 무신 저 뭐 칼 가정 가든 뭐 이런 거 이수게.(아니 뭐 못느 저 무 칼 가져 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10035 # 칼 아니고.(칼 아니고.)

110035 @ 솿?(솔?)

110035 # 그자 저 솿디 헤여근에 허민 그 솿디 솿불 헤근에 일렝 불살라방 간텐 허주게.(그저 저 솔에 해서 하면 그 솔에 솿불 해서 일어나라고 불살라서 간다고 하지.)

110035 @ 아.(아.)

110035 # 초 ㄱ쁜 것도 낱 솿. 옛날은 이디 앓진 솿을 따시 지영 다른 디 강 앓질 거 아니가?(초 같은 것도 봐서 솔. 옛날은 여기 안친 솔을 다시 지어서 다른 데 가서 안칠 거 아니냐?)

110035 @ 예, 예.(예, 예.)

110035 # 경허민 일렝 솿디 불 살랑 그거 솿 안네 낱 아정 간텐.(그러면 일으켜서 솔에 불 살라서 그거 솔 안에 봐서 가져 간다고.)

110035 @ 거난 날 봐신디 그날에.(그러니까 날 봤는데 그날에.)

110035 # 친구간 가민 친구간도 따시 좋은 날이 잇주게.(친구간 가면 친구간도



다시 좋은 날이 있지.)

110035 @ 계난.(그러니까.)

110035 # 좋은 날. 친구간 가주게 아무 때라도. 밤이 가는 사람도 잇꼭 낮이 가는 사람도 잇꼭. 대겐 밤이 가주.(좋은 날. 친구간 가지 아무 때라도. 밤에 가는 사람도 있고 낮에 가는 사람도 있고. 대개는 밤에 가지.)

110035 @ 아, 아니 계난. 이날 이사허라 영해신디 그날 못허민 그날 솟만 강 앓져불민 그 다음날 판 때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거 아니?(아, 아니 그러니까. 이날 이사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날 못하면 그날 술만 가서 안쳐버리면 그 다음날 다른 때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거 아니?)

110035 # 응, 솟만 강 앓정 그디 강 밥헝 먹어불민.(응, 술만 가서 안쳐서 거기 가서 밥해서 먹어버리면.)

110035 @ 아, 밥을 헝 먹어불민.(아, 밥을 해서 먹어버리면.)

110035 # 응, 밥을 헝 먹어야.(응, 밥을 해서 먹어야.)

110035 @ 짐은 다 안 가정가도.(짐은 다 안 가져가도.)

110035 # 응, 경허곡 그디 따시 또 흐룻밤 자나민 아무 때 가도 되고.(응, 그렇게 하고 거기 다시 또 하룻밤 자고나면 아무 때 가도 되고.)

110035 @ 아, 잠도 그디 강 자야 돼여?(아, 잠도 거기 가서 자야 돼?)

110035 # 응, 잠도 자야지.(응, 잠도 자야지.)

110035 @ 밥만 헝 먹는 게 아니고?(밥만 해서 먹는 게 아니고?)

110035 # 응, 밥만 허민 계난 이제덜은 해도 옛날은 솟 아지곡 이불자리 지아지곡 헝 강 그디 강 밥해먹고 그날 처낙 혼 사람이나 집이, 그 집이 방에 누웁.(응, 밥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들은 해도 옛날은 술 안치고 이부자리 쳐서 가지고 해서 가서 거기 가서 밥해먹고 그날 저녁 한 사람이나 집에, 그 집에 방에 누워서.)

110035 @ 경허민 그다음은?(그러면 그다음은?)

110035 # 아무 때 가도 돼여.(아무 때 가도 돼.)

110035 @ 살림은 나중에 가져가도 되는 거?(살림은 나중에 가져가도 되는 거?)

110035 # 응. 이젠 그자 경허나 정허나 들렁 땡기는 살림이난 혼이 엇어. 옛날은 경해난.(응. 이젠 그저 그러나 저러나 들어서 다니는 살림이니까 한이 엇어. 옛날은 그랬었어.)

110036 @ 게민 나 이디 이사왔저 헤근에 저 허는 거 이수과?(그러면 나 여기 이사왔다 해서 저 하는 거 있습니까?)

110036 # 엇어. 방서허는 사람덜이나 이서오랑 허민 그자 밥이나 왕 아이고 새살림이나 살젠 허민 그 집이 왕 살림, 새살림허는 디 강 밥이나 먹주 헤여근에 성냥이나 상 가주.(없어. 방사하는 사람들이나 있어와서 하면 그저 밥이나 와서 아이고 새살림이나 살려고 하면 그 집에 와서 살림, 새살림하는 데 가서 밥이나 먹지 해서 성냥이나 사서 가지.)

110037 @ 성냥? 아, 갈 때 성냥 상 가는 거파?(성냥? 아, 갈 때 성냥 사서 가는

겁니까?)

110037 # 응.(응.)

110037 @ 이젠 막 무사 슈퍼타이하고 막 화장지하고.(이젠 막 왜 슈퍼타이하고 막 화장지하고.)

110037 # 그거나 그거나 매일반. 슈퍼타이나 화장지나 다.(그거나 그거나 매일반. 슈퍼타이나 화장지나 다.)

110037 @ 허는디 옛날엔.(하는데 옛날엔.)

110037 # 옛날엔 성냥.(옛날엔 성냥.)

110037 @ 옛날엔 성냥.(옛날엔 성냥.)

110037 # 성냥.(성냥.)

110037 @ 성냥 아까 무슨 불콰?(성냥 아까 무슨 ‘불콰’?)

110037 # 게 성냥 불콰게. 불 내는 거.(그러게 성냥 불콰게. 불 내는 거.)

110037 @ 응, 불콰 들렁 가?(응, 성냥 들어서 가?)

110037 # 그거 흔 봉허민 그거 열 개라, 흔 봉이. 그거 흔 봉 상 가.(그거 한 ‘봉’이면 그거 열 개야, 한 ‘봉’이 그거 열 개야, 한 ‘봉’이. 그거 한 ‘봉’ 사서 가.)

110037 @ 응. 그믐 집주인은?(응. 그러면 집주인은?)

110037 # 집주인은게 그디 밥이나.(집주인은 거기 밥이나.)

110037 @ 밥행 맥여?(밥해서 먹여?)

110037 # 밥행 주고. 그 이스 난 날만 가주, 맨날 안 가주게.(밥해서 주고. 그 이사 난 날만 가지, 맨날 안 가지.)

110037 @ 게, 이사허는 날.(그러게, 이사하는 날.)

110037 # 이스 난 날은 강 챗 번으로 밥행 먹을 때덜 가주게. 경헌 때. 다른 땀 안 가주게.(이사 난 날은 가서 첫 번으로 밥해서 먹을 때들 가지. 그런 때. 다른 땀 안 가지.)

110038 @ 응. 소한, 대한?(응. 소한, 대한?)

110038 # 소한, 대한은 것도 선들에.(소한, 대한은 그것도 선달에.)

110038@ 선들에예.(선달에요.)

110038# 응, 소한은 체암 들어오는 거고 대한은 나가는, 거난 막 흔 댓새 헤영 소한 대한허민 흔 일주일만씩 든텐 허주게. 소한 들곡 대한 들곡 허민.(응, 소한은 처음 들어오는 거고 대한은 나가는, 그러니까 막 한 댓새 해서 소한, 대한하면 한 일주일만큼씩 든다고 하지. 소한 들고 대한 들고 하면.)

110038@ 예.(예.)

110038# 소한은 체암에 허곡, 대한은 막꼇데 허곡.(소한은 처음에 하고, 대한은 마지막에 하고.)

110038@ 막 추운 때 아니?(아주 추운 때 아니?)

110038# 대한엔 춥넨 허주게. 대한 날에 나간 사람은 돌아, 좇아보지 말렌 행.(대한엔 춥다고 하지. 대한 날에 나간 사람은 돌아, 좇아보지 말라고 해서.)

110038@ 찾아보지 말렌, 무사?(찾아보지 말라고, 왜?)  
 110038# 어디 강 곳양<sup>213)</sup> 죽어버린 찾아보지 말렌.(어디 가서 ‘곳양’ 죽어버리면 찾아보지 말라고.)  
 110038@ 아, 죽어분텐.(아, 죽어버린다고.)  
 110038# 응, 실령 죽넌. 얼영(응, 시려서 죽는다고. 추워서.)  
 110038@ 아, 실령.(아 시려서.)  
 110038# 게난 찾아보지 말렌 허는 거주. 대한, 소한 들어사 친구간 드는 거.(그러니까 찾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지. 대한, 소한 들어야 친구간 드는 거.)  
 110038@ 아, 대한, 소한 들어나사.(아, 대한, 소한 들어나야.)  
 110038# 응. 경행 친구간 들어나민 새철 들어나사 새해.(응. 그래서 친구간 들고 나면 ‘새철’ 들어야 새해.)  
 110038@ 아, 새철 들어나사 새해.(아, ‘새철’ 들어야 새해.)  
 110038# 새해 나도 새철 안 들민 새해 아니라.(새해 나도 ‘새철’ 안 들면 새해 아니야.)  
 110038@ 아하.(아하.)  
 110038# 새해 아니라. 새철 들어사.(새해 아니야. 새철 들어야.)  
 110038@ 응.(응.)

## 11. 놀이

111001 @ 옛날에 뭐허멍 놀아났수과? 영 허는 거 놀이 어렸을 때 놀이 허는 거 전이 혼 번 곱아서예. 놀 시간이 어디 서 영허멍예.(옛날에 뭐하면서 놀았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놀이 어렸을 때 놀이 하는 거 전에 한 번 말했었어요.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요.)

111001 # 응, 게, 놀 시간이 엇엇주게 혼. 여남은, 열혼 술ㄱ장은 놀 시간이 엇어봤어, 나.(응, 그러게, 놀 시간이 없었지. 한 여남은, 열한 살 까지는 놀 시간이 없어봤어, 나.)

111001 @ 응.(응.)

111001 # 그자 경정 살앗주.(그저 그렇게 저렇게 살았지.)

### 연

111006 @ 연날리기 이런 거 안 해봤수과?(연날리기 이런 거 안 해봤습니까?)

111006 # 옛날에 게메게.(옛날에 그러게.)

111006 @ 연 영 날리는 거.(연 이렇게 날리는 거.)

111006 # 그거 안 해판.(그거 안 해봤어.)

213) ‘곳다’는 ‘손발 따위가 동상에 걸리다’라는 뜻이다.

111006 @ 그런 거 안 해봤예.(그런 거 안 해봤어요.)

111006 # 안 해봤어. 그거 헐 정신이 어디 서?(안 해봤어. 그거 할 정신이 어디 있어?)

111006 @ 하하하. 거 헐 정신이 어디 서?(하하하. 그거 할 정신이 어디 있어?)

### 제기차기

111010 @ 뭐, 제기차기. 것도 남저덜이나 허는 거?(뭐, 제기차기. 그것도 남자들이나 하는 거?)

111010 # 응, 남저덜이나 허주 그때 따시 우리 두린 땐 켜기도 안 차났어. 엇어났어.(응, 남자들이나 하지 그때 다시 우리 어린 땐 켜기도 안 찼었어. 없었었어.)

### 자치기

111014 @ 자치기.(자치기.)

111014 # 자치기도 엇어나고. 것도 세대 나가는 거주, 옛날엔 엇어났어.(자치기도 없었었고. 그것도 세대 나가는 거지, 옛날엔 없었었어.)

111014 @ 응.(응.)

111014 # 총각덜토 그자 놀아났주 무신거 그런 거.(총각들도 그저 놀았었지 무엇 그런 거.)

### 말타기

111019 @ 말탈락, 몰탈락.(말타기, 말타기.)

111019 # 몰탈락. 거 아이덜광 혼디 해영 어우렁 몰탈락도 허주. 우리 두린 땐 계난 나 저번이도 곤지 안헐어. 나 우이 두 슬 우인 따시 죽은삼춘, 나 아래 두 슬 아랜 또 동싱 해놓고 허민 서이가 허민 집도 영 트로 갈라지고 놀레 어디 안 가왔어.(말타기. 그거 아이들과 함께 해서 어울려 말타기도 하지. 우리 어린 땐 그러니까 나 저번에도 말하지 았았니. 나 위에 다 살 위 다시 작은삼춘, 나 아래 두 살 아랜 또 동생 해놓고 하면 세명이 하면 집도 이렇게 따로 갈라지고 놀레 어디 안 갔다왔어.)

111019 @ 응.(응.)

111019 # 그자 침 일이나, 집이서 일이나 허꼭 허멍 살앗주. 놀레 갈 저르가 엇어났주게. 따시 늬 집 살 땐 놀레 강 어디 놀아났어? 늬 집도, 스춘도 돌아나고 늬 집도 따시 장터 두 해 살아나고 허난 놀레 갈 저르가 엇어났어. 이 알동네 오라도 따시 또 놀레 탱겨봤어? 놀레 안 탱겨봤어.(그저 참 일이나, 집에서 일이나 하고 하면서 살았지. 놀레 갈 겨를이 없었었지. 이 아랫동네 와도 다시 또 놀레 다녀봤어? 놀레 안 다녀봤어.)

111019 @ 애기 때도예?(아기 때도요?)

111019 # 응, 애기 때도 놀레 안 탱겨봤어. 막 두린 땐 따시 또 어멍 엇영 할망

이영 혼디 사난 할망 그 무신 찜 과줄 들어당 과줄허는 디 ㄴ쁜 디 강 조웨기 앓이  
민 그거나 주곡 허멍 해봤주, 어디 놀러 안 탕겨뵈. 아이덜이영 탕기멍 어디.(응, 아  
기 때도 놀러 안 다녀왔어. 아주 어린 땐 다시 또 어머니 없어서 할머니랑 함께 사  
니까 할머니 그 무슨 찜 과줄 들어다가 과줄하는 데 같은 데 가서 ‘조웨기’ 앓으면  
그거나 주고 하면서 해봤지, 어디 놀러 안 다녀왔어. 아이들이랑 다니면서 어디.)

### 구슬치기

111027 @ 구슬치기.(구슬치기.)

111027 # 그거 저 중간 동네 나사 헛주.(그거 저 중간 시대 나야 헛지.)

### 딱지치기

111031 @ 딱지치기.(딱지치기.)

111031 # 그거 옛날에덜은 엇어낫주게.(그거 옛날에들은 없었었지.)

### 숨바꼭질

111035 @ 곱을락은 해낫주예?(숨바꼭질은 했었지요?)

111035 # 곱을락 해도 게메, 곱을락을 해도 나가 아이덜이영 혼디 어울렁 놀아  
나지 안허난 안 해봤어.(숨바꼭질 해도 글썽, 숨바꼭질을 해도 내가 아이들이랑 함  
께 어울려서 놀아보지 않으니까 안 해봤어.)

### 실뜨기

111040 @ 실 영 허는 건 뭐파?(실 이렇게 하는 건 뭇니까?)

111040 # 가름베기 허는 거.(가르기 하는 거.)

111040 @ 그거 무신거엔 곱아?(그거 뭐라고 말해?)

111040 # 영 갈르는 거.(이렇게 가르는 거.)

111040 @ 실 갈르는 거.(실 가르는 거.)

111040 # 그건 해뵈.(그거 해봤어.)

111040 @ 그건 해뵈지예?(그건 해뵈지요?)

111040 # 응, 갈르는 거.(응, 가르는 거.)

111036 @ 실은 어디 서근에 그 실로 허여?(실은 어디 있어서 그 실로 해?)

111036 # 실은 아무 바느질허는 실이라도 톡허게 마주쳐근에 영행 감으민 영  
갈르민 요레 가도 영 갈르민, 그건 해낫어.(실은 아무 바느질하는 실이라도 톡허게  
마주쳐서 이렇게 해서 감으면 이렇게 가르면 요리 가도 이렇게 가르면, 그건 했었  
어.)

111036 @ 나가 영 데쓰고예 다시 또 할머니가 영허고 허는 거예.(내가 이렇게  
뒹뵈고요 다시 또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요.)

111036 # 건 해봤어. 실 가루에기.(그건 해봤어. 실 ‘가루에기’.)

111036 @ 무신거 실가레?(뭘 ‘실가레’?)

111036 # 실 가루에기, 가루에기 영.(실 ‘가루에기’, ‘가루에기’ 이렇게.)

111036 @ 가루에기?(‘가루에기’?)

111036 # 응, 가루에기. 영 끌리는 거엔 영 가루에기.(응, 가루에기. 이렇게 가리는 거라고 이렇게 ‘가루에기’.)

111036 @ 응.(응.)

111036 # 손가락 영 찢렁게 영 찢렁 영 허민 가루에기.(손가락 이렇게 찢러서 이렇게 찢러서 이렇게 하면 ‘가루에기’.)

111037 @ 거 헐 땀 어느 손가락, 어느 손가락 씹니까?(그거 할 땀 어느 손가락, 어느 손가락 씹니까?)

111037 # 이거 상손가락 영행.(이거 가운데손가락 이렇게 해서.)

111037 @ 상손가락으로 영허고.(가운데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111037 # 이것도 영허고.(이것도 이렇게 하고.)

111037 @ 그다음 영헐 때는?(그다음 이렇게 할 때는?)

111037 # 영헐 때 따시 또 이디 무시거허민 영행 영 돼주.(이렇게 할 때 다시 또 여기 무엇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111037 @ 영 데쓰곡예? 게민 요건 엄지손가락.(이렇게 뒤집고요? 그러면 요거 엄지손가락.)

111037 # 요영허영, 요영허영.(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11037 @ 이건 안주에기, 언주에기?(이건 ‘안주에기’, ‘언주에기’?)

111037 # 요건 엄손, 요건 안주에기.(요건 엄지, 요건 집게.)

111037 @ 안주에기영 엄지로 영행 데쓰곡예?(집게랑 엄지로 이렇게 해서 뒤집고요.)

111037 # 응, 그건 해봤어.(응, 그건 해봤어.)

111038 @ 거난 이 엄지손가락이영 안주에기 손가락은 이거 혹시 두 개 ㄴ치 곤는 말은 엇지예?(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은 이거 혹시 두 개 같이 말하는 말은 없지요?)

111038 # 요건 엄지난 요건 안주에기, 요영허는 거. 요건 엄지난 요건 언주우는 거난 엄지손가락이엔 해났어.(요건 엄지니까 요건 검지, 요렇게 하는 거. 요건 엄지니까 요건 언주는 거니까 엄지손가락이라고 했었어.)

111039 @ 혹시 영 새끼손가락도 씹니까?(혹시 이렇게 새끼손가락도 씹니까?)

111039 # 새끼손가락은 안 쓰주, 이거베끼.(새끼손가락은 안 쓰지, 이거밖에.)

111039 @ 아니 영 영헤근예.(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111039 # 요영헐 땀 새끼손가락.(요렇게 할 땀 새끼손가락.)

111039 @ 쓰지예.(쓰지요.)

111039 # 응, 써.(응, 써.)

111039 @ 우리도 해난 영헤난 다음에 영 데쓰는 그거 이신디.(우리도 했던 이

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뒤집는 그거 있는데.)

111039 # 응. 새끼손가락도 써. 그땐 손가락 다 써.(응. 새끼손가락도 써. 그땐 손가락 다 써.)

111039 @ 게난 새끼손가락은 무신 영허는 건 뭐 이디 거는 거, 실 걸엉?(그러니까 새끼 손가락은 무엇 이렇게 하는 건 뭐 여기 거는 그거, 실 걸어서?)

111039 # 것엔 벨로가 엇주게, 벨로 엇어.(그것엔 별호가 없지, 별호 없어.)

111039 @ 벨로 엇어예. 혹시 이거.(별호 없어요. 혹시 이거.)

111040 # 그것도 막 옛날엔 안 해나고 저 흐쫄 줌어, 혼 열서너 살 흘 때 해봤주. 막 두린 땐 엇어났어. 그 옛날엔 엇어났어.(그것도 막 옛날엔 안 했었고 저 조금 줌어, 한 열서너 살 할 때 해봤지. 아주 어린 때 없었었어. 그 옛날엔 없었었어.)

111040 @ 응.(응.)

111040 # 옛날로 허는 거, 옛날엔 그거 엇어.(옛날로 하는 거, 옛날엔 그거 없어.)

111040 @ 그런 거 엇어났어예?(그런 거 없었었어요?)

111040 # 응, 엇어.(응, 없어.)

### 공기놀이

111040 @ 공기는 안 해판, 공기?(공기는 안 해봤어, 공기?)

111040 # 공기도 중간 동네사 헛주, 옛날엔 공기 엇어났어.(공기도 중간 시대에 야 했지, 옛날엔 공기 없었었어.)

111042 @ 중간 동네 헛 땐 공기 어떻게 허는 거파?(중간 시대 할 땐 공기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11042 # 공긴 저 돌새기 다섯 개 못아근에 영영영영 허는 거.(공기는 저 돌맹이 다섯 개 마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111042 @ 영영 허는 거.(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111042 # 응, 거 공기주게.(응, 그거 공기지.)

111042 @ 거 순서대로 처음엔 어떻게허여?(그거 순서대로 처음엔 어떻게 해?)

111042 # 채암은 영행 다섯 개 해냥 다섯 개 영 행 뿌려냥 허민 영행 하나 앓곡.(처음은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해놔서 다섯 개 이렇게 해서 뿌려놔서 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 가지고.)

111042 @ 하나 잡곡.(하나 잡고.)

111042 # 영행 하나 잡곡.(이렇게 하나 잡고.)

111042 @ 응.(응.)

111042 # 영행 하나 잡곡. 게민 따시 또 이제 따시 다섯 개민 네 개 다 놀 거 아니냐?(이렇게 하나 잡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다시 다섯 개면 네 개 다 놀 거 아니냐?)

111042 @ 예.(예.)

111042 # 네 개 다 혼 번 톡하게 네 꺾 다 잡아야.(네 개 다 한 번 톡하게 네 꺾 다 잡아야.)

111042 @ 아, 혼 번 톡 잡앙. 그다음에 두 번째는?(아, 한 번 톡 잡아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111042 # 두 번째가, 마지막은 경행 잡으민 아주 새 판이라.(두 번째가, 마지막은 그렇게 해서 잡으면 아주 새 판이야.)

111042 @ 아, 두 개씩은 안 잡아? 영 두 개씩은.(아, 두 개씩은 안 잡아? 이렇게 두 개씩은.)

111042 # 두 개씩, 하나로 두 개씩, 세 개씩, 몬 잡당 네 갠 흠치 메와냥, 네 개 흠치 잡앙 경행 그거 영행 올려사 갠 안허민 안 돼는 거.(두 개씩, 하나로 두 개씩, 세 개씩, 모두 잡아서 네 갠 함께 메워봐. 네 개 함께 잡아서 그렇게 해서 그거 이렇게 해서 올려야 그렇게 안하면 안 되는 거.)

111042 @ 이디, 이디 안 올려?(여기, 여기 안 올려?)

111042 # 그레 안 올려. 그땐 경 올리지 안 해, 영 허민 영 받아. 그거 다섯 경 허민 영 올리민 다섯 꺾 다 받았어.(그리 안 올려. 그땐 그렇게 올리지 않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아. 그거 다섯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다섯 개를 다 받았어.)

111042 @ 아, 다섯 개 흠치 톡 던정 다 받아사.(아, 다섯 개 한꺼번에 톡 던져서 다 받아야.)

111042 # 응, 옛날에. 거 참 경헤났주.(응, 옛날에. 그거 참 그랬었지.)

111042 @ 응. 경허민 뭐 우리 혈 때는 일 년, 이 년 막 영 헤나신디 할머니넌 어떻 헤근에.(응. 그러면 뭐 우리 할 때는 일 년, 이 년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할머니네는 어떻게 해서.)

111042 # 아니 경 헛주. 일 년, 이 년은 안 헤보고. 거 무신.(아니 그렇게 했지. 일 년, 이 년은 안 헤보고. 그거 무슨.)

111042 @ 응.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라, 게민?(응.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111042 # 경헤영 그추룩 행 헌 것가 이기는 사람이 영행 허는 것가 흠치 다섯 개.(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이기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함께 다섯 개.)

111042 @ 둘 다, 둘 다 흠치 둘 다 다 잡으민.(둘 다, 둘 다 함께 둘 다 다 잡으면.)

111042 # 다섯 개 다 잡아사.(다섯 개 다 잡아야.)

111042 @ 둘이 다 다 잡으민.(둘이 다 다 잡으면.)

111042 # 혼 사람만 행 혼 사람이 이편 사람 잡은 사람 따시 무너왔고 다른 사람이 혈 거주게.(한 사람만 해서 한 사람이 이편 사람 잡은 사람 다시 물러왔고 다른 사람이 할 거지.)

111042 @ 아.(아.)



111042 # 그때 사름 따시 안허여. 지민 안 해여.(그때 사람 다시 안 해. 지면 안 해.)

111042 @ 지민 안 해여, 아.(지면 안 해, 아.)

111042 # 경허주 내긴 안 해봤주게.(그러지 내기는 안 해봤지.)

111042 @ 응.(응.)

111043 # 옛날에 어디 돈 성 돈내기 헐 말이라? 우리 이디 오란도 혼 몇 년, 혼 오 년 전이랏자 저, 웃 울어근에 돈 혼 열 판 역버리게 헐사 돈 백 원, 이백 원 내 영 허는디 이제 노인당에 텅기는 아이덜 돈 이백 원 저도 돈 이백 원 안 내는 사름 도 이서.(옛날에 어디 돈 있어서 돈내기 할 말이나? 우리 여기 와도 한 몇 년, 한 오 년 전이어도 저, 웃 놀이 해서 돈 한 열 판 일부러 해야 돈 백 원, 이백 원 내어서 하는데 이제 노인당에 다니는 아이들 돈 이백 원 저도 돈 이백 원 안 내는 사름 도 있어.)

111043 @ 하하하.(하하하.)

111043 # 다른 사름덜은 다 내도. 경혜영 사탕 다마 한 봉지 헤나신디 그것도 안 내는 사름은 안 내어.(다른 사람들은 다 내도. 그렇게 해서 사탕 구슬 한 봉지 했었는데 그것도 안 내는 사름은 안 내어.)

### 웃놀이

111058 @ 응. 그믐 웃도 놀아났지예?(응. 그러면 웃도 놀았었지요?)

111058 # 응.(응.)

111058 @ 웃 노는 건 어떻 행 허는 거파?(웃 노는 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11058 # 웃도 행 네 개 허민, 네 개 혜영 다 해여근에 허민 모만 혜영 네 개 다 어퍼진 사름, 모 혜영 그거 나온 사름이 잘허는 사름이고, 그것도 다 못허민 것도 다시 안 놓주게. 못허게 다른 사름이 허곡게.(웃도 해서 네 개 하면, 네 개 해서 다 해서 하면 모만 해서 네 개 다 엮어진 사람, 모 해서 그거 나온 사람이 잘하는 사름이고, 그것도 다 못하면 그것도 다시 안 놓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하고.)

111058 @ 모도 잇고 또 무신것도 이수과?(모도 잇고 또 무엇도 있습니까?)

111058 # 케.(개.)

111058 @ 케.(개.)

111058 # 토.(도.)

111058 @ 토.(도.)

111058 # 슷.(웃.)

111058 @ 슷.(웃.)

111058 # 네 개 현 거 모.(네 개 한 거 모.)

111058 @ 모, 아.(모, 아.)

111058 # 경허민 모 잘 내우는 사름은 모가 잘 나는디 안 나는 사름은 안 나.

(그러면 모 잘 안 내는 사람은 모가 잘 나는데 안 나는 사람은 안 나.)

111058 @ 걸 잊지 안해, 걸.(걸 잊지 않아, 걸.)

111058 # 걸.(걸.)

111058 @ 도, 개, 걸, 웃, 모.(도, 개, 걸, 웃, 모.)

111058 # 걸이게 토주게.(걸이 도지.)

111054 @ 응. 그 웃 낡은 뭘로 만들야?(응. 그 웃 나무는 뭘로 만들어?)

111054 # 아무 낡이라도 해.(아무 나무라도 해.)

111054 @ 옛날에도?(옛날에도?)

111054 # 돛박낡, 돛박낡.(돛박나무, 돛박나무.)

111054 @ 아, 옛날엔 돛박낡으로.(아, 옛날엔 돛박나무로.)

111054 # 요맨씩 허주, 요맨씩, 요맨씩.(요만큼씩 하지, 요만큼씩, 요만큼씩.)

111056 @ 경행 종지에 답양?(그렇게 해서 종지에 답아서.)

111056 # 아니 건 녀둑베기고.(아니 그건 ‘녀둑베기’고.)

111056 @ 건 녀둥베기.(그건 ‘녀둥베기’.)

111056 # 녀둑베긴 남저나 허는 거주.(‘녀둑베기’는 남자난 하는 거지.)

111056 @ 아.(아.)

111056 # 건 남저덜 허는 거. 이맨씩 헌 거 그자 행 영행 쏙허게. 어떤 땐 훗나 가라 슯이여, 무시거여 허명덜 그거 해낫어.(그건 남자들 하는 거. 이만큼씩 한 거 그저 해서 이렇게 해서 쏙하게. 어떤 땐 하나 가라 웃이다, 무엇이다 하면서 그거 했었어.)

111056 @ 응.(응.)

111058 # 거 무신 내기허명 해낫어? 장난으로.(그거 무슨 내기하면서 했었어? 장난으로.)

111058 @ 장난으로 그냥예.(장난으로 그냥요.)

111058 # 어디 내기허곡 하간 거. 돈 엇주. 옛날은 돈 십 전짜리, 일 원짜리가 어디 경 쉬와낫어?(어디 내기하고 온갖 거. 돈 없지. 옛날은 돈 십 전짜리, 일 원짜리가 어디 그렇게 쉬웠었어?)

111058 @ 게난예.(그러니까요.)

111058 # 옛날에 돈 백 원이민 밧 하나, 우리 두린 때.(옛날에 돈 백 원이면 밧 하나, 우리 어린 때.)

### 빨기치기

111071 @ 응, 빨기치기.(응, 빨기치기.)

111071 # 빨기치기 남저허는 거주, 거 여청 허는 거라?(빨기치기 남자하는 거지, 그거 여편네 하는 거야?)

111071 @ 아.(아.)

111071 # 소나이덜 허는 거주.(사내아이들 하는 거지.)

111071 @ 아니 뽕이 빠래.(아니 뽕기 빠러.)

111071 # 뽕이 빠래.(뽕기 빠러.)

111071 @ 예, 뽕이 빠래 안 텅겨난?(예, 뽕기 빠러 안 다녔었어?)

111072 # 뽕이 빠래 우리 두린 때 뽕이 빠래 헛쓸 텅겨주. 요 드르에 강 뽕이치기 허멍. 것도 영 심영 여영여영해근에 요영 혹허게 허민 요디 고망 나민 그거 영행 혼 줌 심은 거 다 심으민 다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민 안 돼곡.(뽕기 빠러 우리 어린 때 뽕기 빠러 조금 다녔지. 요 들에 가서 뽕기치기 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혹하게 하면 요기 구멍 나면 그거 이렇게 해서 한 줌 잡은 거 다 잡으면 다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면 안 되고.)

111072 @ 게난 그거 뽕이치기에.(그러니까 그거 뽕기치기요.)

111072 # 응, 뽕이치기.(응, 뽕기치기.)

111073 @ 뽕이 빠당예.(뽕기 빠다가요.)

111073 # 응, 그거, 그거.(응, 그거, 그거.)

111073 @ 그거 남저덜 허는 거?(그거 남자들 하는 거?)

111073 # 아니, 여저덜토 그건 허주.(아니, 여자들도 그건 하지.)

111073 @ 여저덜토 허지예?(여자들도 하지요?)

111073 # 응, 허주게. 그건 해 봤주.(응, 하지. 그건 다 해 봤지.)

## 고무줄놀이

111077 @ 예. 고무줄.(예. 고무줄.)

111077 # 고무줄 뽕레기도 안 해보고.(고무줄 뛰기도 안 해보고.)

111077 @ 안 해봤?(안 해봤어?)

111077 # 응, 그 고무줄도 아이덜 학생, 학교에 텅겨사 고무줄치기 헛주. 옛날에 학교에 텅긴 아이덜 셔?(응, 그 고무줄도 아이들 학생, 학교에 다녀야 고무줄치기 했지. 옛날에 학교에 다닌 아이들 있어?)

111077 @ 아.(아.)

111077 # 옛날엔 국민학교 혼 아이덜 엇엇주. 국민학교 나갈 때사 그거 고무줄도 낫주. 그 지집아이덜 허주. 옛날은 국민학교가 국민학교 이 간이학교가 옛날에 간이학교가 국민학교.(옛날엔 국민학교 한 아이들 없었지. 국민학교 나갈 때야 그거 고무줄도 나왔지. 그 계집아이들 하지. 옛날은 국민학교가 국민학교 이 간이학교가 옛날에 간이학교가 국민학교.)

111077 @ 응.(응.)

111077 # 옛날 우리집이 아방도 어디 난산인가 어디 간이학교 허젠 허난에 옛날엔 그 학교에 뽕아가민 학생들 어디서 뽕아가민 지름 쥘 아이덜 쓰멍 공부 못허게 빠어. 우리 두린 때 경허멍 공부 못허게 해.(옛날 우리집 아버지도 어디 난산인가 어디 간이학교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그 학교에 뽕아가면 학생들 어디서 뽕아가면 기름 줘서 아이들 쓰면서 공부 못하게 빠. 우리 어린 때 그렇게 하면서 공부 못

하게 해.)

111077 @ 아.(아.)

111077 # 우리 삼촌덜토 그거 공부허렌 어디 성읍리헿 뽐아가난 우리 할머니  
돛박지름 맡아주멍 거 빼언.(우리 삼촌들도 그거 공부하라고 어디 성읍리 해서 뽐아  
가니까 우리 할머니 동백 기름 맡아주면서 그거 빼서.)

111077 @ 뭇허멍? 돛박질?(뭇하면서? 동백길?)

111077 # 돛박지름.(동백기름.)

111077 @ 응.(응.)

111077 # 앓다주멍 그거 학교에 빼난 그거 무이시키젠 거 주멍 빼언, 아이고.(가  
쳐다주면서 그거 학교에 빼니까 그거 무마시키려고 그거 주면서 빼었어, 아이고.)

111077 @ 공부시키지 말렌?(공부시키지 말라고?)

111077 # 공부시키지 말젠. 돈 들 때난.(공부시키지 말라고. 돈 들 때니까.)

111077 @ 일 시키젠?(일 시키려고?)

111077 # 일 시키고 돈 들 거 아냐게?(일 시키고 돈 들 거 아니냐?)

111077 @ 아.(아.)

111077 # 돈 엇이난. 계난 그추룩허멍 아무것도 못헿 늠덜은 옥아도 헿젠 헿도  
따시 또 열흔 살에 저 우이 살단 이디 오란 허난에 어멍 이디 오란 집 지선 살젠  
허난, 요디 상삿집 요 들어오는 도에 그 시방 그 저 지서 사름 신 디, 그 집이 그거  
말고 어디 상삿터디 그디 학교에 하루 오고 야학소 헿에 가르치난 그디 야학소엔  
허멍 아무것도 못헿본디 이틀 처낙 오난, 우리 작은삼촌 못 탱기게 허난 그냥 설러  
부난. 이녁 이름 익을 중도 몰란 이제도록 살았어.(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서 남들은 커도 했다고 헿도 다시 또 열한 살에 저 위에 살다  
가 여기 와서 하니까 어머니 여기 와서 집 지어서 살려고 하니까, 요기 ‘상삿집’ 요  
들어오는 입구에 그 시방 그 저 지서 사람 있는 데, 그 집에 그거 말고 어디 ‘상삿  
터’인데 거기 학교에 하루 오고 야학소 해서 가르치니까 거기 야학소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 봤는데 이틀 저녁 오니까, 우리 작은삼촌 못 다니게 하니까 그냥 그만  
뒹버리니까. 자기 이름 읽을 줄도 몰라서 이제도록 살았어.)

111077 @ 상서칩은 무신거마씨?(‘상서칩’은 뭇예요?)

111077 # 상삿집이엔 현 건 믋을훼관. 이제 믋뜨민 믋을훼관.(‘상삿집’이라고 한  
건 마을 회관. 이제 같으면 마을회관.)

111077 @ 아. 그게 상삿집.(아, 그게 ‘상삿집’.)

111077 # 응, 옛날엔 상삿집.(응, 옛날엔 ‘상삿집’.)

111077 @ 응.(응.)

111077 # 그디 헿난, 요디 서낫주게.(거기 헿었어, 요기 있었지.)

111077 @ 응.(응.)

111077 # 계난 공부허는 사름덜은 국민학교 엇곡 허난 그디 학교 그디 오란 야  
학허는 거.(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국민학교 없고 하니까 거기 학교 거기 와서

야학하는 거.)

111077 @ 아.(아.)

111077 # 옛날엔 야학, 야학.(옛날엔 야학, 야학.)

111077 @ 예.(예.)

111077 # 그거 행 이 동네타이덜 배우고 난 것도 못 해연.(그거 해서 이 동네 아이들 배우고 난 것도 못 했어.)

111077 @ 응.(응.)

111077 # 경허난 결혼 해영도 일만 허멍 따시 경 홀어멍 생활허고 아이덜 벌곡 허난 어디 아방신티 글 배울 정신 서시냐? 경허난 밤이 들고 밤이 나곡 허민 밤이 누웁 줌 자곡 그거 헐 저르가 게난 공부 통 못해, 이녁 일름젤 몰라, 나가.(그러니까 결혼 해서도 일만 하면서 다시 그렇게 홀어머니 생활하고 아이들 벌고 하니까 어디 아버지께 글 배울 정신 있었니? 그러니까 밤에 들고 밤에 나고 하면 밤에 누워서 잠자고 그거 할 겨를이 그러니까 공부 통 못해, 자기 이름자를 몰라, 내가.)

111077 @ 응.(응.)

111077 # 경 안행 다 일름젤 알아시민 나도 경 멍청허겐 안 살아실 건디.(그렇게 안해서 다 이름자를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멍청하게는 안 살았을 건데.)

111077 @ 하하하.(하하하.)

111077 # 나 인생 참, 몰른 인생이주.(나 인생 참, 모른 인생이지.)

111077 @ 할머니 영 줄넘기 허는 건?(할머니 이렇게 줄넘기 하는 건?)

111077 # 것도 그런 것도 엇어.(그것도 그런 것도 없어.)

## 줄넘기

111078 @ 건 뭐엔 골아? 줄넘기엔 골아, 베틸락이엔.(그건 뭐라고 말해? 줄넘기라고 말해, 줄넘기라고.)

111078 # 줄넘기 영영영 베뛰기덜.(줄넘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줄넘기들.)

111078 @ 베뛰기?(줄넘기?)

111078 # 응.(응.)

111078 @ 영 둘리 상 영영 돌리는 건?(이렇게 둘이 서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건?)

111078 # 건 고무줄이주게.(그건 고무줄이지.)

111078 @ 아니 베로.(아니 바로.)

111078 # 베로. 것도, 그것도 우리 안 해부난 몰르주, 무신거 우리 그런 거 해봤어? 그때 엇은 때난 우리 역은 후제도 베라고 학교 텅겨가고 하간 거 해가난 그런 거 셋주, 옛날에 엇어, 중간쯤에도 엇어났어, 거.(바로. 그것도, 그것도 우리 안 해버리니까 모르지, 무엇 우리 그런 거 해봤어? 그때 없을 때니까 우리 큰 후에도 바로 학교 다녀가고 온갖 거 해가니까 그런 거 있었지, 옛날에 없어, 중간쯤에도 없었어, 그거.)

### 그네뛰기

- 111081 @ 그네, 그네. 낭에 영 줄 매어근에.(그네, 그네. 나무에 이렇게 줄 매어서.)
- 111081 # 굴메트기게.(그네뛰기.)
- 111081 @ 무신거 트기?(무엇 뛰기?)
- 111081 # 굴메.(그네.)
- 111081 @ 굴메 트는 거?(그네 뛰는 거?)
- 111081 # 응.(응.)
- 111081 @ 그건 옛날에 이서낫수과?(그건 옛날에 있었습니까?)
- 111081 # 것도 신식 나가사 헛주. 스몓 옛날엔 엇어낫어.(그것도 신식 나가야 했지. 사몓 옛날엔 없었었어.)
- 111081 @ 아.(아.)
- 111081 # 옛날 아무것도 엇어낫어.(옛날 아무것도 없었었어.)
- 111081 @ 할머니 굴메는 잘 틀 거 닙아, 굴메도예.(할머니 그네는 잘 뒀 거 같아, 그네도요.)
- 111081 # 게, 안 해봣어, 우리.(그러게, 안 해봣어, 우리.)
- 111081 @ 안 해봣어.(안 해봣어.)
- 111081 # 게 옛날에 거난 톨암주게. 옛날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엇어낫젠 허난. 우리 시절엔 아무것도.(그러게 옛날에 그러니까 말하고 있지. 옛날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었었다고 하니까 우리 시절엔 아무것도.)
- 111081 @ 아무것도 엇어낫어.(아무것도 없었었어.)
- 111081 # 우리 두린 땐 아무것도 엇어. 우리 여남은 술꺄장 아무것도 엇어낫어.(우리 어린 땐 아무것도 없어. 우리 여남은 살까지 아무것도 없었었어.)

### 소꿉장난

- 111086 @ 지난번에 얘기헌 거 그거 이수게? 소꿉장난.(지난번에 얘기한 거 그거 있잖습니까? 소꿉장난.)
- 111086 # 소꿉장난헌 건 그건 혼 열, 열혼 술에 나가 이디 오란 열두어 술, 열서너 술 날 때 저 성창 이디 느려가민 성창 잇주. 거민 그디 가근에 고메기 잡앙, 고메기 강 물덕에 강 잡아다근에 고등 딱살 봐근에 영 솟 앓정 이녁 살림 살듯 그것에 낱 솥앙 열아 먹기, 그거 해낫주게. 윈 그 장난이 그거라. 물 들레 강도 물질 베울 때난 물에 들레 가근에 물에 안 들민 앓앙 그거 돌구멍에 성창에 돌구멍에덜 앓앙 서너이덜 앓앙 그거 해낫주.(소꿉장난한 건 그건 한 열, 열한 살에 내가 여기 와서 열두어 살, 열서너 살 낫을 때 저 갯머리 여기 내려가면 갯머리 있지. 그러면 거기 가서 고등 잡아서, 고등 가서 ‘물덕’에 가서 잡아다가 소라 꺾데기 봐서 이렇게 술 언쳐서 자기 살림 살듯 그것에 봐서 삶아서 열어 먹기, 그거 했었지. 윈 그

장난이 그거야. 물 들어가려고 가셔도 물질 배울 때니까 물에 들어 가려고 가서 물에 안 들어가면 앉아서 그거 돌구멍에 갯머리에 돌구멍에들 앉아서 서너 명이 앉아서 그거 했었지.)

111086 @ 불로 진짜 숨는 거 아니고 숨는추룩 허는 거주예?(불로 진짜 때는 거 아니고 때는 거처럼 하는 거지요?)

111086 # 아니 불로 숨아.(아니 불로 때.)

111086 @ 아, 진짜로 불로?(아, 진짜 불로?)

111086 # 성창이 물덕이난 바당, 바당 덕이난.(갯머리가 ‘물덕’이니까 바다, 바다 ‘덕’이니까.)

111086 @ 응.(응.)

111086 # 바당덕이난 이거 바당이고 요영현 돌고망에 앓앙 그거 헤낫주게.(‘바당 덕’이니까 이거 바다고 요렇게 한 돌구멍에 앉아서 그거 했었지.)

111086 @ 진짜 불 때멍?(진짜 불 때면서?)

111086 # 응, 불 숨앙 성창에 숨베기 헤영 불 숨으멍.(응, 불 때서 갯머리에 숨베기 해서 불 때면서.)

111086 @ 성창에 무시거 숨베기?(갯머리에 무엇 숨베기?)

111086 # 성창이 숨베기 남 잊주게.(갯머리에 숨베기 나무 있지.)

111086 @ 예.(예.)

111086 # 그거 꺼끄멍게.(그거 꺾으면서.)

111086 @ 아.(아.)

111086 # 저슬에게. 하하하.(겨울에. 하하하.)

111086 @ 하하하. 경행 진짜 고메기 잡앙 숲앙?(하하하. 그렇게 해서 진짜 고둥 잡아서 삶아서?)

111086 # 응, 숲앙, 춤고메기 숲앙, 여남은 방울 숲앙, 숲앙 먹으멍 장난이 그거.(응, 삶아서, 남방울타리고둥 삶아서, 여남은 방울 삶아서, 삶아서 먹으면서 장난이 그거.)

111086 @ 하하하.(하하하.)

111086 # 그거 헤낫어. 혼 열두어 술 그때 난 때주게.(그거 했었어. 한 열두어 살 그때 난 때지.)

111086 @ 뭐 다리 이렇게 영 놔근에 영영허는 것도 이수게?(뭐 다리 이렇게 이렇게 놔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 ‘한다리인다리’

111082 # 혼다리인다리<sup>214)</sup>헌 거.(‘한다리인다리’한 거.)

111082 @ 응, 그건 뭐라?(응, 그건 뭐야?)

111082 # 그건 요영행 앓앙 너이, 들리 영 맞닿앙 허민 혼다리인다리 허당 똑

214) ‘혼다리인다리’는 다리세기 놀이를 할 때 부르는 제주도 구전 동요다.

허민 요거 아정 해팅 또 허곡. 그건 허여.(그건 요렇게 앉아서 넷이, 둘이 이렇게 맞닿아서 하면 ‘흔다리인다리’하다고 꼭 하면 요거 가져서 해두고 푹 하고. 그건 해.)

111083 @ 것도 노래 이수게, 흔다리인다리 그다음?(그것도 노래 있잖습니까, ‘흔다리인다리’ 그다음?)

111083 # 거 몰라, 흔다리인다리 것도 잊어버리게.(그거 몰라, ‘흔다리인다리’ 그 것도 잊어버렸지.)

111084 @ 어떻허민 영 다리 헉나 빼는 거라?(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리 하나 빼는 거야?)

111084 # 요영 흔다리인다리밧다리 영헤가민 탁 맞아볼민 경허민 다리 제해볼 거.(요렇게 ‘흔다리인다리밧다리’ 이렇게 해가면 탁 맞아버리면 그러면 다리 제해버릴 거.)

111084 @ 아.(아.)

111084 # 어떤 사름 문딱 해볼고 어떤 사름 안 걸린 사름은 안 허곡 그자.(어떤 사람 모두 해버리고 어떤 사람 안 걸린 사람은 안 하고 그저.)

111084 @ 켈 나중에 안 걸린 사름이 이기는 거라?(제일 나중에 안 걸린 사람이 이기는 거야?)

111084 # 응, 그거 해난.(응, 그거 했었어.)

111085 @ 건 언제 허는 거파?(그건 언제 하는 겁니까?)

111085 # 아니 그거 저슬에 놀민게, 놀당 방안에나 앓인 땐.(아니 그거 겨울에 놀면, 놀다가 방안에나 앓은 땐.)

111085 @ 방안에 앓이민.(방안에 앓으면.)

111085 # 응. 경행 경허고 자꾸 해보진 안허고 싯당 혼 번 해봣주. 경허곡 뚝덜, 옥아가민 따시 또 뚝 차는 사름, 삼 삼는 사름 허난 이제 앓앙 놀주, 삼스월이나 나민 그땐 헉썰 트멍 나주. 혼 삼월 나가민 헉썰 고망 나. 쟁허민 그땐 따시 또 고사리 거끄레 텅기고.(응. 그래서 그리고 자꾸 해보지는 앓고 있다가 한 번 해봣지. 그리고 뚝덜, 커가면 다시 또 뚝 짜는 사람, 삼 삼는 사람 하니까 이제 앓아서 놀지, 삼사월이나 나면 그땐 조금 틈 나지. 한 삼월 나가면 조금 구멍 나. 그러면 그땐 다시 또 고사리 꺾으러 다니고.)

111085 @ 아, 맞아, 고사리 꺾끄레 텅기고.(아, 맞아, 고사리 꺾으러 다니고.)

111085 # 마농 캐레 텅기고.(마늘 캐러 다니고.)

111085 @ 응.(응.)

111085 # 풀늬물 캐레 텅기고.(풋나물 캐러 다니고.)

111085 @ 게메예.(그러게.)

111085 # 이젠 나 살듯 삶이난, 아무것도 안해도 살암주게.(이젠 나 살듯 삶이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살고있지.)

111085 @ 예.(예.)



111085 # 그땐 경허멍 살안. 장난으로게 누물 캐레도 가민 버데 강은에 막 돌아간다 돌아온다 누물은 베랑 안 캐고 돌아간다 돌아온다 해낫주.(그땐 그러면서 살안. 장난으로 누물 캐레도 가면 같이 가서 막 달려간다 달려온다 누물은 별로 안 캐고 달려간다 달려온다 했었지.)

111085 @ 응.(응.)

111085 # 고사리 꺼끄레도 그땐 아척이 혼 땃 시 땤가민 따시 또 혼 네 시만, 세 시만 땤가민 고사리 꺼끄레 가꼭 저 우이 가고. 꺼꺼 아정 오고.(고사리 꺾으러도 그땐 암친 한 땃 시 되어가면 다시 또 한 네 시만, 세시만 되어가면 고사리 꺾으러 가고 저 위에 가고. 꺾어 가져서 오고.)

111085 @ 응. 아이덜이영 ㄴ치?(응. 아이들이랑 같이?)

111085 # 응.(응.)

111085 @ 어무니영 ㄴ치 가는 거파?(어머니랑 같이 가는 겁니까?)

111085 # 아니 어떻넌, 아이덜 혼 땃이 행 말테 들듯 돌아 땡기당 돌아오곡. 고사린 베랑 꺼끄멍 돌아땡것어?(아니 어머니넌, 아이들 한 땃이 해서 말테 달리듯 달려 다님다가 돌아오고. 고사린 별로 꺾으면서 돌아다녔어?)

111085 @ 고사리도 안 꺼끄고 그냥?(고사리도 안 꺾고 그냥?)

111085 # 강 돌아땡기당 보민 고사린 꺼꺼서?(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고사린 꺾었어?)

111085 @ 예.(예.)

111085 # 구덕 창에 부시데경 오곡 허멍.(구덕 차서 ‘부시데경’ 오고 하면서.)

## 12. 통과 의례

### 출생

112001 @ 애기 태어나는 애기 물어볼 건디에 옛날에 애기 가지면예 이젠 무신 애기 태교여 무신거여 허멍 노래도 듣고 무신거 험니께?(아기 태어나는 애기 물어볼 건데요 옛날 아기 가지면요 이젠 무슨 아기 태교다 무엇이냐 하면서 노래도 듣고 무엇 하잖습니까?)

112001 # 응, 옛날엔 그거. 애기 배도 옛날에 사름들은이 애기 뻐 거 창피시러 왕 애기 뻐 거 말도 못 해낫주, 경 이젿사름추룩 자랑해낫어? 애기 뻐 거도 못 곤고 경 애기 싫을 자랑을 해낫이냐?(응, 옛날엔 그거. 아기 배도 옛날에 사름들은 아기 뻐 거 창피해서아기 뻐 거 말도 못 했었지, 그렇게 이제 사람처럼 자랑했었어? 아기 뻐 것도 못 말하고 그렇게 아기 싫을 자랑을 했었니?)

112010 @ 게도 애기 배민 뭘 허민 안 땤고 뭘 애기안티 좋고 영허는 거 엇어낫수과?(그래도 아기 배면 뭘 하면 안 되고 무었은 아기에게 좋고 이렇게 하는 거 없었습니까?)

112010 # 그 엇어났어. 거 애기 남이엔 나는 거주 무신 요새 ㄱ치 들받으멍 애기 낳이냐?(그 없었었어. 그거 아기 남이라고 나는 거지 무슨 요새처럼 받들어서 아기 낳았니?)

112010 @ 하하하.(하하하.)

112010 # 나도 애기 으섯 개 낳주만은 우리 애기 들받앙 낳지 안해봐.(나도 아기 여섯 개 낳았지만 우리 아기 ‘들받앙’ 낳지 안았어.)

112010 @ 들받앙?(‘들받앙’?)

112010 # 들받음이엔 현 건 우쭈왕<sup>215)</sup>. 아기 배엇젠.(‘들받음’이라고 한 건 위로 받들어서, 아기 배었다고.)

112010 @ 아, 우쭈왕.(아, 위로 받들어서.)

112010 # 우쭈는 거 해왔이나? 누게신디 시어멍도 엇고 시아방도 엇고 시누이도 엇고 아무것도 엇으난 누게 동네사람이 애기 뱃젠 허민 저 사람은 서방광 혼디 뵈젠 부치르왕 창피나시렵주 경 자랑해났이나?(위로 받드는 거 해왔니? 누구에게 시어머니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시누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 동네 사람이 아기 뱃다고 하면 저 사람은 서방과 함께 누었다고 부끄러워서 창피나스럽지 그렇게 자랑했었니?)

112002 @ 응. 애기 낳젠 허민 미리 준비해 놔둬야 돼는 거 뭐 잇수과?(응. 아기 낳으려고 하면 미리 준비해 둬야 되는 거 뭐 있습니까?)

112002 # 준비, 무신 준비. 옛날엔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해났저.(준비, 무슨 준비. 옛날엔 준비도 아무것도 안 했었어.)

112002 @ 게도 지성귀라도게.(그래도 기저귀라도.)

112002 # 아무것도 안 해난.(아무것도 안 했었어.)

112002 @ 아무것도 안 해난.(아무것도 안 했었어.)

112006 # 옛날은 아무것도 안 행 아이고, 낳민 옛날에 첫 애기 낳민, 따시 빌영 입진 사람, 애기 낳근에 안 죽어비영, 잘 키운 사람은 애기 옷을 그 첫 옷을 빌어당 입져.(옛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고, 낳으면 옛날에 첫 애기 낳으면, 다시 빌어서 입힌 사람, 아기 낳아서 안 죽어버려서, 잘 키운 사람은 아기 옷을 그 첫 옷을 빌어다가 입혀.)

112006 @ 아.(아.)

112006 # 경 행 입지지 안허고 빌어당 입지고 허는 사람은 베헤여근에 이 베헤영 이디 이몸<sup>216)</sup>허고 소미행 진진허게 해근에 곧짜허게 행 그거 행 혼 일주일은 거 베옷 입져.(그렇게 해서 입히지 않고 빌어다가 입히고 하는 사람은 베 해서 이 베 해서 여기 ‘이몸’하고 소매해서 길게 해서 곧게 해서 그거 해서 한 일주일은 그거 베옷 입혀.)

112006 @ 그 옷 이름은 무신거라?(그 옷 이름은 뭐야?)

215) ‘우쭈다’는 위로 받들다는 뜻이다.

216) ‘이몸’은 저고리나 적삼의 몸통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112006 # 베, 붓데, 붓땃웃, 붓땃웃.(베, ‘붓데’, 배내웃, 배내웃.)

112006 @ 붓땃웃?(배내웃?)

112006 # 응.(응.)

112006 @ 아, 붓땃웃예?(아, 배내웃요?)

112006 # 응, 붓땃웃. 거 빌영도 입지꼭 해낫주.(응, 배내웃. 그거 빌어서도 입히고 했었지.)

112006 @ 늬 입던 거? 잘 큰 아이 거예?(남 입던 거? 잘 큰 아이 거요?)

112006 # 응, 붓땃웃.(응, 붓땃웃.)

112002 @ 이런 것도 미리 멘들앙, 빌어당 놔두든가 해야될 거 아니?(이런 것도 미리 만들어서.(이런 것도 미리 만들어서, 빌어다가 놔두든가 해야될 거 아니?)

112002 # 아니, 아니 허주. 그 머리만 곱으민 그거 애기 낳민 그냥 빌어당 머리만 곱으민.(아니, 안 하지. 그 머리만 곱으면 그거 아기 낳으면 그냥 빌어다가 머리만 곱으면.)

112002 @ 아, 애기 난 다음에.(아, 아기 낳은 다음에.)

112002 # 응, 옛날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낫어. 이젯 사름 무신 다 해도 그건 안 헨.(응, 옛날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었어. 이제 사람 무슨 다 해도 그건 안 했어.)

112002 @ 애기 낳 땐 어떻 낳니까?(아기 낳을 땐 어떻게 낳습니까?)

112002 # 애기 낳 땐 그 애기빠 맞춰 아광 죽어가갸민게 막 낳 때 행 돼갸민 누게 안앙 오랑 앞으로라도 준등이나 꼭 안아근에 꼭 누르뜨민 나주게.(아기 낳을 땐 그 애기빠 맞춰서 아파서 죽어가면 막 낳을 때 해서 되어가면 누가 안아서 와서 앞으로라도 등이나 꼭 안아서 꼭 누르면 낳지.)

112002 @ 준등이 어디?('준등'이 어디?)

112002 # 이 앞으로 해근에 이 준등이 해근에 영행 이 허리 꼭 아프나, 영 이제 영 마주앗지 안헨서? 앓앙 꼭허게시리 이 동무릅해영 받아주민 영 뺄 꼭 누르뜨주. 동무릅으로 경허민 그 짐에 나오주. 경허고 우린 경도 안허고 죽기 아니민 살기로 낳아낫주. 애기 으섯 개 나도 경 사름 알게 안 해봤저.(이 앞으로 해서 이 등에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허리 꼭 아프거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주 앓지 앓았니? 앓아서 꼭하게끔 이 무릎해서 받아주면 이렇게 배를 꼭 누르지. 무릎으로 그렇게 하면 그 짐에 나오지. 그리고 우린 그렇게도 안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낳았었지. 아기 여섯 개 낳아도 그렇게 사람 알게 안 해봤어.)

112002 @ 응.(응.)

112002 # 으섯 개 난 두 개, 딸 두 개 죽어버리고 시방 너 오누이 난 허난.(여섯 개 낳아서 두개, 딸 두 개 죽어버리고 시방 네 오누이 낳아서 하니까.)

112002 @ 애기 낳 때는 할머니 혼자 낳수과, 누게 영 받아주는 셔낫수과? 받는 할망?(아기 낳을 때는 할머니 혼자 낳았습니까, 누가 이렇게 받아주는 있었습니까? 받는 할머니?)

112002 # 저 우이 신 땀 저 그 큰시어멍 신 때 헤나고 이디 오란은 따시 또 애기 세 개 난 헛디 헛난 요 동넷할망 오란 헤나고 헛난, 둘은 따시 또 우리 시어멍 오랑, 아이덜 오랑, 아기 어멍 아기빠 맞창 굴으민, 오라근에 애기 누게 뱃줄이나 끈어주곡 헛주게.(저 위에 있을 땀 저 그 큰시어머니 있을 때 했었고 여기 와서는 다시 또 아기 세 개 낳아서 했는데 하니까 요 동네 할머니 와서 했었고 하니까, 둘은 다시 또 우리 시어머니 와서, 아이들 와서, 아기 어머니 아기 빠 맞춰서 말하면, 와서 아기 누가 뱃줄이나 잘라주고 했지.)

112002 @ 응.(응.)

112002 # 경혜영 가불민 이녁냥으로 머리 몸 감으민 피 부튼 거 뿔앙 입곡 모물궤루도 혼 번이나, 두 번이나 카칭 허민, 뒤 번 캥 먹으민 엇이민 밥헛 이녁냥으로 밥헛 먹엇주게. 무신 경 호강으로 살안 아기 낳시냐?(그렇게 해서 가버리면 자기대로 머리 몸 감으면 피 붙은 거 빨아서 입고 메밀가루도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타줘서 하면, 뒤 번 타서 먹으면 없으면 밥해서 자기대로 밥해서 먹었지. 무슨 그렇게 호강으로 살아서 아기 낳았니?)

112002 @ 애기 낳 때 막 아프진 안 헛? 할머니?(아기 낳을 때 막 아프진 았았어? 할머니?)

112002 # 애기 낳 허민 그땀 아방 신 땀 똑 애기 나민 그 훗배<sup>217)</sup> 아프지 말앙 탄약을 똑 세 첩혜영 거 착 글르게.(아기 낳아서 하면 그땀 아버지 있을 땀 꼭 아기 낳으면 그 ‘훗배’ 아프지 말아서 탄약을 꼭 세 첩해서 그거 짝 맞지 않게.)

112002 @ 아.(아.)

112002 # 그건 혜영 느랑 딸려줘. 갱허민 거 먹곡 허민 훗배가 아프진 안 허여. 애기 낳 때만.(그건 해서 늘 달여줘. 그러면 그거 먹고 하면 ‘훗배’가 아프진 았아. 아기 낳을 때만.)

112002 @ 애기 낳 땀 많이 힘들어?(아기 낳을 땀 많이 힘들어?)

112002 # 힘들어났주.(힘들었었지.)

112003 @ 땃줄허고 애기 헤난 건 그건.(땃줄하고 아기 했던 건 그건.)

112003 # 땃줄은 게메 누게 애기 난 땀 오랑 거 끈어줘.(땃줄은 그렇게 누가 아기 낳을 때 와서 그거 잘라줘.)

112003 @ 게민 그거 저 그 애기 그 나오는 거 이수게, 태?(그러면 그거 저 아기 그 나오는 거 있잖습니까, 태?)

112003 # 방, 애기방석.(방, 태반.)

112003 @ 방석.(방석.)

112003 # 마당에 낳 그스락이나 무시거 낳 요 올레드레나 낳 슬주게.(마당에 와서 까끄라기나 무엇 놔서 요 ‘올레’에 놔서 태우지.)

112003 @ 아, 슬아.(아, 살라.)

112003 # 슬아 비어, 케와 비어.(살라 버려, 태워 버려.)

217) ‘훗배’는 몸을 푼 뒤에 아픈 배를 말한다.

112003 @ 응.(응.)  
 112003 # 케와 비어.(태워 버려.)  
 112004 @ 게민 애기 곧 난 때는, 아까 무신 죽?(그러면 아기 곧 낳은 때는, 아까 무슨 죽?)  
 112004 # ㄱ루 캉.(가루 카서.)  
 112004 @ 모듈ㄱ루 캉예?(메밀가루 카서요?)  
 112004 # 응, 첫 번은 모듈ㄱ루 카.(응, 첫 번은 메밀가루 타.)  
 112004 @ 모듈ㄱ루 카근에 모듈, 카근에 먹어 그냥?(메밀가루 타서 메밀, 타서 먹어 그냥?)  
 112004 # 응, 모듈ㄱ루 캉.(응, 메밀가루 타서.)  
 112004 @ 수제비?(수제비?)  
 112004 # 응, 수제비ㄱ찌 허멍 말멍 물 싹싹 꿩 왕 물 거러냥 닥닥 좇앙 따시 또 더운물 거러논 거에 더불더불허민게 소금 농곡 해근에 주민 그거 먹었주게. 다 그거 애기 어멍.(응, 수제비처럼 하면서 말면서 물 싹싹 끓여서 물 떠놔서 닥닥 쪼아서 다시 또 더운물 떠 놓은 거에 ‘더불더불’하면 소금 넣고 해서 주면 그거 먹었지. 다 그거 아기 어머니.)  
 112004 @ 모듈만 낳? 다른 거 안 낳?(메밀만 놔서? 다른 거 안 놔서?)  
 112004 # 모듈 낳, 그 모듈.(메밀 놔서, 그 메밀.)  
 112004 @ 메역이라도 낳?(미역이라도 놔서?)  
 112004 # 아니 낳. 메역국은 밥행 줄 때 허는디 모듈ㄱ루 채암 카 줌은 애기 나 낳 그 곳은 피 삭, 빠지렌 그 모듈ㄱ루 해주는 거주, 방쉬<sup>218</sup>로게.(안 놔서. 미역국은 밥해서 줄 때 하는데 메밀가루 처음 타 줌은 아기 낳아나서 그 곳은 피 삭, 빠지라고 그 메밀가루 해주는 거지, 비방으로.)  
 112004 @ 응.(응.)  
 112004 # 쟁 그거 챗 애긴 집이서 난 사름은 거, 다 해주는 거.(그래서 그거 챗 애긴 집에서 난 사름은 그거, 다 해주는 거.)  
 112004 @ 모듈ㄱ루에 더운물 그냥 낳 카근에 그냥 먹어?(메밀가루에 더운물 그냥 놔서 타서 그냥 먹어?)  
 112004 # 물 싹싹. 모듈ㄱ루 낭퐁에나 놔근에 물 싹싹 꿩민 그레 국자로 거러놔 근에 휘휘 젓으민 저 팍팍 돼주. 돼민 따시 더운물 확 거러냥 닥닥 좇으민 것가 저 베기도, 저베기가 돼주게.(물 싹싹. 메밀가루 양퐁에나 놔서 물 싹싹 끓으면 그리 국자로 떠놔서 휘휘 저으면 저 팍팍 되지. 되면 다시 더운물 확 떠놔서 닥닥 쪼면 그것이 수제비도, 수제비가 되지.)  
 112004 @ 응.(응.)  
 112004 # 쟁행 모듈ㄱ루 익어.(그래서 메밀가루 익어.)

218) ‘방쉬’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좋지 못한 것을 막거나 몰아내는 징표로 하는 일로, 나쁜 것을 몰아내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방서, 방세’라고도 한다. ‘비방’으로 대역했다.

112004 @ 아, 솟디 낱 끌리는 게 아니고?(아, 솥에 놔서 끓이는 게 아니고?)

112004 # 끌렁은 그자 저베긴 허는디 끌리는데, 그건 경 안 해도 익어.(끓여서는 그저 수제빈 하는데 끓이는데, 그건 그렇게 안 해도 익어.)

112004 @ 익어, 더운물만 놔도예.(익어, 더운물만 놔도요.)

112004 # 응, 더운물 싹싹 꿰운 물만 놓민 익어. 경행 꿰왕 놔나민 그 물 솟디 레 쪽 뜯랑 다시 더운물 허민 그 솟디 낱, ㄱ뜯 거라, ㄱ찌 익어.(응, 더운물 싹싹 끓인 물만 놓으면 익어. 그렇게 해서 끓여서 놓고 나면 그 물 솥에 쪽 따라서 다시 더운물 하면 그 솥에 놔서, 같은 거야, 같이 익어.)

112004 @ 응.(응.)

112004 # 경행 주주. ㄱ 거 방세로 해주는 거주게.(그렇게 해서 주지. 그래서 그 거 ‘방세’로 해주는 거지.)

112004 @ 방서로예.(‘방서’로요.)

112004 # 응.(응.)

112004 @ 응. 그거 말고는 우린 난 애기 난 때 미역국 하영 먹으렌 헨게만은.(응. 그거 말고는 우린 난 아기 낳은 때 미역국 많이 먹으라고 하던데.)

112004 # 메역국은 그 모뎀ㄱ루 ㄱ 먹어나근에 일주일, 저 애기 머리몸 곱으민 애기 밥 해주주게.(미역국은 그 메밀가루 타서 먹어나서 일주일, 저 애기 ‘머리몸’ 곱으면 아기 밥 해주지.)

112005 @ 애기 몸곱으민?(아기 목욕하면?)

112005 # 머리몸이엔 헨 거라, 애기 낳 일주일, 저 머리몸 이틀 밤이나 오닐 나민 오늘 낮이 나민 이제 자고 널쳐냐 자나민 뒷날은 사흘차 날은 머리몸을 곱아, 쪽 삶아근에.(‘머리몸’이라고 한 거야, 아기 낳아서 일주일, 저 ‘머리몸’ 이틀 밤이나 오늘 낳으면 오늘 낮에 낳으면 이제 자고 내일 저녁 자고 나면 뒷날은 사흘째 날은 ‘머리몸’을 감겨, 쪽 삶아서.)

112005 @ 쪽 삶아근에, 애기 아니면 어멍?(쪽 삶아서, 아기 아니면 어머니?)

112005 # 애기도 곱지국 어멩도 곱아. 머리도 다 곱국 것도 방세로 뭐 속물 곱는 거.(아기도 감기고 어머니도 감고 해. 머리도 다 감고 그것도 ‘방세’로 뭐 속물 감는 거.)

112005 @ 응.(응.)

112005 # 경행 곱아나민 그제사 밥허국 메역국 끌렁줘. 머리몸 곱아사. 그전인 모뎀ㄱ루 ㄱ 먹국.(그렇게 해서 감고나면 그제야 밥하고 미역국 끓여줘. ‘머리몸’ 감아야. 그전엔 메밀가루 타서 먹고.)

112004 @ 메역국은 무신거 저?(미역국은 무엇 저?)

112004 # 메역 농국 꿰기 농국 해근에.(미역 넣고 고기 넣고 해서.)

112004 @ 꿰기 뭐? 슬래기?(고기 뭐? 옥돔?)

112004 # 슬래기 좋주게. 슬래기 놔근에.(옥돔 좋지. 옥돔 놔서.)

112004 @ 국 끌렁예.(국 끓여요.)

112004 # 곤밥허고.(흰밥하고.)  
 112004 @ 곤밥허고 해근에.(흰밥하고 해서.)  
 112004 # 애기 밥을 해 주주게.(아기 밥을 해 주지.)  
 112007 @ 아, 할망상<sup>219</sup>도 출립니까?(아, ‘할망상’도 차립니까?)  
 112007 # 할망상은 저 무시거 헐 때나, 굿헐 때나 할망상 출리주. 아무 때나 안 출리는 거.(할망상은 저 무엇 할 때나, 굿할 때나 ‘할망상’ 차리지. 아무 때나 안 차리는 거.)  
 112007 @ 애기 할망상은 안 놔줘?(아기 할망상은 안 놔줘?)  
 112007 # 계난 애기 굿헐 때나 허민 마제상으로 할망상 놓주 그잔 안 놔.(그러니까 아기 굿할 때나 하면 ‘마제상’으로 ‘할망상’ 놓지 그저는 안 놔.)  
 112007 @ 아, 그잔 안 놔.(아, 그저는 안 놔.)  
 112007 # 할망상은 무시거 할망<sup>220</sup>에 텅기는 할망이나 할망상 놓주 그자 사름 무시것허레 할망상 놓느니? 건 아니.(‘할망상’은 뭐 ‘할망당’에 다니는 할머니나 ‘할망상’ 놓주 그저 사람 무엇하러 ‘할망상’ 놓니? 그건 아니.)  
 112007 @ 응.(응.)  
 112007 # 할망에, 애기 빌레 텅기는 할망, 할망상 놓주. 그 사름, 그자 사름은 안 놔.(‘할망당’에, 아기 빌러 다니는 ‘할망당’, ‘할망상’ 놓지. 그 사람, 그저 사름은 안 놔.)  
 112008 @ 애기 머리는 언제 잘라?(아기 머리는 언제 잘라?)  
 112008 # 머리는 쫄라주는 사름 쫄르곡 안 쫄르는 사름 안 쫄라.(머리는 잘라주는 사람 자르고 안 자르는 사람 안 잘라.)  
 112008 @ 초과일에 쫄르민 뭐.(초과일에 자르면 뭐.)  
 112008 # 옛날은 초과일에 머리 쫄른텐 해도 이젠 아니 해여.(옛날은 초과일에 머리 자른다고 해도 이젠 안 해.)  
 112008 @ 아, 경 안해여.(아, 그렇게 안 해.)  
 112008 # 민 머리 그냥 신 사름 잇주, 옛날은 초과일 돼민 이 머리 문딱 중블레기<sup>221</sup> 문딱 궂아비어낫주만은 이젠 안 허여.(민머리 그냥 있는 사람 있지, 옛날은 초과일 되면 이 머리 모두 중대가리 모두 잘라버렸었지만 이젠 안 해.)  
 112008 @ 옛날 말이주게, 옛날.(옛날 말이지, 옛날.)  
 112008 # 옛날은 안 해낫어. 중블레기헤영.(옛날은 안 했었어. 중대가리해서.)  
 112008 @ 중바레기?(중대가리?)  
 112008 # 중블레기 문딱 궂아분 거 중블레기주게, 머리 맨 데멍이가 중블레기라.(중대가리 모두 잘라버린 거 중대가리지, 머리 맨 대가리가 중대가리야.)

219) ‘할망상’은 아기를 점지해주고,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신인 ‘삼승할망’에게 정성을 드리는 상으로 방구 석이나 벽장 위에 둔다.

220) ‘할망’은 ‘할망당’을 줄여서 말한 것으로 마을 사람들의 부귀, 건강, 출세 등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 곳이다. 일정한 날짜에 그 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거나 소원을 빌기도 한다.

221) ‘중블레기’는 ‘중브레기’라고도 하며 ‘중대가리’의 제주어로, 중의 머리처럼 뽁뽁 깎은 머리나 대머리를 말한다.

112008 @ 아, 중추룩?(아, 중처럼?)

112008 # 응, 문딱 꺾아불민 맨 데맹이난 중블레기주게.(응, 모두 잘라버리면 맨 대가리니까 중대가리지.)

112008 @ 중블레기?(중대가리?)

112008 # 응, 중블레기. 문딱 꺾아불민 지집아이나 소나이나.(응, 중대가리. 모두 잘라버리면 계집아이나 사내아이나.)

112008 @ 예, 초파일 돼민 경헌텐.(예, 초파일 되면 그런다고.)

112008 # 초파일날 문 꺾아불텐. 이젠 경 안 해여. 옛날은 경 꺾아비아났어.(초파일날 모두 잘라버린다고. 이젠 그렇게 안 해. 옛날은 그렇게 잘라버렸었어.)

112008 @ 꺾아났어마씨? 무사 꺾으는 거?(잘랐었어요? 왜 자르는 거?)

112008 # 옛날은 문 꺾아났어. 옛날은게 머리헤여근에 애기덜 경 이제ㄴ찌 한량 시리 다 해줘시냐? 안허민 더박허지 안허느냐게? 경허난 꺾아부는 거주. 문착 꺾아 비어.(옛날은 모두 잘랐었어. 옛날은 머리해서 아기들 그렇게 이제처럼 한가로이 다 해줬니? 안 하면 더박하지 않니?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지. 문텅 잘라버려.)

112008 @ 응.(응.)

112008 # 혼 댕 술 나도록 꺾아 빗주게, 아이덜.(한 댕 살 나도록 잘라 버렸지, 아이들.)

112008 @ 할머니 애기는 저 돌리는 무사 어디 아판에 죽어불언?(할머니 아기는 저 돌이는 왜 어디 아파서 죽어버렸어?)

112008 # 어, 첫 번 아인 딸 나신디 세 술에 죽언. 세 술에 동짓들에 죽언. 네 술, 얼마 었언 네 술 날 건디 것도 감기로, 감기 중헌 죽어비언.(어, 첫 번 아이는 딸 낳았는데 세 살에 죽었어. 세 살에 동짓달에 죽었어. 네 살, 얼마 없어서 네 살 날 건데 그것도 감기로, 감기 중해서 죽어버렸어.)

112009 @ 옛날에 무신 뉘 마마, 아니 마누라?(옛날에 무슨 뉘 마마, 아니 마마?)

112009 # 거 마누라헨 아니 죽언.(그거 마마해서 안 죽었어.)

112009 @ 마누라 죽은 건 아니.(마마 죽은 건 아니.)

112009 # 아니, 아니. 그냥 감기 걸런.(아니, 아니. 그냥 감기 걸렸어.)

112009 @ 그냥 감기 걸런.(그냥 감기 걸렸어.)

112009 # 독감 걸런 그냥 죽어비언.(독감 걸려서 그냥 죽어버렸어.)

112009 @ 근디 옛날은 마누라로도 하영 죽어났텐 허명.(그런데 옛날은 마마로도 많이 죽었었다고 하면서.)

112009 # 마누라헨도 하영 죽엇주만은 우린 경은 안헨.(마마해도 많이 죽었지만 우린 그렇게는 안 했어.)

112009 @ 마누란 어떻허는 거마씨?(마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2009 # 마누란 그거 한집게, 복복 엽지 안허는냐? 엽은 사름덜 정헌 아이들 마누라허단 탈 봐근에 어디 부정헌 디나, 어디 아방이나 어디 가오곡 무시거 허민



탈 뿔 거 다 죽어시네.(마마는 그거 ‘한집’, 복복 엽지 안하느냐? 엽은 사람들 그런 아이들 마마하다 탈 나서 어디 부정한 데나, 어디 아버지나 어디 가오고 무엇하면 탈 봐서 그거 다 죽었잖아.)

112009 @ 응.(응.)

112009 # 그때 아이덜, 옛날에, 스몓 옛날에 경헨 하영 죽엇주.(그때 아이들, 옛날에, 사몓 옛날에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엇지.)

112009 @ 하영 죽엇어예. 큰마누라<sup>222</sup>), 죽은마누라<sup>223</sup>) 헤?(많이 죽엇어요. 큰마마, 작은 마마해?)

112009 # 그게 큰마누라. 그거 아이 죽는 게 큰마누라.(그게 큰 마마. 그거 아이 죽은 게 큰 마마.)

112009 @ 죽은마누란?(작은 마마는?)

112009 # 죽은마누란 기냥 이 땀뽀기ㄴ치 낮이 삭삭삭 나곡, 눈곱제기 잡혀근에 열 나가민 그 땀뽀 삭삭하게 땀뽀가 과썩 나주게. 과썩 낭 그것가 영 췌양 헤가민 혼 일주일 뽀가민 삭아지주게.(작은 마마는 그냥 이 땀뽀가치 낮이 삭삭삭 나고, 눈곱 잡혀서 열 나가면 그 땀뽀 삭삭하게 땀뽀가 ‘과썩’ 나지. ‘과썩’ 나서 그것이 이렇게 고이 헤가면 한 일주일 되어가면 삭아지지.)

112009 @ 응.(응.)

112009 # 경헨 것도 조심허민 이 큰마누라 헐 땀 영 브름 췌민 브름 지침 먹으민 지침만 칼랑칼랑허곡. 브름 금기도 잘허고, 옛날은 마브름 하영 불민 마브름 못 먹게시리.(그렇게 해서 그것도 조심하면 이 큰 마마할 땀 이렇게 바람 쏘이면 바람 기침 먹으면 기침만 ‘칼랑칼랑’하고. 바람 금기도 잘하고, 옛날은 마파람 많이 불면 마파람 못 먹게끔.)

112009 @ 예.(예.)

112009 # 경헤여. 죽은마누라도 브름 췌진 못허게 허주게. 막 열나근에 헤가민, 이젿사름덜은 열나가민 거 주사나 혼 대 놓민 왈락 피는디 옛날은 경 안허난 거 다 솟지 못헤근에.(그래서 작은 마마라도 바람 쏘이지 못하게 하지. 막 열나서 헤가면, 이제 사람들은 열나가면 그거 주사나 한 대 놓으면 ‘왈락’ 피는데 옛날은 그렇게 안하니까 그거 다 솟지 못해서.)

112009 @ 응.(응.)

112009 # 큰마누라허민 막 바썩이 벌경게, 짓벌경게 필 거난 그거 피지 못헿 열로 죽어비어. 열로, 속에 막 열낭 죽어비어.(큰 마마하면 막 ‘바썩이’ 벌경게, 시벌경게 필 거니까 그거 피지 못해서 열로 죽어버려. 열로, 속에 막 열나서 죽어버려.)

112009 @ 이 마누라헐 땀 무신거허민 안 땀다 허는 거 잇수게?(이 마마할 땀 무엇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잇잖습니까?)

112009 # 안 땀영 저곳디서 무시거엔 곤도 못허주게.(안 되어서 곁에서도 무엇

222) ‘큰마누라’는 큰 마마로 천연두를 말한다.

223) ‘죽은마누라’는 작은 마마로 홍역이나 수두를 일컫는다.

이라고 말하지도 못하지.)

112009 @ 퀘기도.(고기도.)

112009 # 퀘기도 못 굽곡 누게 아팠젠도 못 곧곡 꼬딱 못허게 허여.(고기도 못 굽고 누구 아팠다고도 못 말학 까딱 못하게 해.)

112009 @ 죽으카부덴.(죽을까봐.)

112009 # 응, 죽으, 탈 보카부덴.(응, 죽으, 탈 날까봐.)

112009 @ 탈 보카부덴.(탈 날까봐.)

112009 # 마누라헤영 허민 짓벌겅게 솟아 올 건디, 거 탈 보민 거 마누라가 솟아오르지 못헿 열 피우지 못허민. 열 피민 이 낮디 하간 거 부들부들 필 거 아니라?(마마해서 하면 시벌겅게 솟아 오를 건데, 그거 탈 나면 그거 마마가 솟아오르지 못해서 열 피우지 못하면, 열 피면 이 낮에 온갖 것 ‘부들부들’ 필 거 아니냐?)

112009 @ 예.(예.)

112009 # 거 못 피영 소곱에서 헤불민 탈 뺑 죽어빋주게. 피지 못허영, 열 피지 못허영.(그거 못 피어서 속에서 해버리면 탈 나서 죽어버렸지. 피지 못해서, 열 피지 못해서.)

112009 @ 아. 갱 집이서 퀘기도 구민 안 웬다.(아, 그래서 집에서 고기도 구우면 안 된다.)

112009 # 안 돼곡 아무것도 못 허주게, 게난. 막 어른 모시듯 문 더꺼냥 딱 문 더꺼놔근에 사람 금헤영.(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막 어른 모시듯 문 닫아놔서 딱 문 닫아놔서 사람 금해서.)

112009 @ 아.(아.)

112009 # 아무나 보게 헤시냐?(아무나 보게 했니?)

112009 @ 아무나 보지도 못허게 허고.(아무나 보지도 못하게 하고.)

112009 # 못허게 허고. 부정 밧디 허는 거 아무도 못 보고. 그디서 무시거, 바농질도 못허곡.(못하게 하고. 부정 밧에 하는 거 아무도 못 보고. 거기서 무엇, 바느질도 못하고.)

112009 @ 바농질도?(바느질도.)

112009 # 응, 저곳디 앓앙 바농질도 못허고. 바농질헤가민 그거 아이가 따시 죽어가고.(응, 곁에 앓아서 바느질도 못하고. 바느질헤가면 그거 아이가 다시 죽어가고.)

112009 @ 아.(아.)

112009 # 따시 또 경헿 댐 무시거 먹켄은 허민 곧 해주지 안헿은 안 돼주게.(다시 또 그렇게 할 댐 무엇 먹겠다고 하면 곧 해주지 않으면 안 돼.)

112009 @ 하하하. 완전 상전이네.(하하하. 완전 상전이네.)

112009 # 안 돼여. 짓도 헤줘사 돼주.(안 돼. 그것도 헤줘야 되지.)

112009 @ 한집은 무신거파?(‘한집’은 무엇입니까?)

112009 # 한집이 그거주게.(‘한집’이 그거지.)

112009 @ 한집이 큰마누라? 작은마누라?(한집이 큰 마마? 작은 마마?)

112009 # 큰한집, 작은한집허난 한집이 그거라.(‘큰한집’, ‘작은한집’하니까 ‘한집’이 그거야.)

112009 @ 아.(아.)

112009 # 이제나 홍역이주, 옛날엔 마누라.(이제나 홍역이지, 옛날엔 마마.)

112009 @ 한집이엔도 곤고 마누라엔도 곱아?(‘한집’이라고도 말하고 ‘마누라’라고도 말해?)

112009 # 옛날은 한집.(옛날은 ‘한집’.)

112009 @ 그다음 마누라?(그다음 ‘마누라’?)

112009 # 응. 새로 나난 마누라주, 옛날은 한집.(응. 새로 나니까 ‘마누라’지, 옛날은 ‘한집’.)

112009 @ 옛날은 한집.(옛날은 ‘한집’.)

112009 # 한집. 큰한집, 작은한집. 크게 허는 건 큰한집, 족게 허는 건 작은한집.(‘한집’. ‘큰한집’, ‘작은한집’. 크게 하는 건 ‘큰한집’. 작게 하는 건 ‘작은한집’)

112009 @ 응. 그다음에 큰마누라 작은마누라 영 해낫수과?(응. 그다음에 ‘큰마누라’, ‘작은마누라’ 이렇게 했었습니까?)

112009 # 응, 한집, 한집.(응, ‘한집’, ‘한집’.)

112009 @ 젤 옛날 말은 한집?(젤 옛날 말은 ‘한집’?)

112009 # 응, 한집. 옛날은 한집.(응, ‘한집’. 옛날은 ‘한집’.)

112009 @ 이거 헐 때 무신 심방 돌아당도 허여?(이거 할 때 무슨 무당 데려다가도 해?)

112009 # 응?(응?)

112009 @ 심방 돌아당도 허여?(무당 데려다가도 해?)

112009 # 그거 해나민.(그거 하고나면.)

112009 @ 이거 해나민?(이거 하고나면?)

112009 # 응.(응.)

112009 @ 그믐 어떻행 허는 거과?(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12009 # 그거 해나민 경허는 할망 빌어다근에 손<sup>224)</sup> 냄이엔 허영 밥해영 문전에 빌곡 어디 해당 어디 저 질더레 데끼고. 옛날에 손 내는 사름 경해낫주.(그거 하고나면 그렇게 하는 할머니 빌어다가 손님 내보낸다고 해서 밥해서 문전에 빌고 어디 해다가 어디 저 길에 던지고. 옛날에 손님 내보내는 사람 그렇게 했었지.)

112009 @ 손 낸덴 허여마씨?(손님 내보낸다고 해요?)

112009 # 응, 손 낸덴 허주. 마누라해난 저디 손 내염저 허여근에 거 경허는 할망 빌어당.(응, 손님 내보낸다고 하지. 마마했던 저기 손님 내보낸다 해서 그거 그렇게 하는 할머니 빌어다가.)

112009 @ 아, 마누라헐 때도 이디 어디 솟 영.(아, 마누라할 때도 여기 어디 새

224) ‘손’은 손님의 줄임말로 바로 말하기 거북한 마을 돌려서 말하는 것이다.

끼 이렇게.)

112009 # 부정헌 사름 들어오지 말렌.(부정한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112009 @ 거난 솟 영 걸어?(그러니까 새끼 이렇게 걸어?)

112009 # 응, 솟 매어낫주. 웬솟 매영.(응, 새끼 매었었지. 원새끼 매어서.)

112009 @ 응?(응?)

112009 # 그자 솟 매영 이 귀신 들어오지 말렌 곱허는 집은 웬솟을 매곡 그자 사름덜은 그자 솟. 웬솟이엔 헌 건 웬 노.(그저 새끼 매어서 이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곱하는 집은 원새끼를 매고 그저 사람들은 그저 새끼. 원새끼라고 한 건 원 노.)

112009 @ 예.(예.)

112009 # 따시 또 그자 허는 건 보통 노로 헤영 그거 매주게. 부정헌 사름 이 귀신 들어오지 말렌 헌 건 웬솟.(다시 또 그저 하는 건 보통 노로 해서 그거 매지. 부정한 사람 이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건 원새끼.)

112009 @ 아, 웬솟은 귀신 들어오지 말렌 허는 거.(아, 원새끼는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

112009 # 응, 그자 사름은 그자 솟.(응, 그저 사람은 그저 새끼.)

112009 @ 웬솟은 웬착으로 영 짜는 거꽈?(원새끼는 왼쪽으로 이렇게 짜는 겁니까?)

112009 # 응, 웬 노 쏜 거 웬솟.(응, 원 노 쏜 거 원새끼.)

112009 @ 아.(아.)

112009 # 따시 고치 돌아매는 사름덜은 육지 사름덜이나 애기 난 집이 고치 돌아매곡.(다시 고추 달아매는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이나 아기 낳은 집에 고추 달아매고.)

112009 @ 예, 우린 고치 안 돌아매지예?(예, 우린 고추 안 달아매지요?)

112009 # 이젠 이젯사름덜 안 해. 육지 사름덜 애기 낫젠 허민 고치, 애기 난 집이 고치 돌아매는디 이딴사름덜은 경 안헌다.(이젠 이제 사람들 안 해. 육지 사람들 아기 낳았다고 하면 고추, 아기 낳은 집에 고추 달아매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112009 @ 애기 낳민 솟도 매어?(아기 낳으면 새끼도 매?)

112009 # 부정헌 사름 오카부텐 거 허는 거 아니냐?(부정한 사람 올까봐 그거 하는 거 아니냐?)

1120909 @ 아, 애기 낳민 솟도 매긴 허는 구나예.(아, 아기 낳으면 새끼도 매긴 하는군요.)

112009 # 응. 올레에 솟 매주. 부정헌 사름 들어오지 말렌. 동네 영장이나 나민 부정헌 사름 들어오지 말렌.(응. ‘올레’에 새끼 매지. 부정한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동네 상이나 나면 부정한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112009 @ 응. 그믐 아까 그 뭐 저 심방 마누라헤 나민 심방 돌아당 허는 거 뭐 엔 곶아?(응. 그러면 아까 그 뭐 저 무당 마마하고 나면 무당 데려다가 하는 거 뭐

라고 말해?)

112009 # 심방 해난 거, 솟 매는 거. 애기 삼승할망 해근에 해나민 그 큰마누라 해냥 손을 내어불민 애기덜이 궤양 일어난 탕기고 경 안행 내불민 애기덜이 오래 가주게. 경허난 심방해당 손을 내어, 잘 갑센.(무당 했던 거, 새끼 매는 거. 아기 삼신할머니 해서 하고 나면 그 큰 마마 하고나서 손님을 내보내버리면 아기들 고이 일어나서 다니고 그렇게 안 해서 내버리면 아기들이 오래 가지.)

112009 @ 아, 잘 갑센.(아, 잘 가시라고.)

112009 # 잘 갑센 허는 거. 다른 딜로 잘 갑센.(잘 가시라고 하는 거. 다른 데로 잘 가시라고.)

112009 @ 다른 디는 가난 마누라 배송이엔 헨 게만은, 경은 안 곶아?(다른 데는 가니까 ‘마누라 배송’이라고 하던데, 그렇게는 안 말해?)

112009 # 옛날은 게 옛날에 한집.(옛날은 그러게 옛날은 ‘한집’.)

112009 @ 응.(응.)

112009 # 거 마누란 이제 새로들 마누라. 한집, 옛날은 한집.(그거 ‘마누라’는 이제 새로들 ‘마누라’. ‘한집’, 옛날은 ‘한집’.)

112009 @ 응.(응.)

112009 # 정허민 그 한집허는 디 오라근에 그 옛날은 큰한집허는 디 오랑, 족은 한집 허는 디 오랑, 그디 강 먹어근에 가불민 오랑 가민 따시 그 아이가 또 한집을 헤여, 올라.(그러면 그 ‘한집’하는 데 와서 그 옛날은 ‘큰한집’하는 데 와서, ‘족은한집’하는 데 와서, 거기 가서 먹어서 가버리면 와서 가면 다시 그 아이가 또 ‘한집’을 해, 읊아.)

112009 @ 아, 애기 다른 애기 이디 놀레 왓당 가민.(아, 아기 다른 아기 여기 놀러 왔다 가면.)

112009 # 응. 경허곡 따시 또 그 저 족은한집은 헤여근에 궤양현 집인 가근에 따시 또 이녀 아기덜은 안 허민, 그디 강 따시 또 혼디 놀당 오민 가민 어가라 한집헤여. 호열자ㄴ찌.(응. 그리고 다시 또 그 저 ‘족은한집’은 해서 고이 한 집은 가서 다시 또 자기 아기들은 안 하면, 거기 가서 다시 또 함께 놀다다 오면 가면 곧 ‘한집’해.

112009 @ 호열자ㄴ찌.(호열자같이.)

112009 # 옛날은 호열자도 안 현 생이라. 경허민 따시 가이도 한집, 어가라 한집을 헤여.(옛날은 호열자도 안 한 모양이야. 그러면 다시 그애도 ‘한집’, 곧 ‘한집’을 해.)

112009 @ 그 꼭 한 번은 헤사웨는 거파?(그 꼭 한 번은 해야되는 겁니까?)

112009 # 건 혼 번 헤사는 거. 건 늑어도 현덴 허주. 시방덜은 하도 주사 맞아 부난 모르는 거.(그건 한 번 해야는 거. 그건 늑어도 한다고 하지. 시방들은 하도 주사 맞아버리니까 모르는 거.)

112009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09 # 건 꼭 해봐산덴, 족게 허나 낮게 허나 건 해사헌덴 허주. 거 애기어멍도 헌덴 허여, 거. 시방덜은 하도 주사 맞아부난 엇은 거주.(그건 꼭 해봐야한다고, 작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그건 해야한다고 하지. 그거 아기어머니도 한다고 해, 그거. 시방들은 하도 주사 맞아버리니까 없는 거지.)

112009 @ 큰한집도 혼 번허고 작은한집도 혼 번허고?('큰한집'도 한 번하고 '작은한집'도 한 번하고?)

112009 # 큰한집은 안 헌디 작은마누란 똑 혼 번 해산덴 허는 거라.('큰한집'은 안 하는데 '작은마누라'는 꼭 한 번 해야 한다고 하는 거야.)

112009 @ 아. 작은한집은 꼭 혼 번은 해사는 거예.(아. '작은한집'은 꼭 한 번은 해야 하는 거요.)

112009 # 응, 계난. 경허난 시방덜은 하도 주사 맞아부난 몰람주게. 아파가민 주사 맞곡 경허난 몰르는 거. 옛날은 그거 주사가 엇으난 그거 혼는 걸 다 마타냥, 열로 낮는덴 해난게.(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방들은 하도 주사 맞아버리니까 모르고 있지. 아파가면 주사 맞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옛날은 그거 주사가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걸 다 말아놔서, 열로 낮는다고 했던 거.)

## 혼례

112011 @ 이번엔 결혼식허는 거예. 옛날 결혼식 지금 말고 옛날에 할머니 시집 올 때.(이번엔 결혼식하는 거요. 옛날 결혼식 지금 말고 옛날에 할머니 시집 올 때.)

112011 # 독계, 뒤희.(독교, 독교.)

112011 @ 거난 결혼식헐 뎡 어떻 어떻헐 허는 거짜?(그러니까 결혼식할 뎡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12011 # 뒤희허민 결혼식허는 건 이제 신랑칩이서가 뎡 아지고 뒤희 헐 아정가민 이 새각시 집이 강 새각시 집이 가민 따시 새서방 궂인상<sup>225)</sup> 출려주주게. 새서방, 대반, 남저 대반 앓이곡 해근에 궂인상 출려주곡. 새각시 집이 가민 따시 또 여저 대반 앓정 따시 또 새각시 상 출려주곡.(독교하면 결혼식하는 건 이제 신랑 집에서 말 가지고 독교 해서 가져 가면 이 새색시 집에 가서 새색시 집에 가면 다시 새신랑 '궂인상' 차려주지. 새신랑, 대반, 남자 대반 앓고 해서 '궂인상' 차려주고. 새색시 집에 가면 다시 또 여자 대반 앓아서 다시 또 새색시 상 차려주고.)

112011 @ 응.(응.)

112011 # 독새기, 계란 다 낳 독다리 다 놓곡 헐 상 출려주주게.(달걀, 계란 다 놔서 닭다리 다 놓고 해서 상 차려주지.)

112011 @ 응.(응.)

112018 # 이제덜은 해도. 우시도 가곡.(이제들은 해도. 위요도 가고.)

112018 @ 우시도 가곡예.(위요도 가고요.)

112018 # 대반 헐 우시도 계난 친정에서 혼나 시집이서 혼나 해근에 양쪽에서

225) '궂인상'은 다 갖춰진 상이라는 뜻으로 결혼식 때와 죽었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나씩 둘리 가. 들리린 시집이서 가고.(대반 해서 위요도 그러니까 친정에서 하나 시집에서 하나 해서 양쪽에서 하나씩 둘이 가. 들리리는 시집에서 가고.)

112018 @ 응. 저 신랑 우시도 잇고 신부 우시도 이신 거 아니?(응. 저 신랑 위요도 있고 신부 위요도 있는 거 아니?)

112018 # 응. 신랑 우시, 신부 우시도 싯곡 신랑 우시도 싯곡 다 우시가 두 개 잇주. 대반 엇어도 우신 다 이서.(응. 신랑 위요, 신부 위요도 있고 신랑 위요도 있고 다 위요가 두 개 있지. 대반 엇어도 위요는 다 있어.)

112018 @ 응. 아까 신부집이 두 명. 아니 저 성가 친척들 두 명, 웨가 친척 두 명?(응. 아까 신부집에 두 명.아니 저 성가 친척들 두 명, 외가 친척 두 명?)

112018 # 성가에 하나, 웨가에 하나허영.(성가에 하나, 외가에 하나해서.)

112018 @ 성가에 하나, 웨가에 하나.(성가에 하나, 외가에 하나.)

112018 # 어멍 펜이 하나, 아방 펜이 하나 둘씩 보내주게.(어머니 편에 하나, 아버지 편에 하나 둘씩 보내지.)

112018 @ 둘씩.(둘씩.)

112018 # 응, 흥 펜이 하나씩 행 흥 집이서만. 친정이 아무도 갈 사름 엇이민 시집이 저 아방펜이서도 둘이 가는 거고 시민 안 강 흥 밋씩 가주, 하나씩.(응, 한편에 하나씩 해서 한 집에서만. 친정이 아무도 갈 사람 없으면 시집에 저 아버지편에서도 둘이 가는 거고 있으면 안 가서 한 군데씩 가지, 하나씩.)

112018 @ 여자덜은 안 가?(여자들은 안 가?)

112018 # 여자덜은 안 가.(여자들은 안 가.)

112018 @ 아.(아.)

112018 # 남저덜만.(남자들만.)

112012 @ 다시 처음부터예, 중매.(다시 처음부터요, 중매.)

112012 # 중매 따시 또 우리 두린 때나 뭐헌 때나 요 집이 새각시 싯저 허민 우리 두린 때덜은 새각시 사름이, 그 사름도 아무나 안 행 말이나 험직, 복 좋은 사름은 강 새각시 집이 강 아무 집이서 새서방 시난 우리 결혼 못겐 행 말 허민 그 중매 간 사름이 스줄 빌어오주. 어느 날, 메틀날 난 거 해근에. 몇 시에 난 거 해근에.(중매는 다시 또 우리 어린 때나 뭐한 때나 요 집에 새색시 있다 하면 우리 어린 때들은 새색시 사름이, 그 사름도 아무나 안 해서 말이나 할 듯, 복 좋은 사름은 가서 새색시 집에 가서 아무 집에서 새신랑 있으니까 우리 결혼 맺겠다고 해서 말 하면 그 중매 간 사름이 사주를 빌어오지. 어느 날, 며칠날 난 거 해서. 몇 시에 난 거 해서.)

112012 @ 응.(응.)

112012 # 경행 빌어오민 그젠 아정 강 새서방집이서가 가근에 어느 날, 어느 날 행 새서방 스주 놓곡 새각시 스주 봐근에 그 스줄 안 맞으민 안 헤여.(그렇게 해서 빌려오면 그땐 가지고 가서 새신랑 집에서가 가서 어느 날, 어느 날 해서 새신랑 사주 놓고 새색시 사주 봐서 그 사주를 안 맞으면 안 해.)

112012 @ 응.(응.)

112012 # 돌려보내꼭 안 해여, 안 해여.(돌려보내고 안 해, 안 해.)

112012 @ 아.(아.)

112012 # 아니 해영 돌려보내민 따시 그 새서방칩이 또 새각시 해쥬 그 사람 안 해여. 안 맞이민, 옛날에.(안 해서 돌려보내면 다시 그 새신랑 집에 또 새색시 해쥬서 그 사람 안 해.)

112012 @ 중매해근에 결혼허민 그 중매해준 사람안티 무신거 사줘야 돼여?(중매해서 결혼하면 그 중매해준 사람에게 무엇 사줘야 돼?)

112012 # 아니, 옛날엔 안 줬잖게.(아니, 옛날엔 안 줬었어.)

112012 @ 아, 옛날에 안 줬잖수과?(아, 옛날에 안 줬었습니까?)

112012 # 응, 그 중간에난 하간 거 줬주, 그때 어디 성 경.(응, 그 중간에니까 온갖 거 주고 있지, 그때 어디 있어서 그렇게.)

112012 @ 아, 경해도게, 결혼식, 소개해쥬 고맙텐.(아, 그래도, 결혼식, 소개해쥬서 고맙다고.)

112012 # 고맙텐. 아니 해여.(고맙다고. 안 해.)

112012 @ 응, 그런 거 었어?(응, 그런 거 없어?)

112012 # 응. 옛날은 연애도 었꼭 그자 중매해영 그자 가꼭 오꼭.(응. 옛날은 연애도 없고 그저 중매해서 그저 가고 오고.)

112012 @ 할머니도 중매행 결혼헨?(할머니도 중매해서 결혼했어?)

112012 # 나도 중매로 왓주게.(나도 중매로 왔지.)

112012 @ 누게가 중매해줬수과?(누가 중매해줬습니까?)

112012 # 그 우리 방상에 저 오촌이 이 주엇동네 이 동네 사람이난에 이제 우리 짐칩이 ㄴ난에 결혼, 저 중매 했주.(그 우리 친척에 저 오촌이 저 ‘주어’ 동네 이 동네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 김 집에 말하니까 결혼, 저 중매를 했지.)

112013 @ 응. 막편진 무신거과?(응. ‘막편지’는 무엇입니까?)

112013 # 응?(응?)

112013 @ 막편지.(‘막편지’.)

112013 # 막편지, 편지?(‘막편지’, 편지?)

112013 @ 응.(응.)

112013 # 몰라.(몰라.)

112013 @ 막편지. 아니 결혼헨 때 막편지 가정오는 날. 그 무사 저 결혼 날짜 적어진 거.(‘막편지’. 아니 결혼할 때 막편지 가져오는 날. 그 왜 저 결혼 날짜 적힌 거.)

112013 # 그거 스쥬.(그거 사주.)

112013 @ 스쥬.(사주.)

112013 # 응, 스쥬, 스쥬.(응, 사주, 사주.)

112013 @ 그거 저.(그거 저.)



112013 # 새서방칩이서가 새각시집이 강 스쥬 빌어다근에.(새신랑 집에서가 새색시 집에 가서 사주 빌려다가.)

112013 @ 거난 다시 갖다.(그러니까 다시 갖다.)

112013 # 날 택일 보민 합이 맞으면 그젠 따시 또 새서방칩이가 난 날 난 시혜근에 아무날 잔치허겐 행 중진애비가 아저당 새각시 아방허곡 새각시집이 강 드리는 거.(난 택일 보면 합이 맞으면 그젠 다시 또 새신랑 집에 난 날 난 시해서 아무날 잔치하자고 해서 중신아비가 가져다가 새색시 아버지하고 새색시집에 가서 드리는 거.)

112013 @ 새각시 집이 드리는 거 그거 무신거봐?(새색시 집에 드리는 거 그거 뭘니까?)

112013 # 그거, 거 스쥬드림<sup>226</sup>.(그거, 거 사쥬드림.)

112013 @ 스쥬드림?(사쥬드림?)

112013 # 응.(응.)

112013 @ 응.(응.)

112013 # 스쥬 드리민 그젠 사돈이 되는 거.(사쥬 드리면 그젠 사돈이 되는 거.)

112013 @ 아. 결혼식은 안 해도예?(아. 결혼식은 안 해도요?)

112013 # 응, 안 해도 사돈이 되는 거.(응, 안 해도 사돈이 되는 거.)

112013 @ 약혼식이나 마찬가지로나.(약혼식이나 마찬가지로나.)

112013 # 응. 약혼식이나 혼 가지.(응. 약혼식이나 혼 가지.)

112013 @ 응. 스쥬드림 해볼민.(응. 사쥬드림 해버리면.)

112013 # 스쥬 드리레 가민, 따시 스쥬 드리레 간 사름 밥해주주게.(사쥬 드리러 가면, 다시 사쥬 드리러 간 사람 밥해주지.)

112013 @ 아. 새각시집이서?(아. 새색시 집에서?)

112013 # 응. 밥해주주.(응. 밥해주지.)

112014 @ 이버지는?(이바지는?)

112014 # 이버지는 그 이제 새로 나완 이버지주. 옛날엔 이버지 엇어난.(이바지는 그 이제 새로 나와서 이바지지. 옛날엔 이바지 없었어.)

112014 @ 게도 도새기도 다리 혼착허고 쓸도.(그래도 돼지도 다리 한쪽하고 쓸도.)

112014 # 그건 잔치 넘어나야.(그건 잔치 넘어야.)

112014 @ 잔치 전이.(잔치 전에.)

112014 # 잔치 전인 안 허여.(잔치 전엔 안 해.)

112014 @ 잔치 전인 안 허여?(잔치 전엔 안 해?)

112014 # 잔치 넘영 잔치 넘영 나가 행 시집을 가민 그 시집이서가 그걸 해 주는 거주게.(잔치 넘어서 잔치 넘어서 내가 해서 시집을 가면 그 시집에서가 그걸 해주는 거지.)

---

226) ‘스쥬드림’은 새신랑 집에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새색시 집에 주는 일을 말한다.

112014 @ 응.(응.)

112014 # 시집이서가 뚫다리 혼 다리 농곡 술 혼 돼 농곡 해근에 저 중간 나난  
썰도 낫주, 아무것도 안 해영. 뚫다리만 혼나허고 술 혼 돼 농곡 해근에 그디 할망,  
하르방 시민 하르방, 큰어멍 시민 큰어멍, 웨가민 웨가 해근에 갈리 농멍 경해근에  
술 혼 팽 농곡 허멍 다 보내.(시집이서가 돼지다리 한 다리 놓고 술 한 되 놓고 해  
서 저 중간 나니까 썰도 나왔지, 아무것도 안 해서. 돼지다리만 하나 하고 술 한 되  
놓고 해서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할아버지, 큰어머니 있으면 큰어머니, 외  
가면 외가 해서 갈비 농으면서 그렇게 해서 술 한 병 놓고 하면서 다 보내.)

112014 @ 응.(응.)

112014 # 경해낫주. 옛날은 어디 돈으로 무시거.(그랬었지. 옛날은 어디 돈으로  
뒀.)

112014 @ 이젠 막 천만 원씩 주고 막 이천만 원씩 주고 헉니께.(이젠 막 천만  
원씩 주고 막 이천만 원씩 주고 하잖아요.)

112014 # 이제 천오백, 천, 이천이 보통이란게.(이제 천오백, 천, 이천이 보통이  
더라.)

112014 @ 나 헐 때도 천만 원이라나신디.(나 할 때도 천만 원이었었는데.)

112014 # 게메.(글썸.)

112014 @ 이제 이천만 원이구나예.(이제 이천만 원이군요.)

112014 # 이천만 원, 천오백. 하질은 천오백. 천만 원짜리 어디.(이천만 원, 천오  
백. 하질은 천오백, 천만 원짜리 어디.)

112014 @ 어디 돈 엇이민 아들 풀아지쿠과?(어디 돈 없으면 아들 팔 수 있겠습  
니까?)

112014 # 게난 말이여. 요새에 게난 옛날에 일억이민 혼 부젯칩이나 재산 이섯  
주만은 이제 쪼그만 사람 일억허난 무신 말 중에도 일억인디 무시거?(그러니까 말  
이야. 요새에 그러니까 옛날에 일억이면 한 부잣집이나 재산 있었지만 이제 쪼그만  
사람 일억하니까 무슨 말 중에도 일억인데 무엇?)

112014 @ 이제 제주신 혼 삼역을 쥐사 집을 사, 할머니.(이제 제주시는 한 삼역  
을 뉘야 집을 사, 할머니.)

112014 # 삼역도 넘어감텐 허더라고.(삼역도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112014 @ 삼역, 사역.(삼역, 사역.)

112014 # 거난 요허루기 허는 거 보난, 월정<sup>227</sup>)이, 그 동이주 월정 저 어디 서  
화리 넘어간디 월정인디 월정이 무신 저 십만 원짜리 땅이 오백, 천만 원이엔 험시  
네.(그러니까 요전날 하는 거 보니까, 월정, 그 동이지 월정 저 어디 세화리 넘어간  
데 월정인데 월정이 무슨 저 십만 원짜리 땅이 오백, 천만 원이라고 하더라.)

112014 @ 그딘예 육깃사름덜이.(거긴요 육지 사람들이.)

112014 # 응. 막 메어전.(응. 막 미어져서.)

---

227) '월정'은 지명으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를 말한다.

112014 @ 막 하영예 완예.(막 많아요 와서요.)

112014 # 육지사람 테라부난.(육지사람 떼라서.)

112014 @ 예, 그딘 완전 관광지 똤불언.(예, 거긴 완전 관광지 되어버렸어.)

112014 # 게난 육지사람. 게난 경 방송 나와라. 본토백인 엇고 문딱 육지사람이 엔.(그러니까 육지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 나오더라. 본토박인 없고 모두 육지 사람이라고.)

112014 @ 예.(예.)

112014 # 경 방송 나오라라.(그렇게 방송 나오더라.)

112014 @ 예, 월정린 특히 더.(예, 월정리는 특히 더.)

112014 # 따시 시방 또 어디, 화북<sup>228)</sup>. 화북이 경 짬뽕이렌.(다시 시방 또 어디, 화북. 화북이 그렇게 짬뽕이라고.)

112014 @ 화북 이제 아파트 막 하영 짓언.(화북 이제 아파트 막 많이 지었어.)

112014 # 요흥루기 어디 나오라라, 화북이 경 막 옛날에 삼 홉짜리가 이젠 사 홉 똤젠, 화북. 옛날에 화북 오죽 혈헤나시냐?(요전날 어디 나오더라, 화북이 그렇게 막 옛날에 삼 홉짜리가 이젠 사 홉 똤었다고, 화북. 옛날에 화북 오죽 혈했었니?)

112014 @ 게난. 땅값이영 집값이예 아이고 잘도 올랐수다.(그러니까. 땅값이랑 집값이요 아이고 잘도 올랐습니다.)

112014 # 게난 일로 저 느려오는 디 산만 엇이민 평당 삼십만 원, 스십만 원 요 렌 오십만 원 이 성창드렌 이백만 원 감시네, 이 동네도.(그러니까 이리로 저 내로 오는 데 산만 없으면 평당 삼십만 원, 사십만 원 요리는 오십만 원 이 선창엔 이백만 원 가고 있네, 이 동네도.)

112014 @ 아, 이디 이 땅은 얼마헐수과?(아, 여기 이 땅은 얼마하고 있습니까?)

112014 # 이건 몰라, 이건 이 안터레 골목저부난. 저 성창더레.(이건 몰라, 이건 이 안에 골목저버리니까. 저 선창에.)

112014 @ 응.(응.)

112014 # 물긔더레. 그레 췌당 이백만, 감시네, 이디도.(물가에. 그리 평당 이백만, 가고 있잖아, 여기도.)

112014 @ 저 바당 조긔된 안 좋아, 안 좋아.(저 바다 곁에 안 좋아, 안 좋아.)

112014 # 경헌디 바당긔더레만 경 가는 거라.(그런데 바닷가쪽에만 그렇게 가는 거야.)

112014 @ 바다예 엇인 디 살던 사름 바당 보젠. 하하하, 살아보민 바당 옆이 너무 안 좋아.(바다요 없는 데 살던 사람 바다 보려고. 하하하, 살다보면 바다 옆에 너무 안 좋아.)

112014 # 좋은 거 아닌디 요썬 요 소나밧이고 아무거고 길만 빠민 나오난 췌당 오십, 이십만 원, 삼십만 원, 오십만 원 나감시네, 이디도.(좋은 거 아닌데 요썬 요 소나무밭이고 아무거고 길만 빠면 나오니까 평당 오십, 이십만 원, 삼십만 원, 오십

228) '화북'은 지명으로 제주시 화북동을 말한다.

만 원 나가잖아, 여기도.)

112014 @ 이디도 오십만 원 험수과?(여기도 오십만 원 하고 있습니까?)

112014 # 응. 이제 중간더래. 이것도 풀민 오십만 원은 줄 거여, 팽당.(응. 이제 중간쪽에. 이것도 팔면 오십만 원은 줄 거야, 평당.)

112014 @ 응.(응.)

112014 # 게난 저 시방 우리 작은아덜네 집 짓은 딴 시방 그거 팽당 삼십만 원 넘을 거라. 그레.(그러니까 저 시방 우리 작은아들네 집 짓은 텐 시방 그거 평당 삼십만 우너 넘을 거야. 그리.)

112014 @ 질 옆이난예.(길 옆이니까요.)

112014 # 질 옆이난. 질 발라부난. 경 가, 땅덜 감서. 요레만 요영만 이 시방 질 빠는 더렌 이디도 팽당 백만 원 감시네.(길 옆이니까. 길 붙어버리니까. 그렇게 가, 땅들 가고 있어. 요리만 요렇게만 이 시방 길 빠는 쪽엔 여기도 평당 백만 원 가고 있잖아.)

112014 @ 응.(응.)

112014 # 이 동네도이 옛날은 집덜이 문 빈 집이란, 요멘이헌 집도 방 헌 디가 엇어. 다 들언, 집 빌레만 맨날 땡겨.(이 동네도 옛날은 집들이 모두 빈 집이라서, 요만한 집도 방 한 데가 없어. 다 들었어, 집 빌러만 맨날 다녀.)

112014 @ 육지 사름덜?(육지 사람들?)

112014 # 응.(응.)

112014 @ 이디 왕 삶으로?(여기 와서 사는 것으로?)

112014 # 삶으로. 문 이 동네도 반 넘어 육지 사름이라.(사는 것으로. 모두 이 동네도 반 넘어 육지 사람이야.)

112014 @ 아, 집덜 빌려근에 살암수과?(아, 집들 빌려서 살고 있습니까?)

112014 # 응, 게난, 옛날은 뭐허단 이젠 기자 집 흥나민 흥 삼백, 이백 기자 원 보통으로 나감시네, 이디도.(응, 그러니까, 옛날은 뭐하다가 이젠 그저 집 하나면 한 삼백, 이백 그저 원 보통으로 나가고 있잖아, 여기도.)

112014 @ 이 집도 빌려줄 거?(이 집도 빌려줄 거?)

112014 # 아니, 이건 우리 메뉴리 그자 영허멍 살 거주게 무신, 빌려줄 거라? 시방 저디 나가 가젠 해도, 저 집 지슨 작은아덜네 집이 갈 건디. 그디 어디 오란 집 지슨 사름 이젠 동짓달 흥 돌각장 계약헨 쥐부난 나가 못 가는 거.(아니, 이건 우리 며느리 그저 이렇게 하면서 살 거지 무슨, 빌려줄 거야? 시방 저기 내가 가려고 해도, 저 집 짓은 작은아들네 집에 갈 건데. 거기 어디 와서 집 짓는 사람 이젠 동짓달 한 달까지 계약해서 쥐버리니까 내가 못 가는 거.)

112014 @ 그 사름 가불민, 할머니도 가불민 이 집은 빈 집으로 놔둘 거?(그 사람 가버리면, 할머니도 가버리면 이 집은 빈 집으로 놔둘 거?)

112014 # 응, 빈 집으로. 메뉴리 가멍 오멍 살 거주게.(응, 빈 집으로. 며느리 가면서 오면서 살 거지.)

112014 @ 아이고, 메뉴리 무슨 일주일에 혼 번도 안 오명.(아이고, 며느리 무슨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면서.)

112014 # 약 흘 뎌 혼 보름에 혼 번 오나 어떤 뎌 혼 달에 혼 번이나 왕.(약 할 뎌 한 보름에 한 번 오나 어떤 뎌 한 달에 한 번이나 와서.)

112014 @ 그냥 차 탕 가불주, 무신 이디.(그냥 차 타서 가버리지, 무슨 여기.)

112014 # 오랑 허민 그 어디 모임이나 싯젠 허민 혼 들에 혼 번은 오라.(와서 하면 그 어디 모임이나 있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와.)

112014 @ 집 빌려주민 이디도 혼 이삼백은 받을 거 다텐디.(집 빌려주면 여기 도 한 이삼백은 받을 거 같은데.)

112014 # 응, 이삼백 받주, 이거게.(응, 이삼백 받지, 이거.)

112014 @ 게난 그걸로 그냥 용돈허고. 하하하.(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용돈하고. 하하하.)

112014 # 이삼백 충분. 이 남밭 셔부난게.(이삼백 충분. 이 나무밭 있어버리니까.)

112014 @ 이런 거 더 좋아해.(이런 거 더 좋아해.)

112014 # 남밭은 이녁냥으로. 남밭도 일 년에 허민 이삼백은 삼시네, 이녁냥으로 미깡행.(나무밭은 자기대로. 나무밭도 일 년에 하면 이삼백은 사고 있잖아, 자기대로 굴 해서.)

112014 @ 거난게, 그건 우리가 해도, 빌려주민예, 집만 빌리는 걸로 살렌 해도 좋아해.(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해도, 빌려주면요, 집만 빌리는 걸로 살라고 해도 좋아해.)

112014 # 게 이거 빌리민 삼백은 받주.(그러게 이거 빌리면 삼백은 받지.)

112015 @ 할머니 시집올 때 그 저 혼수? 뭐 행 읍니까?(할머니 시집올 때 그 저 혼수? 뭐 해서 읍니까?)

112015 # 아니 행 오라. 옛날에는 혼수 엇어났어.(아니 해서 와. 옛날에는 혼수 없었었어.)

112015 @ 게믄 할머니 행 온, 무신거 무신거 행 왔수과? 이불허고.(그러면 할머니 해서 온, 무엇 무엇 해서 왔습니까? 이불하고.)

112015 # 나 이디 시집갈 때 이불 우알 채허곡, 베개 두 개허곡 거베끼 안 행 갓주, 무신.(나 여기 시집갈 때 이불 위아래 채하고, 베개 두 개하고 그거밖에 안 해서 갔지, 무슨.)

112015 @ 요강?(요강?)

112015 # 퀘 흐나 허고.(퀘 하나 하고.)

112015 @ 아, 퀘도 행 읍디가?(아, 퀘도 해서 오셨습니까?)

112015 # 응. 퀘 흘 때 나올 때 못 행 가난 그루후젠 퀘 엇으난 어멍이 사주주 게. 어멍이 그건 친정에서 좋은 어멍덜은 켈 상 내부는 건디 난 안 헤췌단 막곳덴 사췌.(응. 퀘 할 때 나올 때 못 해서 가니까 그 후엔 퀘 없으니까 어머니가 사주지.

어머니가 그건 친정에서 좋은 어머니들은 케를 사서 내버리는 건데 난 안 해줬다가  
마지막에 사줬어.)

112015 @ 아이고, 옛날엔 케 행 온 건 막 잘 행, 잘 출령 온 거엔 헨게만은.(아  
이고, 옛날엔 케 해서 온 건 막 잘 해서, 잘 차려서 온 거라고 하던데.)

112015 # 응, 옛날에 케 해준 사람 막 잘해준 사람.(응, 옛날에 케 해준 사람 막  
잘해준 사람.)

112015 @ 계난.(그러니까.)

112015 # 부잣집 딸이나 경허주. 경헌디 우린 시집강 해도 누게 시어멍 엇으난  
에 저 옷이나 무신거 마타보지 안했저, 나.(부잣집 딸이나 그렇게 하지. 그런데 우  
린 시집가서 해도 누구 시어머니 없으니까 저 옷이나 무엇 받아보지 않았어, 나.)

112015 @ 시집이서 해주는, 멍지웃 혼 불 안 해줘?(시집에서 해주는, 명주웃 한  
별 안 해줬어?)

112015 # 아이 마타봤저.(안 받아봤어.)

112015 @ 저 시댁 식구들안티 무신거 이젠 막 이불도 테우곡 험니께.(저 시댁  
식구들에게 무엇 이젠 막 이불도 태우고 하잖아요.)

112015 # 옛날은 그, 이녁 마트도 안허고 허도 안허주게.(옛날은 그, 자기 받지  
도 않고 하지도 않지.)

112015 @ 하하하. 아니 보선 멘들앙 테왓저, 뭐 영헨게만은.(하하하. 아니 버선  
만들어서 나눠줬어, 뭐 이렇게 하던데.)

112015 # 응, 보선 혼 베 해영 방상이 씨할망덜 누게든 테우주. 그거나베끼 먼  
방상ㄱ장은 안 해봤주. 이녁 마트도 안허곡 해주도 안허곡. 엇인 걸 해줘?(응, 버선  
한 켤레 해서 친척 시할머니들 누구든 나눠주지. 그거나밖에 먼 친척까지는 안 해  
봤지. 자기 받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고. 없는 걸 해줘?)

112015 @ 옷감으로들 막 저 새색시안티 주곡 해놔텐 헨게만은.(옷감으로들 막  
저 새색시에게 주고 했었다고 하던데.)

112015 # 그건 옛날 흐쭈 이서가난 현 거지, 옛날은.(그건 옛날 조금 있어가니까  
한 거지, 옛날은.)

112015 @ 아, 처음엔 그런 것도 엇어났구나예?(아, 처음엔 그런 것도 없었군  
요?)

112015 # 옛날엔 엇어났어, 것도.(옛날엔 없었었어, 그것도.)

112016 @ 응. 예장 쓴 거 아까 할머니 잠깐 골아신디 잘못 쓰민 다시 썩 오렌  
허곡?(응. 예장 쓴 거 아까 할머니 잠깐 말했었는데 잘못 쓰면 다시 써서 오라고 하  
고?)

112016 # 응, 예장행 이 스주 빌어강 예장허민. 잔칫날 행 미녕이영 흥세에 정  
딱허게 영 상통이 차듯 행 오라근에 예장 클령 보민, 예장을 그 뜰네 방상이 훈장  
이민 훈장 멧 손 해여근에 딱 행 왕 잘못 쓰민 새서방ㄱ라 흐렌 허민 새서방 흑교  
못허민 못 쓰지.(응, 예장해서 이 사주 빌려가서 예장하면. 잔칫날 해서 무명이랑

혼서에 그렇게 딱하게 이렇게 상투 차듯 해서 와서 예장 끌러서 보면, 예장을 그 딸네 친척이 혼장이면 혼장 몇 손 해서 딱 해서 와서 잘못 쓰면 새신랑보고 하라고 하면 새신랑 학교 못하면 못 쓰지.)

112016 @ 예.(예.)

112016 # 못 쓰민 내몰아. 옛날은 내몰아놔주게.(못 쓰면 내몰아. 옛날은 내몰았었지.)

112016 @ 게민 어떻 집이 가, 다시?(그러면 어떻게 집에 가, 다시?)

112016 # 게민, 경허민 따시 또 새서방 우시 온 사름이, 게난 우시 온 사름이 맞치.(그러면, 그러면 다시 또 새신랑 위요 온 사름이, 그러니까 위요 온 사름이 같이.)

112016 @ 흐끔 똑똑헌 사름이 와야겠구나.(조금 똑똑한 사름이 와야겠구나.)

112016 # 응, 똑똑헌 사름 안 오랑은 안 돼지, 거난.(응, 똑똑한 사름 안 와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112016 @ 거난.(그러니까.)

112016 # 수우시<sup>229)</sup>엔 현 사름은 새서방칩이서도 저 새서방 거시기 새각시 어멍펜인 아니고 아방펜이서 오주, 똑똑헌 사름.(‘수우시’라고 한 사름은 새신랑 집에서 저 새신랑 거시기 새색시 어머니편엔 아니고 아버지편에서 오지, 똑똑한 사름.)

112016 @ 응, 응.(응, 응.)

112016 # 경허민 그 사름이 잘못 현 거 막 허꼭 허여.(그러면 그 사름이 잘못된 거 막 하고 해.)

112016 @ 아, 그 사름을 수우시엔 곤는구나예?(아, 그 사름을 ‘수우시’라고 말하는군요?)

112016 # 응, 수우시가. 막 잘못헐 거 허주게.(응, ‘수우시’가. 막 잘못된 거 하지.)

112016 @ 응.(응.)

112016 # 상당이 온 사름은 물 친 맏어근에 물도 댓 개 메왕 확 허고 허당 잘 허는 사름은 우실 보내주, 미련헌 건 안 보내주게. 못 헤여.(상당한 사름은 말 끈 매어서 말도 댓 개 메워서 확 하고 하다가 잘하는 사름은 위요를 보내지, 미련헌 건 안 보내지. 못 해.)

112016 @ 응.(응.)

112016 # 수우신 못 헤여.(‘수우시’는 못 해.)

112017 @ 아. 가문잔친 어떻행?(아. ‘가문잔치’는 어떻게 해서?)

112017 # 가문잔친 넌 잔치민 오닐 흐민 옛날 도새기 새끼 요멘인 현 거 흐나 잡아근에 그거 솥양 방상 어른덜 나시 베설 혼 점, 귀 혼 점, 간 혼 점헤근에 혼 서넉 점 꿔영, 고쟁이 꿔영 요멘씩 꿔영.(‘가문잔치’는 내일 잔치면 오늘 하면 옛날 돼

229) ‘수우시’는 새신랑 아버지 쪽 친척 중에 위요를 간 사름을 말한다.

지 새끼 요만큼한 거 하나 잡아서 그거 삶아서 친척 어른들 깃 창자 한 점, 귀 한 점, 간 한 점 해서 한 서너 점 꿰어서, 꼬챙이 꿰어서 요만큼씩 꿰어서.)

112017 @ 예.(예.)

112017 # 그거 행 안 온 할망덜은 보내고 그디 온 사름덜은 그디서 돛국물 삶고 밥 해근에 그거 허곡 해여근에 반 낱 그거 먹는 거 가문잔치.(그거 해서 안 온 할머니들은 보내고 거기 온 사람들은 거기서 돼지고기 국물 삶고 밥 해서그거 하고 해서 반 놔서 그거 먹는 거 ‘가문잔치’.)

112017 @ 아, 옛날은 잔치 먹으레 가곡 영 허는 거 잊어났수과, 게민?(아, 옛날은 잔치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없었습니까, 그러면?)

112017 # 경허민 가문에서 경허민 뒷날 새각시 오민 잔치 먹주게. 저물앙 그날은 밥허곡.(그러면 가문에서 그러면 뒷날 새색시 오면 잔치 먹지. 저물어서 그날은 밥하고.)

112017 @ 동네 사름들도 오곡?(동네 사름들도 오고?)

112017 # 응, 동네 사름 먼 방상에도 오곡 사름덜토 오곡 잔칠 허주게.(응, 동네 사름 먼 친척도 오고 사름들도 오고 잔치를 하지.)

112017 @ 아, 그건 새각시 오는 날 허는 거파?(아, 그건 새색시 오는 날 하는 겁니까?)

112017 # 응.(응.)

112017 @ 전날은 그냥 방상들만.(전날은 그냥 친척들만.)

112017 # 새각시 가는 날. 도새기 잡으민 옛날도 사흘은 허주, 흐룬 도새기 잡는 날, 흐룬 방상 어른덜 먹는 날, 따시 또 흐룬 새각시 오는 날 경허주게.(새색시 가는 날. 돼지 잡으면 옛날도 사흘은 하지, 하루는 돼지 잡는 날, 하루는 친척 어른들 먹는 날, 다시 또 하루는 새색시 오는 날 그렇게 하지.)

112017 @ 응.(응.)

112017 # 새각시 오는 날은 늠덜은 안 허고 방상 어른덜만.(새색시 오는 날은 남들은 안 하고 친척 어른들만.)

112017 @ 아, 새각시 오는 날은. 게민 늠덜은 언제 가는 거라?(아, 새색시 오는 날은. 그러면 남들은 언제 가는 거야?)

112017 # 늠덜은 그 아싯날.(남들은 그 전날.)

112017 @ 아, 아싯날. 가문잔칫날. 옛날도 가문잔칫날덜 잣구나예.(아, 전날. ‘가문잔치’날. 옛날도 ‘가문잔치’날들 잣었군요.)

112017 # 응.(응.)

112019 @ 아까 말 곺앗던 대반은 어떻헌 사람이 앓이는 거?(아까 말 했던 대반은 어떤 사람이 앓는 거?)

112019 # 대반이엔 허는 건 새각신 여저, 동세나 그 방상에 새각시네 방상, 시어멍 그 새각시 시어멍네 방상에서 앓지주 친정에서 안 헤 거. 경헌 사름도 그디 동세나 따시 또 방상에 동세나 행, 시누이도 안 앓아. 똑 그디 그 집이.(대반이라고



하는 건 새색시 여자, 동서나 그 친척에 새색시네 친척, 시어머니 그 새색시 시어머니네 친척에서 앉히지 친정에서 안 해 그거. 그런 사람도 거기 동서나 다시 또 친척에 동서나 해서, 시누이도 안 앉아. 꼭 거기 그 집에.)

112019 @ 메뉴리?(며느리?)

112019 # 메뉴리나 메뉴리 엇이민 큰어명 메뉴리나. 경해근에 스촌이나 오촌이라 해도 그 대반은 꼭 새서방집이서가 앉게 댜난 경허민 새각시 상 이젠 음식 사왓 신디 옛날은 새각시 상엔 이제 독다리 하나 놓고 독새기 삶양, 엇은 집인 독새기 삶양 기차.(며느리나 며느리 없으면 큰어머니 며느리나. 그렇게해서 사촌이나 오촌이라 해도 그 대반은 꼭 새신랑 집에서가 앉게 되니까 그러면 새색시 상 이젠 음식 사오고 있는데 옛날은 새색시 상엔 이제 닭다리 하나 놓고 달걀 삶아서, 엇은 집은 달걀 삶아서 잘라.)

112019 @ 응.(응.)

112019 # 딱딱 삶양 세 개도 놓고. 궂인 집인 새각시 상에 궂인 채 세 개 놓고 독다리 하나 놓고 따시 갈리 걸치곡 행 새각시 상은 출려주고, 새서방 상에 따시 대반상엔 새각시 따시 엇이민 계란 반작씩 뉘 따시 또 갈리, 갈리 걸치곡 해근에 독다린 혼 착 점으로 뉘근에 대반 상 출려주민. 그 새각시 상에 대반에 이제 밥 가지깁이에 거리민이 세 번씩 세 번씩 툏툏 거려뉘 상 아래 뉘당 그 밥은 케우리주. (딱딱 삶아서 세 개도 놓고. 다 갖춘 집은 새색시 상에 다 갖춘 채 세 개 놓고 닭다리 하나 놓고 다시 갈비 걸치고 해서 새색시 상은 차려주고, 새신랑 상에 다시 대반 상엔 새색시 다시 없으면 계란 반쪽씩 뉘서 다시 또 갈비, 갈비 걸치고 해서 닭다리는 한 쪽 점으로 뉘서 대반 상 차려주면. 그 새색시 상에 대반에 이제 밥 뚜껑에 뜨면 세 번씩 세 번씩 툏툏 떠뉘서 상 아래 뉘다가 그 밥을 고수레하지.)

112019 @ 아.(아.)

112019 # 케우리. 오만 거 다 툏아뉘 상 아래 뉘당.(고수레해. 오만 거 다 뜯어 뉘서 상 아래 뉘다가.)

112019 @ 예.(예.)

112019 # 케우리. 경 대반도 황당헌 사름, 미련헌 사름 못 해. 경해영 해나민 상 받아나민 이제 장옷 입영 가민 장옷 뉘기고 시집이서 옷 해준 거 행 새각시 옷 입지고. 따시 또 그 행 새각시 행 밥 행 허민 대반상에 건 이녁 상에 거나 헌 건 따시 대반 앓인 사름 아이덜이나 누게 주주, 거 간 사름은 안 주주. 새각시 상에 걸로 꿰기영 혼 점씩 혼 점씩 뉘다근에 갈랑. 이디서 밥행 혼 차반지 행 고량착으로 혼나 행 내치민 그 앞이 쉰당덜이나 게지깁이 안네 밥 혼 수까락 놓고 꿰기 혼 점행 뉘곡 행 방상 가문 어른덜 문딱 새각시 밥을 다 주어.(고수레해. 그렇게 대반도 황당한 사람, 미련한 사람 못 해. 그렇게 해서 하고나면 상 받고나면 이제 장옷 입어서 가면 장옷 뉘기고 시집에서 옷 해준 거 해서 새색시 옷 입히고. 다시 또 그 해서 새색시 해서 밥 해서 하면 대반 상에 건 자기 상에 거나 한 건 다시 대반 앓은 사람 아이들이나 누구 주지, 그거 간 사름은 안 주지. 새색시 상에 그걸로 고기랑

한 점씩 한 점씩 놓다가 갈라서. 여기서 밥해서 한 채롱 해서 ‘고량찰’으로 하나 해서 내치면 그 앞에 권당들이나 밥뚜껑 안에 밥 한 숟가락 놓고 고기 한 점해서 놓고 해서 친척 가문 어른들 모두 새색시 밥을 다 줘.)

112019 @ 아, 애기덜만 먹는 게 아니고?(아, 아기들만 먹는 게 아니고?)

112019 # 아니주.(아니지.)

112019 @ 아이들 손에 받앙 먹은 거.(아이들 손에 받아서 먹은 거.)

112019 # 건 막곳에사. 어른덜 주당 남아사.(그건 마지막에야. 어른들 주다가 남아야.)

112019 @ 아.(아.)

112019 # 가문 그디 신 어른덜은 문막 가지깁이에 밥 농곡 꿰기 혼 점씩 농곡 행 문막 안네당 이젠 문 안네지민.(가문 거기 있는 어른들은 모두 밥뚜껑에 밥 놓고 고기 한 점씩 놓고 해서 모두 드리다가 이젠 모두 드러지면.)

112019 @ 예.(예.)

112019 # 그젠 아이덜 침 무똥에 조랑조랑 사민 수꾸락 흥나씩 주고.(그젠 아이들 참 문밖에 ‘조랑조랑’ 서면 숟가락 하나씩 주고.)

112019 @ 아.(아.)

112019 # 경헤낫주, 옛날에.(그랬었지, 옛날에.)

112019 @ 새각시 밥 먹어나민 그것도.(새색시 밥 먹고나면 그것도.)

112019 # 응, 새각시 밥, 상 받아나민.(응, 새색시 밥, 상 받고나면.)

112019 @ 상 받아나민.(상 받고나면.)

112019 # 응, 경행.(응, 그렇게 해서.)

112019 @ 아, 난 애기덜만 먹는, 반 받아주는 건 줄.(아, 난 아기들만 먹는, 반 받아주는 건 줄.)

112019 # 아니, 아니. 어른덜 방안에 앉이민 꿰기 농곡 행 건 손에 안행 게지깁이에, 그릇에.(아니, 아니. 어른들 방안에 앉으면 고기 놓고 해서 그건 손에 안 해서 밥뚜껑에, 그릇에.)

112019 @ 게지깁이에.(밥뚜껑에.)

112019 # 툭툭허게 어른덜 다 내놔 그 막곳디민 애기덜 수꾸락으로 흥나씩 손에다 받는 거.(툭툭하게 어른들 다 내놔서 그 마지막이면 아기들 숟가락으로 하나씩 손에다 받는 거.)

112019 @ 응.(응.)

112019 # 손에 다 받는 거.(손에다 받는 거.)

112019 @ 응.(응.)

112019 # 새각시 상 받아나민.(새색시 상 받고 나면.)

112019 @ 상 받아나민.(상 받고나면.)

112019 # 경허민 그 상, 옷 해주고 허민 요건 따시 또 이제 어른덜 앓저근에 허민 대민 헤영 오민 요건 이제 큰어머이우다, 죽은어머이우다, 시누이여, 동세여, 통

성명 시기주, 대반이 다.(그러면 그 상, 옷 해주고 하면 요건 다시 또 이제 어른들 앉혀서 하면 대면해서 오면 요건 이제 큰어머니입니다, 작은어머니입니다, 시누이 다, 동서다, 통성명 시키지, 대반이 다.)

112019 @ 예.(예.)

112019 # 경현 거 대반이주게.(그런 거 대반이지.)

112019 @ 아, 게든 아침이 새각시 들레 갑니께, 새서방이.(아, 그러면 아침에 새색시 데리러 가잖아요, 새신랑이.)

112019 # 응.(응.)

112019 @ 그민 새서방상도 받으니께.(그러면 새신랑 상도 받잖아요.)

112019 # 새서방 상은 집이서 해주는 사름은 해주고 안 해주는 사름은 안 해여.(새서방 상은 집에서 해주는 사람은 해주고 안 해주는 사람은 안 해.)

112019 @ 아.(아.)

112019 # 집이서 새각시 상, 상 출리젠 허민 하깃상이엔 안 출려줘. 그자 보통으로 주주.(집에서 새색시 상, 상 차리려고 하면 ‘하깃상’이라고 안 차려줘. 그저 보통으로 주지.)

112019 @ 아. 그냥 보통으로 줍니까?(아, 그냥 보통으로 줍니까?)

112019 # 응.(응.)

112019 @ 응. 그든 아침에 저.(응. 그러면 아침에 저.)

112019 # 새각시도 그자 보통으로 주고.(새색시도 그저 보통으로 주고.)

112019 @ 아침이 아, 새각시 집이선 그냥 보통으로 주고?(아침에 아, 새색시 집에선 그냥 보통으로 주고?)

112019 # 응. 새서방 따시 처갓집이 가민 경 새각시집이 ㄴ치 곳인상 출려주고.(응. 새신랑 다시 처갓집에 가면 그렇게 새색시 집에 같이 ‘곳인상’ 차려주고.)

112019 @ 언제, 언제?(언제, 언제?)

112019 # 그 새서방 가민.(그 새신랑 가면.)

112019 @ 아침이?(아침에?)

112019 # 낮이나, 새서방 가는 시간이 잇주게.(낮에나, 새신랑 가는 시간이 있지.)

112019 @ 아, 신부 들레 가는 거 말고?(아, 신부 데리러 가는 거 말고?)

112019 # 신부 들레 가는 거 시간 봐야 가.(신부 데리러 가는 거 시간 봐야 가.)

112019 @ 계난 시간 뵙 가민?(그러면 시간 봐서 가면?)

112019 # 시간 뵙 그거 새서방첩이, 새각시 집이 가민 따시 새서방도 새각시상 ㄴ치 출려줘.(시간 봐서 그거 새신랑 집에, 새색시 집에 가면 다시 새신랑도 새색시상처럼 차려줘.)

112019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19 # 응, ㄴ치ㄴ치 출려줘. 그건 따시 아니 밥덜 갈라주진 안허여.(응, 같이 같이 차려줘. 그건 다시 아니 밥들 갈라주진 않아.)

112019 @ 그건 근데 아까 새각시 들레 가민 그때 해주는 거 아니고?(그건 근데 아까 새색시 데리러 가면 그때 해주는 거 아니고?)

112019 # 새각시 들레 가민 새서방칩이, 새각시집이 가민게, 새서방, 새각시 상  
그쵸 새서방 뒤에 출려줘.(새색시 데리러 가면 새신랑 집에, 새색시 집에 가면, 새  
신랑, 새색시 상처럼 새신랑 뒤에 차려줘.)

112019 @ 응. 그때도 새각시, 새서방 상에 대반도 잇수과?(응. 그때도 새색시,  
새신랑 상에 대반도 있습니까?)

112019 # 건 아니, 아니 허여.(그건 아니, 아니 해.)

112019 @ 대반은 엇어?(대반은 없어?)

112019 # 대반 서도 건 안 갈라.(대반 있어도 그건 안 갈라.)

112019 @ 아, 대반은 이서?(아, 대반은 있어?)

112019 # 대반은 앓아. 남자 앓아.(대반은 앓아, 남자 앓아.)

112019 @ 남저가 앓아?(남자가 앓아?)

112019 # 건 동세가 앓아.(그건 동서가 앓아.)

112019 @ 아.(아.)

112019 # 대반 것도 동세가 앓주. 오라방은 안 앓아.(대반 그것도 동서가 앓지.  
오빠는 안 앓아.)

112019 @ 남자 동세? 아 오라방은 안 앓고.(남자 동서? 아, 오빠는 안 앓고.)

112019 # 응.(응.)

112019 @ 동세가 앓아.(동서가 앓아.)

112019 # 새각시 부든 그 친정 켤당 스춘 동세나 누가 앓는디 새서방은 동세가  
앓아.(새색시 붙은 그 친정 권당 사춘 동서나 누가 앓는데 새신랑은 동서가 앓아.)

112019 @ 응, 뭐 언니 저 서방이나.(응, 뭐 언니 저 서방이나.)

112019 # 언니 서방이나 아시 서방이나 앓주. 저 오라방은 안 앓아. 오라방은  
안 앓아.(언니 서방이나 아우 서방이나 앓지. 저 오빠는 안 앓아. 오빠는 안 앓아.)

112019 @ 대반이 앓는 게 그거구나예?(대반이 앓는 게 그거군요?)

112019 # 응, 그거라. 안 앓아.(응, 그거야. 안 앓아.)

112019 @ 게민 중방은 무신거파?(그러면 중방은 무엇입니까?)

112019 # 중방<sup>230)</sup>?(중방?)

112019 @ 응.(응.)

112019 # 중방이 무시거라?(중방이 무엇이야?)

112019 @ 그 저 새각시 집이 오민 새서방이.(그 저 새색시 집에 오면 새신랑  
이.)

112019 # 응.(응.)

112019 @ 새각시 집이 오민 그 저 홍세함<sup>231)</sup> 영 들어오라고 할 때 새서방 영

230) ‘중방’은 결혼 때 신부집에서 신랑을 맞아들이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31) ‘홍세함’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이다. 함 속에는 예장과 무명을 넣는다.

상 해근에 선제 영 해근에 사시민.(새색시 집에 오면 그 저 ‘홍세함’ 이렇게 들어오  
라고 할 때 새신랑 이렇게 서서 해서 부채 이렇게 해서 켜으면.)

112019 # 그건 새각시, 새서방 들어오, 저 새각시상, 물 우이 앓앙 영행 느람지  
영 행 오는 거주게 무신건 엇주게.(그건 새색시, 새신랑 들어오, 저 새색시 상, 말  
위에 앉아서 이영 이렇게 해서 오는 거지 무었은 없지.)

112019 @ 경허민 들어옵서 영허는 사름 이수게.(그러면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  
는 사람 있잖아.)

112019 # 것도게 거 대반.(그것도 그거 대반.)

112019 @ 것도 대반이 허는 거?(그것도 대반이 하는 거?)

112019 # 응, 새각시도 마당에 사민 이꺼오꼭 새서방도 저 대반이 이꺼오는 거.  
(응, 새색시도 마당에 서면 끌어오고 새신랑도 저 대반이 끌어오는 거.)

112019 @ 아, 대반이 이꺼오는 거구나예?(아, 대반이 끌어오는 거군요.)

112019 # 응, 돌아오는 거.(응, 돌아오는 거.)

112019 @ 아.(아.)

112019 #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 마당에 행 물 우이 영 앓앙 요래 걸어오민  
거 대반이 청해 오는 거주게.(데려오는 거, 데려오는 거. 마당에 해서 말 위에 이렇  
게 앉아서 요리 걸어오면 그거 대반이 청해 오는 거지.)

112019 @ 거난 청허는 사름.(그러니까 청하는 사람.)

112019 # 그거 대반이.(그거 대반이.)

112019 @ 아, 남저 대반이.(아, 남자 대반이.)

112019 # 응, 남저 대반. 남전 남저 대반이 허고 여청은 여저 대반이 허고.(응,  
남자 대반. 남자는 남자 대반이 하고 여편네는 여자 대반이 하고.)

112019 @ 응.(응.)

112019 # 건 대반이 다 해오는 거.(그건 대반이 다 해오는 거.)

112019 @ 대반이 다 허는 거구나예?(대반이 다 하는 거군요?)

112019 # 응, 거 트로 엇어. 대반이 흥여 오주.(응, 그거 따로 없어. 대반이 해  
오지.)

112019 @ 응.(응.)

112019 # 대반 앓는 사름이.(대반 앓는 사름이.)

112020 @ 옛날에 부주는 어떻게 낫수과? 이젠 돈 나난 돈으로 험주만은, 돈 엇  
인 땐?(옛날에 보조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젠 돈 나니까 돈으로 하고 있지만, 돈  
없을 땐?)

112020 # 옛날은 사돈침인 곤썰 혼 말.(옛날은 사돈집엔 흰쌀 한 말.)

112020 @ 응.(응.)

112020 # 따시 늬의 집인, 방상엔 따시 보리쌀, 통보리쌀도 해주는 사름, 좁쌀도  
해주는 사름.(다시 남의 집엔, 친척에 다시 보리쌀, 통보리쌀도 해주는 사람, 좁쌀도  
해주는 사람.)

112020 @ 얼마이?(얼만큼?)

112020 # 흔 말.(한 말.)

112020 @ 흔 말.(한 말.)

112020 # 응. 갱 잘 허는 사둔칩인 흔 말. 곤썰 흔 말. 경 안허민 통보리썰 따시 또 헛썰 허영 사둔 가지사둔이나 현 사름덜은 보리썰이나 통보리썰이나 흔 말허고 쯤썰이나 허곡 현디, 그자 사름덜은 믁슴 이신 사름은 관뉘 석 뉘, 경 안허민 관뉘 두어 개 주는 사름도 싣고.(응. 그래서 잘 하는 사둔집은 한 말. 흰쌀 한 말. 그렇지 않으면 통보리쌀 다시 또 조금 해서 사둔 결사둔이나 한 사람들은 보리쌀이나 통보리쌀이나 한 말하고 쯤썰이나 하고 한데, 그저 사람들은 마음 있는 사람은 관뉘 석 되, 그렇지 않으면 관뉘 두어 개 주는 사람도 있고.)

112020 @ 관뉘 두어 개? 두 개?(관뉘 두어 개? 두 개?)

112020 # 응.(응.)

112020 @ 응.(응.)

112020 # 세 개 주는 사름도 싣고. 부지도 흔 엇어. 우린 부제가 하도 부제 사둔, 사둔칩 해노난 잔치 해노난 곤썰도 뒤 섬씩 마탕주. 경 허드레 보진 안헛주. 방상이 하도 하노난게. 그 대신 흙도 허곡.(세 개 주는 사람도 있고. 부조도 한없어. 우린 부자가 하도 부자 사둔, 사둔집 해놓으니까 잔치 해놓으니까 흰쌀도 뒤 섬씩 받았지. 그렇게 허투루 보지는 않았지. 친척이 하도 많아서. 대신 하기도 하고.)

112020 @ 맞아. 출령 맥임도예?(맞아. 차려서 먹임도요?)

112020 # 응.(응.)

112021 @ 암창궐<sup>232)</sup> 무신거꽈?('암창개'는 무엇입니까?)

112021 # 암창궐 새서방, 새각시 엇어근에 새서방만 가는 게 암창개.('암창개'는 새신랑, 새각시 없어서 새신랑만 가는 게 '암창개'.)

112021 @ 아, 반대 아니고? 새서방이 엇고 새각시만 오는 거 아니?(아, 반대 아니고? 새신랑이 없고 새색시만 오는 거 아니?)

112021 # 새각시만은 안 오주게.(새색시만은 안 오지.)

112021 @ 아니.(아니.)

112021 # 새서방, 새서방은 저 새각시 가는 건 군인이나 강은에 어디 강 안 오민.(새신랑, 새신랑은 저 새색시 가는 건 군인이나 가서 어디 가서 안 오면.)

112021 @ 예.(예.)

112021 # 가주만은 경. 암창개 여청은 보내지 안 허여, 남저덜은 와도. 암창개 오는 건. 장개엔 허난 남저가 가는 게 장개주 여청 가는 거 시집이주. 무신.(하지만 그렇게. '암창개' 여편네는 보내지 않아, 남자들은 와도. '암창개' 오는 건. 장가라고 하니까 남자가 가는 게 장자기 여편네 가는 거 시집이주. 무슨.)

112021 @ 새각시 엇인디 장궐 무사 갑니까?(새색시 없는데 장가를 왜 갑니까?)

232) '암창개'는 약혼하고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이 상제가 되거나, 먼 곳에 갔다가 혼례 당일 부득이 돌아오지 못할 때 신랑 없이 치르는 혼례를 말한다.

112021 # 경허난 사름마다 허는 건 아니주게. 경 흥텐 말이주. 우리 방상에도 겔혼허젠 군인 가부난 어디 군인은 성읍리 사름이고 우린 삼달리 우이 강침이 딸인 디 우리 오촌 딸인디 도새기 잡안 아싯날 가문잔치 문 안 해도 그날 처낙 새서방 안 오난 잔치 설러비언.(그러니까 사름마다 하는 건 아니지.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 우리 친척에도 결혼하려고 군인 가버리니까 어디 군인은 성읍리 사름이고 우린 삼달리 위에 강 집의 딸인데 우리 오촌 딸인데 돼지 잡아서 전날 가문잔치 모두 안 하고 그날 저녁 새신랑 안 오니까 잔치 그만뒀버렸어.)

112021 @ 설러비언?(그만뒀버렸어?)

112021 # 응, 설러비언 다른 디 시집갔주, 거 안 허엿저.(응, 그만뒀버려서 다른 데 시집갔지, 그거 안 했지.)

112021 @ 아.(아.)

112021 # 새서방 안 오라부난.(새신랑 안 와버리니까.)

112021 @ 새서방 안 오라불민.(새신랑 안 와버리면.)

112021 # 응. 안 오라부난 새서방침이선 뒷날은 오란 잔치 넘은 후에 암만 허젠 해도 그 새각시 안 헤연. 다른 디 시집간.(응. 안 와버리니까 새신랑집에선 뒷날은 와서 잔치 넘은 후에 암만 하자고 해도 그 새색시 안 했어. 다른 데 시집갔어.)

112021 @ 진짜로?(진짜로?)

112021 # 안 헤여났저.(안 했었어.)

112021 @ 응.(응.)

112021 # 경 아무나 경 암창개 수창개<sup>233)</sup> 안 가. 그에 이젠 아픈 디나 여저 아픈 디나 허민 누게 새서방이 수창개나 가났주. 경 아무나 가나지 안헨.(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암창개’, ‘수창개’ 안 가. 그에 이젠 아픈 데나 여자 아픈 데나 하면 누구 새신랑이 ‘수창개’나 갔었지. 그렇게 아무나 가지 았았어.)

112021 @ 수창개도 이수과?(‘수창개’도 있습니까?)

112021 # 게 느 수창개엔 안 굴안다?(게 너 ‘수창개’라고 안 말했니?)

112021 @ 암창개.(‘암창개’.)

112021 # 암창개게. 경흥 사름이나 가주, 아무나 안 가.(‘암창개’. 그렇게 한 사름이나 가지, 아무나 안 가.)

112021 @ 아.(아.)

112021 # 우리 방상에 경 안 헤봤저. 우리 역은 후에.(우리 친척에 그렇게 안 헤봤어. 우리 큰 후에.)

112021 @ 아, 그런 말이 잇긴 이서났수과?(아, 그런 말이 잇긴 있었습니까?)

112021 # 잇긴 이서도 경 헨 디가 우리 삼달린 경 암창개 수창개 갖젠 말은.(잇긴 있어도 그렇게 한 데가 우리 삼달린 그렇게 ‘암창개’, ‘수창개’ 갔다는 말은.)

112021 @ 응.(응.)

112021 # 어디 싯당 그 장에 관련헿 각시나 아파불민 경헿 감사 헤신디 몰르

233) ‘수창개’는 ‘암’의 반대말로 ‘수’를 넣어서 제보자가 만든 용어다.

주.(어디 있다가 그 장에 관련해서 각시나 아과버리면 그렇게 해서 가기가 했는지 모르지.)

112021 @ 응.(응.)

112021 # 그 날째에 가근에 허민게 새각시 병 종민 돌아강 살 거난.(그 날짜에 가서 하면 새색시 병 좋으면 데려가서 살 거니까.)

112021 @ 그믐 저 새서방 엇이 새각시만 행 결혼식허는 건 뭐엔 곶아?(그러면 저 새신랑 없이 새색시만 해서 결혼식하는 건 뭐라고 말해?)

112021 # 거 안 가주게, 새각시만은.(그거 안 가지, 새색시만은.)

112021 @ 안 가. 하하하.(안 가. 하하하.)

112021 # 안 가주, 가느냐?(안 가지, 가니?)

112021 @ 아니게, 어디 군대라도 가불곡게 결혼허기로 헛당.(아니, 어디 군대라도 가버리고 결혼하기로 했다가.)

112021 # 군대 강 안 돌아와도. 게난 우리 방상에 설러불엇젠 안 곶아냐게.(군대 가서 안 돌아와도. 그러니까 우리 친척에 그만뒀버렸다고 안 말하냐.)

112021 @ 하하하.(하하하.)

112021 # 잔치 설런 안 헛저.(잔치 그만두고 안 했어.)

112021 @ 응.(응.)

112021 # 게난 그때 우리집잇아방<sup>234)</sup> 중매헤나난 우리집잇아방 웨가인디 중매 헛단 막 새각시 어명신디 켜당이난 욱을, 욱들어나시네.(그러니까 그때 우리집의 아버지 중매하고나니까 우리집의 아버지 외가인데 중매했다가 막 새색시 어머니께 권당이니까 욱을, 욱들었었잖아.)

112021 @ 하하하.(하하하.)

112021 # 중진 잘못 헛젠.(중매 잘못 했다고.)

112022 @ 예. 죽은 사름덜끼리 결혼시키는 것도 잇주예?(예. 죽은 사름들끼리 결혼시키는 것도 있지요?)

112022 # 잇주.(있지.)

112022 @ 건 어떻 허민 허는 거파?(그건 어떻게 하면 하는 겁니까?)

112022 # 흑사돈<sup>235)</sup>.('흑사돈'.)

112022 @ 응?(응?)

112022 # 흑사돈.('흑사돈'.)

112022 @ 무슨 사돈?(무슨 사돈?)

112022 # 흑사돈.('흑사돈'.)

112022 @ 흑사돈?('흑사돈'?)

112022 # 응.(응.)

112022 @ 건 무사 흑사돈이엔 허는 거?(그건 왜 '흑사돈'이라고 하는 거?)

234) '우리집잇아방'은 풀이하면 '우리집의 아버지'이지만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말하는 것이다.

235) '흑사돈'은 사혼을 한 사돈 지간을 흑에 문었다고 해서 흑사돈이라고 한다.



112022 # 흑사돈은 땅에 묻어본 사름 강 허난 흑사돈.(‘흑사돈’은 땅에 묻어버린 사람 가서 하니까 ‘흑사돈’.)

112022 @ 아, 땅에 묻어부난.(아, 땅에 묻어버리니까.)

112022 # 응, 묻어부난게. 새서방도 묻곡 새각시도 묻곡 허민 흑사돈 아니냐? (응, 묻어버리니까. 새신랑도 묻고 새색시도 묻고 하면 ‘흑사돈’ 아니냐?)

112022 @ 결혼 못행 죽은 사름 둘리 결혼시키는 거파?(결혼 못해서 죽은 사람 둘이 결혼시키는 겁니까?)

112022 # 응.(응.)

112022 @ 무사 결혼시키는 거라?(왜 결혼시키는 거야?)

112022 # 그 홀아방으로 죽으민 남저 겔혼 안행 죽으민 무저귀신<sup>236)</sup> 웰 거난. (그 홀아비로 죽으면 남자 결혼 안해서 죽으민 ‘무저귀신’ 될 거니까.)

112022 @ 무슨 귀신?(무슨 귀신?)

112022 # 무저귀신.(‘무저귀신’.)

112022 @ 무저귀신?(‘무저귀신’?)

112022 # 응.(응.)

112022 @ 무저귀신이 뭐파?(‘무저귀신’이 뭘니까?)

112022 # 남저나 여저나 홀차 죽영 아기 었은 사름 무저귀신.(남자나 여자나 홀로 죽어서 아기 얻은 사람 ‘무저귀신’.)

112022 @ 아. 결혼 안 행 죽으민?(아. 결혼 안 하고 죽으면?)

112022 # 응, 겔혼 안 행.(응, 결혼 안 해서.)

112022 @ 거든 무사 귀신 뉘도 안 좋텐?(그러면 왜 귀신 되어도 안 좋다고?)

112022 # 게난 귀신도 안 죽영은에 안 좋은 사름은 안 좋곡, 좋은 사름은 좋곡 허는디 우리 방상엔 문딱 경헌 흑사돈을 헤신디 안 허는 집인 안 허여.(그러니까 귀신도 안 죽어서 안 좋은 사람은 안 좋고, 좋은 사람은 좋고 하는데 우리 친척엔 모두 그런 ‘흑사돈’을 했는데 안 하는 집은 안 해.)

112022 @ 응.(응.)

112022 # 요디 요 느려오는 집이, 요디 집 잘헌 집 허나 싯지 안허냐? 매날 문 더쁜 집. 그 집이가 아덜 성제나 죽어도 셋아덜이 겔혼허지 못헤 탁 윈 전 죽어도 죽영 어디 강 곳을 허여도 겔혼만 헤도렌 헤도 안 헤줬주. 그 집이 뉘질 안헤. 다 아기덜 큰 아덜도 안 뉘고 큰아덜에 손지도 안 뉘고. 시방 혼 대가 무너전.(요기 요 내려오는 집에, 요기 집 잘한 집 하나 있지 않니? 맨날 문 닫은 집. 그 집이 아들 형제가 죽어도 둘째아들이 결혼하지 못해서 탁 윈 저서 죽어도 죽어서 어디 가서 곳을 헤도 겔혼만 헤달라고 헤도 안 해줬지. 그 집이 되지 않아. 다 아기들 큰아들도 안 되고 큰아들에 손자도 안 되고. 시방 한 대가 무너졌어.)

112022 @ 아.(아.)

112022 # 게난 시방 어디 월남 가오란 그 덕으로 일본 땡경 돈은 쳐 벌언 큰아

236) ‘무저귀신’은 결혼하지 않고 죽은 처녀귀신, 총각귀신을 말한다고 제보자가 설명하고 있다.

덜 이제 예순네인디, 아, 예순으답인디. 아이고 아무것도 안 난 큰아덜도 아덜 하나 나, 딸 하나 난 결혼헐에 하도 술만 먹언 광질헐에 이혼헐에 일불로 장에 간에 어디 월남 탕건 돈 버슬고 아방이 허난 풀도 엇어. 일본 간 그런 돈 해도 풀 엇어. 편 짝허난 시방 서귀포병원에 입원허고 어명은 저 시에 대학병원 입원허고 시방.(그러니까 시방 어디 월남 갔다와서 그 덕으로 일본 다녀서 돈은 쳐 벌어서 큰아들 이제 예순넷인데, 아, 예순여덟인데. 아이고 아무것도 안 낳아서 큰아들도 아들 하나 낳아, 딸 하나 낳아서 결혼해서 하도 술만 먹어서 광질해서 이혼해서 일부러 장에 가서 어디 월남 다녀서 돈 벌고 아버지 하니까 풀도 없어. 일본 가서 그런 돈 해도 풀 없어. 깨끗하니까 시방 서귀포병원에 입원하고 어머니는 저 시에 대학병원 입원하고 시방.)

112022 @ 아.(아.)

112022 # 계난 아덜은 따시 깡패 축에 들언에 어떻, 아방 이혼헐 어떻이영, 홀 어떻이영 살명 따시 또 깡패 축에 들언 이제 마흔이라.(그러니까 아들은 다시 깡패 축에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이혼해서 어머니랑, 홀어머니랑 살면서 다시 또 깡패 축에 들어서 이제 마흔이야.)

112022 @ 응.(응.)

112022 # 마흔 난 것가 이제 거들씩헐, 병신 똥. 막 깡패안티 돈 내놓렌 막 두 들언 정신환자 똥불언.(마흔 난 것이 이제 들씩해서, 병신 돼서. 막 깡패에게 돈 내놓으라고 막 두드려서 정신병자 되어버렸어.)

112022 @ 아.(아.)

112022 # 계난 안 돼지.(그러니까 안 되지.)

112022 @ 계민 이거 저 어디 강 들으민 흑사돈 헤사켜 허민.(그러면 이거 저 어디 가서 들으면 ‘흑사돈’해야겠다 하면.)

112022 # 해야.(해야.)

112022 @ 시켜야 똥는 거?(시켜야 되는 거?)

112022 # 해야. 경 헤사 헤. 경허난 흑사돈도 새각시 스주 난 날 들여놓고 새시방 헌디, 것도 스주 맞아사. 안 맞이민 안 똥여.(해야. 그렇게 해야 해. 그러니까 ‘흑사돈’도 새각시 사주 난 날 들여놓고 새신랑 한테, 그것도 사주 맞아야. 안 맞으면 안 똥.)

112022 @ 응. 이런 거 허는 거 봐납디가?(응. 이런 거 하는 거 봤었습니까?)

112022 # 봤주게.(봤지.)

112022 @ 방상에서도 헌 사름 이수과?(친척에서도 한 사람 있습니까?)

112022 # 응, 우리 방상에 여러 밧 이서.(응, 우리 친척에 여러 군데 있어.)

112022 @ 아.(아.)

112022 # 혼 밧디 두 밧, 두 번 헌 디 잇고, 혼 밧된 혼 번 헌 디.(한 군데 두 군데, 두 번 한 데 잇고, 한 군데 한 번 한 데.)

112022 @ 이건 어떻 행 허는 거파?(이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12022 # 처음에 스주 빌어다 낱 것도 날 뺐.(처음에 사주 빌어다 뺐서 그것도 날 뺐서.)

112022 @ 응.(응.)

112022 # 날 봐근에 이제 새각시 저 새서방이 이제 새각, 저 산에 가근에 결혼 할 거엔 축 썩 익어.(날 봐서 이제 새색시 저 새신랑이 이제 새색, 저 산에 가서 결혼할 거라고 축 써서 읽어.)

112022 @ 응. 산에 강?(응. 산에 가서?)

112022 # 산에 강 익영. 이젠 그디도 우시도 허곡 새각시집이서 시집 보내듯 산 때 시집보내듯 문 출려. 이젠 사돈집이 새서방집이 보내주게. 보내곡 이젠 우시 출리곡 해근에 들러리 출리곡 해근에 새각시 산에 가근에 따시도 새서방 스주 아지곡 행 가근에, 사진 아지곡 행 사돈 결혼하는 식 해근에 축 익어.(산에 가서 읽어. 이젠 거기도 위요도 하고 새색시집에서 시집 보내듯 산 때 시집 보내듯 모두 차려. 이젠 사돈집에 새신랑 집에 보내지. 보내고 이젠 위요 차리고 해서 들러리 차리고 해서 새색시 산에 가서 다시도 새신랑 사주 갖고 해서 가서, 사진 갖고 해서 사돈 결혼하는 식 해서 축 읽어.)

112022 @ 아.(아.)

112022 # 축 익어 나민 새각시 들앙 오랑 새서방집이 오랑 잔칠 해여.(축 읽고 나면 새색시 데리고 와서 새신랑 집에 와서 잔치를 해.)

112022 @ 아, 잔칠 허여? 진짜로?(아, 잔치를 해? 진짜로?)

112022 # 응. 상 그 저 귀신 영혼나시 상 다 놓곡 해근에 잔칠 해여.(응. 상 그 저 귀신 영혼 것 상 다 놓고 해서 잔치를 해.)

112022 @ 아, 그믐 방상들도 다 오고?(아, 그러면 친척들도 다 오고?)

112022 # 응. 방상, 들러리. 옛날엔 우시도 다 오곡 들러리도 다 오곡 행 문밖. 문 출령 내놔.(응. 친척, 들러리. 옛날엔 위요도 다 오고 들러리도 다 오고 해서 모두. 모두 차려서 내놔.)

112022 @ 진짜 잔치네.(진짜 잔치네.)

112022 # 응, 진짜 잔치로 해여. 경 상 출령 방상어른덜 다 오곡 새각시상 새서방상 혼 상에 딱 출령 내놔. 계민 잔치주.(응, 진짜 잔치로 해. 그렇게 상 처려서 친척어른들 다 오고 새색시 상 새신랑 상 한 상에 딱 차려서 내놔. 그러면 잔치지.)

112022 @ 응.(응.)

112022 # 경행 흑사돈 허주게. 돈 시민 돈 행 다 그 새각시 친정에서 다 주고.(그렇게 해서 ‘흑사돈’ 하지. 돈 있으면 돈 해서 다 그 새색시 친정에서 다 주고.)

112022 @ 누구신디?(누구에게?)

112022 # 새서방, 새각시 간 집이. 시집간 디.(새신랑, 새색시 간 집에. 시집간 데.)

112022 @ 돈 무사 줘?(돈 왜 줘?)

112022 # 거 가민 귀신이 가시니까게.(그거 가면 귀신이 갔으니까.)

112022 @ 하하하.(하하하.)

112022 # 무저귀신 해 가난 그 식계멍질 허젠 허민게 그디 아덜이나 무시거행  
겔혼시켜오민 거 쥐살 거 아니냐? 요 본천이엔 행. 소분밧<sup>237</sup>), 소분밧.(‘무저귀신’  
해가니까 그 제사명절 하려고 하면 거기 아들이나 무엇해서 결혼시켜 오면 그거 쥐  
야할 거 아니냐? 요 본천이라고 해서. ‘소분밧’, ‘소분밧’.)

112022 @ 소분밧. 아 소분해 주는 거.(‘소분밧’. 아, 벌초해 주는 거.)

112022 # 응, 식계멍질 해주는 소분밧.(응, 제사명절 해주는 ‘소분밧’.)

112022 @ 아.(아.)

112022 # 그거 행 주어야 해여.(그거 해서 줘야 해.)

112022 @ 새각시집이서?(새색시 집에서?)

112022 # 응. 엇영 돈딱 엇이민 허곡 새각시 버슬르민 쥐사주.(응. 없어서 모두  
없으면 하고 새색시 벌면 줘야지.)

112022 @ 아.(아.)

112022 # 원 편찌룽은 안 행 줘야.(원 아무것도 없이는 안 해서 줘야.)

112023 @ 결혼 허기, 결혼 날 받으민 뭘 어떤 것도 허지 말고, 어떤 거 조심허  
고 영허는 거 이수게?(결혼 하기, 결혼 날 받으면 뭘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어떤 거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112023 # 이 촌엔 새각시 잔칫날 행 받아근에 방상이 잔치나 무시거 해도 안  
가는 법 엇영 가는디 시엔 시에 본은 영 혼 동세에 스춘, 원 당 동세집이 시아주방  
네 잔치허영 혼 올레 안네 해도 요 상도 하나 안 빌려주도 안허고 가도 안허고 허  
더라.(이 촌엔 새색시 잔칫날 해서 받아서 친척이 잔치나 무엇 해도 안 가는 법 없  
어서 가는데 시에는 시에 본은 이렇게 한 동서에 사춘, 원 당 동서집에 시아주버니  
네 잔치해서 한 올레 안에 해도 요 상도 하나 안 빌려주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하  
더라.)

112023 @ 이딘 경 안헤?(여긴 그렇게 안 해.)

112023 # 이제 아니, 시에덜은 경허더라고.(이제 아니, 시에들은 그렇더라고.)

112023 @ 이딘 경 안헉니까?(여긴 그렇게 안 헉니까?)

112023 # 이딘 경 안허여.(여긴 그렇게 안 해.)

112023 @ 아, 옛날에 그런 법은 엇어났구나.(아, 옛날에 그런 법은 없었구나.)

112023 # 엇어났어.(없었었어.)

112023 @ 이제사 난 거구나.(이제야 난 거구나.)

112023 # 엇어난 거. 거 법으로 헌 건 시대로 허는 건 아니주. 지네 막음.(없었  
던 거. 그거 법으로 한 건 시대로 하는 건 아니지. 자기네 막음.)

112023 @ 게난. 요즘엔 막 경허거든마썸. 잔치 먹으레도 안 가곡.(그러니까. 요  
즘엔 막 그렇게 하거든요. 잔치 먹으러도 안 가고.)

112023 # 안 가곡.(안 가고.)

---

237) ‘소분밧’은 조상 제사를 모시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했던 밭이다.

112023 @ 날 받으민.(날 받으면.)

112023 # 날 받으민.(날 받으면.)

112023 @ 옛날부터 경혜난 건 아니구나예?(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군요?)

112023 # 옛날부터 경헌 건 아니.(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

112023 @ 응.(응.)

112023 # 우리 방상에 그추룩 허난 방상이난에 우리 거 혼디 잔치영 대소상이 영 혼디 먹고 제 보곡 허는 방상인디 그 켜당침이 잔치허난에 잔치맛디 갓곤데 아 이고, 는, 널 도새기 잡는 날이고 오닐은 그 잔치침이난 간. 아 잔친걸 잔치 먹으레 온딘. 잔치 먹으레 읍니다. 경해도 아뭇치도 안헤영 잘 사는데 살암서 시방, 살암서.(우리 친척에 그렇게 하니까 친척이니까 우리 그거 함께 잔치랑 대소상이랑 함께 먹고 제 보고 하는 친척인데 그 켜당집에 잔치하니까 잔치밭에 가길래 아이고, 넌, 널 돼지 잡는 날이고 오늘은 잔치집이니까 간. 아 잔치인 걸 잔치 먹으러 왔냐고. 잔치 먹으려는 읍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앓고 잘 사는데 살고 있어 시방, 살고 있어.)

112023 @ 응.(응.)

112023 # 그거 지네 이익골림에 메는 거주. 보가 신 거냐? 그 보가 엇어. 그냥 지네 막음대로주.(그거 자기네 ‘이익골림’에 따른 거지. ‘보’가 있는 거냐? 그 ‘보’가 없어.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지.)

112023 @ 그냥 지네 몸냥 허는 거구나게예, 옛날부터 경혜시카부덴.(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군요, 옛날부터 그랬을까봐.)

112023 # 아니, 그 옛날에 그런 법이. 옛날 살아도 법 চলি그 그런 거 চল리그 헨 살아시냐?(아니, 그 옛날에 그런 법이. 옛날 살아도 법 চল리그 그런 거 চল리그 해서 살았니?)

112023 @ 응.(응.)

112023 # 새 대 나난 그거주. 새 대 나도 저 시더레 경헛주, 이드렌 경 안 헛저. 이제덜은 어떻사 험신디 몰라도.(새 대 나니까 그거지. 새 대 나도 저 시에 그랬지, 여기쪽엔 그렇게 안 헛저. 이제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112023 @ 예.(예.)

## 상례

112024 @ 계민 이번엔 영장난 집이라예.(그러면 이번엔 초상난 집이에요.)

112024 # 응.(응.)

112024 @ 사람 죽으민 죽은 거 어떻 확인헤마썬?(사람 죽으면 죽은 거 어떻게 확인해요?)

112024 # 사람 죽으민.(사람 죽으면.)

112024 @ 죽어신지 안 죽어신지 어떻 확인헤?(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해?)

112024 # 죽으면 영 죽어근에 그 시간에 허진 안허곡 이제 호상웃이엔 현 건 죽으면 이디 입은 옷 멘딱 벗겨똥 멩지웃이민 멩지웃, 문딱 입지곡 도복 입지곡 반 듯 헤여근에 고만이 녹져. 무끄질 안허여.(죽으면 이렇게 죽어서 그 시간에 하진 않고 이제 수의라고 한 건 죽으면 여기 입은 옷 모두 벗겨두고 명주웃이면 명주웃, 모두 입히고 도복 입히고 반듯해서 가만히 눕혀. 묵질 않아.)

112024 @ 그 전이. 처음에, 처음에.(그 전에. 처음에, 처음에.)

112024 # 처음에 그 죽으면.(처음에 그 죽으면.)

112024 @ 죽어신지 안 죽어신진 어떻 알아?(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어떻게 알아?)

112024 # 아, 죽으면 영 행 코 영 행 대어 보민 숨이 쉬는가.(아, 죽으면 이렇게 해서 코 이렇게 해서 대어 보면 숨이 쉬는가.)

112024 @ 코에 손 영 대봐?(코에 손 이렇게 대어봐?)

112024 # 영 대민 숨 쉬는 거 안 쉬는 거 알주게.(이렇게 대면 숨 쉬는 거 안 쉬는 거 알지.)

112024 @ 아.(아.)

112024 # 게곡 죽젠 허민 영 누웠당이라도 그 사름이 고만이 허지 안행 고개라도 툭 툭아불주. 그자 고만이 뉘 가부는 사름 가부는다. 영 알아지주. 코에 영 손 대민 숨 쉬는 거 안 쉬는 거 알아지주게.(그리고 죽으려고 하면 이렇게 누웠다가라도 그 사람이 가만히 하지 않아서 고개라도 툭 틀어버리지. 그저 가만히 누워서 가버리는 사람 가버리는데 이렇게 알게 되지. 코에 이렇게 손 대면 숨 쉬는 거 안 쉬는 거 알 수 있지.)

112024 @ 뭐 미음 ㄴ튼 거.(뭐 미음 같은 거.)

112024 # 물 ㄴ튼 건 헤영 허민.(물 같은 건 해서 하면.)

112024 @ 영 맥이던 게 건 뭐파?(이렇게 먹이던 게 그건 뭘니까?)

112024 # 저 죽물. 미음 물.(저 죽물. 미음 물.)

112024 @ 응.(응.)

112024 # 미음 물 거러냥 죽물을 그레 거러 놓라 행 허민 숨지지 안 허민 수가락을 기자 거 애기덜이라도 영 츠레로 수가락에 물 적정 영 입바위레 술술술 허주. 느리지 못허난 물 거러놓민 느려가지 안허주게.(미음 물 떠놔서 죽물을 그리 떠놔라 해서 하면 삼키지 않으면 순가락을 그저 그거 아기들이라도 이렇게 차례로 순가락에 물 적셔서 이렇게 입술에 살살살살 하지. 내리지 못하니까 물 떠놓으면 내려가지 않지.)

112024 @ 죽어불민예.(죽어버리면요.)

112024 # 응, 게난 숨이 잤다 왔다허민 안 느려와.(응, 그러니까 숨이 잤다 왔다 하면 안 내려.)

112024 @ 경해도 그거.(그래도 그거.)

112024 # 경허민 영행 물 제왕 영영 느리질, 숨 잤다 왔다허민 안 느렵나게.(그

러면 이렇게 해서 물 없애고 이렇게 이렇게 내리지, 숨 갔다 왔다하면 안 내린다.)

112024 @ 응.(응.)

112024 # 영영영영 불라가민 입바위 물르민 불르는 거. 살아가민 일로 낡 형형 숨쉬는 사람도 싯곡 자는 듯이 흑흑하는 사람도 싯곡 다 죽어가도 혼 뿐 아니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가면 입술 마르면 바르는 거. 살아가면 이리로 와서 형형 숨쉬는 사람도 있고 자는 듯이 흑흑하는 사람도 있고 다 죽어가도 한 품 아니지.)

112024 @ 응.(응.)

112024 # 죽어가는 건 혼 뿐 아니라. 막 여라 가지라.(죽어가는 건 한 품 아니야. 막 여러 가지야.)

112025 @ 쟁 죽었저 허민 뭐 복 붙릅니까?(그렇게 해서 죽었다 하면 뭐 복 붙릅니까?)

112025 # 죽영 문딱 해근에 그 무꺼근에 문딱 대수림<sup>238</sup>이엔 현 거, 소수림<sup>239</sup>이엔 현 건 임시 경행 죽영 스몓 죽어신디 말아신디 이 발 무끄고 손혜영 영 낡 한 가운데 혼 밧디만 영 손 낡 ㄱ짜혜영 무끄민 소수림, 기영 낯당 혼 이십 분이나 혼 싯다근에 스몓 죽었당 깨남사 헐티 몰르난.(죽어서 모두 해서 그 묶어서 모두 ‘대수림’이라고 한 거, ‘소수림’이라고 한 건 임시 그렇게 해서 죽어서 사몓 죽었는지 말았는지 이 발 묶고 손 해서 이렇게 와서 한가운데 한 군데만 이렇게 손 와서 곧게 해서 묶으면 ‘소수림’, 그렇게 낯다가 한 이십 분이나 한 있다가 사몓 죽었다가 깨나기야 할지 모르니까.)

112025 @ 예.(예.)

112025 # 흙치 잇당 그제민 혼 이십 분, 삼십 분 낯다근에 그제민 이젠 이거 열두 무게 발 영행 무끄곡, 이디 무끄곡, 열두 무게난 열두 밧디를 무꺼.(한꺼번에 있다가 그제면 한 이십 분, 삼십 분 낯다가 그제면 이젠 이거 열두 묶음 발 이렇게 해서 묶고, 여기 묶고, 열두 묶음이니까 열두 군데를 묶어.)

112025 @ 예.(예.)

112025 # 모작은 혜영 베 혜여근에 영 상에 찢렁 베 혜영 닥닥혜영 칼로 찢적 브려근에 무게가 그 베 혼 혜가 두 무게 무끄주. 두 개 무끄민 저 혼 허는디 그거 행 열두 밧디 무꺼근에 딱 무껍 낯다근에 이젠 경행 놔뒀근에 그젠 따시또 혼 날만 관 차근에 대수림이엔 현 건 하관험젠, 입관험젠 허는 건가, 입관이주. 그 관 창 그 시간 돼어서 관을 차근에 그 죽은 사람 관 안터레 들여놓주. 들여놔놔사 혼 불르주, 그잔 혼 안 불르주.(매듭은 해서 베 해서 이렇게 서서 찢러서 베 해서 닥닥해서 칼로 찢적 찢어서 묶음이 그 베 한 혜가 두 묶음 묶지. 두 개 묶으면 저 한 하는데 그거 해서 열두 군데 묶어서 딱 묶어 낯다가 이젠 그렇게 해서 놔뒀서 그젠 다시또 한 날만 관짜서 ‘대수림’이라고 한 건 하관하고 있다고, 하관하고 있다고 하는 건가,

238) ‘대수림’은 장의사가 시체를 손질하는 절차 중 하나다.

239) ‘소수림’은 장의사가 시체를 손질하는 절차 중 하나다.

입관이지. 그 관 짜서 그 시간 되어야 관을 짜서 그 죽은 사람 관 안으로 들여놓지. 들여놔야 혼 부르즈, 그저는 혼 안 부르지.)

112025 @ 혼은 어떻 불르는 거파?(혼은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112025 # 혼은 저영, 적삼 행 저영 행 옛날 지붕 우이 상 불렀주. 영 지붕 이 시방은 대문 한가운데 사근에 이제 성은 아무가이 이젠 나는 멧 솔 이제 성은 무시 거, 나은 멧 솔 행 복, 복 행 세 번 불르주.(혼은 저렇게, 적삼 해서 저렇게 해서 옛날 지붕 위에 서서 불렀지. 이렇게 지붕 이 시방은 대문 한가운데 서서 이제 성은 아무개 이젠 나는 멧 살 이제 성은 무엇, 나이는 멧 살 해서 복, 복 해서 세 번 부르지.)

112025 @ 아.(아.)

112025 # 경행 불령 오민 이젠 따시 옛날은 경 상행 아정, 상지착 행 상행 아정 가민 큰메누리가 해영 아저왕 저영 상 불른 저 무똥에 산 어른 적삼을 상더레 뱅뱅 행 똑 이불 철이 아정오민 이레 아저다 놓민 그젠 곡 소리허멍 그젠 우는 거.(그렇게 해서 불려서 오면 이젠 다시 옛날은 그렇게 상해서 가져서, 채롱 해서 상해서 가져가면 큰머느리가 해서 가져와서 저렇게 서서 부른 저 문밖에 선 어른 적삼을 상에 뱅뱅해서 똑 이불처럼 가져오면 이리 가져다 놓으면 그젠 곡소리 하면서 그젠 우는 거.)

112025 @ 응. 그 저곤린 어떻행, 적삼은 어떻게?(응. 그 저고리는 어떻게 해서, 적삼은 어떻게 해?)

112025 # 적삼 해영 영 행 빙빙 흔들르멍 일름 불르주게.(적삼 해서 이렇게 해서 빙빙 흔들면서 이름 부르지.)

112025 @ 예, 경해나민 그 적삼은 어떻 해봅니까?(예, 그리고나면 그 적삼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112025 # 그건 해나민 따시 관에 놔근에.(그건 하고나면 다시 관에 놔서.)

112025 @ 아, 관에 낵.(아, 관에 놔서.)

112025 # 응, 따시 옛날 초하루 보름 허난 그 적삼을 놔근에 저레 낵 상식을 하여. 하루 삼식.(응, 다시 옛날 초하루 보름 하니까 그 적삼을 놔서 저리 놔서 상식을 해. 하루 삼식.)

112025 @ 아. 그건 관에 행 묻는 게 아니고?(아. 그건 관에 해서 묻는 게 아니고?)

112025 # 물질 안행 그 적삼 앓당 상식을 허는 디도 잇곡 그 적삼 따시 또 관 안에 낵 묻는.(묻지 앓고 그 적삼 가져다가 상식을 하는 데도 있고 그 적삼 다시 또 관 안에 놔서 묻는.)

112025 @ 아, 허는 디도 잇고.(아, 하는 데도 있고.)

112025 # 묻는 딴 물어버어.(묻는 덴 물어버려.)

112025 @ 응.(응.)

112025 # 경허주. 그거 무신 술아불지나 허진 안허고 혼디 낵 물어.(그러지. 그



거 무슨 살라버리거나 하진 않고 함께 와서 물어.)

112026 @ 장지는 어떻 어디 강 물을 건 어떻 결정해?(장지는 어떻게 어디 가서 물을 건 어떻게 결정해?)

112026 # 그 산에 가는 건 옛날은 시방은 공동묘지허곡 술곡 허는 건디 옛날은 터 봐사.(그 산에 가는 건 옛날은 시방은 공동묘지하고 사르고 하는 건데 옛날은 터 봐야.)

112026 @ 거난 턴 어떻 행 보는 거봐?(그러니까 터는 어떻게 해서 보는 겁니까?)

112026 # 정시.(지관.)

112026 @ 아, 정시신디 강 들어?(아, 지관에게 가서 물어?)

112026 # 응, 정시가 돌아다근에 봐근에 그 드르에 가민 그 죽은 사름 멍인이나 맞인 거 안 맞인 거 헤영 그거 알앙 쟁 따시 그거 택일행 오라사 영장허곡 허는 거 주.(응, 지관을 데려다가 봐서 그 들에 가면 그 죽은 사람 명인이나 맞은 거 안 맞은 거 해서 그거 알아서 그래서 다시 그거 택일해서 와야 초상하고 하는 거지.)

112026 @ 아.(아.)

112026 # 정시 게난 옛날은 정시 허민 그 소상, 영장 헤 나민 큰 돛다리 훗나허곡 떡 혼 상지, 오만 떡 행 강 상지로 훗나 허곡 술 혼, 혼 팽씩 놓곡 허멍 멩텅이 허멍 거 정시칩이 저가주게.(지관 그러니까 옛날은 지관 하면 그 소상, 초상 하고 나면 큰 돼지다리 하나하고 떡 한 상자, 오만 떡 해서 가서 상자로 하나하고 술 한, 한 병씩 놓고 하면서 먹둥구미 하면서 그거 지관 집에 저서 가지.)

112026 @ 아, 정시칩이.(아, 지관 집에.)

112026 # 응, 돛다리 혼 다리, 큰다리 놓곡 해근에 정시신디.(응, 돼지다리 한 다리, 큰 다리 놓고 해서 지관에게.)

112026 @ 응. 그 장지, 어디 강 물을지 봐주는 걸로.(응. 그 장지, 어디 가서 물을지 봐주는 걸로.)

112026 # 응.(응.)

112026 @ 그른 정시가 다 멧 시에 언제 나가고.(그러면 지관이 다 멧 시에 언제 나가고.)

112026 # 응, 멧 시에 나가렌 허곡 멧 시에 하관허고.(응, 멧 시에 나가라고 하고 멧 시에 하관하고.)

112026 @ 하관허고 허는 거 다 곁아줍니까?(하관하고 하는 거 다 말해줍니까?)

112026 # 다 곁아주주게. 다 곁아주민 그디 종이 아정강 그거 다 정시가 다 씨취사 아정와사 허는 거. 멧 시에 하관허는 거, 멧 시에 허는 거 다 씨취사 허는 거 주.(다 말해주지. 다 말해주면 거기 종이 가져가서 그거 다 지관이다 씨취야 가져와야 하는 거. 멧 시에 하관하는 거, 멧 시에 하는 거 다 씨취야 하는 거지.)

112026 @ 응. 이젠 돈만 주민 다 허주만은 옛날은 관 같은 건 어떻행 짜?(응. 이젠 돈만 주면 다 하지만 옛날은 관 같은 건 어떻게 해서 짜?)

112026 # 응?(응?)

112027 @ 관도 짜곡.(관도 짜고.)

112027 # 관 짜는 사람은 따시 돈 옛날은 돈 안 주주게. 그 반 정행 대소상에 영장에 대소상에 문딱 삼년상에 돛다리영 떡이영 행 반 주주게.(관 짜는 사람은 다 시 돈 옛날은 돈 안 주지. 그 반 그렇게 해서 대소상에 초상에 대소상에 모두 삼년상에 돼지다리랑 떡이랑 해서 반 주지.)

112027 @ 응. 그 사람신디도.(응. 그 사람에게도.)

112027 # 이젠 다 돈으로 행 오는디.(이젠 다 돈으로 해서 오는데.)

112028 @ 응. 게문 이제 저 누구 저 누구지. 죽은 사람 입을 옷은 어디 강은에 행 와?(응. 그러면 이제 저 누구 저 누구지. 죽은 사람 입을 옷은 어디 가서 해서 와?)

112028 # 거 이녁냥으로 다 허지.(그거 자기대로 다 하지.)

112028 @ 미리 행 놔두는 거?(미리 해서 놔두는 거?)

112028 # 응. 행 놔둬.(응. 해서 놔둬.)

112028 @ 미리 행 놔두지 못허민.(미리 해서 놔두지 못하면.)

112028 # 못허민 그때 죽어도 허주. 이젠 산 입저도 옛날엔 다 허멍 입젓주, 죽어도. 죽영 방안에 낳덜 헤여. 방상덜 다 내앗앙덜, 다 사다근에.(못하면 그때 죽어도 하지. 이젠 사서 입혀도 옛날에 다 하면서 입혔지, 죽어도. 죽어서 방안에 놔서 들 해. 친척들 다 앉아서들, 다 사다가.)

112028 @ 아, 앓앙에 다 만들어.(아, 앉아서요 다 만들어.)

112028 # 응, 문딱 멩글앙 입저.(응, 모두 만들어서 입혀.)

112028 @ 응. 그든 저 상제덜 입을 것도 다 멘들고예?(응. 그러면 저 상제들 입을 것도 다 만들고요?)

112028 # 응, 경해근에 하르방, 할망이나 행 그 옷 입저근에 문딱 해근에 성복행. 성복이엔 헌 건 관 안에 들여놔불민 따시 또 그새에 성복 새에 그 옷을 다 멩글아근에 이제 성복행 들어오민 아이고 아이고 헐 땀 그 옷을 다 입저사 허주.(응,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나 해서 그 옷 입혀서 모두 해서 성복해서. 성복이라고 한 건 관 안에 들여놔버리면 다시 또 그 사이에 성복 사이에 그 옷을 다 만들어서 이제 성복해서 들어오면 아이고, 아이고 할 땀 그 옷을 다 입해야 하지.)

112028 @ 응. 아니 저 입어난 옷 또 입으민 안 돼여?(응. 아니 저 입었던 옷 또 입으민 안 돼?)

112028 # 입어난 옷은 입영 안 가주, 새옷 입저사주.(입었던 옷은 입어서 안 가지, 새옷 입혀야지.)

112028 @ 아.(아.)

112028 # 입어난 옷은 다.(입었던 옷은 다.)

112028 @ 아니 할망 죽을 때, 하르방 죽을 때 입어난 옷 낫당 할망 죽을 때 입으민 안 돼여?(아니 할머니 죽을 때, 할아버지 죽을 때 입었던 옷 낫다가 할머니 죽

을 때 입으면 안 돼?)

112028 # 안 돼주게.(안 되지.)

112028 @ 상복. 상제덜, 상제덜.(상복. 상제들, 상제들.)

112028 # 아니 상복은 요새 다 케와비어.(아니 상복은 요새 다 태워버려.)

112028 @ 요새 다 케우는데 옛날에?(요새 다 태우는데 옛날에?)

112028 # 옛날엔 낫단 어멍, 아방이나 죽으면 어멍 죽으면 입꼭 헤낫저만은 이제 사름덜은 경 안행 다 슬아비어.(옛날엔 왔다가 어머니, 아버지나 죽으면 어머니 죽으면 입고 했었다만은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다 살라버려.)

112028 @ 이제난게.(이제니까.)

112028 # 옛날 경해도 따시 삼 년 넘으면 상제덜 헤난 그 옷으로 다 행 입은디 판적 슬아비영 안 냄겨.(옛날 그래도 다시 삼 년 넘으면 상주들 했던 그 옷으로 다 해서 입었는데 깨끗이 살라버려서 안 남겨.)

112028 @ 이젠 다 슬아불어. 안 좋은 중국베로 허난예 안 좋아, 안 좋아.(이젠 다 살라버려. 안 좋은 중국베로 하니까요 안 좋아, 안 좋아.)

112028 # 몸빼 ㄱ쁜 거 치메 ㄱ쁜 건, 몸빼 ㄱ쁜 건 광목몸빼 허난 낫당 감물 들어민 입어질 건디 우리 메뉴리덜 문딱 슬아비어.(일 바지 같은 거 치마 같은 건, 일 바지 같은 건 광목 일 바지 하니까 왔다가 감물 들어민 입을 수 있을 건데 우리 며느리들 모두 살라버려.)

112028 @ 난 받앙 놔두긴 헤신디 거 입을 일이 었수다.(난 받아서 놔두기는 했었는데 그거 입을 일이 없습니다.)

112028 # 아니, 광목옷은 몸빼 ㄱ쁜 건이 밤이 잠옷으로 입영 뉘도 돼주게.(아니, 광목옷은 일 바지 같은 건 밤에 잠옷으로 입어서 누워도 되지.)

112028 @ 예.(예.)

112028 # 우리 방상이 우리 조케덜은 방상에 여름에, 저을에 잠옷 좋넌 허멍 입는 사름도 있고.(우리 친척이 우리 조카들은 친척에 여름에, 겨울에 잠옷 좋다고 하면서 입는 사람도 있고.)

112028 @ 아니 거 주드라고마씨, 가민.(아니 그거 주더라고요, 가면.)

112028 # 가면 주어.(가면 줘.)

112028 @ 나가 상제, 당 상젠 아니라도 방상에.(내가 상제, 당 상제는 아니라도 친척에.)

112028 # 방상에 가면 우리도 우리 집이 하르방 죽으난 몸빨 오십 개 샅저.(친척에 가면 우리도 우리 집에 할아버지 죽으니까 일 바지를 오십 개 샅어.)

112028 @ 거난 그거.(그러니까 그거.)

112028 # 응, 수건 대신.(응, 수건 대신.)

112028 @ 응.(응.)

112028 # 옛날은 수건, 베헤연 수건 줘나신디 수건 대신 다.(옛날은 수건, 베해서 수건 줬었는데 수건 대신 다.)

112028 @ 아, 베수건 대신에.(아, 베수건 대신에.)

112028 # 대신 몸빼 줘시네.(대신 일 바지 주고 있네.)

112028 @ 응. 옛날엔 다 베수건 해신디.(응. 옛날엔 다 베수건 했었는데.)

112028 # 수건 하나신디 이젠 다 몸빼 줘서.(수건 했었는데 이젠 다 일 바지 주고 있어.)

112028 @ 갱 몸빼 그거 주면 다 받아와서.(그래서 일 바지 그거 주면 다 받아와서.)

112028 # 몸빼가 수건보다 낫주게. 그거 해당 감도 들영 입고게.(일 바지 수건보다 낫지. 그거 해다가 감물도 들여서 입고.)

112028 @ 아. 그믄 이젠 저 상복이영 상복은 사람들이 왕 다 집이 왕 만드는 거파?(아. 그러면 이젠 저 상복이랑 상복은 사람들이 와서 다 집에 와서 만드는 겁니까?)

112028 # 옛날은 다 땡글아나신디 이젠 다 상 입어.(옛날은 다 만들었었는데 이젠 다 사서 입어.)

112028 @ 계난 만들젠 허민 그 베영 다 그건 어디 강 다 해다근에.(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면 그 베랑 다 그건 어디 가서 다 해다가.)

112028 # 해영 놔두주게.(해서 놔두지.)

112028 @ 아. 우리 어무니 나이 들면 딱 준비해 놔두는 거라?(아. 우리 어머니 나이 들면 딱 준비해 놔두는 거야?)

112028 # 집이도 베 해놔두주게. 시어멍 해놔일 거여.(집에도 베 해놔두지. 시어머니 해놔을 거야.)

112028 @ 아. 이젠 다 그냥 돈으로 다.(아. 이젠 다 그냥 돈으로 다.)

112028 # 게메 그냥 사오는데 옛날이난 다 해놔일 거여. 시어멍 이제 뗏이라?(그러게 그냥 사오는데 옛날이니까 다 해놔을 거야. 시어머니 이제 뗏이야?)

112028 @ 시어머니 팔십 안 뗏수다.(시어머니 팔십 안 뗏습니다.)

112028 # 게민 안 해놔일 거여.(그러면 안 해놔을 거야.)

112028 @ 하하하.(하하하.)

112028 # 우리 동네 할망덜 문딱 해놔당 그 베덜 다.(우리 동네 할머니들 모두 해놔다가 그 베들 다.)

112028 @ 아.(아.)

112028 # 수건덜 해주저, 무신 상제 뭐 해주저 문딱 베덜 짓 사멍 놔당 거 문짝. 멘짝 멘짝 이젠. 이젠 그 베가 서도 그디서가 옷 상 입주 거 허질 못허주.(수건들 해주랴, 무슨 상제 뭐 해주랴 모두 베들 모두 사면서 놔다가 그거 모두. 모두 모두 이젠. 이젠 그 베가 있어도 거기서가 옷 사서 입지 그거 하지를 못하지.)

112028 @ 예.(예.)

112028 # 이젯 사름덜 헐 층은 알아?(이제 사람들 할 줄은 알아?)

112028 @ 계난 어떻 멘드는 질 압니까게.(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지를 압니까

요.)

112028 # 두건 접을 충도 몰랑 두건도 몬 사사.(두건 접을 줄도 몰라서 두건도 모두 사야.)

112028 @ 예, 다 사 이젠.(예, 다 사 이제는.)

112028 # 우리도 베 서도양, 우리 아이덜 두건 백 개 사단, 다 사단.(우리도 베 있어도요, 우리 아이들 두건 백 개 사다가, 다 사다가.)

112028 @ 예. 그 저 상복은 여자 옷, 남자 옷 다르잖아예?(예. 그 저 상복은 여자 옷, 남자 옷 다르잖아요?)

112028 # 상복에 여저 옷은 여전 치메허곡 따시 또 옷이 하영 입는 사름 저 적삼 그 우이 입는 거 흥나허곡 따시 또 건대 쓰곡. 남전 지두옷<sup>240</sup> 흥나허곡 행경허곡 두건 허곡베피 더 써? 지두옷허고.(상복에 여자 옷은 여잔 치마하고 다시 또 옷이 많이 있는 사람 저 적삼 그 위에 입는 거 하나하고 다시 또 건대 쓰고. 남자는 ‘지두옷’ 하나하고 행전하고 두건하고 밖에 더 써? ‘지두옷’하고.)

112028 @ 지두옷이 뭐?(‘지두옷’이 뭐?)

112028 # 그 우이 입는 거게. 창옷 닳은 거.(그 위에 입는 거. 창옷 닳은 거.)

112028 @ 아, 그게 지두옷?(아, 그게 ‘지두옷’?)

112028 # 응.(응.)

112028 @ 머리 모저 쓰는 건?(머리 모자 쓰는 건?)

112028 # 두건.(두건.)

112028 @ 그 상젠 더 큰 거 쓰잖아.(그 상제는 더 큰 거 쓰잖아.)

112028 # 건대.(건대.)

112028 @ 아, 여자 것도 건대, 남자 것도 건대?(아, 여자 것도 건대, 남자 것도 건대?)

112028 # 여전 영 동글랑헌 거 해근에 그디 저 베헤여근에 건대포라고 영 네 귀 톱 접영 썩 그 우이 건대 써불민 메기고. 남전 건대 잇주게. 영 저영헌 거.(여잔 이렇게 동그란 거 해서 거기 저 베해서 건대포라고 이렇게 네 모퉁이 꼭 접어서 써서 그 위에 건대 써버리면 끝이고. 남자는 건대 있지. 이렇게 저렇게 한 거.)

112028 @ 예, 예.(예, 예.)

112028 # 그거 써. 옛날은 대소상허민 그거 두 개라. 흥난 소구, 흥난 대구해근에. 아래 쓰는 건 대상에 쓰는 거, 우이 쓰는 건 소상에. 소상 넘으면 그 우이 거 흥난 술아, 옛날에.(그거 써. 옛날은 대소상하면 그거 두 개야. 하난 소구, 하난 대구해서. 아래 쓰는 건 대상에 쓰는 거, 위에 쓰는 건 소상에. 소상 넘으면 그 위에 거 하나는 살라, 옛날에.)

112028 @ 아, 남저들마씨? 여저들마씨?(아, 남자들이요? 여자들요?)

112028 # 응.(응.)

112028 @ 남저 거?(남자 거?)

240) ‘지두옷’은 남자 상제가 입는 상복을 말한다.

112028 # 남저. 남저 경행 술아.(남자. 남자 그렇게 해서 살라.)

112028 @ 응.(응.)

112028 # 경헌디 이젠 대소상도 안 햄시네게.(그런데 이젠 대소상도 안 하고 있네.)

112028 @ 예.(예.)

112028 # 저 거시기서 술앙 그 납골당에 놓민 그디서 복 벗어부는디 무신 에 할 것이 아니. 게난 이제 돈 버슬어근에 아이덜 줄 필요 하나토 엇어.(저 거시기서 살라서 그 납골당에 놓으면 거기서 상복 벗어버리는데 무슨 에 할 것이 아니. 그러니깐 이젠 돈 벌어서 아이들 줄 필요 하나도 없어.)

112028 @ 응.(응.)

112028 # 쟁 안허냐? 미시거 이제 식계멍질도 하나마나 헐 건디 뭐. 무신.(그래서 안 하니? 무엇 이제 제사명절도 하나마나 할 건데 뭐. 무슨.)

112029 @ 하하하. 상제덜 지프는 지팡이 닳은 거 이수게?(하하하. 상제들 짚는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112029 # 응.(응.)

112029 @ 건 무신거?(그건 무엇?)

112029 # 방정대.(상장.)

112029 @ 방장대. 그것도 무슨 어머니 죽으면 무신거.(상장. 그것도 무슨 어머니 죽으면 무엇.)

112029 # 어멍 죽으면 머귀낭.(어머니 죽으면 머귀나무.)

112029 @ 응. 아방은?(응. 아버지는?)

112029 # 아방은 죽으면 왕대.(아버지는 죽으면 왕대.)

112029 @ 왕대.(왕대.)

112029 # 머귀낭은 어멍은 죽으면 머귀낭은, 그 머귀낭에 가시가 마디마디 있주.(머귀나무는 어머니 죽으면 머귀나무는, 그 머귀나무에 가시 마디마디 있지.)

112029 @ 예.(예.)

112029 # 게난 어멍은 죽으면 마디마디 어멍 생각 날 거. 아방은 \*\*\* 죽으나마나 현 거라, 왕대 지팡이.(그거니까 어머니는 죽으면 마디마디 어머니 생각 날 거, 아버지는 \*\*\* 죽으나마나 현 거야, 왕대 지팡이.)

112029 @ 하하하. 그런 뜻이 있구나예?(하하하. 그런 뜻이 있군요?)

112029 # 응, 그런 뜻이, 다 뜻이 잇는 거주. 왕대 몽텅이, 머귀낭 몽텅이 허는 거 다. 이젠 다 어멍 죽고 아방 죽고 수리대 대막텅이.(응, 그런 뜻이, 다 뜻이 잇는 거지. 왕대 막대기, 머귀나무 막대기 하는 거 다. 이젠 다 어머니 죽고 아버지 죽고 이대 대막대기.)

112029 @ 하하하. 맞아. 그 영 짹 닳은 걸로 영 허는 것도 이수게, 영 무꺼진 거?(하하하. 맞아. 그 이렇게 짹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이렇게 묶인 거?)

112029 # 응.(응.)

112029 @ 그건 무신거라?(그건 뭐야?)

112029 # 저 것ㄴ라 무신거엔 현다만은 잊어비었저. 것도 알아지켜만은 그것도 요샌 안 허여, 옛날은 다 헤나신디. 옛날은 상제 수정 다섯 개민 다섯 개. 북심이. (저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한다만은 잊어버렸어. 그것도 알겠다면은 그것도 요샌 안 해, 옛날은 다 했었는데. 옛날은 상제 숫자 다섯 개면 다섯 개. 짚동.)

112029 @ 북심이?(‘북심이’?)

112029 # 응.(응.)

112029 @ 아, 그건 북심이파?(아, 그건 ‘북심이’입니까?)

112029 # 응, 북심이.(응, ‘북심이’.)

112029 @ 북심이?(‘북심이’?)

112029 # 응. 그 산뒤집 무경 영 놓는 거.(응. 그 밧벚짚 묶어서 이렇게 놓는 거.)

112029 @ 예.(예.)

112029 # 거 북심이.(그거 짚동.)

112029 @ 아, 북심이. 산뒤집 무경예.(아, 짚동. 밧벚짚 묶어서요.)

112029 # 응.(응.)

112029 @ 이거 몇 번 무끄고 허는 거 잇수과?(이거 몇 번 묶고 하는 거 있습니까?)

112029 # 몰르켜. 난 몇 번 무꺼난지도 거, 일름은 북심이라.(모르겠어. 난 몇 번 묶었었는지도 그거, 이름은 짚동이야.)

112029 @ 일름은 북심이라.(이름은 ‘북심’이야.)

112029 # 응, 계난 이제 북심이 허는 사름, 안 허는 사름 천지만지주, 거 험시냐?(응, 그러니까 이제 짚동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천지만지’지, 그거 하고 있니?)

112029 @ 거 무사 허는 거파?(그거 왜 하는 겁니까?)

112029 # 누게 아느냐? 계난 거 다섯 상제, 아덜 다섯 개민 다섯 개 다 헤났어, 옛날.(누가 아니? 그러니까 다섯 상제, 아덜 다섯 개면 다섯 개 다 했었어, 옛날.)

112029 @ 아, 북심이를 다섯 개나 해야 돼여?(아, 짚동을 다섯 개나 해야 돼?)

112029 # 응, 다 헤여.(응, 다 해.)

112029 @ 아덜 상제 수만이.(아들 상제 수만큼.)

112029 # 응. 아덜 수정에 다 하나씩.(응. 아들 숫자에 다 하나씩.)

112029 @ 아덜 수정에 하나씩.(아들 숫자에 하나씩.)

112029 # 하나씩 다.(하나씩 다.)

112029 @ 방장대도 다 하나씩 허는 거파?(상장도 다 하나씩 하는 겁니까?)

112029 # 응, 방장대 하나에 그것도 하나라.(응, 상장 하나에 그것도 하나야.)

112029 @ 아.(아.)

112029 # 경헌디 이젠 안 험신디.(그런데 이젠 안 하고 있는데.)

112029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29 # 우리 집이 하르방<sup>241</sup>장은 헛저만은 이젠 안 험실 거여.(우리 집 할아버지까지는 했다만은 이젠 안 하고 있을 거야.)

112030 @ 응. 두건은 어떻 접으는 거파?(응. 두건은 어떻게 접는 겁니까?)

112030 # 두건은 저 복두건은 영 뒤으로 가곡이 저 방상덜 입는 건 실밥이 뒤에 뒤으로 가곡 상제 두건은 옆으로 따시 또 우이는 꺼끄지 안헐 영 베헤영 허민 영 산 바위로 꼬작 사게.(응. 두건은 저 복두건은 이렇게 뒤로 가고 저 친척들 입는 건 실밥이 뒤에 뒤로 가고 상제 두건은 옆으로 다시 또 위에는 꺾지 않고 이렇게 베해서 하면 이렇게 선 가장자리고 곧게 서게.)

112030 @ 아.(아.)

112030 # 허곡 복친<sup>241</sup>은 다 그거 오그령 허곡.(하고 ‘복친’은 다 그거 오그려서 하고.)

112030 @ 복친은.(‘복친’은.)

112030 # 복친 수건광 상제 두건 다.(‘복친’ 수건과 상제 두건 다.)

112030 @ 아. 상제 수건은 오그리지 안허고.(아. 상제 수건은 오그리지 않고.)

112030 # 응. 영 꺼꺼와근에 영헤근에 영 주어낭 데싸부난에 엇곡. 상제 두건은 영 바꿨딜로 행 주어근에 이 실밥을 오그리질 안허영 영 과작. 노다쌍, 이디 주어낭 확허게 노다싸근에 이 실밥 꺼끄지 안헤영 꼬작 사게.(응. 이렇게 꺾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꿰매놓고 뒤집어버리니까 없고. 상제 두건은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꿰매서 이 실밥을 오그리지 않고 이렇게 곧게. 뒤집어서, 여기 꿰매놓고 확하게 뒤집어서 이 실밥 꺾지 않고 곧게 서게.)

112030 @ 아. 트난 거구나예.(아. 다른 거군요.)

112030 # 다 사, 상제 두건은.(다 서, 상제 두건은.)

112030 @ 응. 그거 저 뭐 뭐 안허민 관, 입관 안허민 두건도 무신.(응. 그거 저 뭐 뭐 안하면 관, 입관 안하면 두건도 무슨.)

112030 # 우푼두건<sup>242</sup>.(‘우푼두건’.)

112030 @ 우푼두건.(‘우푼두건’.)

112030 # 응, 옛날엔 이 우푼두건이엔 현 거 어떻 허민 베 그창 그 머리에 똑똑 마좌근에 그거 행 영 빙허게 돌령 따시 삼으로 톱 무경, 그게 우푼두건. 경헤근에 성복 전이.(응, 옛날엔 이 ‘우푼두건’이라고 한 거 어떻게 하면 베 잘라서 그 머리에 똑똑 맞춰서 그거 해서 이렇게 빙 돌려서 다시 삼으로 톱 묶어서, 그게 ‘우푼두건’. 그래서 성복 전에.)

112030 @ 성복 전이. 건 실, 바놓으로 꼬멘 거 아니고?(성복 전에. 그건 실, 바늘로 꿰맨 거 아니고?)

241) ‘복친’은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이다.

242) ‘우푼두건’은 입관하기 전에 상제들이 쓰는 두건으로 위가 터진 두건을 말한다.



112030 # 안 주어, 안 주어. 그냥.(안 꿔매, 안 꿔매. 그냥.)

112030 @ 주지 안 현 거구나예.(꿔매지 않은 거군요.)

112030 # 그냥 천 감양.(그냥 천 감아서.)

112030 @ 천만 그냥 영 감양.(천만 그냥 이렇게 감아서.)

112030 # 감양 삼으로 무껴.(감아서 삼으로 묶어.)

112030 @ 아, 그게 우푼두건이구나. 난 이딘 주고 이 우에만 안 줘시카부덴.(아, 그게 ‘우푼두건’이구나. 난 여긴 꿔매고 이 위에만 안 꿔맸을까봐.)

112030 # 아니. 우이, 아래도 안 주어.(아니. 위에, 아래도 안 꿔매.)

112030 @ 이디도 안 주는구나, 옆에도.(여기도 안 꿔매는구나, 옆에도.)

112030 # 따시 옛날은이 아방 죽으나 어멍 죽으나 이 창옷을 꼭 입영 혼 착은 뿌러메국 혼 착은 안 뿌러멧 곰만 멧 혼 착 풀은 내놓고 혼 착만 입영.(다시 옛날은 아버지 죽거나 어머니 죽거나 이 창옷을 꼭 입어서 한 쪽은 둘러매고 한 쪽은 안 둘러매서 고름만 매어서 한 쪽 팔은 내어놓고 한 쪽만 입어서.)

112030 @ 응.(응.)

112030 # 경 허곡.(그렇게 하고.)

112030 @ 언제, 언제까지 경허는 거파?(언제,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112030 # 그 성복 전이.(그 성복 전에.)

112030 @ 아, 성복 전이.(아, 성복 전에.)

112030 # 응. 어멍이나 아방이나 죽으면 어가라. 알도 다님 안 청 영 풀고. 바지에 풀고.(응. 어머니나 아버지나 죽으면 곧. 아래도 대님 안 차서 이렇게 풀고. 바지에 풀고.)

112030 @ 아, 바지도 풀고. 두건만 경헌 게 아니고.(아, 바지도 풀고. 두건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112030 # 응, 바지도 풀고.(응, 바지도 풀고.)

112030 @ 그 큰 상제만 경허는 거파, 다 해야 되는 거파?(그 큰 상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112030 # 상제 아덜덜 수정이 다.(상제 아들들 숫자가 다.)

112030 @ 아덜 수정이 다.(아들 숫자가 다.)

112030 # 다 그거.(다 그거.)

112030 @ 사원 안 해도 돼고.(사위는 안 해도 되고.)

112030 # 사원 안 허여.(사위는 안 해.)

112030 @ 사원 안 허고 하하하.(사원 안 하고 하하하.)

112030 # 아덜덜만.(아들들만.)

112030 @ 아덜덜만. 응.(아들들만. 응.)

112030 # 경허곡 이 상제덜 따시 또 성복 전인 그 아방이나 어멍이 죽은 때 입은 거 성복 전인 곶아입지도 못허고. 머리도 못 감고. 낫도 못 씻곡. 툇 성복해낭.(그리고 이 상제들 다시 또 성복 전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 죽을 때 입은 거 성복

전에 갈아입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낫도 못 씻고. 꼭 성복하고 나서.)

112030 @ 성복해낭.(성복하고 나서.)

112030 # 응, 성복할 때사 성복해나민 그제사 낫 씻꼭 머리 굴리꼭.(응, 성복할 때야 성복하고 나면 그제야 낫 씻고 머리 빗고.)

112030 @ 아. 복치메는?(아. 복치마는?)

112030 # 복치메는 복친네 주는 거, 복치메.(복치마는 ‘복친’에게 주는 거, 복치마.)

112030 @ 아까 저 두건.(아까 저 두건.)

112030 # 복두건<sup>243</sup>도게.(‘복두건’도.)

112030 @ 두건 말고 수건.(두건 말고 수건.)

112030 # 수건게. 수건도게 그 복수건 대신 요새 몸빼 해주는 거.(수건. 수건도 그 ‘복수건’ 대신 요새 일 바지 해주는 거.)

112030 @ 치멘 누게 해주는 거파?(치마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112030 # 치멘 상제덜베끼 안 입주. 몸빼해주민게 복친덜은게.(치마 상제들밖에 안 입지. 일 바지해주면 ‘복친’들은.)

112030 @ 아. 복치멘 게난 상제덜 입는 거?(아. 복치마는 그러니까 상제들 입는 거?)

112030 # 복치멘 복치메 상제덜만 입는 거. 상제치메, 상제덜만 입는 거.(복치마는 복치마 상제들만 입는 거. 상제 치마, 상제들만 입는 거.)

112030 @ 아, 상제치메.(아, 상제 치마.)

112030 # 상제만 입는 거고 복친덜은 옛날은 수건 해근에 베 행 서넉 자씩 주는 사람, 두세 자씩 주는 디, 그거 안 쥘 상제덜 성복해낭 상제옷 입으면 다 놔주민 요샌 몸빼 안 줘서게?(상제마 입는 거고 ‘복친’들은 옛날은 수건 해서 베 해서 서넉 자씩 주는 사람, 두세 자씩 주는 데, 그거 안 줘서 상제들 성복하고나서 상제옷 입으면 다 나눠주면 요샌 일 바지 안 주고 있니?)

112030 @ 예, 예.(예, 예.)

112030 # 몸빼 다 줘서, 수건 안 행.(일 바지 다 주고 있어, 수건 안 해서.)

112030 @ 응. 옛날엔 몸빼 대신 치메 입는 건 아니고?(응. 옛날엔 일 바지 대신 치마 입는 건 아니고?)

112030 # 몸빼 대신 치메도 입어났어.(일 바지 대신 치마도 입었었어.)

112030 @ 복치메예.(복치마요.)

112030 # 응, 복친. 별경헌 베치메덜 입어났주게.(응, ‘복친’. 별건 베치마들 입었었지.)

112030 @ 아.(아.)

112030 # 베치메 입꼭 따시 수건도 해주고.(베치마 입고 다시 수건도 해주고.)

112030 @ 수건도 해주고.(수건도 해주고.)

---

243) ‘복수건’은 상이 났을 때 여자 친척들이 머리에 쓰는 베 수건이다.

112030 # 건 큰어멍이나 누게 혜영 죽으나 따시 또 아래 죽은어멍덜이나 이 딸덜.(그건 큰어머니나 누구 해서 죽거나 다시 또 아래 작은어머니들이나 이 딸들.)

112030 @ 가까운 친척들?(가까운 친척들?)

112030 # 메뉴리덜 경 복치메, 복수건 해낫주. 옛날.(며느리들 그렇게 ‘복치메’, ‘복수건’ 했었지. 옛날.)

112030 @ 당 상제덜 말고.(당 상제들 말고.)

112030 # 응. 상제덜 말고 경 해낫주게. 조케덜은 경 복치메 주고 먼 방상덜은 수건 주고, 옛날에.(응. 상제들 말고 그렇게 했었지. 조카들은 그렇게 복치마 주고 먼 친척들은 수건 주고, 옛날에.)

112030 @ 이젠 복치메는 안 허는 거 다했어?(이제 복치마는 안 하는 거 같아요?)

112030 # 이젠 복치메 안 행 다 몸빼.(이젠 복치마 안 하고 다 일 바지.)

112030 @ 다 몸빼예.(다 일 바지요.)

112030 # 상제덜은 입엄주게, 치메.(상제들은 입고 있지, 치마.)

112031 @ 영장난 디 풋죽도 썩 가낫수게.(초상난 데 팔죽도 썩어서 갔었잖아요.)

112031 # 죽으민 어가라.(죽으민 곧.)

112031 @ 누게가 썩 가는 거라?(누가 썩어서 가는 거야?)

112031 # 방상에서.(친척에서.)

112031 @ 방상에서 사돈집이 아니고?(친척에서 사돈집이 아니고?)

112031 # 사돈집이서도 해 오고 방상에서도 해 오고.(사돈집에서도 해 오고 친척에서도 해 오고.)

112031 @ 얼마이나 해근에.(얼마만큼이나 해서.)

112031 # 허벅으로 하나.(허벅으로 하나.)

112031 @ 허벅으로 하나. 것도 그냥 부지로?(허벅으로 하나. 그것도 그냥 부조로?)

112031 # 응.(응.)

112031 @ 응. 아, 난 사돈집이서 행 간텐 들어신디.(응. 아, 난 사돈집에서 해서 간다고 들었었는데.)

112031 # 사돈집이서도 해다주곡 방상에서도 해여.(사돈집에서도 해다주고 친척에서도 해.)

112031 @ 응.(응.)

112031 # 브딘 방상에서는.(가까운 친척에서는.)

112031 @ 브딘 방상에서는.(가까운 친척에서는.)

112031 # 먼 방상이 아니고 브딘 방상이.(먼 친척이 아니고 가까운 친척이.)

112031 @ 풋죽 해근에 썩 가는구나예?(팔죽 해서 썩어서 가는군요?)

112031 # 응. 풋죽행 썩. 허벅으로 하나. 요샌 허벅 안 허난 그 큰 무신 다라로

흐나, 두 개 아저가지 안햐시냐? 경허곡 이젠.(응. 팔죽해서 쑤어. 허벅으로 하나. 요샌 허벅 안 하니깐 그 큰 무슨 대야로 하나, 두 개 가져가지 않고 있니? 그리고 이젠.)

112031 @ 풋죽 안 해.(팔죽 안 해.)

112031 # 죽 안 햐 다 물론 걸로.(죽 안 해서 다 마른 걸로.)

112031 @ 응.(응.)

112031 # 라면덜 ㄱ뜬 거 햐근에 다. 옛날은 경햐낫저.(라면들 같은 거 햐서 다. 옛날은 그렇게 햐었어.)

112031 @ 응.(응.)

112031 # 경햐 따시 또 켜당덜 잇이민 성복 전이 느랑 죽을 쑤 거난 이녁냥으 로 쑤 먹어시네. 성복 전인 상제덜 햐 안 먹어근에 죽만 먹게 돼부난.(그래서 다시 또 켜당들 없으면 성복 전에 늘 죽을 쑤 거니까 자기대로 쑤어서 먹었잖아. 성복 전엔 상제들 햐 안 먹어서 죽만 먹게 되어버리니까.)

112031 @ 아.(아.)

112031 # 게난 어가라 햐영 햐망, 하르방이나 햐망이나 죽으면 어가라 성복햐기 무시거 햐영 상 햐영 혼 불령 느려사민 그젠, 그땐 흰죽 쑤.(그러니까 곧 햐서 햐머니, 햐아버지나 햐머니나 죽으면 곧 성복햐기 무엇 햐서 상 햐서 혼 불려서 내리고 나면 그젠, 그땐 흰죽 쑤어서.)

112031 @ 예.(예.)

112031 # 아무것도 안 낱 흰죽 쑤근에 혼 사발씩 주고.(아무것도 안 ㅈ서 흰죽 쑤어서 한 사발씩 주고.)

112031 @ 응.(응.)

112031 # 경햐나민 따시 또 죽햐근에.(그리고나면 다시 또 죽햐서.)

112031 @ 풋죽 쑤?(팔죽 쑤어서?)

112031 # 응, 입관햐 나민 그젠 죽, 그 신흔죽이나 소금 놓고 햐 죽 먹고. 입관 전인 안 주주게.(응, 입관햐고 나면 그젠 죽, 그 ‘신흔죽’이나 소금 놓고 한 죽 먹고. 입관 전엔 안 주지.)

112031 @ 아.(아.)

112031 # 입관을 햐사.(입관을 햐야.)

112031 @ 응.(응.)

112031 # 어가라 햐 혼 불령 햐 햐 햐 흰죽.(곧 햐서 혼 불려서 햐 햐 햐 흰죽.)

112031 @ 처음엔 흰죽.(처음엔 흰죽.)

112031 # 흰죽.(흰죽.)

112032 @ 성복제는 게난 언제 햐는 거ㅈ?(성복제는 그러니까 언제 햐는 겁니까?)

112032 # 성복햐민 그 관에 햐.(성복햐면 그 관에 햐서.)

112032 @ 입관햐는 거?(입관햐는 거?)

112032 # 입관해 나근에.(입관하고 나서.)

112032 @ 응, 입관해 나근에 제지내는 거?(응, 입관하고 나서 제지내는 거?)

112032 # 응, 제지내는 거, 성복제. 경행 성복, 입관해영 혼 불령 들어왕 입관행 곡소리 해나민 그제민 상 싱경 그뎌 상제웃 다 입곡 상 싱거근에 성복제 지낼 뎌 상제웃덜 그젠 다 입영 제지내는 거 성복 아냐?(응, 제지내는 거, 성복제. 그래서 성복, 입관해서 혼 불려서 들어와서 입관해서 곡소리 하고 나면 그제면 상 퍼서 그뎌 상복 다 입고 상 퍼서 성복제 지낼 뎌 상복들 그젠 다 입어서 제지내는 거 성복 아냐?)

112032 @ 응, 그제 성복.(응, 그제 성복.)

112032 # 그전인 상제웃 안 입영 싯당 상제웃 입영 제지내는 거 성복.(그전엔 상복 안 입어서 있다가 상복 입어서 제지내는 거 성복.)

112033 @ 응. 일포제는?(응. 일포제는?)

112033 # 일포젠 따시 또 일포 영장이 것도 혼 번은 허는 거주. 오닐 영장이민 오닐 일포. 오늘 어디 병원이 강 죽으민 어디 육지서나 애기덜 들어오민 성복허곡 일포허곡 영장, 널 영장허곡 허는 디가 해주게.(일포제는 다시 또 일포 초상이 그것도 한 번은 하는 거지. 오늘 영장이면 오늘 일포. 오늘 어디 병원이 가서 죽으면 어디 육지서나 애기들 들어오면 성복하고 일포하고 영장, 널 영장하고 하는 데가 많지.)

112033 @ 건 이제고, 옛날에.(그건 이제고, 옛날에.)

112033 # 옛날에도게 기추룩 제 다 해나민 경허주. 옛날엔 따시 그날 행 바쁘민 그 토통 해낫주. 그자 느람지.(옛날에도 그렇게 제 다 하고나면 그러지. 옛날엔 다시 그날 해서 바쁘면 그 토통했었지. 그제 이영.)

112045 @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2045 # 담 에염에 강 놔근에 곧 디 강 땡 따시 또 그디 느람지 더깁 지들랑 경헤근에 혼 두 들도 살곡, 석 들도 살곡 헤낭 영장허곡.(담 옆에 가서 놔서 고운 데 가서 놔서 다시 또 거기 이영 덮어서 지질러서 그래서 한 두 달도 살고, 석 달도 살고 하고나서 영장하고.)

112045 @ 아, 땅속에 묻는 게 아니고?(아, 땅속에 묻는 게 아니고?)

112045 # 땅속에 안 묻영 그 상제에나 내쳐근에 영장할 시간 저 영장할 날이 엇이민 경헤난.(땅속에 안 묻어서 그 상제나 내쳐서 영장할 시간 저 영장할 날이 없으면 그렇게 했었어.)

112045 @ 거 무신거엔 험다고마씨?(그거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112045 # 구토룡<sup>244</sup>.(‘구토룡’.)

112045 @ 구토룡?(‘구토룡’?)

112045 # 응. 토통허난에.(응. 토통하니까.)

244) ‘구토룡’은 흙을 모아 쌓아서 임시로 간략히 만든 무덤을 토통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12045 @ 토통허는 건 들어봐신디.(토통하는 건 들어봤었는데.)

112045 # 게 토통이 구투롱이라. 토통은게 느람지 더꺼근에 그 드르에 아정 담 엠이나 어디나 존 디 놔근에 느람지 빙빙 느람지 둘렁.(그러게 토통이 ‘구투롱’이야. 토통은 이영 덮어서 그 들에 가져서 담 옆이나 어디나 좋은 데 놔서 이영 빙빙 이영 둘러서.)

112045 @ 응.(응.)

112045 # 경혜근에 그거 느람지 미시거 즘승 안 들게 혹이나 흐짚혜영. 혹 아니 주, 그냥 갠 낫당 것도 존 날 혹 올리주. 혹 걸치지 말렌 현 날로 포항<sup>245)</sup> 느린 땀 혹 안 거쥔 땀 못허주게. 것도 혹 거쥔 날도 포항 무신거.(그렇게 해서 그거 이영 무엇 짐승 안 들어가게 흠이나 조금해서. 흠 아니지, 그냥 그래서 낫다가 그것도 좋은 날 흠 올리지. 흠 걸치지 말라고 한 날로 ‘포항’ 내린 땀 흠 안 건드린 땀 못 하지. 그것도 흠 건드린 날도 ‘포항’ 무엇.)

112045 @ 포항?(‘포항’?)

112045 # 응, 포항. 포항 느린민 못허여.(응, ‘포항’. ‘포항’ 내리면 못 해.)

112045 @ 포항 느린민 못 허여?(‘포항’ 내리면 못 해?)

112045 # 포항 느린 때가 잇주게. 경허민 그땀 영장을 못허주기, 그 ㄴ리.(‘포항’ 내린 때가 있지. 그러면 그땀 초상을 못하지, 그 즘.)

112045 @ 응, 거든 그땀 토통허는 거?(응, 그러면 그땀 토통하는 거?)

112045 # 응, 토통혜영.(응, 토통해서.)

112045 @ 아까 구투롱?(아까 ‘구투롱’?)

112045 # 구투롱이 토통이라.(‘구투롱’이 토통이야.)

112045 @ 꼭ㄴ튼 거라?(꼭같은 거야?)

112045 # 응.(응.)

112034 @ 거민 부주. 이때 저 영장난 디 부준 어떻습니까?(그러면 부조. 이때 저 초상난 데 부조는 어떻게 합니까?)

112034 # 영장난 때나 잔치혈 때나 매일반 ㄴ찌.(초상난 때나 잔치할 때나 매일 반 같이.)

112034 @ 아.(아.)

112034 # ㄴ찌, ㄴ찌.(같이, 같이.)

112034 @ 그든 조문은 언제 가는 거라, 방상 집이.(그러면 조문은 언제 가는 거야, 친척 집에.)

112034 # 조문은 그냥 맥형 못힘직허민 그 성복혜 나민 성복 전인 가민 영혼안 티 절, 산 사람으로 혼 번. 성복혜 나사 세 번허는 거주. 성복.(조문은 그냥 먹혀서 못할 것 같으면 그 성복하고 나면 성복 전엔 가면 영혼에게 절, 산 사람으로 한 번. 성복하고 나야 세 번하는 거지, 성복.)

112034 @ 두 번, 두 번 아니?(두 번, 두 번 아니?)

---

245) ‘포항’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포항’이 내린 때는 시체를 땅에 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112034 # 흔 번, 흔 번.(한 번, 한 번.)

112034 @ 거난 나중에 두 번허는 거 아니?(그러니까 나중에 두 번하는 거 아니?)

112034 # 나중에 두 번허고 반절허곡게.(나중에 두 번하고 반절하고.)

112034 @ 아.(아.)

112034 # 경허난 세 번 아냐?(그러니까 세 번 아니야?)

112034 @ 아, 하하하. 난 세 번이엔 허난 깜짝 놀란.(아, 하하하. 난 세 번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

112034 # 세 번, 반절허난 세 번 아니라?(세 번, 반절하니까 세 번 아니야?)

112034 @ 경헝 성복헤 나쁜.(그러면 성복하고 나면.)

112034 # 응, 절을 세 번을 허고 성복 전인 흔 번.(응, 절을 세 번을 하고 성복 전엔 한 번.)

112034 @ 응.(응.)

112034 # 성복 전인 산 혼이난 흔 번.(성복 전엔 산 혼이니까 한 번.)

112034 @ 아. 게민 이젠 막 답례품도 주곡 험니께. 옛날도 뭐 줘놔수과?(아. 그러면 이젠 막 답례품도 주고 하잖아요. 옛날도 뭐 줬었습니까?)

112034 # 옛날은 모르주. 우리 옛날은 큰일 안 해나난. 우리 역은 후젠 기자 무신 비누도 허영 주고 우동도 뒤 타 주곡 해나난 우리 마틀 땀 해나신디 나 큰일 안 헐 땀 줄바로 몰르크라.(옛날은 모르지. 우리 옛날은 큰일 안 했었어. 우리 큰 후엔 그저 무슨 비누도 해 주고 우동도 뒤 개 주고 했었어. 우리 말을 땀 했었는데 나 큰일 안 할 땀 제대로 모르겠어.)

112034 @ 응.(응.)

112034 # 나 해난 때사 알주.(나 했던 때야 알지.)

112035 @ 응. 토신제는 어떻허는 거마씨?(응. 토신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2035 # 토신젠 산에도 강 사름 죽영 묻젠 허민 제지내곡, 집을 짓젠 허민 이디 짓젠 허민 이디 오랑 제지내고. 짓음 전이.(토신제는 산에도 가서 사람 죽어서 묻으려고 하면 제지내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여기 지으려고 하면 여기 와서 제지내고. 짓기 전에.)

112035 @ 아. 집 짓음 전이. 게난 사람 죽을 때는 강 묻기 전이 미리 강 토신제 지내는 거마씨?(아. 집 짓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 죽을 때는 가서 묻기 전에 미리 가서 토신제 지내는 거예요?)

112035 # 응, 넬 영장허젠 허민 이전날사 허곡, 따시 집도 이젠 넬 집 짓젠 허민 이 저녁이 헤여근에 다시 토신젤 허민 집이 네 귀에 다 그날 상장, 저 집을 못 세워 가민 네 귀에 그 시간에 못허민 네 귀에 다 흠을 파.(응, 내일 초상하려고 하면 이전 날이야 하고, 다시 집도 이젠 내일 집 지으려고 하면 이 저녁에 해서 다시 토신제를 하면 집에 네 귀에 다 그날 상장, 저 집을 못 세워 가면 네 모서리에 그 시간에 못하면 네 모퉁이에 다 흠을 파.)

112035 @ 응.(응.)

112035 # 딱딱 네 귀에 딱 흑 팡 낫당 붉으민 따시 그뻔 집 헤지주게.(딱딱 네 모서리에 딱 흑 파서 뵈다가 밝으면 다시 그뻔 집 할 수 있지.)

112035 @ 토신제 못허민 흑만 판다고요?(토신제 못하면 흑만 판다고요?)

112035 # 집을 그 시간에 못 세우민.(집을 그 시간에 못 세우면.)

112035 @ 아. 집을 그 시간에 못 세우민.(아. 집을 그 시간에 못 세우면.)

112035 # 어둡은 때나 무시거 허민 집을 따시 게난.(어두운 때나 무엇 하면 집을 다시 그러니까.)

112035 @ 아, 거난 흑만 혼 번을 파근에 집 짓을 거.(아, 그러니까 흑만 한 번을 파서 집 지을 거.)

112035 # 네 귀를 파. 네 밧디 강 네 귀 팡 낫당 붉으민 그뻔 집 짓는 시작을 헤여.(네 모퉁이를 파. 네 군데 가서 네 모서리 파서 뵈다가 밝으면 그뻔 집 짓기 시작을 해.)

112035 @ 응. 산에, 산에 강 묻는 토신제는 그렇게 안 하고예?(응. 산에, 산에 가서 묻는 토신제는 그렇게 안 하고요?)

112035 # 토신젠 안 해근에 그때 가근에 토신제만 지내영 그디 고지<sup>246)</sup> 찢르주게. 것도 시작 아냐? 딱 중심 잡아근에 상자 찢러.(토신제는 안 해서 그때 가서 토신제만 지내서 거기 ‘고지’ 찢르지. 그것도 시작 아냐? 딱 중심 잡아서 상자 찢러.)

112035 @ 무신걸 찢러?(무엇을 찢러?)

112035 # 장대엔 현 거 대가 이만인 현 거 수리델 찢러, 돌에.(장대라고 한 거 대가 이만큼 한 거 이대를 찢러, 돌에.)

112035 @ 아. 그디 묻을 디 가근에.(아. 거기 묻을 데 가서.)

112035 # 응, 묻을 디 찢러. 경허민 거 토신제 헤난 그레 찢러.(응, 묻을 데 찢러. 그러면 그거 토신제 했던 그리 찢러.)

112035 @ 아.(아.)

112035 # 아무것도 제지내민 시작을 허는 거.(아무것도 제지내면 시작을 하는 거.)

112036 @ 응. 게민 그다음에는 상여꾼은 어떻게?(응. 그러면 그다음에는 상여꾼은 어떻게?)

112036 # 응?(응?)

112036 @ 그 관 들르는 사름, 상뒤꾼?(그 관 드는 사람, ‘상뒤꾼’?)

112036 # 상뒤꾼 아니고 복친이 들르주게.(‘상뒤꾼’ 아니고 ‘복친’이 들지.)

112036 @ 복친이 들러?(‘복친’이 들어?)

112036 # 저 영 멀리 가근에 그거 저 미시거 허기 전인 복친이 들르주게.(저 이렇게 멀리 가서 그거 저 무엇 하기 전엔 ‘복친’이 들지.)

246) ‘고지’는 땅에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 찢르는 말라 죽은 나뭇가지나 대나무이다.



112036 @ 복친은 얼마나 가까운 친척이파?('복친'은 얼마나 가까운 친척입니까?)

112036 # 아니 조케덜도 허곡게, 조케덜이 허주게.(아이, 조카들도 하고, 조카들이 하지.)

112036 @ 조케덜이. 응.(조카들이. 응.)

112036 # 엇이민 손지도 큰손지 아닌 손지도 허곡게.(없으면 손자도 큰손자 아닌 손자도 하고.)

112036 @ 아, 복친들이 들러.(아, '복친'들이 들어.)

112036 # 응. 이녀 켜당덜이 들러.(응. 자기 권당들이 들어.)

112036 @ 동네에서 그거 뭐.(동네에서 그거 뭐.)

112036 # 따시 하관힐 때도 이녀 켜당덜이 들러 가고.(다시 하관할 때도 자기 권당들이 들고 가고.)

112036 @ 아니 동네에서 그거 뭐 혜근에 허는 놉 빌거나.(아니 동네에서 그거 뭐 해서 하는 놉 빌거나.)

112036 # 건 메는 거.(그건 메는 거.)

112036 @ 아, 메는 거.(아, 메는 거.)

112036 # 응, 메는 건 동네 사름덜이 허곡, 영 그 메는 저곳디 혜영 무신 상여 썩우기 전인 아기덜이 켜당덜이 허주게.(응, 메는 건 동네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그 메는 곁에 해서 무슨 상여 썩우기 전엔 아기들이 권당들이 하지.)

112036 @ 메는 건 누게가 허는 거라?(메는 건 누가 하는 거야?)

112036 # 메는 건 상뒤덜이. 상뒤 빌어근에.(메는 건 상여꾼들이. 상여꾼 빌어서.)

112036 @ 상뒤 빌어근에.(상여꾼 빌어서.)

112036 # 응.(응.)

112036 @ 그건 동네 사름덜이 혜줘?(그건 동네 사람들이 혜줘?)

112036 # 응, 동네 사름 빌어사 것도.(응, 동네 사람 빌어야 그것도.)

112036 @ 건 놉 빌영 허는 거?(그건 놉 빌어서 하는 거?)

112036 # 응, 응. 우리 집이 어떻 혜줍센 돌봐줍센 빌어사. 안 빈 사름은 안 가주게.(응, 응. 우리 집에 어떻게 해달라고 돌봐달라고 빌어야. 안 빈 사람은 안 가지.)

112036 @ 응.(응.)

112036 # 빌어사. 이젠 다 장애자<sup>247)</sup>허민 그자 흠치행 딱 돈만 주민 해도. 옛날은 돈딱 빌어사.(빌어야. 이젠 다 장의사하면 그저 함께해서 딱 돈만 주면 해도. 옛날은 모두 빌어야.)

112036 @ 게난예.(그러니까요.)

112036 # 경행 가민 그디 부젯칩이 영장이나 허민 밥혜영 조반혜영 맥이고 정

247) '장애자'는 제보자가 장의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심, 점심.(그렇게 해서 가면 거기 부잣집의 초상이나 하면 밥해서 조반해서 먹이고 점심, 점심.)

112036 @ 그거 들르는 사름들?(그거 드는 사름들?)

112036 # 응. 점심행 맥이고 따시 또 그디 떡혜근에 옛날은 저 떡혜근에 상뒤 큰 거 상뒤 큰 거 네귀방장헌 거 영행 허민 혼 빗씩 주고 따시 복친덜이나 여저덜은 영 반 빗, 셋 빗덜 영 소름소름 셋 빗<sup>248</sup>)이나 주고.(응. 점심해서 먹이고 다시 또 거기 떡해서 옛날은 저 떡해서 상여꾼 큰 거, 상여꾼 큰 거 네모반듯한 거 이렇게 해서 하면 한 ‘빗’씩 주고 다시 ‘복친’들이나 여자들은 이렇게 반 ‘빗’, 세 ‘빗’들 이렇게 기름기름 ‘셋 빗’이나 주고.)

112036 @ 셋 빗이 뭐?('셋 빗'이 뭐?)

112036 # 옆이 거.(옆의 거.)

112036 @ 아, 옆이 거.(아, 옆의 거.)

112036 # 상뒤덜은 큰 거 주곡 따시 만뒤혜영 모몰허영 만뒤허민 만뒤도 상뒤덜은 네 개, 갱 안허민 세 개 여청덜은 주고.(상여꾼들은 큰 거 주고 다시 만두해서 메밀해서 만두하면 만두도 상여꾼들은 네 개, 그렇지 않으며 세 개 여편네들은 주고.)

112036 @ 아까 상뒤가 그 저.(아까 상여꾼이 그 저.)

112036 # 영장 메는 사름.(송장 메는 사름.)

112036 @ 들르는 사름덜.(드는 사름들.)

112036 # 들르고 그디 강 물어주고.(들고 거기 가서 물어주고.)

112036 @ 아, 물어주곡 허는 사름덜 그 사름덜이 상뒤.(아, 물어주고 하는 사름들 그 사름들이 상여꾼.)

112036 # 응, 상뒤 빌민 그 사름덜이 다 파근에 혜영 허고 개광 드룬 사름 또 트로 잇주게.(응, 상여꾼 빌리면 그 사름들이 다 파서 해서 하고 묘광 다지는 사름 또 따로 있지.)

112036 @ 응.(응.)

112036 # 그 사름은 개광 드룬 사름은 따시 트로허영 건 목시.(그 사름은 묘광 다지는 사름은 다시 따로해서 그건 목수.)

112036 @ 응.(응.)

112036 # 목시가 헐 거주. 목시 허민 다 이젠 혼 딜로 옛날은 그 목시질 허는 사름 목시 관 찬 사름이 그거 개광 다루주. 관 찬 사름이 알앙 허민 들루민.(목수가 할 거지. 목수 하면 다 이젠 한 군데로 옛날은 그 목수질 하는 사름 목수 관짜는 사름이 그거 묘광 다지는 거지. 관 짜는 사름이 알아서 하면 다지면.)

112036 @ 달아줘, 그거를. 개광을 달아? (달아줘, 그거를. 묘광을 달아?)

112036 # 응. 땅게, 땅 문을 디 강 파는 거 개광 달룸.(응. 땅, 땅 문을 데 가서 파는 거 묘광 다지기.)

---

248) ‘셋 빗’은 동그란 시루떡을 자를 때 옆 부분 조그마한 것을 말한다.

112036 @ 아. 개광 팡, 개광 달봐.(아. 묘광 파서, 묘광 다져.)

112036 # 개광 달루는 거. 판 게 아니고 개광 달룬 거. 딱딱 반주룽이 단장허는 거. 그 사름이 허민 목시가 허민 그 사름이 대소상 때에 다 돛다리 그치멍 반 주 주.(묘광 다지는 거. 판 게 아니고 묘광 다진 거. 딱딱 ‘반주룽이’ 단장하는 거. 그 사람이 하면 목수가 하면 그 사람이 대소상 때에 다 돼지다리 자르면서 반기 주지.)

112036 @ 응.(응.)

112036 # 돛 상지차 다 아저가주게, 삼 년을.(돼지 상자째 다 가져가지, 삼 년을.)

112037 @ 응. 게문 그거 옛날에, 이제는 차로 확행 시경 가민 돼주만은 옛날은 다 영 저근에 가실 거 아니예?(응. 그러면 그거 옛날에, 이제는 차로 확해서 실어서 가면 되지만 옛날은 다 이렇게 저서 갔을 거 아니예?)

112037 # 다 메 갖주게.(다 메어서 갔지.)

112037 @ 메영예.(메어서요.)

112037 # 응. 메영.(응. 메어서.)

112037 @ 상뒤덜이예.(상여꾼들이요.)

112037 # 응, 굴아메멍, 굴아메멍, 막 으라이 혜근에 혼 번에 으숫 사름씩이라. (응, 번갈아 메면서, 번갈아 메면서, 아주 여러명이 해서 한 번에 여섯 사람씩이야.)

112037 @ 요숫 사름이 상.(여섯 사람이 서서.)

112037 # 응. 경행 메민 양 귀에 네 밧디 허곡 한가운 둘허곡 으숫 사름이라. 경허민 으숫 사름 메여근에 이디서 혼 반 참은 쫘 가민 따시 다른 사름 또 굴아 메고.(응. 그래서 메면 양 모서리에 네 군데 하고 한가운데 둘하고 여섯 사람이야. 그러면 여섯 사람 메어서 여기서 한 반 참 쫘 가면 다시 다른 사람 또 갈아 메고.)

112037 @ 아. 그 우에, 관 우에 막 무시거 더꼽니께?(아. 그 위에, 관 우에 막 무엇 덮잡습니까?)

112037 # 응. 거 뭐시기 관 우이 덮는 거 트로 잇주게.(응. 거 무엇 관 위에 덮는 거 따로 있지.)

112037 @ 꽃도 막 허고.(꽃도 막 하고.)

112037 # 응. 것ㄴ라 무시건가 헛 거 생여.(응. 그것보고 무엇인가 한 거 상여.)

112037 @ 상여?(상여?)

112037 # 응. 생여 씨왕.(응. 상여 씨워서.)

112037 @ 상여 씨왕, 꽃은?(상여 씨워서, 꽃은?)

112037 # 꽃은 그것에 혼디 돌아지주게.(꽃은 그것에 함께 달려있지.)

112037 @ 아, 혼디 돌아져.(아, 함께 달려있어.)

112037 # 네 귀에 돌아져. 겨곡 돌아지곡 따시 이녁 상제덜 혜근에 저 지전 돌아메곡.(네 모서리에 달려있어. 그리고 달려있고 다시 자기 상제들 해서 저 지전 돌아매고.)

112037 @ 아, 지전 돌아메곡.(아, 지전 돌아매고.)

112037 # 응. 지전덜 이녁 상제덜 행 돌아.(응. 지전들 자기 상제들 해서 달아.)

112037 @ 지전은 어떻 행 멘드는 거파?(지전은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112037 # 아, 요새 그 백지 해근에 영 툭툭 오고리고 행 ㄴ새로, 돈 ㄴ치 멩들아 근에.(아, 요새 그 백지 해서 이렇게 툭툭 오고리고 해서 가위로, 돈처럼 만들어서.)

112037 @ 그 저 굿할 때 허는 거추룩?(그 저 굿할 때 하는 거처럼?)

112037 # 응. 그거 행 상제덜 돌아메주게.(응. 그거 해서 상제들 달아매지.)

112037 @ 응.(응.)

112037 # 남전 만서, 옛날은 만서허민 그 죽은 사름 일름 다 써근에 쟁인이민 쟁인, 무시거민 무시거 행 딱 썩 거 만서덜 행 켜당, 저 늬이 한 사름덜은 만서도 하곡.(남자는 만장, 옛날은 만장하면 그 죽은 사람 이름 다 써서 ‘쟁인’이면 ‘쟁인’, 무엇이든 무엇 해서 딱 써서 그거 만장들 해서 켜당, 저 남이 많은 사람들은 만장도 하고.)

112037 @ 만서가 뭐?(만장이 뭐?)

112037 # 만선 옛날은 남저덜 허민 막 벌경현 양단으로 멩지로 행 막 만서 썩 낫어.(만장은 옛날은 남자들 하면 아주 벌건 양단으로 명주로 해서 막 만장 썩었어.)

112037 @ 아.(아.)

112037 # 막 번들번들번들 이제 저 무시거 행 허민덜 검붉은 거 영화에덜 안 나왓시냐?(아주 번들번들번들 이제 저 무엇 해서 하면들 검붉은 거 영화에들 안 나오고 있나?)

112037 @ 영 들르는 건가?(이렇게 드는 건가?)

112037 # 기 들르는 거 ㄴ치 행. 요 행 딱 즐르민 혼 잘 들어온 사름 혼 여남은 자썩 들어오라. 경허곡.(기 드는 거처럼 해서. 요렇게 해서 딱 조르면 한 잘 들어온 사름은 한 여남은 자썩 들어와. 그리고.)

112037 @ 영 대낭 우이 이렇게 해근에.(이렇게 대나무 위에 이렇게 해서.)

112037 # 매근에 다 영.(매서 다 이렇게.)

112037 @ 들러근에 가는 거?(들어서 가는 거?)

112037 # 들렁 가는 거.(들어서 가는 거.)

112037 @ 아, 그게 만서?(아, 그게 만장?)

112037 # 응, 그거 만서. 것도 이녁 저 복친덜이 다 들르주. 늬은 안 들러, 그 만서.(응, 그거 만장. 그것도 자기 저 ‘복친’들이 다 들지. 남은 안 들어, 그 만장.)

112038 @ 응. 그믄 봉분은.(응. 그러면 봉분은.)

112038 # 여청, 여청은 안허고 남저덜만.(여편네, 여편네는 안하고 남자들만.)

112038 @ 응. 봉분은 어떻 만듭니까?(응. 봉분은 어떻게 만듭니까?)

112038 # 아, 봉분은 어떻해. 기영행 그레 행 개광덜 낡 그 우이 따시 또 개관<sup>249)</sup> 툭툭 더꺼근에 멘짝허게 더퍼와근에 그레 흑행 메우멍 봉분 싸는 거주. 것도

249) ‘개관’은 표준어로 ‘횡대’를 말하며 관 위에 덧덮는 널빤지를 말한다.

봉분도 상제덜이 허는 거라.(아, 봉분은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그리 해서 묘광들  
놔서 그 위에 다시 또 횡대 툇툇 덮어서 매끈하게 덮어놔서 그리 흙해서 메우면서  
봉분 쌓는 거지. 그것도 봉분도 상제들이 하는 거야.)

112038 @ 응.(응.)

112038 # 그 봉분 싸는 건 테 툇툇헿 허난 것도 봉분 싸는 거 사름마다 테 골  
명 해도, 그디 봉분 싸는 사름 트로 잇주게.(그 봉분 쌓는 건 떼 툇툇해서 하니까  
그것도 봉분 쌓는 거 사람마다 떼 같면서 해도, 거기 봉분 쌓는 사람 따로 있지.)

112038 @ 응.(응.)

112038 # 잘허는 사름이 이서. 것도 여라이 다 안 허는 거주.(잘하는 사람이 있  
어. 그것도 여러명 다 안 하는 거지.)

112038 @ 테도 어디 강 행 와얏 거 아니?(떼도 어디 가서 해서 와야할 거 아  
니?)

112038 # 테도 어디 곤 디 강 해당 테 싸민 봉분을 멩글민 따시 또 봉분이 곱  
곡, 테 곳인 디 건 어웁만 들곡 무신거 잡 거 들영 안 돼어.(떼도 어디 고운 테 가  
서 해다가 떼 쌓으면 봉분을 만들면 다시 또 봉분이 곱고, 떼 곳은 테 것은 억새만  
들고 무엇 잡 거 들어서 안 돼.)

112038 @ 거난 테가 잘 안 입영예, 벗어져 불어.(그러니까 떼가 잘 안 입어서  
요, 벗겨져 버려.)

112038 # 안 입으민 또 행 입져야.(안 입으면 또 해서 입혀야.)

112038 @ 거난예.(그러니까요.)

112038 # 또 가텔<sup>250)</sup> 해야여.(또 ‘가테’를 해야해.)

112038 @ 무신거 가텔?(무엇 ‘가텔’?)

112038 # 가테엔 현 건 따시 테 해당 입지는 거 가테.(‘가테’라고 한 건 다시 떼  
해다가 입히는 거 ‘가테’.)

112038 @ 아, 가테.(아, ‘가테’.)

112038 # 응, 가테. 또 테 안 입으민 따시 그 테 해당 우이 문딱 느리와뵈 따시  
입지는 거 가테.(응, ‘가테’. 또 떼 안 입으면 다시 그 떼 해다가 위에 모두 내려서  
다시 입히는 거 ‘가테’.)

112039 @ 응. 그다음에 호충.(응. 그다음에 호충살.)

112039 # 골충?(‘골충’?)

112039 @ 호충.(호충살.)

112039 # 호충? 골충?(호충살? ‘골충’?)

112039 @ 저 문을 떼 어떤 사름 무슨 헤치 사름은 보몬 안 돼고 영허는 거.(저  
문을 떼 어떤 사름 무슨 떠 사름은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

112039 # 그건 저 상제덜 무시거헌 사름 그 헤치로 가는 거.(그건 저 상제들 무  
엇한 사름 그 떠로 가는 거.)

---

250) ‘가테’는 산소에 떼를 입힌 것이 잘 안 되었을 때 추가로 덧입히는 떼를 말한다.

112039 @ 헤치로 가는 거?(띠로 가는 거?)

112039 # 응.(응.)

112039 @ 뭐 누게 누게 보지 말라 영허멍 허잖아예?(뭐 누구 누구 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112039 # 응, 무신 헤치 보지 말라 무신 그 입관할 때도 못 보고 하관할 때도 뭐 무신 상제라도 그 헤치 걸린 사람 아니 보는 거. 헤치로 가는 거.(응, 무슨 띠 보지 말라 무슨 그 입관할 때도 못 보고 하관할 때도 뭐 무슨 상제라도 그 띠 걸린 사람 안 보는 거. 띠로 가는 거.)

112039 @ 아니 상제들 다 상제들 나이 봐근에 날 잡는.(아니 상제들 다 상제들 나이 봐서 날 잡는.)

112039 # 나이 따라랑 헤치가 가주게.(나이 따라서 띠가 가지.)

112039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39 # 계난 그 무신 헤치, 무신 헤치 그디 걸리는 헤가 잇주게. 경헌 사람 걸린 사람 못 보는 거 그거 이 입관할 때 못 보민 하관할 때도 못 봐.(그러니까 그 무슨 띠, 무슨 띠 거기 걸리는 헤가 있지. 그런 사람 걸린 사람 못 보는 거, 그거 이 입관할 때 못 보면 하관할 때도 못 봐.)

112039 @ 하관할 때도 못 봐.(하관할 때도 못 봐.)

112039 # 두 번 못 봐. 제 지낼 때, 제베끼.(두 번 못 봐. 제 지낼 때, 제박에.)

112040 @ 영장밧딴서 그 상뒤덜 음식 대접은 어떻 행 헤마씨?(장지에서 그 상여꾼들 음식 대접은 어떻게 해서 해요?)

112040 # 게, 음식, 궂사 안 곶아냐? 거 떡이나 행 취떡이나 치민 큰 빗으로 한 가운 빗으로 두 개 행 하나씩 주고 행 준덴.(그러게, 음식, 아까 안 말하더냐? 그거 떡이나 해서 취떡이나 찌면 큰 ‘빋’으로 한 가운데 ‘빋’으로 두 개 해서 하나씩 주고 해서 준다고.)

112040 @ 응.(응.)

112040 # 돌레떡은 따시도 돌레떡 훑은 훑은허게 행 크게 행 둥글둥글헌 돌레떡 행 흔 노메<sup>251)</sup>엔 현 거 저 두 개가 흔 노메주. 그거 행 주주.(도래떡은 다시 또 도래떡 굵게 굵게 해서 크게 둥글둥글한 도래떡 해서 한 ‘노메’라고 한 거 저 두 개가 한 ‘노메’지. 그거 해서 주지.)

112040 @ 두 개가 흔 호메?(두 개가 한 ‘호메’?)

112040 # 응. 흔 노메엔 허주.(응. 한 ‘노메’라고 하지.)

112040 @ 흔 노메.(한 ‘노메’.)

112040 # 응. 흔 사람 짝 흔 노메.(응 한 사람 깃 한 ‘노메’.)

112040 @ 흔 노메.(한 ‘노메’.)

112040 # 경행 주고. 떡은 허민 침떡허민 흔 빋씩 주곡. 상빋<sup>252)</sup>으로 흔 빋씩.

251) ‘노메’는 한 사람 분을 말하는 ‘눔의역’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 듯하며 제보자는 도래떡 두 개를 한 ‘노메’라고 했다.

252) ‘상빋’은 동그란 시루에서 찼던 시루떡을 길게 자를 때 가운데 긴 조각을 말한다.

(그래서 주고. 떡은 하면 시루떡하면 한 ‘빳’씩 주고. ‘상빳’으로 한 ‘빳’씩.)

112040 @ 상빳? (‘상빳’?)

112040 # 상빳. 영 시리 동글랑헌 거 요 한가운뎃 것가 상빳 아냐? (‘상빳’. 이렇게 시루 동그란 거 요 한가운데 것이 ‘상빳’ 아니냐?)

112040 @ 아, 한가운뎃 거. (아, 한가운데 거.)

112040 # 요거민 요영 허민 요디 거. (요거면 요렇게 하면 요기 거.)

112040 @ 아, 찢르민. 가운데 게 젤 크고예. (아, 자르면. 가운데 거 제일 크고요.)

112040 # 요디 건 찢르민 건 여저덜이나 주고 요 한가운데 건 남저덜 줘. (요기 건 자르면 그건 여자들이나 주고 요 한가운데 건 남자들 줘.)

112040 @ 침떡을? (시루떡을?)

112040 # 응, 침떡도 경허고. 돌레떡은 헤영 그추록 헤영 두 개헤영 혼 노메씩 주고. (응, 시루떡도 그렇게 하고. 도래떡은 해서 그렇게 해서 두 개해서 한 ‘노메’씩 주고.)

112041 @ 장사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장사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112041 # 수고헌 사름은 굿사도 안 곶아냐? 그 옛날은 저 반 행 떡 행 구젤주기허고 반 주어 낫주게. (수고한 사름은 아까도 안 말하더냐? 그 옛날은 저 반기 해서 떡 해서 ‘구젤주기’하고 반기 주었었지.)

112041 @ 아, 아까 맞아, 그 저 관 찢 사름이나 뭐예. (아, 아까 맞아, 그 저 관 찢 사름이나 뭐요.)

112041 # 관 찢 사름은. (관 찢 사름은.)

112041 @ 정시나 뭐예. (지관이나 뭐요.)

112041 # 정시나 헌 건 돛다리 걸치고 행 주고 따시 또 그디 옷이나 몰라준 사름은 갈비나 농곡 떡 해근에 혼 빳 농곡 존떡<sup>253</sup> 행 농곡 행 아정가곡, 차룻착에 아정가곡. (지관이나 한 건 돼지다리 걸치고 해서 주고 다시 또 거기 옷이나 마른 사름은 갈비나 놓고 떡 해서 한 ‘빳’ 놓고 ‘존떡’ 해서 놓고 해서 가져가고, 채룻에 가져가고.)

112041 @ 존떡? (‘존떡’?)

112041 # 절벤 술벤 놓고 과줄허민 과줄 다 오만 거 다 뇌근에. (절편, 술편 놓고 과줄하면 과줄 다 오만 거 다 뇌서.)

112041 @ 그게 존떡이라? (그게 ‘존떡’이야?)

112041 # 잣긱떡<sup>254</sup> 뇌근에. (‘잣긱떡’ 뇌서.)

112041 @ 잣긱떡? (‘잣긱떡’?)

253) ‘존떡’은 잔 떡이라는 말로 시루떡처럼 크게 잘라진 떡이 아니라 크기가 작은 떡이라는 말인 것 같다.

254) ‘잣긱떡’은 여러 가지 떡을 말하는 것으로 제보자는 술편, 절편, ‘은절미’, 과줄, ‘중궤’, ‘약궤’, 시루떡 일곱 가지를 말한다고 했다.

112041 # 여라 굿이난 잣 굿이 놓난 잣굿떡 아니냐게?(여러 굿이니까 ‘잣’ 굿이 놓으니까 ‘잣굿떡’ 아니냐?)

112041 @ 아, 여러 개 놓민 잣굿떡?(아, 여러 개 놓으면 ‘잣굿떡’?)

112041 # 응. 경행 도새기 갈비 하나 놓곡행.(응. 그렇게 해서 돼지 갈비 하나 놓고 해서.)

112041 @ 아.(아.)

112041 # 경행 옷 돌른 사름덜은 반으로. 건 반.(그렇게 해서 옷 마른 사람들은 반기로. 그건 반기.)

112041 @ 응.(응.)

112041 # 서러지가 아니고 반.(‘서러지’가 아니고 반기.)

112041 @ 아니, 거난 잠깐만에 잣굿떡은 무신거 무신거라? 술벤, 절벤.(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잣굿떡’은 무엇 무엇이야? 술편, 절편.)

112041 # 술벤, 절벤, 은절미, 과줄, 저 중케, 약케, 과줄 허민 멧 가지, 일곱가지 아니냐. 그 그거 낵 주주게. 따시 또 케기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술 혼 비루팽 놓고 도새긴 갈비나 하나 놓곡 해근에.(술편, 절편, ‘은절미’, 과줄, 저 ‘중케’, ‘약케’, 과줄 하면 멧 가지, 일곱 가지 아니냐. 그 그거 놔서 주지. 다시 또 고기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술 한 병 놓고 돼지는 갈비나 하나 놓고 해서.)

112041 @ 아까 제펜도 놓는 거 아니예?(아까 시루떡도 놓는 거 아니예요?)

112041 # 제펜이영 다 드난게 잣굿떡이주.(시루떡이랑 다 드니까 ‘잣굿떡’이지.)

112041 @ 게난 일곱 개.(그러니까 일곱 개.)

112041 # 응, 잣굿떡.(응, ‘잣굿떡’.)

112041 @ 그케 잣굿떡. 일곱 개 다 놓민 그케 잣굿떡.(그케 ‘잣굿떡’. 일곱 개 다 놓으면 그케 ‘잣굿떡’.)

112041 # 응, 자꾸 놓난 잣굿떡.(응, 자꾸 놓으니까 ‘잣굿떡’.)

112041 @ 자꾸 놓난 잣굿떡. 하하하.(자꾸 놓으니까 ‘잣굿떡’. 하하하.)

112041 # 응.(응.)

112041 @ 중케, 약케 어떻게는 거파?(‘중케’, ‘약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2041 # 중케, 약케, 과줄 허민 그거 허는 거.(‘중케’, ‘약케’, 과줄 하면 그케 하는 거.)

112041 @ 거난 중케, 약케 어떤 떡이파?(그러니까 ‘중케’, ‘약케’는 어떤 떡입니까?)

112041 # 그 중케엔 헌 건 소름허게 영행 소름헌 거 길쭉길쭉허고 약케엔 헌 건 은절미 닳은 거 해근에 고망 네 귀 고망 뜰랑 그거 후라이판에 낵 지정 지진 거가 중케, 약케.(그 ‘중케’라고 한 건 가름하게 이렇게 해서 가름한 거 길쭉길쭉하고 ‘약케’라고 한 건 ‘은절미’ 같은 거 해서 구멍 네 모서리 구멍 뚫어서 그거 프라이팬에 놔서 지저서 지진 것이 ‘중케’, ‘약케’.)

112041 @ 약케는 지진 거.(‘약케’는 지진 거.)



112041 # 따시 또 중궤도 지지주. 소랑허게 허여 낱 소랑허게 질게.(다시 또 ‘중궤’도 지지지. 가름하게 해 놓고 가름하게 질게.)

112041 @ 아, 둘 다 후라이팬에 지지는 거?(아, 둘 다 프라이팬에 지지는 거?)

112041 # 다 지져.(다 지져.)

112041 @ 무신 그루로 허는 거파?(무슨 가루로 하는 겁니까?)

112041 # 밀가루로.(밀가루로.)

112041 @ 아, 밀가루로. 그른 하양해?(아, 밀가루로. 그러면 하얘?)

112041 # 응?(응?)

112041 @ 하양해? 밀가루로 허민.(하얘? 밀가루로 하면.)

112041 # 헤영 지지민 하양 안 허주게.(해서 지지면 하양지 않지.)

112041 @ 노리롱해.(노르스름해.)

112041 # 응. 경허주게. 과줄 현 사름 그걸 헤야여.(응. 그렇지. 과줄 한 사람 그걸 해야 해.)

112042 @ 응. 상식은 어떻게 헤마씨?(응. 상식은 어떻게 해요?)

112042 # 상식은 죽어근에 상식허젠 허민 생사름 먹듯 경행 상 출령 들려와, 하루 삼시. 옛날은 담배 피운 어른덜 죽으민 담배 통대에 헤근에 담배 부짱 그 통에 담배 부짱 놓고 상식에.(상식은 죽어서 상식하려고 하면 생인 먹듯 그렇게 해서 상차려서 올려와, 하루 삼시.)

112042 @ 응.(응.)

112042 # 경행 술이나 감주나 행 걸곡 헤근에 저 제지내듯 행 먹읍센 곡소리허곡 행 케우리주. 승냥에 헤영.(그렇게 해서 술이나 감주나 해서 걸고 해서 저 제지내듯 해서 드시라고 곡소리하고 해서 고수레하지. 승냥에 해서.)

112042 @ 허고 저 소상 대상 헐 때는 삼 년 내내 허는 거 아니예?(하고 저 소상 대상 할 때는 삼 년 내내 하는 거 아니예요?)

112042 # 소상에 허고 소상만 허곡 영장에 대소상에 다 허는 사름. 옛날은 대소상에 다 헤낫주게, 상식. 원 우리도 우리 할아버지 죽은 때나 작은삼촌 죽은 때는 상식을 헤부난 다 헤여.(소상에 하고 소상만 하고 초상에 대소상에 다 하는 사람. 옛날은 대소상에 다 했었지, 상식. 원 우리도 우리 할아버지 죽은 때나 작은삼촌 죽은 때는 상식을 헤버리니까 다 해.)

112042 @ 응.(응.)

112042 # 우린 작은삼촌 죽은 땐 일 년만 헤신디 우리 할아버진 삼 년헐.(우리는 작은삼촌 죽은 땐 일 년만 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삼 년헐.)

112043 @ 삭망은?(삭망제는?)

112043 # 응?(응?)

112043 @ 삭망.(삭망제.)

112043 # 삭망은 초하루에 허곡 보름에 허곡 현 둘에 두 번.(삭망제는 초하루에 하고 보름에 하고 한 달에 두 번.)

112043 @ 혼 둘에 두 번예.(한 달에 두 번요.)

112043 # 응.(응.)

112043 @ 옛날은 맨날 초하루 보름 했주만은 이젠 안 해예?(옛날은 맨날 초하루 보름 했지만은 이젠 안 해요?)

112043 # 초하루 보름, 이젠 백일에 복 벗는 사람 무신 스십구제허는 사람은 잘 허는 사람.(초하루 보름, 이젠 백일에 상복 벗는 사람 무슨 사십구제하는 사람은 잘 하는 사람.)

112043 @ 응.(응.)

112043 # 건 잘허는 사람이고 저 거시기 납골당에 강 복 벗영 데껴부는 거 사람덜 천지만진디 스십구제해 주는 사람은 이제 잘해주는 거.(그건 잘하는 사람이고 저 거시기 납골당에 가서 상복 벗어서 던져버리는 거 사람들 천지만진데 사십구제해 주는 사람은 이제 잘해주는 거.)

112043 @ 아니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삭망을 초하루에만 해신디 보름은 안 허고.(아니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삭망을 초하루에만 했는데 보름은 안 하고.)

112043 # 그것도 중간예주.(그것도 중간이지.)

112043 @ 응. 중간이지.(응. 중간이지.)

112043 # 중간예주. 이제랑 아버지 돌아간 지 몇 해라?(중간이지.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해야?)

112043 @ 십 년 넘어수다.(십 년 넘었습니다.)

112043 # 경허난 그때 했주. 우리 하르방도 그땐 따시도 경 안 헐 거. 거시기 스십구제 헐에 복 벗어신디 그때 우리 손지 풀젠 해부난 아방도 엇고 손지 풀젠 해부난 아방도 엇고 손지 풀젠 해부난에 동짓달에, 선달에 풀 거고, 동짓달에 스십구제 헐에 설릿주게. 복 벗영 하르방, 팔년 올리.(그러니까 그때 했지. 우리 할아버지도 그땐 다시도 그렇게 안 할 거. 거시기 사십구제해서 상복 벗었는데 그때 우리 손자 팔려고 해버니까 아버지도 없고 손자 팔려고 해버리니까 아버지도 없고 손자 팔려고 해버리니까 동짓달에, 선달에 팔 거고, 동짓달에 사십구제 해서 그만뒀지. 상복 벗어서 할아버지, 팔년 올해.)

112043 @ 응.(응.)

112043 # 일 년은 해신디 상제 손지 때문에 복 벗언.(일 년은 했었는데 상제 손자 때문에 상복 벗었어.)

112043 @ 우리 어무니 이시난 어무니가 아부지 상식 허명예.(우리 어머니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상식 하면서요.)

112043 # 서춘이난.(서춘이니까.)

112043 @ 경헤근에 했주마씨.(그렇게 해서 했지요.)

112043 # 서춘이난 거.(서춘이니까 그거.)

112043 @ 서춘이난 헐 거라?(서춘이니까 한 거야?)

112043 # 응, 이렌 경 안해. 서르레가 잘해여.(응, 이리는 그렇지 않아. 서쪽이 잘해.)

112043 @ 아, 기파?(아, 그렇습니까?)

112043 # 응.(응.)

112043 @ 초하루마다 해낫주게, 우리도.(초하루마다 했었지, 우리도.)

112043 # 옛날에 초하루만 헐 일 년 해난디.(옛날에 초하루만 해서 일 년 했었는데.)

112043 @ 게난 일 년 해난.(그러니까 일 년 했었어.)

112043 # 일 년 헐주게.(일 년 했지.)

112043 @ 응.(응.)

112043 # 초하루만 허민 일 년 해여. 옛날은 초하루만 행 일 년행은에 따시 또 담제해영 허는 사름도 싯곡 일 년 해영 담제도 안 행 복 벗어부는 사름 싯곡 혼이 시냐? 요새, 혼이 엇어.(초하루만 하면 일 년 해. 옛날은 초하루만 해서 일 년해서 다시 또 담제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일 년 해서 담제도 안 하고 상복 벗어버리는 사람 왔고 한이 있니? 요새, 한이 없어.)

112043 @ 하하하.(하하하.)

112043 # 지네 멋대로.(자기 멋대로.)

112044 @ 소상은 일 년 지낭 허는 거주예?(소상은 일 년 지나서 하는 거지요?)

112044 # 일 년 지낭은에게 딱 일 년 돼민.(일 년 지나서 딱 일 년 되면.)

112044 @ 일 년 돼민 허는 거예?(일 년 되면 하는 거요?)

112044 # 죽은 날 돌아오민.(죽은 날 돌아오면.)

112044 @ 죽은 날 돌아오민예. 첫 번째 일 년 딱 돼민예. 대상은?(죽은 날 돌아오면요. 첫 번째 일 년 딱 되면요, 대상은?)

112044 # 제슨 따시 그때주게. 게난 요새에 제슨 당일제 허젠 허민 죽는 날 허곡 따시 저 당일제 안행 허민 산 때 허는 거 따시 저 무시거 흐루 앞서 허곡. 경허민 당일 허는 날은 똑 돌아가는 날 허곡 경 안 허민 아시날 허곡.(제사는 다시 그때지. 그러니까 요새에 제사는 당일제 하려고 하면 죽는 날 하고 다시 저 당일제 안 하고 하면 산 때 하는 거 다시 저 무엇 하루 앞서 하고. 그러면 당일 하는 날은 꼭 돌아가는 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날 하고.)

112044 @ 대상은 언제 허는 거라?(대상은 언제 하는 거야?)

112044 # 대상은 그때 소상으로 삼 년 돼민.(대상은 그때 소상으로 삼 년 되면.)

112044 @ 삼 년 돼민?(삼 년 되면?)

112044 # 응.(응.)

112044 @ 죽은 지 삼 년째 돼민.(죽은 지 삼 년째 되면.)

112044 # 딱 삼 년 날 그날 돼민. 돌아간 날 삼 년 그날 돼민. 삼 년 허는 거.(딱 삼 년 날 그날 되면. 돌아간 날 삼 년 그날 되면. 삼 년 하는 거.)

112044 @ 요즘에 소상을 그냥 야제로 제사처럼 그냥예.(요즘에 소상을 그냥 야

제로 제사처럼 그냥요.)

112044 # 그건 저 백일 탈상허는 사름덜.(그건 저 백일 탈상하는 사름들.)

112044 @ 아.(아.)

112044 # 백일에 탈상허는 야제로.(백일에 탈상하는 야제로.)

112044 @ 야제로. 이제 소상도 안 행 식게해 붙어.(야제로. 이제 소상도 안 하고 제사해 버려.)

112044 # 응. 소상은 식게.(응. 소상은 제사.)

112044 @ 그냥 식게예?(그냥 제사요?)

112044 # 응. 요새 다 그거주.(응. 요새 다 그거지.)

112044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44 # 백일 탈상 안 해근에 저 산에서 복 벗어근에 그자 일 년에 소상으로 냉긴 사름 다 그거주.(백일 탈상 안 하고 저 산소에서 상복 벗어서 그자 일 년에 소상으로 넘긴 사름 다 그거지.)

112047 @ 하하하. 복은 계민 언제 벗으는 거봐?(하하하. 상복은 그러면 언제 벗는 겁니까?)

112047 # 그거 벗을 때게, 탈상할 때 백일 탈상허민 백일탈상에 벗곡, 스십구제 허젠 허민 스십구제 허는 디 가근에 복 벗곡 허는 거주.(그거 벗을 때, 탈상할 때 백일탈상하면 백일 탈상에 벗고, 사십구제하려고 하면 사십구제 하는 데 가서 상복 벗고 하는 거지.)

112047 @ 옛날에는 삼 년 대상허민 삼 년.(옛날에는 삼 년 대상하면 삼 년.)

112047 # 응, 대상날 복 벗곡.(응, 대상날 상복 벗고.)

112047 @ 대상날 복 벗는 거예.(대상날 상복 벗는 거요.)

112047 # 응, 복 벗영 제지내곡 허주. 소상날도 복 벗영, 일 년 넘으민 소상날도 복 벗영 제지내민 소상.(응, 상복 벗어서 제지내고 하지. 소상날도 상복 벗어서, 일 년 넘으면 소상날도 상복 벗어서 제지내면 소상.)

112047 @ 응.(응.)

112047 # 다 매일반 혼가지주게.(다 매일반 한가지지.)

112046 @ 이장은 허젠, 천리, 천린 허젠 허민 어떻허는 거봐?(이장은 하려고, 면례, 면례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2046 # 천리가 이장. 천리허는 건 옛날은 천리허켄 헛주. 천리허켄. 천리헤사주 해근에.(면례가 이장. 면례하는 건 옛날은 면례하겠다고 헛지. 면례하겠다고. 면례해야지 해서.)

112046 @ 이건 아무 때나 허는 거 아니잖아예? 이것도예.(이건 아무 때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요.)

112046 # 날 뵙.(날 봐서.)

112046 @ 날 뵙예.(날 봐서요.)

112046 # 응, 좋은 날 봐사.(응, 좋은 날 봐야.)

112046 @ 응.(응.)

112046 # 거 허는 거주, 아무 날이나.(거 하는 거지, 아무 날이나.)

112046 @ 이거는 돈도 하영 들지예?(이거는 돈도 많이 들지요?)

112046 # 응?(응?)

112046 @ 돈도 하영 들지예?(돈도 많이 들지요?)

112046 # 옛날이나 이제나 건 매일반 혼 가지. 옛날은 다 그 이덕 동네 사름이나 방상 사름이나 다 빌어사 허주만은 이제덜은 천리헌 사름은 장애자 빌영 어렵게 헌 중은 알암냐?(옛날이나 이제나 그건 매일반 한 가지. 옛날은 다 그 자기 동네 사람이나 친척 사람이나 다 빌려야 하지만 이제들은 면례한 사름은 장의사 빌려서 어렵게 한 줄은 알고 있니?)

112046 @ 응?(응?)

112046 # 요새 사름덜은 천리허는 거 어렵게 허는 중은 알암다? 하루 여남은 자리씩 하루오곡 해가곡.(요새 사람들은 면례하는 거 어렵게 하는 줄은 알고 있니? 하루 여남은 장씩 해오고 해가고.)

112046 @ 계난예. 요즘에 막 가족 공동묘지허멍.(그러니까요. 요즘에 막 가족 공동묘지하면서.)

112046 # 혼 사름이 하루 여남은 개씩 햄시네게.(한 사람이 하루 여남은 개씩 하고 있네.)

112046 @ 하하하. 아니 우리 저기 시택에도 가족 공동묘지 허켄 허멍예 이거 천리헤야 웬덴 허멍 막 허드라고마씨.(하하하. 아니 우리 저기 시택에도 가족 공동묘지 하겠다고 하면서 이거 면례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112046 # 계난 거 날 뵙 허주게.(그러니까 그거 날 봐서 하지.)

112046 @ 날 뵙예.(날 봐서요.)

112046 # 친구간에 못허민 날 뵙 헐 거주.(친구간에 못하면 날 봐서 할 거지.)

112046 @ 친구간엔 날 안 봐도 돼여?(친구간엔 날 안 봐도 돼?)

112046 # 친구간엔 날 봐도 그자락은 아니주만은 그자 땀 잘 봐사.(친구간엔 날 봐도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저 땀 잘 봐야.)

112046 @ 응.(응.)

112046 # 천리도 옛날은 천리도 잘 보는데 이제도 천리 잘 보는 사름은 보주. 계난 친구간은 혼엇이 경 걸리지 안허주게.(면례도 옛날은 면례도 잘 보는데 이제는 면례 잘 보는 사름은 보지. 그러니까 친구간은 한없이 그렇게 걸리지 않지.)

112046 @ 응. 계민 어떻허민 천리허는 거파?(응.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면례하는 겁니까?)

112046 # 어떻허민 천리허는 거라게?(어떻게 하면 면례하는 거겠니?)

112046 @ 우린 가족 공동묘지 허켄 허난 허는 거고 옛날엔 무사 천리헤신고?(우린 가족 공동묘지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고 옛날엔 왜 면례했는가?)

112046 # 천리허는 건 그 산터가 굿이민.(면례하는 건 그 뒤통자리가 굿으면.)

112046 @ 아, 산터가 낫다고 허민.(아, 뭇자리가 낫다고 하면.)

112046 # 응. 묻은 디 낫이민 천리허는 거.(응. 묻는 데 낫으면 면례하는 거.)

112046 @ 아.(아.)

112046 # 옛날은 가족묘지 허민 이 산터 낫인디 존디 알안 험시냐?(옛날은 가족묘지 하면 이 뭇자리 낫은지 좋은지 알아서 하고 있니?)

112046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46 # 신귀<sup>255)</sup> 안 헌 디민 험주.(‘신귀’ 안 한 데면 하고 있지.)

112046 @ 뭐 안 헌 디민?(뭐 안 한 데면?)

112046 # 신귀엔 헌 거, 물 굶는 디 아니민.(‘신귀’라고 한 거, ‘물 굶는’ 데 아니면.)

112046 @ 물 굶른 디?(물 고인 데?)

112046 # 응. 드르에 물 굶는 디가 잇주게.(응. 들에 ‘물굶는’ 데가 있지.)

112046 @ 물 굶는 디? 신귀?(‘물굶는’ 데? ‘신귀’?)

112046 # 응.(응.)

112046 @ 아.(아.)

112046 # 물 굶는 디가 신귀주게.(‘물 굶는’ 데가 ‘신귀’지.)

112048 @ 이거 저 영장힐 때는 영 뭇허민 안 돼고 영허는 거 엇수과?(이거 저 초상할 때는 이렇게 뭇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없습니까?)

112048 # 무시거?(무엇?)

112048 @ 그 상제덜은 뭇도 허지 말고 뭇도 허지 말라 영허는 거.(그 상제들은 뭇도 하지 말고 뭇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

112048 # 몰라. 우리 천리힐 때.(몰라. 우리 면례할 때.)

112048 @ 천리힐 때 말고, 그냥. 상제덜, 영장칩이.(면례할 때 말고, 그냥. 상제들, 상갓집에.)

112048 # 영장칩이 어떻.(상갓집에 어떻게.)

112048 @ 상제덜 아까 몸도 굶지 말고 세수도 허지 말고.(상제들 아까 몸도 감지 말고 세수도 하지 말고.)

112048 # 그건 영장, 성복 전이.(그건 초상, 성복 전에.)

112048 @ 아, 성복 전이만.(아, 성복 전에만.)

112048 # 영장난 때 성복 전이만 경허는 거주. 겨난 천리힐 땐 경 안허여, 아무것도.(초상난 때 성복 전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면례할 땐 그렇게 안 해, 아무것도.)

112048 @ 대상 전이 뭐 어디 다른 디 저 상 난 디도 가지 말고 영.(대상 전에 뭐 어디 다른 데 저 초상난 데도 가지 말고 이렇게.)

112048 # 그런 거 아무것도 엇나게.(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112048 @ 아무것도 엇어.(아무것도 없어.)

255) ‘신귀’는 수맥이 흐르는 땅을 말하는 듯하다.

112048 # 영장난, 대소상엔 경허지 안 한다게.(초상난, 대소상엔 그렇게 하지 않는다.)

112048 @ 아, 대소상은 경 안 허는구나예.(아, 대소상은 그렇게 안 하는군요.)

112048 # 옛날에 스몓 옛날에 우리 혼 댕 술 때 어디 저 영장나민, 복 입으민 어디 잔치밧디도 안 가고 무시거 헛젠 허주만은. 소상 전인 안 간텐 해낫주게.(옛날에 사몓 옛날에 우리 한 댕 살 때 어디 저 초상나면, 상복 입으면 어디 잔칫집도 안 가고 무엇 했다고 하지만. 소상 전엔 안 간다고 했었지.)

112048 @ 응.(응.)

112048 # 경 해낫주, 옛날에.(그렇게 했었지, 옛날에.)

112048 @ 아, 옛날 경은 해낫구나예?(아, 옛날 그렇게는 했었군요?)

112048 # 응. 상제는 상제가 췌인 몸이랑 어디 술 먹영 광질도 못허고 옛날에. 덤방덤방.(응. 상제는 상제가 죄인 몸이라서 어디 술 먹어서 광질도 못하고 옛날에. 덤방덤방.)

112048 @ 응. 조심하라고예.(응. 조심하라고요.)

112048 # 조심헤여사 옛날에. 경헌텐 해낫어, 옛날에. 그 덤방덤방 놀도 못, 췌인 몸이라.(조심해야 옛날에. 그런다고 했었어, 옛날에. 그 덤방덤방 놀지도 못, 죄인 몸이야.)

112048 @ 췌인 몸이라.(죄인 몸이야.)

112048 # 어디 강 말도 크게 못허고 췌인 몸이라.(어디 가서 말도 크게 못하고 죄인 몸이야.)

112048 @ 응.(응.)

112048 # 옛날은 그 소상 전이 두건 느랑 썬 텡겨낫저. 두건 쓰민 이디 땀 행여름에 써불민 땀이 질씩허영 시커멍허고 두건 썬 텡겨.(옛날은 그 소상 전에 두건을 써서 다녔었어. 두건 쓰면 여기 땀 해서여름에 써버리면 땀이 질씩해서 시커멍고 두건 써서 다녀.)

112048 @ 아, 평상시에도?(아, 평상시에도?)

112048 # 응, 느랑 두건을 썬 텡겨. 옛날은 우리 두린 때.(응, 늘 두건을 써서 다녀. 옛날 우리 어린 때.)

112048 @ 아.(아.)

112048 # 두건 썬 허민 소상 전이 따시 두건을 헤사여, 시커멍헤영.(두건 써서 하면 소상 전에 다시 두건을 해야해, 시커메서.)

112048 @ 응.(응.)

112048 # 이젠 안 써도. 이젠 그때 써 나민 확 벗어도 옛날은 느랑 써.(이젠 안 써도. 이젠 그때 쓰고 나면 확 벗어도 옛날은 늘 써.)

112048 @ 그니까.(그러니까.)

112048 # 어디 큰일밧디 가젠 해도 두건 썬 가곡 여청도 복치메 입영 가곡.(어디 큰일 난 곳에 가려고 해도 두건 써서 거고 여편네도 복치마 입어서 가고.)

112048 @ 아, 자기 거를. 그 집이서 주는 게 아니고.(아, 자기 거를. 그 집에서 주는 게 아니고.)

112048 # 응. 그 집이 강 영장난 집이 가젠 허민 복친은 복 입엉 가야여. 영장난 딴 방상에 이녁 복을.(응. 그 집에 가서 초상난 집에 가려고 하면 ‘복친’은 상복 입어서 가야 해. 초상난 덴 친척이 자기 상복을.)

112048 @ 그민 이녁 복이 다 헝나씩 이서?(그러면 자기 상복이 다 하나씩 있어?)

112048 # 이녁 복 이녁신디게.(자기 상복 자기에게.)

112048 @ 그디 강 받은 거 아니?(거기 가서 받은 거 아니?)

112048 # 받은 건 상젠 복 아니 준다. 켤당, 복친. 이녁이 이디 이제 우리 아방 이녁 아방이나 어멍이나 죽으면 다른 디 죽은어멍이나 누게 죽어도 이 복 아니 줘. (받은 건 상제 복옷 안 준다. 켤당, ‘복친’. 자기가 여기 이제 우리 아버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죽으면 다른 데 작은어머니나 누가 죽어도 이 상복을 안 줘.)

112048 @ 아까 복치메 준덴 헛수게.(아까 복치마 준다고 헛잖아요.)

112048 # 그건 복친덜이주. 상젠 아니 준다. 복수건 쓴 사람은 두건 아니 줘. 복 두건 아니 줘.(그건 ‘복친’들이지. 상제는 안 준다. ‘복수건’ 쓴 사람은 두건 안 줘. 두건 안 줘.)

112048 @ 두건은 안 줘?(두건은 안 줘?)

112048 # 두건도 안 주고 수건도 안 줘. 상젠 복 이녁 어멍 아방 거 복 입은 사람은 안 줘.(두건도 안 주고 수건은 안 줘. 상제는 상복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거 상복 입은 사람은 안 줘.)

112048 @ 아, 이녁 어멍, 아방 응.(아, 이녁 어머니, 아버지 응.)

112048 # 계난 방상에 가도 입을 츠레도 안 줘.(그러니까 친척에 가도 입을 차례도 안 줘.)

112048 @ 아, 이녁 어멍이, 아방이 죽영 아직 대상이 안 지나민.(아,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죽어서 아직 대상이 안 지나면.)

112048 # 응. 안 줘.(응. 안 줘.)

112048 @ 아, 이녁 거 가정강.(아, 이녁 거 가져가서.)

112048 # 이녁 거 입곡 이녁 거 허주, 두건도 쓰고. 안 줘, 두건도 안 주곡 복 하나도 안 줘.(자기 거 입고 자기 거 하지, 두건도 쓰고. 안 줘, 두건도 안 주고 상복 하나도 안 줘.)

112048 @ 응.(응.)

112048 # 두 갠 안 입을 거난, 복 두 갠 안 쓰는 거난 안 줘.(두 개는 안 입을 거니까, 상복 두 개는 안 쓰는 거니까 안 줘.)

112048 @ 응, 두 갠 안 쓰는 거렌.(응, 두 개는 안 쓰는 거라고.)

112048 # 느 이제 시어멍 죽곡 시아방 죽으면 시아방 복 입주, 아방 복 입어지느냐? 거 아니. 머리창 두 개 뒀는 건 아니, 옷 두 개 입는 건 아니.(너희 이제 시



어머니 죽고 시아버지 죽으면 시아버지 상복 입지, 아버지 상복 입을 수 있니?)

112048 @ 응.(응.)

112048 # 건 옛날, 옛날 본이 그거라, 옛날.(그건 옛날, 옛날 본이 그거야, 옛날.)

112048 @ 응.(응.)

## 제례

112049 @ 오늘은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예. 할머니넨 제사는 몇 번이나 합니까? 해냈수과? 옛날에 할머니.(오늘은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할머니네는 제사는 몇 번이나 합니까? 했었습니까? 옛날에 할머니.)

112049 # 나도 제스해냈주마는 제스 시방이나 다 ㄴ따.(나도 제사했었지마는 제사 지금이나 다 같아.)

112049 @ 다 ㄴ타. 응.(다 같아. 응.)

112049 # 옛날에 그자 이젠 하간 거 흔허난 꿩기도 해영 요만씩 허고 해근에 제스해영 허주. 옛날엔 경 어디 성 그추룩 해여? 기자 도새기꿩기도 허민 요멘씩 요멘씩 꿩영 다섯 점 꿩곡, 꿩꿩기도 허민 요멘씩 요멘씩 다섯 점 꿩곡 게난 다 ㄴ따, 옛날허는 거나.(옛날에 그저 이제 온갖 거 흔하니까 고기도 해서 요만큼씩 하고 해서 제사해서 하지. 옛날엔 그렇게 어디 있어서 그렇게 해? 그저 돼지고기도 하면 요만큼씩 요만큼씩 꿩어서 다섯 점 꿩고, 소고기도 하면 요만큼씩 요만큼씩 다섯 점 꿩고 그러니까 다 같아, 옛날하는 거나.)

112049 @ 응.(응.)

112049 # 이제 그자 잘 출령허곡 못 출령허는 게 이제 신식이주, 옛날엔 경 안해.(이제 그저 잘 차려서하고 못 차려서하는 게 이제 신식이지, 옛날엔 그렇게 안해.)

112049 @ 식게 뭐, 이제 식게 돌아왔저 영허민 뭐부터 준비해야 됩니까?(제사 뭐, 이제 제사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 뭐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112049 # 제스 돌아왔젠 허민 고사리.(제사 돌아온다고 하면 고사리.)

112049 @ 예, 고사리.(예, 고사리.)

112049 # 콩나물은 이녁냥으로 제 돌아와가민 놓앙 먹고 뭐.(콩나물은 자기대로 제사 돌아와 가면 놓아서 먹고 뭐.)

112049 @ 거난 저 제사 돌아와가민 일단 콩나물 놔사쿠다예.(그러니까 저 제사 돌아와 가면 콩나물 놔야겠습니다.)

112049 # 응, 놔야주.(응, 놔야지.)

112049 @ 뭐 혼 열흘 잇당 뭐, 열흘이나 스무날 잇당 식게여 허민.(뭐 한 열흘 있다가 뭐, 열흘이나 스무날 있다가 제사다 하면.)

112049 # 응, 인척 저슬엔 보름 돼기 전이 놔야 커.(응, 일찍 겨울엔 보름 되기 전에 놔야 커.)

112049 @ 응.(응.)

112049 # 여름엔 쉽게 크는디이.(여름엔 쉽게 크는데.)

112049 @ 저슬엔 추워부난.(겨울엔 추워버리니까.)

112049 # 추워부난. 경행 낱 먹곡 고사린 이녁냥으로 꺼경 행 먹곡.(추워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놔서 먹고 고사린 자기대로 꺾어서 해서 먹고.)

112049 @ 건 미리 봄에 꺼꺼 놔둔 거고예.(그건 미리 봄에 꺾어 놔둔 거고요.)

112049 # 응. 고사리철에 꺼경 낫당 숲앙 낫당 숲앙 허곡.(응. 고사리철에 꺾어서 놔다가 삶아서 놔다가 삶아서 하고.)

112049 @ 저 게민 돼지고기, 소고기는 어디 강 사와?(저 그러면 돼지고기, 소고기는 어디 가서 사와?)

112049 # 돼야지고기 옛이민 쉼케기만도 허고 도새기 쉼케기만도 허곡 경 다 옛날에 옛인디 경 쫄랑 헤젓어?(돼지고기 없으면 소고기만도 하고 돼지 고기만도 하고 그렇게 다 옛날에 없는데 그렇게 짧아서 할 수 있었어?)

112049 @ 게난.(그러니까.)

112049 # 경허민 떡도 헤영 허민 옛날엔 절편, 저편허곡 절편허곡 행 부жат집이 잣긔떡<sup>256</sup>)을 허민 그거 행 요멘씩 그차 놓곡 절편 하나에 인절미 하나 술벤 하나 허영 다 반. 이제 어른 옛이 다 반 허주게. 이젠 흙치 허영 허곡 먹도 안허여. 옛날은 그거 다 낱 헤여. 경행 반을 헤여.(경허민 떡도 해서 하면 옛날엔 절편, 제편하고, 절편하고 해서 부жат집 ‘잣긔떡’을 하면 그거 해서 요만큼씩 잘라 놓고 저편 하나에 인절미 하나 술편 하나 해서 다 반기. 이제 어른 없이 다 반기하지. 이젠 한꺼번에 해서 먹지도 않아. 옛날은 그거 다 놔서 해. 그래서 반기를 해.)

112049 @ 게난 바닷고기는 미리 잡아당 돌령 놔두고예.(그러니까 바닷고기는 미리 잡아다가 말려서 놔두고요.)

112049 # 미릿 행 삼월 나민 그거 해당 물리와근에 그 보리황이나 무신 황 시민 이젠, 그때는 비니루도 엇곡 종이도 엇주게.(미리 해서 삼월 나면 그거 해당가 말려서 그 보리 향아리나 무슨 향아리 있으면 이젠, 그때는 비닐도 없고 종이도 없지.)

112049 @ 응.(응.)

112049 # 그냥 꼭꼭허게 무시거 싸근에 황 소곱에 묻영 놔. 좀 일지 말렌.(그냥 꼭꼭하게 무엇 싸서 향아리 속에 묻어서 놔. 좀 생기지 말라고.)

112049 @ 아.(아.)

112049 # 묻영 낫당 경허곡 경허난 이제난 쉼케 햄주. 요멘씩 솔래기 하나민 혼 열댓 개 그치주. 쉼케 선 경 하영 놔낫어? 그건 아니.(묻어서 놔다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니까 고기 하고 있지. 요만큼씩 옥돔 하나면 한 열댓 개 자르지. 고기 있어서 그렇게 많이 놔졌어? 그건 아니.)

256) ‘잣긔떡’은 여러 가지 떡을 말하는 것으로 제보자는 술편, 절편, ‘은절미’, 과줄, ‘중케’, ‘약케’, 시루떡 일곱 가지를 말한다고 했다.

112049 @ 솔래기 하나민 어떻?(옥돔 하나면 어떻게?)

112049 # 흔 열 개씩게 요멘씩 요멘씩 그차냐.(한 열 개씩 요만큼씩 요만큼씩 잘라냐.)

112049 @ 아, 사름덜신디 반에 테우는 거?(아, 사람들에게 반기에 나눠주는 거?)

112049 # 반에, 레기 흔 점 도새기레기나 쉼레기나 흔 점 농곡 묵 흔 점 농곡 떡 농곡 행 요멘씩 다 요멘씩만 그창, 그창 냐.(반에, 고기 한 점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한 점 농고 묵 한 점 농고 떡 농고 해서 요만큼씩 다 요만큼씩만 잘라서, 잘라서 냐.)

112049 @ 응.(응.)

112049 # 이제ㄴ찌 경 더박더박<sup>257)</sup>헝 사라 죽진 안허여.(이제같이 그렇게 ‘더박 더박’해서 접시 작진 않아.)

112049 @ 하하하.(하하하.)

112049 # 옛날에도 엇이난.(옛날에도 없으니까.)

112049 @ 예.(예.)

112049 # 매 반에 그자 레기가 거난, 큰 레기 솔래기 요멘이 허난 이거 요거영 요거도 댕 반, 요것도 댕 반, 흔 여남은 개에 그차, 점을 그차, 다 썰멍.(매 반기에 그저 고기가 그거니까, 큰 고기 옥돔 요만큼 하나니까 이거 요거랑 요것도 댕 반기, 요것도 댕 반기, 한 여남은 개에 잘라, 점을 잘라, 다 썰면서.)

112049 @ 응, 게민 돼지고기 쉼고기는 어디 냉장고도 엇고 어떻 보관해?(응, 그러면 돼지고기 소고기는 어디 냉장고도 없고 어떻게 보관해?)

112049 # 어떻 행 보관해여. 옛날엔 행 놔두민 버랭이도 허곡 허난, 옛날에 경 허곡 다 제마다 경 쉼레기허곡 도새기레기허곡 허지 못헛주게. 갯것레기나 해영 구영 허주, 어디 간직 못 해노난 흘 수가 엇주.(어떻게 해서 보관해. 옛날에 해서 놔두면 벌레도 하고 하나까, 옛날에 그렇게 하고 다 제마다 그렇게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하지 못헛지. 바닷고기나 해서 구워서 하지, 어디 간직 못 해놓으니까 할 수가 없지.)

112049 @ 거니까예.(그러니까요.)

112049 # 도새기레기도, 도새기 해가민 그 어디 동네서 제나 허젠 허민 어디 추렴헬젠 소문 들어지민 강 흔 점 가근에 흔 여남은 이, 스무남은 이, 도새기 요멘씩 현 도새기 흐나 잡으민 흔 요멘씩 갈라당 허곡 헛주.(돼지고기도, 돼지 해가면 그 어디 동네서 제나 하려고 하면 어디 추렴한다고 소문 듣게되면 가서 한 점 가서 한 여남은 이, 스무남은 이, 돼지 요만큼씩 한 돼지 하나 잡으면 한 요만큼씩 갈라다가 하고 헛지.)

112049 @ 아.(아.)

112049 # 경헝 어디 추렴헬저 허민 아이고 제헬젠 허멍 강 우선 강 거 사다 놔

257) ‘더박더박’ 큼직하게 덩어리진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듬뿍듬뿍’과 비슷하다.

다근에.(그렇게 해서 어디 추렴한다고 하면 아이고 제한다고 하면서 가서 우선 가서 그거 사다 왔다가.)

112050 @ 응. 그믐 제물은 뭐, 뭐 준비해마씨?(응. 그러면 제물은 뭐, 뭐 준비해요?)

112050 # 이제 허는 거나 딱ㄴ따. 옛날도, 그자.(이제 하는 거나 똑같아. 옛날도, 그저.)

112050 @ 응. 돼지고기, 소고기.(응. 돼지고기, 소고기.)

112050 # 췌레기, 도새기레기 허민 도새기가 나오고 췌레긴 다 돈철미허난, 게 난 혼 곳, 혼 곳허주, 세 번을 못허주. 경허민 옛날은 호박도 해근에 적행 올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하면 돼지가 나오고 소고기긴 다 ‘돈철미’하니까, 그러니까 한 곳, 한 곳 하지, 세 번을 못하지. 그러면 옛날은 호박도 해서 적해서 올리고.)

112050 @ 아, 호박도 적허고.(아, 호박도 적하고.)

112050 # 응, 엇이난게 따시 호박 행 썰영 그것도 행 구워.(응, 없으니까 다시 호박 해서 썰어서 그것도 해서 구워.)

112050 @ 예.(예.)

112050 # 구왕허곡 패마농 따시 삼월, 삼월은 허젠 허민 패마농 잇잖아.(구워서 하고 쪽파 다시 삼월, 삼월은 하려고 하면 쪽파 잇잖아.)

112050 @ 응.(응.)

112050 # 패마농 해근에 그거 해근에 하나씩 동그랑허게 영영 헤영 조리청 웨영 그것도 적행 올리고.(쪽파 해서 그거 해서 하나씩 동그랑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뭉쳐서 웨어서 그것도 적해서 올리고.)

112050 @ 아.(아.)

112050 # 옛날엔 경해낫주. 어디 경 레기헤영, 췌레기, 도새기레기.(옛날엔 그랬었지. 어디 그렇게 고기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112050 @ 엇이난예.(없으니까요.)

112050 # 엇이난 어떻 행 혈 말이라, 그건 아니주.(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할 말 이냐, 그건 아니지.)

112050 @ 응, 갯것레기는 허고예?(응, 바닷고기는 하고요?)

112050 # 응. 떡은 이제 곳곳이 그자 옛날이나 이제나 허곡.(응. 떡은 이제 종류 별로 그저 옛날이나 이제나 하고.)

112050 @ 응.(응.)

112050 # 그건 그추룩 허여. 적은 엇영 경 못허여.(그건 그렇게 해. 적은 없어서 그렇게 못해.)

112051 @ 게민 지난번에도 혼 번 곶아줘신디 콩나물 키우는 거 혼 번만 더 곶아줍서.(그러면 지난번에도 한 번 말해줬는데 콩나물 키우는 거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112051 # 콩나물은 옛날은 콩이민 다 지름 난디 이젠 콩이민 다 지름 나진 안

허주, 이제.(콩나물은 옛날은 콩이면 다 길러서 나오는데 이젠 콩이면 다 길러서 나진 않지, 이제.)

112051 @ 응.(응.)

112051 # 이젠 콩늬물 콩이 트로혜사 콩나물 나주.(이젠 콩나물 콩이 따로 해야 콩나물 나지.)

112051 @ 예.(예.)

112051 # 이 촌엔 콩늬물콩 안 키워.(이 촌엔 콩나물콩 안 키워.)

112051 @ 아.(아.)

112051 # 어디 도시에, 콩늬물콩 키우는 디가, 가는 디가 잇는고라.(어디 도시에, 콩나물콩 키우는 데가, 가는 데가 있는지.)

112051 @ 콩나물콩은 무신 콩이엔 곶아?(콩나물콩은 무슨 콩이라고 말해?)

112051 # 콩늬물도 콩인디 콩늬물콩이 아니라, 콩이 여러 가지난. 다 사먹어 부난 이제 촌에 콩늬물 놓는 디가 엇주게.(콩나물도 콩인데 콩나물콩이 아니라, 콩이 여러 가지니까. 다 사먹어 버리니까 이젠 촌에 콩나물 놓는 데가 없지.)

112051 @ 하하하, 예.(하하하, 예.)

112051 # 계난 그 콩늬물 놓는 사람이 어디사 콩 주문 해당 험신디 몰르주.(그러니까 그 콩나물 놓는 사람이 어디야 콩 주문 해다가 하는지 모르지.)

112051 @ 응.(응.)

112051 # 계난 허민 콩늬물 옛날엔 혜영 허민 제허젠 허민 경 열흘 낱 키운디 이젠 그날 가근에 사당 먹으는디 어디 강 시방 누게 콩늬물 놓는 사람이 셔?(그러니까 하면 콩나물 옛날엔 해서 하면 제하려고 하면 그렇게 열흘 동안 키웠는데 이젠 그날 가서 사다가 먹는데 어디 가서 시방 누가 콩나물 놓는 사람이 있어?)

112051 @ 계난. 옛날엔 콩나물 아니고 콩주름?(그러니까. 옛날엔 콩나물 아니고 ‘콩주름’?)

112051 # 응, 콩주름, 콩지름 봐사.(응, ‘콩주름’, ‘콩지름’ 봐야.)

112051 @ 콩지름 어떻 행 놓는 거파? 다시 곶아줍서.(콩나물 어떻게 해서 놓는 겁니까? 다시 말해주세요.)

112051 # 그거 콩 행 물에 등가근에 콩 탁 풀좌근에. 그젠 시리에나 이제 장, 저 시리나 무시거 혜근에 시리에주게. 그거 혜근에 그디 검질 행 새 혜영 영 ㅋ짱이 곶앙, 콩 안 새게.(그거 콩 해서 물에 담가서 콩 탁 풀려서. 그땐 시루에나 이제 장, 저 시루나 무엇 해서 시루에지. 그거 해서 거기 검불 해서 떠 해서 이렇게 가지런히 깔아서, 콩 안 새게.)

112051 @ 응.(응.)

112051 # 경행 곶아근에 그디 콩 비와 놔근에 뉘다근에 방안에 장테<sup>258)</sup> 바투곡 행 방안에 아정 뉘당 이젠 거 하루 삼시 씻어사주. 하루 삼시 씻음이 어떻 허느냐 민 그게 물 거려근에 자락자락 지치민 아래 장테에 작작작작 바라지민 그 물 비와

258) ‘장테’는 양푼 모양으로 만든 질그릇이다.

똥 따시 방안에 앓당 허고. 하루 세 번을 씻어사 허여.(그렇게 해서 깔아서 거기 콩 부어 놔서 왔다가 방안에 ‘장테’ 받치고 해서 방안에 가져다 왔다가 이젠 그거 하루 삼시 씻어야지. 하루 삼시 씻음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게 물 떠서 ‘자락자락’ 끼었으면 아래 ‘장테’에 ‘작작작작’ 내리면 그 물 부어 두고 다시 방안에 가져다가 하고. 하루 세 번 씻어야 해.)

112051 @ 아.(아.)

112051 # 콩 들이. 콩늬물 경 물 안 쥐불민 그디 콩에 이디 사오민 오래민 발, 켜켄헌 발 안 나?(콩 들어서. 콩나물 그렇게 물 안 쥐버리면 거기 콩에 여기 사오면 오래 되면 삼태불, 자잘한 발 안 나?)

112051 @ 예.(예.)

112051 # 그처럼 복작<sup>259</sup> 나불주게. 경헌 따문, 잘 키우민 경 안 나.(그렇게 ‘복작’ 나버리지. 그런 때문, 잘 키우면 그렇게 안 나.)

112051 @ 아, 잘 키우민 경 안 됩니까?(아, 잘 키우면 그렇게 안 됩니까?)

112051 # 이디도 콩늬물 오래 키와근에 준발 나보지 안 해서. 경허민 그자 몽쿨 몽쿨허민 그거 이녀냥으로 걸름 안 행 콩늬물 치민 콩늬물도 맛싯곡. 시방 이 콩덜은 다 걸름해부난 맛엇지 안허여?(여기도 콩나물 오래 키워서 삼태불 나보지 안 했어. 그러면 그저 몽쿨몽쿨하면 그거 자기대로 거름 안 해서 콩나물 치면 콩나물도 맛있고. 시방 이 콩들은 다 거름해버리니까 맛없지 않아?)

112051 @ 걸름?(거름?)

112051 # 응. 이 키우는 디 그자 맨 물에 키우진 안 험실걸.(응. 이 키우는 데 그저 맨 물에 키우지는 않을걸.)

112051 @ 아, 잘 크렌예.(아, 잘 크라고요.)

112051 # 약을 험주.(약을 하고 있지.)

112051 @ 아까 준발 나불민 맛엇어?(아까 삼태불 나버리면 맛엇어?)

112051 # 아니, 맛은 엇어도, 종진 안허주게.(아니, 맛은 없어도, 종진 않지.)

112051 @ 아.(아.)

112051 # 뽀들뽀들 준발이 영 물 안 쥐불민 준발이 뽀족뽀족 나불주, 복작허게.(뽀족뽀족 삼태불이 이렇게 물 안 쥐버리면 잔발이 뽀족뽀족 나버리지, ‘복작’하게.)

112051 @ 아.(아.)

112051 # 물 잘 쥐사 거 안 나.(물 잘 쥐야 그거 안 나.)

112052 @ 응. 그른 바닷고기는 어떻헤근에.(응. 그러면 바닷고기는 어떻게 해서.)

112052 # 옛날은 바닷케기, 솔래기.(옛날은 바닷고기, 옥돔.)

112052 @ 솔래긴 몇 월에 납니까?(옥돔은 몇 월에 납니까?)

112052 # 건 동첸 몰룻<sup>260</sup> 나주게. 동첸 몰룻 나도 팔월 낭 멩질헤 먹을 거, 봄

259) ‘복작’은 씨앗 따위가 뻥뻥하게 솟아난 모양을 말한다.

260) ‘동첸 몰르다’는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제보자는 시기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먹을 거 문밖 흠치 사당 경행 물리왕 놔두주게.(그건 동천 모르고 나지. 동천 모르고 나도 팔월 나서 명절해서 먹을 거, 봄에 먹을 거 모두 한꺼번에 사다가 그렇게 해서 말려서 놔두지.)

112052 @ 삼월 나민?(삼월 나면?)

112052 # 응. 사월 나민 막 해당 사당 물리왕.(응. 사월 나면 막 해당 사다가 말려서.)

112052 @ 아까 무신거 동천 몰릇 난다고?(아까 뭐 ‘동천 몰릇’ 난다고?)

112052 # 동천 몰릇 나는 건, 시방 솔래긴 시방도 여름에도 나곡 저을에도 나곡 혼이 엇지 안허여? (‘동천 몰릇’ 나는 건, 시방 옥돔은 시방도 여름에도 나고 겨울에도 나고 한이 없지 않아?)

112052 @ 예.(예.)

112052 # 경허난 동천 몰름 그자 아무 때라도 나난.(그러니까 ‘동천 몰름’ 그자 아무 때라도 나니까.)

112052 @ 동천 몰름.(동천 모름.)

112052 # 응, 동천 몰르게 남주. 경허민 옛날은 솔래기 경행 물리왕 바짝 물리왕 소금 행 바짝 물르민 거 빠작빠작해도 맛좋지 안허여? 요몐씩 그창 경행 먹영 이제ㄴ치 경 소금 행 낫당 냉장고에 낫당 굽진 안허주. 경허난 구워도 어떻 안허주게. 줌은 일어도.(응, 동천 모르게 나지. 그러면 옛날은 옥돔 그렇게 해서 말려서 바짝 말려서 소금 해서 바짝 마르면 그거 바삭바삭해도 맛좋지 않아? 요만큼씩 잘라서 그렇게 해서 먹어서 이제처럼 그렇게 소금 해서 낫다가 냉장고에 낫다가 굽진 않지. 그러니까 구워도 어떻게 안 하지. 줌은 생겨도.)

112052 @ 응. 게민 솔래기 말고 다른 꿩 안 올립니까?(응. 그러면 옥돔 말고 다른 고긴 안 올립니까?)

112052 # 다른 꿩 옛날에 무신 경허민 따시 또 엇이민 따시 갈치, 옛날은 갈치 시난 갈치도 사다근에 그것도 적행 올리고.(다른 고긴 옛날에 무슨 그러면 다시 또 없으면 다시 갈치, 옛날은 갈치 있으니까 갈치도 사다가 그것도 적해서 올리고.)

112052 @ 아, 갈치적?(아, 갈치적?)

112052 # 응, 적해, 적해여. 갈치도 해영 적해근에.(응, 적해, 적해. 갈치도 해서 적해서.)

112052 @ 그 저 솔래긴 아까 물리젠 허민 어떻 영?(그 저 옥돔은 아까 말리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112052 # 패싸<sup>261</sup>근에.(‘패싸’서.)

112052 @ 패쌍예.(‘패싸서’요.)

112052 # 소금 해영, 소금 줍지롱허게 소금 이제ㄴ치 안행 소금 짜게 허주게. 짜게 허영 고쟁이 저레 고쟁이 꿩근에 따시 베 엇이민 큰 베 해근에 무시거 고냉이 먹지 말렌 큰 베해근에 꿩기 이마씩헌 적꼬지 저 꿩기적 꿩는 물리우는 거 요만씩

261) ‘패싸다’는 물고기를 말리기 위해 배를 가르다는 뜻이다.

허게 뒤 개해근에 딱 막당이에 노 줄라매근에 그레 꼭헝 영 질레기 허영 허민 막  
몰르주게.(소금 해서, 소금 짹짹하게 소금 이제처럼 안하고 소금 짜게 하지. 짜게  
해서 꼬챙이 저리 꼬챙이 꿰어서 다시 베 없으면 큰 베 해서 무엇 고양이 먹지 말  
라고 큰 베해서 고기 이만큼씩한 꼬치 저 고기 적 꿰는 말리는 거 요만큼씩 하게  
두어 개 해서 딱 막대에 노 줄라매서 그리 꼭해서 이렇게 길게 해서 하면 막 마르  
지.)

112052 @ 응.(응.)

112052 # 경헝 혼 이틀 물리왕 바짝 물리왕 놔두주게. 이제 ㄴ치 흐랑흐랑. 그거  
막 헝 물리왕 바짝 물리와사 무시거 안 일 거난게. 막 물리왕.(그렇게 해서 한 이틀  
말려서 바짝 말려서 놔두지. 이제처럼 물렁물렁. 그거 막 해서 말려서 바짝 말려야  
무엇 안 생길 거니까. 막 말려서.)

112052 @ 아.(아.)

112052 # 소금도 잘 허곡 물리우곡 헝 잘 물리왕 경헝 어떻 안 허주게.(소금도  
잘 하고 말리고 해서 잘 말려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안 하지.)

112052 @ 응.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흐뎡 오래 가냥허젠 허민 어떻게마씨?(응.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조금 오래 간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112052 # 계난 나 안 굴암서? 오래 가냥허지 못허난 그 즉시 못허민 못헤여.(그  
러니까 나 안 말하니? 오래 간수하지 못하니까 그 즉시 못하면 못해.)

112052 @ 아, 못 허여.(아, 못 해.)

112052 # 냉장고가. 따시 또 어떤 집인 장물에도 켜 헝 낫당도 허곡, 흐는 집  
인.(냉장고가. 다시 또 어떤 집은 장물에도 담가서 해서 낫다가도 하고, 하는 집은.)

112052 @ 계난.(그러니까.)

112052 # 장물에 켜 낫당.(간장에 담가서 낫다가.)

112052 @ 아, 정도 허긴 헝니까?(아, 그것도 하긴 헝니까?)

112052 # 응, 켜 장물에 켜 낫당도.(응, 그렇게 간장에 담가서 낫다가도.)

112052 @ 아, 장물에 켜 낫당도 허고.(아, 간장에 담가서 낫다가도 하고.)

112052 # 쉼레기. 장물에 켜 낫당도 허고. 그 버랭이 누지 말젠 허젠 허민.(소고  
기. 간장에 담가서 낫다가도 하고. 그 벌레 생기지 말라고 하려고 하면.)

112052 @ 거니까.(그러니까.)

112052 # 경허민 따시 또 켜 버랭이도 일주게. 버랭이도 일어.(그러면 다시 또  
그건 벌레도 생기. 벌레도 생겨.)

112052 @ 응.(응.)

112052 # 거난 옛날에 쫄도 허여근에 여름에 허영 저슬에 먹단 쫄쫄해근에 부  
젓칩이 강 보민 여름에 보리쫄에 쫄쫄에 낱 밥헝 가민. 우리 두린 때 어디 검질매  
주렌 헝 강 보민 밥 줌민 조퍼랭이가 궁글궁글 터.(그러니까 옛날에 쫄도 해서 여  
름에 해서 겨울에 먹던 쫄쫄해서 부잣집에 가서 보면 여름에 보리쫄에 쫄쫄에 놔서  
밥해서 가면. 우리 어린 때 어디 김매달라고 해서 가보면 밥 말면 쫄쫄 벌레가 등



등 떠.)

112052 @ 예.(예.)

112052 # 이젠 요만이 들어도 안 먹주만은 그땐 먹주 어떻게 할 말이라.(이젠 요만 큼 들어가도 안 먹지만은 그땐 먹지 어떻게 할 말이야.)

112052 @ 하하하.(하하하.)

112052 # 안 먹진 안허주게, 먹어사주.(안 먹진 않지, 먹어야지.)

112052 @ 예.(예.)

112052 # 또 이젠 장에 정 통행 두께 똑똑 더깁 놔둔 거주, 옛날은 장 행 아정 강 저 장, 물은 정현 췌에 질주만은 그 똥장은 혜영 가근에 사발에 아정강 툅하게 무시거 더깁 놔두민 점심 먹젠 허민 그디 쉬 췌, 헤뜩헤뜩 다 싸비어.(또 이젠 장에 쳐서 통해서 뚜껑 꼭꼭 덮어서 놔둔 거지, 옛날은 장 해서 가져가서 저 장, 물은 저 런 병에 길지만 그 똥장은 해서 가서 사발에 가져가서 툅하게 무엇 덮어서 놔두면 점심 먹으려고 하면 거기 쉬 싸서, 희뜩희뜩 다 싸버려.)

112052 @ 하하하.(하하하.)

112052 # 경해도 거 술술 거러똥 먹주. 거 안 먹진 안허여. 어땡 옛날 삶사 삶 이랏어?(그래도 그거 살살 떠서 먹지. 그거 안 먹진 않아. 어떻게 옛날 삶이야 삶이 었어?)

112052 @ 경행 그런 거 다 먹어도 할머니처럼 오래 사는디예.(그래서 그런 거 다 먹어도 할머니처럼 오래 사는데요.)

112052 # 경행 살아도 옛날은 경해도 이젠 오만 거 조만 거 다 먹으난 뽕이 더 하지 안햐서?(그렇게 해서 살아도 옛날은 그래도 이젠 오만 거 ‘조만’ 거 다 먹으니 까 뽕이 더 많지 안하니?)

112052 @ 계난.(그러니까.)

112052 # 이 뽕, 저 뽕, 뽕이 하주게. 겨꼭 옛날에 혼 육십만 나민 뽕 늙은 할망 님아도 이젠 육십 난 사름이 청춘 아니라?(이 뽕, 저 뽕, 뽕이 많지. 그리고 옛날에 한 육십만 나면 모두 늙은 할머니 같아도 이젠 육십 난 사름이 청춘 아니냐?)

112052 @ 예, 청춘.(예, 청춘.)

112052 # 청춘 아니라? 청춘이라.(청춘 아니야? 청춘이야.)

112052 @ 칠십, 팔십은 넘어사 이젠 할머니.(칠십, 팔십은 넘어야 이젠 할머니.)

112052 # 응. 팔십은 나사 침. 시방 팔십 땃, 혼 일곱 난 할망, 바당에 물질허 레 매날 땡겨.(응. 팔십은 나야 참. 시방 팔십 땃, 한 일곱 난 할머니, 바다에 물질 하거 땡날 다녀.)

112052 @ 아.(아.)

112052 # 매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팔십일곱 난 할망.(땡날 비가 오고 눈이 오 고. 팔십칠 난 할머니.)

112052 @ 아, 거난 팔십은 넘어사 경해도 흐뭇 나이 들었구나 영허주예, 이젠 예.(아, 그러니까 팔십은 넘어야 그래도 조금 나이 들었구나 이렇게 했지요, 이젠

요.)

112052 # 팔십 댓 낭, 우리도 팔십다섯<sup>7</sup>장은 농장 일하게 텅겨도 알르레 픽픽 튀어나신디 이거 팔십으숏 나사 무릎 털어전 아픔 시작허난 이거. 나 이거 동무릎 아프곤 디 멧 해 안 댜.(팔십 댓 나서, 우리도 팔십오까지는 농장 일하러 다녀도 아래로 픽픽 뛰었었는데 이거 팔십육 나야 무릎 떨어져서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거. 나 이거 무릎 아픈 지 멧 해 안 댜어.)

112052 @ 할머니 진짜 건강헌 거지. 팔십 넘어도 경 일헤져시민.(할머니 진짜 건강한 거지. 팔십 넘어도 그렇게 일헤졌으면.)

112052 # 일헤, 팔십, 나 팔십다섯<sup>7</sup>장은 농장일 늬의 일헌단 팔십으숏 나난 딱 그치난, 미깡은 이녁만 타도 저 우이 집 지슨 디 흥나에 허민 이녁만 타도 미깡 이천 관은 탕 풀주게. 나 논 시 엇이 일헤난 사름.(일헤, 팔십, 나 팔십오까지는 농장 일 남의 일하다가 팔십육 나니까 딱 자르니까, 굴은 자기만 따도 저 위 집 짓은 데 하나에 하면 자기만 따도 굴 이천 관은 따서 팔지. 나 논 때 없이 일헤던 사름.)

112052 @ 응.(응.)

112052 # 경헤도 나 그만 살아지민 말 거주. 경헤도 농장에 간 온 지가, 나가 지중 이제 지중 일등이라 구십네이라도 그 사름덜 아팠 다 오그라정 무시거헿 헤도 난 경 안 헤.(그래도 나 그만 살면 말 거지. 그래도 농장에 갔다온 지가, 나가 그중 이제 그중 일등이야. 아흔넷이라도 그 사름들 아파서 다 오그라져서 무엇해서 헤도 난 그렇게 안 헤.)

112052 @ 거난. 하하하. 할머니 진짜 건강하셔. 그믄 아까 적, 보통 봄에, 봄에 식게 들었저 허민 적은 무신거, 무신거 헉니까?(그러니까. 하하하. 할머니 진짜 건강하셔. 그러면 아까 적, 보통 봄에, 봄에 제사 들었다 하면 적은 무엇, 무엇 합니까?)

112053 # 아, 쟁 모뎡헤영 묵 쭈고.(아, 그래서 메밀해서 묵 쭈고.)

112053 @ 모뎡묵도 죽 쭈?(메밀묵도 죽 쭈?)

112053 # 쭈영, 쭈영.(쭈어서, 쭈어서.)

112053 @ 모뎡묵.(메밀묵.)

112053 # 모뎡<sup>7</sup>루.(메밀가루.)

112053 @ 모뎡<sup>7</sup>루로 묵 쭈어근에 그것도 적혀여?(메밀가루로 묵 쭈어서 그것도 적해?)

112053 # 적게, 적을게. 묵이 적어주게.(적, 적을. 묵이 적이지.)

112053 @ 묵적<sup>262</sup>?(‘묵적’?)

112053 # 묵헤근에게.(묵해서.)

112053 @ 아, 그거 썰영 끼와근에 구워?(아, 그거 썰어서 끼워서 구워?)

112053 # 응. 다 썰어두서 꿰어근에게 구워근에 경헿.(응. 다 썰어두고 꿰어서 구워서 그렇게 해서.)

262) ‘묵적’은 묵을 네모지게 토막토막 썰어서 꼬치에 꿰어 만든 적이다.

112053 @ 응. 모뭇목적하고 또?(응. 메뭇목적하고 또?)

112053 # 따시게 꿰기 해근에 이젠 헛주만은 옛날은.(따뜻하게 고기 해서 이젠 헛지만은 옛날은.)

112053 @ 소고기나 돼지고기 헛나허고.(소고기나 돼지고기 하나하고.)

112053 # 헛나 해영게 요멘씩 꿰여근에게 헛 점씩 요멘씩 요멘씩, 막 오래주, 고쟁이 꿰도.(하나 하얗게 요만큼씩 꿰어서 한 점씩 요만큼씩 요만큼씩, 막 오래지, 꼬챙이 꿰는 것도.)

112053 @ 예.(예.)

112053 # 경해근에 그거 허곡 솔래기나 굽곡 허민, 목 이시민 무신 제사주, 헛 엇이 옛날에 चल 헛나어?(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옥돔이나 굽고 허민, 목 있으면 무슨 제사지, 한없이 옛날에 차려서 헛었어?)

112053 @ 아, 게문 적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헛나 허고 목적 헛나 허민 꾀?(아, 그러면 적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하나 하고 목적 하나 하면 꾀?)

112053 # 응, 게난 신 때 시방은 쉼꿰기도 허고 꿰야지꿰기도 허곡 헛주만은 옛날은 경 팔월명절 나민 호박 행 꿰곡, 따시 또 삼월, 오월 단오엔 따시 또 삼월에 나민 마농 적도 허고 경행.(응, 그러니까 있을 때 시방은 소고기도 하고 돼지고기도 하고 하지만은 옛날은 그렇게 팔월명절 나면 호박 해서 꿰고, 다시 또 삼월, 오월 단오엔 다시 또 삼월 나면 마농 적도 하고 그렇게 해서.)

112053 @ 꿰마농 적 아까예?(쪽파 적 아까요?)

112053 # 응, 경허난 헛이 엇주게.(응, 그러니까 한이 없지.)

112053 @ 응. 꿰마농 적 헛나 허민 저.(응. 쪽파 적 하나 하면 저.)

112053 # 꿰마농 적 해근에.(쪽파 적 해서.)

112053 @ 도새기나 쉼고긴 안 해도 꿰여?(돼지나 소고긴 안 해도 꿰?)

112053 # 거 헛나 허곡 따시 헛여지는 사름은 허곡, 쉼꿰기 낭 허는 사름 허곡 도새기꿰기. 이제도이, 도새기꿰기 허는 사름은 다 이녁만씩이주. 이제도 도새기꿰기만 허는 사름도 쉼곡. 쉼꿰기 엇이민 도새기꿰기만 허주. 쉼꿰긴 똑 거 특별한 거 아니라?(그거 하나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사름은 하고, 소고기 나서 하는 사름 하고 돼지고기. 이제도, 돼지고기 하는 사름은 다 자기만큼씩이지. 이제도 돼지고기만 하는 사름도 있고. 소고기 없으면 돼지고기만 하지. 소고긴 꼭 그거 특별한 거 아니냐?)

112053 @ 응.(응.)

112053 # 거난 안 허는 사름은 안 허주. 도새기게 경 해지는 사름 허주, 안 허는 사름은 안 허여.(그러니까 안 하는 사름은 안 하지. 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살마 하지, 안 하는 사름은 안 해.)

112053 @ 우리 옛날에는 적허젠 허민 그 꿰기 썬는 건 아버지가 썬언게만은 남저가 썬는 거꽈?(우리 옛날에는 적하려고 하면 그 고기 썬는 건 아버지가 썬던데 남자가 썬는 겁니까?)

112053 # 거 뚝 남저만 허렌 현 건 아니주. 옛날은 그 공무원들이 사름마다 공무원이 잇지 안허파? 이젠 조금허민 공무원이라부난 남저덜 적허지 못허주게.(그거 꼭 남자만 하라고 한 건 아니지. 옛날은 그 공무원들이 사름마다 공무원이 잇지 않습니까? 이젠 조금 하면 공무원이라서 남자들 적 하지 못하지.)

112053 @ 이젠 경해도 옛날엔?(이젠 그래도 옛날엔?)

112053 # 옛날엔 다 남저덜 허주게.(옛날엔 다 남자들 하지.)

112053 @ 아, 남저덜이 적허는 거파?(아, 남자들이 적하는 겁니까?)

112053 # 응, 남저덜이 다 허주, 옛날에.(응, 남자들이 다 하지, 옛날에.)

112053 @ 그 뭐 저 대나무로 꼬지도.(그 뭐 저 대나무로 꼬치도.)

112053 # 응. 꼬지도 남저덜이 꿰기.(응. 꼬치도 남자들이 고기.)

112053 @ 대낭으로 행 까까근에 다 만들고.(대나무로 해서 깎아서 다 만들고.)

112053 # 만들고.(만들고.)

112053 @ 꿰기도 다 썰영 다 끼와근에.(고기도 다 썰어서 다 끼워서.)

112053 # 남저덜이 다 꿰기 썰영 굽곡 목도 다 남저덜이 허곡, 갯것꿰기나 무시 거 다 화리에 불 살랑 남저덜이 다 헛주, 여청 안 헛주, 옛날에.(남자들이 다 고기 썰어서 굽고 목도 다 남자들이 하고, 바닷고기나 뭐 다 화로에 불 살라서 남자들이 다 헛지, 여편네 안 헛지, 옛날에.)

112053 @ 그믐 여자덜은 무신거 허여?(그러면 여자들은 무엇 해?)

112053 # 여잔 떡허고게 허당 보민게.(여잔 떡하고 하다 보면.)

112053 @ 아, 여잔 떡허고 채소허고.(아, 여잔 떡하고 채소하고.)

112053 # 채소허고 허당 보민 저르가 엇잖아.(채소하고 하다 보면 겨를이 없잖아.)

112053 @ 거난, 그런 적허는 건 다 남저덜이 헤낫구나예.(그러니까, 그런 적하는 건 다 남자들이 했었군요.)

112053 # 남저덜이 다 해.(남자들이 다 해.)

112053 @ 응.(응.)

112053 # 우리도 나 제할 땐 아방 잇곡 아덜, 큰아덜 잇곡 허난에 우리 적 안 허주. 이제 큰아덜 쥐불고 아덜덜 남저덜 엇이난 어멍덜, 메누리덜이 다 허주.(우리도 나 제할 땐 아버지 있고 아들, 큰아들 있고 하니까 우리 적 안 하지. 이제 큰아들 쥐버리고 아들들 남자들 없으니까 어머니들, 며느리들이 다 하지.)

112053 @ 이제사 여자덜이 다 험주만은예, 옛날엔.(이제야 여자들이 다 하지만은요, 옛날엔.)

112053 # 옛날은 남저덜 다 헤낫주. 경허민 이넹 큰집이나 허영 허민 그 성네 집이나 허젠 허민 아시덜이 적허켄 허멍 적허레 다 도웨주레 가주게.(옛날은 남자들 다 했었지. 그러면 자기 큰집이나 해서 하면 그 형네 집이나 하려고 하면 아우들이 적하겠다고 하면서 적하러 다 도와주러 가지.)

112053 @ 응.(응.)

112053 # 계난 하민 묵도 하영, 모밀썰 관돼 흐나 낱 썰 해도 그것덜 다 방상에  
늑신네나 이제 떡 놓곡 밥 놓곡 채소 놓곡 그 묵 혼 고지썩 놓곡 행 다 보내쟁 허  
민 묵도 하영 해사주, 묵도 혼 설라든 고지썩 스무나든 고지썩. 혼 고지썩 다 낱 보  
내젠 허민.(그러니까 많으면 묵도 많이, 메밀쌀 관되 하나 놔서 썬어서 해도 그것들  
다 일가불이에 늑은이나 이제 떡 놓고 밥 놓고 채소 놓고 그 묵 한 꼬치썩 놓고 해  
서 다 보내려고 하면 묵도 많이 해야지, 묵도 한 서르나문 꼬치썩 스무나문 꼬치썩.  
한 꼬치썩 다 놔서 보내려고 하면.)

112053 @ 응. 묵은 계민 아까 모밀묵으로 헌텐, 청묵<sup>263</sup>허여 아니면?(응. 묵은  
그러면 아까 메밀묵으로 한다고, ‘청묵’해 아니면?)

112053 # 청묵허는 집인 청묵허고 묵허는 저 엇이민 모밀 썰허는 딴 그자 쟁  
비왕 모밀로 썰허곡 모밀ㄱ루로.(‘청묵’하는 집은 ‘청묵’하고 묵하는 저 없으면 메밀  
썬어서 하는 덴 그저 짜서 부어서 메밀로 썬어서 하고 메밀가루로.)

112053 @ 썰 허는 건 어떻허는 거봐?(썬어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2053 # 모밀ㄱ루 곱앙 청묵 썬듯 썬주게.(메밀가루 갈아서 ‘청묵’ 썬듯 썬지.)

112053 @ 아. 모밀ㄱ루 곱앙 그냥 묵 썬듯, 물에 반죽, 물 서꺼근에 영 젓으멍  
은에?(아. 메밀가루 갈아서 그냥 묵 썬듯, 물에 반죽, 물 섞어서 이렇게 저으면서.)

112053 # 응, 빙 지지듯, 빙 지지는 거만이 카봐근에.(응, 빙떡 지지듯, 빙 지지  
는 거만큼 타놓아서.)

112053 @ 카봐근에.(타놓아서.)

112053 # 카봐근에 그디 헤영 옛날은 솟디 헛저만은 이젠 엇이민 밥통에라도,  
밥통 내분 거라도 안네 거 허민 뒤희게. 경행 낱 썬어근에.(타놓아서 거기 해서 옛  
날은 솥에 했다만은 이젠 없으면 밥통에라도, 밥통 내버린 거라도 안에 거 하면 되  
지. 그렇게 해서 놔서 썬어서.)

112053 @ 아, 옛날엔 그든 솟디 행 영 젓으멍.(아, 옛날엔 그러면 솥에 해서 이  
렇게 저으면서.)

112053 # 솟디 행 오민 처엄 젓젠 허민 그거 젓지 못허영, 관돼로 흐나 허민 웨  
말치나 흐나 쏙박 썬젠 허민 솟두께 우에 뒤희로 영 아저낱 젓어. 버쳐.(솥에 해서 오  
면 처엄 젓으려고 하면 그거 젓지 못해서, 관되로 하나 하면 외말치나 하나 가득  
썬려고 하면 솥뚜껑 위에 뒤희로 이렇게 가져다 놔서 저어. 부쳐.)

112053 @ 아, 그디 영 불랑 앓앙.(아, 거리 이렇게 밟아서 앓아서.)

112053 # 응. 버쳐, 버쳐. 검질불 와랑와랑 허민 그디 불 행 누게 솥아줄 사름  
이시민 해도 이녁냥으로 불 솥곡 이젠 기자 족은 가스에 봐근에 곤는 거 보민 앓앙  
드러 젓으멍 썬민 뒤희든 허는디.(응. 부쳐서, 부쳐서. 검불불 활활 하면 거기 불 해서  
누가 때줄 사람 있으면 해도 자기대로 불 때고 이젠 그저 작은 가스에 놔서 말하는  
거 보면 앓아서 마구 저으면서 썬면 된다고 하는데.)

112053 @ 계난예, 거 무신걸로 젓읍니까?(그러니까요, 그거 무엇을 젓읍니까?)

263) ‘청묵’은 메밀쌀을 자루에 담아 물에 눌러서 나온 맑은 물로 썬어서 만든 묵이다.

112053 # 남죽 잇주게, 남죽.(죽젓개 있지, 죽젓개.)

112053 @ 아. 남죽은 죽만 젓습니까?(아. 죽젓개는 죽만 젓습니까?)

112053 # 남죽은 밥이나 젓곡 죽이나 젓곡 해영.(죽젓개는 밥이나 젓고 죽이나 젓고 해.)

112053 @ 아, 밥도 젓곡 죽도 젓곡?(아, 밥도 젓고 죽도 젓고?)

112053 # 응, 밥행 흐민게 큰 솥에 해 놓면 그 밥을 젓어사 골로로 가지 안허여. 게난 젓주게.(응, 밥해서 하면 큰 솥에 해 놓면 그 밥을 저어야 골고루 가지 안해. 그러니까 젓지.)

112053 @ 응.(응.)

112053 # 경허단 이젠 밥통에 허난 밥통도 큰 밥통엔 큰 밥자 잇어?(그렇게 하다가 이젠 밥통에 하니까 밥통도 큰 밥통엔 큰 밥주걱 잇어?)

112053 @ 예, 밥자 이서.(예, 밥주걱 잇어.)

112053 # 시방은 큰 밥자로도 젓어지주게, 그걸로도.(시방은 큰 밥주걱으로도 저을 수 있지, 그걸로도.)

112053 @ 옛날은 남죽으로 젓엇고예?(옛날은 죽젓개로 저엇고요?)

112053 # 응, 옛날은 남죽 그거 나무로 팡, 국자도 남죽, 국자로 나무로 웬 거나 허민.(응, 옛날은 죽젓개 그거 나물 파서, 국자도 죽젓개, 국자로 나무로 된 거나 하면.)

112053 @ 나무로 웬 국잔 뭇엔 곶아?(나무로 된 국자는 뭇라고 말해?)

112053 # 국자게.(국자.)

112053 @ 그냥 국자.(그냥 국자.)

112053 # 응, 남국자.(응, 나무 국자.)

112053 @ 국 뜨는 건 그냥 국자.(국 뜨는 건 그냥 국자.)

112053 # 갹 이만씩 조록 뜯곡 허민 그 찜 물 퍼봐도 더불도 안허곡. 그 국자가 서낫주게.(그래서 이만큼씩 자루 달리고 하면 그 찜 물 퍼봐도 뜨겁지도 앓고. 그 국자가 있었엇지.)

112053 @ 밥은, 아까 저 남죽으로 밥도 영 거립니까?(밥은, 아까 저 죽젓개로 밥도 이렇게 뜯니까?)

112053 # 아니, 거리는 건 밥자로 허주게.(아니, 뜨는 건 밥자로 하지.)

112053 @ 아, 거리는 건 밥자로.(아, 뜨는 건 밥주걱으로.)

112053 # 밥자도 옛날은, 밥자 낫밥자 서낫어, 옛날은 낫밥자로.(밥주걱도 옛날은, 밥주걱 낫 밥주걱 있었어, 옛날은 낫 밥주걱으로.)

112053 @ 남죽은 젓기만 허는 거구나예.(죽젓개는 젓기만 하는 거군요.)

112053 # 응, 경허난 젓어부난 남죽.(응, 그러니까 저어버리니까 죽젓개.)

112053 @ 젓어부난 남죽.(저어버리니까 죽젓개.)

112053 # 젓는 건 남죽.(젓는 건 죽젓개.)

112054 @ 응. 게민 식게 때 떡은 아까 곶아신디 흐 번 더예. 뭇, 뭇, 제펜<sup>264)</sup>허

고.(응. 그러면 제사 때 떡은 아까 말했었는데 한 번 더요. 뭐, 뭐, 제편하고.)

112054 # 저편하고 인절미<sup>265</sup>.(제편하고 ‘인절미’.)

112054 @ 저편하고 인절미하고.(제편하고 ‘인절미’.)

112054 # 솔벤.(솔편.)

112054 @ 솔벤.(솔편.)

112054 # 절벤.(절편.)

112054 @ 절벤.(절편.)

112054 # 우썩 해영.(웃기 해서.)

112054 @ 우썩. 요거 다섯 개?(웃기. 요거 다섯 개?)

112054 # 응.(응.)

112054 @ 이거 다섯 개 허민 다 헌 거?(이거 다섯 개 하면 다 한 거?)

112054 # 응, 다섯 가지, 짝글르게 딱 다섯 개 해여.(응, 다섯 가지, 짝 맞지 않게 딱 다섯 개 해.)

112054 @ 그민 이 다섯 개 허민 아까 이거 무슨 떡? 잣긱떡<sup>266</sup>?(그러면 이 다섯 개 하면 아까 이거 무슨 떡? ‘작긱떡’?)

112054 # 체암은, 잣긱떡. 거 오만 거 다섯 개 다 허민 잣긱떡.(처음은, ‘잣긱떡’. 그거 온갖 거 다섯 개 다 하면 ‘잣긱떡’.)

112054 @ 아, 다섯 개 다 허민 잣긱떡.(아, 다섯 개 다 하면 ‘잣긱떡’.)

112054 # 그 자꾸허난 잣긱떡.(그 자꾸하니까 ‘잣긱떡’.)

112054 @ 자꾸허난 잣긱떡. 하하하.(자꾸하니까 ‘잣긱떡’. 하하하.)

112054 # 게난 자꾸. 다 혼디 곤젠 허난 잣긱떡.(그러니까 자꾸. 다 함께 말하려고 하니까 ‘잣긱떡’.)

112054 @ 응. 아까 우썩은 지름떡으로 허는 거파?(응. 아까 웃기는 기름떡으로 하는 겁니까?)

112054 # 옛날은 우썩도양 경 안 허주게. 손으로 영 해영 떡행 영영 동글락 영 납작이 행 뱅뱅뱅 손으로 동그리민 뽕죽할 거 아니냐, 허민 요넨썩 요넨썩 허주게. 경행 헛주, 이제난 본으로 텃주 경, 옛날은 본도 었어.(옛날은 웃기도요 그렇게 안 하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떡해서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뱅뱅뱅 손으로 굴리면 뽕죽할 거 아니냐, 하면 요만큼썩 요만큼썩 하지. 그렇게 해서 헛지, 이제니까 본을 텃지 그렇게, 옛날은 본도 었어.)

112054 @ 아, 지름떡이 지름떡, 우썩이 옛날엔 지름떡처럼 뻗는데 크기가 작아?(아, 기름떡이 기름떡, 웃기가 옛날엔 기름떡처럼 뻗는데 크기가 작아?)

112054 # 지레가 영 조그만허게 행 그자.(길이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그저)

112054 @ 요넨이?(요만큼?)

264) ‘제편’은 제사상에 올리는 시루떡으로 ‘저편’이라고도 한 말한다.

265) ‘인절미’는 쌀이나 메밀가루로 반죽하여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삶아낸 떡으로 ‘은절미’라고도 한다.

266) ‘잣긱떡’은 여러 가지 떡을 말하는 것으로 제보자는 솔편, 절편, ‘은절미’, 과줄, ‘중궤’, ‘약궤’, 시루떡 일곱 가지를 말한다고 했다.

112054 # 요몐이 행 뱅동글랑허게.(요만큼 해서 동그랴게.)

112054 @ 요몐이?(요만큼?)

112054 # 절뻔 요디 그거만씩베끼 안허주게.(절편 요기 그거만큼씩밖에 안 하지.)

112054 @ 요만씩베끼 안 해?(요만큼씩밖에 안 해?)

112054 # 응.(응.)

112054 @ 건디 모양은 요렇게 영.(그런데 모양은 요렇게 이렇게.)

112054 # 응, 동글랑허게.(응, 동그랴게.)

112054 @ 지름떡추룩 영영 좁아?(기름떡처럼 이렇게 이렇게 접어?)

112054 # 응, 동글락행 영 속속속속 누르땡.(응, 동그랴게 해서 이렇게 속속속속 눌러서.)

112054 @ 이 옆이 영 누르떠근에?(이 옆에 이렇게 눌러서?)

112054 # 응.(응.)

112054 @ 아, 모양은 지름떡인디 크긴 요몐이베끼 안 허구나예.(아, 모양은 기름떡인데 크긴 요만큼밖에 안 하군요.)

112054 # 어, 게난 옛날에 지름떡이 아니라 우쥍 그거.(어, 그러니까 옛날에 기름떡이 아니라 웃기 그거.)

112054 @ 이건 지름떡이 아니고 우쥍.(이건 기름떡이 아니고 웃기.)

112054 # 게난 열긱떡<sup>267)</sup>에 우지지시<sup>268)</sup> 낱 헌 건 그 떡이 열긱에 우지지실 지정 올려사 그거라. 지성 우이 올라가는 거, 우지지시, 지름떡.(그러니까 ‘열긱떡’에 웃기 놔서 한 건 그 떡이 ‘열긱’에 웃기를 지저서 올려야 그거야. 지어서 위에 올라가는 거. 웃기, 기름떡.)

112054 @ 무신거, 다시 곱아봅서.(무엇, 다시 말해보세요.)

112054 # 열긱떡에 우지지시 논 건 우이 올라가난 열긱떡에 우지지시, 우쥍.(‘열긱떡’에 웃기 놓은 건 위에 올라가니까 ‘열긱떡’에 ‘우지지시’, 웃기.)

112054 @ 열긱떡에 우쥍? 열긱떡은 무신거라? (‘열긱떡’에 웃기? ‘열긱떡’은 뭐야?)

112054 # 아, 그 떡이게 오만 거 조만<sup>269)</sup> 거 과질이영 오만 거 다 헤여가민 열긱에, 거 다섯 가지에 그디 따시 과질.(아, 그 떡이 온갖 거 ‘조만’ 거 과줄이랑 온갖 거 다 헤가면 ‘열긱’에, 그거 다섯 가지에 거기 다시 과줄.)

112054 @ 과질.(과줄.)

112054 # 약궤<sup>270)</sup>, 중궤<sup>271)</sup> 헤가민 저 거시기.(약과, 중과 헤가면 저 거시기.)

112054 @ 과질, 약궤, 중궤.(과줄, 약과, 중과.)

267) ‘열긱떡’은 ‘작긱떡’과 비슷한 말로 여러 종류의 떡을 말하는 것으로 꼭 열 개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68) ‘우지지시’는 ‘우쥍’과 같은 말로 떡 위에 모양을 내기 위해 올려놓는 장식이라는 뜻으로 표준어 ‘웃기’이다.

269) ‘조만’은 앞에 나온 ‘오만’과 운율을 맞추어 쓴 것으로 종류가 많은 여러 가지를 말한다.

270) ‘약궤’는 좁쌀 가루나 밀가루 등을 반죽하여 사각형의 모양으로 잘라서 기름에 지저낸 떡이다.

271) ‘중궤’는 좁쌀 가루나 메밀가루 등을 반죽하여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고 구멍을 다섯 개 정도 내서 기름에 지저낸 떡이다.



112054 # 우썩ㄱ장 허민 열 개가 돼가질 안허여?(웃기까지 하면 열 개가 되어가지 않아?)

112054 @ 경해도 여덟 개베끼 아난디.(그래도 여덟 개밖에는 아난데.)

112054 # 거 절벤, 솔벤 헌 거, 거 다섯 개 아니라?(그거 절편, 솔편 한 거, 그거 다섯 개 아니냐?)

112054 @ 거난.(그러니까.)

112054 # 따시 또 과줄을 허고 중괘, 약괘 해가민 네 개 아니라? 네 개허고 따시 또 우썩허난 다섯, 네 갠디 경해가민 그 하나 웃어도 열긔, 우지시시해가민.(다시 또 과줄을 하고 중과, 약과 해가면 네 개 아니냐? 네 개하고 다시 또 웃기하니까 다섯, 네 갠디 그렇게 해가면 그 하나 없어도 ‘열긔’, 웃기해가면.)

112054 @ 아, 이진 열긔떡이엔 허여?(아, 이진 ‘열긔떡’이라고 해?)

112054 # 응. 열긔떡에 우썩. 게난.(응. ‘열긔떡’에 웃기. 그러니까.)

112054 @ 열긔떡에 우썩.(‘열긔떡’에 웃기.)

112054 # 지중 우이 올라가는 거난 우썩.(제일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웃기.)

112054 @ 아, 쥔 우이 올라가는 거난 우썩.(아, 제일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웃기.)

112054 # 응. 딱 열긔이 허질 안허곡 경 옛날 막 벨호가 크게 가 말이.(응. 딱 ‘열긔’이 하지 않고 그렇게 옛날 막 벨호가 크게 가 말이.)

112054 @ 응.(응.)

112054 # 열긔떡에 우썩ㄱ썩. 사름이라도 이제 사름 여라이라도 것이 혼 사름만 그디 높은 사름 잇지 안허여?(‘열긔떡’에 웃기같이. 사름이라도 이제 사름 여러 명이라도 그것이 한 사람만 거기 높은 사름 잇지 않아?)

112054 @예.(예.)

112054 # 경허난 높이 올라가는 거난, 우썩이난, 열긔떡에 우썩.(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거니까, 웃기니까, ‘열긔떡’에 웃기.)

112054 @ 아.(아.)

112054 # 거 의밀 알아사.(그거 의미를 알아야.)

112054 @ 거난 열긔떡에 우썩 영 허는 말은 여러 사람 중에 쥔 대장.(그러니까 ‘열긔떡’에 웃기 이렇게 하는 말은 여러 사람 중에 제일 대장.)

112054 # 응, 우이 올라가는 게 우썩.(응, 위에 올라가는 게 웃기.)

112054 @ 응.(응.)

112054 # 게난 걸 해석을 해사주, 기자.(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해야지, 그저.)

112054 @ 게난.(그러니까.)

112054 # 열긔떡에 우썩.(‘열긔떡’에 웃기.)

112054 @ 아. 다섯 개 허민 잣긔떡, 열 개허민 열긔떡?(아. 다섯 개 하면 ‘잣긔떡’, 열 개하면 ‘열긔떡’?)

112054 # 응. 열긔떡에 우썩 해난 거. 우이 올라가난 열긔떡에 우썩.(응. ‘열긔

떡'에 웃기 했던 거. 위에 올라가니까 '열긏떡'에 웃기.)

112054 @ 응.(응.)

112054 # 거난 건 계난 아홉 가지나 으답 가지나 것도 해석을 해사 열긏떡에 우쩍이난. 이 우쩍이 어떻 떡 우이 지정 아무겔 해도 그것에 지중 우이 올라가난 열긏떡에 우쩍이라.(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아홉 가지나 여덟 가지나 그것도 해석을 해야 '열긏떡'에 웃기니까 이 웃기가 어떻게 떡 위에 지저서 아무겔 해도 그것에 제일 위에 올라가니까 '열긏떡'에 웃기야.)

112055 @ 응. 과일은 뭇 종류나 준비합니까?(응. 과일은 뭇 종류나 준비합니까?)

112055 # 옛날은 옛이난 옛날에 미깡도 엇어나지 안헛어? 소유지<sup>272)</sup>, 소유지 허민 옛날은 이 사과, 배 엇어낫주게.(옛날은 없으니까 옛날에 굴도 없었지 았았어? '소유지, 소유지' 하면 옛날은 이 사과, 배 았었었지.)

112055 @ 무신거 소유지?(무엇 '소유지'?)

112055 # 소유지 옛날에 이서낫어.( '소유지' 옛날에 았었었어.)

112055 @ 미깡 닳은 거?(굴 같은 거?)

112055 # 응, 옛날 미깡. 계난 엇이민 옛날은 미깡 해당 허민 배가 경 어디 경 이제ㄴ찌 경 올릴 수가, 어디 배가 신고?(응, 옛날 굴. 그러니까 없으면 옛날은 굴 해다가 하면 배가 그렇게 어디 그렇게 이제같이 그렇게 올릴 수가, 어디 배가 있나?)

112055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55 # 계난 경헝 허민 미깡 헝 낫다근에 허민 혼 동지섯들 나도록 그거 낫다근에 그거 ㅎ나 두 개헝 올리주, 이제ㄴ찌 갈라먹곡 어디 서? 어디 성 경 미깡 경 성 해먹엇수과?(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굴 해서 낫다가 하면 한 동지섯달 나도록 그거 낫다가 그거 하나 두 개 해서 올리지, 이제같이 갈라먹고 어디 있어? 어디 있어서 그렇게 굴 그렇게 있어서 해먹엇습니까?)

112055 @ 미깡 엇이난 아까 소유지로?(굴 없으니까 아까 '소유지'로?)

112055 # 응. 겨곡 다시 또 이 ㄴ슬 들어가민 다시 선물이엔 현, 저 산물<sup>273)</sup>이엔 현 거 요거만씩 현 거 조랑조랑 여는 집이 잇주게, 부젓칩이.(응. 그리고 다시 또 이 가을 들어가면 다시 선물이라고 한, 저 '산물'이라고 한 거 요거만큼씩 한 거 주렁주렁 여는 집이 있지, 부젓칩이.)

112055 @ 산물?('산물'?)

112055 # 응, 산물. 그런 거 해당 올리곡 경.(응, '산물'. 그런 거 해다가 올리고 그렇게)

112055 @ 산물하고 아까 무신거?('산물'하고 아까 무엇?)

112055 # 땡우지, 옛날은 땡우지엔 현 거 이서낫주. 이젠 그 땡우지.(당유자, 옛

272) '소유지'는 유자의 한 종류로 당유자보다 작다.

273) '산물'은 굴의 한 종류이다.

날은 당유자라고 한 거 있었었지. 이젠 그 당유자.)

112055 @ 땡유지.(당유자)

112055 # 그것가 엇어근에 다 시방은 약허젠, 감기에 딸려 먹젠 땡우지가 엇지 안허여? 옛날은 부젓칩인 땡우지 낭 여라 개 시민 강, 그디 강 타당, 빌어당도 허곡, 일해 쥬. 그거 해당 놘듬서루 거 썩지 안허주, 땡우지. 그거 해당 흐나 두 개 올리고. 경 이제난 이 미짱 나건 디 혼 스십 년 이 골로루 나건 디 혼 스십 년 안 돼 엇어.(그것이 없어서 다 시방은 약하려고, 감기에 달여 먹으려고 당유자가 없지 않아? 옛날은 부젓집엔 당유자 나무 여러 개 있으면 가서, 거기 가서 따다가, 빌어다가도 하고, 일해 쥬서. 그거 해당가 놘두고 그거 썩지 않니, 당유자. 그거 해당가 하나 두 개 올리고. 그렇게 이제니까 이 굴 난 지 한 사십 년 이 골고루 난 지 한 사십 년 안 됐어.)

112055 @ 예.(예.)

112055 # 우리도 밧디 엇언 미짱남 싱그건 디 우리 나 원흐나에 싱근, 시방 구십넷 아니라? 혼 스십 년 채 안 돼진 안해서.(우리도 밧이 없어서 굴나무 심은 지 우리 나 원하나에 심은, 시방 구십사 아니냐? 한 사십 년 채 안 되지는 않았어.)

112055 @ 응.(응.)

112055 # 계난 경해도 우린. 계난 저 서르렌 혼 오십 년 돼실 거라. 서를렌. 그디가 지중, 서귀포더레.(그러니까 그래도 우린. 그러니까 저 서쪽엔 한 오십 년 됐을 거야. 서쪽으로는. 거기가 제일, 서귀포쪽에.)

112055 @ 아니 이젠 서귀폰 이디.(아니 이젠 서귀포는 여기.)

112055 # 서귀포드레, 법환이드레 지중 몬저.(서귀포에, 법환에 제일 먼저.)

112055 @ 예, 그디가 쥬 처음예.(예, 거기가 제일 처음요.)

112055 # 쥬 몬저난 그딘 혼 오십 년 돼실 건가 현 말이주게.(제일 먼저니까 거긴 한 오십 년 됐을 건가 한 말이지.)

112055 @ 아, 그딘 혼 오십 년 돼실 거.(아, 거긴 한 오십 년 됐을 거.)

112055 # 이딘 경 안 해. 이제 이딘 혼 사십, 삼십 년, 스십 년베끼 안 됐어. 미짱 흐곤 디.(여긴 그렇게 안 해. 이제 여긴 한 사십, 삼십 년, 사십 년밖에 안 됐어. 굴 한 지.)

112056 @ 예. 계민 채소는 무신거, 무신거 험니까?(예. 그러면 채소는 무엇, 무엇 합니까?)

112056 # 채소게 저 콩늬물.(채소 저 콩나물.)

112056 @ 아까 저 콩지름.(아까 저 콩나물.)

112056 # 고사리.(고사리.)

112056 @ 콩지름허고 고사리.(콩나물하고 고사리.)

112056 # 따시 민나린 허고, 민나리 헤지민 허고.(다시 미나리는 하고, 미나리 할 수 있으면 하고.)

112056 @ 민나리도 허여?(미나리도 해?)

112056 # 민나리 이녁 집이 싱경 민나리 행 채소 허주게.(미나리 자기 집에 심어서 미나리 해서 채소 하지.)

112056 @ 민나리도 이시민 허고.(미나리도 있으면 하고.)

112056 # 경허민 콩나물 따시도 고사리허곡 허민 묵허고 허민 세 가지 아니라? 세 가지민 세 가지 올리민 상에 착글름으로 세 가지 넘으게 올리지 안허민 그 민나리 그든 건 엄지혜영<sup>274</sup> 올리주, 경 우리 집안엔 짝글르게 올리는 때문에 경 다 올리진 안허여.(그러면 콩나물 다시도 고사리하고 하면 묵하고 하면 세 가지 아니냐? 세 가지면 세 가지 올리면 상에 짝 안맞음으로 세 가지 넘게 올리지 않으면 그 미나리 같은 건 금지해서 올리지, 그렇게 오리 집안엔 짝 안 맞게 올리는 때문에 그렇게 다 올리진 않아.)

112056 @ 응.(응.)

112056 # 옛날에. 경 콩나물에 고사리에 묵에 허민 딱 세 개주게. 거베피 안 올리주게. 경허민 그 신 대로 갈라 먹젠 민나리도 허영 허민 그 채소 콩나물더레 흥 쏘 줍아놔 올리곡 허주게.(옛날에. 그렇게 콩나물에 고사리에 묵에 하면 딱 세 개지. 그거밖에 안 올리지. 그러면 그 있는 대로 갈라 먹으려고 미나리도 해서 하면 그 채소 콩나물에 조금 집어놔서 올리고 하지)

112056 @ 혹시 뭐 호박은 안 험니까?(혹시 뭐 호박은 안 합니까?)

112056 # 아니, 호박도 해도 그 묵더레 행 엄지허주, 거 트로 올리진 안 허여.(아니, 호박도 해도 그 묵에 해서 ‘엄지’하지, 그거 따로 올리지는 않아.)

112056 @ 아, 트로 올리진 안허여.(아, 따로 올리지는 않아.)

112056 # 다섯 개 올리민 허고 경 안 허민 네 갠 안 올리주게, 상에. 아무 디도 제스허는 디 네 개 올리지 안허여, 짝글르게만 올리주.(다섯 개 올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네 갠 안 올리지, 상에. 아무 데도 제사하는 데 네 개 올리지 않아, 짝 안 맞게만 올리지.)

112056 @ 경해도 뭐 엇이민. 우린 호박 탕쉬<sup>275</sup>도 하영.(그래도 뭐 없으면. 우린 호박무침도 많이.)

112056 # 호박 탕쉬 허주게. 허민게 흥루에, 고사리레나 그거 서넉 점 아저놔 엄지혜영, 엄지혜영 올려.(호박무침 하지. 하면 하루에, 고사리에나 그거 서넉 점 가져놔서 ‘엄지’해서, ‘엄지’해서 올려.)

112056 @ 엄지는 뭐?('엄지'는 뭐?)

112056 # 접허는 거에 두 가지에 행 흥 가지 흥디.(접하는 거에 두 가지에 해서 한 가지 함께.)

112056 @ 흥 그릇에 두 개 놓는 거?(한 그릇에 두 개 놓는 거?)

112056 # 흥 그릇에 두 개 놓는 거 엄지주게.(한 그릇에 두 개 놓는 거 ‘엄지’지.)

274) ‘엄지하다’는 한 그릇에 두 가지 채소를 같이 놓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75) ‘탕쉬’는 체사 때 쓰는 채소 무침을 말한다.

112056 @ 엄지?('엄지'?)

112056 # 응.(응.)

112056 @ 응. 갱 늑빠.(응. 그래서 무.)

112056 # 늑뻔 저.(무는 저.)

112056 @ 썰어근에.(썰어서.)

112056 # 콩늑물에 혼디 해영 채소영 혼디 콩늑물에 혼디 올림주, 혼디 솥아근에.(콩나물에 함께 해서 채소랑 함께 콩나물에 함께 올리지, 함께 삶아서.)

112056 @ 아, 혼디 솥아근에.(아, 함께 삶아서.)

112056 # 응, 경허민 좋아.(응, 그러면 좋아.)

112056 @ 아. 늑빠만 따로 안 허고?(아. 무만 따로 안 하고?)

112056 # 응, 따로 안, 따로 허지 안허주게.(응, 따로 안, 따로 하지 않지.)

112057 @ 응. 그다음에 진설은 누가 해마씨? 보통 집에서?(응. 그다음에 진설은 누가 해요? 보통 집에서?)

112057 # 진설이엔 헌 건 갈라먹는 거주?(진설이라고 한 건 갈라먹는 거지?)

112057 @ 아니, 아니 상 차리는 거.(아니, 아니 상 차리는 거.)

112057 # 상 차리는 거.(상 차리는 거.)

112057 @ 남자가 험니까, 여자가?(남자가 험니까, 여자가?)

112057 # 남저가 허주게.(남자가 하지.)

112057 @ 남저가 출려?(남자가 차려?)

112057 # 응, 남저 상 싱그주<sup>276</sup>.(응, 남자 상 차리지.)

112057 @ 상 싱그는 거예?(상 차리는 거요?)

112057 # 응, 남저가 허주.(응, 남자가 하지.)

112057 @ 응.(응.)

112057 # 이제난 엇어부난 여청덜이 허주, 옛날은 만딱.(이제니까 없어버리니까 여편네들이 하지, 옛날은 모두.)

112057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57 # 남저덜이 허주, 안 해여. 그, 그 집이 헐 사름 엇이민 그 상가에 행 제 허는 집이 남저 엇이민 따시또 그 방상에서 강 그 상을 싱겨주주, 옛날에.(남자들이 하지, 안 해. 그, 그 집에 할 사람 없으면 그 상가에 해서 제하는 집에 남자 없으면 다시 또 그 일가붙이에서 가서 그 상을 차려주지, 옛날에.)

112057 @ 아, 그 집이, 우리 집이 식게가 아니어도 늑의 집이도 강은에 해 줍니까?(아, 그 집에, 우리 집에 제사가 아니어도 남의 집에도 가서 해 줍니까?)

112057 # 응, 해 주어사, 해 주어사여.(응, 해 주어야, 해 주어야 해.)

112057 @ 방상에서.(일가붙이에서.)

112057 # 우리 집이 이제 나가 제 해여근에 나가 홀어멍이랑 헐 사름 상 싱글 사름 엇이민 시아주방이나 조케나 오랑 그걸 상을 싱겨줘. 싱그레 강.(우리 집에 이

276) '싱그다'는 '심다'의 제주어로 상을 차리는 것을 '상을 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 내가 제 해서 내가 홀어머니라서 할 사람 상 차릴 사람 없으면 시아주버니나 조카나 와서 그걸 상을 차려줘. 차리러 가서.)

112057 @ 응. 우린, 우리도 저예, 애기 아방이에, 상 차리는 건 그냥 나가 뭐 안 허고 그냥.(응. 우린, 우리도 저요, 애기 아버지요, 상 차리는 건 그냥 내가 뭐 안 하고 그냥.)

112057 # 다 해여이.(다 해.)

112057 @ 예. 뭐 가정오라, 뭐 가정오란 해도.(예.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는 해도.)

112057 # 문딱 출려다 놓민 부족헌 건 아저오라 허민 아저감은 해도 상은 안 싱거.(모두 차려다 놓으면 부족한 건 가져오라 하면 가져감은 해도 상은 안 차려.)

112057 @ 상은 안 허여. 아방이 허여.(상은 안 해. 아버지가 해.)

112057 # 경해여. 경헌디.(그렇게 해. 그런데.)

112057 @ 어떤 딴 여자가.(어떤 텐 여자가.)

112057 # 거 남저 엇이난 여청도 허는 거주게. 남저 혈 충 몰르민.(그거 남자 없으니까 여편네도 하는 거지. 남자 할 줄 모르면.)

112057 @ 하하하 혈 충 몰르민.(하하하. 할 줄 모르면.)

112058 @ 밥은 메엔 곤곡 국은 갱이엔 곶아예?(밥은 메라고 말하고 국은 갱이라고 말해요?)

112058 # 응. 밥은 메, 국은 갱.(응. 밥은 메, 국은 갱.)

112058 @ 밥은 메, 국은 갱?(밥은 메, 국은 갱?)

112058 # 응. 이제나 저제나 그자 메 옛날도 메, 이제도 갱 그자 그거주.(응. 이제나 저제나 그저 메 옛날도 메, 이제도 갱 그저 그거지.)

112058 @ 그냥 갱, 갱 거리라, 메 거리라 영 허여.(그냥 갱, 갱 떠라, 메 떠라 이렇게 해.)

112058 # 응. 다 그거.(응. 다 그거.)

112058 @ 메는 누게 뭐 특별히 메 거리는, 누게가 거려야 돼고 이수과?(메는 누가 뭐 특별히 메 뜨는, 누구가 떠야 되고 있습니까?)

112058 # 그건 아닌디, 건 그자 아무라도 메 거리렌 허민 거릴 사름 엇이민 당 허는 냥 거령 올리는데 따시 또 옛날엔 밥 갈름은 아무나 안 갈르주게. 그디 큰메 누리나, 따시 또 큰메누리 못 허민 그디 방상엿 어른도 웃어른이 밥을 갈라, 옛날엔.(그건 아닌데, 그건 그저 아무라도 메 뜨라고 하면 뜰 사람 없으면 당하는 대로 떠서 올리는데 다시 또 옛날엔 밥 가르는 것은 아무나 안 가르지. 거기 큰며느리나, 다시 또 큰며느리 못 하면 거기 방상의 어른도 웃어른이 밥을 갈라, 옛날엔.)

112058 @ 밥을 거리는 게?(밥 뜨는 게?)

112058 # 응, 옛날은.(응, 옛날은.)

112058 @ 아. 아무나 거리는 게 아니고.(아. 아무나 뜨는 게 아니고.)

112058 # 응, 갈라 먹는 사름 따시 그디 우잇어른이 그 멧질 먹으레나, 제 먹으

래 가민 여저 웃어른 가민 그 어른이 거리주, 경 아랫사람은 안 거러낫주, 옛날에.  
(응, 갈라 먹는 사람 다시 거기 웃어른이 그 명절 먹으려나, 제 먹으러 가면 여자  
웃어른 가면 그 어른이 뜨지, 그렇게 아랫사람은 안 떴었지, 옛날에.)

112058 @ 응.(응.)

112058 # 이제도 우리 방상에 잔치 집이서 헐 땐 방상에 종손 메뉴리, 종손각시  
[종손각시]가 해근에 밥 거리게 댜민 종손각시가 밥 거리고 아무나 거리지 안허여.  
제스 때, 침 잔치 때.(이제도 우리 일가붙이에 잔치 집에서 할 땐 일가붙이에 종손  
며느리, 종손각시가 해서 밥 뜨게 되면 종손 각시가 밥 뜨고 아무나 뜨지 않아. 제  
사 때, 참 잔치 때.)

112058 @ 잔치 때도.(잔치 때도.)

112058 # 응. 경허곡 잔치 때에 이제 허민 따시 또 이제 이녁에 상만, 상 왕 힌  
머리창<sup>277)</sup>이나 드리민 그거 잔칫상 차리레 가도 안 허곡 잔치 음식 허도 안허곡.  
(응. 그리고 잔치 때에 이제 하면 다시 또 이제 자기 상만, 상 와서 힌 머리창이나  
끼면 그거 잔칫상 차리러 가도 안 하고 잔치 음식 하지도 않고.)

112058 @ 아, 집이 상 나민?(아, 집에 상 나면.)

112058 # 응. 집이 상 나민 늙의 집이도 아무것도 안 해여. 겨곡 따시 또 대반  
이나 새각시 옷 꺾든 것도 상젠 안 허여. 밥도 안 거리고.(응. 집에 상 나면 남의  
집에도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다시 또 대반이나 새색시 옷 같은 것도 상제는 안  
해. 밥도 안 뜨고.)

112058 @ 예.(예.)

112058 # 계난 홀어명도 안 허곡.(그러니까 홀어머니도 안 하고.)

112058 @ 아.(아.)

112058 # 옛날은 꼴령 해여.(옛날은 가려서 해.)

112058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58 # 이젠 당허는 냥 해 가도.(이젠 당하는 대로 해 가도.)

112058 @ 계난.(그러니까.)

112058 # 옛날은 그추록 안 해낫주게.(옛날은 그렇게 안 했었지.)

112058 @ 응. 그른 메 말고 갱도 경허여?(응. 그러면 메 말고 갱도 그렇게 해?)

112058 # 아니, 갱은 아무나 거려.(아니, 갱은 아무나 떠.)

112058 @ 아, 아무나 거려도 댜고. 메만?(아, 아무나 떠도 되고. 메만?)

112058 # 응, 메만. 메도 거려 올릴 땐 아무나 거려 올리는데 그디 높은 어른이  
나 한 어른 여자가 허민 그 어른이 메 갈라, 밥 갈라.(응, 메만. 메도 떠서 올릴 땐  
아무나 떠서 올리는데 거기 높은 어른이나 한 어른 여자가 하면 그 어른이나 메 갈  
라, 밥 갈라.)

112058 @ 메, 밥 갈라.(메, 밥 갈라.)

112058 # 응, 그 방상에 다 갈라 먹는 거 그 어른이 저 나 한 어른이 밥을 거

---

277) '머리창'은 상을 당한 집의 부녀자들이 삼 년 동안 머리에 넣어 땀는, 긴 형겔오리이다.

려. 나 핫젠 해도 옛날은 그자 마흔 쉬나쁜 안네주, 무신 이제 ㄴㅈ 팔십 구십이 아니주게.(응, 그 일가붙이에 다 갈라서 먹는 거 그 어른이 저 나이 많은 어른이 밥을 떠. 나이 많다고 해도 옛날은 그저 마흔 쉬남은 안이지.)

112058 @ 하하하.(하하하.)

112058 # 이젠 팔십, 구십 난 사름, 나 한 사름 이제 혼 육십만 넘으면 여청 그 밥 거리렌 헤여? 젊은 사름덜 허주, 거 거리렌 안 허주게. 거리렌 안 허여.(이젠 팔십, 구십 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이제 한 육십만 넘으면 여편네 그 밥 뜨라고 해? 젊은 사람들 하지, 그거 뜨라고 안 하지. 뜨라고 안 해.)

112058 @ 응.(응.)

112058 # 옛날덜은 다 경헌 사름덜 거리도.(옛날들은 다 그런 사람들 떠도.)

112058 @ 그믄 시어머니도 잇고 메누리도 이시민 누게가 거리?(그러면 시어머니도 있고 며느리도 있으면 누가 떠?)

112058 # 시어명이 거리주, 메누리 안 거리.(시어머니가 뜨지, 며느리 안 떠.)

112058 @ 아, 메누리가 안 거리고?(아, 며느리가 안 뜨고?)

112058 # 안 거리. 시어명이 거리주.(안 떠. 시어머니가 뜨지.)

112058 @ 응. 시어명이 거리야 돼는 거구나예.(응. 시어머니가 떠야 되는 거군요.)

112058 # 밥 갈라 먹는 거 시어명이 허주, 메누리 안 허여.(밥 갈라 먹는 거 시어머니가 하지, 며느리 안 해.)

112059 @ 그다음에 제 허젠 허민 아덜, 남자가 세 명은 이서사 됩니까?(그다음에 제 하려고 하면 아들, 남자가 세 명은 있어야 됩니까?)

112059 # 세 이 서사여, 네 이 서사주.(세 명 있어야해, 네 명 있어야지.)

112059 @ 아, 네 명 서사여?(아, 네 명 있어야해?)

112059 # 응.(응.)

112059 @ 어떻, 무사 네 명 이서야 돼여?(어떻게, 왜 네 명 있어야 돼?)

112059 # 삼 저 거시기 그 삼헌.(삼 저 거시기 그 삼헌.)

112059 @ 삼헌 이서야 돼여?(삼헌 있어야 돼?)

112059 # 응.(응.)

112059 @ 삼헌이 무시거봐?(삼헌이 무엇입니까?)

112059 # 세 이, 세 이 사는 게 삼헌이라.(세 명, 세 명 사는 게 삼헌이야.)

112059 @ 아, 절허는 사름이 세 명?(아, 절하는 사람이 세 명?)

112059 # 응.(응.)

112059 @ 이것도 무신 헌, 무신 헌 잊지 안허여?(이것도 무슨 헌, 무슨 헌 있지 않아?)

112059 # 큰 제관, 작은 제관 행 허민 큰 제관은 이펜 우이 사는 건, 큰 제관은 도복 입고 창옷 입고 도복 입곡 행 제지내고.(큰 제관, 작은 제관 해서 하면 큰 제관은 이펜 위에 서는 건, 큰 제관은 도복 입곡 창옷 입고 도복 입고 해서 제지내



고.)

112059 @ 어느 쪽에 사? 오른쪽에, 왼쪽에?(어느 쪽에 서? 오른쪽에, 왼쪽에?)

112059 # 영 노단, 왼쪽에.(이렇게 오른, 왼쪽에.)

112059 @ 노단쪽에?(오른쪽에?)

112059 # 응, 안터레.(응, 안으로.)

112059 @ 젤 안터레? 그믐 어느 짝이라? 웬짝이라?(제일 안으로? 그러면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112059 # 안터레 사민 노단착도 뒤편, 웬착도 뒤편아.(안으로 서면 오른쪽도 되고, 왼쪽도 되잖아.)

112059 @ 아.(아.)

112059 # 웬손, 노단손은 안 써지고.(왼손, 오른손은 안 써지고.)

112059 @ 아, 젤 안착, 안쪽에 선다고.(아, 제일 안쪽, 안쪽에 선다고.)

112059 # 응. 우이 지중 우이 사주게. 높은 제관은.(응. 위에 제일 위에 서지. 높은 제관은.)

112059 @ 응. 갱 현관이 그거 현관이엔 곧주예?(응. 그래서 현관이 그거 현관이라고 말하지요?)

112059 # 거 허민 큰아덜이민 큰아덜 행 차례로 사곡 셋아덜, 아덜덜 삼헌을 세 성제가 삼헌을 차리민.(그거 하면 큰아들이면 큰아들 해서 차례로 서고 둘째아들, 아들들 삼헌을 삼형제가 삼헌을 차리면.)

112059 @ 응.(응.)

112059 # 큰아덜 잔 드러나민, 셋아덜. 따시 또 작은아덜은 제 막꿔. 게난 아덜이 다섯 성제민 다 허지 못허지. 세 성제베끼 못 허주게.(큰아들 잔 드리고 나면, 둘째아들. 다시 또 막내아들은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아들이 다섯 형제면 다 하지 못하지. 삼 형제밖에 못 하지.)

112059 @ 응.(응.)

112059 # 삼헌은.(삼헌은.)

112059 @ 세 명허고 또 혼 명은 무신거 해? 옆에 사는 사람은 뭐라?(세 명하고 또 한 명은 무엇 해? 옆에 서는 사람은 뭐야?)

112059 # 그, 집서질 허는 사람은 그 잔 해다근에 그 다 그 절헌 영 엮더진 사람을 잔 앓아주주게. 경허민 따시 영 허곡 허는.(그, 집사질 하는 사람은 그 잔 해다가 그 다 그 절한 이렇게 엮드린 사람 잔 가져주지.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고 하는.)

112059 @ 집선 누게가 허는 거파?(집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112059 # 그건 손지라도 허고 따시 엮이민 그 아시라도 작은아덜이라도 해야주게. 집서노릇은 해사주, 안 허여? 삼헌은 출려사.(그건 손자라도 하고 다시 없으면 그 아우라도 막내아들이라도 해야지. 집사노릇은 해야지 안 해? 삼헌은 차려야.)

112059 @ 삼헌은 출려사예.(삼헌은 차려야요.)

112059 # 삼헌 출려사 제관이주, 삼헌 안 출리민 제관. 게 었은 집이나 이녀 혼 차나 돌리 허주. 조그만헌 집은 다 삼헌 출리주 경.(삼헌 차려야 제관이지, 삼헌 안 차리면 제관. 그러게 없는 집이나 자기 혼자나 둘이 하지. 조그마한 집은 다 삼헌 차리지 그렇게.)

112059 @ 아덜 세 갠 이서야켜예?(아들 세 개는 있어야겠어요.)

112059 # 아덜 엿어도 사위 드리므나, 방상 사름 드리몰아도 삼헌은 출려야.(아들 없어도 사위 들이밀거나, 일가붙이 사람 들이밀어도 삼헌은 차려야.)

112059 @ 아.(아.)

112059 # 이녀 집이 헉나 메기민 이녀 웨아덜이민 웨아덜만 해도. 그디 방상 사름도 종손도 잇곡 조케도 잇지 않아? 경허민 삼헌은 출려야. 게난 제관도 네인 헤사 제지내는 거.(자기 집에 하나뿐이면 자기 외아들이면 외아들만 해도. 거기 일가붙이 사람도 종손도 있고 조카도 잇지 않아? 그러면 삼헌은 차려야. 그러니까 제관도 네 명은 해야 제지내는 거.)

112059 @ 그든 그 젔 대장, 젔 큰아덜을 뭇엔 곶아?(그러면 그 젔 대장, 젔 큰아들은 뭇라고 말해?)

112059 # 큰아덜은 종손이민 옛날은 그 종손침이민 큰아덜 헤근에 아덜 여라가지 다 가르민 할망, 하르방 제 허는 건 종손 아니라?(큰아들은 종손이면 옛날은 그 종손집이면 큰아들 해서 아들 여러 가지 다 가르면 할머니, 할아버지 제 하는 건 종손 아니냐?)

112059 @ 예.(예.)

112059 # 종손이주. 경허민 종손으로 소분밧<sup>278</sup>도 잇곡.(종손이지. 그러면 종손으로 ‘소분밧’도 있고.)

112059 @ 무신 밧?(무슨 밧?)

112059 # 소분밧이엔 현 건 죽어분 어른 제스헝 밧을 옛날에 다 놔낫주게. 혼 천 평이민 천 평. 엿이민 혼 오백 췁이라도 소분은 놔낫주게.(‘소분밧’이라고 한 건 죽어버린 어른 제사할 밧을 옛날에 다 놔엇지. 한 천 평이면 천 평. 없으면 한 오백 췁이라도 소분은 놔엇지.)

112059 @ 예.(예.)

112059 # 경헝 소분을 다 놔낫주게. 제허는 사름이.(그래서 소분을 다 놔엇지. 제하는 사름이.)

112059 @ 소분밧은 저 소분허는 적시로 주는 밧?(소분밧은 저 소분하는 것으로 주는 밧?)

112059 # 응, 소분허고 제허곡 허는.(응, 소분하고 제하고 하는.)

112059 @ 제허곡 허는.(제하고 하는.)

112059 # 옛날엔 할망, 하르방 헤근에, 큰아덜이민 어멍, 아방 다 들앙 살앗주게.(옛날엔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큰아들이면 어머니, 아버지 다 데리고 살앗지.)

278) ‘소분밧’은 조상의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밧으로 ‘제월전’이라고도 한다.

112059 @ 응.(응.)

112059 # 이젠 안 들앙 살아도. 다 들앙 살곡 경허민 앞이 행 밧도 좋은 걸로 주곡 따시 아시덜은 시민 주곡 엇이민 말아도 큰아덜은 아방 살림살이 다 주지 안 햄서게?(이젠 안 데리고 살아도. 다 데리고 살고 그러면 앞에 해서 밧도 좋은 걸로 주고 다시 아우들은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아도 큰아들은 아버지 살림살이 다 주지 않고 있나?)

112059 @ 응.(응.)

112059 # 경허난 옛날은. 이젠 시어멍 들앙 사는 사름 어디 서?(그러니까 옛날은. 이젠 시어머니 데리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112059 @ 하하하. 나.(하하하. 나.)

112059 # 계난 들앙 살아지크라? 아이고.(그러니까 데리고 살 수 있겠어? 아이고.)

112059 @ 아니, 지금 우리 그런 이층에 우리 살고예, 일층에 시어머니영 시아버지 살아.(아니, 지금 우리 그런 이층에 살고요, 일층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살아.)

112059 # 계난 들앙 살진 안허지.(그러니까 데리고 살진 않지.)

112059 @ 들앙 살진 안허지. 시어머니가 밥행 먹지.(데리고 살진 않지. 시어머니가 밥해서 먹지.)

112059 # 계난 그 할망 따시 또 늙어가근에 밥 못 행 먹으민 들앙 살아살 거 아니?(그러니까 그 할머니 다시 또 늙어가서 밥 못 해서 먹으면 데리고 살아야할 거 아니?)

112059 @ 요양원에 보내질 거 님아.(요양원에 보낼 것 같아.)

112059 # 계난 경허난 요새엔 요양원에 보내는 따문. 계난 요새 사름덜 경험주. 옛날은 경허멍 다 큰아덜만 주단 보난 편씩. 이젠 다 동등권이라고. 집인 뜰 몇 개고? 어멍, 아방 다 살았어?(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엔 요양원에 보내는 따문.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지. 옛날은 그러면서 다 큰아들만 주다 보니까 깨끗. 이젠 다 동등권이라고. 집에 딸 몇 개야?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았어?)

112059 @ 우리 친정엔 다 죽고 시어머니 시아버진 살아신디 우리 집은 아들 셋, 딸 셋.(우리 친정엔 다 죽고 시어머니, 시아버진 살았는데 우리 집은 아들 셋, 딸 셋.)

112059 # 그거 재산 다 동등권이라고.(그거 재산 다 동등권이라고.)

112059 @ 딸은 우리 딸은 빼고 아들만 동등 권리렌, 우리 시아버진.(딸은 우리 딸은 빼고 아들만 동등 권리라고, 우리 시아버지는.)

112059 # 아니. 요 시절엔 딸이나 아들이나 다 동등권이주.(아니. 요 시절엔 딸이나 아들이나 다 동등권이지.)

112059 @ 예.(예.)

112059 # 옛날은 아덜만 동등권인디 이젠 경 안 해여.(옛날은 아들만 동등권인데 이젠 그렇게 안 해.)

112059 @ 응.(응.)

112059 # 그냥 죽으면 그자 다 동등권. 계난 그 산 때에 시어멍, 시아방네가 딱 허게 이거 어느 아덜, 어느 거, 어느 거 딱 분깃<sup>279)</sup> 안 해불민 공동으로 아방 일름 에나 시민 다 툄덜토 다 동등권이라.(그냥 죽으면 그저 다 동등권. 그러니까 그 산 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네가 딱하게 이거 어느 아들, 어느 거, 어느 거 딱 ‘분깃’ 안 해버리면 공동으로 아버지 이름에나 있으면 다 딸들도 다 동등권이야.)

112059 @ 다 분깃 해불언. 시아버지가.(다 ‘분깃’ 해버렸어. 시아버지가.)

112059 # 다 분깃. 계난 큰아덜 더 가진 안헛주.(다 ‘분깃’. 그러니까 큰아들 더 가진 않았지?

112059 @ 예.(예.)

112059 # 계난 지네 셋이민 이제 성이 식게 멩질허곡 더 주젠 갈라주젠 허주만 은 그건 아니, 동등권.(그러니까 자기네 셋이면 이제 형이 제사 명절하고 더 주려고 갈라주려고 하지만 그건 아니, 동등권.)

112059 @ 돌아가신 다음에 허민 싸웁난다고 다 해불언.(돌아가신 다음에 하면 싸웁난다고 다 해버렸어.)

112059 # 미리 안 허민 다 싸웁 나.(미리 안 하면 다 싸웁 나.)

112059 @ 경해도 죽을 때까지 가정 이서야 힘이 난텐 허는디 나뉘 쥘불민 웨 여?(그래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힘이 난다고 하는데 나뉘 쥘버리면 돼?)

112059 # 경해도 하르방 직시도 더러 놔똥 동등권해사주, 그 하르방 직시 남은 건 큰아덜 직시난게 다 ㄴ찌 갈라쥘도 하르방 직시 놔둔 건 큰아덜에 갈 거주게.(그래도 할아버지 깃도 더러 놔두고 동등권해야지, 그 할아버지 깃 남은 건 큰아들 깃 이니까 다 같이 갈라쥘도 할아버지 깃 놔둔 건 큰아들에 갈 거지.)

112059 @ 예.(예.)

112059 # 쟁 분깃 안 해불민 다 동등권이라.(그래서 ‘분깃’ 안 해버리면 다 동등권이야.)

112059 @ 이디도 경험니까? 제주시만?(여기도 그렇게 합니까? 제주시만?)

112059 # 이디도, 이디도 그거라.(여기도, 여기도 그거야.)

112059 @ 원래 남군은 큰아들이 쥘 많이 주던데.(원래 남군은 큰아들이 쥘 많이 주던데.)

112059 # 옛날, 옛날, 옛날. 계난 큰아덜만 다 주단 보난 큰아덜은 다 풀아 먹어 불민 바린 체 안허고 무시거 해가난 이젠 그거 아니.(옛날, 옛날, 옛날. 그러니까 큰아들만 다 주다 보니 큰아들은 다 팔아 먹어버리면 본 체 앓고 무엇 해가니까 이젠 그거 아니.)

112059 @ 응.(응.)

112059 # 계난 이젠 부모에 잘 해영 공양해영 들앙 사는 게 좋은, 저 종손이주. 그게 아니.(그러니까 이젠 부모에 잘 해서 공양해서 데리고 사는 게 좋은, 저 종손

279) ‘분깃’은 조상을 섬기는 제사나 재산 따위를 자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다.

이지.)

112059 @ 응, 큰아들이라고 종손이 아니?(응, 큰아들이라고 종손이 아니?)

112059 # 큰아들이라도 경 이녀 부모 안 들앙 살앙 내불민 종손이 안 돼주게, 무신 큰아들이엔 허민. 이젠 옛날이주, 그거 아니.(큰아들이라도 그렇게 자기 부모 안 데리고 살아서 내버리면 종손이 안 되지, 무슨 큰아들이라고 하면. 이젠 옛날이지, 그거 아니.)

112060 @ 응. 파제는 몇 시에 헤마씨?(응. 파제는 몇 시에 해요?)

112060 # 요새엔 우리 집인 으답 시에도 제 헤여.(요새엔 우리 집은 여덟 시에도 제 해.)

112060 @ 아, 당일제 햄수과?(아, 당일제하고 있습니까?)

112060 # 응, 합제 행 당일제 허난 으답 시에도 헤여.(응, 합제 해서 당일제 하니까 여덟 시에도 해.)

112060 @ 옛날엔 어떻 헛수과?(옛날엔 어떻게 했었습니까?)

112060 # 옛날은 열두시 돼사, 딱 열두시 돼 가민 열두시, 열흔시 해근에 가불 어 가민 문제<sup>280)</sup> 지내고, 열흔시 반만 돼민 문제 지내근에 딱 열두시 돼민 제 지낸 디 이젠 거 아니. 이제 열두시 땡 제지내는 사름 엇어.(옛날은 열두시 돼야, 딱 열두시 돼 가면 열두시, 열한시 해서 가버려 가면 ‘문제’ 지내고, 열한시 반만 되면 ‘문제’ 지내서 딱 열두시 되면 제 지냈는데 이젠 그거 아니. 이제 열두시 되어서 제 지내는 사람 없어.)

112060 @ 이 동네도 엇수과?(이 동네도 없습니까?)

112060 # 이 동네도 엇어. 열시, 아홉시 허는 사름, 열시 허는 사름.(이 동네도 없어. 열시, 아홉시 하는 사람, 열시 하는 사람.)

112060 @ 다 당일제로 헤불엄구나, 이젠예?(다 당일제로 해버리고 있구나, 이젠 요?)

112060 # 아, 당일제 아니라도 경, 경흐는 사름 다.(아, 당일제 아니라도 그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다.)

112060 @ 우리 친정엔 아직도 열두시 합니다.(우리 친정엔 아직도 열두시 합니다.)

112060 # 당일제 아니라?(당일제 아니야?)

112060 @ 응, 당일제 아니라. 시택은 당일제, 친정은 열두시.(응, 당일제 아니야. 시택은 당일제, 친정은 열두시.)

112060 # 게난 열두시 안 헤여.(그러니까 열두시 안 해.)

112060 @ 친정이 서촌.(친정이 서촌.)

112060 # 당일제 안 허는 사름덜은 저 경 늦게 해도 인척 안헤여, 늦이 안 헤여.(당일제 안 하는 사람들은 저 그렇게 늦게 해도 일찍 안 해, 늦게 안 해.)

112060 @ 열한시.(열한시.)

---

280) ‘문제’는 주로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로 ‘문전제’라고도 한다.

112060 # 열한시가 허곡, 열시에도 허는 사람 잇곡 제가 들이 엇주. 아홉시에  
흐는 사람도 잇곡.(열한시가 하고, 열시에도 하는 사람 있고 제가 들이 없지. 아홉  
시에 하는 사람도 있고.)

112060 @ 열한시, 꼭 열한시 넘어근에 해야 댜덴예, 우리예.(열한시, 꼭 열한시  
넘어서 해야 된다고요, 우리요.)

112060 # 우리 집인 똑 으답시 댜영 제 지네민 게난 아이덜토 문딱 가지, 제물  
을 여름에썸은 드러 출리질 못허여. 경허민 저녁으로 저녁으로 댜여. 으답시에 제  
지내.(우리 집은 꼭 여덟시 되어서 제지내면 그러니까 아이들도 모두 가지, 제물을  
여름에썸은 마구 차리지를 못해. 그러면 저녁으로 저녁으로 댜. 여덟시에 제지내  
서.)

112060 @ 여덟시에 제 지내 제 지낸 다음 밥 먹어?(여덟시에 제지내서 제 지낸  
다음 밥 먹어?)

112060 # 응. 경허민 밥 다 음복허민 딱 그거, 그거 저녁으로 댜여.(응. 그러면  
밥 다 음복하면 딱 그거, 그거 저녁으로 댜.)

112060 @ 그제 저녁으로.(그제 저녁으로.)

112060 # 응.(응.)

112060 @ 그믐 여섯시나 일곱시에 밥 안 먹고?(그러면 여섯시나 일곱시에 밥  
안 먹고?)

112060 # 아니.(아니.)

112060 @ 기다령?(기다려서?)

112060 # 응. 으답시 댜민, 여름엔 으답시 댜민, 일곱시 댜민 막 해가 밝잖아?  
(응. 여덟시 되면, 여름엔 여덟시 되면, 일곱시 되면 막 해가 밝잖아?)

112060 @ 예, 예.(예, 예.)

112060 # 경허고 이 저슬에도 아니헤영 그자 딱 그 제 헤영 으답시 댜민 저녁  
으로 먹어.(그리고 이 겨울에도 안 해서 그제 딱 그 제 해서 여덟시 되면 저녁으로  
먹어.)

112060 @ 아, 저녁으로.(아, 저녁으로.)

112060 # 응, 게난 좋기도 좋아.(응, 그러니까 좋기도 좋아.)

112061 @ 응. 문전제, 문제?(응. ‘문전제’, ‘문제’?)

112061 # 문제.(‘문제’.)

112061 @ 문젠 어떻 행 허는 거파?(‘문제’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12061 # 건 문제엔 헌 건 상 싱거낭 켈씨<sup>281)</sup> 문딱 허민 따시 또 그디 켈기영  
묵이영 다 혼디 농곡 떡도 혼 켈씨에 농곡 헤근에 문전에 지내는 건 문전제주.(그건  
문제라고 한 건 상 차려놓고 ‘켈씨’ 모두 하면 다시 또 거기 고기랑 묵이랑 다 함께  
놓고 떡도 한 ‘켈씨’에 놓고 해서 문전에 지내는 건 ‘문전제’지.)

112061 @ 이레 영 상 들러왕?(이리 이렇게 상 들고와서?)

281) ‘켈씨’는 제사상에 제물을 격식에 따라 그릇에 잘 올려 놓는 것을 말한다.

112061 # 응.(응.)

112061 @ 제사허기 전이예?(제사하기 전예요?)

112061 # 응. 그거 허어나사 제지내주.(응. 그거 해나야 제지내지.)

112061 @ 그거 해나사 제지내는 거예.(그거 해나야 제지내는 거요.)

112061 # 응. 게 문전이 이제 지중 어른이주게.(응. 그러게 문전이 이제 제일 어른이지.)

112061 @ 아, 문전이 켈 어른?(아, 문전이 켈 어른?)

112061 # 응.(응.)

112061 @ 응.(응.)

112061 # 게난 앞이 상을 받지.(그러니까 먼저 상을 받지.)

112061 @ 아. 문전에 국 올립니까?(아. 문전에 국 올립니까?)

112061 # 다 ㄴ썸, ㄴ썸.(다 같이, 같이.)

112061 @ 아, 우린 밥만 올리고 국 안 올리던데.(아, 우린 밥만 올리고 국 안 올리던데.)

112061 # 것도 이상허다. 다 ㄴ썸, ㄴ썸.(그것도 이상하다. 다 같이, 같이.)

112061 @ 아, 다 ㄴ썸, ㄴ썸.(아, 다 같이, 같이.)

112061 # 응. 과일 뭐 다 ㄴ썸, 적도 다 ㄴ썸, ㄴ썸. 문전에 다 ㄴ썸 해여.(응. 과일 뭐 다 같이, 적도 다 같이, 같이. 문전에 다 같이 해.)

112061 @ 응.(응.)

112061 # 경행 문전허주.(그래서 문전하지.)

112061 @ 그거 문전제해나민 문제해나민.(그거 ‘문전제’ 하고나면 ‘문제’ 하고나면.)

112061 # 문제해난 건 그자 ㄴ만이 낫당 ㄴ썸 ㄴ썸 갈라 먹주, 무신 문전해난 거, 어느 집이 문전 었은 집이 시냐?(‘문제’하고난 건 그거 가만히 왔다가 같이 같이 갈라 먹지, 무슨 문전 했던 거, 어느 집에 문전 없는 집이 있니?)

112062 @ 아니, ㅎ썸썸 영 이런 죽은 거예.(아니, 조금씩 이렇게 이런 작은 거요.)

112062 # 그런 건 승냥게. 문제에도 승냥해여, 잡식해여.(그런 건 승냥. ‘문제’에도 승냥 해, 제반해.)

112062 @ 아, 잡식.(아, 제반.)

112062 # 응. 잡식해여.(응. 제반해.)

112062 @ ㅎ썸썸 툇아놓는 거 잡식.(조금씩 뜯어놓는 거 제반.)

112062 # 거 잡식, 잡식이주게. 옛날은 승냥, 이젠 잡식이엔 골아도. 옛날은 승냥.(그거 제반, 제반이지. 옛날은 승냥, 이젠 제반이라고 말해도. 옛날은 승냥.)

112062 @ 아, 옛날은 승냥?(아, 옛날은 승냥?)

112062 # 응. 그거 다 지붕 우터레 올리주게.(응. 그거 다 지붕 위에 올리지.)

112062 @ 문제 해난 거 지붕 우트레 올려?(‘문제’ 했던 거 지붕 위에 올려?)

112062 # 문제 해난 것도 지붕 우트레 올리곡, 제지내난 것도 문전에 올리곡. 계난 그 방상에 종 부려나민 종 나시, 그 옛날은 종 나시엔 허주. 그 막곳에 뒤흔키는 것가. 종 부리는 집이 종 나시. 경허민 막곳에 그 승냥 해난 다음에 경허는 집이 우리 강침이도 옛날 경해났어, 우린 안 해도. 만딱 제 행 문전 다 해나민 물박에 행은에 승냥 농곡 정지에 행 메 거려놔 상, 제해난 거, 갱국 해난 거 문딱 농곡 상에 장 그거 문딱 잡식 해놓고 경헛어. 그거 올레드레 뿌리주, 지붕 우이 안 올려. 거 종 나시.('문제' 했던 것도 지붕 위에 올리고, 제 지냈던 것도 '문전'에 올리고. 그러니까 그 일가붙이에 종 부리고 나면 종 깃. 그러면 마지막에 그 승냥 했던 다음에 그렇게 하는 집이 우리 강씨 집도 옛날 그랬었어, 우린 안 해도. 모두 제 해서 문전 다 하고나면 물바가지에 해서 승냥 놓고 부엌에 해서 메 떠와서 상, 제 했던 거, 갱국 했던 거 모두 놓고 상에 가서 그거 모두 제반 해놓고 그랬었어. 그거 올레에 뿌리지, 지붕 위에 안 올려. 그거 종 깃.)

112062 @ 종?(종?)

112062 # 종이엔 현 건 옛날에 부엌집이 장남 들안 살아나부난 장남 나시엔 헤영 올레레 케우려, 그거. 올레에 비와. 물박, 그 물박뒤흔<sup>282)</sup>이라고.(종이라고 한 건 옛날에 부앗집에 하인 데리고 살아서 하인 깃이라고 해서 올레에 고수레해, 그거. 올레에 부어. 물바가지, 그 '물박뒤흔'이라고.)

112062 @ 물박뒤흔?('물박뒤흔'?)

112062 # 물박에 해다놔 헤여. 물박더레 문 툇아놔.(물바가지에 해다와서 해. 물바가지에 모두 뜯어와서.)

112062 @ 응. 그거는 아까 잠깐만예, 문전에 건 지붕 우이 올리고.(응. 그거는 아까 잠깐만요, 문전에 건 지붕 위에 올리고.)

112062 # 응. 문전 현 건 따시 또 제 해낭 영혼 나시 현 건 다 지붕 우이 올리고 그건 따시 그 집이 장남 들안 살아나난 장남은 이제 이디 들어오지 못허지 안허나? 그 제 지낼 때나 무시거 못허난 경허난 올레드레 케우려.(응. 문전 한 건 다시 또 제 하고나서 영혼 깃 한 건 다시 지붕 위에 올리고 그건 다시 그 집에 하인 데리고 살아서 하인은 이제 여기 들어오지 못하지 않니? 그 제 지낼 때나 무엇 못하니까 그러니까 올레에 고수레해.)

112062 @ 올레더레 케우리는 건 계난 어느 거 툇아근에 낱허는 거라?(올레에 고수레하는 건 그러니까 어느 거 뜯어서 와서 하는 거야?)

112062 # 아, 그 제지내난 거 다 해놔.(아, 그 제지냈던 거 다 해놓고.)

112062 @ 큰 상에 거?(큰 상의 것?)

112062 # 응. 큰 상에나 이 정지에 헤 논 거 문딱 해놔, 잡식해 놔근에.(응. 큰 상에나 이 부엌에 해 놓은 거 모두 해와서, 제반해 와서.)

112062 @ 아.(아.)

282) '물박뒤흔'은 제지내는 데 들어오지 못하는 종의 영혼의 뒤흔으로 상에 올렸던 것을 조금씩 뜯어서 물바가지에 와서 '올레'에 뿌리는 것이다.



112062 # 경혜사 올레 구석더레, 올레더레 케우리주, 건 지붕에 안 올려.(그래야 올레 구석에, 올레에 고수레하지, 그건 지붕에 안 올려.)

112062 @ 응. 식게 다 쫓난 다음에?(응. 제사 다 끝난 다음에?)

112062 # 응. 아, 멩질행 그 제지내나민 이 송늡 지붕에 올려나민 그 조름에 어가라 허주게. 물박튀식이라고.(응. 아, 명절해서 그 제지내고나면 이 송늡 지붕에 올리고 나면 그 뒤에 바로 하지. ‘물박튀식’이라고.)

112062 @ 물박튀식?(‘물박튀식’?)

112062 # 응. 우리 강침이 게난 옛날 하르방덜 부제 하르방덜 장남이여 무시거 종이여 집 들앙 살아나난 경헌디 우리 옛날 신식 안 허난 그런 거 안 해여.(응. 우리 강씨 집에 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들 부자 할아버지들 하인이다 뭐 종이다 집에 데리고 살아서 그런데 우리 옛날 신식 안 하니까 그런 거 안 해.)

112062 @ 응.(응.)

112062 # 게난 나가 멩난게<sup>283)</sup> 살아나난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안 행 살안. 그자 문전에난 문전 해난 거 상에 제지내민 제 지낸 거 어디 안네<sup>284)</sup>도 안 거려놓곡 나가 ‘멩난게’ 살아나난 편쩍 그런 거 안행 메뉴리 안 물려줘.(그러니까 나가 ‘멩난게’ 살아서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안 해서 살았어. 그저 문전에니까 문전 했던 거 상에 제지내면 제 지낸 거 어디 ‘안네’도 안 떠놓고 내가 ‘멩난게’ 살아서 전혀 그런 거 안하고 며느리 안 물려줘.)

112062 @ 응. 이 동네는 이 동네 다른 집이는 다 해여? 안넛상<sup>285)</sup>도 허고?(응. 이 동네는 이 동네 다른 집에는 다 해? ‘안넛상’도 하고?)

112062 # 응. 안넛상도 다 허여.(응. ‘안넛상’도 다 해.)

112062 @ 아. 이 동네도 표선이도 아니 성산쪽에도 안넛상 허는구나예?(아. 이 동네도 표선에도 아니 성산쪽에도 ‘안넛상’ 하는군요?)

112062 # 응, 칠성 다 햐주게.(응, 칠성 다 하고 있지.)

112062 @ 칠성 다허고.(칠성 다 하고.)

112062 # 응, 칠성, 칠성 다 해여.(응, 칠성, 칠성 다해.)

112062 @ 아.(아.)

112062 # 칠성 안네 거려 논 거, 칠성허고. 밧 그거 그 칠성이엔 허는 거 그 베 쫓되 느람지 그자 주지 더끈 사름은 그 안네 해낭 그 송늡 해당 그디 강 비우주게. 그 느람지, 주지 더끈 디 강.(칠성 ‘안네’ 떠 놓은 거, 칠성하고. 밧 그거 그 칠성이라고 하는 거 그 바깥에 이영 그저 주저리 덮은 사름은 그 ‘안네’ 해놔서 그 송늡 해다가 거기 가서 비우지. 그 이영, 주저리 덮은 데 가서.)

112062 @ 주지 더끈 디 강. 응.(주저리 덮은 데 가서. 응.)

283) ‘멩난게’는 문맥상 ‘가난하게’의 뜻인 것 같다.

284) ‘안네’는 고방에 모시는 칠성신으로 ‘안칠성’, 또는 ‘고팡할망’이라고도 한다. 이 신들을 위한 제는 풍농과 고방 안의 곡식을 잘 지켜 부를 이루게 해달라는 의미이다.

285) ‘안넛상’은 고방신인 칠성신을 위해 차린 제사상을 말한다. 명절이나 제사 때 메·채소 등을 차린 제물을 안 칠성의 거처인 고팡의 쌀독 뚜껑 위에 차려 놓는다. 현재는 고방이 없으므로 ‘안넛상’을 차리는 집에서는 제사 상 옆 바닥에 음식을 차린다.

112062 # 그게 칠성.(그게 칠성.)

112062 @ 그게 칠성. 그믐 멧 개를 톤아야 되는 거봐? 잡식을 멧 개 허는 거 봐?(그게 칠성. 그러면 멧 개를 뜯어야 되는 겁니까? 제반을 멧 개 하는 겁니까?)

112062 # 아, 그디 허나 헤영 허민 그디 올린 건 다게 톤아와사.(아, 거기 하나 해서 하면 거기 올린 건 다 뜯어와야.)

112062 @ 잡식 그릇이, 요거 하나는 지붕 우이 올릴 거, 하나는 저디 저 올레 강 비울 거.(제반 그릇이, 요거 하나는 지붕 위에 올릴 거, 하나는 저기 저 ‘올레’ 가서 비울 거.)

112062 # 올레 허는 건 맨, 매 막곳에 물박 허나 허영 이디 거 행 메, 밥 행 멧 밥이나 갱국이나 탕쉬<sup>286)</sup>나 문딱 곳곳이 해낭, 따시 빈 그릇에 그거 상에 올린 거 적이영 문딱 해낭 그 물박더래 혼디 비와낭, 경 그거 사름마다 경허는 거 아니고 경허는 디가 잇넌 말이주게.(‘올레’ 하는 건 맨, 맨 마지막에 물바가지 하나 해서 여기 거 해서 메, 밥 해서 메나 갱이나 ‘탕쉬’나 모두 다 갖추어서 해놓고, 다시 빈 그릇에 그거 상에 올린 거 적이랑 모두 해와서 그 물바가지에 함께 부어와서, 그렇게 그거 사람마다 그러는 거 아니고 그러는 데가 있다는 말이지.)

112062 @ 아, 건 허는 디가 잇고.(아, 그건 하는 데가 잇고.)

112062 # 부젓칩이 옛날에 종 들안 살아난 집이.(부젓집에 옛날에 종 데리고 살았던 집에.)

112062 @ 응, 그다음에 안넛상에 건.(응, 그다음에 ‘안넛상’에 것은?)

112062 # 해당 안네 칠성 행 단지에 주심 묻은 사름은 그거 행 고팡에 낫당 따시 잡식해당 그거 주지에 강 비와.(해다가 ‘안네’ 칠성 해서 단지에 ‘주심’ 묻은 사름은 그거 해서 고팡에 뵈다가 다시 제반해다가 그거 주저리에 가서 부어.)

112062 @ 응.(응.)

112062 # 밥 승능에 다 타주게.(밥 승능에 다 타지.)

112062 @ 계난 으라 개 해야 웨크라예. 승능을 멧 개 혼 세 갠 해사.(그러니까 여러 개 해야 되겠네요. 승능을 멧 개 한 세 개는 해야.)

112062 # 아, 안네 온 사름은 안네 승능 가곡 방엔게 방엔 따시 또 승능 그 영 혼이 여러 개민 다 허나씩 다 가주. 다섯 곳이면 다섯 사름이면 멧질허민 다섯 개 가곡, 으숫 허민 으숫 개 가도 승능은 게 무신 허나라? 생사름 물 먹듯 여러 가지 주게.(아, ‘안네’ 온 사름은 ‘안네’ 승능 가고 방엔 방엔 다시 또 승능 그 영혼이 여러 개면 다 하나씩 다 가지. 다섯 곳이면 다섯 사름이면 멧질하면 다섯 개 가고, 여섯 하면 여섯 개 가도 승능은 무슨 하나야? 산 사람 물 먹듯 여러 가지지.)

112062 @ 계난 승능 그릇에 그냥 영 흐끔씩.(그러니까 승능 그릇에 그냥 이렇게 조금씩.)

112062 # 승능 그릇은 그디 상에 싱근 것만 톤아와근에 지붕 우이 올리는 거. (승능 그릇은 거기 상에 차린 것만 뜯어와서 지붕 위에 올리는 거.)

286) ‘탕쉬’는 제사에 쓰는 고사리, 콩나물 등의 나물 무침을 말한다.

112062 @ 응. 거난 송농 그릇에 상에 올린 거 툇아놔예?(응. 그러니까 송농 그릇에 상에 올린 거 뜯어놔서요?)

112062 # 흔더레 다 비와와근에.(한군데 다 부어놔서.)

112062 @ 흔더레 다 비와와 이디도 올리고.(한군데 다 부어놔서 여기도 올리고.)

112062 # 응, 지붕 우터레 올리고. 따시 막곳에 허는 건 곳곳이 헤다와 올레더레 강 비우고.(응, 지붕 위에 올리고. 다시 마지막에 하는 건 모두 헤다와서 ‘올레’에 가서 붓고.)

112062 @ 응.(응.)

112062 # 집마다 허진 안 허주게. 몰박, 송농에라도.(집마다 하진 않지. 몰바가지, 송농에라도.)

112063 @ 지제는 무신거마씨? 지제.(‘지제’는 뭐예요? ‘지제’.)

112063 # 지제<sup>287</sup>?(‘지제’?)

112063 @ 지제.(‘지제’.)

112063 # 친제?(‘친제’?)

112063 @ 아니 저 삼대 제지내나민 더 우엿 하르방은 집이서 제 안 험니께?(아니 저 삼대 제지내고 나면 더 위의 할아버지는 집에서 제 안 하잖아요?)

112063 # 거 친제, 친제.(그거 ‘친제’, ‘친제’.)

112063 @ 아, 건 친제.(아, 건 ‘친제’.)

112063 # 친제헤비엿젠 헤근에 그 하르방덜은 따시 또 몰 메와놓민 옛날은 그제가 묘제라고 드르에 강 제지내주게.(‘친제’헤버렸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들은 다시 또 말 키우면 옛날은 그제가 묘제라고 들에 가서 제지내지.)

112064 @ 아, 묘제는 드르에 강 지내는 거?(아, 묘제는 들에 가서 지내는 거?)

112064 # 응. 거 흔 번 헤영 일년에, 제사 안 허는 하르방.(응. 그거 한 번 해서 일년에, 제사 안 하는 할아버지.)

112064 @ 예.(여.)

112064 # 일년에, 봄 나민 흔 번 허는 거. 그거 묘제엔도 허곡, 묘제엔 허주게.(일년에, 봄 나면 한 번 하는 거. 그거 묘제라고도 하고, 묘제라고 하지.)

112064 @ 건 묘제엔 허여예.(그건 묘제라고 해요.)

112064 # 응, 즈손덜 몬 메 강 흔디 가근에 제지내. 그 할아방 즈손 먼 가지라도 몬 그 묘제행 가주게. 가는 사람 가곡 따시 못 가는 사람 못 가곡.(응, 자손들 모두 매고 가서 함께 가서 제지내. 그 할아버지 자손 먼 가지라도 모두 그 묘제해서 가지. 가는 사람 가고 다시 못 가는 사람 못 가고.)

112064 @ 응, 봄에?(응, 봄에?)

112064 # 응, 봄에. 옛날은 삼월 보름에도 허곡 따시 삼월 책멩에도 허곡 흔이

---

287) ‘지제’는 제사를 그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3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 윗대의 조상의 제사를 묘제로 지낸다. 제보자는 같은 뜻의 단어를 ‘친제’라고 말하고 있다.

엇어, 그거 막, 그디 해영. 우리 집인 딱 흠치 들으민 흐루 그 모젤 혼 서너네 밧디서 먹주게. 경허민 그디 다 각각이 갈랑 가주게.(응, 봄에. 옛날은 삼월 보름에도 하고 다시 삼월 청명에도 하고 한이 없어, 그거 막, 거기 해서. 우리 집은 딱 한꺼번에 들으면 하루 그 묘제를 한 서너 군데서 먹지. 그러면 거기 다 각각이 갈라서 가지.)

112064 @ 묘제를 서너니 군디 강 먹는다고?(묘제를 서너 군데 가서 먹는다고?)

112064 # 그 방상에 막 옷대에 강칩이나 우리 강칩이난 강칩이 옷대 느려오던 츠상덜 신 디 곧는 딴 우리 저 조천이라.(그 일가붙이에 막 옷대에 강씨 집이나 우리 강씨 집이니까 강씨 집에 옷대 내려오던 조상들 있는 데 말하는 덴 우리 저 조천이야.)

112064 @ 아.(아.)

112064 # 조천 막 큰 디 이신디, 그디 가곡. 따시 그 알 가지 그 하르방 아덜 흐는 디민 아덜 흐는 디 가곡 손지 허는 디민 손지허는 디 가곡 경허난 여러 가지 가는 거라.(조천 막 큰 데 있는데, 거기 가고. 다시 그 아래 가지 그 할아버지 아들 하는 데면 아들 하는 데 가고 손자하는 데면 손자 하는 데 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는 거야.)

112064 @ 아.(아.)

112064 # 옛날은.(옛날은.)

112064 @ 예.(예.)

112064 # 저디 그 저 봉개 어딘가 현 딴 그디ㄴ라 옛날은, 이젠 봉개주만은 것ㄴ라 조천, 조천 어딘가 현 딴 막 크주.(저기 그 저 봉개 어딘가 한 데 거기보고 옛날은, 이젠 봉개지만은 그것보고 조천, 조천 어딘가 한 덴 막 크지.)

112064 @ 예.(예.)

112064 # 우리도 그 귀경 강 오고. 그딴 막 제관도 사름 여러 개난 제관도 막 여러 사름. 큰 디 해냥 밥 못허난 벤또<sup>288)</sup>, 돈덜 몬 메와냥 해근에 허민 저 벤또로.(우리도 그 구경 가서 오고. 거긴 막 제관도 사름 여러 개니까 제관도 막 여러 사름. 큰 데 해놔서 밥 못하니까 도시락, 돈들 모두 메워놔서 해서 하면 저 도시락으로.)

112064 @ 벤또로?(도시락으로?)

112064 # 응, 벤또 상 그거 흐나씩.(응, 도시락 싸서 그거 하나씩.)

112064 @ 아.(아.)

112064 # 아이고, 그디 막 강칩이 제주도 안네 강칩이 다 가놓민 잘도 해주.(아이고, 거기 막 강씨 집에 제주도 안의 강씨 집에 다 가놓으면 아주 많지.)

112064 @ 응. 그믄 그건 누게가 제물이영 다 출려? 식게허젠 허는 거.(응. 그러면 그건 누가 제물이랑 다 차려? 제사하려고 하는 거.)

112064 # 그, 그 돈 메와냥 허곡. 그 하르방이 옛날에 그디 남밧이 막 거시기

288) ‘벤또’는 도시락의 일본어 ‘べんとう’에서 온 말이다.

조천에 남بات이 혼 오백, 오천 켤 허주게.(그, 그 돈 메와와서 하고.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거기 나무 밭이 막 거시기 조천에 나무 밭이 한 오백, 오천 켤하지.)

112064 @ 응.(응.)

112064 # 그 밭디 그디 사름 큰 집 혼나 짓어와근에 그디 사름 살명, 그 산 ㄱ꾸곡, ㄱ꾸곡.(그 밭에 거기 사람 큰 집 하나 지어와서 거기 사람 살면서, 그 산 ㄱ꾸고, ㄱ꾸고.)

112064 @ 예, 허는 사름이 잇구나.(예, 하는 사람이 잇구나.)

112064 # 그 사름 정해낭.(그 사람 정해와서.)

112064 @ 정해낭.(정해와서.)

112064 # 응.(응.)

112064 @ 돌아가명 허는 게 아니고.(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112064 # 돌아가명 안 허는 거. 사름 정해낭 그디 해영 그디 살민 잘허는 사름 그디서 애기덜 공부라도 시키주. 그 남بات 크난. 옛날은 미깡남بات행 싱겨놓난, 미깡 남 бат디 수확이 나지. 혼 오천 켤 허난 수확 나지 안허여. 그거 ㄱ꾸민 그디 묘제 지내, 일년에 혼 번 허는 거난. 묘제 지내곡 그디 공짜로 살곡 그 애기덜, 그 수입 나는 걸로 살곡.(돌아가면서 안 하는 거. 사람 정해와서 거기 해서거기 살면 잘하는 사람 거기서 아기들 공부라도 시키지. 그 나무 밭 크니까. 옛날은 굴나무 밭해서 심어 놓으니까, 굴나무 밭에 수확이 나지. 한 오천 켤 하니까 수확 나지 않아. 그거 ㄱ꾸면 거기 묘제 지내. 일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묘제 지내고 거기 공짜로 살고 그 아기들, 그 수입나는 걸로 살고.)

112064 @ 거 문중밧이짜, 게난?(그거 문중밧입니까, 그러니까?)

112064 # 응. 문중 거 제 허는 할망덜 밧이난, 옛날 밧덜.(응. 문중 거 제 하는 할머니들 밧이니까, 옛날 밧들.)

112064 @ 아. 경행 묘제허는구나예?(아. 그렇게 해서 묘제하는군요?)

112064 # 응. 경허민 그 막 그 옛날에 강씨 하르방, 도룻밧<sup>289)</sup> 강씨 하르방 체암 온 하르방덜은 경허곡 그 하르방 아덜덜은 가지가지 허민, 가지가지 허민 따시 즈손 해 가민, 친제허는 거, 묘제허는 디 이디도 허곡 저디도 허곡 허민 다 가고.(응. 그러면 그 막 그 옛날에 강씨 할아버지, ‘도룻밧’ 강씨 할아버지 처음 온 할아버지들은 그렇고 그 할아버지 아들들은 가지가지 하면, 가지가지 하면 다시 자손 해 가면, ‘친제’하는 거, 묘제하는 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면 다 가고.)

112063 @ 친제 무신거?(‘친제’는 무엇?)

112063 # 친제게 그 안 해근에게 친제 해볼민, 제사 안 허는.(‘친제’는 그 안 해서 ‘친제’ 해버리면, 제사 안 하는.)

112063 @ 아, 아까 맞아, 친제. 몇 대까지 제사해근에 친제허는 거파?(아, 아까 맞아, 친제. 몇 대까지 제사해서 ‘친제’하는 겁니까?)

112063 # 몇 대사 셔? 오대?(몇 대야 있어? 오대?)

289) ‘도룻밧’은 성산읍 삼달리 지명이다.

112063 @ 오대?(오대?)

112063 # 응. 오대 허는 사람도 싯곡 그건 혼이 서? 요새에 스대에도 허곡 삼대에도 허곡 이대에도 허곡.(응. 오대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한이 있어? 요새에 사대에도 하고 삼대에도 하고 이대에도 하고.)

112063 @ 요즘엔 삼대, 고조까지 헌텐 허는디.(요즘엔 삼대, 고조까지 한다고 하는데.)

112063 # 옛날은 고조까지 해나신디, 스대 허는 이제 스대에도 허곡. 삼대에도 허곡 따시 안 허는 사람은 이대에도 허곡.(옛날은 고조까지 했었는데, 사대 하는 이제 사대에도 하고. 삼대에도 하고 다시 안 하는 사람은 이대에도 하고.)

112063 @ 하하하. 아방 어떻 제사만 해? 아방 어떻 식계만 허고?(하하하. 아버지 어머니 제사만 해? 아버지 어머니 제사만 하고?)

112063 # 경허는디 이서. 경허는디 시난 시방도 그거 아덜, 그 큰아덜 죽언에 시방 서귀포에 죽언에.(그러닌 데 있어. 그런 데 있으니까 시방도 그거 아들, 그 큰아들 죽어서 시방 서귀포에 죽어서.)

112063 @ 아.(아.)

112063 # 당, 이제 게난 죽은아덜이 제살 말안 큰아덜이 안 돼난 죽은아덜이 제 말아간디 어떻 아방만 거 당대 할망 하르방만 합제헨 험젠.(당, 이제 그러니까 작은아들이 제사를 말아서 큰아들이 안 되니까 작은아들이 제 말아갔는데 어머니 아버지만 그거 당대 할머니 할아버지만 합제해서 한다고.)

112063 @ 그 웃대 하르방덜은 식계 안허고?(그 웃대 할아버지들은 제사 안하고?)

112063 # 아니헿 친제헿 설러불고. 친제도 안허곡 그자 친제헿 설러부난 모제도 안허고 그냥 설러불엇주. 당대에 경헿 설러불고.(안 해서 ‘친제’해서 그만두고. ‘친제’도 안 하고 그냥 친제해서 그만뒀버리니까 묘제도 안 하고 지냥 그만뒀버렸지. 당대에 해서 그만뒀 버리고.)

112063 @ 응. 아이고 이젠예 어제 나도 이디 상난 디 갓다와신디예.(응. 아이고 이젠요 어제 나도 여기 상난 데 갓다 왔는데요.)

112063 # 어디?(어디?)

112063 @ 친척 누계 돌아가셔가지고.(친척 누구 돌아가셔가지고.)

112063 # 어디라?(어디야?)

112063 @ 조천. 시택에. 경혜신디 양지공원 강예 확혜부난예.(조천. 시택에. 그랬는데 양지공원 가세요. 확 해버리니까요.)

112063 # 슬앙 그자 확헿. 경 돼주게.(사라서 그저 확해서. 그렇게 되지.)

112063 @ 꾯. 완전예.(끝. 완전요.)

112063 # 꾯이.(끝이.)

112063 @ 예. 혼 뗏 시간. 옛날엔 장밋디 강예 막 흑 해 가명 막 혜신디 혼 두세 시간이란 꾯나불언.(예. 한 뗏 시간. 옛날엔 장지에 가세요 막 흑 해 가면서 막

했었는데 한 두 세 시간이니까 끝나버렸어.)

112063 # 아, 경허난 요새 사름덜은 계난 큰아덜이엔 돈 버슬영 줄 필요 엇텐 허는 거라. 아무것도 안 허난 무시거 이덕에. 그자 돈 버슬영 젊은 사름덜 먹고 쓰고 허당 내불주. 돈 벌영 죽으면 무시거넌 곱암시네, 다.(아,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그러니까 큰아들이라고 돈 벌어서 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엇 자기에. 그냥 돈 벌어서 젊은 사람들 먹고 쓰고 하다가 내버리지. 돈 벌어서 죽으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지, 다.)

112063 @ 응.(응.)

112063 # 경 안허여게. 무신 제스허영 지내도 어멍 아방 합제헤영, 오닐 아방 허영 죽영 십 년이 돼민 올리헤근에 그추룩 헤근에, 양지공원 술앙 올려불영 식켈 혼 번험시냐? 아방광 당대에 헤근에 합제헤 불민 그 죽영 몇 십년 쉰 할망 하르방을 좇아가지느냐? 좇아가지도 못허는디 합제헿 설러불고. 정허난 도렌은 안 험주마는 우리 동네 경 하도 해노난에 돼질 안허여.(그렇지 않아. 무슨 제사해서 지내도 어머니 아버지 합제해서, 오늘 아버지 해서 죽어서 십 년이 되면 올해해서 그렇게 해서, 양지공원 사라서 올려버려서 제사를 한 번 하고 있니? 아버지와 당대에 해서 합제해 버리면 그 죽어서 몇 십 년 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니?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합제해서 그만두고. 그러니까 달라고는 안 하지마는 우리 동네 그렇게 하도 해놓으니까 되지 않아.)

112063 @ 응.(응.)

112063 # 큰아덜을 폴안에 애기 오누이 나난 딸도 어디 미국 간 설러불고, 아덜은 어디 일본으로 어디 월남으로 텅견 돈 버슬언, 아덜은 하나 신 거엔 그 깡패축에 들언 죽게 얻어맞음만 어디 시방도 어디 아방은 죽어도 안 왓젠 허고 시방 경헿 설러부난 그디 아덜 다섯 성제난 성제 죽언 이번ㄱ장 세 성제 죽어부난 그 죽은아덜 성제가 시난 그 아덜덜이영 딸덜, 딸덜 다섯 오누이, 딸 다섯 성제, 아덜 다섯, 열 오누이 난에 그거 아덜덜이, 딸덜은 아니고, 아덜덜이 경 안 돼비엇주게. 안 웨어비난 시방 성제간덜만 고생.(큰아들 팔아서 아기 오누이 나니까 딸도 어디 미국 가서 그만두고, 아들은 어디 일본으로 어디 월남으로 다녀서 돈 벌어서, 아들은 하나 있는 거라고 그 깡패에 들어서 죽게 얻어맞음만 어디 시방도 어디 아버지는 죽어도 안 왔다고 하고 시방 그렇게 해서 그만둬 버리니까 거기 아들 다섯 형제니까 형제 죽어서 이번까지 삼 형제 죽어버리니까 그 작은아들 형제가 있으니까 그 아들들이랑 딸들, 딸들 다섯 오누이, 딸 다섯 형제, 아들 다섯, 열 오누이 낳아서 그거 아들들이, 딸들은 아니고, 아들들이 그렇게 안 되어 버렸지. 안 되어 버리니까 시방 형제간들만 고생.)

112063 @ 응.(응.)

112063 # 하르방은 구십 난 할망은 어디 병원에 잇고 따시 팔십 으답 난 할망은, 하르방은 매날 할망 밋디 갖다 왔다 돌아댕기고.(할아버지는 구십 난 할머니들은 어디 병원에 잇고 다시 팔십 여덟 난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매일 할머니 밋에

갔다 왔다 돌아다니고.)

112063 @ 응. 거난 조상을 잘 모셔사 후손도 잘 되는 거주예?(응. 그러니까 조상을 잘 모셔야 후손도 잘 되는 거지요?)

112063 # 계난, 계난 물 혼 직이라도 그거 당대에 그거 친제행 설러볼 거냐? 어명, 시어명, 시아방을게 당대에 행 설러볼 거냐? 것도 삼대만 스대만 돼건 헐 거 아니냐?(그러니까, 그러니까 물 한 모금이라도 그거 당대에 그거 ‘친제’해서 그만뒀 버릴 거니?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당대에 해서 그만뒀 버릴거냐? 그것도 삼대만 사대만 되면 할 거 아니냐?)

112063 @ 응.(응.)

112063 # 계난, 그 옷대 하르방도 그 친제 안 현 때 혼 삼대 뒀난 것도 친제행 설러볼고. 따시 또 이제 당 할망 하르방도 친제행 설러볼고. 우리여에 웨시할망, 시하르방 뒀 거.(그러니까, 그 옷대 할아버지도 그 ‘친제’ 안 한 때 한 삼대 되니까 그것도 ‘친제’해서 그만두고. 다시 또 이제 당 할머니, 할아버지도 ‘친제’해서 그만두고. 우리대에 외시할머니, 시할아버지 뒀 거.)

112063 @ 응.(응.)

112063 # 계난 안 뒀여, 안 뒀여 허난, 그 즉시 안 되는 게 아니고 낭중을 봐야는 거라.(그러니까 안 돼, 안 돼 하니까, 그 즉시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중을 봐야는 거야.)

112063 @ 응.(응.)

112063 # 낭중을. 나 어처낙이 연속극 본 말, 아홉시 연속극 헐에 그 주말 연속극인디 공일날, 토요일날 허는 연속극. 그 시방 경행 막 아덜로 안 뒀연 헤비어도 옛날에 이녀 남편 산 때에 애기덜은 막 두리고 경 회사 출런 허단 보난에 못허난에, 이제 망해가도 이녀 반지, 각시 반질 다 빼가곡, 깡패 만난 다 빼가곡 해도 그 깡패, 그 남저가 그 각시 반지 빼가곡 허는 거, 깡패 두드리나 무시거나 헐 거주마는 그 사름이 막곳엔 알안 보난에 이제 아방인가, 어멍인가, 아방이주 아판 막 죽어가도 수술허젠 해도 돈 엇언 수술을 못허난 이젠 이녀는 못 살아도 그 사름을 도와쥬 나두난, 이젠 그 안 뒀 이제 도와준 사름은 죽언에 이거 혼 삼십 년이 뒀디 그 옛날에 도와준 사름이 어처낙은 보난 돈 아져왔어. 멧 억을 아져왔어. 계난 이거 옛날에 헤영 곱게 살앙 봐두민 막곳엔 덕이 돌아와. 계난 경현 사름이 시난 그거 연속극 나온 거 아니냐?(나중을. 나 엇저녁에 연속극 본 말, 아홉시 연속극 해서 그 주말 연속극인디 공일날, 토요일날 하는 연속극. 그 시방 그렇게 해서 막 아덜로 안 되어서 헤버려도 옛날에 자기 남편 살았을 때에 아기들은 막 어리고 해서 회사 차려서 하다 보니까 못하니까 이제 망해가도 자기 반지, 각시 반지를 다 빼어서 가고, 깡패 만나서 다 빼어서 가고 해도 그 깡패, 그 남자가 그 각시 반지 빼어서 가고 하는 거, 깡패를 두드리나 무엇이냐 할 거지마는 그 사람이 마지막엔 알아보니까 이제 아버진가, 어머인가, 아버지지, 아파서 막 죽어가도 수술하려고 해도 돈 없어서 수술을 못하니까 이젠 자기는 못 살아도 그 사람을 도와쥬서 봐두니까, 이젠 그



안 된 이제 도와준 사람은 죽어서 이거 한 삼십 년 되었는데 그 옛날에 도와준 사람이 엿저녁은 보니까 돈 가져왔어. 몇 억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해서 곱게 살아서 놔두면 마지막엔 덕이 돌아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연속극 나온 거 아니냐?)

112063 @ 하하하.(하하하.)

112063 # 우리 집이 하르방도 옛날에 서울 간 살명, 혼 십 년 헨 살 때에 서울 간에 집 말안 변호서 집을 말안 짓은 모양이라.(우리 집의 할아버지도 옛날에 서울 가서 살면서, 한 십 년 해서 살 때에 서울 가서 집 말아서 변호사 집을 말아서 지은 모양이야.)

112063 @ 예.(예.)

112063 # 짓으난 거 당 걸런 죽어가명 집을 짓으난 당 걸려나도 그 사름도 변호서엔 집은 짓어도 아멩해도 돈 줄 게 엿은ㄴ라 이제 목시 돈 혼 방울도 안 받은 내벼된 그냥 오라부난, 이젠 혼 이십오 년은, 이십 년은 똬난에 이젠 하르방이 문중 강첩이 문중 이제 휘장이 똬난 이제 소분밧<sup>290)</sup>, 종손이 소분밧 안 내난에 다 풀아 먹으난 문중재판을 헨. 재판을 허난에 시에서 허연 지언 이젠 대법원으로 이제 서울 가지 안헿어? 서울 가난에 이제 재판허레 가난 따시 그디서가 재판허는디 아무 변호설 만낭 가렌 허난에 만낭 보난 옛날에 집 짓어준 사름이라. 거 변호사가.(지으니까 그거 당 걸려서 죽어가면서 집을 지으니까 당 걸렸어도 그 사름도 변호사라고 집은 지어도 아무래도 돈 줄 게 없는지 이제 목수 돈 한 방울도 안 받아서 내버려 두고 그냥 와버리니까, 이젠 한 이십오 년은, 이십 년은 되니까 이젠 할아버지가 문중 강씨 집에 문중 이제 회장이 되니까 이제 ‘소분밧’, 종손이 ‘소분밧’ 안 내놔서 다 팔아먹어버리니까 문중재판을 헿어. 재판을 하니까 제주시에서 해서 지어서 이젠 대법원으로 이제 서울 가지 았았어? 서울 가니까 이제 재판하러 가니까 다시 거기서가 재판하는데 아무 변호사를 만나서 가라고 하니까 만나 보니 옛날에 집 지어준 사름이야. 그 변호사가.)

112063 @ 아.(아.)

112063 # 경허난 이제 그때 돈 천오백만 원을 아져오민 재판을 이겨주마 허난 천오백만 원 갓다주난 서울을 혼 번도 걸음 안 헿 그 재판을 이겨주더라.(그러니까 이제 그때 돈 천오백만 원을 가져오면 재판을 이겨주마 하니까 천오백만 원 갓다주니까 서울을 한 번도 걸음 안 하고 그 재판을 이겨주더라.)

112063 @ 응.(응.)

112063 # 이겨쥬, 천오백 내난, 재판 이겨쥬 놔두난 그 사름이 그 재판허멍 돈은 혼 일억, 그 사름이 돈 천만 원을 또 보내쥬. 경허난 그 헿 놔두민 언제라도 돌아오긴 돌아오는 거라. 혼 이십 년 안 해도.(이겨쥬어, 천오백 내니까, 재판을 이겨쥬어, 놔두니까 그 사름이 그 재판하면서 돈은 한 일억, 그 사름이 돈 천만 원을 또 보내쥬. 그러니까 그 해서 놔두면 언제라도 돌아오긴 돌아오는 거야. 한 이십 년 안

290) ‘소분밧’은 조상 제사를 모시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했던 밭이다.

해도.)

112063 @ 아.(아.)

112063 # 계난 어처낙 허는 거 보난 그 행 놔두민, 엇은 사름 도와쥬 놔두민 막  
끗엔 행복이 돌아오는 거라. 어처낙도게 아덜 때문에 죽은아덜 그 집헐 허난 아무  
것도 못허는 아덜 미국 간에 저 거시기 건축가 말안 허단 보난 그 사장은 그 사름  
혜장은 돈을 흔 백억을 빚전 돌아나분 거 아니냐? 계난 어멍은 백억 쥬 해도 아덜  
청춘, 아덜을 살리주 나 집광 집터, 그 사름은 아빠뜨도 하나하고 식당 하나 있더라  
고. 어멍이 아방이 죽은 후제 버슬언에 아기덜, 아기덜은 이녁 난 애긴 아덜 성제에  
딸 하나고, 죽은아방 봉강 온 애긴, 이녁 아기덜은 큰아덜 하나만 공부허연 큰딸도  
공부 안 시겨, 죽은아덜도 안 시겨. 큰딸은 따시 또 대학은 안 행 병원장허렌 헐 공  
불 시견 놔두난 돈은 이익은 들어도 공부 안헐 딸은 걸렁이질, 이녁 난 딸은 걸  
렁이 돼부난. 이젠 따시 또 아덜은 정허단 보난 들어갈 거 아냐?(그러니까 엇저녁  
하는 거 보니까 그 해서 놔두면, 엇는 사름 도와쥬서 놔두면 마지막엔 행복이 돌아  
오는 거야. 엇저녁도 아들 때문에 작은아들 그 집해서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아  
들 미국 가서 저 거시기 건축가 말아서 하다 보니 그 사장은 그 사름 혜장은 돈을  
한 백억을 빚져서 도망가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머니는 백억 쥬서 해도 아들  
청춘, 아들을 살리지 나 집과 집터, 그 사름은 아파트도 하나하고 식당 하나 있더라  
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벌어서 아기들, 아기들은 자기 낳은 아긴 아들 형  
제에 딸 하나고, 작은아버지 주워온 아긴, 자기 아기들은 큰아들 하나만 공부해서  
큰딸도 공부 안 시겨, 작은아들도 안 시겨. 큰딸은 다시 또 대학은 안 하고 병원장  
하라고 해서 공부를 시켜서 놔두니까 돈은 이익 들어도 공부를 안 해서 딸은 거지  
질, 자기 낳은 딸은 거지 돼버리니까. 이젠 다시 또 아들은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거 아니냐?)

112063 @ 응.(응.)

112063 # 들어가난 어멍이 아빠뜨영 그 식당이영 몬 풀안에 이젠 아덜을 또 내  
놔 놔둘 거 아냐? 계난 딸광 큰아덜은, 계난 딸은 이젠 나 죽기살기 해놔두난에 이  
제 나 직신 무시겨 시넌 어멍 원망헐 거 아니냐 허멍 막 해가난 이번은 돈 내놓난  
에 어멍이 딱 잡안 이젠 나 거 이젠 나가 이젠 옛날에 버슨 거 너희덜 하나도 건드  
리지 말렌 딱 자차전 촌에 간 이건 집 짓곡 밧 산 촌에 강 살켄. 경허난 이젠 큰아  
덜은 따시 또 직장허단 거 내비팅 어멍 딱랑. 아이고 나 기가 맥헐, 경허난이 사름  
이 악하게 살질 말아야.(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아파트랑 그 식당이랑 모두 팔아서 이  
젠 아들을 또 내놔서 놔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딸과 큰아들은, 그러니까 딸은 이  
젠 나 죽기살기 해놔두니까 이제 내 것은 무엇 있냐고 어머니 원망헐 거 아니냐 하  
면서 막 해가니까 이번은 돈 내놓으니까 어머니가 딱 잡아서 이젠 내 거 이젠 내가  
이젠 옛날에 번 거 너희들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딱 갖혀져서 촌에 가서 이건 집  
짓고 밧 사서 촌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젠 큰 아들은 다시 또 직장하던 거  
내버려두고 어머니 따라서. 아이고 나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사름이 악하게 살질

말아야.)

112063 @ 예.(예.)

112063 # 계난 선허게 살앙 놔둬. 우리집잇 하르방도이 가는 사름도 먹읍서, 오는 사름도 먹읍서 헤영 목시질 허레 텅기난 목시질 헤도 돈 안 받곡, 그디 강 늠덜은 삼시 먹어도 조반도 집이서 먹영 가곡 저녁도 집이서 먹영, 아, 하르방 강 그디 강 저녁 먹주 허민, 예, 집이서 먹어야주 허멍, 아, 저녁도 안 먹영 집이서 꼭, 점심 혼 때만 얻어 먹으멍 경 늠이 일만 경 흐레 텅기단.(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서 놔둬. 우리집의 할아버지도 가는 사람도 드세요, 오는 사람도 드세요 해서 목수질 하러 다니니까 목수질 해도 돈 안 받고, 거기 가서 남들은 삼시 먹어도 조반도 집에서 먹어서 가고 저녁도 집에서 먹어서, 아, 할아버지 가서 거기 가서 저녁 먹지 하면, 예, 집에서 먹어야지 하면서, 아, 저녁도 안 먹어서 집에서 꼭, 점심 한 끼만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남의 일만 그렇게 하러 다니다가.)

112063 @ 못살게.(못살게.)

112063 # 날 못살게.(나를 못살게.)

112063 @ 계난 할쁘니 못살게 굶으로 그디 강 먹으믄 좋주예?(그러니까 할쁘니 못살게 굶으로 거기 가서 먹으면 좋지요?)

112063 # 계메, 정허멍 가는 사름도 먹읍서, 오는 사름도 먹읍서 하르방이 경, 아이고.(그러게, 그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도 드세요, 오는 사람도 드세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이고.)

112065 @ 이런 제사, 식게 허젠 허민 뭐 금기, 허지 말라 허는 건 엇수과? 식게 혈 때 이런 건 허지 말라.(이런 제사, 제사 하려고 하면 뭐 금기, 하지 말라 하는 건 없습니까? 제사할 때 이런 건 하지 말라.)

112065 # 이런 거 허지 말렌은 무시거 안 허는 거 허민 허지 말렌 허주게, 무신.(이런 거 하지 말라고는 무엇 안 하는 거 하면 하지 말라고 하지, 무슨.)

112065 @ 몸 굶이민 뭐 떡허지 말라 이런 것도.(몸 굶으면 뭐 떡하지 말라 이런 것도.)

112065 # 떡허지 말렌 안헿게 옛날은 엇이민 그냥 잣긋떡허당도 조개송편만 한 때도 싯곡 따시 또 뭐 엇이민 빙만 지정 혈 때도 싯곡 허는 거주.(떡하지 말라고 안 하고 옛날은 없으면 그냥 ‘작긋떡’하다가도 조개송편만 한 때도 있고 다시 또 뭐 없으면 빙떡만 지져서 할 때도 있고 하는 거지.)

112065 @ 엇이민, 떡 엇이민?(없으면, 떡 없으면?)

112065 # 응. 뭐 엇이민 경허는 거주 거 무신, 시민 신 대로 옛날 허는 거주 경 허지 말라 허영 허진 안허여.(응. 뭐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무슨, 있으면 있는 대로 옛날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 해서 하진 않아.)

112065 @ 아니, 거 아니고, 어디 장밋디 잣다오민 안 웬다.(아니, 그거 아니고, 어디 장지에 갔다 오면 안 된다.)

112065 # 부정헌텐.(부정하다고.)

112065 @ 거난 부정헌 디 가민 안 웬다.(그러니까 부정헌 데 가면 안 된다.)

112065 # 안 웬텐 거 제에 허는 건 못 문직주게.(안 된다고 그거 제에 하는 건 못 만지지.)

112065 @ 기지예?(그렇지요?)

112065 # 제도 안 지내곡.(제도 안 지내고.)

112065 @ 널 우리 식게여 영허민 몸 굿이는 디 가민 안 뉘여예?(내일 우리 제 사다 이렇게 하면 몸 굿은 데 가면 안 되지요?)

112065 # 못 가, 못 가주게. 잔치할 때도 못 가곡, 부정헌 디.(못 가, 못 가지. 잔치할 때도 못 가고, 부정헌 데.)

112065 @ 부정헌 딴 가민 안 뉘여.(부정헌 덴 가면 안 돼.)

112065 # 영장 난 딴 안 가야주. 영장난 딴 흐는 사름이 정성이, 정성을 해야주. 잔치허는 사름이, 잔치허는 사름도 져, 흐 이삼일만 허민 져 허곡. 안 뎡기는 사름, 잔치허는 사름 안 뎡겨.(상 난 덴 안 가야지. 상 난 덴 하는 사름이 정성이, 정성을 해야지. 잔치하는 사름이, 잔치하는 사름도 제는, 한 이삼일만 하면 제는 하고. 안 다니는 사름, 잔치하는 사름 안 다녀.)

112065 @ 식게 때도 경 딱 해야 뉘여예?(제사 때도 그렇게 딱 해야 돼요?)

112065 # 응.(응.)

112065 @ 지경예?(지켜서요?)

112065 # 삼일 정성, 여라 날은 못 해도 삼일 정성은 해사주.(삼일 정성, 여러 날은 못 해도 삼일 정성은 해야지.)

112065 @ 삼일 정성은 해사주예.(삼일 정성은 해야지요.)

112065 # 해사주. 삼일 정성은 해야주. 게난 그 초가지 그든 건 그자 해영 흐쫄 흐 이틀, 흐 사흘만 뉘민 뉘도 이 당헌 종손은 삼일 정성은 흐 모리쫄에 제사허젠 허민 영장밧디 안 가야 허주. 제관도 안 가고.(해야지. 삼일 정성은 해야지. 그러니까 그 아래 가지 같은 건 그저 해서 조금 한 이틀, 한 사흘만 되면 되어도 이 당헌 종손은 삼일 정성은 한 모래쫄에 제사하려고 하면 장지 안 가야 하지. 제관도 안 가고.)

112065 @ 늬의 집이 제관도 안 사고?(남의 집에 제관도 안 서고?)

112065 # 아니 이녁 집이 제관이라도 방상이라도 제지내젠 허민 안 가야여.(아니 자기 집에 제관이라도 일가붙이라도 제지내려고 하면 안 가야해.)

112065 @ 아, 방상에 식게에서도.(아, 일가붙이 제사에서도.)

112065 # 영장이 나도 안 가.(상이 나도 안 가.)

112065 @ 아, 영장이 나도.(아, 상이 나도.)

112065 # 못 가.(못 가.)

112065 @ 응.(응.)

112065 # 삼시, 삼헌 허젠 허민 게난 당 성제간은 그자 흐 서너 이만 빠도 제관 네 갠 빠야주게. 아메도 제관 엇은 집이 경 빠 줘야. 제지내젠 허민.(삼시, 삼헌 하

려고 하면 그러니까 당 형제간은 그저 한 서너 명만 빼도 제관 네 명은 빼야지. 아무래도 제관 없는 집은 그렇게 빼 줘야. 제지내려고 하면.)

112065 @ 응.(응.)

## 연구 참여자

| 이름  | 소속             | 분야         | 구분                  |
|-----|----------------|------------|---------------------|
| 김순자 | 제주학연구센터        | 국어학(제주도방언) | 연구 책임·총괄<br>표선면 성읍리 |
| 강영봉 | (사)제주어연구소      | 국어학(제주도방언) | 교열 및 감수             |
| 김미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국어학(제주도방언) | 조천읍 함덕리<br>성산읍 삼달리  |
| 김보향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국어학(제주도방언) | 구좌읍 한동리<br>애월읍 고내리  |
| 허영선 | 제주대학교 강사       | 한국학(제주역사)  | 표선면 성읍리             |
| 최연미 | 돌을양지책드르        | 국문학        | 남원읍 수망리             |
| 김승연 | (사)제주학연구소      | 한국학(제주무속)  | 서귀포시 하원리            |
| 김성용 | 귀일중학교          | 국어학(제주도방언) | 안덕면 대평리             |
| 신우봉 | 제주대학교          | 국어학(제주도방언) | 대정읍 신도리             |
| 안민희 | 민요패 소리왓        | 한국학(제주민요)  | 한경면 청수리             |
| 현혜림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 국어국문학      | 연구 보조               |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3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8년 12월 28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http://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